

# 韓國書院學報

제  
15  
호

韓國書院學會  
2022.12





## 목차

### ■ 기획논문 : 호계서원과 퇴계학과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 우인수 ◦ 7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강학 활동과 학풍 ..... 정재훈 ◦ 43

호계서원의 지식문화 인프라: 서적의 생산과 보급 ..... 김소희 ◦ 71

### ■ 일반논문

홍가신(洪可臣)의 인적 네트워크 ..... 김학수 ◦ 109  
: 화담학(花潭學)과 퇴계학(退溪學)의 경계

임란 이후 홍가신(洪可臣)의 활동과 인산서원 배향 ..... 이근호 ◦ 153

영주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건립과 퇴계 이황 제향의 의미 ..... 김의환 ◦ 179

숙종대 시호(諡號) 수여 방식의 변화 ..... 김현지 ◦ 225

최석정(崔錫鼎)의 강학 활동과  
청주(淸州)지역 소론(少論)계 서원(書院) ..... 고수연·홍제연 ◦ 255

조선후기 사충서원(四忠書院)의 건립과 운영 ..... 이경동 ◦ 285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 임근실 ◦ 317

조선시대 서원의 누각 도입과 정침 구현 ..... 조재모 ◦ 349

한국(韓國) 서원(書院)과 중국(中國) 서원(書院)의  
입지·공간구성(立地·空間構成)과  
유식공간(遊息空間)에 대한 비교연구(比較研究) ..... 김덕현 ◦ 379

作为儒教典范的宋代书院 .....	朱汉民	423
武冈二邓先生与晚清书院教育 .....	肖永明	443
岳麓书院祭祀四记 .....	邓洪波	461
17~18世纪中国书院的学术转型与官学化 .....	陳時龍	485
江戸儒學と社會 .....	南澤良彦·簡亦精	507
- 武士の書院と『孔子家語』という觀點から -		

## ■ 휘보

- 연혁·활동 보고 | 541
- 회칙 | 544
- 편집 규정 | 551
- 논문투고 규정 | 555
- 원고작성 규정 | 561
- 연구윤리 규정 | 565
- 임원 및 편집위원 | 569



## ■ 기획논문 : 호계서원과 퇴계학파

-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강학 활동과 학풍
- 호계서원의 지식문화 인프라: 서적의 생산과 보급



#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우인수\*

- I. 머리말
- II. 호계서원의 건립과 지위
- III. 원장 성분의 비교 분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퇴계 이황의 사후 그를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특히 그의 문인집단이 집중되어 있던 큰 고을인 안동에는 예안의 도산서원 건립과 비슷한 시기에 여강서원이 건립되었다. 여강서원은 추가로 안동 출신의 뛰어난 두 제자인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였으며, 후일 호계서원으로 사액되었다.

호계서원은 일찍이 屏虎是非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 되었으며, 근래에는 호계서원 자체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루려는 일련의 시도가 나타나 주목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호계서원의 복원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본 논문은 호계서원의 건립 과정과 호계서원이 안동 또는 경상도에서 지닌 지위를 검토함으로써 서원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하였다. 경상도의 거점 지역인 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으로서 안동 권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 명성에 맞게 소유한 경제력도 안동 내 보통 서원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원임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호계서원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호계서원의 원임록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에 걸쳐 약 60년 정도의 분량이 현전하고 있다. 이를 도산서원과 병산서원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호계서원의 위상을 객관적으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iswoo@knu.ac.kr

로 드러낼 수 있었다. 호계서원 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대부분 대과나 소과에 급제한 인물들이었는데, 그 비율이 두 서원의 경우보다 높았다. 그리고 호계서원장을 역임한 후 병산서원장에 선임된 경우가 22인, 도산서원장에 선임된 경우가 19인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호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이들의 위상이 대단히 뛰어난 명망가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계서원이 안동 나아가 경상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여강서원 호계서원 원장 도유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 I. 머리말

퇴계 이황은 경상도 풍기군수로 재직 시 고을에 세워진 백운동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승격시켜 나라의 공인을 받게 하면서 서원 설립의 기반을 닦았다. 그는 초창기 설립된 서원의 반 정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講學과 藏修라는 교학을 우선하면서 선현의 봉사를 겸하는 교학기관으로서의 서원 기능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sup>1)</sup>

이황의 사후 그를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그의 문인집단이 집중되어 있던 큰 고을인 안동에는 예안의 陶山書院 건립과 비슷한 시기에 廬江書院이 건립되었다. 여강서원은 후일 虎溪書院으로 사액되었다.

호계서원은 일찍이 屏虎是非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 되었다. 신석호는 안동 유림사회의 대립과 분열의 양상을 屏派와 虎派 간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병호시비의 전말을 다룬 바 있다.<sup>2)</sup> 이후 호계서원은 김학수와 설석규의 병호시비를 다룬 연구에서 늘 중심의 한 축으로 등

1)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37~47쪽.

2) 신석호, 「屏虎是非に就いて(上·下)」, 『청구학총』 1·3, 1930·1931.

장하였다.<sup>3)</sup> 그리고 한상우는 병호시비를 전후한 시기 상호 혼인 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sup>4)</sup>

근래에는 호계서원 자체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루려는 일련의 시도가 나타나 주목된다. 김학수는 여강서원에 배향과 추향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논란과 갈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바 있다.<sup>5)</sup> 김영나는 임원록을 분석하여 호계서원을 움직인 주도 세력과 운영 상황을 다룬 논고를 발표하였다.<sup>6)</sup> 그리고 호계서원 강회와 관련한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한 연구가 최광만과 김자운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sup>7)</sup>

최근에는 호계서원의 복원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호계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시행된 대대적인 서원훼철령으로 철폐된 이후 1973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서원 전체가 낙동강 강물 속에 수몰되었으며, 강당만 안동시 임하면으로 이전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9년 사당을 비롯한 서원 전체를 안동시 도산면에 복원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기존에 모신 이황·류성룡·김성일 외에 이상정을 더하여 총 4분을 모셨으나, 현재 이황의 위패가 빼내진 상태로 새로운 갈등이 빚어져 있는 형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호계서원의 건립 과정과 호계서원이 안동 또는 경상도에서 지닌 지위를 검토함으로써 서원 자체에 대

3)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2007;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2)－여강서원 치폐전말－」, 『퇴계학과 한국문화』 45, 2009.

4) 한상우, 「조선후기 향전을 통해 본 양반층의 친족, 혼인－안동의 병호시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1, 2013.

5)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17세기 초반의 묘향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6)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3, 2015.

7)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화활동 사례 연구－『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1, 2012;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의 위상과 강화활동」, 『유학연구』 55, 2021; 김자운·이우진, 「1765년 호계서원 『대학』강회 연구(1)」, 『민족문화논총』 79, 2021.

한 객관적인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 그리고 원임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호계서원의 특징을 고찰하는데, 특히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호계서원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 II. 호계서원의 건립과 지위

退溪 李滉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모시는 서원 설립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황의 근거지로서 많은 문인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만년의 강학처인 도산서당이 있는 예안현을 필두로 하여 역시 많은 문인이 포진한 큰 고을인 인접한 안동부의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서원 건립에 나서게 되었다.

안동의 경우 이황이 생전에 강론한 인연이 있는 장소가 우선으로 고려되어 동북쪽 廬山村 五老峯 아래 낙동강변의 白蓮寺 터가 낙점되었다. 백련사 터라고 했지만 소속 승려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다른 몇몇 서원의 경우와 같이 강압적인 조치가 취해졌던 듯하다.<sup>8)</sup> 서원의 터를 잡고 건립하는데는 학봉 김성일과 서애 류성룡을 위시하여 안동지역 퇴계 문인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다.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일재 김언기는 김성일과 함께 위망으로 승려들의 저항을 무산시켰는가 하면, 안동부사로 부임한 권문해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 서원 건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의 협조를 받는 일을 주선하였다.<sup>9)</sup>

8)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83쪽.

9) 李光庭, 『訥隱集』 19, 惟一齋金先生行狀, “退陶先生易簣五年, 而士林營建書院于廬江五老峰下, 首以先生爲洞主, 撤白蓮寺, 毀其佛像, 投之江, 僧徒初欲拒不受, 旣聞先生與鶴峯金先生來, 皆惶散云, 先生與同門諸先生, 講求矩矱, 累到陶山與本院, 參正規約, 又呈書于府伯草潤權公文海, 欲依退陶先生爲白雲洞, 上書方伯故事, 陞之爲國學, 其書數千餘言, 先生手筆也; 이수환, 앞의 책, 83쪽.

안동의 이 廬江書院은 예안의 도산서원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도산서원이 건립된 이듬해인 1575년(선조 8)에 80여간의 규모로 완공되었다. 이듬해 봄에 이황의 위패를 모심으로써 여강서원은 안동대도호부에 설립된 이황을 모신 서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김언기가 초대 원장을 맡았고, 류성룡은 봉안문을 썼으며, 조목은 상향축문을 작성하였다. 건물의 명칭은 구봉령이 붙였고, 題額의 글씨는 홍사제가 썼다. 남치리와 권우는 원규를 마련하였다.<sup>10)</sup> 이렇게 이황의 대표 문인들이 일을 분담하여 서원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런데 건립 후 30년이 지난 1605년(선조 38) 낙동강이 범람하는 대홍수로 인해 여강서원은 건물이 유실되는 큰 재해를 입었다. 곧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다시 짓게 되었다. 이 중건에는 영의정에서 물러나 있던 류성룡과 안동부사로 재직하던 김륙이 앞장섰다. 이때는 김성일·김언기·권문해·구봉령 등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류성룡은 안동부사 김륙의 헌신적인 지원과 정사성·김용·권춘란의 협조로 중건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여강서원 원장이었던 이형남에게 실무를 책임지고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 류성룡과 김륙의 권유를 받은 이형남은 새로운 서원 터의 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를 담당하였다. 드디어 1606년(선조 39)에 원래 터에서 북쪽으로 약간 옮겨 서원을 중건하고, 이듬해 위패를 새로 봉안하였다.<sup>11)</sup>

여강서원이 설립된 시기인 16세기 무렵 경상도 내지는 안동부 내에서 가진 위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서원을 일별하는 것이 한 방법일 듯하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 서원이 설립된 것은 주세붕이 풍기에 세운 안향을 모시는 백운동서원이 효시이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서원이 활발하게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뒤에 풍기군수로 재임하던 이황이 백운동서원의 국가 공인을 청하여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은 후부터였다. 사립과의 기반과

10) 『廬江志』 1, 「立院事實」;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17세기 초반의 모향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11) 김학수, 위의 논문, 1998.

조직력 확대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둔 이황의 관심과 후원 속에 각지에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선으로 서원에 모셔진 인물은 당연히 문묘에 종사 되어 국가의 공인을 받은 학자이기 마련이었다. 설총·최치원·안향·정몽주와 같은 문묘에 종사 된 현인을 비롯하여 고려대의 학자인 우탁·길재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사림파로서 사회에 희생된 대표적인 학자나 관료로 꼽히는 김굉필·김일손·정여창·김안국·권벌·이언적·이황 등이 연고지를 대상으로 제향의 대상이 되었다. 이어 광해군대에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 5현이 문묘에 종사 되면서 이들을 모신 서원은 사액서원으로 공인받으면서 더욱 번성하거나, 새롭게 여러 곳에 건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서원 건립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6세기에 경상도 지역에 세워진 서원의 건립 현황을 지역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서원으로 설립되거나 昇院된 연도가 16세기에 해당하는 서원에 한하였다. 정리의 편의를 위해 경상도의 진관체제를 준용한 권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진관체제에 따른 권역의 구분은 당시 사회에 작동되고 있던 군현간의 위계질서나 연락체제의 실재를 염두에 둔 것이다.

<표 1> 16세기 경상도 지역의 서원 현황

권역	서원	군현	건립연도	사액연도	대표적 제향 인물
안동권	白雲洞(紹修)書院	풍기	1543	1550	안향
	長川(水溪)書院	의성	1556	1576	김안국 이언적
	伊山書院	榮川	1559	1574	후일 이황 제향
	金谷書院	예천	1568	-	박충좌
	易東書院	예안	1570	1683	우탁
	陶山書院	예안	1574	1575	이황
	廬江(虎溪)書院	안동	1575	1676	이황 류성룡 김성일
三溪書院	안동	1588	1660	권벌	



경주권	臨臯書院	영천	1553	1554	정몽주
	西岳精舍(書院)	경주	1561	1623	김유신 설총 최치원
	畫巖(研經)書院	대구	1564	1660	후일 이황 제향
	禮林書院	밀양	1567	1669	김종직
	道東書院	현풍	1568	1573	김굉필
	玉山書院	경주	1573	1574	이언적
	紫溪書院	청도	1576	1661	김일손
	烏川書院	연일	1588	1613	정습명 정몽주
상주·성주권	迎鳳(川谷)書院	성주	1558	1573	정자 주자 김굉필
	金烏書院	선산	1572	1575	길재
	吳山書院	인동	1588	1609	길재
진주권	濼溪書院	함양	1552	1566	정여창
	淸溪書院	초계	1564	-	이희안
	德川書院	산청	1576	1609	조식
	浦帖書院	함양	1581	1660	노진
	龍門書院	안의	1583	1662	정여창
	伊淵書院	합천	1587	1660	김굉필 정여창

〈표 1〉에서 보듯이 16세기 경상도에 세워진 서원은 총 25곳 정도이다. 안동권과 경주권이 가장 많아 각 8곳이고, 진주권이 6곳, 상주권이 3곳이다. 그만큼 안동은 서원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선진지역에 속하였다. 이는 서원 설립을 주도한 이황이 안동권에 속한 인물이었던 것과도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호계서원은 바로 이 안동권의 거점 지역인 안동대도호부에 위치한 서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였다. 안동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서원이라는 점도 돋보이고, 또 제향 인물이 이황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면이 있었다.

17·18세기에도 서원의 설립은 계속되었고, 배향되는 인물도 크게 확대되어 갔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서원이 번성하여 서원의 극성기에 해당하였다. 한 인물이 곳곳의 여러 서원에 모셔지는 疊設도 문제가거니와 서원 건립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인물이 제향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다.

여강서원에서는 1620년(광해군 12)에 이황의 뛰어난 안동 출신 제자인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게 되었다. 배향의 位次를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황을 중앙에 둔 상태에서 류성룡을 동쪽, 김성일을 서쪽에 모시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12)</sup> 당시 류성룡의 위패는 풍악서당에서 승원된 병산서원에서 모셔오고, 김성일의 위패는 臨川齋에서 승원된 임천서원에서 모셔오게 되었다.<sup>13)</sup> 김성일을 모신 임천서원은 서책과 토지를 모두 여강서원으로 이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류성룡의 경우는 병산서원에 있던 위패를 여강서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병산서원에는 위패가 없는 상태였는데, 한 군현에 두 개의 위패를 둔 주자의 예에 근거하여 1629년(인조 7) 병산서원에 별도의 위패를 새로 만들어 모시게 되었다. 즉 류성룡은 같은 안동 관내인 호계서원과 병산서원 두 곳에 모셔지게 된 것이다.<sup>14)</sup>

1676년(숙종 2)에 여강서원은 '虎溪書院'으로 사액 되었다. 이때부터 '호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사액서원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도산서원보다 100년 정도 늦은 셈인데, 바로 이웃 고을에 퇴계를 모신 사액서원으로 있어서 첩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종 말년의 제 2차 예송으로 인해 서인이 몰려나고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게 된 숙종 초년의 정치적 상황에서 사액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사액으로 인해 호계서원의 위상이 한층 확고해지고 높아지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전 시기인 16세기에 비해 많이 늘어난 17·18세기 서원 설립의 상황은 안동 권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sup>15)</sup> 여기서 안동 권역이란 조선 후기 진관체제에서의 안동진관에 속한 군현의 범위를 원용하였다.<sup>16)</sup>

12) 류성룡과 김성일의 배향을 둘러싼 논란과 진행 과정은 김학수의 논문에 자세하게 논증되어 있어 본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김학수, 위의 논, 1998.

13) 김령, 『국역 계암일록』 3, 1620년(광해군 12) 10월 10일, 한국국학진흥원, 2013.

14) 이수환, 「17·18세기 안동 병산서원의 사회·경제적 기반」, 『교남사학』 3, 1987, 163~164쪽.

15) 『增補文獻備考』 213, 「學校考」12, 各道祠院 경상도.

〈표 2〉 17·18세기 안동 권역의 서원

지역	서 원
안동대도호부	虎溪書院 三溪書院 周溪書院 鏡光書院 靑城書院 屏山書院 魯林書院 泗濱書院 道淵書院 道東(龜溪)書院 德峯書院 默溪書院
영해도호부	丹山書院 仁山書院
청송도호부	屏巖書院 松鶴書院
순흥도호부	紹修書院 丹溪書院
예천군	鼎山書院 鳳山書院 道正書院
榮川郡	伊山書院 三峯書院 壯巖書院 迂溪書院 義山書院
풍기군	郁陽書院 愚谷書院
의성현	水溪書院 藏待書院
영덕현	南江書院
봉화현	文巖書院
예안현	易東書院 陶山書院 淸溪書院 汾江書院
진보현	鳳覽書院
군위현	南溪書院
비안현	龜川書院
용궁현	三江書院 蘇川書院
영양현	英山書院

위 표에서 보듯이 안동 권역에 속한 군현 가운데 서원이 없는 군현은 없다. 이는 안동 권역에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의 공통된 사실이었다. 호계서원은 가장 중심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안동 권역을 대표하고 있었다. 대개 서원도 군현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름의 독자성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역으로 보나 제향 인물로 보나 호계서원은 남다른 위상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호계서원의 위상은 호계서원의 운영과 관리를 맡은 임원이나 구성원의 자부심에 찬 표현에서도 드러나 있다. 1729년(기유년) 호계서원의 도유

16) 1840년경 안동의 유림들이 『퇴계집』의 중간을 계획하였을 때 공론의 수렴과 자금의 수합을 위해 통문을 영남의 4개 진관으로 나누어 발송한 바 있다. 이는 진관 단위가 연락과 수합의 단위로 활용되었음을 말해준다. 「1840년 義城鄉校道會 通文」(옥산서원 소장); 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 참고.

사로서 운영의 책임을 맡았던 김성탁이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안동부사에게 올린 두 건의牒문이 남아 있다.<sup>17)</sup>

본 서원은 안동부 國學의 으뜸인 곳으로 사체가 존엄하기로는 예안의 陶山 書院과 더불어 같지만, 형세로 말씀드리면 도산서원과 비교해 10분의 1·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學宮이 학궁이 되는 이유는 봄가를 享祀를 지낼 때와 사람이 서원에서 거거할 때입니다. 전후로 분주히 일하고 좌우로 응대하는 자들이 지시에 따라 일하는 형세가 있고 부족해서 대주지 못하는 근심이 없는 뒤에야 의례의 형식을 갖출 수 있고 모양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서원이 막중한 위치에 있는데 이미 奴僕이 적은 데다 또 假屬조차 부족해서 院宇를 수호할 僕隸가 없어 廟庭이 풀만 무성한 곳이 된다면, 사람의 비통과 탄식은 진실로 논할 겨를도 없거니와 선배들이 힘들여 창립한 규약과 국가가 존송하여 사액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세의 시속이 외형에 치중하고 번잡하여 나라에 學舍가 퍼져 있는데 조정의 추가적인 단속이 또 혹은 한 道에 이르기도 합니다만, 본 서원의 경우는 다른 학궁과 일괄해서 논해서는 안 됩니다.<sup>18)</sup>

本府에 있는 본 서원은 예안에 있는 도산서원보다 체모로 보나 존재감으로 보나 境內에서 國學의 으뜸인데, 奴僕으로 말하면 십여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늙고 쇠잔한 사람이 태반이며, 假屬으로 말하면 便喚을 감당할만한 자가 겨우

17) 첩정 문서에는 첩정을 올린 연대로 '기유년'이라 되어 있어 분명한 연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올린 달이 '윤7월'이라 되어 있어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조선후기의 기유년으로서 윤7월이 있는 해는 1729년이었기 때 문에 작성 연대로 특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서를 올린 도유사의 성씨가 김씨로 되어 있는데, 호계서원의 원임록인 『虎溪任錄』에 의거하여 1729년의 도유사가 김성탁임을 확인하였다(본고 제 3장 <표 4> 참고). 이로써 이 문서는 1729년 도유사 김성탁이 올린 문서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었다. 김성탁은 본관은 의성, 호는 龜山으로 갈암 이현일의 제자였다. 이인좌의 난 때 창의하여 토역문을 지은 바 있으며, 173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청요직을 역임하면서 영조의 신임을 받았다. 스승의 신원을 주장하였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귀양을 가게 되었고, 이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갈암학맥의 중심인물이었다.

18) 「기유년 호계서원牒呈草(기유년 윤7월 21일)」, 『고문서집성-義城金氏川上各派篇(I)-』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766쪽; 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 참고.

3. 40명에 이릅니다. 도산서원 및 상주의 道南書院. 성주의 川谷書院에 비하여 형세의 풍요로움이 10분의 5·6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城主께서 전후로 겸임하여 儒化가 뚜렷이 드러나 先賢을 존숭하고 學宮을 돌보시는 방도에 마음과 예우를 다하지 않음이 없으니, 본 서원 상황의 절박함을 밝게 살피시는 성주께서 어찌 세세하게 살피지 않겠습니까. 성주께서 겸임하시는 날에 채택하여 시행해주지 않으시면 본 서원은 다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번거롭고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존엄하신 성주를 꺼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보고드리는 이유입니다.<sup>19)</sup>

첩정의 주 내용은 호계서원에 임시로 소속되어 서원 잡무를 맡고 있던 이가 안동부의 군역에 充定되어 서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들의 군역을 면제하고 서원의 일을 전과 같이 맡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첩정의 앞부분에서 호계서원의 중요성과 위상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김성탁은 호계서원을 안동부 내에서 으뜸가는 국학 즉 국가가 인정한 교육기관으로 자부하면서 부사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서원이 같은 퇴계를 모신 이웃 고을 예안현의 도산서원이다. 그리고 안동이라는 고을의 크기를 고려하여 비슷한 크기인 고을의 대표 서원인 상주목의 도남서원, 성주목의 천곡서원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예안의 도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 성주의 천곡서원 정도쯤 되는 곳을 호계서원과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서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동부의 대표 서원으로 호계서원의 자부심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또 하나 호계서원의 위상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비록 19세기 말의 것이지만 서원의 규모와 세력을 다른 서원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자료가 있다. 1895년의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을 때 안동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다. 安東倡義所에서는 안동

19) 「기유년 호계서원 牒呈草(기유년 8월 일)」, 『고문서집성-義城金氏川上各派篇(1)-』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766쪽; 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 참고.

지역의 각 문중과 향교, 서원 등에 의병을 지원할 의연금 액수를 책정하여 분배하였는데, 그때의 분배기가 남아 있다.<sup>20)</sup>

19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서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17·18 세기에 12개소 정도였던 안동의 서원 수가 19세기말에는 사우를 포함하여 총 39개소로 크게 늘어 있었다. 臨川書院, 臨湖書院, 高山書院, 陶淵書院 등이 새롭게 건립된 서원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였다. 그리고 1896년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서원이 훼손된 지 20-30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鄕中에서는 여전히 院號를 칭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데, 아마 공식적인 서원 구실은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예컨대 호계서원의 경우 훼손된 이후에도 '虎溪書堂'의 명의로 서원 시절에 하던 통문을 보내거나 하였는데, 1917년 옥산서원으로 보낸 통문에 호계서당이라는 글자 위에 찍은 인장은 종전과 같이 호계서원 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도유사·재유사라는 직임도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sup>21)</sup>

이무튼 안동창의소에서 안동에 있는 39개소의 서원·사우에 할당할 액수는 각 서원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책정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 분담액을 정확하게 분담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안동의 각 서원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당사자들인 안동인들이 모여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시 서원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서원별로 책정된 액수를 보면 당시 안동인들이 파악하고 있던 각 서원의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분담 액수로 알 수 있는 경제력은 바로 각 서원의 규모나 위세와 직결되는 것으로 파악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20) 「安東倡義所各門中分擔記(1896년 1월)」, 『고문서집성-安東郡村眞城李氏篇(II)-』 4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542~554쪽; 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 참고.

21) 1917년 '호계서당' 명의로 옥산서원에 보낸 통문이 있는데, 도장은 '호계서원'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직임도 도유사·재유사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1917년 虎溪書堂 通文(옥산서원 소장)」; 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 참고.

분담액의 수치를 자세히 보면 40냥을 기본으로 하여 할당하되, 서원의 규모가 크에 따라 40의 배수로 액수를 책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서원에 할당된 액수 순으로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1896년 안동창의소에서 책정한 서원·사우별 의연금 할당액

의연금 할당액	서원·사우
800냥(20배)	虎溪
600냥(15배)	三溪 臨川
520냥(13배)	龜溪
400냥(10배)	屏山 泗濱 錦陽壇
320냥(8배)	臨湖 黠溪 高山 鏡光
240냥(6배)	陶淵 柏鹿 歧陽
200냥(5배)	靑城 龍溪 道笙 花川
160냥(4배)	明湖 魯林 <sup>22)</sup> 鶴岩 周溪 丹阜 汶陽 鶴山
80냥(2배)	西澗 流岩 魯東 梧溪
60냥(1.5배)	浴淵
40냥(기본)	道溪 道淵 松川 道林 笙潭 公山 西山 龍岩 東山

서원에 분담된 액수 순으로 보면 호계서원이 단연 가장 많아서 800냥, 그 다음으로 삼계서원과 임천서원이 각 600냥, 구계서원 520냥, 병산서원과 사빈서원이 각 400냥, 임호서원·묵계서원·고산서원·경광서원이 각 320냥 순이었다. 가장 적은 40냥을 할당받은 서원·사우도 9개소였다.

서원의 성쇠가 시기별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19세기 말의 위 상황이 그대로 그 전 시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략적인 경향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 아래 본다면 호계서원에 배정된 액수가 800냥으로 다른 서원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계서원은 가장 작은 서원의 20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당하는 큰

22) 노림서원의 액수는 십단위 한 글자가 마멸되어 관독이 어려운데, 마지막 부분에 기재된 전체 총액수를 고려할 때 노림서원의 액수를 160냥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서원이었다. 당시 안동 향교에도 의연금 액수가 별도로 할당되었는데, 그 액수는 600냥이었다. 호계서원은 안동 향교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감당한 셈이다. 이로써 당시 안동에서 가진 호계서원의 위세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겠다.

참고로 안동 21개면 141개 문중별로도 의연금 액수를 할당하였는데,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과 西谷의 안동권씨 문중, 水谷의 전주류씨 문중에게 각 1,000냥씩 할당되어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川前과 金溪의 의성김씨 문중에 800냥과 500냥을 각각 할당하였기 때문에 둘을 합치면 1,300냥으로 의성김씨 문중이 가장 많은 셈이었다. 이어 法興의 고성이씨 문중이 500냥, 海底의 의성김씨 문중이 500냥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이·삼백냥에서 2냥에 이르기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당시 안동 내 문중의 크기와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역시 후대인 1913년 안동군 東後面 道谷洞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도곡동 소재의 호계서원 재산이 다음과 같이 파악되어 있어 일부나마 실체를 살필 수 있다.

臨縣內面 臨河洞 權進憲 소유의 虎溪書院 재산으로 전 5필지 2,713평, 답 1필지 1,197평, 대지 2필지 565평이 있고, 臨東面 朴谷洞 柳東仁 소유의 虎溪書院 재산으로 전 4필지 1,689평, 대지 5필지 2,868평이 있다.<sup>23)</sup>

명씨는 권진헌·류동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호계서원의 재산임을 명기하고 있다. 두 사람의 명의로 된 도곡동의 토지를 합치면 전 9필지 4,402평, 답 1필지 1,197평, 대지 7필지 3,433평 남짓이었다. 도곡동 외에도 호계서원의 재산이 널리 소재해 있었을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호계서원의 건립 과정과 안동 권역에서 가진 위상을 살폈다. 경상도의 거점 지역인 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이라는 점, 제향된 이가 퇴계 이황을 위시하여 류성룡과 김성일이라는 점, 그리하여 안동 권역을 대표

23) 朝鮮洋總督府 臨時土地照查局, 『安東郡 東後面 道谷洞 土地調査簿』, 1913년(안동 시청 소장); 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 참고.



하는 서원이라는 점, 보통 서원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적 규모를 가진 서원이라는 점, 그리고 국권을 바로 세우려는 의병 자금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감당하였다는 점 등이 호계서원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징표들이었다.

### Ⅲ. 원장 성분의 비교 분석

호계서원을 대표하면서 이끌어간 임원은 都有司 1인과 齋有司 2-4인, 副有司 2-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호계서원은 대표 임원의 명칭을 도유사라 하였고, 도산서원은 上有司, 병산서원은 院長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고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 명칭인 원장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원장에 선임된 이의 구성을 분석하면 호계서원의 위상을 살필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서원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그 위상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다행히 호계서원에는 역대 임원을 정리한 원임록이 남아 있다. 현존하는 원임록은 두 책이 있는데, 『虎溪任錄』 1과 『虎溪任錄』 2 이다.<sup>24)</sup> 1715년 당시 도유사 즉 원장이었던 이협이 발의하여 원임록을 정리하여 만든 후 이후 계속 기록을 첨가하는 형태였다. 그 후 1750년 서원의 화재로 인해 원임록을 포함한 많은 책이 소실되었는데, 타지 않은 부분을 수습하여 1책으로 성책한 것이 『호계임록』 1이다. 가장자리에 불탄 흔적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앞뒤 시기가 맞지 않는 채 성책된 부분도 있으며, 몇 년치가 통째로 없기도 하다. 정리하면 1573년-1631년 기간 중 13년치 분이 페이지가 뒤섞인 상태로 성책되어 있고, 이어 1711년-1750년까지는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호계임록』 2는 1750년 원임록이 소실된 직후 당시 재유사였던 金相玉이 金樞說의 도움을 받아 남아 있는 임원록을 참고하여 새로 깨끗하게 정서한 것이

24) 『虎溪任錄』 1·2,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다. 이때의 사정은 당시 도유사 이태환이 쓴 『호계일록』 2 말미의 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는 1691년-1750년까지의 원임 명단이 빠짐없이 잘 정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호계일록』 2에 수록된 1691년-1750년까지의 60년간이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성분 분석의 유의미한 시기이다. 60년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어서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위 두 원일록에 근거하여 호계서원의 원장 명단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sup>25)</sup>

<표 4> 호계서원 원장(도유사) 명단

연도	이름	선임시 경력	본관	거주지	도산·병산서원 원장 경력
1691	權聖矩	문과 前佐郎	안동	안동	도산·병산
	李薰	前參奉	진성	안동	
1692	金夏世	문과 前郡守	순천	안동	병산
	金鼎壽	생원 前縣監	풍산	안동	
1693	柳檣	문과 前牧使	전주	안동	
	柳駉鍾	문과 前牧使	전주	안동	
	金世重	진사	의성	안동	병산
1694	金重安	진사	안동	안동	병산
1695	權泰時	前縣監	안동	안동	병산
1696	金聲久	문과 前監司	의성	안동	
1697	李薰	前參奉	진성	안동	
1698	金世鎬	문과 前監察	의성	안동	도산
1699	李後榮	문과 前郡守	고성	안동	병산
1700	金昌錫	문과 前都事	의성	안동	도산

25) 김영나의 논문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 운영」(『조선시대사학보』 73, 2015)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이 논문에 수록된 원장 명단을 『호계일록』과 대조하여 작성하면서 본고의 취지에 맞게 항목을 가감하고 배열을 달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1710년 원장인 이조성의 본관과 거주지가 각각 진성과 안동임을 밝혔고, 1740년부터 약 2년간 안동부사가 원장을 겸한 사실을 첨가하였으며, 1744년 원장 권만을 추가하였고, 1735년 원장인 김광국은 광산김씨로 수정하였다. 그 외 원장 선임 당시의 관직을 『호계일록』에 의거하여 다수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1748년의 원장인 權綴가 병산서원장을 지낸 연도는 1731년이 아니라 1753년임도 지적해둔다.

1702	金侃	진사	풍산	안동	도산·병산
	金夏鎭	생원	순천	안동	
	金世欽	문과 前校理	의성	안동	
1703	權斗寅	진사 前勳監	안동	안동	도산·병산
	金昌錫	문과 前都事	의성	안동	도산
1704	李厚天	생원	진성	안동	
1705	柳暲時	문과 前典籍	전주	안동	도산·병산
	柳後光	생원 前勳監	풍산	안동	병산
1706	權斗紀	문과 前都事	안동	안동	도산
1707	柳暲時	문과 前典籍	전주	안동	도산·병산
1708	李後榮	문과 前郡守	고성	안동	병산
1709	李成龜	진사	진성	안동	
	權斗經	문과 前勳監	안동	안동	도산
1710	李朝成	前護軍	진성	안동	
1711	安鍊石	문과 前勳監	순흥	안동	도산·병산
1712	李厚天	생원	진성	안동	
1713	柳昌時	진사	전주	안동	
	金世鎬	문과 前都事	의성	안동	도산
1714	柳後常	前敎官	풍산	안동	
	金世重	진사	의성	안동	병산
1715	李浹	생원·진사 前參奉	연안	안동	도산·병산
1716	安老石	생원	순흥	안동	
1717	柳憲時	진사	전주	안동	
	金世鎬	문과 前都事	의성	안동	도산
1718	安鍊石	문과 前勳監	순흥	안동	도산·병산
1719	金侃	문과 前察訪	풍산	안동	도산·병산
1720	趙德鄰	문과 前都事	한양	영해	도산
1721	李浹	생원·진사 前參奉	연안	안동	도산·병산
1722	羅學川	문과 前郡守	수성	槲川	도산
1723	柳暲時	생원	전주	안동	
1724	金汝鎔	생원	의성	안동	병산
1725	柳升鉉	문과 前正郎	전주	안동	도산·병산
1726	柳暲時	문과 前郡守	전주	안동	도산·병산
	南汝衡	생원	영양	안동	병산
1727	柳暲時	문과 前郡守	전주	안동	도산·병산
1728	柳暲時	생원	전주	안동	

1729	李栽	前主簿	재령	안동	도산·병산
	金聖鐸	진사	의성	안동	
1730	金汝鐘	진사	의성	안동	
	柳暉時	문과 前府使	전주	안동	도산·병산
1731	金聖欽	생원·진사	의성	안동	병산
	柳元鉉	진사	전주	안동	
1732	李時沆	문과 前縣監	고성	안동	도산
1733	柳聖和	前縣監	풍산	안동	도산·병산
	李廷蓋	진사	진성	안동	
1734	李光庭	진사	원주	안동	도산
	李漫	前參奉	재령	안동	병산
	李山斗	문과급제	전의	안동	도산·병산
1735	金光國	진사	광산	안동	
	柳惠時	진사	전주	안동	
1736	金夢洙	생원	의성	안동	병산
1737	柳觀鉉	문과 權知正字	전주	안동	도산
1738	李載岳	진사	예안	안동	
1739	金瑞翰	생원	풍산	안동	병산
	李萬里	진사	전의	안동	
1740	李時沆	문과 前縣監	고성	안동	도산
	柳升鉉	문과 前府使	전주	안동	도산·병산
1740년 가을부터 1742년 봄까지 안동부사가 원장을 겸함					
1742	柳觀鉉	문과 副正字	전주	안동	도산
1743	李載垌	진사	예안	안동	병산
	李時沆	문과 前縣監	고성	안동	도산
1744	權萬	문과 前佐郎	안동	안동	
	金世烈	생원	예안	안동	
	金泰運	생원	광산	안동	
1745	柳晉鉉	생원	전주	안동	병산
1746	李萬容	생원	연안	안동	도산
	金景泌	문과 前佐郎	의성	안동	
1747	金聖欽	생원·진사	의성	안동	병산
	柳正源	문과 前正字	전주	안동	도산
1748	金瑞虎	진사	풍산	안동	병산
	權緻	생원	안동	안동	병산

1749	權正始	진사	안동	안동	
1750	李台煥	생원	재령	안동	

호계서원 원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김영나가 소장하고도 충실하게 수행하여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sup>26)</sup> 65명의 원장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3명이 모두 안동인이었다.<sup>27)</sup> 원장 중 22명이 대과 급제자였고, 소과 급제자는 38명이었다. 성씨별 구성은 의성김씨와 전주류씨가 가장 많아 각 11명이고, 안동권씨 8명,<sup>28)</sup> 진성이씨 5명,<sup>29)</sup> 풍산김씨 4명, 풍산류씨와 재령이씨가 각 3명 순이었다. 그 외 순천김씨·고성이씨·순흥안씨·연안이씨·전의이씨·예안이씨·광산김씨가<sup>30)</sup> 각 2명, 안동김씨<sup>31)</sup>, 한양조씨·수성나씨·영양남씨·원주이씨·예안김씨가 각 1명이었다. 그리고 원장 25명이 이현일의 문인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호계서원 원장의 면모를 살필 수 있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1740년 가을부터 1742년 봄까지는 안동부사가 원장을 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안동에 건립하려는 김상헌 서원 훼파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만큼 호계서원 쪽 인사들이 격렬하게 반대 진영에서 활동한 결과였다.<sup>32)</sup> 사태가 진정된 이후 안동부사가 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 뒤를 전직 관료가 아닌 현직 관료인 副正字 류관현이 맡은 점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다음부터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되었다.

위와 같이 60년 정도의 원장 명단만 가지고 성분을 분석하여도 호계서원

26) 김영나, 앞의 논문, 135~141쪽.

27) 권만이 추가되어 65명이 되었다.

28) 권만이 추가되어 8명이 되었다.

29) 이조성이 추가되어 5명이 되었다.

30) 김광국이 추가되어 2명이 되었다.

31) 김광국이 제외되어 1명이 되었다.

32) 김영나, 앞의 논문, 143쪽. 김형수, 「1738년(영조 14) 안동 학동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 『영남학』 17, 2010; 정진영, 「18세기 서원 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원장의 성분을 다른 서원과 비교할 수 있다면 그 특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는 서원은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다.

도산서원은 앞장에서도 살폈듯이 예안과 안동이라는 두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퇴계 이황을 모시는 서원으로 설립되어 이황을 모시는 서원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병산서원은 류성룡을 제향하고 있는 안동의 대표 서원이고, 류성룡은 김성일과 함께 호계서원에도 배향된 인물이다. 두 인물이 호계서원에 배향될 당시 위패의 자리를 두고 논란의 조짐이 있었고, 후일 그 논란은 더욱 크게 증폭되어 안동의 사족 사회 전체가 양분되어 격돌한 적이 있는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모두 원임안이 잘 남아 있는 점은 비교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점이었다. 먼저 병산서원의 원장 명단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sup>33)</sup>

<표 5> 병산서원 원장 명단

연도	이름	선임시 경력	본관	거주지	비고
1691	金如萬	幼學	순천	안동	
1692	柳宜河	前縣監	풍산	안동	
	金啓昌	유학			
1693	金夏世	문과 前郡守	순천	안동	→호계서원 원장
	權鎭	유학	안동	안동	

33) 김명자의 다음 논문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김명자, 「조선후기 병산서원 원장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2018. 이 논문에 수록된 원장 명단을 병산서원 원임록(『고문서집성』 63,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대조하여 작성하면서 본고의 취지에 맞게 항목을 가감하고 배열을 달리하였다. 1718년 원장 김익석을 추가하였고, 1726년 원장으로 파악한 류후서를 삭제하였으며, 1731년과 1735년의 원장은 각각 권주와 김기명으로 수정하였다. 그 외 본관과 거주지를 첨가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다수 있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1753년과 1765년 원장은 각각 권치와 권진이고, 1753년과 1757년의 원장으로 파악한 류후약과 류택춘은 재유사였음도 지적해둔다.

1695	李惟枋	유학	예안	안동	
1696	柳世霖	유학	풍산	안동	
1697	金重安	진사	안동	안동	←호계서원 원장
1699	柳世興	유학	풍산	안동	
1700	柳後光	생원 前課總監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02	李後榮	문과 前郡守	고성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03	權聖矩	문과 前郡守	안동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05	李鳳周	유학	전의	안동	
	權泰時	前課總監	안동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08	李俞吾	통덕랑	진성	안동	
1709	柳後常	前敎官	풍산	안동	
1710	權斗寅	진사 前課總監	안동	안동	←호계서원 원장
	柳後光	생원 前課總監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金侃	문과급제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1	趙鳳徵	문과 前都事	한양	榮川	
1712	李裁	통덕랑	재령	안동	→호계서원 원장
	柳後光	생원 前課總監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3	金世重	진사	의성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4	李鳳周	유학	전의	안동	
	柳敬時	문과 前典籍	전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5	柳後常	前敎官	풍산	안동	
	金侃	문과 前察訪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6	李浹	생원·진사 前參奉	연안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8	金麟錫	유학	안동	안동	
1719	金佶	장사랑	풍산	안동	
1721	安鍊石	문과 前課總監	순흥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23	李鳳天	유학	예안	안동	
1724	柳後場	유학	풍산	안동	
	李櫻	유학	재령	안동	→호계서원 원장
	南有衡	통덕랑	영양	안동	
1725	李厚天	생원	진성	안동	
	柳後端	유학	풍산	안동	
1726	金侃	유학	풍산	안동	
1727	柳升鉉	문과 前正郎	전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28	金汝鎔	생원	의성	안동	←호계서원 원장
	南楚衡	생원	영양	안동	
	李鳳天	유학	예안	안동	
1729	李仁溥	유학	전주	안동	
	李星徵	유학			
1730	李載重	유학			
1731	南宗衡	호군	영양	안동	
	李成全	유학	전의	안동	
	柳敬時	문과 前府使	전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權軻	유학	안동	안동	
	鄭東奎	유학	동래	예천	
1732	李浹	생원·진사 前侍直	연안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33	柳轍可	통덕랑	풍산	상주	
1734	柳聖和	前鼎繼監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35	金起溟	유학	순천	안동	
1736	南汝衡	생원	영양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37	柳後甲	통덕랑	풍산	안동	
	柳聖和	前鼎繼監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金啓鐸	유학	안동	안동	
1738	柳升鉉	문과 前府使	전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李載基	유학	진성	안동	
1739	權渠	유학	안동	안동	
1740	權容	유학	안동	안동	
	金天煥	유학	의성	안동	
	李山斗	문과 前鼎繼監	전의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41	金瑞雲	통덕랑	풍산	안동	
	李楗	유학	재령	안동	
1742	鄭昌興	유학	동래	예천	
	柳後堂	유학	풍산	안동	
1743	金夢洙	생원	의성	안동	←호계서원 원장
	金汝鏐	생원	의성	안동	
1744	柳聖觀	유학	풍산	안동	
1746	金瑞翰	생원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47	李泰和	유학	한산	안동	
	金龍錫	유학	안동	안동	



1748	李景翼	유학	전의	안동	
	李山斗	문과 前司藝	전의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49	柳經天	유학	풍산	안동	
	李載桐	진사	예안	안동	←호계서원 원장

이 시기 원장 67명 중 60명의 거주지가 안동이었다. 이는 호계서원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분포로서 두 서원 모두 안동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산서원 원장 중 대과 급제자는 9명, 소과 급제자는 12명이었다. 같은 시기 호계서원의 경우는 각 22명과 38명으로 병산서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호계서원장과 병산서원장을 단순 비교해서 표면적인 수치로 두 서원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호계서원은 당시 사액서원이었고, 병산서원은 미사액서원이었으며, 호계서원은 퇴계 이황을 위시하여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등 세 분을 모신 향사처였고, 병산서원은 류성룡을 주향으로 모신 서원이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병산서원 원장의 성씨별 구성은 풍산류씨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 권씨 7명, 풍산김씨와 의성김씨가 각 5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외 안동 김씨·전의이씨·영양남씨가 각 4명, 순천김씨·예안이씨·진성이씨·재령이씨가 각 3명, 전주류씨·동래정씨가 각 2명, 고성이씨·한양조씨·연안이씨·순흥안씨·전주이씨·한산이씨가 각 1명이었다. 풍산류씨가 다수를 점하는 가운데 안동권씨·풍산김씨·의성김씨가 주도 성씨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호계서원은 의성김씨와 전주류씨가 다수를 점하는 가운데 안동권씨·진성이씨가 주도 성씨였다.

호계서원장을 역임한 후 병산서원장에 선임된 경우와 병산서원장을 역임한 후 호계서원장에 선임된 경우를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권성구·김세중·김중안·권태시·이후영·김간·권두인·류경시·안연석·이협·김여용·류승현·남여형·김성흠·류성화·이산두·김몽수·김서한·이재경·류진현·

김서호·권치 등 22인이었다.<sup>34)</sup> 후자의 경우는 김하세·류후광·이재·이만 등 4인이었다. 이는 병산서원에서 안동지역의 명망가를 원장으로 선임하려 하였고, 그 상당수가 호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경우였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나 호계서원의 원장을 지내려면 그만큼 명망이 있어야 하였고, 또 원장을 역임하면 명망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 점은 이 시기 병산서원 원장 중 문과 출신 인사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병산서원장으로 선임된 사람 중 문과 출신은 김하세·이후영·권성구·김간·조봉징·류경시·안연석·류승현·이산두 등 9명이었는데, 그중 8명이 모두 호계서원장을 역임한 경우였다. 나머지 1명은 조봉징으로 거주지가 안동이 아니라 榮川이었다. 따라서 병산서원에서는 안동 출신 문과 급제자 중에서 원장을 선임할 때 호계서원 원장 역임자 중에서 모두 택한 셈이 되는 것이다.

집작건대 당시 호계서원의 경우가 위망이 높은 분을 더 가려서 원장으로 선임한 듯하다. 인력 자원 동원 범위가 더 넓기도 하였고,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였다. 당연하기는 하지만 분석의 대상이 된 시기의 경우는 호계서원의 위상이 병산서원보다 더 높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덧붙이면 19세기 중엽이후 김성일 쪽에서는 류성룡의 주향처인 병산서원에 맞대응하기 위해 임천서원을 재건하여 김성일의 주향처로 삼았다.<sup>35)</sup> 이렇게 됨으로써 미사액서원이지만 각각 주향처 서원을 가진 상태에서 사액 호계서원은 3인을 함께 모신 공동의 서원이 되는 구도를 갖춘 셈이었다. 이 구도는 얼마 못 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병산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승격한 것이었다. 임천서원도 청액을 서둘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고종대 흥선대원군에 의한 대대적인 서원철폐령을 마주하게 되었다. 미사액의

34) 김성흠·류진현·김서호·권치 등 4명은 <표 5>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그 뒤에 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인물로서 <표 4> 호계서원 원장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함께 제시하였다.

35) 임천서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주목된다. 이재현, 「안동 임천서원의 치폐와 사액 청원」, 『한국서원학보』 6, 2018.

임천서원은 물론이고 사액서원이던 호계서원마저 훼손되고 말았다. 하지만 병산서원은 훼손을 면한 전국 47개소에 포함되어 존속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비교 대상 시기 도산서원 원장의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 <표 6>와 같다.<sup>36)</sup>

<표 6> 도산서원 원장(상유사) 명단

연도	이름	선임시 경력	본관	거주지	비고
1691	金玠	幼學	광산	예안	
	金怡	유학	광산	예안	
1692	李希哲	前察訪	진성	예안	
	金燁	진사	광산	예안	
1693	金怡	유학	광산	예안	
1694	李杲	前郡守	진성	예안	
	李克哲	前察訪	진성	예안	
1695	李杲	前郡守	진성	예안	
1703	權聖矩	문과 前佐郎	안동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06	李杲	前郡守	진성	예안	
1707	權斗寅	진사 前縣監	안동	안동	←호계서원 원장
	金世鎬	문과 前都事	의성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08	金燁	진사	광산	예안	
1709	金世鎬	문과 前都事	의성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0	金純義	유학	광산	예안	
	李穰	통덕랑	진성	예안	
1711	李再昌	진사	진성	예안	
1712	金世鎬	문과 前都事	의성	안동	←호계서원 원장
	李守約	봉직랑	진성	예안	
1713	李適意	문과 前持平	경주	榮川	
	金翰國	유학	광산	예안	

36) 우인수의 논문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3)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본고의 서술 성격에 맞게 항목 배열을 달리하였다. 1703년 원장 권성구는 김영나의 논문에 의거하여 첨가하였고, 1726년 원장 이협의 본관은 연안이씨로 수정하였다. 그 외 거주지와 경력을 수정하거나 첨가한 경우가 다수 있음을 밝혀둔다.

1714	金鋪	유학	광산	예안	
	權斗經	문과 前正言	안동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5	金昌錫	문과 前正言	의성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6	金重國	유학	광산	예안	
1717	金侃	문과 前正郎	풍산	안동	
	權斗經	문과 前正言	안동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18	洪相民	생원 前主簿	부계	함창	
1719	李再昌	생원	진성	예안	
1720	鄭重元	진사 前參奉	초계	안음	
	權斗紀	문과 前持平	안동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21	柳敬時	문과 前都事	전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李守約	봉직랑	진성	예안	
1722	李再昌	생원	진성	예안	
	羅學川	문과 前府使	수성	榮川	←호계서원 원장
	安鍊石	문과 前縣監	순흥	안동	←호계서원 원장
	李守謙	前奉事	진성	예안	
	金仁政	문과 前都事	풍산	榮川	
1723	李守約	봉직랑	진성	예안	
1724	李集	前縣監	진성	예안	
1725	李?維	前察訪	진성	예안	
1726	李浹	前參奉	연안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27	李守謙	前都事	진성	예안	
1728	李集	前縣監	진성	예안	
	成世珽	유학	창녕	예안	
	李裁	前主簿	재령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30	李文標	문과 前縣監	진성	예천	
	成世瑁	문과 前縣監	창녕	예안	
1731	張后相	문과 前郡守	인동	榮川	
1732	柳聖和	前縣監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金岱	통덕랑	광산	예안	
1733	權相一	문과 前掌令	안동	상주	
1734	金華國	통덕랑	광산	예안	
1735	趙德鄰	문과 前承旨	한양	영해	←호계서원 원장
	李守謙	前縣監	진성	예안	

1736	柳敬時	문과 前府使	전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柳聖和	前縣監	풍산	안동	←호계서원 원장
	李守謙	前縣監	진성	예안	
1738	李世震	문과 注書	진성	예안	
	柳升鉉	문과 前府使	전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39	成世項	문과 前縣監	창녕	예안	
	李集	前縣監	진성	예안	
1740	金衡國	생원	광산	예안	
	李敏政	통덕랑	진성	예안	
1741	朴成玉	문과 前都事	함양	예천	
	李渠	유학	진성	예안	
1742	金衡國	생원	광산	예안	
	權相一	문과 前掌令	안동	상주	
1743	柳升鉉	문과 前府使	전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44	李守淵	생원 前敎官	진성	예안	
	宋儒式	문과 前縣監	야로	榮川	
1745	李光庭	진사 前奉事	원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李山斗	문과 前縣監	전의	안동	←호계서원 원장
1746	成世項	문과 前縣監	창녕	예안	
1747	李世師	문과 前正言	진성	예안	
	柳觀鉉	문과 前監察	전주	안동	←호계서원 원장
	李渠	유학	진성	예안	
1748	孫以雄	문과 前正郎	경주	순흥	
	李世觀	유학	진성	예안	
	李見龍	진사	진성	예안	
1749	李時沆	문과 前都事	고성	안동	←호계서원 원장
	李山斗	문과 前縣監	전의	안동	←호계서원 원장
	金東望	유학	광산	예안	
1750	鄭玉	문과 前持平	청주	榮川	

중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시기 원장을 역임한 사람의 총수는 60명이었다. 대과 출신이 26명이었고, 소과 출신은 10명이었다. 호계서원과 비교하면 대과 출신은 호계서원의 경우가 22명이어서 서로 비슷한 가운데, 소과 출신은 호계서원의 경우가 38명으로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성씨별 분포를

살펴보면 진성이씨와 광산김씨가 가장 많아서 각각 18명과 11명이었다. 그 외 안동권씨 5명, 전주류씨 3명, 의성김씨·풍산김씨·창녕성씨 각 2명이었고, 1명을 배출한 성씨가 17개로 고루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 시기는 도산서원이 예안이라는 작은 현을 벗어나 주변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서 명망가를 원장을 영입하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하였다.<sup>37)</sup> 60명 중 예안현 거주자가 30명이었고, 나머지 30명은 외부인이었다. 외부인 30명 중 과반인 17명이 안동 거주자였으며, 榮川 4명, 예천 2명, 상주·함창·순흥·영해·안음이 각 1명이었다. 안동 출신 원장은 권성구·권두인·김세호·권두경·김창석·김간·권두기·류경시·안연석·이협·이재·류성화·류승현·이광정·이산두·류관현·이시항등 17인이었다. 그 외 <표 6>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표 4>의 호계서원 원장 명단에 이름이 있는 류정원과 이만용은 뒷 시기에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호계서원 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었으며, 문과 출신으로 관직 역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외에 호계서원장을 역임한 후 도산서원장에 선임된 이로 榮川에 거주한 나학천과 영해 거주 의 조덕린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호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이들의 위상을 웅변해주는 것이고, 그만큼 호계서원이 안동 나아가 경상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음을 증명해준다. 이에 비해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이후 호계서원 원장을 역임한 경우는 이 시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호계서원이 위치한 안동이 워낙 인재가 풍부한 큰 고을이어서 안동 거주자로 원장을 채워도 충분하였기에 굳이 다른 지방에서 원장을 구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비교 분석한 호계서원과 병산·도산서원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37) 우인수, 앞의 논문, 103~114쪽.

〈표 7〉 1691년-1750년 호계·병산·도산서원 원장의 성분 비교

서원명(원장 수)	선임시 경력		거주지	주도 성씨
	대과	소과		
호계서원(65명)	22(34%)	38(58%)	안동 63(97%)	의성김11(17%) 전주류11(17%) 안동권8(12%) 진성이5(8%)
병산서원(67명)	9(13%)	12(18%)	안동 60(90%)	풍산류13(19%) 안동권7(10%) 풍산김5(7%) 의성김5(7%)
도산서원(60명)	26(43%)	10(17%)	예안 30(50%) 안동 17(28%)	진성이18(30%) 광산김11(18%) 안동권5(8%)

한편 호계서원의 높은 위상은 서원의 실무를 맡은 유사의 지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계서원의 경우는 도유사 아래에 재유사와 부유사라는 직임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호계일록』에 의하면 1691년-1750년 사이에 재유사와 부유사 중 선임 당시 생원·진사의 신분을 가진 이가 진사 8명, 생원 15명으로 총 23명에 달하였다. 위에서 원장을 비교한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시기 병산서원의 재유사 중 소과 출신은 진사 4명, 생원 13명으로 총 17명이었다. 병산서원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도산서원의 경우 이 시기 원임안 자체가 소략하여 재유사가 온전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소과 출신재유사는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생원·진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유학보다 반드시 업무 능력이 출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호계서원의 높은 위상을 드러내 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있다.

호계서원에서 소과 출신이 재유사나 부유사를 맡은 연도를 조사하여 제시하면 같다.

진사 8명 : 1695년 1702년 1714년 1715년 1723년 1731년 1732년 1738년  
 생원 15명 : 1699년 1701년(2명) 1702년 1715년 1728년 1733년 1735년  
 1736년(2명) 1737년(3명) 1740년 1746년

특이한 점은 17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생원·진사 출신 유사가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1728년의 무신난 창의, 1738년의 김상헌 서원 훼파 사건 등이 일어났던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상헌 서원의 건립 시도는 1721년, 1732년, 1738년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갈암 이현일의 신원을 위한 안동 유림의 움직임은 1723년에 있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호계서원으로서의 비상시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유사를 더욱 가려서 뽑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IV. 맺음말

호계서원의 건립 과정과 안동 권역에서 가진 지위를 살폈다. 호계서원은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건립되어 뒤에 추가로 안동 출신의 뛰어난 두 제자인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였다. 경상도의 거점 지역인 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으로서 안동 권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 퇴계를 모신 서원로서는 도산서원에 비해졌고, 고을 크기에 대비하여서는 상주의 도남서원이나 성주의 천곡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같은 권역의 대표 서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는 자부심을 품었다. 그 명성에 맞게 소유한 경제력도 안동 내 보통 서원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1896년 안동지역 의병 자금을 각출하는 문서에서 서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할당 받은 데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호계서원의 가진 높은 위상은 서원 운영을 책임진 임원진의 진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호계서원의 원임록은 17세기말에서 18세기 중엽에 걸쳐 약 60년 정도의 분량이 현전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약 65명의 원장(도유사)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장의 성분은 다른 서원과 비교할 때 더 특징이나 수준이 분명해질 수 있다. 마침 이황을 모신 대표적인 서원인 인근 고을의 예안의 도산서원과 같은 안동에 위치한 류성룡을 모신 병산서원의 원임안이 온전히 남아 있어서 같은 시기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병산서원과



의 비교에서는 사액서원과 미사액사원이라는 고려와 함께 제향 인물의 수준과 수를 고려한 더욱 세심한 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분석의 결과 호계서원장을 역임한 후 병산서원장에 선임된 경우가 22인이었고, 병산서원장을 역임한 후 호계서원장에 선임된 경우는 4인이었다. 이는 병산서원에서 안동지역의 명망가를 원장으로 선임하려 하였을 때, 그 상당수가 호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인사였다는 것이다. 이 점은 병산서원 원장 중 문과 출신 인사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 시기 병산서원 원장으로 선임된 사람 중 문과 출신이 모두 9명이었는데, 그중 8명이 모두 호계서원장을 역임한 경우였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호계서원의 원장을 지내려면 그만큼 명망이 있어야 하였고, 또 원장을 역임하면 명망이 더욱 커졌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시기 도산서원은 예안을 벗어나 인근지역으로 범위를 넓혀서 명망가를 원장으로 영입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지역에서 선임한 원장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은 인접한 안동 거주자였는데, 총 19명이 확인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호계서원 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문과 출신으로서 관직 역임 경력이 있는 이들이었다. 이는 호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이들의 위상이 대단히 뛰어난 명망가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대체로 호계서원의 경우가 인력 자원 동원 범위가 더 넓기도 하였고,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호계서원이 안동 나아가 경상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增補文獻備考』 『廬江顛末』 『廬江誌』 『虎溪任錄』 『屏山書院院任錄』 『陶山書院前任案』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우인수, 『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 연구』, 일조각, 2001.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김명자, 「조선후기 병산서원 원장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2018.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3, 2015.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의 위상과 강화활동」, 『유학연구』 55, 2021.

김자운·이우진, 「1765년 호계서원 『대학』강회 연구(1)」, 『민족문화논총』 79, 2021.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17세기 초반의 묘향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2007.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형수, 「1738년(영조 14) 안동 학동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 『영남학』 17, 2010.

박현순,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2)-여강서원 치폐전말-」, 『퇴계학과 한국문화』 45, 2009.

신석호, 「屏虎是非に就いて(上·下)」, 『청구학총』 1·3, 1930·1931.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3.

이병훈,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2018.

이수환, 「17·18세기 안동 병산서원의 사회·경제적 기반」, 『교남사학』 3, 1987.

이재현, 「안동 임천서원의 치폐와 사액 청원」, 『한국서원학보』 6, 2018.

- 임근실, 『16세기 영남지역 서원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정만조, 「영조 14년의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시비」, 『한국학연구』 1, 동덕여대, 1982.
- 정진영, 「18세기 서원 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화활동 사례 연구-『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1, 2012.
- 한상우, 「조선후기 향전을 통해 본 양반층의 친족, 혼인-안동의 병호시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1, 2013.

Abstract

## The Construction and Status of Hogye Seowon in Andong, Gyeongsang Province

Woo, In-soo\*

There were active movements to build a Seowon to enshrine Lee Hwang after his death. In Andong, which was a big town filled with his literary figures, they built Yeogang Seowon(鷹江書院) at a similar time to Dosan Seowon(陶山書院) in Ye-an. His two remarkable pupils, Ryu Seong-ryong and Kim Seong-il, from Andong were additionally enshrined at Yeogang Seowon, which was later named Hogye Seowon(虎溪書院) after receiving approval from the king.

This study set out to make a further step towards the objective of understanding the Seowon itself by reviewing the construction process of Hogye Seowon and its status in Andong or Gyeongsang Province. Hogye Seowon was the first Seowon built in Andong, a base area of Gyeongsang Province, standing in a location representing the entire Andong zone. True to its reputation, it held economic power several or dozens of times bigger than that of average Seowons in Andong.

The study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Hogye Seowon by analyzing Wonimrok(院任錄). The Wonimrok of Hogye Seowon offers approximately 60 years of records between the late 17th century and the middle 18th century. The researcher compared and analyzed it with Dosan and Byeongsan(屏山)

---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iswoo@knu.ac.kr

Seowons to show and objective status. Most people appointed as Head of Hogye Seowon passed the Daegwa(대과) or Sogwa(소과) examination. The percentage of such figures was higher in Hogye Seowon than the two Seowons. Of them, 22 were appointed as Head of Byeongsan Seowon and 19 as Head of Dosan Seowon after serving as Head of Hogye Seowon. These facts demonstrate that those who served as Head of Hogye Seowon enjoyed a very high, renown, and remarkable status. These findings show that Hogye Seowon was held in high status in Andong and further Gyeongsang Province.

Key word : Yeogang Seowon(蘆江書院), Hogye Seowon(虎溪書院), Head of Seowon, Dosan Seowon(陶山書院), Byeongsan Seowon(屏山書院)

논문 투고일: 2022. 11. 25 심사 완료일: 2022. 12. 19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강학 활동과 학풍

정재훈\*

- I. 머리말
- II. 호계서원의 강학 활동
- III. 호계서원의 학풍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안동에서 최초로 세워진 호계서원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황과 그의 제자인 류성룡, 김성일을 모신 사액서원으로서 안동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호계서원의 경우 다른 서원과 비슷하게 16~17세기에는 개별적인 학습을 중시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 위주로 강회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18~19세기에는 대규모의 강회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록으로까지 남기는 경우가 생겼다. 이들 강회에서는 『대학』, 『중용』, 『근사록』, 『심경』, 『태극도설』, 『서명』 등 다양한 서적이 검토되었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도 『심경』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미 이황의 단계에서부터 『심경』에 대한 주목이 높았던 사실과 연관된다. 호계서원에서 간행된 『송계원명이학통록』이나 강론된 『학부통변』 역시 이황이 당대 조선에서의 성리학의 이해와 실천 방향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가운데 저술되거나 주목된 책으로서, 두 책 모두 실천적인 고민 아래에 주목된 것이었다. 그런데 18~19세기에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심경』에 대한 관심은 이황-김성일-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풍의 계승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는 심학에 기반한 성리학의 학설을 고집하기는 힘든 당시의 현실 상황에서는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jinsojung@knu.ac.kr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주제어 : 호계서원, 강학 활동, 학풍, 『심경』

## I. 머리말

안동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은 호계서원(虎溪書院)이다. 1575년 여강서원(廬江書院)으로 명명되었다가 1676년에 사액을 받음으로써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 호계서원이다. 조선시대 서원의 일반적인 기능은 선현봉사와 교육의 양대 기능이 있었다. 선현봉사는 유현을 선정하여 제사를 모시며, 그를 사표로 삼아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교육은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서 조선 중기 이래 사림 세력이 실질적으로 학문을 닦고, 이를 기반으로 출사를 하여 경세를 하거나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실천을 하는 근거가 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양대 기능을 둘러싸고 향촌사회의 구성원들은 서원에 모여 향론을 논의하고, 공론을 모아 의견을 제시하는 정치적 기능도 존재하였다. 그런데 다른 기능에 비해 서원의 교육 기능에 대해서는 그 사이 충분하게 주목이 되지 못한 점이 있다. 서원에서 이루어진 교육 기능에 대한 고찰이 미진했던 이유는, 서원에서의 교육이 지금의 학교교육과 같이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한 형태를 띠지 못했던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 곧 커리큘럼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상적 또는 정기적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거재(居齋)·거접(居接)·강독(講讀)·강학(講學)·강회(講會)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학문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와 같이 일률적이고,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학문을 지향하는 바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 기능은 서원에 모셔진 인물의 학문적 지향과 관련이 있으며, 서원이 위치한 지역의 학문적 경향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도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서원의 강학 활동을 충분히 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원의 활동이나 위상을 설명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호계서원의 경우 조선후기에 ‘병호시비(屏虎是非)’의 근거지라는 관점에서 지역 사족의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주목하는 데에 주로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런 반면에 안동에서 세워진 최초의 서원이며,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라는 대표적인 유학자를 모신 서원인 이곳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의 실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을 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회 등의 강학 활동에 관해 약간의 연구가 이루어진 점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의 실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원 일반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 서원에서의 구체적인 강학 활동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축적되면 그 이해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다만 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이 개별 서원의 학문 경향, 혹은 독자적인 학풍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개별 서원의 독자성보다는 서원 교육이 가지는 보편적 측면이 있으며, 또 서원에 모셔진 인물에 따른 학문 경향이 바로 서원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사례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계서원은 그 독특한 위상으로 인해 서애와 학봉의 위치 논쟁까지 겪었는데, 이러한 측면이 학풍과도 연관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실제의 강학이나 강회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어떠한 것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겠다.

## II. 호계서원의 강화 활동

호계서원은 주지하다시피 안동에서 1575년 최초로 세워진 서원이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1573년에 사람들이 김언기(金彦璣, 1520~1588)를 동주(洞主)로 삼아 백련사(白蓮寺)를 훼손하고 불상을 강에 던지고, 승도들의 거부를 물리쳐서 서원을 건립하였다.<sup>1)</sup> 또 직접 당시 안동부사인 권문해(權文海)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2)</sup> 이러한 설립 과정은 조선에서 최초로 건립된 소수서원(紹修書院)이 숙수사(宿水寺) 터에 건립되면서 사원을 서원으로 대체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불교 세력을 물리치고 유학을 숭상하여 상징적인 장소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구나 안동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서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매우 컸다는 점도 호계서원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호계서원이 건립될 때 안동부사였던 권문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1575년에 완성된 서원의 건물은 사당인 존도사(尊道祠) 6칸, 신문(神門) 3칸, 신주(神廚) 5칸, 강당인 숭교당(崇敎堂) 15칸, 동재(東齋) 구인재(求仁齋) 4칸, 서재(西齋) 명의재(明義齋) 4칸, 대문인 진학문(進學門) 1칸, 동몽재(童蒙齋) 15칸, 유사방(有司房) 5칸, 재주(齋廚) 10칸, 보상고(寶上庫) 15칸 등 모두 83칸이다.<sup>3)</sup> 또 진학문 밖에 있던 양호루(養浩樓) 10칸까지 포함하면 모두 93칸으로 거의 100칸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 이는 안동향교가 많아야 70~80칸을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호계서원의 규모가 관학이었던 향교를 능가하는 큰 규모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안동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건립된 호계서원은 규모만이 아니라 교육의 측면에서도 건립 이후에 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운영되었다. 두 번째 원

1) 『惟一齋先生實記』 권2, 「行狀」, “士林營建書院于廬江五老峯下, 首以先生爲洞主, 徹白蓮寺, 毀其弗像 投之江, 僧徒初欲拒不受.”

2) 앞의 책, 권2, 「遺事」.

3) 『永嘉誌』 권4, 「書院」〈廬江書院〉.

장인 권호문은 1577년과 1579년 안동부사 서익(徐益)의 요청으로 안동향교 유생 고강(考講)에서 시관(試官)을 담당하였다. 또한 안동부사도 호계서원에서 강회가 열리면 수시로 방문하여 강론에 참여하였다. 부사 권이진(權以鎭)은 1718년에 이재(李裁)의 강회에 참여하였고, 1730년대 초에 조현명이 권학절목을 반포하여 시행할 때에 호계서원은 안동향교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sup>4)</sup>

이와 같이 호계서원은 안동에서 향교와 함께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서로 대항적 혹은 대체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였다. 이는 안동의 대표적 유학자인 이황을 모셨다는 상징성과 그 제자들이 건립과 운영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이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의 특징을 보자. 대체로 서원에서의 강학은 16~7세기에서 18~9세기로 가면서 대체로 독서에서 강회(講會)로 그 중심이 옮겨갔다. 즉 16~17세기에는 거재 독서를 중심으로 강회가 부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18~19세기에는 강회가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독서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 점이 특징적이다.<sup>5)</sup>

서원의 규정으로 볼 때 강회에 관련한 조항은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원규(1543)>나 이황의 <이산서원원규(1558)>에도 강회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다만 이이가 설립하여 나중에 소현서원으로 발전한 황해도 해주의 은병정사의 학규에는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있다.

유생들은 비록 다 같이 모일 때가 아닐지라도 매월 반드시 한 번은 정사에 모여 [매월 초하루에 반드시 모인다. 초하루에 일이 있으면 늦추되 3~4일을 넘지 않게 하고, 유사가 미리 회문(回文)을 보내 두루 알린다.] 의리를 강론하고 직월을 다시 정한다.<sup>6)</sup>

4) 호계서원과 안동향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儒學研究』,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1, 97~98쪽.

5)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2, 2009, 61~62쪽.

이 학규에도 강회가 분명하게 쓰이지는 않았지만 매월 초하루에 의리를 강론하는 월삭 모임을 정기적으로 여는 것을 정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은병정사약속(隱屏精舍約束)>에 보다 구체화하였다.

정사에 입학한 유생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 정사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상관없이 모두 마땅히 힘써 공부해야 한다. (중략) 매월 초하루에 정사에서 모두 모여서 공부하여 얻은 것을 서로 강론한다. 비록 초하루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모름지기 자주 와서 배움을 요청해야 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sup>7)</sup>

이 규정을 참조해 보면 입재한 유생은 거주의 형태가 집이든 정사이든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 초하루에 정기적인 모임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이에 공부하여 알게 된 것에 대해 이때 토론을 하였으며, 이것은 곧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각자 공부한 것을 토대로 ‘강회’에서 모여서 그 성과를 토론하는 형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사나 서당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공부 방법은 이후 초기 서원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한강(寒岡) 정구(鄭逵)의 규정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구는 64세인 1606년(선조 39)에 향중의 자제를 모아 강학하며 만든 <강법(講法)>과 <통독회의(通讀會儀)>에서 ‘월강(月講)’이나 ‘월망(月望) 강회’를 시행하고 이때 『소학』 등의 책을 통독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강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련된 여러 규정이 있었으며 의식 절차를 수록하였다.<sup>8)</sup> 대

6) 『栗谷全書』 권15, 「雜著」2, <隱屏精舍學規>, “諸生雖非聚會之時每月須一會于精舍(月朔必會. 朔日有故則退定, 不出一二四日. 有司先期出回文周告.), 講論義理, 且改定直月.”

7) 위와 같은 곳, <隱屏精舍約束>, “入齋諸生, 宜一心爲學. 不論在齋在家, 皆當勉勵(중략) 每月朔, 齊會精舍, 相講所得. 雖非朔會, 須頻來請益, 勿浪過時月.”

8)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중배, 앞의 논문, 2009, 64~67쪽.

체로 강회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공부하고 온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토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17세기의 서원 강회에서는 토론보다는 학습에 대한 평가 위주로 강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일정한 규범과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sup>9)</sup>

물론 16~17세기의 서원에서의 강회에서 개인적인 독서에 기초하여 그 학습내용을 평가하는 것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모여서 강론하는 경우가 있었으며,<sup>10)</sup> 나아가 이황이나 조목은 역동서원에서 모여 강론하거나 회강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1)</sup> 회강의 경우 강학 이외에 별도의 절차나 의례는 없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하지만 대체로 경전에 대한 통독과 번역, 해석이 위주가 되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sup>13)</sup>

호계서원의 경우 처음 건립되었을 즈음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남치리(南致利, 1543~1580)의 원규를 살펴보면 서원에서의 강학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 9) 정구의 〈講法〉과 〈通讀會儀〉는 그가 64세 때에 망운암(望雲庵, 檜淵書堂 東畔의 茅齋)에서 교육할 때 지은 것이기는 하나, 62세 때에 현풍의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원규(院規)를 제정하였기에 서원에 적용할 수도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정순목, 「寒岡 鄭陟의 敎學思想」, 『한국의 철학』 13, 1985, 157~158쪽.
- 10) 『중종실록』 권81, 중종 31년 2월 6일 신묘.
- 11) 이황의 경우 1570년 역동서원에서 『심경』을 읽고 회강하였고, 조목 역시 역동서원에서 1581년과 1594년에 회강하였는데 1594년에는 『심경』을 읽었다. 『퇴계연보』, 『월천연보』 참조.
- 12) 16세기 중반 이후에 안동 지역의 서당이나 서원에서 이전과는 달리 ‘도학적 성격’의 변화가 통독, 강회라는 강학 방식과 정읍례 등의 강학 의례로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 정경주, 「16세기 안동 지방의 서당의 강학 의식」, 『조선의 서당에서 배우는 사회적 교육의 지혜』, 새물결, 2018, 172~180쪽; 김자은, 「조선 서원의 강학 의례와 교육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76, II장 참조.
- 13) 박세채(朴世采)가 주관한 문회서원(文會書院) 강의에 대한 기록에서 회강의 사례를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대식, 「조선 서원 강학 활동의 성격-회강(會講)과 강회(講會)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읽는 교육사』, 문음사, 2006, 442~444쪽.

여러 유생의 독서는 사서오경으로써 본원으로 삼고 소학·가례로써 문호(門戶)로 삼아, 국가가 선비 기르는 방법을 따르며 성현의 친절한 훈계를 지키고, 만 가지 선이 본래 나에게 갖추어짐을 알고, 옛 도가 지금 천명될 수 있음을 믿고서, 힘써 행하고 마음으로 얻는 학문과 본체를 밝히고 적용하는 학문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제사자집(諸史子集)과 사장과거(詞章科舉)의 학업도 널리 힘쓰고 두루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여러 유생은 항상 마땅히 고요하게 각재(各齋)에 거처하며 전적으로 독서에 정진할 것이며, 의심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운 곳을 강구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다른 재(齋)에 헛되어 들러서 쓸데없이 답소하고 시간을 보내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과 과거의 학업을 황폐하게 해서는 안 된다.<sup>14)</sup>

위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강서원에서의 학습에서 주안점이 놓인 지점은 학문을 닦는 것과 동시에 과거 공부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생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독서에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어려운 구절을 논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잡담하지 않는 것을 주문하였던 것이다. 이런 규정을 보면 초기 서원에서의 강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학습이나 자유로운 학문토론 등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공부는 물론 과거 공부가 반드시 우선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강서원 초기의 원장이었던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은 1581년(선조 14)에 존도사(尊道詞)를 배알하고 여러 유생들을 이끌어 강학을 하였다. 이때 시를 지어서 유생들에게 보였는데, 그 구절에서 “날마다 내 몸을 세 가지로 반성하는 것, 공부할 때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네.”<sup>15)</sup>라고 하여서 개인

14) 『永嘉誌』 권4, 「書院」,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源, 以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俱本於我, 信古道可關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詞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博務旁通. (중략) 諸生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虛談度日, 以致彼我荒思廢業.”

15) 『松巖集』別集「年譜」, “以詩示諸生曰: “吾身日省在曾三, 爲學工夫是指南, 時雨孔門誰能化? 春風程座更難參. 餘音恰似瑤琴奏, 至訓何徒玉屑談. 老學誰能同秉燭? 冥行擲埴自多慙.”

의 수양을 하는 관점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16~17세기에 호계서원에 대해 기록한 개인의 일기에서도 강학에 관련된 내용은 찾기가 힘들다. 도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김령(金垚, 1577~1641)의 『계암일록(溪巖日錄)』(1603~1641)이나 도산서원과 역동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김광계(金光繼, 1580~1646)의 『매원일기(梅園日記)』(1603~1645)를 살펴봐도 강학에 관련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들이 예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안동의 수서원(首書院)이었던 호계서원과 관련하여 강학 관련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면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들 일기에서는 여강서원의 중건에 따른 위판의 봉안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200명이 모인 모임 소식,<sup>16)</sup> 여강서원의 원장인 권굉(權宏, 1575~1652)의 편지로 인해 김성일의 유고를 여강서원에서 모은다는 소식,<sup>17)</sup> 여산서원 원장 김봉조(金奉祖) 등이 류성룡과 김성일을 한 곳에 모아 종향하자는 통문,<sup>18)</sup> 여강서원의 알묘(謁廟) 모임에서 김성일을 비난한 권귀중을 삭적하려던 일,<sup>19)</sup> 김령이 여강서원으로 가서 권굉 등과 함께 3일을 지낸 일<sup>20)</sup> 등이 여강서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강학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여강서원 원장인 김시추(金是樞)가 개와 닭 등 거접에 필요한 물건을 크게 마련하였다는 소식,<sup>21)</sup> 여강서원 원장 이지가 김초와 함께 『서애문집』을 보기 위해 여강서원으로 간다는 소식,<sup>22)</sup> 안동의 사인(士人)들이 김성일의 문집을 교정하기 위해 여강서원에 모였다는 소식<sup>23)</sup>

16) 『溪巖日錄』 선조 40년, 10월 8일.

17) 위의 책, 1614년(광해군 6) 1월 9일.

18) 위의 책, 1620년(광해군 12) 10월 10일.

19) 위의 책, 1641년(인조 19) 1월 8일.

20) 『매원일기』 1639년(인조 17) 10월 4일.

21) 『溪巖日錄』, 1629년(인조 7) 6월 18일.

22) 위의 책, 1631년(인조 9) 9월 26일.

23) 위의 책, 1640년(인조 18) 4월 13일.

등이 있다.<sup>24)</sup>

이런 일기 기록에서 본다면 역시 강학과 관련해서는 17세기 전반에도 서원에서 거접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문집의 교정을 위해 모였다는 것 정도가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와 같다면 16~17세기 강학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강학 제도의 미정비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원래 모여서 하는 공부로서의 회강이나 강회는 그 이후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실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의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학습에 대한 평가가 특징이었다면 굳이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19세기에는 강회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서원에서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였던 것은 그만큼 강회가 많이 행해진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경상도의 다른 서원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이 된다. 소수서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761~1828년 사이 70여 년 동안 거재 8차례, 거접 3차례, 강회 2차례, 백일장 8차례, 순제(旬題) 10차례 등이 개설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759년(영조 35)에 거재 등 과정을 열기로 합의한 이후의 성과였다.<sup>26)</sup>

다만 여강서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출판 활동 역시 기본적으로는 강학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황과 그 문인인 김성일의 저서나 문집이 교정되고 간행된 것이다. 서원의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바로 1575년 권호문은 권우(權宇)와 함께 이황의 『송계원명리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을 강학하며 교정하여 간행하였다.<sup>27)</sup> 이에 권호문은 발문을 짓고 반년이 지나 간행되었다.

24) 이밖에도 호계서원에서 강학하면서 『퇴계집』을 교정한 경우(1587년)도 있다. 『月川集』 월천선생연보연보(年譜), 정해년(1587, 선조20).

25) 강학 제도의 미정비로 인해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설명은 김자운, 앞의 논문, 2021, 100쪽.

26) 尹熙勉,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 사례」, 『歷史教育』 92, 2004, 101~104쪽.

27) 『松巖集』別集「松巖先生年譜」 선조 8년 을해. 이에 따르면 부사 권문해가 권호



이 책은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말에서 당대(當代)인 명까지 성리학자들을 정리한 성리학사이며 동시에 학술사로 편찬한 책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성리학의 원류에 해당하는 중국의 경우를 정리함으로써 조선의 성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의를 지닌 책이다.<sup>28)</sup> 따라서 이 책을 여강서원에서 첫 번째로 간행한 사실 역시 이황이 주체적으로 조선의 성리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을 수 있겠다. 이후 여강서원에서 조목(趙穆)이 『학부통변(學部通辨)』 한 질을 구해서 강론하였던 사실을 이덕홍(李德弘)이 언급한 것도 『송계원명리학통록』의 교정과 정에서의 강학과 관련하여 명의 성리학을 재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sup>29)</sup>

이후에도 1578년에는 이황의 『계몽전의(啓蒙傳疑)』를 간행하였고, 1587년에는 이곳에서 김성일과 조목이 중심이 되어 『퇴계집』을 교정하기도 하였다.<sup>30)</sup> 동문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문집을 교정하는 일 역시 강학의 과정이었다. 또한 김성일의 『학봉집(鶴峯集)』(1649)과 그의 연보(1726)도 이곳에서 간행되었다.<sup>31)</sup> 이후 『학봉집』은 1782년에 속집이 후손과 이상정(李象靖)에 의해 5권 3책으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sup>32)</sup> 1785년에는 『주서강록간보(朱書講錄刊補)』를 간행하였는데,<sup>33)</sup> 이 책은 이덕홍이 이황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에 주석을 붙인 『주자서절요강록』을 이재(李裁)가 수정하여 증보한

문에게 함께 간행을 의논하고 감사에게 요청하자 권호문에게 교정을 위촉하여 진행된 일이었다.

- 28) 『송계원명리학통록』의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과와 사상』, 신구문화사, 2008, 제1부 1장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술관과 정치사상 참조.
- 29) 『良齋集』 권7, 「雜著」〈진청란의 《학부통변》〈심도설〉에 대한 변증(陳靑巖學部通辨心圖說辨)〉
- 30) 『鶴峯集』 부록 권1, 「연보(年譜)」; 『月川集』 「年譜」, 「萬曆15年 丁亥」
- 31) 『鶴峯集』 부록 권1, 「연보(年譜)」.
- 32) 『大山集』 권15, 「書」〈봉정사의 회중에게 보냄 신축년(1781, 정조5) [與鳳亭寺會中 辛丑]〉.
- 33) 『九思堂集』 권4, 「書」〈이시백인훈에게 답함 갑신년(1764, 영조40) [答李施伯仁 甲申]〉.

것이다. 이렇게 여강서원에서의 출판작업은 18세기까지도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강학이 동반된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실이다.

호계서원에서는 18세기 이후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강회에 관한 기록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진행 중이다.<sup>34)</sup> 18~19세기에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기록의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 1765년의 강회와 1856년의 강회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廬江記聞錄』과 『虎溪講錄』의 자료를 기반으로 상세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이 시기에 이루어진 강회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의 강학활동과 관련된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8~19세기 호계서원 강학 활동<sup>35)</sup>

연도	강학 교재	원장과 참여자	근거 자료
1718.06	太極圖說	李栽(洞主), 權斗經, 김창석, 권두기, 권이진(안동부사)	『密菴集』, 虎溪書院 文會
1728.07	近思錄	金聖鐸, 李穰	『霽山集』 年譜, 講
1729.春	講學	李栽(동주), 李光靖, 金聖鐸 등 7인	『密菴集』 『霽山集』 年譜 遊虎溪書院
1731	西銘, 太極圖說	李穰(훈장), 안동부 유생	『顧齋集』(?)
1741.08	中庸	李蒼秀	『言窩集』 年譜 講中庸
1765.윤2	大學, 心經	金宅東(洞主), 李象淸(講席), 金樂行, 李象辰, 柳範休 등 90여 명	『廬江記聞錄』, 『大山集』
1789.07	心經	鄭來成(洞主), 柳長源(講席), 200여 명(7일 간)	『廬江講會錄』
1801.07	心經	(金士+宏)	『龜窩集』

34)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講會)와 학술활동」,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교육사학연구』 22-1, 2012; 김자운, 앞의 논문, 2021; 김자운·이우진 「1765년 虎溪書院 『大學』 강회 연구(1)」, 『민족문화논총』 79, 2021.

35) 이 표는 김자운, 앞의 논문, 2021, 100~101쪽의 표2 〈호계서원 강학 현황〉를 기본적으로 참조하여 보완한 것이다.

1831	太極圖說 近思錄, 中庸, 大學或問	李秉遠(洞主)講席, 金岱鎭 등(20일 간)	『訂窩集』
1856.11	心經	柳致明(講席) 수 백명	『虎溪書院講錄』
1863.秋	西銘	金岱鎭(訓長), 유생	『訂窩集』
1891.05	玉山講義	金興洛	『西山先生文集』
1892.02	廬江講會		『日記』

이들 강회는 몇 명이 참여하는 형태의 소규모로 열리기도 하였지만 18세기 중반 이후는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1731년의 강회에서는 경상감사 조현명(趙顯命)의 흥학책과 관련되어, 1856년의 강회에서는 경상감사 신석우(申錫愚)의 흥학책과 관련되어 강회가 열렸다. 강회에 참여하고 주도하였던 인물들은 대체로 사승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대체로 이황-김성일-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연결되는 인물과 관련이 있었다.

이재, 이만, 김성탁 등 18세기 초반에 강회를 주도하였던 이들은 모두 이현일의 문인이었다. 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주도한 유장원과 김굉은 이상정의 문인이며, 이병원은 이상정의 문인이며 손자였고, 유치명은 이상정의 외증손, 김대진은 이병원의 문인, 김흥락은 유치명의 문인이었다.<sup>36)</sup>

이들 강회에서는 『대학』, 『중용』, 『근사록』, 『심경』, 『태극도설』, 『서명』 등이 교재로 쓰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심경』의 비중이 높았다. 강회에서는 참여자의 연령이나 학문 수준을 고려하여 진강(進講) 후에 문답이 이어졌는데,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즉 단순하게 글자의 뜻을 문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해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와 같은 토론이 이어지기도 하였다.<sup>37)</sup>

36) 김자운, 앞의 논문, 2021, 111쪽.

37) 최광만, 앞의 논문, 2012과 김자운·이우진, 앞의 논문, 2021에서 강회의 구체적 형식이 분석된 것을 종합하였다.

### Ⅲ. 호계서원의 학풍

그렇다면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활동은 호계서원의 학풍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호계서원이 안동 최초의 서원이면서 대표적인 서원이었으므로 그 학풍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다만 16~17세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학 활동이 있었지만, 강회와 같은 세미나의 형태라기보다는 개인의 공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경향이 있으므로 학풍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서원에서의 논의가 남아 있는 『여강지(廬江志)』에는 주로 서원에 어떠한 인물을 모실 것인지에 관한 기록은 어느 정도 상세하게 있다. 1619~1620년에 논의된 류성룡과 김성일의 합향론이나 구봉령(具鳳齡)의 합향론, 1620~1649년에 세 차례에 걸친 남치리(南致利)의 추향론 등이 그 예이다.<sup>38)</sup> 물론 이황을 모신 서원에 어떤 제자를 모실 것인지의 문제는 이황의 학통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의 문제와 연관되지만, 이러한 합향론의 결과 실제로 성사된 류성룡과 김성일의 합향과 학풍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학풍과의 연관보다는 류성룡과 김성일의 합향이 논의된 계기가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sup>39)</sup> 더구나 합향되지 못한 경우도 학풍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남치리의 경우도 추향에 실패한 것은 학풍의 차이라기보다는 관직을 하지 않았기에 ‘일향(一鄕)의 선사(善士)’였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기 때문이다.<sup>40)</sup>

따라서 여강서원에서 강학하였던 활동과 관련된 서적을 중심으로 여강서원의 학풍을 추론해 보기로 하겠다. 서원이 건립되고 난 뒤에 비교적 초기에 강학의 교재로 사용된 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학부통변(學菴通辨)』이다.

38)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金鶴洙,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朝鮮神祕時代의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의 III장에 자세하다.

39) 金鶴洙, 앞의 논문, 1998, 460쪽.

40) 金鶴洙, 앞의 논문, 1998, 472~479쪽.

이 책은 명나라의 학자인 진건(陳建, 1479~1567)이 불교, 육구연(陸九淵), 왕수인(王守仁)의 학문을 이단으로 정의하고 이를 배척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이덕홍의 증언에 따르면 여강서원에서 이를 강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월천(趙月川)이 진청란(陳靑蘭)이 지은 『학부통변(學菴通辨)』 한 짚을 구해 근래에 여러 사람과 여강서원(廬江書院)에서 한 차례 강론하였는데, 늘 나를 보면 반드시 거론하며 유가(儒家)와 불가(佛家)의 귀취(歸趣)와 주자와 육구연(陸九淵)의 다른 점을 잘 밝혔다고 일컬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삼가 한 번 읽어보니, 그 책이 의리(義理)가 분명하고 이치를 드러냄이 정당하며 사설(邪說)을 물리치고 정학(正學)을 보호하여 유가의 도(道)에 크게 공이 있음을 알았다. 배우는 자들이 가까이하여 읽는다면 주자가 주자가 된 까닭과 육구연이 육구연이 된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양명(陽明)의 정론(定論)의 잘못과 황돈(篋墩)의 『도일편(道一編)』의 그릇됨이 절로 그 실정을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투철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여 <심도(心圖)>를 만들면서 인의예지(仁義禮智)·덕성(德性)·의리(義理)를 도심(道心)이라 하였고, 허령지각(虛靈知覺)·정신(精神)·기품(氣稟)을 인심(人心)이라 하였으며, 또 「우서(虞書)와 장자(張子)의 설을 인용하여 해설하기를 “성(性)은 도심이고, 지각은 인심이다.” 하였다. 나는 청란의 이 도(圖)와 이 설(說)이 주자의 <중용서문>과 다르고, 나정암(羅整菴)이 『곤지기(困知記)』에서 말한 ‘도심은 체(體)가 되고 인심은 용(用)이 된다.’라고 한 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나정암이 일생 동안 주자를 존중하고, 늘 양명(陽明)과 백사(白沙) 등을 배척하였으니 그 공로 또한 적지 않다. 오직 이 점[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회옹(晦翁) 주희(朱熹)를 배척하는 허물을 짓고 말았는데, 청란이 자기 견해에 빠져서 살피지 못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도(道)를 도로 여기고 그 심(心)을 심이라 주장하여 그 설을 후세에 오래도록 전하려 한 것인가. 선유(先儒)의 정론을 가지고 반박해 보고자 한다.<sup>41)</sup>

주자와 육구연의 학문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해서 조목이 주목하

41) 『良齋集』 권7, 「雜著」 <진청란의 『학부통변』 <심도설>에 대한 변증(陳靑蘭學菴通辨心圖說辨)〉

었던 점은 이황이 이미 이 책에 대해 그의 「심경후론(心經後論)」에서 『학부통변』을 언급하며 “주희의 학문과 육구연의 학문이 같고 다른 점을 밝혀 놓았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건의 『학부통변』은 왕양명에 대한 비판보다는 육구연에 대한 비판에 좀 더 치중했는데, 이는 육구연이 선기(禪機)를 숨겼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진건이 나흠순 이후 주자학의 충실한 계승자라는 평가와도 연결이 된다.<sup>4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덕홍 역시 진건의 『학부통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던 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황이 지은 『송계원명이학통록』에 대한 교정과 간행 역시 이러한 당대 사상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이황은 양명학에서 유래한 문제제기 곧 인간의 주체적 측면, 수양적 측면에서 심(心)의 문제를 매우 고민하였다. 원이나 명의 학자들에 비해 남송의 학자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양명학에서 제기한 심, 곧 내면의 주체를 성리학의 틀 내로 끌어들여 해결하려던 노력의 소산이었다. 그래서 명나라 학자들에 대해서는 하흠(賀欽)을 제외하고는 『황명리학명신언행록(皇明理學名臣言行錄)』에 실린 학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정도로만 그쳤다.<sup>43)</sup>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송계원명이학통록』의 교정과 간행, 그리고 『학부통변』의 강론을 통해 당대에 문제가 되었던 양명학과 성리학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조선 나름으로 이해하려던 흐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황이 정리한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곧 호계서원의 학풍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며, 이후 조선의 주자학으로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퇴계집』과 『학봉집』의 교정과 간행 역시 호계서원의 학풍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황과 김성일로 이어지는 학문의 계승을 확인할 수 있으며, 류성룡의 『서애집(西厓集)』의 등사도 이루어진 것(1631)

42) 이동희, 「陳建의 『學部通辨』과 그의 朱子學」, 『儒學思想研究』 7, 1994 참조.

43) 정재훈, 앞의 책, 2008, 35~42쪽.

역시 이황의 학문이 김성일과 류성룡 두 사람에게 의해 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1765년 강회에서는 『대학』과 『심경』을 주로 강론했다. 이때의 강회는 『여강기문록(廬江記文錄)』에 상세하게 그 문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이루어졌다.<sup>45)</sup> 이에 따르면 『여강기문록』에는 주로 『대학』 강회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으며, 3일간 진행된 『심경』 강회의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이재의 문인으로 강회에 초빙된 이상정(李象靖, 1711~1781)과 『대학』 강회의 마지막 날 장석(丈席)에 오른 김낙행(金樂行, 1708~1766)에 의해 주도된 강회에서는 『대학장구(大學章句)』의 본문 및 주자의 주석, 『대학혹문(大學或問)』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여기에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의 소주(小註)까지도 논의되었다.

대체로 주희의 견해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사이에 큰 이의가 없던 반면에 명대에 편찬된 『사서대전(四書大全)』의 하나였던 『대학장구대전』에 대해서는 논의에 이견이 있었다. 문답의 내용은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의 관계, 팔조목 사이의 관계 등 이상정의 『대학』에 대한 이해, 존덕성(尊德性)과 일상에서의 실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상정의 사상에 대한 이해, 일상적인 공부법으로 이황의 강조한 무자기(毋自欺)와 신기독(慎其獨)에 대한 이해 등이 주를 이루었다.<sup>46)</sup>

1856년 강회에서는 이황에 의해 존송된 『심경부주(心經附註)』와 이상정에 의해 정리되기 시작한 『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를 이해하고 이 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심경부주』의 각 장마다 참석자들이 논의한 문답이 이어졌고, 이를 정리하여 『호계강록(虎溪講錄)』에 기록하였다.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장석(丈席)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이었고 훈장인 유치호(柳致

44) 『溪巖日錄』 辛未 7월 19일. 이때에는 『鶴峯集』의 등사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1620년에 류성룡과 김성일의 합향(合享)이 이루어진 다음이다.

45) 김자운·이우진, 앞의 논문, 2021 참조.

46) 김자운·이우진, 앞의 논문, 2021, 28~33쪽.

曠, 1800~1862)와 동주 김건수(金健壽, 1804~1866)이다. 강회는 모두 34인이 참여하여 11월 17일부터 5일간 진행되었다.

강회도 중요하지만, 강회를 마치고 파회할 때에 향음주례도 행하여 의례의 실천을 통해 이 강회에 참여한 이들의 소속감과 유대의 강화를 도모하였고, 학풍으로서도 이황-김성일-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문의 계승을 추구하였다.<sup>47)</sup> 강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산집(大山集)』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곧 『심경부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이상정의 논의를 근거로 논란에 대해 대처함으로써 이상정의 학문과 그에 대한 추숭의 과정에서 이 강회가 기획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송시열의 『심경석의』에 대하여, 이상정이 지은 『심경강록강보』에 이어 『호계강록』을 간행하여 그 계승의식을 뚜렷하게 하였다.<sup>48)</sup>

그렇다면 18세기와 19세기에 『심경』을 집중적으로 강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심경』에 관심이 모이고 이 책이 문제가 된 것은 16세기 중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심경부주』는 주지하다시피 주희의 재전(再傳) 제자인 남송의 진덕수(眞德秀)가 지은 『심경』에 명나라의 정민정(程敏政)이 주(註)를 붙인 책으로서, 이황은 부주(附註) 중의 잘못된 곳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신의 「심경후론(心經後論)」을 첨부하여 간행하였다. 이는 명에서 유행한 심학, 곧 양명학의 영향에 대해 주자성리학의 입장에서 대응한 것으로서 이황 역시 양명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심의 문제를 주자성리학의 관점에서 재정리한 것이었다. 이황에 의해 일단 방향이 지워진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심성수양에 치중한 것으로서 이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성리학의 이론에서 더 이상 이학의 학설을 고집하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완고하게 지키려는 유치명-김흥락(金興洛)의 계열에서는 여전히 『심경』에 집중하여 강회를 진행하였

47) 최광만, 앞의 논문, 2012, 132~133쪽.

48) 『虎溪講錄』 “有志於學者, 不可舍此書而他求. 虎溪講會屢次是書, 前者已有講錄刊補焉, 今又講錄行焉, 學此書者其難也哉. 唯患不觀耳.”



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심(心)을 이와 기의 합으로 보는 심설과는 달리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한 강우(江右)의 이진상(李震相)이나 서학(西學)에 대항하여 동학(東學)을 창도한 최계우(崔濟愚)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sup>49)</sup>

물론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회의 강학에서 『심경』 이외의 다른 경서가 강학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중용』, 『근사록』, 『태극도설』, 『서명』 등도 강학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외에도 강학 기록이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른 서원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심경』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할 수 있다.

정사(精舍)까지 포함하여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를 살핀 연구에 따르면 1811년 8월의 고산정사의 강회에서는 『대산집』에서의 세 가지 설에 대해, 1846년 9월의 고산정사 강회에서는 주희의 『옥산강의(玉山講義)』를 강하였다. 도산서원의 원장인 이한응(李漢膺)은 1850년 오산당(吾山堂) 강회에서 『대학』을 지구 하나에서 문장의 뜻까지 강론하기도 하였다.<sup>50)</sup>

이 시기 서인-노론계 서원의 학규에는 강론할 도서에 대해 이에 규정해 놓은 예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이재(李穡, 1680~1746)의 심곡서원(深谷書院)의 학규에서는 『소학』과 『대학』을 읽은 이후에 나머지 사서와 삼경, 그리고 『심경』·『근사록』·『가례』 등을 읽도록 하였다. 윤봉구(尹鳳九, 1683~1767)는 <노강서원강학규목(老江書院講學規目)>에 강회에서는 『소학』과 사서오경, 『가례』·『심경』·『근사록』과 이황의 『주자서절요』와 이이의 『성학집요』를 강하도록 권하였다. 또 자신이 만든 강학회에서는 격월의 강학교재로 위 책 이외에 『근사록』, 『태극도설』, 『통서』, 『역학계몽』, 『강목』 등을 읽는다고 하였다.<sup>51)</sup>

이와 같이 살펴보면 호계서원을 비롯하여 영남의 서원만이 아니라 많은 서원은 18~19세기에 문중서원화(門中書院化)하면서 교육보다는 제사, 곧 향

49)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民族文化論叢』 70, 2018, 54~60쪽.

50) 권오영, 앞의 논문, 2003, 202~229쪽.

51) 박종배, 앞의 논문, 2009, 67~74쪽.

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나름 집단적인 강회를 중심으로 서원에서의 교육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52)</sup> 왜냐하면 이러한 집단적인 강회는 10년이나 20년 동안 열리지 않고 끊기기도 하였지만,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서원에서의 강학 기능이 일부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심경』을 중심으로 한 강학 활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로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참여한 강학의 기록을 남긴 점은 학풍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종래 호계서원으로 대표되는 학맥의 계승이 반영된 학풍이었다. 이황-김성일-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문의 경향성은 『심경』의 강학을 통해 이어졌던 것이다. 이황이 주목하였던 『심경』에 대한 탐색은 당대 성리학의 한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19세기로 오면서 강조된 『심경』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는, 한편으로 심학적 학풍을 간직하여 실천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당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18~19세기의 서원에서의 강회가 갖는 의미는 호계서원만이 아니라 다른 서원에서도 비슷하였다. 이들 서원에서의 강회는 산림의 학자들에 의해 강회가 주도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또한 지방관의 권학과 연관되었던 점도 특징적이다. 호계서원에서 1731년 이만이 훈장을 맡아 강회를 열고 『서명』과 『태극도설』을 강론한 것은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조현명의 흥학책 및 권학절목의 영향을 받은 사실과 관련되었다. 또 1856년 호계서원에서의 강회 역시 경상감사인 신석우의 흥학책에 부응하여 유치명의 주도로 이루어진

52) 김대식, 「화서(華西) 문인공동체(門人共同體) 강회(講會)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21-1, 2011; 高山精舍를 서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강회를 열었던 경우에 있었다. 전병철, 「大山學派의 高山精舍 講會와 性理說 講論」, 『東方漢文學』 38, 2009 참조.

사실도 그러한 사례이다. 조현명의 경우 호계서원만이 아니라 삼계서원(三溪書院)을 중심으로 펼친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의 서원강화론에도 영향을 주었다.<sup>53)</sup>

호계서원의 지방관과의 연관성은 비단 18~19세기에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 서원, 곧 16~17세기의 서원에서의 특징이라고 지적된 ‘유생 스스로의 분발과 흥기에 의존하는 자율성의 극대화’를 통한 자기수양이라는 측면 역시 존재하였지만,<sup>54)</sup>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독서의 기능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향교외도 연관이 있었던 점은 호계서원이 갖는 학풍을 설명하는 또 다른 측면의 특징이기도 하겠다.

#### IV. 맺음말

안동에서 최초로 세워진 호계서원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황과 그의 제자인 류성룡, 김성일을 모신 사액서원으로서 안동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서원은 16세기에 조선 사회에 등장한 이래 사림의 성장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호계서원에 주향인 이황은 서원의 교육에서도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을 이루었다. 곧 단순히 유생이 모여 과거 공부를 하는 학습장소로서 관학의 보조적 기구 역할을 하였던 초기 백운동서원을 사림의 강학·장수(藏修)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바꾸었던 것이다.

초기 서원에서 이황이 제시한 원칙은 그의 영향을 받은 서원들에게 상당히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16~17세기의 강학 활동은 개인적인 학습

53) 鄭萬祚, 「退溪學派의 書院(教育)論」, 『南溟學研究』 9, 1999, 198~202쪽. 이광정이 지은 거재권유문(居齋勸諭文)과 절목(節目)에서 서원 아래에 면리(面里)의 하부구조를 두고 강제적으로 학습하는 성격을 지닌 평가제를 도입한 것이 그 내용이다.

54) 鄭萬祚, 앞의 논문, 1999 참조.

이 위주가 되어 유생 스스로의 분발과 흥기에 의존하는 자율성의 도모를 꾀 하였던 것이다. 또 이것은 유생 스스로의 강습과 봉우 상호간의 강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호계서원의 경우에도 그런 측면이 강하여 이 시기 개별적인 학습을 중시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 위주로 강회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럿이 모여서 강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다만 초기의 서원 연구에서 강조되는 유생 자율의 측면은 호계서원의 경우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이는 안동에서 이황의 문인 제자들이 많았으며, 서원의 건립과정이나 이후 교육과정에서 보면 관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호계서원의 건립될 때 향교보다도 큰 규모로 건립되거나 호계서원의 원장이 향교의 유생 고관에 관여하기도 하였고, 또 안동부사 권이진은 호계서원의 강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개인적인 수양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중시하면서도 과거 공부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 유생에게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의 독서를 중요하게 보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학습이나 자유로운 학문토론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 강회가 있더라도 강독이나 해석에 치중하여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우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집단적인 강회에 대한 기록은 적을 수밖에 없었으며, 관과의 연관도 상대적으로 그 접촉면이 많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8~19세기에는 변화하였다. 이전에 개인적인 자율적 학습이 강조되던 분위기에서 집단적인 학습으로서 강학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학습은 강회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산림 학자가 주도하였다. 경상도 지역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대두됨에 따라 강회에서는 단순한 해석이나 문답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토론의 기능이 확대되어 집단적인 학습으로 강학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강회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겼던 것이다.

호계서원의 경우에도 16~17세기에는 거점이 이루어졌고, 이황이나 김성

일의 문집을 간행하기도 하면서 일부 강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8~19세기에는 대규모의 강회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록으로까지 남기는 경우가 생겼다. 이들 강회에서는 『대학』, 『중용』, 『근사록』, 『심경』, 『태극도설』, 『서명』 등 다양한 서적이 검토되었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도 『심경』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미 이황의 단계에서부터 『심경』에 대한 주목이 높았던 사실과 연관된다. 호계서원에서 간행된 『송계원명이학통록』이나 강론된 『학부통변』 역시 이황이 당대 조선에서의 성리학의 이해와 실천 방향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가운데 저술되거나 주목된 책으로서 실천적인 고민 아래에 주목된 것이었다. 하지만 18~19세기에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심경』에 대한 관심은 이황-김성일-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풍의 계승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는 심학에 기반한 성리학의 학설을 고집하기는 힘든 현실에서는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艮齋集』, 『溪巖日錄』, 『九思堂集』, 『大山集』, 『梅園日記』, 『松巖集』, 『廬江記聞錄』, 『永嘉誌』, 『惟一齋先生實記』, 『栗谷全書』, 『月川集』, 『中宗實錄』, 『退溪集』, 『鶴峯集』, 『虎溪講錄』

### 2. 논저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講會)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民族文化論叢』 70, 2018.
- 김대식, 「조선 서원 강학 활동의 성격- 회강(會講)과 강회(講會)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읽는 교육사』, 문음사, 2006.
- 김대식, 「화서(華西) 문인공동체(門人共同體) 강회(講會)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21-1, 2011.
-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虎溪書院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 김자운, 「조선 서원의 강학 의례와 교육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76, 2020.
-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儒學研究』,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1.
- 김자운·이우진 「1765년 虎溪書院 『大學』 강회 연구(1)」, 『민족문화논총』 79, 2021.
- 金鶴洙,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
-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2, 2009.
- 尹熙勉,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 사례」, 『歷史教育』 92, 2004.
- 이동희, 「陳建의 『學菴通辨』과 그의 朱子學」, 『儒學思想研究』 7, 1994.
- 전병철, 「大山學派의 高山精舍 講會와 性理說 講論」, 『東方漢文學』 38, 2009.
- 정경주, 「16세기 안동 지방의 서당의 강학 의식」, 『조선의 서당에서 배우는 사회적 교육의 지혜』, 새물결, 2018.

鄭萬祚, 「退溪學派의 書院(敎育)論」, 『南溟學研究』 9, 1999

정순목, 「寒岡 鄭述의 敎學思想」, 『한국의 철학』 13, 1985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신구문화사, 2008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교육사학연구』 22-1, 2012

Abstract

## Lecture activities and academic traditions of Hogye Seowon(虎溪書院)

Jung, Jaehoon\*

Hogye Seowon, which was first established in Andong, enshrines Lee Hwang, a representative scholar of the region, and his disciples Ryu Seong-ryong and Kim Seong-il, and is the representative Seowon of Andong. In the case of Hogye Seowon, similar to other Seowons, it seems that individual learning was emphasized and lectures were operated mainly for evalu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refore, there were relatively few records on running the lectur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re were cases where large-scale lectures were held collectively and even left a record. In these lectures, various books such as 『Great Learning(大學)』, 『Doctrine of the Mean(中庸)』, 『Reflection on Thing at Hand(近思錄)』, 『Shimgyeong(心經)』, 『Taeguk-doseol(太極圖說)』, and 『Seomyeong(西銘)』 were reviewed, but 『Shimgyeong』 had a high weight among them.

This tendency is related to the fact that from the stage of Lee Hwang, the attention on 『Shimgyeong(心經)』 was high. 『SonggyewonmyeonglihakTongrok』 published at Hogye Seowon and 『Hakbu Tongbyeon』 preached were also books that were written or noticed while Yi Hwang was agonizing over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Neo-Confucianism in Joseon at the time, and

---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jinsojung@knu.ac.kr



both books were practical concerns. However, the interest in 『Shimgyeong』 at Hogye Seow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had the meaning of confirming the succession of the academic tradition from Lee Hwang-Kim Seong-il-Lee Hyeon-il-Lee Jae-Lee Sang-jeong. This was a limitation in the real situation at the time when it was difficult to insist on the theory of Neo-Confucianism based on ‘Sim-studies(心學)’.

Key word : Hogye Seowon, Lecture activities, Academic traditions, 『Shimgyeong(心經)』

논문 투고일: 2022. 12. 12 심사 완료일: 2022. 12. 19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호계서원의 지식문화 인프라 : 서적의 생산과 보급

김 소 희\*

- I. 머리말
- II. 16세기 퇴계 저술의 교정과 목활자본의 제작·보급
- III. 17세기 학봉·서애의 문집 생산과 보급
- IV. 18세기 『朱書講錄刊補』의 생산과 보급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16~18세기에 虎溪書院(廬江書院)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생산과 보급을 통해 이 서원만이 지니는 출판문화사적인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16세기는 『理學通錄』과 『退溪集』이 간행되는 상황에서 여강서원이 특정 단계의 교정을 진행하거나 刊本 제작을 위한 蠹本을 제공하는 등 퇴계저술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여강서원목활자는 퇴계학맥을 계승한 문인들의 인적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지식의 생산과 보급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7세기에는 鶴峯과 西厓의 문집이 간행·보급되었는데, 『학봉집』은 1647년 여강서원에서 初刊된 이래로 李裁와 李象靖에 이르러 年譜(1726년)와 續集(1781년)이 續刊되었다. 1633년에는 합천에서 『서애집』이 초간되었는데, 당시 여강서원은 합천초간본 제작을 위한 淨書本을 담당할 정도로 상당한 출판업자를 갖추고 있었다. 18세기에 이재가 편찬한 『朱書講錄刊補』는 1743~1767년까지 장기간의 교정 끝에 1785년에 간행되어, 영남지역 가문을 중심으로 균형있게 보급되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 mstar78@aks.ac.kr

즉 호계서원은 16세기에는 퇴계의 저서를 중심으로 서적을 생산·보급하였고, 17세기 초에는 『서애집』 간행을 위한 협업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다가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봉 계열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선대의 업적을 추송하고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적을 간행하고 보급해 나갔다.

주제어 : 여강서원, 호계서원, 여강서원목활자, 학봉집, 주서강록간보

## I. 머리말

虎溪書院(廬江書院)<sup>1)</sup>은 16세기 한국 지성사를 대표하는 문신이자 학자인 退溪 李滉(1501~1570)을 주향으로 모시고, 그의 제자인 西厓 柳成龍(1542~1607)과 鶴峯 金誠一(1538~1593)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호계서원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는 크게 병호시비와 이로 인한 퇴계학과·안동유림의 분화와 관련한 정치사회사 분야의 연구와 講會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講學의 흐름과 변화상을 고찰한 연구<sup>2)</sup>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호계서원의 건립은 1574년(선조 7) 도산서원이 건립되기 이전인 1573년(선조 6) 정월에 이황의 문인인 松巖 權好文(1532~1587)이 易東書院에서 『退溪集』을 교정하고 스승을 제향하기 위해 서원 건립을 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sup>3)</sup> 이에 柏潭 具鳳齡(1526~1586) 등 여러 사람이 안동부에 畝豆를 議設하고 안동부 白蓮寺의 빈터에 터를 잡았다. 3월에는 때마침 草澗 權文海

1) 1676년에 여강서원에서 호계서원으로 사액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사액 이전에는 여강서원, 그 이후에는 호계서원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2) 선행연구와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김자운, 「조선시대 虎溪書院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91~92쪽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3) 權好文, 『松巖集』 別集年譜.

(1534~1591)가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제반의 일을 처리한 후 일을 함께 도모하였다. 그는 부임 초기에 제일 먼저 서원 터에 가서 형세를 살피고 안동부의 諸公들과 회의하여 일처리를 잘하는 유생 5-6인을 택해 役事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4월에 廬江에 가서 廢寺의 목재와 기와를 철거하고 마침내 사우들과 黌廬에 모여 대략적인 廟議를 기초하여 정립하였다.<sup>4)</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해 7월에 공사를 시작함에 가장 먼저 사당터(廟基)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堂基와 좌우의 齋舍, 廟宇, 강당 및 東齋와 西齋의 위치를 결정했다. 각각 순서대로 구축하였는데, 가장 늦게 樓가 이루어졌다.<sup>5)</sup> 8월에 권문해는 다시금 여강에 가서 院役을 감독했는데, 당시 여강서원 건립에 주축이 되었던 학봉 김성일, 南嶽 金復一(1541~1591), 惟一齋 金彥璣(1520~1588) 등이 방문했다.<sup>6)</sup>

1574년 정월에 권호문은 여강서원에 가서 이황을 추모하는 시를 지어 그의 손자인 蒙齋 李安道(1541~1584)에게 주는 한편<sup>7)</sup>, 「廬江書院 明倫堂 上樑文」을 지었다.<sup>8)</sup> 2월에는 안동부사 권문해가 향교에서 釋菜禮를 행한 후 여강서원의 院役을 감독하려 갔는데, 당시 廟宇와 齋堂이 거의 완성되었다. 이에 遠近의 同門과 諸賢 및 안동부의 有司들이 모두 회합하여 시를 지어 칭송하였다.<sup>9)</sup> 5월에 드디어 서원이 준공되자, 김복일은 우리나라 서원의 역사와 여강서원 건립의 추이 및 기대를 담은 「廬江書院呈文」을 작성하였다.<sup>10)</sup>

1575년 정월에 권호문이 여강서원에 가서 松巢 權宇(1552~1590)와 머물

4) 權文海, 『草潤集』 年譜.

5) 金璣...等, 『聯芳世稿』, 「南嶽先生遺稿」 卷8, 〈廬江書院呈文〉.

6) 權文海, 『草潤集』 年譜, “八月, 往廬江, 董院役. 金鶴峯, 金南嶽復一, 金惟一齋彥璣諸公皆來會.”

7) 權好文, 『松巖集』 別集年譜, 『松巖集』 別集卷2, 上樑文, 〈廬江書院明倫堂上樑文〉.

8) 權好文, 『松巖集』 別集卷2, 上樑文, 〈廬江書院明倫堂上樑文〉

9) 權文海, 『草潤集』, 年譜.

10) 金璣...等, 『聯芳世稿』, 「南嶽先生遺稿」 卷8, 〈廬江書院呈文〉.

며 학문을 토론하며 수창시를 지었고, 이듬해에 다시 여강서원에 가서 도산서원과 여강서원의 입학 儀節을 의논하고 결정했다. 아울러 2월에 도산서원과 동시에 퇴계선생의 위패를 여강서원에 봉안하고 향례를 행했다. 8월에는 여강서원 尊道祠를 배알하고 享禮를 행했는데 당시 여강서원 洞主는 권호문이었다.

이렇듯 1573년 권호문 등 퇴계 문인들에 의해 처음 건립 발의가 일어난 후, 1574년에 명륜당을 비롯하여 제반 건물의 준공을 거쳐 서원의 외형적인 체계를 구비하였으며 1575년에는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명실공히 안동의 首院으로서 발돋움하게 된다. 건립 이후에는 제향과 회합, 강론과 유람, 교정과 간행의 장소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1605년(선조 38) 7월 20일, 경상도와 강원도에 불어닥친 대홍수로 인해 여강서원은 위패만 간신히 구했을 뿐 전 건물이 수몰되었다. 수재로 인해 잠시나마 철폐의 위기 상황이 오기도 했지만 안동부사였던 柏巖 金玘(1540-1616)은 여강서원을 곧바로 중수하기 위해 여러 읍의 父老들과 모의하여 옛터에서 수백 보 뒤에 떨어진 곳에 서원을 확장하여 신축하였다. 김득은 퇴계 선생의 삼중손이자 당시 여강서원 원장이었던 松溪 李亨男(1556-1627)에게 신축의 일을 부탁하고, 자신의 녹봉을 내어 기물을 마련하고 노비를 늘려나갔다. 아울러 여강서원 慰安文과 祭文 및 上梁文을 작성하였다.<sup>11)</sup>

1607년(선조 40) 10월 8일 여강서원이 중건되자 위판을 봉안하고 移安祭를 행하였는데,<sup>12)</sup> 이후로는 1612년 月川 趙穆(1524-1606)을 從享하는 문제, 1619년의 학봉·서애의 合享時 위치와 호칭과 관련한 병호시비의 대두, 1630년에 南致利의 추향 논의 등의 복잡한 상황을 겪게 되다가 1676년(숙종 2)에

11) 金玘, 『栢巖先生文集』 年譜; 金玘, 『栢巖先生文集』 附錄下, 〈墓誌銘(李光庭)〉; 金玘, 『栢巖先生文集』 補遺, 書, 〈與李嘉仲【亨男○處江院長○丙午】〉; 당시 금역당 배용길은 여강서원 尊道祠 上梁文을 지어 온 나라에 문풍이 일어나고 영남에 가르침의 은택이 흠뻑 내리기를 기원하였다(裴龍吉, 『琴易堂集』 卷4, 雜著).

12) 金玘, 『溪巖日錄』, 1607년(선조 40) 10월 8일.

이르러서야 호계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18세기 초 葛庵 李玄逸(1627-1704)을 伸冤하기 위한 유생들의 疏廳 활동, 1750년(영조 26) 강당 대화재로 인한 서책의 소실, 1812년 大山 李象疇(1711-1781)을 추향하는 논의로 말미암은 병호시비의 재현, 1868년 서원철폐령에 따른 임천서원 복설창의소의 제청, 1895년 단발령에 따른 통문의 발송과 해결방안 모색, 1896년 안동 의병 지원 등 건립 이후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본고는 16세기 이래로 호계서원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다양한 역사적 산물들 중에서,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지식문화 인프라, 특히 서적의 생산과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타 서원과 차별화되는 호계서원만이 지니는 출판문화사적인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서적의 생산과 관련하여 호계서적의 서적 간행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1796년(정조 20)에 徐有榘 등이 명을 받아 간행한 전국책판목록실태보고서 성격인 『鑊板考』를 들 수 있다. 여기에 실린 서원책판은 총82개처에 184부인데, 이 중 호계서원에서는 2종이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 2종은 『朱書講錄刊補』 6권, 『鶴峯文集』 8권·行狀 1권·續集5권을 묶어 서술한 것으로, 후술할 『학봉집』이 동시기가 아닌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1회가 아닌 2회의 간행사업이 된다. 이처럼 간행물의 종수만을 대상으로 타 서원들과 비교해본다면 출판문화사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13)</sup>

13) 소장서별로 살펴보면 경상도 예안 도산서원(17종), 경주 옥산서원(7종), 성주 회연서원(7종), 나성 노강서원(7종), 연산 돈암서원(5종), 의성 장대서원(4종), 안동 동락서원(4종), 경주 구강서원(3종), 상주 근암향현사(3종)·도남서원(3종)·옥성서원(3종), 선산 금오서원(3종), 안동 목계서원(3종)·병산서원(3종)·주계서원(3종), 진주 신당서원(3종), 청도 자계서원(3종), 함안 서산서원(3종), 함양 용문서원(3종), 한산 문헌서원(3종)이다. 호계서원은 전체 82개 서원 중 21번째에 해당하는 2종이 간행되었는데, 2종을 간행한 곳은 호계서원 이외에도 경주 서악서원, 밀양 예림서원, 상주 흥암서원, 선산 송산서원, 영천 매곡서당·삼봉서원·의산

또한 서원에서 어떠한 서적을 얼마나 소장했는지와 관련해서도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과 같이 다량의 장서가 현전하지도 않고 있으며, 관련된 장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요인은 1605년의 대홍수로 인해 건물 전체가 수몰되고<sup>14)</sup>, 1750년(영조 26)에는 講堂과 書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비하고 있던 다량의 책들과 기록물이 전소되었던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나마 영남지역에 소재한 향교, 서원 등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에 조사한 『嶺南各邑校院書冊錄』에 호계서원이 “『학봉집』 5권, 『학봉속집』 3권, 『주서강록간보』 3권, 『洪範衍義』 13권, 柳崇祖(1452-1512)가 편찬 『大學十箴』 1권과 『性理撮要』 1권” 등 6종 정도만 구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헌기록과 소장고문헌이 빈약한 상황에서 이 글은 실물자료의 분석 및 호계서원을 출입했던 인물들의 문집을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호계서원의 지식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서적의 생산과 보급이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16세기 퇴계 저서의 교정과 목활자본의 제작·보급

### 1. 『理學通錄』의 교정과 초간본의 대본 제공

『宋季元明理學通錄』 일명 『이학통록』은 퇴계 이황이 주희를 비롯하여 송~명에 이르는 400여년 동안의 560여명의 학자들의 전기 및 어록을 뽑아놓은

---

서원, 진주 대각서원, 고부 도계서원, 순천 옥천서원, 전주 석계서원, 보은 상현서원, 임천 칠산서원, 청주 화양서원, 용간 오산서원 등 16처이다.

14) 당시 홍수의 심각성은 일기를 비롯해 실록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수재로 인해 호계서원 장서와 인쇄기반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액운은 류운룡이 이황과 주고받았던 편지가 유실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안병걸,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류중영과 그 후손들의 학문-』,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171쪽).



책으로, 글의 출전은 『朱子大全』, 『心經附註』, 『性理大全』, 『延平答問』, 『四書章圖』 등 40여 종의 문헌을 활용하여 인용하였다. 이황은 이 책을 구상하면서 우선 本集과 外集으로 나누어 正學을 계승한 학자와 異敎를 전공한 학자에 차등을 두었다. 또한 本集은 다시 宋季, 元, 明이라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분하였다.<sup>15)</sup> 이 책의 역대 판본은 1575년에 안동부에서 간행한 초간본(추정), 1576년에 도산서원 초간본(추정), 1743년의 도산서원 중간본이 알려져 있다.<sup>16)</sup>

1575년 안동부에서 간행한 초간본과 관련해서는 유희춘의 『미암일기』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1573년 6월 20일에 의흥현감이자 퇴계의 장남인 李穡(1523-1583)이 찾아와 부임 소식을 알리며 부친의 일을 묻는 미암에게 『이학통록』이 이미 완성되어 영천에서 출판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었다.<sup>17)</sup> 이 해 8월에는 사계 김장생의 부친인 경상 감사 金繼輝<sup>18)</sup>가 미암을 찾아오자, 미암이 의성에서 『慕齋集』을 판각하는 일 등을 부탁하면서 『續蒙求』와 『이학통록』을 인쇄해 보내주는 일을 승낙하였다.<sup>19)</sup> 이후 3년이 지난 1576년 6월 2일에 『이학통록』이 안동에 있는데 감사 朴素立(1514-1582)에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에서 1573년 당시에는 품문으로 『이학통록』의 간행을 접했다면 1576년 6월에는 이미 안동에 책판이 소장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20)</sup>

여강서원은 1575년에 『이학통록』의 교정을 진행하는 한편 안동초간본의 대본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575년 정월에 권호문이 여강서원에 가서 權宇(1552-1590)와 머물며 학문을 토론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같은 달 권호문은 안동부사 권문해에게 문인 자제

15) 강경현, 「『宋季元明理學通錄』의 구성과 의의」, 『한국학연구』 32, 201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92~493쪽.

16) 강경현, 앞의 논문, 2014, 495쪽.

17) 柳希春, 『眉巖日記』 1573년(선조 6) 6월 20일.

18) 金繼輝(1586~1582)는 사계 김장생의 부친으로, 자가 重晦, 호는 黃崗이다.

19) 柳希春, 『眉巖日記』 1573년(선조 6) 8월 29일.

20) 柳希春, 『眉巖日記』 1576년(선조 9) 6월 2일.

들이 謄寫하고 표시해 둔 채로 여러 해가 지난 『이학통록』의 간행을 부탁하자, 안동부사가 경상감사에게 간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상감사가 권호문에게 교정을 위촉하고 안동부사에게 간행하도록 명했던 점이다.<sup>21)</sup>

둘째, 1576년 6월에 南致利가 권호문에게 편지를 보내 『이학통록』을 간행하는 일을 물었는데, 편지의 내용 중에 “『이학통록』을 첨가하여 간행하는 일은 일찍이 월천 선생께 여쭙었고, 권우와 함께 간행하려고 결의하였으니 이미 권우를 통해 들었을 것”이라는 대목이다.<sup>22)</sup> 이상의 두가지 전거를 조합해보면 권호문과 권우가 학문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학통록』을 교정하고 간행하는 일을 논의했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여강서원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권우가 류성룡에게 답한 편지에 “『통록』 한 질을 진상해야 하는데, 여강서원 판본[蘆江板本]은 교정이 미진하고 일찍이 義仲[남치리] 어른과 잘못된 곳을 뽑아낸 것도 많았다. 그러나 반드시 본문을 다시 살핀 뒤에 고칠 곳을 교정해야만 하므로 아직 판을 교정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하는 한편, 류성룡에게 교정의 방침과 가르침을 청하였다.<sup>23)</sup> 이 편지에 ‘여강판본’이라는 용어가 출현하는데, 해당 판본은 ‘교정이 미진한’ 상태이자 교정이 진행 중인 판본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1576년 당시에 안동부에서 초간본을 간행했다는 점, 교정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여강판본은 정본 간행을 위한 대본 성격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連軒 權德秀(1672~1759)가 丁時翰의 현손인 丁範祖(1723~1801)에게 보낸 편지 중에 “지난번 苧田에 있을 때 우연히 노선생의 『이학통록』을 얻었는데, 이 책은 곧 선조께서 여강에 계실 때의 판본[蘆江時板本]이다.”라고 하였다.<sup>24)</sup> 권덕수는 김시온의 문인인 金學培의 사위이자, 密庵 李裁

21) 權好文, 『松巖集』別集年譜.

22) 權好文, 『松巖集』別集年譜.

23) 權宇, 『松巢先生文集』卷2, 書, 〈答柳西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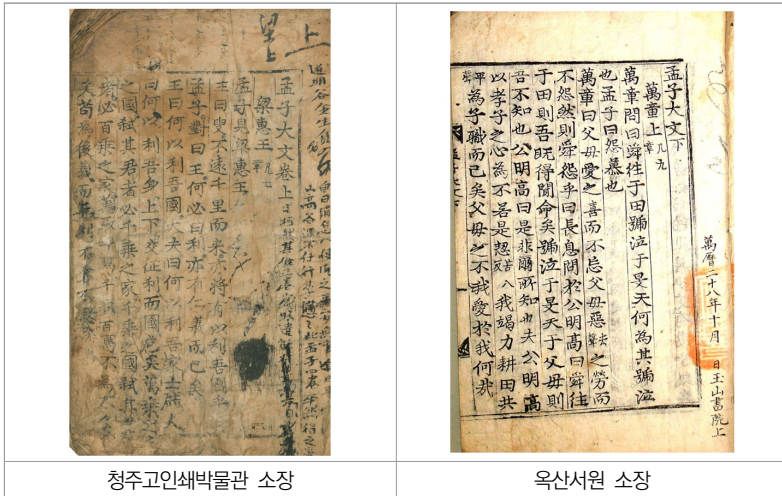
24) 權德秀, 『連軒先生文集』卷2, 書, 〈示範祖〉.

(1657~1730), 屏谷 權集(1672~1749), 雨溪 金命錫(1675~1762) 등과 교류했던 인물로, 『이학통록』 초간 당시에 교감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송암 권호문의 후손이다. 아마도 권덕수가 지칭한 ‘선조가 여강에 계실 때의 판본’ 즉 ‘여강시판본’은 권호문이 여강서원에 있을 때의 판본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 판본은 앞서 ‘여강판본’이 교정이 미진한 상태였던 것이 비해, 본말이 매우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여강판본’과 ‘여강시판본’이 같은 판본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강서원을 무대로 하여 초간본 간행을 위한 교감이 이루어졌고, ‘여강판본’ 또는 ‘여강시판본’으로 ‘여강’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학통록』의 초간에 있어서 여강서원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2. 여강서원 목활자의 제작과 보급

앞서 살펴보았듯이 호계서원이 간행한 도서 또는 소장한 서적과 관련해서는 『누판고』, 『경주부교원서책목록』 등에 수록된 2~5종 서적이 전부인데, 이상의 기록 이외에도 현전본을 통해 늦어도 1600년 이전에 여강서원에서 목활자를 제작하여 서적을 인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여강서원 목활자의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1600년에 경주부에서 인출한 목활자본 『맹자대문』의 간행기록에 ‘萬曆二十八年庚子(1600)取廬江書院活字印出于雞林府’라는 간기를 통해 여강서원 목활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강서원 활자로 찍힌 『맹자대문』은 현재 계명대 도서관(귀이180.84)과 玉山書院 소장본 이외에도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것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 목활자본은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매우 드물게 알려진 서원목활자 중의 하나를 이용해서 인출한 것이자, 독서층의 수요를 고려해서 인출한 인쇄물이며, 전란으로 서적이 일실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지식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목활자 인쇄사는 물론 한국출판문화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옥산서원 소장

〈그림 1〉 여강서원 목활자로 인출한 『맹자대문』(1600년)

16세기 중반 이후 목활자 인쇄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16세기 중후반에는 민간이나 지방관아 또는 서원의 주도로 과문선집류, 사서초집과 시문선집류, 초창기 서원지 등을 찍어냈는데,<sup>25)</sup> 특히 16세기 서원의 목활자 인쇄를 살펴 보면 옥산서원의 『오산지』는 당시 인동현감이었던 謙菴 柳雲龍(1539-1601)이 1588년에 편찬하여 1590년에 간행한 후 이산서원에 보내기도 하였다.<sup>26)</sup> 서원지 외에 일반 서적을 목활자로 간행한 곳은 여강서원을 비롯해서 경상도 영천의 임고서원, 충청도 서천의 명곡서원 2곳만이 알려져 있다. 임고서원 목활자는 1561년 6월에 황준량이 성주에서 『회암서절요』를 인쇄할 때 빌려 사용한 활자이며, 명곡서원에서는 1581년에 『標題句解孔子家語』를 인쇄하면서 권말에 “元俊刻手, 學崇校正, 開蒙堂李舜明” 등 간행자 명단을 수록하고

25) 옥영정, 「16세기 조선의 목활자 인쇄와 1577년 朝報 인쇄의 가치」, 『한국출판학연구』 46, 한국출판학회, 2020, 5~31쪽.

26)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범우사, 1993, 29~41쪽; 옥영정, 앞의 논문, 2020, 19~20쪽.

“舒川郡鳴谷書院刊行”의 간기를 새겨두었다.<sup>27)</sup>

『회암서절요』의 경우 1561년(명종 16)에 이황의 문인인 黃俊良(1517~1563)이 임고서원 활자를 활용한 이후, 1565년에 柳仲郢(1515~1573)이 해주에서도 목활자로 인쇄했으며, 1566년에는 鄭宗榮(1513~1589)이 평양에서 활자로 인쇄했다. 1565년 해주 목활자본 인쇄의 주역인 류중영은 류성룡의 부친으로 평생을 관료로 지내면서, 목민관으로 가는 곳마다 유학적 향풍 조성 과 학생들의 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다. 그 때마다 퇴계 이황에게 자문을 구하고 실행하였으며, 간행 사업의 일환으로 1567년 충청도 청주목사로 부임한 뒤에는 『동자습』과 『봉선잡의』, 『詩經』과 『書經』 『孟子』의 大文을 간행하여 선비들에게 보급하였다.<sup>28)</sup> 이러한 맥락에서 경주부에서 『맹자대문』을 간행한 목적 또한 초학자들의 학습을 위한 교재 보급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전, 특히 1568년 이전에 간행한 『맹자대문』의 재판본을 『攷事撮要』의 冊板目錄의 기록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전라도 전주감영, 경상도 영천(영주), 충청도 임천(보광사), 황해도 해주감영에서 간행되었다. 책판목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양감영(기영)의 校書局에서 1599년(선조 32)부터 1601년(선조 34)까지 평안도관찰사로 재임한 徐滂의 주관 하에 1601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맹자대문』이 현전하고 있다. 서성은 간행이 완료되자 崔崧에게 책의 발문을 의뢰하였고, 권말에는 감고, 서사, 각수 명단을 수록했다. 최립의 발문<sup>29)</sup>을 통해 이 책의 간행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데, 최립은 “문장 중에 육경보다 뛰어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육경의 글은 대체로 간결하면 서도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초학자들이 곧장 이 길을 통해서 문장을 짓는 門戶로 삼으려 하기에는 역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先儒도 일찍이 육경에 앞서서 먼저 거쳐야 할 단계로 四子를 제시하였는데,

27) 이인영, 『청분실서목』 권6.

28) 안병걸, 앞의 논문, 2018, 167쪽.

29) 『簡易文集』 卷3, 跋, 〈平壤刻版孟子大文跋〉.

이것은 비단 道로 나아가는 순서라는 차원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런데 四子 중에서도 특히 『孟子』의 글로 말하면, 마치 과도가 넘실거리면서 집어삼킬 듯하는 웅대한 기상을 보여 주고 있으니, 百家와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공이 이 일을 거행한 것은 兵火를 당한 뒤끝에 초학자들의 수요를 급히 채워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으나, 장차 도리를 정밀하게 연구하려는 데에 뜻을 두고 있는 이들이나,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는 이들 역시 모두 이를 의지하여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듯이, 『맹자대문』의 간행은 임진왜란 이후 소실된 초학교재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에 두었고, 나아가 도리를 정밀하게 나가려는데 뜻을 둔 이들이나 과거 시험을 공부하는 이들이 초학교재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경주부에서 여강서원목활자를 활용해 『맹자대문』을 간행했던 1600년 당시에 경주부윤을 역임한 이는 碧梧 李時發(1569~1626)로, 그는 愚伏 鄭經世(1563~1633)와 교유하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류성룡의 종사관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경주부윤 시절에 『익재선생집』을 비롯하여 주자의 ‘孝悌忠信禮義廉恥’ 8글자를 새로 판각했는데, 이 ‘효제충신예의염치’ 판본을 인출하여 류성룡에게 보내기도 하였다.<sup>30)</sup> 류성룡의 부친 류중영은 앞서 언급했듯이 임고서원 활자를 이용해 『회암서절요』를 인출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며, 류중영의 아들이자 류성룡의 형인 류운룡은 인동현감 시절인 1590년경에 목활자로 『오산지』를 인출한 인물이다. 여강서원을 출입했던 류성룡, 류운룡과 더불어 퇴계의 문도이자 여강서원에서 이들과 함께 교류했던 권호문, 김성일, 김복일, 김언기, 김극일, 이안도, 권문해, 구봉령 등 역시 퇴계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강서원 활자의 존재는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이시발은 1601년 평양판 『맹자대문』에 발문을 남긴 최립이 『한서』 「항우

30) 『碧梧先生遺稿』 卷1, 詩, 〈次柳西厓 相公成龍 晦菴八大字歌〉, “原韻 慶州府尹李君某, 新刻朱子孝悌忠信禮義廉恥八大字印寄, 歌以記之.”

열진』을 몹시 애독하여 『項上一襮』을 간행·보급했던 상황을 언급했듯이,<sup>31)</sup> 1599년(선조 32)에 『항상일련』이 충청도 공주목의 유성에서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쉽게도 여강서원 목활자가 실제 여강서원에서는 어떻게 어떠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서원활자들과 함께 16세기 중후반경 퇴계학맥을 계승한 문인들이 중첩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쇄출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역사회 지식을 생산과 보급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사적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3. 『退溪集』의 교정과 목활자본 인출 시도

『퇴계선생문집』은 서간이 중심이 된 문집으로, 문집 편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고받는 발수급자가 있는 서간이라는 점에서 후일 서간의 수집과 분류 및 산정 등 퇴계 사후에 글을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본과 목판본 등 다양한 판본이 출현하였다.<sup>32)</sup> 사본의 경우 初本 退陶先生集, 中本 退溪先生集 원 텍스트, 中本 退溪先生集 重校本, 文集 中草本, 定本 退溪先生文集으로 분류된다. 먼저 초본 『퇴도선생집』은 몽재 이안도가 주관해서 만든 책으로 1571년에 시작해서 1579년 경에 완료한 것으로 100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20책만이 전하고 있다. 중본 『퇴계선생집』 원 텍스트는 몽재 이안도가 주관하다가 그가 사망한 뒤에 월천 조목이 주관해서 만든 필사본이다. 1580년에 시작해서 1586년에 완료하였는데 목록을 포함하여 51책으로 구성하였다. 중본 퇴계선생집 종교본은 중본 51책을 40책으로 간추려 『주자대전』의 체계를 준용

31) 『碧梧先生遺稿』卷7, 〈謾記〉, “豈斯文豈爲文章, 發軔於項籍傳, 故單抄此一傳, 頗加晦釋句挾音吐, 名曰項上一襮, 刊行于世. 崔之勸進後學必先此.”

32) 鄭錫珪 外,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114, 퇴계학연구원, 2003, 243쪽.

해서 수록 작품을 편찬한 후 다시금 재교정과 산정한 사본이다. 이 작업은 1587년(선조 20), 1588년 두 해 동안 학봉 김성일과 서애 류성룡이 주관해서 집중적으로 작업한 다음, 秋淵 禹性傳(1542-1593)이 다시 수정보완해 1589년에 완료한 사본이다. 이 사본에 와서 서간을 분류 편집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퇴계집』의 대체적인 체제와 편차가 정해졌다. 문집 중초본은 월천 조목이 주관하고 近始齋 金垓(1555~1593)가 실무를 맡아서 진행한 것으로 중교본을 정서하고 內集 詩卷 3책을 추가해서 만든 사본이다. 1588년 중교 작업이 끝난 직후 시작해서 1589년 가을에 정서를 마치고 교정했다. 정본 『퇴계선생문집』은 월천 조목이 주관하고 北厓 金圻(1547~1603)가 실무를 총괄해서 만든 것으로 1598년에 시작하여 1599년에 완료하였다. 『퇴계집』 초간본인 庚子本의 대본이 된 사본이다.<sup>33)</sup>

〈표 1〉 『퇴계집』의 역대 필사본 현황

no.	필사본종류	교정자	교정기간
1	초본 퇴도선생집	이안도	1571-1579
2	중본 퇴계선생집 원텍스트	조목	1580-1586
3	중본 퇴계선생집 중교본	김성일, 류성룡 → 우성전	1587, 1588 → 1589
4	문집 중초본	조목, 김해	1588-1589
5	정본 퇴계선생문집	조목, 김기	1598-1599

역대 필사본 중 여강서원과 관련된 것은 ‘3번 중교본’과 ‘5번 정본’으로 추정된다. 먼저 중교본은 1587년 4월에 김성일이 『퇴계선생문집』을 편찬하고, 8월에 여강서원 존도시를 배알한 상황과 기존연구 성과를 토대로 여강서원에서 중교본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 중교본의 교정자로는 김성일, 류성룡을 언급했는데 이외에도 류성룡 중형인 謙菴 柳雲龍이 1587년 5월에 여강서원 모임에 나가 『퇴계선생집』을 교정했고,<sup>34)</sup> 월천 조목도

33) 鄭錫胎 外, 앞의 논문, 2003, 149~150쪽.



1588년 5월에 여강서원에서 동문들과 회동하여 문집을 상호 교수하였다. 정석태의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의 제4~40책 표지이면에 기록된 重校 내용을 통해 교정작업은 김성일, 류운룡, 류성룡, 盧江 琴鳳瑞, 김해 등 퇴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재전 제자도 일부 참여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혀냈다.<sup>35)</sup>

1589년에는 우성전이 학봉, 서애의 중교본을 토대로 한 차례 수정 보완하고 동년 가을 문집 중초본을 만들어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1592년에 월천 조목이 주관해서 여강서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하고자 하였으나<sup>36)</sup>가 임진란으로 지체되었다고 한다. 이는 김기가 여강서원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간행이 지체되고 병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처 간행하지 못한 채로 보관해왔는데, 간행할 마음으로 각 서원에 傳寫를 요구하자 당시 백운동서원과 이산서원에서는 전사를 이미 끝마쳤지만 여강서원에서는 전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사본을 요청하였다.’<sup>37)</sup> 이상의 기록을 통해 여강서원은 임진왜란 이전에 『퇴계선생문집』을 목활자로 간행하고자 했으나 전란으로 미처 간행하지 못하다가, 병란이 끝난 후 간행을 위해 백운동서원, 이산서원과 함께 간행을 위한 정보 전사를 담당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퇴계선생문집』의 교정은 갈등으로 인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초간본을 급하게 인쇄하였으며 문집 작업이 퇴계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파간의 분화를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sup>38)</sup> 편집자들이 退溪 李滉을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돌아가는 당시 조선의

34) 『謙菴先生年譜』 卷1 “赴會盧江書院 校正退溪先生集.”

35) 鄭錫翺,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퇴계학논집』 2,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213쪽.

36) 鄭錫翺, 앞의 논문, 2008, 220쪽; 『西厓先生別集』 卷3, 書, 〈與趙士敬〉, “(前略) 聞盧江書院欲以活字印出文集云, 然否, 此事若能成就, 豈非幸甚, 但必須得心眼精細者, 校得無訛誤, 方可傳後也, 如何如何.”

37) 金圻, 『北厓先生文集』 卷3, 書, 〈與盧江書院士林書〉.

38) 이아름, 「『퇴계집』 간행 과정에 담긴 교육적 함의-‘월천·서애 시비’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4, 한국교육사상학회, 2020, 187~205쪽.

정계 및 지성계의 움직임,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퇴계 이황의 모습, 대학자 퇴계 이황의 모습을 돋보이게 그려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그 시대 독자층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해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39)</sup> 이처럼 1600년에 경자본이 출현하기까지 무려 30여년(1571-1599)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안도, 조목, 김성일, 류성룡, 우성전, 김해, 김기를 비롯한 퇴계의 제자와 그 재전 제자들이 이뤄낸 일련의 『퇴계집』 교감 과정 가운데 여강서원은 퇴계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종교본 및 정본 제작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했고, 임진왜란 이전에 퇴계학의 생산과 보급 차원에서 목활자 인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III. 17세기 학봉·서애의 문집 생산과 보급

#### 1. 『鶴峯集』의 지속적 간행과 보급

『학봉집』은 모두 4차례 간행되었는데, 그중 1차 초간본, 2차 연보, 3차 속집이 여강서원(호계서원)에서 간행되었고, 마지막 간본은 1851년(철종 2)에 임고서원에서 重刊되었다. 초간본은 원집 8권과 부록을 합쳐 만든 것으로 1649년(인조 27)에 여강서원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앞서 1614년 1월 9일에 “正言 崔暉(1563~1640)이 학봉의 유고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강서원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權山立(1568~1663) 군도 학봉의 서찰을 찾았다고 하였다. 최 정언을 비록 일찍이 잘 알지는 못했으나, 평소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다. 그가 이지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야기가 나에게 미치자 매우 보고 싶어 하였고, 인보도 초대를 하였는데, 병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이때 權仁輔가 여강서원 원장이었다.”<sup>40)</sup>라는 기록을 통해 1614년

39) 鄭錫珪,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退溪集』諸 異本에 대한 한 고찰-」,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141~178쪽.

40) 金垚, 『溪巖日錄』, 1614년(광해군 6) 1월 9일.

에 인재 최현이 학봉의 유고를 수습하기 위해 여강서원에 모인 사실, 이를 위해 학봉의 문인인 권산립이 스승의 서찰을 찾아준 사실을 알 수 있다.

1649년에 『학봉집』의 초간에 앞서 2년 전인 1647년에 睡隱 李珥(1595~1660)가 김수일의 장손인 瓢隱 金是樞(1598~1669)에게 편지를 보내 간역을 논의하였다. 1649년에는 당시 여강서원의 山長인 전 현감 이흥조, 전 직장 南礪(1592~1671)은 선생의 문하에 있던 인사들이 거의 다 죽어서 선생의 글을 전하기를 도모하는 이가 없다는 점에 몹시 개탄하면서, 전 참봉 柳義男·朴挺, 생원 李滌·柳樞과 선생의 從孫 金是樞 등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모아 비로소 여강에서 간행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에 도내 열읍의 수령과 사림들이 모두 비용을 도와 몇 달 만에 역사를 마무리하였다.<sup>41)</sup>

1726년(영조 2)에는 『연보』의 부재로 인해 선조의 공업과 행실을 증빙할 수 없자, 거짓으로 침해하는 망극한 말이 많아져도 변증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였다. 이에 본가에 소장하던 草本을 바탕으로 하되 行狀·言行錄 등을 참고하고 여러 사람의 문집과 짧은 글 등 중 믿을 만한 것을 모아 연도에 따라 엮고 시안에 따라 변증하여 오랜 시일 끝에 연보를 완성했다. 이어 호계서원에서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은 上舍(月會堂) 柳元鉉과 大雅(雨溪) 金命錫이었다. 아울러 李栽 역시 일찍이 연보 편찬에 참여하였고 발문을 청탁받게 되면서 그 전말을 서술하였다.<sup>42)</sup>

이재의 문인인 黃後鞵(1700~1773)이 1727년에 이재를 금양으로 찾아가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 배경과 수학한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한 책인 『錦陽從師錄』을 보면, 이재가 “새로 인출한 『학봉연보』 한 권을 내려주시며, 학봉의 출처와 언동, 학문과 기질이 여기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자” 후간이 일어나 책을 받으면서 스승의 手澤을 간직하고자 제목을 써주기를 요청하였다.<sup>43)</sup>

41) 『鶴峯先生文集』, 〈鶴峯先生文集跋(金應祖)〉.

42) 『密菴先生文集』卷14. 跋. 〈跋鶴峯先生年譜〉.

43) 『夷峯先生文集』卷5. 〈錦陽從師錄〉, “先生出新印『鶴峰年譜』一件賜曰, 歸而言詳觀先生出處言動, 學問氣節, 該括於此矣. 後鞵起而受曰, 曾所未見, 今既受賜, 幸乞

1781년(정조 5) 11월에 大山 李象靖이 쓴 「속집서문」에는 초간본은 있지만 “오히려 전해지지 않은 저술이 더 많았기에 것이 嗣孫 金柱國이 속편을 간행하고자 산실된 것을 수습하였으나 완성되기 전에 죽게 되었다. 이에 1781년 봄에 후손인 進士 金柱雲과 金龍燦 등이 정성을 다해 편찬하였고, 얼마 뒤에는 또 爛薰 가운데 1571년에 올린 상소인 ‘辛未疏’를 얻어 이를 정리하여 4편으로 만들고 부록 1편으로 편집하였다. 아울러 4~5명의 선비들과 반복해서 교감하고 정리하여 목판으로 새겨 초간본에 빠진 내용을 보충했다”고 하였다.<sup>44)</sup> 이들은 초간본에서 산절된 詩文을 중심으로 재차 수집하였는데, 133題의 詩를 저작 연대순으로 일괄 편차하고 〈退溪先生史傳草〉, 〈請魯陵復位六臣復爵宗親敍用疏〉 등의 文을 원집의 규례에 따라 편차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퇴계 이황이 지은 〈題金士純屏銘〉을 비롯, 崔暉 등이 각기 기록한 〈言行錄〉, 吳濤 등이 지은 祭文, 〈日本陶國興與花山士人趙相觀書〉 등의 부록문자를 붙여, 1782년(정조 6)에 호계서원에서 목판으로 속집 5권 3책을 간행하였다.<sup>45)</sup>

이후 1851년에는 호계서원이 아닌 임고서원에서 네 번째 간본을 간행했는데, 이는 定齋 柳致明(1777~1861)이 元集과 속집의 판본이 세월이 오래되어 마멸되자 중간할 것을 의논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에 교정을 중요하게 여겨 잘못된 글자는 考異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頭標를 달아두었지만 이 외에 나머지는 교체하거나 변동하지 않았다. 다만 文類 중에서 『海槎錄』을 별도로 편집해서 넣지 않은 것은 常例가 아니라고 여겨 후손 金鎭龜와 泗濱書院에서 회의하고, 종손 金鎭華가 湖南에서 재직하고 있어 여러 차례 왕래하였으나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유치명은 『海槎錄』을 종류에 따라 나는 것은 詩藁에서 이미 그렇게 하였고, 부록을 편차한 것은 속집에서 한 것을 근거로 삼을 수가 있으므로, 전례에 따라 편집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年條와

親寫題目, 使手澤爲後日奉玩之資. 先生辭以筆出, 卽書之, 跪受奉玩, 筆去端重, 無非一身精華, 可見心畫之正矣.”

44) 『鶴峯先生文集續集』, 〈鶴峯先生文集續集序(李象靖)〉

45)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해제(<https://db.itkc.or.kr/>).

義例가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고하여 근거로 삼았고, 새로 수집한 것은 뒤섞지 捨遺라고 표시하여 각 종류의 아래에다 붙이는 방식을 취하였다.

『해사록』 3편은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지은 시문인데, 김성일이 경상우도에 있을 때 山陰의 수령이었던 金洛이 빌려갔다가 선생 사후에 진주성이 함락되고 병화가 산음 고을에 까지 미쳤을 때 잃어버렸다. 이후 참판 朴而章이 시골 마을에 도착했는데 주인이 『해사록』으로 벽을 바르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쌀 몇 되를 주고 교환해 와서 선생의 本家に 연락하였다. 이에 본가에서 都事 鄭士信에게 부탁하여 찾아오게 하였다고 한다. 당초 이 책은 한 책으로 합해 있었는데 두꺼워서 보기 불편하여 柏巖 金玠이 빌려갔을 때 세 책으로 분권했다고 한다.<sup>46)</sup> 李植은 「風俗考異」에서 학봉의 강직하고 충의로운 절개가 『해사록』을 통해 더욱 드러나고 있음을 칭송하였다.<sup>47)</sup>

『해사록』과 함께 「朝鮮國沿革考異」와 「風俗考異」는 倭僧 宗陳이 『大明一統志』에 실려 있는 우리나라의 연혁과 풍속을 잘못 물어오자, 이에 관해 조목조목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글이라는 점에서 주체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조선에서는 이미 15세기부터 『대명일통지』에 수록된 조선 정보의 부정확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으나, 해당 기록을 逐條 비판 형식으로 변증한 글은 출현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풍속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중국에서 유입된 『대명일통지』를 단순히 수용하고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기록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모습을 보여준다.<sup>48)</sup> 또한 이 책은 사행을 통해 해외 지식인과의 접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산출된 것으로 첫째 「연혁고이」에는 단군에서 기자로 이어지는 상고사 인식이 담겨 있는데, 이는 조선 사대부의 보편적인 사관이 표명된 것이다. 둘째, 「풍속고이」는 상세한 예제

46) 『鶴峯先生文集』 卷6, 雜著, 〈風俗考異〉中 '1613년 겨울에 崔暉이 쓴 글'.

47) 『鶴峯先生文集』 卷6, 雜著, 〈風俗考異〉中 '1642년 초가을에 李植이 쓴 발문'.

48) 김소희, 「조선시대 『大明一統志』의 수용과 활용」, 『서지학연구』 88, 한국서지학회, 2021, 89쪽.

의 전달을 통해 조선이 小中華임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상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한데, 이는 김성일의 평소 학문적 관심의 소산일 뿐 아니라 당시 유교문화권에서 상례 절차가 곧 문명의 척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셋째, 김성일은 조선과 일본을 공히 중국의 '外夷'로서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조선이 이적이 아닌 중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측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상대에게 납득시키는 동시에 조선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했으므로 이러한 동일시와 거리두기의 변주라는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sup>49)</sup>

이상의 호계서원에서 『학봉집』을 간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14년에 최현이 학봉유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1647년 수는 이홍조와 표은 김시온 간에 간행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1649년 여강서원 산장이었던 이홍조를 비롯해 여강서원의 관계자와 학봉가의 종손, 그리고 여러 읍의 수령과 지역 사람들의 협조로 몇 달 만에 간행되었다. 1726년에는 김성일에 관한 잘못된 의론을 변증하고 선대를 현창하기 위해 연보를 편찬·간행했던 일은 이재의 주도로 호계서원 이루어졌는데, 이재는 당시 인출한 인본을 자신의 문인인 황후간에게 내려주어 읽기를 권면하였다. 1781년에는 이재의 외손인 이상정이 학봉가의 후손인 진사 김주운과 김용찬 및 여러 사람의 편찬에 힘입어 교감, 정리 후 호계서원에서 속집을 간행하였다.

## 2. 『西厓集』 간행을 위한 淨書本 제공

류성룡의 문집인 『서애집』은 세 차례 간행되었는데, 이 중 1633년(인조 11) 함천군수 류진이 원집 20권과 별집 4권 형태로 간행한 초간본이 여강서원과

49) 장진엽, 「김성일의 「朝鮮國沿革考異」와 「風俗考異」에 대한 재고」, 『열상고전연구』 67, 열상고전연구회, 2019, 7~50쪽.

관련성이 있다. 이후 1702년(숙종 28) 경에 사림의 요청으로 원집과 별집을 제외한 연보 3권만이 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1894년(고종 31) 가을에 원집과 별집 및 연보를 합하여 안동 하회의 玉淵書院에서 10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sup>50)</sup>

초간본은 류성룡의 막내아들이자 합천 군수였던 류진이 난리 속에서 산실되고 남아있는 부친의 유고를 수습하여 간행하였다. 편집이 완성될 무렵인 1633년에 류진의 부탁을 받은 장현광이 문집의 발문을 작성해주었는데,<sup>51)</sup> 이보다 앞서 1632년 9월에 류성룡의 문인이자, 경경세 등과 교류했던 蒼石 李堧(1560~1635) 또한 발문을 작성했다. 이준의 『창석집』에는 류진과 주고받은 세 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 『서애집』의 초간에 앞서서 여강서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여강서원이 초간본 간행을 위한 淨寫本의 작성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편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당시 이준이 문집 교정을 진행하고 있었고, 교정이 완료되는 대로 여강서원으로 해당 교정본을 보내 淨寫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여강서원이 이미 몇 권을 정사했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까지 합천군에 보내 간행을 시작하지 않는 연유도 묻고 있다.<sup>52)</sup> 또한 문집을 간행해야하는

50) 그런데 상기한 세가지 간본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8)과 연세대에 인출 경위가 불분명한 목활자본 별집이 소장되어 있는데,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초간, 『서애집』 해제’에 따르면 해당 활자본을 校訂 草稿本으로 추정할 바 있다. 소장본의 형태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국도 5卷2册: 四周雙邊半郭 22.4 x 15.1 cm, 有界, 12行22字, 內向葉花紋魚尾; 30.9 x 19.7 cm; 연세대 5卷1册: 四周雙邊半郭 22.3 x 15.3 cm, 有界, 12行22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0.3 x 19.5 cm.

51) 『西厓集』, 〈西厓集跋(張顯光)〉

52) 『蒼石先生文集』 卷10, 書, 〈與柳季華〉, “(前略) 文集校正, 頃因家冗衰, 未得專力. 數日內當畢校, 卽附轉致廬江淨寫之耳. 聞廬江已寫出數卷云, 何至今不送郡下起梓役耶. 幸通其處催來, 從頃一二卷始刊如何. 所校間有誤字, 而無甚訛謬, 欲在此第一二卷送其處以資釐正, 而此便恐謝辭不謹, 茲不果, 倘於官價信便, 送柳筒二事兼纒襲之具以法耶. 一事則俗規在此餘件耳. 文集跋語, 潦草構造, 見識狹淺, 何足以發揚盛德於萬一也. 但欲藏之私篋, 爲一家之玩耳. 但其語意未妥處, 切望一指教, 不妨於改之又改也.”

데 여강서원의 정사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sup>53)</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애집』의 간역이 시작되자, 이준은 교정 사유와 교감 방식에 대해서 류진에게 답장하였다. 그 내용 중에 통문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였고, 아울러 付標 또는 글자를 제거하고 종이를 붙이는 방식으로 교정하긴 했으나 취사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강서원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淨寫하고 있는지도 질문하면서,<sup>54)</sup> 金菴山과 함께 해인사에서 만나 유람한 후 간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희망하였다.<sup>55)</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애집』 초간본은 여강서원의 정사본을 토대로 간행하려고 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강서원 정사본이 완료되었는지 해인사에 도착했는지 등의 여부는 지금으로써는 알기 어렵지만, 여강서원이 『서애집』 간행에 매우 중요한 淨書本의 제작을 맡을 정도로 당시 지식의 생산과 보급의 측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갖추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 IV. 18세기 『朱書講錄刊補』의 생산과 보급

1785년(정조 9)에 호계서원에서 간행한 『주서강록간보』는 1713년(숙종 39) 밀암 이재가 57세가 되던 해 봄에 완성한 책으로, 그의 외손인 이상정을 비롯해 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봉계 학맥 형성에 있어서 중요

53) 『蒼石先生文集』 卷10, 書, 〈與柳季華〉.

54) 『蒼石先生文集』 卷10, 書, 〈與柳季華〉, “(前略) 文集錄梓已始役, 有飢渴得副之喜也. 書役甚浩穰, 非一人所可畢, 可慮, 求助通文已發, 未知所助能幾何. 雜著及書簡中凡可以惹鬧者, 適鄙見與左右所通於季明者相符, 故曾依標示題目, 欲移編於別集, 而本無全去之意. 其以勿書而付標者, 未知處江書院所爲耶. (後略)”

55) 김포산은 菴山 즉 현풍의 현감을 지낸 金世濂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세렴은 1631년(인조 9) 윤11월 23일 현풍현감에 제수되었다.



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대대적인 교감과 간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탁일은 학봉계에 있어서 유독 문헌주석학적 학풍이 형성 계승되고 그에 따라 많은 저술이 편찬된 상황에 주목하여, 문헌학적 시각에서 이러한 학풍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와 전개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말까지의 학봉계 퇴계학맥의 문헌학적 측면에서 본 학문적 전개양상을 총 4기로 구분하였다. 예컨대 제1기는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에 퇴계와 문인들이 활약했던 시대로 퇴계강론이 문헌화되는 시기이며, 제2기는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갈암 이현일과 그 문인들이 활약했던 시기로 퇴계설의 선양과 퇴계문헌의 편술기이며, 제3기는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에 대산 이상정과 그 문인들이 활약한 시대로 퇴계탐구와 그 문헌주석기이며, 제4기는 19세기 초반~19세기 말에 好古窩柳徽文(1773~1827)과 大埜 柳健休(1768~1834)와 정재 유치명 등이 활약한 시대로 연구분야의 확대변화기로 설정한 것이다. 이 중 제2기에서 언급한 갈암 이현일과 그의 문인이자 아들인 밀암 이재를 비롯하여 蒼雪齋 權斗經(1654~1725), 霽山 金聖鐸(1684~1747), 顧齋 李穰(1669~1734), 簾叟 鄭葵場(1667~1732) 등 360명에 달한다. 그 중 溪門諸子에 의해 이루어진 『주자서강록』이 전사됨에 따라 와류가 생기자 이를 교감한 이재의 『주자서강록간보』의 개찬 등은 퇴계학 형성의 문헌학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기는 제2기의 주역이었던 밀암 이재의 외손자인 대산 이상정과 그 문인인 蘆厓 柳道源(1721~1791), 東巖 柳長源, 后山 李宗洙(1722~1797), 川沙 金宗德(1724~1797) 등이 활약한 시기로, 성리학적인 학문이 꽃피던 시기이자 퇴계학의 난숙기라고 보았다.<sup>56)</sup>

『주자서강록간보』는 편찬 이래로 매우 오랜 시간 교정이 진행되었다. 교정과 관련하여 1743년에 이상정이 內弟 李象遠에게 『간보』의 교감을 감당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도치된 것을 살리고 착오를 교정하는 정도는 사양할 수

56) 柳驥一, 「退溪의 文獻觀과 文獻學的 學風의 展開－鶴峯系派를 中心으로」, 『퇴계학연구』 2, 1988, 50~55쪽.

없다고 말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 이 시기부터 서서히 교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745년에 이상정을 포함하여 그의 문인인 후산 이종수가 『주자서절요』를 강론하거나 독서하면서 『간보』를 교감하거나 내용을 질의하는 모습도 종종 확인된다.<sup>57)</sup> 1750년에는 九思堂 金樂行(1708-1766)이 이상정, 이광정 형제에게 답한 편지에 “『간보』 교감의 일은 … (중략) … 많은 사람을 불러서 私見을 공적으로 논할 필요는 없고, 左右가 모두 사양을 일삼아도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 시험 삼아 지금 집에 있는 날을 이용하여 의심되는 것마다 고치고 보충하여 별도로 한 부를 만들어, 한두 長老에게 보여도 해가 없을 듯하니, 어떠한지요?”라고 답하는 한편, 여강서원 화재로 선배들의 손때가 남아있는 서적 선친이 남긴 차취가 모두 화염에 휩싸이게 된 상황에 대해서 몹시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sup>58)</sup> 1751년에 李穡遠(1695~1773)에게 답한 편지에는 “『간보』를 모여서 교감하려는 계획은 이리저리 어긋나게 되었고”, “금년 여름에 또 혼자서 교정하다가 간간이 의심나는 곳이 있었습니다만 업적은 위대하고 사람은 가벼움을 생각할 때에 감히 쉽사리 손댈 수가 없었으니, 매양 붓을 잡고 주저하며 쓰러다가 다시 그만두었습니다.”고 하여 회동하여 교감할 계획은 무산되고 혼자서 교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1761년에는 이상정이 權正宅(1706~1765)에게 보낸 답장에서 “『간보』를 교감하는 일은 우리들의 책임인데 각자 노쇠하고 병들어 쓸쓸히 만날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회합을 주선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였다.<sup>59)</sup> 1765년 2월에는 김낙형, 金翼溟(1708~1775), 李象辰(1710~1772), 柳範休(1744~1823), 金堧(1739~1816) 등이 모여 『대학』을 강론했는데, 당시 이상정이 講席을 주관하면서 제생들로 하여금 번갈아 講書할 곳을 읽도록 했다. 강회를 마친 후에는 五老峯 아래에 배를 띄우고 제생들에게 「赤壁賦」를 읊게 하였다.<sup>60)</sup> 이 해

57) 『大山集』 권21, 書, 〈與李學甫〉(2편); 『대산집』 권21, 書, 〈答李學甫〉; 『大山集』 권22, 書, 〈答李學甫〉; 『大山集』 권23, 書, 〈答李學甫〉.

58) 金樂行, 『九思堂續集』 卷1, 書, 〈答李景文, 休文(光浦)〉

59) 『大山集』 卷13, 書, 〈答權士安 辛巳〉

에 이상정은 이재의 문인인 雨溪 金命錫을 통해 『간보』의 두세 곳을 교정받았던 사실을 자신의 문인인 權炳(1723~1772)에게 알려주었다.<sup>61)</sup> 아울러 이해에는 아래의 「書南淵文會錄後」를 작성하여 『간보』의 편찬 목적과 교감 참여자 및 교감 전말을 간략히 기록하였다.

내가 어렸을 적에 외조부를 뒤흔고 글을 배우면서 삼가 『강록』을 간보한 의의를 들었으니, 이는 필생의 정력을 다한 것이었다. 『朱書』를 읽는 데 도움되는 것이 마치 길을 인도하며 햇불을 밝혀 준 것처럼 편리할 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주서의 篇帙이 너무 많아서 인용하고 고증하는 즈음에 간간히 한두 군데 잘못된 곳이 있었는데도 원근에서 베껴 전하여 점점 유포되었다. 예전부터 선배들이 이를 근심하여 또한 일찍이 의난처를 뽑아서 찌를 붙여 표시해 놓았으나 미처 일을 마치지 못하였다. 權士友(권정택) 군이 앞장서 동지들을 이끌고 한번 회합하고자 하였는데 인사가 또 불행하여 먼저 세상을 떠났다. 금년 여름 내가 일이 있어 泗上에 들렀는데, 金雲若(김익명) 군이 보고 부탁하기를 “우리도 늙어 가니 만에 하나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뭐가 구실 삼아 지하에서 先師를 배알할 면목이 없을 것이네. 지금이라도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나도 깜짝 놀라서 그러자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7월 1일에 南淵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나는 아우 休文(이광정)과 함께하고 아들이 塊이 따랐다. 金退甫(김낙행) 씨와 운약 씨가 모두 이르러 마주앉아 같이 교감하였는데 전후로 18일 만에 마쳤다. 비록 교정하는 일이 먼지 쓰는 것과 같아서 보면 볼수록 생겨나지만 대체로 우리의 힘을 다하였다. 기억건대 내가 어렸을 때 일찍이 외조부를 따라 이 절에 한 번 왔었다. 절 뒤의 작은 언덕에 집을 지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붙이고자 하였는데 인사가 바뀌어 어느덧 벌써 36년이 흘렀다. 이제야 옛 절에 다시 와서 남은 자취를 찾아보매 조그만 작은 나무에서도 오히려 당시의 手澤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 책을 교정보는 일로 마침 이곳에 다시 오게 되니, 일이 우연이 아닌 듯한 점이 있다. 아아, 슬프다. 애초에 東坡와 南谷 등 여러 선배를 널리 맞이하여 함께 실컷 자세히 토론하고자 하였는데,

60) 『大山集』卷3, 詩, 〈廬江講會罷適值既望之夕借長少數十人泛舟五老峯下烟浩渺泝洄上下相與顧而樂之使人誦赤壁賦仍謹次朱先生觀書韻蓋竊取景物之偶同而託興寓感之意則有不敢窺焉嗚呼歎矣 乙酉〉.

61) 『大山集』卷20, 書, 〈答權景晦 乙酉〉.

비가 많이 와 물에 잠겨서 막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세상일은 십에 팔구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 개탄할 뿐이다. 모임을 마칠 때에 성명을 적어서 각기 한 본씩 가지고 돌아가는데 나더러 뒤에 전말을 대략 적으라고 하였다.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은 우리 서너 사람이고, 그 나머지 벗들은 번갈아 왕래하며 일을 도왔다.<sup>62)</sup>

1767년에는 李翕遠에게 재차 교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sup>63)</sup> 이는 김낙행이 생전에 한번 다듬었으나 종결짓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당시 김낙행이 의문이라고 했던 조목에 따라 수정하였다. 그리고 1769년에도 이상정이 교감하고 대략 점을 찍어 표시했지만 교정은 볼 때마다 생기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 살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인인 조성소 즉 趙述道(1729~1803)에게도 여러 번 읽다가 메모한 것이 있으면 보여주기를 요청하였다.<sup>64)</sup>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무렵 이상정은 아우 이광정에게 『간보』의 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을 가져다가 반복하여 읊조리고 의미를 되새겨 보라고 당부하였다.<sup>65)</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간보』 교정은 1743~1767년에 이르기까지 이상정의 주도하에 외조부 이재의 문인인 김낙행, 권정택, 김익명을 비롯하여 자신의 동생인 이광정과 문인 이종수 등이 주축이 되어 회합 또는 편지를 토대로 교차 교감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감이 일단락되자 1778년에 이상정은 간행의 논의를 비로소 제기하였고, 사본 검토를 수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權思浩(1733~1806)에게 알려주었다. 호계서원에서 『간보』를 간행한 시기인 1778년부터 1785년까지의 간행관련 전말은 『朱書講錄刊補印行時日記』<sup>66)</sup>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간보』의 간행

62) 국역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의 『大山集』, 卷45, 跋, 〈書南淵文會錄後〉를 인용함.

63) 『大山集』 卷8, 書, 〈答李欽夫 丁亥〉.

64) 『大山集』 卷28, 書, 〈答趙聖紹 己丑〉.

65) 『大山集』 卷38, 書, 〈答休文〉.

과정을 金道行이 金光濟가 남긴 기록과 자신의 기록을 추가하여 주요 작업을 날짜별로 정리한 간행일기로, 간행에 있어서 전후 두 차례의 편찬 기획과 경비의 조달, 판하본의 작성, 판각에 참여한 사람, 재목의 조달 방법, 판수, 교정에 관련된 기록, 전체 담당자의 교체와 임무, 인쇄 및 배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료의 서지학적 가치로 인해 일찍이 연구된 바 있다.<sup>67)</sup>

남권희의 연구에 따르면 1777년 金光濟가 이상정을 찾아보낸 자리에서 우연히 책상에 놓인 『간보』 謄本을 보고 그간의 책 교정 경과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뒤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선비들과 함께 호계, 구계, 사빈, 청성, 경광, 노림, 목계서원과 구담서당 등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책을 간행하려고 했으나 간행할 적에 도산서원이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간행이 중단되게 되었다. 1778년 2월에 추진된 일이 6월 25일에 중단되었으며, 9월 30일부터 매년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여 1784년 11월에 다시금 간행을 논의했다. 결국 제3차의 간행시도도 모든 준비는 다했으나 도산서원의 반대로 대신이 일을 중지시키고 자금을 돌려주는 등 무산되었다.<sup>68)</sup> 이후 1784년 11월에 선산의 낙봉서원이 보낸 통문을 단초로 1785년 1월부터 논의한 끝에 4월 15일에 도산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내용을 검토한 후 교정을 보아 간행하기로 합의했다. 5월 9일부터 담당자의 선임과 일의 분배를 거쳐 7월에서 9월까지 석달간 본격적인 각판 과정을 마치고 인출하고자 했으나 재정의 궁핍과 추운 날씨로 연기되고 1786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인출하여 4월에 완료되었

66) 경북대 도서관 소장. 표제 : 刊補開刊時日記, 권수제 : 朱書講錄刊補開行時日記, 작성연대 : 1777(정조 1), 1책(19장); 29.5 x 21.2 cm.

67) 남권희, 『『간보개간시일기』에 의한 『주서강록간보』의 간행 경위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8, 서지학회, 1992, 313~352쪽; 『大山集』 권38, 書, 「答仲則 庚子」에서도 1780년에 간행하던 일이 중지되어 베끼는 일을 그쳤으며 舊本은 龜里에서 돌려받지 못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중칙은 자신의 재종제이자 문인인 李誦堦(1724~1788)이다.

68) 남권희, 앞의 논문, 1992, 322쪽.

다.<sup>69)</sup> 이렇듯 1786년에 완료가 되었으나, 현전본에는 1785년 7월로 간행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간행이 시작된 시기를 기록해둔 것이다.

이상정이 사망한 1788년에는 그의 아들 良巖 李垸이 李秉模에게 편지하여 “선친이 교정을 한 『刊補』를 고을의 인사들이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고자 하며, 引用故事나 字句 등이 다시 교정을 거치면서 副本이 없으므로 선친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가지고 계신 謄本을 보내주시면 비교하여 교정을 마칠 수 있으며, 집안에도 선친의 손때가 묻은 원고를 간직하기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sup>70)</sup>

상기 과정을 거쳐 간행한 『간보』는 간기가 다른 2가지 판본이 존재하는데, 통행본의 대부분은 B의 형태이며, A본과 B의 차이는 간기의 처리 방식과 간기 앞에 권두경의 서문의 존재에 있다.



〈그림 2〉 『주서강록간보』 이본 현황

『간보』의 보급에 있어 이 책의 열람 및 장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간행되기 전인 1745년에 대산은 자신의 문인이자 재종제인 李夢靖(1724~1776)에게 편지를 써서 이 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곳이

69) 남권희, 앞의 논문, 1992, 322~323쪽; 간행의 방식, 판하본 마련 및 서사에 참여한 사람, 속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판각 후 교정 및 보수작업, 인출 건수 및 반사 등에 관해서는 남권희의 앞 논문 참조.

70) 李垸, 『良巖遺稿』 卷1, 〈與李台(秉模)〉(1788).

있고 새로 이해하게 되는 곳도 있어서 전에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는 사실을 깨닫고서 옛사람들이 벗들과 강론하는 즐거움을 소중히 여긴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몽정에게 이 책을 독서할 것을 권하였다.<sup>71)</sup> 1761년 무렵 대신은 그의 문인인 천사 김종덕과 苟齋 金宗敬(1732-1785) 형제에게 『주자서절요』의 이해를 위해서는 『주서강록간보』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그림 3〉 이이순의 장서

소장본을 토대로 이 책의 보급상황을 살펴보면 상기한 그림 A본의 소장자가 서애의 후손인 溪堂 柳嘯臺(1813-1872)인데 그의 조부는 柳暉春이며 부친은 柳厚祚이다. 이외에 아래 그림은 이황의 9세손인 李頤淳의 장서로 '後溪書堂, 兢齋, 李穉養頤淳印'이 날인되어 있어, 그가 운영하던 후계서당에서 소장하고 열람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기증기탁한 문중만을 대상으로 『주서강록간보』의 소장현황을 파악해보면 전체 60개 처 중 14 곳이 필사본의 형태로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46개처가 목판본을 소장하고

71) 『大山集』 卷38, 書, 〈與仲休李士吉 乙丑〉.

있다. 소장처는 한산이씨 대산종가를 비롯해, 의성김씨 제산종택, 진성이씨 주촌종파, 경주최씨 백불암종중, 풍산류씨 서애파문중(병산서원운영위원회), 전주류씨 근암고택 등 학봉과 서애의 학맥에 구애받지 않고 영남지역을 가문을 중심으로 균형있는 보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이 글은 호계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록을 토대로 시기별로 어떠한 서적을 생산하였고, 해당 서적이 지니는 출판문화사적인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원이 창건되어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여강서원은 퇴계의 저서인 『이학통록』과 『퇴계집』이 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정 단계의 교정을 진행하거나 간본 제작을 위한 대본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아울러 당시에 제작된 여강서원 목활자는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져왔을 뿐 해당 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무렵 제작된 서원활자들과 함께 16세기 중후반경 퇴계학맥을 계승한 문인들이 중첩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쇄출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역사회 지식을 생산과 보급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퇴계집』을 교정하고 이후 목활자본으로 인출을 시도했다는 기록은 경주부로 이관된 여강서원 목활자본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17세기에는 학봉과 서애의 문집이 생산되고 보급되었는데, 『학봉집』은 1614년 경에 유고의 수습이 차츰 진행되기 시작하여 1647년 여강서원 원장과 학봉가의 종손 및 지역민과 관의 협조를 얻어 초간되었고, 이후 학봉의 학맥을 전수한 이재와 이상정에 이르러 각기 연보(1726년)와 속집(1781년)이 간행되었다. 『학봉집』의 간행에 앞서 1633년에 합천에서 『서애집』이 초간되었는데, 여강서원은 바로 이 합천초간본을 위한 정서본을 담당할 정도로 상



당한 지식문화사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 이재가 편찬한 『주서강록간보』는 이재 사후에 그의 문인이자 외손인 이상정이 주도하여 1743~1767년에 무려 20여년이 넘는 교정을 거쳐 1785년에 이르러서야 간행되었다. 교감은 이상정을 비롯하여 김낙행, 권정택, 김익명, 동생 이광정, 문인 이종수 등이 주축이 되어 회합 또는 서찰 왕래를 통해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이 책은 간행된 이후 한산이씨 대산중가를 비롯하여 풍산류씨 서애파문중에 이르기까지 학봉과 서애의 학맥을 넘어 영남지역 가문을 중심으로 균형있게 서적이 보급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호계서원은 16세기에는 퇴계의 저서를 중심으로 서적을 생산·보급하였고, 17세기 초에는 『서애집』 간행을 위한 협업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다가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봉 계열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선대의 업적을 추승하고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적을 간행하고 보급해 나갔다.

호계서원은 1605년의 대홍수와 1750년의 대화재로 인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이 거의 전멸되었다. 특히 1750년의 경우 호계서원은 안동부의 으뜸學舎이자 영남 儒化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이곳에 소장했던 서적은 과거 선배들이 마련했던 것과 관찰사가 인출해 보내준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서의 주제는 사서육경은 물론 史書와 百氏 및 老先生의 문집에 이르기까지 갖추지 않은 서적이 없었고, 그 수량은 거의 백천만권에 이르렀다고 한다. 1750년 겨울의 화재로 그 많던 서적이 전소되자, 여강서원은 장서를 재구축하기 위해 판본이 있는 도내 서원에 통문을 보내 약간 질을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만분의 일도 채우지 못하였다. 이에 감영에 있는 경사자집 판본을 힘써서 인출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관찰사에게 公文을 올리기도 하였다.<sup>72)</sup> 이를

72) 李鳳煥 『劔南遺集』 卷1, 雜著, 〈虎溪書院呈文〉. “伏以本府之虎溪書院… 爲一府學舎之冠冕, 作嶺南儒化之根柢, 而所蓄書籍, 實賴先輩之辛勤措置, 亦資牧伯之前後印送, 四書六經外, 諸史百氏之言, 我東諸老先生文集, 無所不在, 幾至百千萬卷… 生等項以此意, 通文于道內書院之有板本處, 求得若干帙, 而區區湊合, 無以補

통해 장서가 얼마나 구비되었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관한 정황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향후 이 글을 단초로 이 분야의 많은 관심을 통해 과거 여강서원(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지식문화 인프라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其萬一. … 伏願閣下, 特垂愍念, 經史子集中板本之在營下者, 隨力印出, 從便嘉惠, 使是邦之人, 果能因此而典學成德, 有以自勵乎需世經國之業, 則是邦之人, 永受閣下之賜於無窮, 而閣下亦與有成已成物之幸於來世矣. (後略) …”

【참고문헌】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鏤板考』

『嶺南各邑校院書冊錄』

李仁榮, 『淸芬室書目』

權德秀, 『連軒先生文集』

權文海, 『草間集』

權宇, 『松巢先生文集』

權好文, 『松巖集』

金圻, 『北厓先生文集』

金樂行, 『九思堂集』

金垓, 『溪巖日錄』

金功, 『栢巖先生文集』

金誠一, 『鶴峯先生文集』

金璣..等, 『聯芳世稿』

柳希春, 『眉巖日記』

裴龍吉, 『琴易堂集』

柳雲龍, 『謙菴先生集』

柳成龍, 『西厓集』

李鳳煥, 『劍南遺集』

李象鼎, 『大山集』

李時發, 『碧梧先生遺稿』

李垓, 『良巖遺稿』

李栽, 『密菴先生文集』

李垓, 『蒼石先生文集』

崔笠, 『簡易文集』

黃後幹, 『夷峯先生文集』

- 강경현, 「『宋季元明理學通錄』의 구성과 의의」, 『한국학연구』 32, 201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소희, 「조선시대 『大明一統志』의 수용과 활용」, 『서지학연구』 88, 한국서지학회, 2021.
- 김자운, 「조선시대 虎溪書院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 남권희, 「『간보개간시일기』에 의한 『주서강록간보』의 간행 경위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8, 서지학회, 1992.
- 안병걸,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류중영과 그 후손들의 학문-」,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옥영정, 「16세기 조선의 목활자 인쇄와 1577년 朝報 인쇄의 가치」, 『한국출판학연구』 46, 한국출판학회, 2020.
- 柳鐸一, 「退溪의 文獻觀과 文獻學的 學風의 展開-鶴峯系派를 中心으로」, 『퇴계학연구』 2,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8.
- 이아름, 「『퇴계집』 간행 과정에 담긴 교육적 함의-‘월천·서에 시비’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4, 한국교육사상학회, 2020.
- 鄭錫胎,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퇴계학논집』 2,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鄭錫胎 外,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114, 퇴계학연구원, 2003.
-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退溪集』 諸 異本에 대한 한 고찰-」,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 장진엽, 「김성일의 「朝鮮國沿革考異」와 「風俗考異」에 대한 재고」, 『열상고전연구』 67, 열상고전연구회, 2019.
-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범우사, 1993.

Abstract

## Knowledge Cultural Infrastructure of Hogye Seow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ooks

Kim, So-Hee\*\*

This thesis aime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Hogye Seowon(Yeogang Seowon) in the aspect of publication cultural history through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ooks performed by this seowon in the 16th-18th century. As a result,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Rihakdeungrok』 and 『Toegyejip』 in the 16th century, Yeogang Seowon played important roles like proceeding a certain stage of proofreading or providing the script for the production of woodblock-printed books. Also, the Wooden Movable Type of Yeogang Seowon shows the meaning of publication cultural history in the aspect of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in community based on human networks of writers who inherited the scholarly lineage of Toegye. In the 17th century, the collections of works by Hakbong and Seoae were published/distributed. After initially published by Yeogang Seowon in 1647, 『Hakbongjip』 was published again by Lee Jae and Lee Sang-Jeong as chronology(1726) and collection of works(1781). When 『Seoaejip』 was initially published in Hapcheon of 1633, Yeogang Seowon established a solid foothold enough to take in charge of fair copy for the production of the first book of Hapcheon. 『Juseogangrokganbo』 compiled by Lee Jae in the 18th century, was published in 1785 after going through the long process of

---

\* Assistant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mstar78@aks.ac.kr

proofreading in 1743~1767, which was mainly distributed to the families of Yeongnam region in a balanced way.

In other words, Hogye Seowon produced/distributed books focusing on Toegye's books in the 16th century, and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collaboration for publishing 『Seoaejip』 in the early 17th century. After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the writers of Hakbong lineage such as Lee Jae and Lee Sang-Jeong published and distributed books for the purpose of worshiping the ancestors' achievements and spreading thoughts.

Key word : Hogye Seowon, Yeogang Seowon, Wooden Movable Type of Yeogang Seowon, Hakbongjip, Juseogangrokganbo

논문 투고일: 2022. 11. 25 심사 완료일: 2022. 12. 09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 논문

- 홍가신(洪可臣)의 인적 네트워크  
: 화담학(花潭學)과 퇴계학(退溪學)의 경계
- 임란 이후 홍가신(洪可臣)의 활동과 인산서원 배향
- 영주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건립과 퇴계 이황 제향의 의미
- 숙종대 시호(諡號) 수여 방식의 변화
- 최석정(崔錫鼎)의 강학 활동과 청주(淸州)지역 소론(少論)계 서원(書院)
- 조선후기 사충서원(四忠書院)의 건립과 운영
-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 조선시대 서원의 누각 도입과 정침 구현
- 한국(韓國) 서원(書院)과 중국(中國) 서원(書院)의 입지·공간구성(立地·空間構成)과 유식공간(遊息空間)에 대한 비교연구(比較研究)
- 作为儒教典范的宋代书院
- 武冈二邓先生与晚清书院教育
- 岳麓书院祭祀四记
- 17~18世纪中国书院的学术转型与官学化
- 江戸儒學と社會  
- 武士の書院と『孔子家語』という觀點から -





# 홍가신(洪可臣)의 인적 네트워크 : 화담학(花潭學)과 퇴계학(退溪學)의 경계

김 학 수\*

- I. 들어가는 말
- II. 홍가신의 학문연원과 사승  
: 화담학(花潭學)과 퇴계학(退溪學)의 양측적 수용
- III. 홍가신의 교유관계와 인적인프라 : 횡적 확장성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선조~광해군 대의 학자·관료였던 홍가신(洪可臣)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그것이 갖는 지성사 및 사상사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홍가신은 전형적인 기호 세대부로서 허엽·김근공·민순과의 사승을 통해 화담학통을 이루었고, 이항·이이·류성룡 등과도 사우관계를 맺으면서 퇴계·기호학통과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한 인물이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학통은 사승의 실질성 못지 않게 학문권력의 행배에 따라 유동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홍가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비록 그의 전기문자(傳記文字)는 민순 문인으로서의 정체를 희석하지 않고 있지만 문집인 『만전집(晩全集)』 전반에서 포착되는 의식은 퇴계학파로의 경도 현상이었다. 이것은 홍가신이 화담학통에서 접했던 위상을 고려할 때, 한 개인의 학통적 이행을 넘어 화담학의 동력 약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홍가신의 학자적 이력과 행보 속에는 17세기 이후 퇴계학파가 동인(東人)의 학문권력으로 대두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하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과 부교수 / ksoya@aks.ac.kr

주제어 : 홍가신, 이황, 퇴계학, 서경덕, 화담학, 민순, 류성룡, 이이

## I. 머리말

16세기는 사림의 시대이자 학파(學派)의 시대였다. 사림은 사화라는 정치적 장벽을 뚫고 선조 즉위를 기점으로 사림정권을 수립했다. 권력의 주체화는 주자학에 대한 이론적 심화를 기하는 토대가 되었고, 그 결과로써 조선에는 주자학의 제 유파(流派), 즉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황의 퇴계학과, 서경덕의 화담학과, 조식의 남명학과, 성혼의 우계학과, 이이의 율곡학과는 각기 학문적 지향, 즉 학풍을 조금씩 달리 하였지만 16세기 조선의 집단지성을 형성하며 주자학적 문명화를 선도했다.

본고의 주인공인 홍가신(洪可臣)은 아산에 지역적 기반을 둔 호서시대부로 학문적으로는 화담학통, 정치적으로는 동인(남인)을 표방했던 학자형 관료였다. 그는 비록 문과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경세의 재능을 인정받아 환로 또한 순탄했고, 이몽학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청난공신에 녹훈되고 승품에 오르는 등 관료로서도 매우 현달했다. ‘만절을 온전히 한다’는 뜻의 만전(晩全)이라는 아호는 성만(盛滿)에 대한 경계의 뜻으로 읽힌다.

이 글은 홍가신의 관료적 영역보다는 학자적 측면, 특히 사승 및 교유관계에서 포착되는 학통적 변이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허엽·김근공·민순의 문하에서 수학한 전형적인 화담학통이었다. 특히 화곡서원 원향논의 때 민순의 독배론(獨漈論)을 주창한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민순에 대한 사승의식은 ‘혹모(酷慕)’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는 ‘물리침’이 아닌 ‘감싸안음’의 대인관을 가졌던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화담학통은 물론 퇴계·남명·대곡학통의 명사들과도 폭넓은 교유망을 형성하였으며, 이이(李珣)와는 매우 돈독한 교계를 맺고 있었다.

이 글에서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황·류성룡 등 퇴계학파와의 관계성이다. 홍가신은 위의 3사(三師) 외에 이황과도 학연을 맺음으로써 모두 네 명의 스승을 섬기게 된다. 하지만 학문적 긴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황과의 사승관계가 갈수록 강조되고 그의 문집 『만전집(晩全集)』을 관통하는 주의(主義) 또한 ‘퇴계문인으로서의 홍가신’에 비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글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홍가신의 학통적 좌표를 ‘화담학과 퇴계학의 경계인’으로 설정하고 그 변이 양상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이런 분석은 그의 손자 홍우원(洪宇遠)이 조정·허목·윤선도와 함께 ‘남인영수(南人四先生)’로 부상하고, 그 자손들이 근기남인의 핵심가문으로 좌정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역사적 근거가 된다.

## II. 홍가신의 학문연원과 사승

### : 화담학(花潭學)과 퇴계학(退溪學)의 양측적 수용

홍가신의 문집 『만전집(晩全集)』 및 홍경신(洪慶信, 洪可臣弟)이 찬술한 ‘만전행장(晩全行狀)’ 등 여러 문헌에서 홍가신의 사적(師酌) 반열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은 허엽(許翬)·민순(閔紉)·김근공(金謹恭) 및 이황(李滉)이다. 앞의 세 사람은 모두 화담문인 또는 화담연원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황과는 서울에서 상견하면서 사제에 준하는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홍가신의 학통적 좌표는 화담학과 퇴계학의 양대 국면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그 기축을 화담학(花潭學)에 두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홍가신은 소년기에 허엽(許翬) 문하를 출입했는데, 홍경신은 이 과정을 ‘종학(從學)’으로 표현하고 있다. ‘만전행장’에 나타나는 홍가신의 소년기 학연에 대한 설명은 자못 극적이다.

소년 시절에 초당(草堂) 허엽을 종학(從學)하였는데, 마침 퇴계 선생이 와서 좌중에 함께 계시면서 공을 유심히 보시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몇 번째 자리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이는 누군인가'라고 하시면서 한참 동안 쳐다 보았다.<sup>1)</sup>

허엽을 종학하는 과정에서 이황과 상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이황의 깊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 인용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이는 이황과의 학문적 관계성을 보다 강조하려는 의식의 소산으로 읽힌다.

허엽은 홍가신에게 제1사(第一師)의 지위를 획득하였지만 사제간 학문적 수수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장자 허성(許箴)이 홍가신의 차자 홍영(洪榮)을 사위로 맞았다는 점에서 학연→척연으로의 확장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 관계는 하나의 세의로 굳어지게 된다.

이황과의 학연은 우연성에 바탕하고 있지만 그 계승성은 견고했다. 홍가신은 이황에 대한 학자적 경모심이 매우 컸던 것 같은데, '만전행장'의 찬자 홍경신은 형의 경험담을 꼼꼼하게 채록하는 세심함을 보인다.

유생 시절 퇴계 선생께서 서울에 들어오시자 학우들과 함께 가서 배알하고 돌아와서는 사제(舍弟; 洪慶臣)에게 '오늘 퇴계를 뵈었는데, 그 의형(義形)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노라니 나도 모르게 공경하고 심복하는 마음이 들었다. 인사들 드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 학우들과 함께 절을 올리려고 하자 선생께서 먼저 일어나셨는데, 이는 선비를 대우함에 있어 예모를 더하고자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인지 한참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sup>2)</sup>

여기서 홍가신은 이황의 학자적 풍모 및 언어에 대해 '경복(敬服)'이란 표

1) 洪可臣, 『晚全集』 卷6, 附錄 〈晚全行狀〉.

2) 洪可臣, 『晚全集』 卷6, 附錄 〈晚全行狀〉, “衣時 退溪先生嘗入洛 與友人往謁之 歸語舍弟曰 今日拜退溪 瞻其儀接其語 亦覺敬服 但將襜褕 顧友人欲起拜 先生先起立 未知緣待士加禮而然耶 或出於偶然耶 良久思量”

현을 쓰고 있다. ‘경복’은 혹모(酷慕)에 준하는 존현(尊賢) 어법인 바, 그것이 비록 소년기의 단회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홍가신에게 미친 영향은 컸던 것 같다. 그가 여러 성리서 중에서도 퇴계학의 핵심 텍스트인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비롯하여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을 애독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평생 『주서절요(朱書節要)』를 혹독하게 사랑하였고, 일찍이 『심경』·『근사록』을 독송(讀誦)함에 반복해서 읽어 그 뜻을 완미(玩味)하였다.<sup>3)</sup>

후일 그가 이황의 문인록인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에 입전된<sup>4)</sup>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洪可臣 사승관계 : 花潭·退溪學의 이원적 수용

□ 花潭學 계통

⇒ 許 曄

徐敬德

⇒ 閔 純

⇒ 洪可臣

⇒ 金謹恭

□ 退溪學 계통

李 滉

⇒ 洪可臣

홍가신 사승(師承)의 본령은 김근공·민순과의 사제관계에 있었고, 특히 민순과의 학연이 그 본래에 해당한다. 그를 서경덕⇒민순으로 이어지는 화담학통의 계승자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전행장’은 ‘배움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다’는 ‘학무상사(學無常師)’의 논

3)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 〈晩全行狀〉, “平生酷愛朱書節要 嘗讀誦心經近思錄 循環玩讀”

4) 李滉, 『退溪全書』(4), 『陶山門賢錄』 卷3, 〈洪可臣〉. 略傳에서도 서울에서 이황을 親承한 사실과 『朱子書節要』·『心經』·『近思錄』을 애독한 점이 특서되어 있다.

리로서 홍가신의 학문적 외연을 설명하고 있지만, 외연 확장의 대상이 김근공·민순이라는 점에서 화담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배움에는 일정한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락(伊洛)을 학문의 종지로 삼고 오직 적암(楊菴, 金謹恭)·습정(習靜, 閔純) 두 선생 문하에만 때때로 나아가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하였는데, 훗날 다른 이들에게 ‘두 선생으로부터 감발된 것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선생 또한 공의 명민(明敏)함과 독지(篤志)를 인정하였으며, 습정은 만년에 더욱 도의로써 깊이 신뢰했다.<sup>5)</sup>

서경덕[花潭]·이중호[履素齋] 양문을 출입한 김근공은 박지화(朴枝華)·박주(朴洲)·서기(徐起) 등과 함께 16세기 서류(庶類)를 대표하던 학자였다. 특히 그는 ‘이중호묘지(李仲虎墓誌)’를 찬술하는 등 이중호 문파 내에서 확고한 위상을 점했다. 홍가신은 또한 1568년 김근공의 임종을 지킨 예제자라는<sup>6)</sup> 점에서 서경덕⇒이중호⇒김근공으로 이어지는 학통과 깊이 연계되어 있었다.

효령대군의 후손 고안정(高安正) 이정(李構)의 서자였던 이중호는 서출이라는 신분적 장벽을 학문을 통해 극복했던 인물이었다. 남에게 뒤지는 것을 몹시 싫어했던 성격에 문체(文體) 또한 기이하여 주변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당대의 거유 김안국(金安國, 慕齋)은 그를 매우 신뢰했다.<sup>7)</sup> 그는 고제도(古制度) 및 의복(衣服) 등에 해박했고, 예학(禮學)에도 정통하였으며, 만년에는 참동계(參同契)에 전념하여 선기옥형(璿機玉衡)을 손수 제작하기도 했다. 사도(師道)가 준엄했던 그는 후진 양성을 자신의 책무로 삼아 다수의 문인을 배출함으로써 서경덕(徐敬德, 花潭)과 더불어 사종(師宗)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5)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 〈晩全行狀〉, “學無常師 以伊洛爲宗而唯於楊菴習靜兩先生門下 時就質疑焉 後與人言 多有所感發於兩先生 兩先生亦以明敏篤志相許 習靜於晩歲 尤以道義相信重”

6)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 〈晩全行狀〉, “金楊菴病重 公往省之 適值進飯 見其啖炙時 從容有序 不失儀則 其夕易簣 不勝歎服 以爲非涵養有素 能如是乎”

7) 이하 이중호의 행적에 대해서는 朴世采, 『東儒師友錄』 卷13, 「李履素齋」 〈墓誌文〉(金謹恭) 및 〈遺事〉 참조.

## 李仲虎 문인 : 花潭學統 會賢門派

□ 金謹恭 □ 徐起 □ 李止男 □ 柳祖認 □ 申 煦 □ 錦川君 李城  
 □ 朴洲 [敦義門派] □ 順川君 李瑄 □ 朴應男 □ 朴應福 □ 鄭芝衍 □ 朴漸  
 □ 尹斗壽 □ 李誠中 □ 崔滉 □ 奇大鼎 □ 金有一 □ 柳縝 □ 金珩 □ 尹喜孫  
 □ 金就礪 □ 權用中 □ 羅士忱 □ 李陽元 □ 鄭崑壽

이중호는 회현동(會賢洞)을 거점으로 강학하여 20여명의 문인을 배출했다. 따라서 그 문인집단을 ‘회현문파(會賢門派)’로 명명할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인물이 곧 김근공이었던 것이다.

그의 문인들은 주로 서울 등 근기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사대부가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는 박주(朴洲)·김근공(金謹恭)·서기(徐起) 등 서류 또는 천인 계통도 있었지만, 금천군 이함(李瑊), 순천군 이관(李瑄) 등 왕실 인사를 비롯하여 박응남(朴應男; 이관)·박응복(朴應福; 정인)·정지연(鄭芝衍; 우상)·박점(朴漸; 감사)·이성중(李誠中; 판서; 퇴계문인)·윤두수(尹斗壽; 영상)·김취려(金就礪; 퇴계문인)·나사침(羅士忱)·이양원(李陽元; 퇴계문인)·최황(崔滉; 찬성, 퇴계문인) 등 명종~선조조의 관계 및 학계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많았다.

이중호 및 그 문파가 조선후기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이황과 관련이 깊다. 김근공은 ‘이소재묘지(履素齋墓誌)’ 초고를 이황에게 보내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황은 검토문에서 학도를 교육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언기 어려운 인물’로 평가하면서도 그가 찬술한 ‘심성정도(心性靑圖)’ 등을 이유로 학문적 순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sup>8)</sup> 특히 이황은 ‘이소재묘갈명’

8) 李滉, 『退溪集』 卷29, 《論李仲虎碣文 示金而精》, “故其倡率學徒 亦能有聳動振作之效 衰世豈易得此人哉 及後得見其作心性靑圖並碣誌等 其於道學精微處 恐未可輕擬也 … 其爲學也至一主於敬 乃朱門人述其師學之語 今取以稱之於此 李風后有靈 其敢當之乎 深悼絕學 窮理盡性 學必如聖人 歎秦漢以下無根本功夫等語 皆似以風后任傳道之責 皆恐未安 皆知有是事於天下 及非唯大有功於學者 及砥柱中流 惟先生而已 皆過實之語 徐花潭 一時雖間有從學之人 謂爲一時師宗 亦未當”

에 등장하는 ‘주경(主敬)’이란 표현은 주자(朱子)에게나 쓸 수 있는 문자라고 일갈하는 한편 서경덕과 더불어 한 시대의 사종(師宗)으로 일컬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종호에 대한 이황의 비판적 인식과 평가는 이소재문파가 사상계의 주류로 등장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성중·김취려·이양원·최황 등의 문인들이 이황과의 학연을 강화하며 퇴계문인으로서의 면모가 뚜렷해진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

홍가신이 ‘사범(師範)’으로 삼아 심복했던 인물은 민순이었다. 동정(動靜) 하나도 간과하지 않았을만큼 민순에 대한 학자적 존경심은 각별했고, 부단하게 전개되었던 논학(論學) 및 질의(質疑)의 과정은 홍가신의 학자적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로 이어졌다.<sup>9)</sup> 특히 그는 민순 사후 문인의 공의에 따라 ‘습정묘갈명(習靜墓碣銘)’을 찬술함으로써 행촌문하 수문(首門)으로서의 위상을 접하게 된다.

- ① 행촌이 사망한 뒤 문인들이 비문을 지을 사람을 구했으나 그 적임자를 얻지 못하자 모두 공을 찬자로 추대했다. 공은 이를 사양하였으나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침내 찬술하게 되었다.<sup>10)</sup>
- ② 습정(習靜)의 갈명(碣銘)은 여러분들의 꾀박에 가까운 요청에 따라 억지로 찬술하여 이미 서울로 보냈으니, 뒷날 반드시 한번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sup>11)</sup>

이제 ‘행촌제문(杏村祭文)’과 ‘습정묘갈명(習靜墓碣銘)’을 통해 홍가신이 민순을 어떻게 인식했고, 사제관계의 실상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행촌제문’에 나타나는 사문관(師門觀)은 경모론적 색채가 농후하다. 하지만 그것은 20년을 종학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실견과 실사에 바탕하고 있다는

9)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 〈晩全行狀〉, “公之於先進一動一靜 必欲師範 未嘗泛然看過多類此 與習靜明先生最親 義兼師友 論學質疑 多有長益 及卒 門人欲求碑文而難其人 共推公 公辭不獲 遂撰”

10)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 〈晩全行狀〉, “門人欲求碑文而難其人 共推公 公辭不獲 遂撰”

11) 洪可臣, 『晩全集』 卷2, 〈與宋雲峯仲懷書〉.



점에서 감상론적 표현과는 결을 달리한다. 홍가신은 민순을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고 결신(潔身)을 더없이 강조했던 ‘은덕(隱德)’, 나아감(進)과 물러섬(退)을 의리로 재량했던 원칙론자, 정도(正道)로써 스스로를 유지하고, 겸손으로 남을 대했던 학자로 기억했다.<sup>12)</sup> 무엇보다 홍가신은 자질이 우졸(迂拙)한데다 의지 또한 유약했던 자신을 믿음과 격려로써 이끌어준 사언에 감사하고 있는데,<sup>13)</sup> 이는 민순의 사도(師道) 및 시교관(施教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포착된다. 제문의 말미에서 홍가신은 민순의 학자적 자품과 지향을 이렇게 정의한다.

온량(溫良)하고 겸손한 덕, 화순(和順)하고 평이한 기상, 평실(平實)한 학문, 확고(確固)했던 뜻을 지금 이후로는 이 세상에 그것을 지닌 이가 없으니 서세의 애통함이 어찌 가까이 지낸 이들에 그치겠습니까. 이는 나라의 불행이요 사림의 불운인 것입니다.<sup>14)</sup>

이처럼 홍가신은 민순의 덕(德)·기(氣)·학(學)·지(志)를 ‘온겸(溫謙·德)·화이(和易·氣)·평실(平實·學)·견확(堅確·志)’ 8자로 집약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승정모갈명’에서 ‘정문구산론(程門龜山論)’, 즉 ‘화문적전론(花門嫡傳論)’으로 확장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

모갈명에 따르면, 홍가신이 행촌문하에 입문한 것은 27세 때인 1567년이 었다. 이후 그는 민순이 사망하던 1591년까지 25년간 종학하면서 학문 및 지행에 대한 관찰과 체험을 비문에 담아냈던 것이다. 민순이 최초로 접한 외부(外傳)는 신광한(申光漢·駱峯)이었다. 낙봉문하에서의 수학은 과장(科場)에서

12) 洪可臣, 『晩全集』 卷2, 〈祭惇村閔先生文〉, “生際明時 丘園晦迹 不求人知 出處何常 霽行潦止 歸要潔身 … 持身以正 接人以遜 其知之者 爲學知道 其不知者 山野一老”

13) 洪可臣, 『晩全集』 卷2, 〈祭惇村閔先生文〉, “小子昏愚 晚益慄然 出入門牆 餘二十年 汨沒摧頹 甘於自棄 加之迂拙 世所寡記 獨被先生 稱道過實 仕宦悠悠 講問雖闕 向仰之誠 久而彌篤”

14) 洪可臣, 『晩全集』 卷2, 〈祭惇村閔先生文〉, “溫謙之德 和易之氣 平實之學 堅確之志 而今而後 世無斯人 云亡之慟 豈獨交親 邦國不幸 士林無祿”

문명을 떨치는 명예를 주었지만,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대한 학문적 갈급(渴急)은 화담문화 입문을 통해 성리학자로의 변신으로 이어졌다. 화담문화에서 심취했던 것은 ‘주정공부(主靜工夫)’였고, 재호(齋號) ‘습정(習靜)’은 사실 계승의 확고한 선언이었다.<sup>15)</sup> 민순은 독서에 있어 훈고(訓誥)에 집착하지 않고 대의(大義·大要)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제 경학(經學)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주역』에 더욱 조예가 깊었던 것은 화담학풍의 착실한 계승이었다.<sup>16)</sup> 민순의 학자적 언행과 태도는 자못 진중했고, 후학들을 훈도함에 있어서도 하학(下學)을 강조함으로써<sup>17)</sup> 현학(衍學)을 철저히 경계했다. 수많은 학도들이 문정을 가득 매웠지만 한 번도 사도(師道)를 자처하지 않았다는 것은<sup>18)</sup> 그의 학자적 면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홍가신의 기억과 기록은 계속된다. 민순은 선조 초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사환을 시작하여 내외의 여러 관직을 거쳤다. 민순의 활동기는 동서분당 이후 당론이 정계는 물론 학계에까지 파급되던 시기였다. 누구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서 많은 학인들이 굴절을 겪었지만 민순만큼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홍가신은 민순을 완인(完人)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수 십년 이래 사론이 어그러져 서로 시비를 다투어 비록 명인(名人)과 석사(碩士)라 할지라도 당론으로부터 지목을 당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웠는데, 확고하게 자신의 뜻을 지켜 시종일관 한 시대의 완인(完人)이 된 이는 선생 한 분 뿐이다.<sup>19)</sup>

15) 洪可臣, 『晩全集』 卷2, 〈祭惇村閔先生文〉, “往謁花潭徐先生請業 聞主靜之說而深味之 名其齋曰習靜 堅固刻厲”

16) 洪可臣, 『晩全集』 卷2, 〈祭惇村閔先生文〉, “看文字 不以訓誥爲務 而必先撮其大要 經學精明 而於易理尤深造 然未嘗輕以語人 其舉以後學 無非下學事也”

17) 洪可臣, 『晩全集』 卷2, 〈祭惇村閔先生文〉, “然未嘗輕以語人 其舉以後學 無非下學事也”

18) 洪可臣, 『晩全集』 卷2, 〈祭惇村閔先生文〉, “學徒自遠 先生未嘗以師道自處 而隨分問答 誠心誘掖 惓惓不已焉”

19) 洪可臣, 『晩全集』 卷2, 〈祭惇村閔先生文〉, “數十年來 士論携貳 是非相奪 雖名人

민순의 학자적 존재를 드러냄에 있어 홍가신의 작심(作心) 주안처(主眼處)는 비문의 후반부에 집약되어 있다. 뛰어난 재덕을 갖추었음에도 국가경영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오히려 상투적이다. 그는 민순의 학문을 ‘명체적용학(名體適用學)’으로 평가하며<sup>20)</sup> 그 연원을 서경덕(서이락제현(伊洛諸賢))으로 소급시킨다. 홍가신의 본의는 간명했다. 그는 민순을 정호(程顥·程明道)의 도통을 계승하여 주자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양시(楊時·龜山)에 견주고 있는 것이다. 민순이 서경덕의 적전이라는 것이 ‘행촌인식’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물론 홍가신은 ‘습정묘갈명’에서 어떤 자처함도 없었지만 위 표에 입각하면 자신이 주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洪可臣 사승관계 : 花潭·退溪學의 이원적 계승

□ 楊時 學統

⇒ 呂祖謙 (呂東萊)

程顥

⇒ 楊時

⇒ 朱 熹 (朱文公)

⇒ 張 栻 (張南軒)

□ 閔純 學統

徐敬德

⇒ 閔純

⇒ 洪可臣

碩士 無不被其指目 而卓然自守 終始爲一代完人者 惟先生一人而已”

20) ‘본체를 밝게 알고 쓰임에 적합하게 한다’는 의미의 ‘明體適用學’은 조선시대 학자·관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중기 이후로는 李廷龜가 李珥에 대해, 宋時烈이 朴淳에 대해, 숙종이 鄭經世에 대해, 安鼎福이 黃宗海에 대해, 宋相琦가 송시열에 대해, 李健命이 朴世采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을 정도이다(李廷龜, 『月沙集』 卷49, 〈右贊成贈領議政諡文成公栗谷李先生墓表〉, “既養深積厚 精詣力踐 充而爲德行 發而爲事業者 皆明體適用之學”; 宋時烈, 『宋子大全』 卷155, 〈思菴朴公神道碑銘 并序〉, “於惟栗翁 尊尙文純 明體適用 實儒之眞”;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12, 〈賜祭文(德林書院宣齋時)〉, “明體適用 道則不苟”; 安鼎福, 『順菴集』 卷20, 〈祭朴淺黃公宗海墓文(戊戌)〉, “先生明體適用之學 修己治人之道”; 宋相琦, 『玉吾齋集』 卷16, 〈代司馬所祭尤庵先生文〉, “明體適用 內聖外王 浩然其氣 斐然其章”; 李健命, 『寒圃齋集』 卷10, 〈平山先正臣朴世采書院謁駱敬祭文〉, “博文約禮 明體適用”).

‘습정묘갈명’은 찬술 직후 화담문과는 물론 사림 전반에 회람되었고, 그 반향은 컸다. 1609년경 이대순(李大醇; 서얼출신의 학자)을<sup>21)</sup> 통해 비문을 열람한 신희(申欽)는 이항복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는데, 비판적 시각이 역력하다.

인품으로 논하건대, 사암의 깨끗하고 초월함과 초당의 종신토록 선(善)을 추구함이 어떻게 행촌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공이 행촌을 추켜세운 것은 어찌 제자의 관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암은 한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동료들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비록 한명길(韓鳴吉)·홍군서(洪君瑞)와 같은 온화한 인물도 즐겨 따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엇그제 이생 대순(李生大醇)이 행촌 비문(碑文)을 가지고 흠에게 찾아와 보였습니다. 그 글은 홍영원(洪寧原) 가신(可臣) 이 지은 것인데 심지어는 귀산(龜山)의 유파(流派)라고까지 일컬었으니 여기에서 그 제자들의 의론이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흠은 늦게 태어났으므로 행촌의 품행 고향에 대해서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상컨대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착실하며 몸가짐이 돈독하고 순박하여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것으로 여겨지나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과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암공으로 하여금 행촌이 사는 마을에 살면서 스승의 자리에 앉아 후생을 가르치게 한다면, 그 명망이 어찌 더욱더 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사모도 어찌 행촌 정도뿐이었습니까.<sup>22)</sup>

당시는 서경덕의 주향처인 화곡서원(花谷書院) 배향 인물 선정을 두고 화담학과 내부에서 갈등이 노정되던 시기였다. 박순(朴淳)·허엽(許曄)·민순(閔純) 3인을 배향하는 것이 중론이었음에 반해 행촌문인들은 민순의 단독 배향을 고집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순을 양시(楊時)에 견주는 내용을 담은 ‘습정묘갈명(習靜墓碣銘)’이 공개됨으로써 사론이 더욱 분분해졌던 것이다.

신희(申欽)의 서간은 민순 문인들의 ‘행촌추양론’의 과열 양상을 지적하는

21) 6~7세에 先生長者에게 배웠고, 洪履祥(화담문인)을 치제한 것으로 보아 화담문인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李德河, 『竹窓閑話』, “李生曰吾自六七歲受業於先生長者 今已六十餘歲矣”; 洪履祥, 『慕堂集』 附錄, 〈祭文(李大醇)〉).

22) 申欽, 『象村集』 卷35, 〈答白沙〉.

한편 ‘행촌독배론(杏村獨配論)’의 부당성을 비판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즉, 신희은 화담학파에서의 학자적 등위에 있어 민순이 박순보다 우위에 위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화곡서원 배향위(配享位)는 박순·허엽·민순으로 최종 결정되었지만 배향논쟁은 17세기 초반 행촌문파가 화담학파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행촌추양론’의 정점에 홍가신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가신이 허엽·김근공·이황 등 다양한 학자들과 사승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의 학파적 좌표를 서경덕→민순으로 이어지는 화담학파 행촌문파의 고제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홍가신의 사적(師的) 범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은 홍인우(洪仁祐, 1515~1554)이다. 홍인우는 1540년 8월 개성으로 가서 서경덕(1489~1546)을 만난 이후 여러 차례의 왕래·문답을 통해 학연을 맺었고,<sup>23)</sup> 1552년부터 사망하던 1553년까지 약 2년간은 이황과 긴밀하게 토론하며 또 다른 학연을 형성했다. 특히 이황과는 대면 문답과<sup>24)</sup> 서간 왕래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1553년 허충길(許忠吉)·남언경(南彦經) 등과 함께 관동을 유람하고 남긴 ‘관동록(關東錄)’에 이황이 발문을 붙이기도 했다.<sup>25)</sup> 이런 까닭에 홍인우는 서경덕·이황의 두 문인록에 등재되어 있다.<sup>26)</sup> 하지만 학계에서는 화담문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신병주는 홍인우를 남언경과 함께 화담학파 내부에서 양명학(陽明學)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학자로 평가하고 있다.<sup>27)</sup> 1607년 아들 홍진(洪進)이 『치재유고(耻齋遺稿)』를 간행할 때 서문을 허엽의 아들 허성

23) 홍인祐와 서경덕의 학문적 담론은 홍인祐, 『耻齋遺稿』 卷2, 〈日錄少〉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4) 대면 문답은 홍인祐, 『耻齋遺稿』 卷2, 〈日錄少〉의 ‘壬子’(1552) 및 ‘癸丑’(1553) 참조.

25) 李滉, 『退溪集』 卷42, 〈洪應吉上舍遊金剛山錄序〉.

26) 홍인祐를 花潭門人으로 분류한 대표적 문헌은 朴世采의 『東儒師友錄』이며, 이황의 『陶山及門諸賢錄』에는 鄭之雲·李湛·李楨·朴雲·崔應龍·盧守愼에 이어 일곱 번째로 입전되어 있다.

27) 신병주, 『南冥學派와 花潭學派 연구』, 일지사, 2000, 254~257쪽.

(許箴:洪可臣의 查頓)에게 청하고, 이로부터 2년 뒤인 1609년 신도비명을 행촌문인 홍가신에게 청한 것도 화담학적 친연성의 결과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sup>28)</sup>

홍가신에게 ‘치재신도비명(耻齋神道碑銘)’을 청한 것은 홍인우의 장자 홍진(洪進)이었다. 홍가신은 홍인우와 세대 차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홍가신이 14세 때인 1554년에 홍인우가 사망함으로써 사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치재신도비명’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 홍인우가 학문과 지행(志行)으로 당시 사림사회에서 중망을 얻고 있었음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sup>29)</sup>

본고와 관련하여 ‘치재신도비명’에서 주목할 대목은 홍인우의 학통인식이다. 즉, 홍인우를 서경덕의 문인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이황의 문인으로 인식하느냐가 그 골자이다. 홍가신은 서경덕과 홍인우와의 학연을 언급하되 그를 화담문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상호 관계에 있어서도 서경덕이 홍인우를 익우(益友)로 인정한 일화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서화담(徐敬德) 선생이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둔 이들을 많이 보았지만 더불어 진보할만한 이는 홍모(洪某:洪仁祐) 한 사람 뿐이다’고 했다.<sup>30)</sup>

위의 인용문은 허엽이 서경덕으로부터 들은 말을 홍인우에게 전한 것으로 『치재유고』의 ‘일록초(日錄抄)’에 전문이 실려 있다.

2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許箴은 홍가신이 사사했던 허엽의 아들로서 홍가신의 차자 洪榮을 시위로 맞았다. 따라서 양친허씨 許曄家와 남양홍씨 洪可臣家 사이에는 학연과 척연의 중첩적 세의가 맺어져 있었다.

29) 洪可臣, 『晩全集』 卷5, 〈耻齋洪先生神道碑銘〉, “某少時 卽聞耻齋先生學問志行之懿 爲一時耆賢所推服”

30) 洪可臣, 『晩全集』 卷5, 〈耻齋洪先生神道碑銘〉, “徐花潭先生嘗云 多閱志學之人 可與進步者 惟洪某一人”

1544년 8월 2일, 허엽을 방문하여 동숙하며 토론했다. 허엽이 말하기를 “지난 6월 20일 계 서선생을 화담에서 모셨는데, 선생께서 ‘요사이 학문에 뜻을 둔 이를 많이 보았지만 더불어 진보할만한 이는 흥모 뿐이니 어찌 서로 더불어 학문에 힘쓰지 않는가?’라고 하셨다”고 했다.

서경덕과의 관계는 위의 서술이 전부인 것에 비해 이황과의 관계는 매우 자세하다. 이황을 ‘최후사우(最後師友)’로 지칭한 것도 예사롭지 않거니와 이황에 대해서는 ‘노선생(老先生)’이라는 사림사회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존칭을 쓰고 있다.<sup>31)</sup> 1552년부터 1553년까지 2년에 걸친 토론과 문답의 과정과 내용, ‘관동록(關東錄)’(1553)에 대한 이황의 관심과 발문,<sup>32)</sup> 1554년 홍인우 사망 시 이황이 제문을 통해 망인의 ‘효우(孝友)·‘악선(樂善)·‘재화(才華)·‘학문(學問)·‘부덕(賦德)’ 등을 친절하게 술회한 것에 이르기까지<sup>33)</sup> 서경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친연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하는가? 홍가신은 홍인우를 퇴계문인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는 17세기 이후 화담학의 축소와 퇴계학의 팽창이라는 정치학 문적 지형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홍가신 자신의 퇴계학으로의 편입 의지가 ‘치재신도비명’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만전공은 휘가 가신(可臣), 자가 흥도(興道)이며 남양(南陽) 사람이다. 퇴계(退溪) 이황과 초당(草堂) 허엽(許疇)의 문하에서 배워 학문에 연원이 있다.<sup>34)</sup>

31) 洪可臣, 『晩全集』 卷5, 〈耻齋洪先生神道碑銘〉, “先生最後師友退溪老先生 其所論難 多是操戈入室 故老先生有云 每與接語 深覺洗去蒙滯 又曰 古人雖在服中 講學往來書簡未嘗廢 此後雖在廬所 望勿廢書問 老先生有望於先生之警益如此”

32) 洪可臣, 『晩全集』 卷5, 〈耻齋洪先生神道碑銘〉, “遊關東 有錄文章贍詳 使見之者一覽了然 退溪跋而贊之 士類傳誦”

33) 洪可臣, 『晩全集』 卷5, 〈耻齋洪先生神道碑銘〉, “老先生爲文以祭之 歷舉先生孝友之實 樂善之誠 才華之美 學問之明 賦德之厚 稟壽之蓄而痛惜之 豈無所實見而云然也”

조경이 ‘홍주청난비명(洪州淸難匪韓銘)’에서 홍가신의 사승을 이황·허엽에 한정하며 김근공·민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홍경신이 ‘만전행장’에서 이황의 편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퇴계학의 수용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홍가신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sup>35)</sup> 이런 맥락에서 홍가신은 1634년 아산 정퇴서원(靜退書院)에 조광조·이황과 함께 제향됨으로써 이황과의 학연을 공인받기에 이르는데, 당시 봉안문 찬술자는 호서지역 한강문인의 핵심으로 예학을 전수받았던 황종해(黃宗海)였다.<sup>36)</sup>

### III. 홍가신의 교유관계와 인적인프라 : 횡적 확장성

#### 1. 교유의 스펙트럼과 그 독법

홍가신은 민순과의 사승을 통해 화담학통을 이었고, 여기에 이황과의 학연이 더해지면서 퇴계학파로까지 학파적 외연을 확대하였음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하지만 그의 학자·관료적 행보는 화담·퇴계학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광폭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아래 기사는 홍가신이 16세기 사

34) 趙綱, 『龍洲遺稿』 卷21, 〈洪州淸難匪韓銘〉.

35) 이와는 대조적으로 許箴은 〈耻齋先生文集序〉를 찬술하면서 제목 하단에 ‘徐花潭의 문인이고, 뒤에 退溪에게 배웠다’고 사실관계를 명기하였다(許箴, 『岳麓集』 卷2, 〈耻齋先生文集序 名仁祐 字應吉 南陽洪氏 徐花潭門人 後學於退溪〉).

36) 黃宗海는 조광조·이황·홍가신 봉안문을 모두 찬술했다(黃宗海, 『朽淺集』 卷6, 〈靜退書院退溪李先生奉安文〉, 〈靜退書院靜庵趙先生奉安文〉, 〈靜退書院晩全洪先生奉安文〉). 황종해는 1602-03년 정구가 목천에 우거하며 『五先生禮說』을 저술할 때 입문하여 禮學을 전수받았고, 1649년 朱子·鄭述·金鵬孫을 제향하는 죽림서원에 배향되었다. 정구와 황종해의 학연의 실상은 아래 원고가 참조가 된다(김학수, 「寒岡學脈의 호서 확장과 黃宗海의 한강학 계승 양상-明體適用之學의 수용과 실천」,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2.09.30.〈발표 예정〉).



림의 학문적 지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그의 인적 교유망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567년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무진(1568)~기사(1569) 연간 선조 대왕께서 즉위 초반에 문치(文治)에 뜻을 두셨고, 퇴계 선생이 도학(道學)을 크게 밝혔으며, 남명(南冥·曹植)·대곡(大谷·成運)은 임천에서 절개를 닦아 행의로써 여러 선비들을 인도하였다. 공은 유학에 독실하게 뜻을 두어 성리서(性理書)가 아니면 읽지 않았고, 정주서(程朱書)를 완미하여 용모와 행동에 법도가 있었다.<sup>37)</sup>

문치(文治)와 도학(道學)의 시대를 맞아 거기에 적응해가는 홍가신의 학자적 처세를 웅변하는 대목인데, 여기서 이황 외에 조식과 성운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홍가신에게 있어 동시대의 사장(師長)은 서경덕·이황·조식·성운이었으며, 이황의 순학적(醇學的) 요소와 조식·성운의 절조(節操)를 등가적 가치로 인식했음을 의미했다.

홍가신은 조식과 면식조차 없었고, 정인홍의 회퇴변척을 계기로 퇴계·남명학파의 갈등이 증폭되던 시기에 그에 대한 평가만큼은 일체의 당론을 배격했다. 1610년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이 문묘에 종사되자 정인홍이 이언적·이황의 흠결을 지적하며 배향의 부당성을 강변한 바 있었다. 이른바 ‘회퇴변척’이 단행된 것이다. 이에 퇴계학파에서는 변무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정인홍이 유적에서 삭제되는 파란이 일었다. 퇴계학파의 변무활동은 조식에 대한 비난 및 폄훼를 수반하였는데, ‘노장학(老莊學)’으로 지목하는 것이 그 요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위 심천정(沈天挺)이 회퇴변척에 따른 양측의 문자를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자 홍가신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37)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晩全行狀〉, “中丁卯進士 戊辰己巳間 宣祖大王初立 銳意文治 退溪先生倡明道學 南冥大谷澡節林泉 以行誼表率多士 公方篤志斯學 非性理之書 不讀 允玩味於程朱書 容止有規”

남명 또한 후생들이 마땅히 경모해야 할 현인이다. 선비된 자라면 마땅히 회재·퇴계 두 선생을 변무하는데 그쳐야 하며 남명을 헐뜯는 말을 보태서는 안될 것이다.<sup>38)</sup>

홍가신은 조식 또한 존현(尊賢)의 대상임을 설파하는데 스스로 없다. 무엇보다 사림의 행동은 이언적·이황의 무고함을 씻는데 그쳐야 하며, 조식에게 허물을 이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비와 곡절의 혼효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이황이 조식의 은거불출(隱居不出)을 비난한 일이 없음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고, 조식의 학문에 '오물경세(傲物輕世)'의 의취(意趣)가 없다고 단정하면서도 여운을 남긴다. 즉, 홍가신은 남명학의 이단성은 부정하면서도 정인홍과 같은 그 문인들의 궤격(詭覈)한 행위로 인해 남명학이 정학(正學)으로서의 존재성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가신은 조식과 정인홍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① 퇴계는 남명이 은거하여 출사하지 않음을 그릇되게 여기지 않았는데, 정인홍의 변혼 차자는 오로지 이 점을 밝히는데 힘을 쏟고 있으니 괴이한 일이다. 예로부터 은거하여 출사하지 않은 것이 남명 뿐만이 아닌데 어찌 이 때문에 노장의 학문으로 지목할 수 있단 말인가? ... 자하의 학문이 장주(莊周)에 유입되어 사람에게 대해 오만하고 세상을 업신여기는 학문이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말류는 더욱 갈라지는 것은 필연적인 형세인 것이다. 남명의 학문은 진실로 이런 의미가 없지만 그 말류의 폐단은 어찌 반드시 이런 병폐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나의 의견은 이와 같은 까닭에 언급하는 것이지만 외부 사람들에게 말하여 공연히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면 다행이겠다.<sup>39)</sup>

홍가신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남명문인은 오건(吳健)·최영경

38)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晩全行狀〉, “南冥亦後生所當景慕之賢 爲士者 但當爲兩先生辨滯而已 不當加謾語於南冥也”

39) 洪可臣, 『晩全集』 卷6, 〈答沈甥〉(辛亥).

(崔永慶)·정인홍(鄭仁弘)인데, 주목할 대상은 최영경과 정인홍이다. 최영경 또한 홍가신과는 면식이 없었는데, 신교(神交)로 가공된 일화가 ‘만전행장’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평소 서로의 명성을 듣고 있던 최영경은 상경 때 경계를 방문하였으나 홍가신의 공무 수행으로 인해 상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참을 기다리던 최영경이 자리를 떴을 때 홍가신은 귀가하다 노상에서 ‘결출한 위인[魁偉人]’을 만났고, 집에 돌아온 뒤에야 그가 최영경임을 알았다고 한다.<sup>40)</sup>

이 신교일화는 양자간 도의지교로 알려지면서 정인홍이 최영경의 ‘수우당묘갈’<sup>41)</sup>을 찬술한 뒤 글씨를 칭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홍가신은 비문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다. 홍가신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 대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문제가 된 비문의 내용이 아니라 찬자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홍가신은 정인홍에 대한 거부감을 이런 방식으로 표명했던 것 같고, 여기에 그의 ‘정인홍관(鄭仁弘觀)’에 집약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가신은 서경덕·이황을 비롯하여 조식·성운까지를 16세기 사림의 지성사적(知性史的) 종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현재 사상사학계의 입장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 뒤에서 살펴볼 그의 인적 네트워크 또한 이런 구도 위에서 설정되고, 또 확장되었던 것이다.

## 2. 화담학파권

홍가신의 인적 네트워크의 본령은 화담학파의 범주 속에 존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밀한 유대관계를 확보했던 것은 ‘행촌문학’의 동문들이었다.

40)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晩全行狀〉, “與守愚堂崔永慶 初不相識 守愚一日來訪郊居 適值公坐府 呼諸子 席大樹下 坐待秣時 日暮還歸 公罷來時 於路上望見一魁偉人避入 奇其爲人 及還家 乃知其爲守愚驚之 其神交如此”

41) 鄭仁弘, 『來庵集』 卷13, 〈守愚堂崔公墓碣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민순의 행촌문인은 21명으로 집계된다.<sup>42)</sup>

이 가운데 흥가신과의 교계가 돈독했던 인물은 이발(李潑)·한백겸(韓百謙)·송선(宋瑄)이었고, 행촌문인은 아니지만 그와 교류했던 화담계 인사로는 안경창(安慶昌)·이길(李洵)·허성(許箴) 등을 들 수 있다.

閔純의 문인 : 杏村門人

- 洪可臣 □ 李 潑 □ 李 潑 濱 □ 宋 瑄 □ 金昌一 □ 金榮一 □ 韓百謙
- 尹孝全 □ 沈宗道 □ 崔鐵堅 □ 李惟侃 □ 洪履祥 □ 洪鸞祥 □ 禹伏龍
- 李眞儀 □ 朴忠生 □ 沈宗敏 □ 郭 說 □ 李 晟 □ 具光源 □ 李元揚

먼저 이발의 경우 아우 이길과 함께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호남의 광주 출신인 이발은 외가가 있던 해남에서 출생했고, 자신의 당대에 남평에 정착한 전형적인 호남사림이었다. 외조 윤구(尹衢)의 아버지 윤효정이 최부(崔溥·錦南)의 문인이었으므로 그 또한 외변 가학을 통해 금남학통(錦南學統)을 계승했고, 소년기에 서울로 유학하여 김근공과 민순 문하에서 수학했다.

이발(李潑)은 사람됨이 중후하고 엄정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김근공과 민순의 문하에 나아가 배웠다. 최영경과 가장 친하였고, 흥가신·허상·박의·윤기신·김영일·김우옹 등과 뜻을 같이 하는 벗이 되니, 모두 원대한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sup>43)</sup>

이발·이길 형제가 기축옥사에 피화된 때문인지 양측의 교유의 실상을 알려주는 문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문과 과장에서 이발 형제가 과거 부정을 감수하면서까지 흥가신의 합격을 주선한 일화는<sup>44)</sup> 교계의 친밀도와 관련한

42) 이동인, 「조선중기 화담학파의 계보학과 민순의 문인양성」, 『서울학연구』 76, 서울학연구소, 2019.

43) 김용흠·원재린·김정신 역, 『東南小史』, 혜안, 2011, 40~41쪽.

44)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 〈晩全行狀〉, “嘗與李大成兄弟同赴闕聖試 篇未終而

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들은 관직의 임면(任免)이나 출보(出補)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문을 통해 권면·격려의 정을 표했고,<sup>45)</sup> 관료적 환난 시에도 위로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1574년 부여현감으로 부임한 홍가신은 백제 멸망기의 장상인 성충(成忠)·흥수(興首)·계백(階伯)을 제향하는 의열사를 건립한 다음 1576년에는 낙화암 서쪽에 이은암(吏隱菴)을 지어 경내 사자(士子)의 교육 및 유식(遊息)의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다.<sup>46)</sup> 그 의도와는 달리 이런 행위는 관료적 태업(怠業)으로 지목되어 조론(朝論)이 비등하자 홍가신은 사직을 결심하게 된다. 이때 세간의 비난에 이랑긋하지 않고 위안과 격려의 뜻을 전한 인물이 바로 이발이었다.<sup>47)</sup>

이런 우호는 홍가신이 이길의 딸을 셋째 며느리로 맞는 단계로 확장되었고, 1589년 기축옥사로 이발·이길이가 죽임을 당했을 때 자신 또한 사축·금고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애도와 함께 치상을 돕는 행위로 표출되었던 것이다.<sup>48)</sup>

刻幾盡 小李取東表相類者 勸公及時黜化以呈 公不應 又有一友欲吏相知下人 圖置收卷中 公曰 出身 士之大關嶺 其敢如是乎 終不聽

45) 洪可臣, 『晚全集』 卷1, 〈贈別李大成景濶(李潑)〉, “憂國傷時白髮新 柴扉寂寞過三春 如何今日臨歧別 壺臥沙頭未醉人”; 卷1, 〈用玉堂錢別韻 贈李景淵(李濬; 甲戌)〉, “去國三百里 逢君舊顏色 忽此離索中 令人意自別 願言勤講學 無徒費時月”; 卷1, 〈江上別李景淵〉, “江上行舟漸渺然 酒醒離思滿秋天 遙知別後青青夢 多在奇巖淺水邊”

46) 洪可臣, 『晚全集』 卷2, 〈吏隱菴記 菴在扶餘落花巖西〉, “萬曆丙子夏四月 吏隱菴成 凡三間 窓壁皆存素質 而覆以茅 余携一二學徒 時時遊息其中 自丙子至于今年矣 … 余於公退之暇 竹杖穿雲 闌舟泝流 皆便服徑造 不使邑人知 靜坐焚香 一室岑寂 或玩心圖書 或吟弄風月 江山之主 魚鳥之侶 民不知太守之所在 太守不知其身之爲吏 是則余之吏隱 豈特寓意託名而已哉”

47) 洪可臣, 『晚全集』 卷6, 附錄〈晚全行狀〉, “廟傍作齋堂 名曰觀善 選士子居守講學 以勸獎 事聞于朝 賜額義烈 又構一小菴于落花巖東畔 名曰吏隱 時與二三學徒 往來迢遙 或自衙後 植杖獨往 吏民無知之者 奉公之外 凡饋遺問訊俗人所爲 一切掃去 久之 京洛譁然以太簡爲非 公欲棄官以避謗 惟李景濶作書獎勉曰 君被朝家拔擢 委以百里之任 豈可同俗人所爲乎”

48) 洪可臣, 『晚全集』 卷6, 附錄〈晚全行狀〉, “時李景濶兄弟繫獄 烈燄薰天 人皆畏禍 知舊絕無相問者 公獨勤省問 及其寘也 解衣贈別 未幾 還被囚 皆繫杖下 公往哭之 解衣覆屍 親自殮襲 具棺塋葬 一家人悶其禍及 泣止之 曰 何忍不見 禍福”

이 대목에서 매우 곱씹어 볼 문헌이 있다. 김낙행(金樂行)의 『구사당집(九思堂集)』과 김시양(金時讓)의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이 그것이다. 김낙행은 ‘문견록(聞見錄)’이라는 저술에서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일기(芝峯日記)’를 인용하여 기축옥사 당시 이발·이길 집안의 기화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갑은 달 13일 이발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함께 장형(杖刑)을 당해 죽고 그 사위인 홍가신(洪可臣)의 아들 탈(稅: 稔의 誤記)과 김응남(金應男)의 아들 명룡(命龍)이 모두 압של형을 받아 죽었고 문생(門生)과 노복은 다 엄한 형벌을 받았다.<sup>49)</sup>

옥사의 여파가 이길(李洁)의 사위들에게까지 미쳐 김명룡과 홍절(洪燾)이 압של형을 받고 죽었다는 이 기사는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원주김씨족보』와 『남양홍씨족보』에 따르면, 김명룡(1568~1625)과 홍절(1571~1645)의 졸년은 각기 1625년과 1645년이므로 김낙행의 기술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의 기술이다. 이에 따르면, 기축옥사 이후 이길의 두 사위가 화를 두려워하여 이혼을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

김상 응남(金相應南)의 아들 명룡(命龍)과 판서 홍가신(洪可臣)의 아들 홍절(洪燾)은 다 이길(李洁)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다. 기축년 정여립(鄭汝立)의 변란이 일어났을 때 이길이 고문받다 죽으니, 홍 판서가 글을 올려 이혼하기를 청하였으며, 명룡도 글을 올려 이혼하기를 청하였으니, 그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해서이다. 그때 김상은 중국 서울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명룡의 외숙 이산해(李山海)가 명룡을 시켜서 하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론(士論)이 김상을 허물하지 않고 홍 판서만을 애석하게 여기는 이가 많았다.<sup>50)</sup>

49) 金樂行, 『九思堂集』續集 卷2, 〈聞見錄〉.

50) 金時讓 『荷潭破寂錄』 “金相應南子命龍 洪判書可臣之子燾 皆娶李洁女 己丑難作 洁拷死 洪判書上書請離婚 命龍亦上書請離婚 畏其禍及也 時相赴京未還 命龍之表叔李山海 教命龍爲之 故士論不咎金相 而多爲洪判書惜之”

물론 『원주김씨족보』와 『남양홍씨족보』에 의하면, 김명룡과 홍절은 재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김시양이 지니고 있었던 관료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상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허언을 기술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sup>51)</sup> 추론컨대, 이 혼을 청구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청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애도 및 치상을 도왔다든 홍가신의 행위의 실상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문이 남는다.

한편 한백겸은 아버지 한효운(韓孝胤)이 화담문인 박민헌(朴民獻)에게 수학했고, 자신은 민순의 행춘문하를 출입함으로써<sup>52)</sup> 부자 모두 서경덕의 학통을 이은 전형적인 화담학파였다. 경학, 특히 『주역』에 정통했던 그는 1601년 선조의 명으로 주역 교정을 위해 설치한 찬집청(纂輯廳)에서 홍가신·정구와 함께 교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sup>53)</sup> 당시 선조는 중외의 유신들을 대거 소환하였는데,<sup>54)</sup> 문과 출신이 아닌 ‘비문신(非文臣)’으로서 이 작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은 인물이 바로 위의 3인이었다.

선조 34년(1601)에 찬집청을 설치하고 『주역』의 구두(句讀)와 음(音)과 해석을 상세히 교정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는데, 정구(鄭誦)·홍가신(洪可臣)·한백겸(韓百謙) 세 사람은 출신(出身)하지

51) 18세기 남인계 학자 안鼎福은 김시양이 옛 기록의 사실관계 오류를 많이 바로잡은 것을 높은 평가한 바 있다(安鼎福 『順菴集』, 〈椽筆隨筆〉(下) “記事之難 金荷潭時讓日記 其辨糲攷古人引事之訛謬處 儘多可喜”).

52) 이동인, 앞의 논문, 22쪽.

53) 洪可臣, 『晩全集』 卷5, 補遺 〈鄭愚伏經世所撰韓久菴百謙墓碣〉, “鄭公愚伏經世所撰韓公久菴百謙墓碣云 宜廟以周易傳義多有不同 句讀音釋 當須兩存 而學者偏主程傳 命聚中外儒臣 設局而釐正之 與其選者 公與洪可臣鄭公誦數人而已”

54) 교정에 참여한 관원은 尹根壽 등 총 60인이며, 이 가운데 화담학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洪可臣을 비롯하여 尹根壽·洪進·鄭昌衍·許箴·李尙信·李尙毅·洪慶臣·韓百謙·李志完 등이다. 이 작업은 1603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국가적 학술 사업이었다(許箴, 『岳麓集』 附錄, 〈周易校正廳宣醞圖座目〉; 李漢, 『星湖全集』 卷53, 〈周易校正廳宣醞圖記〉).

않은 자로서 선발에 드니 당시에 영예로 여겼다.<sup>55)</sup>

이후 1604년 청주목사 재직 때는 청주한씨 시조를 위해 반시당(返始堂)을 건립하고 홍가신에게 낙성시(落成詩)를 요청한<sup>56)</sup> 것 외에 문헌을 통해서도 양자간의 교유상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지만 홍가신의 4자 홍비(洪斐)가 한 백겸의 사위라는 점에서도 양가의 세의(世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행춘문하 동문 가운데 교분이 가장 두터웠던 것은 송선(宋瑄)이었다. 송선은 학문적 동지였을 뿐만 아니라 손아래 동서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학연과 척연의 이원적 인간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아래는 허목이 찬술한 ‘송선묘갈명’의 한 대목으로 송선의 사우관계, 특히 서로를 추히(推誼)했던 홍가신과의 학문적 친밀감이 잘 기술되어 있다.

함께 어울린 벗으로는,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 만전(晩全) 홍가신(洪可臣), 시정(寺正) 권용중(權用中), 참판(參判) 홍이상(洪履祥), 덕신공자(德音公子), 취병(翠屏) 김창일(金昌一), 죽간(竹澗) 강복성(康復誠), 동계(東溪) 우복룡(禹伏龍), 유수(留守) 허잠(許潛)이 있는데, 모두 도학(道學)이나 현능(賢能)함으로 소문난 당대의 저명한 인물들이다. 예전에 만전공과 함께 행춘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할 때 둘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옛 성현의 학문에 정통하다고 치켜 세웠다고 한다.<sup>57)</sup>

허목의 기술은 실사에 바탕했고, 그런 정황은 『만전집』에 실린 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전집』에는 총 22통의 서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송선에게 보낸 것이 12통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1592년부터 홍가

55) 李裕元, 『林下筆記』 卷17, 「文獻指掌編」 〈訂周易設廳〉.

56) 洪可臣, 『晩全集』 卷1, 〈題西原返始堂 韓參議百謙爲牧 構堂求題 蓋始祖清之人故也〉, “公起三韓季 堂開萬曆中 風流百代遠 雲日入窓通 導俗能敦孝 爲臣孰後忠 丁寧執經子 返始在加功 一德興王後 聯翩有幾公 堂經牧伯啟 碑待侍郎豐 壇草迎春綠 庭花帶雨紅 南嶽流日夜 餘慶與無窮”

57) 許穆, 『記言』 別集 卷20, 〈木翁宋先生墓碣銘〉.



신의 사망 한 해 전인 1614년까지 왕래된 만년 서찰이다. 서중(書中) 담론의 주요 주제는 ‘우국(憂國)·애군(愛君)·처세(處世)·수분(守分)’ 등 주자학 시대 관료들의 관심사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두 사람만의 신뢰와 기대를 간파할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 1606년의 서간은 임란 이후 부귀에 집착하여 명절을 저버리는 사대부들의 변절상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역력하다. 그 대상을 적시하지 않고 ‘지구(知舊)’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행간의 뉘앙스는 행촌문하 동문들을 지목한 것으로 짐작된다.

요사이 듣자하니, 서울에 있는 지구(知舊)들 가운데 옛 행동을 잃지 않는 이가 드물다고 하는데, 부귀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명절은 보전하기가 어려운 법인지라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형께서는 쇠퇴한 세상에서도 스스로를 진작하여 낭패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sup>58)</sup>

한편 홍가신은 정치적 곤경에 처할 때도 송선과 심기상통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예컨대, 1608년 7월 홍가신은 광해군의 신정(新政)을 맞아 성덕을 추구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광해군으로부터 당여(黨與·鄭經世)를 비호했다는 질책을 받은 바 있었다.<sup>59)</sup> 이에 홍가신은 송선에게 서한을 보내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등 불안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편지는 어떤 해법보다는 상대에게 위안과 격려를 촉구하는 가족적 신뢰감의 표출로 읽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축적된 신뢰감은 송선에게 온양으로의 낙향과 인거(隣居)를 중용하는 단계로까지 진전되었고,<sup>60)</sup> 자신이 찬술한 ‘습정모갈명(習靜墓碣銘)’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홍가신은 송선을 상대로 16세기 조선의 학계, 특히 화담문파에 속한 학인

58) 洪可臣, 『晩全集』 卷2, 〈與宋雲峯仲懷書〉(丙午).

59) 『光海君日記』 〈光海君 卽位年 7月 7日〉.

60) 洪可臣, 『晩全集』 卷2, 〈與宋雲峯仲懷書〉(戊申) “近此溫湯之境 煞有良田 與君遇所居頗相隣近 君遇每言兄之無所歸 而欲來於此 此處秋事 視他處亦頗念 兄若欲來 則君遇當爲之料理而使兒女焉 此來有多少好事 書札不能盡 在兄嘿會耳”

들의 우열을 언급하는 등 다소 기휘스런 대화도 마다하지 않는다. 1609년 서간이 바로 그것인데, 이 해 홍가신은 홍진(洪進)으로부터 홍인우(洪仁祐)의 ‘신도비명(耻齋神道碑銘)’ 찬술을 부탁받은 바 있다.

요사이 우연히 어떤 일로 치재(耻齋; 洪仁祐) 선생을 알게 되었는데, 공의 학문은 이락(伊洛)의 전통에서 깊이 연음이 있었습니다. 소재(蘇齋; 盧守愼)와 초당(草堂; 許疇) 모두 뜻을 같이 했던 벗인데, 소견의 초매(超邁)함, 실천의 독실함은 두 공도 미치지 못할 듯 합니다. 아마도 김한훤(金寒暄; 金宏彌)과 조정암(趙靜庵; 趙光祖) 이후로는 이 한 사람 뿐이 아닐까 싶습니다.<sup>61)</sup>

홍인우를 김굉필·조광조 이후 최고의 학자로 평가하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데, 송선의 동의를 촉구하는 정서가 다분하다. 서중 담론의 대미는 이이를 평론한 1614년 서간에서 마무리된다. 송선은 성훈(成渾)과 이이(李珥)의 ‘사칠논변(四七論辨)’에 대한 홍가신의 의견을 요청했지만 한동안 회신이 지연되었던 것 같다. 홍가신은 사망하기 한 해 전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율곡의 주장(議論)은 과연 옳기는 하지만 용이(容易)하면서도 활대(滑大)하여 평생의 묵은 병통이 입언(立言)하는 사이에 드러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sup>62)</sup>

즉, 홍가신은 이이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용이(容易)·활대(滑大)’라는 표현을 통해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병통을 지적했던 것이다. 홍가신의 이이에 대한 관료적 인식과 평가는 류성룡을 다룰 때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홍가신은 스승 허엽의 아들과도 친교를 지속하였다. 장자 허성(許誠)

61) 洪可臣, 『晩全集』卷2, 〈與宋雲峯仲懷書(己酉)〉, “近間偶因事 識得耻齋先生 公之學 深有得於伊洛之傳 蘇齋草堂皆其同志之友 而所見之超邁 踐履之篤實 恐二公亦不能及 金寒暄趙靜庵之後一人而已”

62) 洪可臣, 『晩全集』卷2, 〈拜復宋仲懷(甲寅)〉, “栗谷之論 果是矣 而容易滑大 平生舊病 發現於立言之間 不可諱也”

과의 사돈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3자 허균 또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홍가신을 예방하는 등 세의를 돈독히 했다.

허균은 1601년 전운판관(轉運判官)에 임명되어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양에 경유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7월 13일과 8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홍가신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1601년 7월 13일. 동지(同知) 홍가신(洪可臣)을 장사(莊舍)로 찾아뵈었다. 서로 만나 즐거움이 지극하여 종일토록 모시고 이야기를 하니 가슴이 상쾌해지며 비루한 생각이 싹 가시는 듯하였다. 저녁에는 용궁의 집에서 묵었다. 유선원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sup>63)</sup>

1602년은 홍가신이 낙향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장사(莊舍), 즉 농막(農幕)을 찾은 것은 낙향 초기라 거처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만남의 공간은 소박했지만 주고받은 대화만큼은 자못 화애롭다. 아버지의 제자, 질서(姪胥; 洪榮)의 부친이라는 학연과 척연의 중첩적 연분(緣分)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며 흥중의 진애(塵埃)를 털어내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이후 홍가신은 허균이 1605년 원접사 유근(柳根)의 종사관으로서 명나라 사신 한림수찬(翰林修撰) 주지번(朱之蕃)과 형과도급사(刑科都給事) 양유년(梁有年)을 맞이하러 의주로 가다 개성부에 도착했을 때, 개성유수 자격으로 위로 방문을 하는<sup>64)</sup> 등 친교가 끊이지 않았다.

홍가신의 화담학파권 교유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은 안경창(安慶昌)이다. 그는 서경덕의 문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핵심 중유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하고,<sup>65)</sup> 허균(許筠) 등 화담학파의 핵심층에서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긴 것에서도<sup>66)</sup> 화담학파권에서 차지했던 그의 존재감

63) 許筠, 『惺所覆瓿藁』 卷18, 〈漕官紀行〉.

64) 許筠, 『惺所覆瓿藁』 卷18, 〈丙午紀行〉.

65) 안경창에 대해서는 李德河, 『松都記異』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66) 신병주, 앞의 책, 237쪽. 허균의 『惺所覆瓿藁』 卷24, 〈惺翁識小錄下〉에는 자신

을 간취할 수 있다.<sup>67)</sup> 유형원(柳馨遠)은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서 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이이(李瑀)·성혼(成渾)·조식(曹植)·노수신(盧守愼) 등 당대의 석학을 안경창의 주요 교유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안경창(安慶昌)은 개성부 백성이다.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부지런하며 선을 좋아하여 의롭지 않은 것은 지푸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남의 선한 명성을 들으면 천 리도 멀다 하지 않고 가서 만났다. 주립과 배부름, 추위와 더위를 잘 참아서 한 번에 몇 말의 밥을 먹기도 하고 열흘 동안 먹지 않기도 하며, 심한 더위에 털옷 입고도 땀 흘리지 않고 엄동설한에 얼음물에 들어가도 추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사내옹(四耐翁)'이라고 불렀다. 명산대천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다 찾아다녔다.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이 일찍이 그의 고상한 운치를 인정하였고, 또 이이(李瑀)·성혼(成渾)·조식(曹植)·노수신(盧守愼)과 교유하였다. 90여 세에 죽었다. 노수신이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주었다.<sup>68)</sup>

『만전집』에는 안경창에게 증정한 두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아래 시는 1599년 흥가신이 아산으로 낙향한 뒤 자신의 삶의 공간과 일상을 전하는 내용인데 만년의 기력을 쏟아 공부에 힘쓰는 자적(自適)의 노인사(老人事)가 담박하게 그려져 있다. 여기에 세사의 다단함은 개입할 여지조차 없어 보인다. 바로 이런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 안경창(安慶昌)이었던 것이다.

‘안사내에게. 이름은 경창이고 개성 사람이다’

의 형(許箴 또는 許筠)이 안경창으로부터 『蓮花金字經』 네 권을 얻은 사실도 기술되어 있다. 허봉이 안경창의 비명을 지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許箴, 『荷谷集』, 「雜著補遺」, 〈安山人墓碑銘〉, “謹齋後慶昌樂山水 以山水終其友陽川許某銘曰 生非生 死非死 吁嗟乎彥盛 生死而已”).

67) 1778년 黃景憲 등 3남 유생 3,272명이 연명한 庶孽許通疏에 따르면, 안경창은 金謹恭·楊士彥·魚無迹·宋翼弼·朴枝華·黃元孫·梁慶遇와 함께 서얼출신의 대표적 문인·학자로 평가되고 있다(『正祖實錄』 〈正祖 2年 8月 1日(戊午)〉).

68) 柳馨遠, 『東國輿地志』 卷1, 開城府 〈人物〉.

세상 일은 능한 이에게 맡겨두고	世事付能者
나는 돌아가 옛집이나 찾으리	歸歟尋舊居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법	朝聞夕死可
문들 닫고 보다 만 책이나 읽으리	閉戶讀殘書

호수 밖 한 대숲	湖外一竹林
내 사는 곳 그곳이지	此間吾所居
남쪽을 지나는 기러기 만나거든	如逢南過雁
서너줄 편지나 그 편에 부쳐주게	憑寄數行書 <sup>69)</sup>

서열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문학과 행의로 극복하여 이언적·이황 등 당대의 거장으로부터 고상한 기품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홍가신의 교유 스펙트럼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필요하다.

### 3. 퇴계학파권

홍가신이 동시대의 학자·관료 가운데 가장 비견되고 싶었던 대상은 류성룡(柳成龍)과 이이(李瑋)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한 살 아래였던 류성룡에 대한 흠선(欽羨)은 『만전집』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데, 아래 『만전행장(晩全行狀)』은 그런 의식을 톺김하게 묘사하고 있다.

판서 원훈이 일찍이 좋은 향(香) 중에서도 가품(佳品)을 소장하고는 ‘인품이 이 향과 같은 이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주고자 한다’고 하니 어느 명성을 좋아 하는 자가 가서 달라고 하자 원판서가 ‘연소한 유생 가운데 이 향을 즐만한 이는 홍모(洪某; 洪可臣)와 류성룡(柳成龍) 뿐이다’고 했다.<sup>70)</sup>

69) 洪可臣, 『晩全集』 卷1, 〈贈安四耐 慶昌開城人〉.

70)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 〈晩全行狀〉, “元判樞樞當得名香絕佳者藏之曰 人品如此香者 吾欲與之 有一自好者往求之 元曰 與此香相似者 年少中唯共某柳成龍也”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류성룡에 비견되는 ‘중망론(重望論)’이다. 실제 홍가신은 류성룡과 유소년기를 함께 보냈고, 한 곳에서 기식(畜食)하며 과업을 연마했던<sup>71)</sup> 오랜 친구였다. 비록 자신은 과거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1604년 각기 호성공신(扈聖功臣:류성룡)과 청난공신(淸難功臣:홍가신)에 녹훈되어 봉군의 명예를 획득함으로써 환력 또한 비등했다고 할 수 있다.

류성룡과의 관계는 1573년 류성룡의 부친 류중영(柳仲郢)의 사망 때 만사를 지어 애도하고,<sup>72)</sup> 류성룡의 장자 류의(柳倚)가 홍가신을 방문하는 등 ‘서애일가’와의 친연(親緣)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홍가신과 류성룡 사이에 왕래한 시문은 세 편에 지나지 않지만 묻어나는 우의(友誼)는 짙고 강렬하다. 아래는 1578년 8월 류성룡이 근친차 안동에 내려갈 때 사우들과 함께 동호(東湖讀書堂)의 몽퇴정(夢賚亭)에서 지은 송별시이다. 잠시의 이별조차도 못내 아쉬워하는 심정, 연인(戀人)에게나 투사할 법한 살가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8월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어머니를 가 뵈었다. 사인(舍人) 이발(李潑)·좌랑 이순인(李純仁)·한림 이길(李濤)·정랑 홍가신(洪可臣)·목사 유대수(俞大脩)·한림 김침(金瞻)·참봉 허상(許鎬)·감역(監役) 박의(朴宜)·참봉 이덕홍(李德弘)·사인(士人) 권응시(權應時)가 술과 음식을 내어 동호(東湖)의 몽퇴정(夢賚亭)에서 같이 묵으면서 각각 송별시를 지었는데, 선생도 석별의 시 한 수를 지었다.<sup>73)</sup>

세상의 변고는 다함이 없이 오는 것이건만	世故來無盡
저 강물은 쉴 새 없이 흘러 가는구나	江流去不休
이 가을 오늘날같은 밤	逢秋有今夕

71) 洪可臣, 『晩全集』 卷6, 附錄 〈晩全行狀〉, “及做舉子業 多與柳西厓成龍李大成潑及柳柔立諸人同處”

72) 洪可臣, 『晩全集』 卷1, 〈挽柳參知 仲郢(癸酉)〉

73) 柳成龍, 『西厓集』, 「年譜」, 〈戊寅(1578)〉.

그대 떠나보내는 마음 아득하고 아득하네

別意極悠悠<sup>74)</sup>

류의가 홍가신을 방문한 것은 임란 직후였다. 홍가신은 아산으로 낙향했고, 류성룡은 실각 이후 하회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퇴계연보(退溪年譜)』와 『징비록(懲毖錄)』 저술에 전념하던 시기였다. 류의로부터 옥연정사에서 늙은 재상으로 살아가는 류성룡의 생활상을 전해 들은 그는 수십 년 교계를 추억하며 7언절구를 남긴다.

서에 모습은 소삼하여 맑은 바람이 일고  
20년 사귄 세월 꿈처럼 아득하네  
오늘 아들을 만나 소식을 물으니  
옥연의 연월 속 늙은 삼공이라는군<sup>75)</sup>

西厓蕭颯起清風  
廿載追隨一夢中  
今日逢君問消息  
玉淵煙月老三公

여기서의 ‘노삼공(老三公)’은 직분을 다하고 만년을 향수(享受)하는 전직 재상이기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귀향이 강제된 율분의 정치인으로 착상된다.

소년기 이래의 친교는 관계 입문 이후 존현사업에 상호 협력하는 동력이 되었다. 홍가신은 1574년 가을 부여현감으로 부임하는 즉시 존현사업(尊賢事業)에 착수했다. 백제의 충신 성충(成忠)·흥수(興首) 및 계백(階伯)을 제향하는 의열사의 건립이 바로 그것이었다. 비록 사묘에 그쳤지만 관선당(觀善堂) 등 부속 건물을 통해 사공 교화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의열사는 이황이 추진했던 ‘서원보급운동’의 실무적 적용이었다.

의열사는 건립된 지 3년째 되던 1578년에 사액되었으나, 사묘(義烈祠)와 강당(觀善堂)과 관련된 문자는 1579년 홍가신이 이임할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의열사와 관선당에 대한 애착이 컸던 홍가신은 이임 후에도 기문 찬술

74) 洪可臣, 『晩全集』 卷1, 〈江上別柳直學而見成龍〉.

75) 洪可臣, 『晩全集』 卷1, 〈逢柳狼川倚憶西厓〉.

및 편액 글씨 등을 몸소 주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열사의 경우 기문은 류성룡이 찬술하고 글씨는 한호(韓濩)가 쓰는 것으로, 관선당의 기문은 허성(許箴)이 짓고 글씨는 역시 한호가 쓰는 것으로 기획되었다.<sup>76)</sup>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허성의 ‘관선당기(觀善堂記)’만 확인되지 않을 뿐, 그 나머지는 모두 홍가신의 구상대로 이루어졌다. 류성룡의 ‘의열사기(義烈祠記)’는 1581년 작품인데, 사당의 건립 취지와 홍가신의 역할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만력(萬曆) 을해년(甲戌年의 誤記)에 나의 벗 홍흥도(洪興道)가 명을 받아 이 읍에 부임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서 부서(簿書)와 문안(文案)을 정리하는 여가에 지도를 참고하고 역사를 열람하다가 네 사람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고는 길이 감탄하면서 “아, 이것이 어찌 원(守)된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말하였다. 이에 현의 부로들과 상의한 결과 사당 건립을 도모하게 되었다. ... 사묘의 구조는 3칸인데, 재실과 부엌이 함께 갖추어졌다. 또한 그 옆에 관선당(觀善堂)을 지어 선비들이 학문하고 수양하는 곳으로 삼았고, 관전(官田)을 나누어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주민을 모집하여 지키게 하였다. 그 공사의 감독 맡은 이는 읍 사람 서귀수(徐龜壽)라고 한다.<sup>77)</sup>

류성룡이 기문 찬술에 적극 응했던 것은 사우의 간곡한 부탁을 넘어 ‘충(忠)’을 매개로 하는 존현사업에의 공감 때문이었다. 충효를 종신의 준칙으로 삼았던 류성룡의 ‘충효관(忠孝觀)’은 풍산류씨 서애가학의 종지(宗旨)로 정착되었을만큼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sup>78)</sup> 나아가 ‘의열사기’의 축탁과 수락은 홍가신과 류성룡 사이의 동지의식의 확인 및 강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76) 洪可臣, 『晩全集』 卷2, 〈與扶餘觀善堂儒生書 辛巳〉, “今送記文 柳斯文而見(柳成龍)所作 而韓上舍濩筆畫也 … 觀善堂額字 則乃韓筆也 須得善刻妙手 入好板揭之 幸甚 … 觀善堂記 已屬許舍人(許箴) 想亦未久關聽矣”

77) 柳成龍, 『西厓集』 卷17, 〈義烈祠記〉.

78)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의 學風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앞에서 가장 흠선했던 동시대인으로 류성룡·이이를 거론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류성룡과 이이는 학과·정파적 영역을 달리했고, 경세의 방향 또한 그 결을 달리했다. 하지만 국리민복에 대한 열정에는 차이점이 없었던 바, 경쟁적 공조관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홍가신은 화담·퇴계학파를 표방했지만 이이와의 관계도 매우 우호적이었으므로 류성룡과 이이의 중간자적 위치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면모는 양인의 정치적 동정과 의론(議論), 특히 경세관에 깊은 관심을 넘어 적극 개입한 것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홍가신의 중간자적 역할을 잘 보여주는 자료는 『만전집』(권5)의 ‘류서에 행적약술(略敘柳西厓而見行迹)이하 ‘약술’로 약칭’과 『울곡전서(栗谷全書)』(권28)의 ‘제가기술잡록(諸家記述雜錄)이하 ‘잡록’으로 약칭’이다.

먼저 ‘약술’은 16~17세 때부터 책상을 함께하고 한 이불을 같이 덮었던 청소년기의 교제, 류성룡의 인품과 자질에 대한 부러움, 한유의 ‘원도(原道)와 『장자(莊子)』의 ‘추수편(秋水篇)’을 읽고 문리가 트였다는 일화 등을 회고적 필치로 담아내고 있다.<sup>79)</sup> 그러나 이것은 서설일 뿐 홍가신이 본질적으로 기술하고자 했던 것은 1582년의 ‘개혁론(改革論, 更張論)’과 관련된 이이와의 갈등과 거기에 따른 국익의 훼손이었다.

1581년 9월 1일 당시 우참찬이었던 이이는 네 가지 시폐의 개정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려 이른바 ‘경장론(更張論)’을 조정의 현안으로 부각시키게 된다.<sup>80)</sup> 이에 류성룡은 그 이튿날 차자를 올려 이이의 주장이 시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논의가 전면 차단되었다.

부제학 류성룡이 이 말을 듣고 이튿날 차자를 올려 이이의 논의가 시의

79) 洪可臣, 『晩全集』 卷5, 〈略敘柳西厓而見行迹〉, “某自年十六七時 與公交遊 學做舉子業 晝則連榻 夜則同被 公色溫而氣豪 時時善諧謔 不屑於收斂之功 某每見公出語驚人 自歎以爲不及 一日 公來見某曰 吾數日前 讀韓文原道 莊子秋水篇數遍 覺得文思頓進 因出示一策文 波瀾浩浩 光彩刮目 又非復前日所見文字也 自是詩賦論策 皆爲一時舉子中獨步 未幾 公果捷巍科 登顯仕 某遂蹭蹬無所成”

80) 『宣祖修正實錄』〈宣祖 15年 9月 1日〉.

(時宜)에 적합하지 않다고 극론하자, 그 의논이 끝내 중지되었다. 홍가신이 류성룡에게 가니 성룡이 그가 이이의 논에 부회하였다고 힐책하였다. 가신이 말하기를, ‘공은 과연 경장하는 것을 그르다고 여기는가?’ 하니, 성룡이 말하기를, ‘경장하는 것은 진실로 옳은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재주로 그 일을 해내지 못할까 염려될 뿐이다.’ 하였다.<sup>81)</sup>

위 인용문에 주목할 두 장면은 ①‘홍가신이 이이에게 부회했다고 류성룡이 의심한 점’, ②‘이이의 재주로는 경장이 불가능하다’는 류성룡의 판단이다. ‘약술’과 ‘잡록’은 이이의 경장론에 찬동하여 벗[류성룡]으로부터 오해를 받은 홍가신의 ‘자작해명(自作解明)’이었다.

홍가신이 이이와 왕래가 잦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 오해는 ‘경장론’과 관련하여 상호 논박의 와중에 홍가신이 이이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왔다는 데에서 기인했다. 이때 류성룡은 ‘흥도(興道·洪可臣) 또한 다시금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며 탄식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숙설(留宿設)’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간의 오해는 류성룡과의 대화에서 해소되었다.<sup>82)</sup> 중요한 것은 경장에 대한 류성룡의 입장이었다. 이이와 홍가신은 류성룡이 이이와의 대담에서는 찬동을 표명했으면서 이이의 상소가 올라오자마자 반대 차지를 올려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을 때 류성룡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柳成龍)이 웃으면서 말하길, ‘변법(變法)은 옳은 일이지만 이 일을 숙헌(叔獻·李瑋)과는 할 수 없다’고 했다.<sup>83)</sup>

81) 위와 같은 곳.

82) 洪可臣, 『晩全集』卷5, 〈略敘柳西厓而見行迹〉, “公傳聞某留宿叔獻第 歎曰 興道亦復有是事耶 其後公與某從容談話間 偶及是夕之事 知留宿之言傳之誤也 因欣然曰 然也然也 昔者所聞 誤也”

83) 洪可臣, 『晩全集』卷5, 〈略敘柳西厓而見行迹〉, “公笑曰 變法是矣 雖然 此事不可與叔獻爲之”

사안은 옳되, 특정인(李珣)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답변은 홍가신을 다소 당혹스럽게 했던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류성룡을 ‘처심부정(處心不正)’으로 일갈하게 되는데, 그런 입장은 ‘잡록(雜錄)’에 집약되어 있다.

1600년 해주목사에 재임하던 홍가신은 석담(石潭)을 방문하여 이이의 아들(庶子 이경림(李景臨)과 긴요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기서 그는 이이가 자신을 인정하여 사로(仕路)를 열어주었고, 동인과 서인의 정치적 장벽도 구애되지 않았던 친밀했던 교분도 가감없이 밝혔다.<sup>84)</sup> 홍가신은 이이를 당쟁의 간극을 좁히려 했던 ‘조제론자(調劑論者)’, 경장을 주창했던 경세가(經世家)로 평가하는 가운데 개혁론(경장론)을 가로막은 장본인으로 류성룡을 지목했다.<sup>85)</sup> 이에 이경림이 류성룡은 재국은 뛰어나지만 기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백부족론(氣魄不足論)’을 제기하자<sup>86)</sup> 홍가신은 ‘처심부정론(處心不正論)’이라는 보다 근원적이면서도 각박한 논리로 대체한다. 홍가신의 이른바 ‘처심부정론(處心不正論)’은 당시 조정의 상황에 대한 진단, 당사자인 류성룡과의 문답을 통해 정리된 결론이었다.

내가 서애에게 ‘영공은 일찍이 율곡과 국사를 논의하였습니까?’라고 묻자 이현(而見;류성룡)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고 했다. 내가 묻기를, ‘그렇다면 율곡의 경장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자 이현이 ‘좋습니다’고 했다. 내가 ‘좋다면 영공은 왜 저지하셨습니까?’라고 하자 이현이 ‘경장의 계책은 비록 좋지만 숙헌(叔獻;이이)의 재국으로는 그것을 주재할 수가 없습니다’고 했다. 내가 ‘이런 입장을 율곡에 말을 했습니까?’라고 하자 이현이 ‘그런 말을 한

84) 李珣, 『栗谷全書』卷38, 〈諸賢記述雜錄〉, “從容謂景臨曰 栗谷知余詳而許之深 故當初薦揚 皆因栗谷也 不知者 以東西議論爲相較 設或議論有不合處 豈以此爲閤乎”

85) 李珣, 『栗谷全書』卷38, 〈諸賢記述雜錄〉, “況栗谷本無所偏 每以調劑爲務 余則深知其然 相諒終始如一 夫以栗谷之才 爲主上倚重 擔當世務 每陳更張之策 使其說得行 則可以有爲 而如柳而見者竝生一世 每沮其策 栗谷更張之策不行 都是而見之爲也”

86) 李珣, 『栗谷全書』卷38, 〈諸賢記述雜錄〉, “景臨問曰 柳相才則固美 而氣魄不足 故短於事業 亦豈量狹而然耶”

적은 없습니다'고 했다. 내가 탄식하며, '영공의 생각이 잘못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국사를 논하면서 면전에서 승낙하고서는 도리어 가로막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니 이현이 낮빛이 달라지며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곧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한 곳인 것이다.<sup>87)</sup>

홍가신의 의중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탁월한 두 인재의 지나친 경쟁과 갈등이 개혁론의 좌절로 이어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던 것이고, 그 책임의 비중점을 류성룡에게 둔 것이다.

류성룡을 경장론 파국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것은 시각에 따라서는 선부른 진단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약술' 말미에 류성룡의 만년 입장을 수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1598년 류성룡이 '주화오국(主和戩國)'을 빌미로 탄핵을 받아 도성 밖에서 대죄하고 있을 때 홍가신은 서신을 통해 소회를 물었다. 류성룡은 관료적 처신과 행위에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음'을 완곡하게 피력하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비난과 비판에는 어떤 동요도 없음을 강조했다. 추론컨대, 후자의 영역에는 1582년 이른바 '경장론 저지 행위'에 따른 비판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상대[류성룡]를 비판하면서도 해명의 여지를 제공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 홍가신이 추구했던 인간관계론의 요체였던 것 같다. 나아가 이이를 두고 '성정이 소탈하고 언어가 용이(容易)함에도 그에 대한 사류들의 추허(推許)가 더러 지나침이 있다'<sup>88)</sup>고 한 것은 논인(論人)에 있어서의 절제된 균형감으로 감각되기 때문이다.

87) 李珥, 『栗谷全書』卷38, 〈諸賢記述雜錄〉, “余問曰 令公嘗與栗谷不議國事耶 而見曰 固嘗議之耳 余問曰 然則其更張之策何如 而見曰 好矣 余曰 好則令何以沮之耶 而見曰 更張之策雖好 叔獻之才 恐不能辦也 余曰 此亦與栗谷言乎 而見曰 不曾言也 余嘆曰 令公之意誤矣 與人議國事 面諾而反沮之可乎 而見色變不答 此是不正處也”

88) 洪可臣, 『晚全集』卷5, 〈略敘柳西厓而見行迹〉, “蓋叔獻性疏脫易言語 而士類之推許或過”

## 4. 대곡(大谷)·남명(南冥)계열

대곡(大谷成運) 계열과의 교유와 관련하여 홍가신의 조부 홍윤창(洪胤昌)이 성운과 6촌의 척분을 지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홍가신과 교유했던 성운 계열의 대표적 인사는 신식(申湜, 1551-1623)이다. 예학에 정통하여 『의례고증(疑禮放證)』·『가례언해(家禮諺解)』 등의 예서를 저술한 신식은 퇴계문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성운(成運)과도 학연·척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일찍이 퇴도(退陶) 이문순공(李文純公)에게 나아가 학문을 하는 방도에 대해 물으니, 문순공이 매우 칭찬하였다. 문순공이 세상을 떠난 뒤에 또 대곡(大谷) 성운(成運)에게 배우고서 마침내 부귀영화에 대한 생각을 끊어 버렸다.<sup>89)</sup>

경주김씨 가계도 : 成運 처가

金碧 ⇨ 天富 ⇨ 可幾 ⇨ 德民

① 初娶 : 申湜女 ⇨ 女 尹孝全 ⇨ 鏞(白湖)

② 再娶 : 吳希文女

⇨ 女 成運 ⇨ 養子 可幾

위 가계도에 따르면, 신식은 성운의 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운의 처질이 자양자였던 김가기(金可幾)의 아들 김덕민(金德民)을 사위로 맞았음을 알 수 있다. 김덕민의 사위 윤효전(尹孝全)은 홍가신과 행촌문하의 동문이었고, 그 아들인 윤휴(尹鏞)는 허목과 함께 17세기 근기남인 학계를 대표하던 거유였다. 윤효전과 윤휴 부자는 서경덕에 대한 연원의식이 견고하여 각기 1601년과 1652년에 이루어진 『화담집(花潭集)』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sup>90)</sup>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홍가신과 신식의 교유는 동조(同朝)의 사회적 관계

89) 李玄逸, 『葛庵集』 別集 卷6, 〈拙齋先生申公諡狀〉, “嘗就退陶李文純公 問爲學之方 文純深加獎歎 及文純沒 又從大谷成公運遊 遂絕意外慕”

90) 徐敬德, 『花潭集』, 〈花潭先生文集跋〉(尹孝先·尹孝全); 尹鏞, 『白湖全書』 卷24, 〈重刊花潭集序〉(壬辰).

와 화담·퇴계학이라는 학통적 동질성의 접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교유의 실상은 신식(申湜)의 서재인 ‘용졸재(用拙齋)’에 붙인 홍가신의 기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학자의 가장 소중한 공간인 ‘서재,’ 특히 군왕 선조가 개재되어있는 자궁(自矜)의 공간과 관련된 글을 부탁한 것 자체가 깊은 믿음과 상허(相許)를 전제로 한다.

선조는 한가할 때면 당대 수재들을 논평하는 독특한 취미가 있었고, 신식을 두고 ‘아무개는 응졸하다(某也拙)’고 평한 바 있었다.<sup>91)</sup> 신식은 선조의 평을 흔쾌히 받아들여 재호로 삼고 홍가신에게 기문을 청했던 것이다.<sup>92)</sup> 이에 홍가신은 기문에서 ‘하열(下劣)한 선비가 만년(晩年)에 도를 듣고서, 애오라지 응졸함으로 자신을 수양한다’는 소식(蘇軾)의 시와 주자(朱子)의 의론을 인용하며 남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달가워하는 신식의 지신(持身)과 수분(守分)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sup>93)</sup> 정구의 해석에 따르면, 졸함은 ‘의(誼)를 바르게 하되, 이익을 꾀하지 않고, 도를 밝히되 공을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축된 찬사였던 것이다.<sup>94)</sup>

한편 남명계열에서 주목할 사람은 조원(趙瑗, 1544-1595)이다. 조원은 조식의 생질 이준민의 사위였다. 1564년 약관의 나이로 진사시에 장원하자 조식은 아래의 시를 통해 격려해 마지않았는데, 이는 조원이 광의(廣義)의 ‘남명일가(南冥一家)’로 편입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91) 洪可臣, 『晩全集』 卷2, 〈拙齋記〉, “吾友申觀察叔正 性白直 與人語 無回互 立朝四十年 啓辭疏割之間 識者知其爲人焉 我直祖大王嘗於清燕之暇 評及一時群英 至公若曰 某也拙 公聞之 意欣然甚幸”

92) 신식은 拙齋로 자호한 다음 그 記文을 홍가신과 崔岾에게 부탁했고, 鄭述에게는 그 의미를 발휘하는 ‘說’을 청했다(崔岾, 『簡易集』 卷9, 〈用拙齋記〉; 鄭述, 『寒岡集』 卷9, 〈拙齋說〉).

93) 洪可臣, 『晩全集』 卷2, 〈拙齋記〉, “古人有詩曰 下土晚聞道 聊以出自修 晦庵深味其言 今公之意 亦有得於晦庵之味而興起者乎 何其嗜今人之所不嗜如此哉”

94) 鄭述, 『寒岡集』 卷9, 〈拙齋說〉.

불속에서 하얀 칼날 뽑아내니	离宮抽太白
서리같은 빛 달에까지 닿아 흐르네	霜拍廣寒流
견우성·북두성 떠 있는 넓디넓은 하늘에	牛斗恢恢地
정신은 놀아도 칼날은 놀지 않는다	神游刃不游 <sup>95)</sup>

동년배였던 두 사람은 매우 절친한 사이였지만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했던 관료적 처신은 사림사회에서는 하나의 일화를 넘어 ‘신도(臣道)’의 모범으로 회자되었다.

지평 홍가신(洪可臣)은 이조 좌랑 조원(趙瑗 李俊民의 사위)과 어릴 적 친구 사이였는데, 조원이 종종 사적인 일을 추구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홍가신이 조원에게 먼저 이르기를, “일이 공적인 것이면 사적인 것은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그대는 잘못된 일이 많으니, 나는 사적인 정리(淸理) 때문에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논박하여 조원을 체직시키니, 공론이 잘했다고 칭찬하였다.<sup>96)</sup>

이런 관계는 혼맥으로까지 이어졌는데, 홍가신이 이위경(李偉卿) 조원의 처질을 손서로 맞은 것도 조원과의 관계의 확장으로 바라볼 여지가 크다.

한편 홍가신은 이정(李楨)을 제향하는 사천(泗川) 구암서원(龜巖書院)의 ‘춘추향고문(春秋享告文)’을 찬술한 바 있다.<sup>97)</sup> 1568년 음부옥의 외증에서 조식과 의절한 이정은 강우지역을 대표하는 퇴계문인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예식문자의 찬술은 이정을 조식의 ‘종유인이자 이황의 문인’이라는 이원적 인식에 바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5) 남명학연구소편역, 『교감국역남명집』, 〈갈자루에 써서 장원한 조원에게 줌(書劍柯瑗贈曹壯元瑗)〉.

96) 李裕元, 『林下筆記』 卷9, 典謨編 〈臣道〉.

97) 李楨, 『龜巖集』 卷2, 附錄 〈龜巖書院春秋享告文〉, “於戲先生 維學之博 維道之間 維專忠孝 維振斯文”

#### IV. 맺음말

16세기 중후반 이황·서경덕·조식·성혼·이이 등에 의해 체격을 갖춘 학파의 시대는 동서분당, 기축옥사, 임진왜란, 남북분당, 인조반정 등 정치적 현안들과 연쇄적 반응을 일으키며 17세기 이후부터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1589년의 기축옥사는 화담학파에 큰 타격을 준 정치적 사건이었고, 1623년의 인조반정으로 남명학파는 사실상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혼돈 속에서 학계의 주류로 등장한 것은 퇴계학파와 기호학파(우계·율곡학파)였다.

이 시기를 살았던 홍가신의 학자적 처세 및 학통상의 추향(趨向) 또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행춘문하의 고제로서 화담학통의 정맥을 이었으면서도 이황과의 사승관계, 류성룡과의 교유관계를 그에 못지않게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물론 그는 광목적 교유망을 형성하여 화담·퇴계계는 물론 남명·대곡계의 명사들과도 두루 교유하였지만 사승 및 교유관계의 기축이 퇴계학과 쪽으로 경도되어 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부여현감 재직시 의렬사의 건립은 이황의 ‘서원보급운동’의 계승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주자서절요』의 애독은 퇴계학적 학문 지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집착에 가까울만큼 류성룡과의 교계를 강조했던 것은 상대에 대한 개인적 흠선(欽羨)을 넘어 퇴계학에 대한 친연적 행보의 강렬한 표출로 읽힌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1634년 아산 정퇴서원에 배향되어 조광조·이황과 함께 제향되는 학자적 영예를 누릴 수 있었고, 『도산급문제현록』에도 입전되어 퇴계문인으로서의 입지도 강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홍가신의 퇴계학적 학통성의 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화담학의 추동력의 저하 또는 상실로 해석할 수 있다. 행춘문하의 고제라는 화담학통에서 접했던 그의 학통상의 지위가 저하 또는 상실의 정도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홍가신의 학통상의 이행 양상은 17세기 이후 제 학파간 영역 및 세력의 판



도 조정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그와 그의 가문은 남인 퇴계학파로서의 정치·학문적 좌표를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손자 홍우원(洪宇遠)이 인조~숙종 연간 남인의 영수로 대두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원전

『世宗實錄』; 『文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正祖實錄』; 洪可臣, 『晚全集』; 韓致瀛, 『海東歷史』; 申叔舟, 『保閑齋集』; 朴愷年, 『朴先生遺稿』; 李石亨, 『樗軒集』; 具鳳齡, 『栢潭集』; 金宗直, 『佔畢齋集』; 洪彥忠, 『默齋集』; 李滉, 『退溪全書』; 『陶山及門諸賢錄』; 朴世采, 『東儒師友錄』; 李滉, 『退溪集』; 洪履祥, 『慕堂集』; 申欽, 『象村集』; 洪仁祐, 『耻齋遺稿』; 許篈, 『岳麓集』; 黃宗海, 『杕淺集』; 鄭仁弘, 『來庵集』; 金樂行, 『九思堂集』; 金時讓, 『荷潭破寂錄』; 安鼎福, 『順菴集』; 李瀾, 『星湖全集』; 李裕元, 『林下筆記』; 許筠, 『惺所覆瓿藁』; 李德問, 『松都記異』; 許筠, 『荷谷集』; 柳馨遠, 『東國輿地志』; 柳成龍, 『西厓集』; 李珥, 『栗谷全書』; 李玄逸, 『葛庵集』; 徐敬德, 『花潭集』; 崔岾, 『簡易集』; 鄭述, 『寒岡集』; 남명학연구소편역, 『교감국역남명집』; 李楨, 『龜巖集』

### 2. 논저

- 신병주, 『南冥學派와 花潭學派 연구』, 일지사, 2000.
- 김용흠·원재란·김정신 역, 『東南小史』, 혜안, 2011.
- 이동인, 「조선중기 화담학파의 계보학과 민순의 문인양성」, 『서울학연구』 76, 서울학연구소, 2019.
-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의 學風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Abstract

## Hong Ga-sin's Human Network: The Boundary Between Hwadam Study and Toegye Study

Kim, Haksu\*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human network of Hong Ga-sin [洪可臣], a scholar and official of King Seonjo-Gwanghaegun's reign, and to clarify the meaning of intellectual and ideological history. Hong Ga-sin was a typical literati of Giho (Gyeonggi-Chungcheong area), and he continued the academic lineage of Hwadam by studying under Heo Yeop, Kim Geun-gong, and Min Sun, and formed a close bond with Toegye and Giho scholastic mantle by establishing mentor-disciple relations with Yi Hwang, Yi Yi, and Ryu Seong-ryong.

For Confucia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the scholastic mantle often showed a fluid patter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academic power as much as the substance of inheriting a teacher. Hong Ga-sin was the case. Although his biographical writing does not dilute his identity as a disciple of Min Sun, the consciousness captured throughout his collection of writings, "Manjeonjip [晩全集]," was a phenomenon of longitude toward Toegye School. Considering Hong Ga-sin's status in Hwadam School, this had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process of weakening the power of Hwadam study beyond an individual's academic transition. In other words, it is very noteworthy that Hong Ga-shin's academic history and actions reflect the trend

---

\* Assistant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soya@aks.ac.kr

of Toegye School emerging as the academic power of the Easterners [Southerners] after the 17th century.

Key word : Hong Ga-sin, Yi Hwang, Toegye Study, Seo Gyeong-deok, Hwadam Study, Min Sun, Ryu Seong-ryong, Yi Yi

논문 투고일: 2022. 11. 08 심사 완료일: 2022. 12. 14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임란 이후 홍가신(洪可臣)의 활동과 인산서원 배향\*

이 근 호\*\*

- I. 들어가는 말
- II. 공신 녹훈과 정치 활동
- III. 낙향과 처사
- IV. 사후 추송 사업과 인산서원 배향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홍가신의 임진왜란 이후 활동과 사후 추송 사업의 내용을 추적한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남인 홍가신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청년공신 녹훈 대상자 일부가 정국 주도 세력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제외되었을 때, 홍가신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 홍가신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해주 목사나 개성 유수와 같은 관직에 있을 때이다. 반면 중앙에서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당대 정국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홍가신은 대북이나 유명경과 그 지지세력을 견제하는 활동을 보인다. 연로하고 勳臣이라는 정치적 위상을 가진 홍가신이었으나, 당대 정국 상황으로 인해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한편 사후에는 국왕이 치제문을 내리거나 유명 인사들이 묘비문 찬술을 통해서 그를 추송하였다. 또한, 문집 간행이 진행되었고, 추송 사업의 일환에서 아산 지역의 오현서원(후에 인

\* 이 글은 “인산서원 배향인물 재조명-만전당 홍가신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2022 아산학연구소 학술대회(2022.8.26.)에서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 ekh1117@cnu.ac.kr

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조선 사회에서 오현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본다면 홍가신과 그 후손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추송 과정이라 하겠다.

주제어 : 홍가신, 오현서원, 인산서원, 공신 녹훈, 아산

## I. 머리말

이 글은 洪可臣(1541~1615)의 정치 활동, 특히 임란 이후의 정치 활동을 추적하고, 사후에 진행된 추송 사업의 내용을 해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홍가신은 山野의 인재<sup>1)</sup>로 발탁되어 판서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특히 임진왜란 때 홍주에서 李夢鶴 亂을 제압하였고, 전란 후에는 각종 전란 수습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후에는 아산의 인산서원과 온양의 정퇴서원에 배향되면서, 오늘날 아산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홍가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생애에 대한 검토와 관련 자료를 叢集한 연구<sup>2)</sup> 이외에 임진왜란 때 지방관으로 경험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거나, 그의 경세방략을 중심으로 검토한 연구, 내포 지역 민의 동향과 함께 홍가신의 역할을 검토한 연구가 제출되었다.<sup>3)</sup> 이밖에도 초상화에 대한 검토,<sup>4)</sup>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거나,<sup>5)</sup> 국정 운영 및 행정개혁 개선 방안 검토,<sup>6)</sup> 상소문

1)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2월 18일(갑자).

2) 박을수, 『만전당 홍가신 연구』, 글익는들, 2006; 박을수, 「만전 홍가신의 생애와 활동」, 『조선시대 아산지역의 유학자들』, 지영사, 2007.

3) 김기승, 「홍가신과 임진왜란- 충청 지역 지방관이 경험한 임진왜란 전후의 조선사회」, 『한국인물사연구』 8, 2007; 김기승, 「홍가신의 사상과 활동」, 『조선중기 홍가신·허목의 사상과 학문』, 수원화성박물관, 2012.

4) 윤진영, 「초상화의 이모(移模)와 전승- 도강영당(道江影堂) 구장(舊藏)의 홍가신·허목 초상화를 중심으로-」, 『조선중기 홍가신·허목의 사상과 학문』, 수원화성박물관, 2012.

5) 송기섭, 「만전당 홍가신의 생의 자취와 삶의 지향」, 『한문고전연구』 33, 2016.

을 중심으로 경세 방안을 검토한 연구<sup>7)</sup> 등이 제출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홍가신의 생애 상당 부분이 해명되었다. 다만, 당대 정국 속에서 홍가신의 활동이나 생애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아래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면서, 당대 정국의 흐름 속에서 홍가신의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정치 활동에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더하여 홍가신 사후에 이루어진 추승 사업을 소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산서원 배향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공신 녹훈과 정치 활동

1598년(선조 31) 11월 19일 순천 예교성 전투에서 일본군이 敗走하며 전란이 종식되었다.<sup>8)</sup> 같은 해 11월 24일 영돈녕부사 李山海, 해원부원군 尹斗壽, 행지중추부사 鄭琢 등 원로를 포함한 신료들이, 天佑로 일본군이 물러가게 된 것은 사직과 生民의 기쁨이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려 전란의 종식을 천명하였다.<sup>9)</sup> 전란이 종식되기는 했으나 정국은 요동쳤다. 종전 직전부터 北人 세력을 중심으로 남인 柳成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류성룡이 辨誣使를 기피한 것과 ‘主和誤國’하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었다. 남인 일부에서 류성룡을 옹호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선조가 북인을 지지하며 결국 류성룡은 체차되고, 북인이 대거 진출하면서 정국을 주도하였다.<sup>10)</sup> 국왕 입

6) 송기섭, 「만전당 홍가신의 국정개혁에 대한 방략과 행정문화개선 연구」, 『Culture and Convergence』 40, 2018.

7) 복대형, 「홍가신 경세사상 연구—上疏文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3, 2016.

8)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23일(갑진).

9)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24일(을사).

10) 구덕희, 「선조대 후반(1594~1608)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1988, 242~246쪽.

장에서 전쟁 책임을 돌릴만한 소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인 주도의 정국에서 홍가신의 정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복인 주도의 정국에서 홍가신은 1599년(선조 32) 11월 강화부사에 제수되었다.<sup>11)</sup> 그러나 이때는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다른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출사하지 않았다.<sup>12)</sup> 이는 정국을 주도하던 복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3)</sup> 이어 1600년(선조 33) 해주 목사에 제수되었다.<sup>14)</sup> 그런데 이때 李爾瞻은, 홍가신이 해주 목사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다. 즉 이이첨은 相公의 뜻을 표방하면서, 홍가신에게 “지금 여러 王子와 翁主의 12홈이 모두 海州에 있으니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 부임을 막았다. 이이첨의 시도는 한 차례 더 진행되었다.<sup>15)</sup>

실제 이이첨의 지적처럼 당시 해주에는 다수 宮家가 있었고, 궁가 노비들의 작폐가 문제되거나<sup>16)</sup> 왕자나 대신의 支應을 위한 물품 조달<sup>17)</sup>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1601년(선조 34)에는 종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자 이들을 모두 서울로 옮기라는 지시가 있기도 하였다.<sup>18)</sup> 따라서 이

11) 『선조실록』 권119, 선조 32년 11월 4일(기유). 한편 홍가신의 이력이나 활동 등에서 대해서는 김기승, 앞의 논문, 2012에서 자세히 정리된 바 있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12)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行狀(洪慶臣 撰).

13) 물론 홍가신이 복인 주도 정국에 대한 불만으로 출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동생 洪慶臣이 류성룡을 옹호하다가 遞職된 바 있다. 동생 洪경신은 홍가신의 행장을 찬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볼 때 형 홍가신과 일정하게 정치적 입장을 공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行狀(洪慶臣 撰). 한편 실록에서는 홍가신이 해주 목사에 제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제수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뒤에 서술하겠으나 銓郎 李爾瞻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이첨은 1599년(선조 32) 1월에 이조좌랑, 같은 해 12월에 이조정랑에 제수되었다. 그 령다면 행장에 제시된 제수 사실은 인정된다.

15)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行狀(洪慶臣 撰).

16) 『선조실록』 권47, 선조 27년 1월 4일(계미).

17) 『선조실록』 권47, 선조 27년 1월 27일(병오).

18)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11일(을해).



이침의 지적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이침은 홍가신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임을 막았을까? 더 이상의 설명이 없기에 이이침이 홍가신의 부임을 막았던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해주 지역에 다수의 공가가 포진하였다는 이이침의 지적을 통해서 추론해본다면, 새롭게 정권을 잡은 북인 처지에서 해주 지역에 포진한 다수 공가와 연결은 정권을 공고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홍가신이 해주 목사로 나아간다면, 이이침 등 북인의 입장에서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론해본다.

이이침이 막기는 했어도 홍가신은 “臣子가 除命을 듣고 어찌 괴로움을 피하리오” 라며 해주 목사에 부임하였다.<sup>19)</sup> 해주 목사에 부임한 홍가신은, 통상 왕자궁 등에 물건을 바치고 왕자와 부마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세상에는 궁중을 사귀어 통하고 때로 물건을 바치는 것이 풍속을 이루고 있으니 부끄럽이 없기도 심하도다. 또 고을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제궁을 받들고 한편으로는 대군을 공궤하자니 기름과 피가 이미 다했는데, 어찌 차마 백성을 괴롭혀서 비용을 판비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홍가신은 같은 해 12월에 해주 목사를 그만두었다.<sup>20)</sup>

이후 홍가신이 다시 출사한 것은 1603년(선조 36) 이었다. 이즈음 조정에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공신 녹훈이 논의되었다. 임란과 관련한 공신 녹훈은 이미 1597년(선조 30)경부터 국왕의 지시가 있었으나,<sup>21)</sup> 전쟁 중이라는 상황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않다가, 1601년(선조 34) 3월 다음과 같은 비망기가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壬辰年 西行 때 호종했던 사람들에게 녹훈할 것을 전교하였는데, 이제 왜 적도 다 몰아내고 중국군도 모두 철수하였으며, 쫓acket도 마쳤고 領相도 나왔으

19) 『해주읍지』 선생안.

20)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行狀(洪慶臣 撰).

21)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9일(정축).

니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壯士도 비록 적을 勦滅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중에는 힘껏 싸워 공을 세운 사람도 있을 것이니, 역시 자세히 살펴서 함께 녹훈하도록 하라. 그리고 전일 李夢鶴의 난 때에 공을 세운 사람에도 녹훈할 것으로 승전을 받든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녹훈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회계할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sup>22)</sup>

당시 공신 녹훈은 ① 국왕의 西行 때 扈從人, ② 전쟁 때 力戰有功之人, ③ 李夢鶴 난 때 有功人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홍가신은 이몽학의 난 때 유공인으로 녹훈 대상이었으며, 元勳으로 녹훈을 주도하여야만 하였다. 대개 공신 녹훈을 위해서는 승정원에서 날을 택하고 대신 및 원훈을 불러들여 賓廳에 나아가 등급을 정하여 재가를 받고, 또 다른 날 대신 및 대제학 등의 관원을 불러 이들이 빈청에 나아가 勳號를 결정하여 재가를 받으며, 이후에 都監을 설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리고 녹훈도감이 설치되면 원훈이 모든 일을 살펴 시행하는 것이었다.<sup>23)</sup> 당시 홍가신은 낙향해 있는 상황이었기에 비변사에서 홍가신의 上來를 요청하였으나,<sup>24)</sup> 끝내 홍가신이 상경하지 않자, 결국 영의정 이항복, 우의정 김명원 등이 홍가신과 상의해서 대상자를 보고하였다.<sup>25)</sup> 일 단 명칭은 “洪州勳逆功臣”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명단을 보고하였다.

〈표 1〉 1601년 ‘홍주토역공신’으로 보고된 명단

등급	명 단
1등	홍주목사 홍가신
2등	방어사 朴名賢, 수사 崔湖
3등	병사 李時言, 순안어사 李時發, 종사관 辛景行, 파총 전 군수 林得義, 천총 전 군수 朴震男, 파총 전 군수 元堉, 남포 현감 朴東善, 보령현감 黃應星, 파총 전 현감 李用沈, 생원 李翼賓

22)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10일(무신).

23) 이근호, 「조선 후기 功臣 錄勳의 정치적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99, 2012, 14쪽.

24)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10일(무신).

25)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24일(신묘).



아산 대곡(우측 하단 ○ 표시)

일단 공신 녹훈 대상자 명단이 보고되었으나, 국왕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같은 시기 홍주토역공신 녹훈을 위해 별도의 도감이 설치되었던 듯, 홍가신은 이후 선조에게 도감 설치와 자신의 서용 정지를 요청하였다.<sup>26)</sup> 이때 홍가신은 아산 대곡에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으며,<sup>27)</sup> 그곳에서 漕官으로 파견된 허균을 만나기도 하였다.<sup>28)</sup>

26)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21일(무오).

27) 홍가신의 아산 정착이 어떠한 계기나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어머니 홍양 신씨 申允弼 딸의 묘소가 역시 아산이라는 점을 통해서 보면, 외가의 경제적 기반이 아산에 정착하게 된 배경이라 판단된다(이근호, 「인조 말~숙종 초 洪宇遠의 정치 활동」, 『韓國史學報』 67, 2017, 16쪽). 이 점은 19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아산의 읍지인 『新定牙州誌』의 “大谷有興陽申氏別業 節度使申繼宗 葬其父於家後 仍爲世葬傳 其子允弼有二女 一歸共鼎 生文莊公可臣 一歸金玆 尹楊善金玆外孫女婿也 傳受申氏家業”(『新定牙州誌』 古今摠錄)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8) 허균, 『성소부부고』 권18, 문부 15, 기행 상, 조관기행, 7월 13일조. 허균은 홍

이후 공신 녹훈 문제는 1603년(선조 36) 공신도감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때 홍가신은 공신도감의 당상으로 참여하였다.<sup>29)</sup> 당시 호종공신이나 전쟁 중 유공인을 공신으로 녹훈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sup>30)</sup> 이몽학 난 때 공신을 선정하는 과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신 녹훈 과정에서 앞서 보고되었던 명단 중 일부가 논란이 되었다. 兵使 李時言은 청주에 있다가 적이 홍주에 소식을 듣고도 천천히 이동하여 사흘 만에 온양에 이르렀고, 온양에서도 더 나아가 싸울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李時發은 변이 일어났을 때 공소에만 앉아 있어서 홍주성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관군을 징발하여 보낸 것도 이미 왜적이 흘러진 뒤였다고 한다. 林億明은 “賊寇와 같은 자”로서, 흉악한 계책으로 적과 마음을 같이하여 날뛰다가 형세가 궁해지고 힘이 약해지자 죄를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적을 배고 와서 투항하였다는 것이다.<sup>31)</sup> 朴震元·元堉·李用沈은 千摠·把總으로서 성에 들어가 조치하였다고는 하였으나 별로 뛰어난 공적이 없고, 朴東善·黃應璽은 수령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赴難하였으나 또한 특이한 일이 없었다. 辛景行·林得義의 공은 본디 그 가운데에서 뛰어난 것이 아닌데 2등에 섞여 있으니, 또한 외람된다는 것이다.<sup>32)</sup>

이러한 공신 녹훈 대상자를 둘러싼 논란은 당시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柳永慶과 그 추종 세력이 주도한 것이었다. 3등으로 보고된 박동선은 애초 예비명단에 포함되었으나, “有不悅者”가 개정하였다고 한다.<sup>33)</sup> 李時發의 녹훈

가신과 사돈 사이이다. 홍가신의 아들 洪榮의 처부가 許箴으로, 許箴은 허균과는 형제 사이이다. 또한, 서인 조현은 홍가신을 “筠之倚”이라 하여 金應南·白惟讓·李潑·李浩 등과 함께 분류하기도 하였다.

29) 『선조실록』 권137, 선조 36년 4월 28일(갑인).

30) 호종공신이나 전쟁 중 유공인의 공신 녹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정일, 「임란시의 공신책훈고」, 『울산사학』 3, 1990을 참고.

31) 『선조실록』 권164, 선조 36년 7월 26일(경진)

32) 『선조실록』 권166, 선조 36년 9월 17일(경오).

33) 『松谷集』 권10, 行狀 「議政府左參贊朴公行狀」, “朝廷論平賊功 公初預錄焉 有不悅者 論改之 知其事者 咸爲稱屈 而公默然終不自言 人益以爲難”. 남구만, 『藥泉

을 가로막는 인물로는 “金大來輩”가 특정되기도 하였다.<sup>34)</sup> 김대래는 소북 중 유영경 계열의 인사로, 濁北으로 분류되기도 한 인물이다.<sup>35)</sup> 김대래가 특정되듯이 공신 녹훈에 대해서는 당시 새롭게 정국을 주도하게 된 유영경 계열의 세력들이 해당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영경은 1602년(선조 35) 1월 이조판서를<sup>36)</sup> 거쳐 3월에는 우의정이 되었다.<sup>37)</sup> 유영경의 중용은 宣祖의 서인 세력이나 대북 세력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었다. 유영경은 자파 세력의 扶植 및 확대를 추진하여, 궁중 세력과 모색을 시도하거나 奇自獻 朴承宗 등과 연대를 시도하며 점차 그 세력 기반을 확대하였다.<sup>38)</sup> 이런 상황에서 유영경과 그 지지세력들은 공신 녹훈에 이의를 제기하며 저지를 시도하였다. 이때 홍가신은 공신도감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1603년(선조 36) 2월 형조참판,<sup>39)</sup> 같은 해 4월 강원도 관찰사,<sup>40)</sup> 7월에 개성 유수<sup>41)</sup>에 제수되었면서, 공신 녹훈 사안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보인다.

〈표 2〉 1604년(선조 37) 6월에 최종 확정된 청난공신<sup>42)</sup>

등급	명단
1등	洪可臣
2등	朴名賢·崔湖
3등	辛景行·林得義

集』第15, 墓誌銘, 「左參贊朴公墓誌銘」.

34) 이시발, 『碧梧遺稿』 권7, 自叙 “以丙申討李夢鶴之功 錄余爲清難勳二等 爲金大來輩所嫉 論啓削之”.

35) 『광해군일기(중초본)』 권26, 광해군 2년 3월 9일(을유).

36)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1월 12일(을사).

37)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21일(계미).

38) 구덕희, 앞의 논문, 1988, p261.

39) 『선조실록』 권159, 선조 36년 2월 21일(무신).

40) 『선조실록』 권161, 선조 36년 4월 17일(계묘).

41) 『선조실록』 권164, 선조 36년 7월 21일(을해).

42) 『선조실록』 권175, 선조 37년 6월 25일(갑진).

이어 홍가신은 한성우윤으로 의금부 당상을 겸하였다. 이때 홍가신은 몇 가지 시안을 놓고 당시 일부 세력들과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례로 黃廷暎과 黃赫 관련된 시안이었다. 황정옥은 1592년 임란 발발 직후 號召使가 되어 順和君과 함께 함경도로 갔었다. 이때 “叛賊” 회령부 아전 鞠景仁에 의해 왕자와 함께 포로가 되어 일본군 진영으로 넘겨졌다. 가토오가 황정옥에게 항복 권유문을 작성토록 하였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자신의 손자와 왕자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는, 황정옥 대신 아들 황혁이 이를 대신 작성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전란의 와중에 처벌이 논란되어, 1596년(선조 29) 8월 황정옥은 “원훈의 舊臣”이므로 放歸田里하고, 황혁은 中道로 量移하도록 처분이 내려졌다.<sup>43)</sup> 이후 황정옥은 1597년 2월에 방면되었으나, 아들 황혁은 그 처분이 유지되었다. 1601년(선조 34) 윤근수 등이 황정옥이 稱臣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등을 주장하며 황정옥의 회복을 요청하였고, 결국 1602년 7월 放逐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대간 등은 황정옥의 죄는 “擧髮難贖”이라며 이를 석방하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sup>44)</sup> 홍가신 역시 황정옥이나 황혁의 석방을 반대하였다. 반대 이유는 “그 죄가 倫紀에 관계”되기 때문이었다.<sup>45)</sup>

황정옥과 황욱의 방면 문제는 마치 당쟁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대개 북인들은 황정옥이나 황혁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북인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선조실록』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다.

정옥은 원수의 뜰에서 절개를 굽혔으니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홍여순은 임진란 초기에 병조 판서의 신분으로서 국사를 그르쳤고 기해·경자 연간에는 조정을 어지럽히고 소란하게 하였으므로 士論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궁중의 인척이었던 관계로 하루아침에 모두 석방되니 중외가 모두 경악하였다.<sup>46)</sup>

43)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10일(을사).

44) 『선조실록』 권163, 선조 36년 6월 29일(갑인).

45)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行狀洪慶臣 撰.

반면 서인 주도로 편찬된 『선조수정실록』에서는,

헌부가 黃廷彥을 放送하려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중략)… 史臣이 ‘임금을 잇고 나라를 저버린 죄가 천지에 사무친다.’고 썼으니 심하지 않은가.<sup>47)</sup>

라 하여 옹호하는 견해였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에 비해 남인들은 정권에서 퇴조를 보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홍가신의 입장을 보면, 대개 남인들은 반대 견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시기 홍가신은 자신의 호를 晩全으로 고쳤다.

처음에 良翁으로 號를 하였는데 갑진(선조 37, 1604) 연간에 이르러 歐陽公의 “일찍 벼슬에서 물러나서 늦은 절개를 온전히 한다.”는 말을 외우며 號를 晩全으로 고쳤다. 매양 朝報를 보고 천정을 우러러 탄식하였고, 보통 때에도 후즐거워하지 않아 능히 물리가 鄉里에 蟄伏하여 있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이때 柳相永慶이 국가의 큰 책임을 맡았는데 공이 매양 말하기를 우리나라 재상의 職御 銘旌을 볼 때 致仕라는 두 자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가위엿치가 없는 일이다.” 하였다.<sup>48)</sup>

이 시기 힘들고 불편한 홍가신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닐까?

홍가신은 1605년(선조 38) 3월 형조판서에 제수되었고,<sup>49)</sup> 곧이어 정2품 上階인 정헌대부에 加資되었다.<sup>50)</sup> 이 시기 홍가신은 특진관으로 경연 자리에 참여하여 전란 후 민생을 위해 恤典 시행을 요청하는 등 전쟁과 재해로 인한

46)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22일(신사).

47) 『선조수정실록』 권36, 선조 35년 8월 6일(을미).

48)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行狀(洪慶臣 撰).

49) 『선조실록』 권185, 선조 38년 3월 12일(병술).

50) 『선조실록』 권185, 선조 38년 3월 14일(무자).

불안한 민심을 진정시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sup>51)</sup>

같은 해 12월 홍가신은 개성 유수로 나아갔다.<sup>52)</sup> 개성 유수로 나아가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宮奴들의 침학 문제를 근절하려고 하였다. 당시 개성을 포함하여 황해도 지역에는 다수의 궁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 궁노의 침학 문제는 개성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었다. “都城은 天日이 비추므로 宮奴가 폐단을 저지르는 것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궁노의 일가나 관련되는 사람의 侵奪이 점점 더 심해져 方伯·守令도 협박하고 모욕을 가하는”<sup>53)</sup> 상황이었다. 이에 홍가신은 榜을 붙여, “宮奴가 장난해도 감히 관가에 고하지 않으면 그 죄로써 죄주겠다.”라 하고 壯丁을 많이 풀어서 전후에 백성들에게 포화하게 구는 자를 잡아 가두고 끝까지 심문하여 죄에 항복한 자는 법으로 처단하였다. 홍가신이 이렇게 하자 宮奴로써 서쪽 길로 나오는 자가 모두 판 길로 돌려 가고 감히 府中을 지나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개성 유수 재직시에는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 착용할 章服 마련이 여의치 않았다. 이때 발을 팔아서 옷을 샀다고 한다. 아울러 중국 사신 접대 마련을 목적으로 경비 마련이 필요하였다. 개성은 조선 건국 이후 중국으로 오가는 중국이나 우리측 사신이 경유하는 주요 지점이었다. 중국 사신이 오면 중앙에서 영접사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사신 접대 등에 필요한 다수의 비용이 있어야만 하였다. 이를 위해 개성부의 낭청, 아마도 경력이나 도사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관원이, “禮單과 銀, 人蔘 등을 전례에 의하여 미리 거두어서 창고에 간직해 둘”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홍가신은 “얼마나 쓰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고 또 이 물건들이 사람을 더럽히기 쉬우니 市民들에게 각각 가지고 있게 하였다가 때에 임해서 취하여 쓰고 관리들은 그 수효만 적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용한 물건을 계산하니 전보다 겨우 1/10에 해당될 정도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 개성 유

51) 『선조실록』 권190, 선조 38년 8월 7일(기유).

52) 『선조실록』 권194, 선조 38년 12월 10일(경술).

53) 『선조실록』 권203, 선조 39년 9월 10일(병자).



수는 1606년 8월 申礪이 이어받았다.<sup>54)</sup> 이 시기 홍가신은 고향인 아산으로 돌아가기를 계획하였다. 畫家에게 陶淵明의 歸去來圖를 그리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湖西에 돌아가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하리라.”고 결심하였다.

### Ⅲ. 落鄉과 致仕

홍가신이 개성 유수로 재직하던 1606년은 선조대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1606년(선조 39) 3월에 대군이 출생하였고,<sup>55)</sup> 이를 계기로 소북 세력인 유영경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세력이 선조의 의중을 살피며 세자인 광해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sup>56)</sup>

이런 상황에서 홍가신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을까? 중앙 정치가 격랑을 겪던 시기 홍가신은 다행스럽게도 개성부에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정치권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홍가신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어떤 입장이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홍가신의 정치적 입장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해서 1607년(선조 40) 봄 공신의 仲朔宴과 국왕에게 올리는 上壽宴에 참석하라는 傳旨를 받고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추론해볼 수 있겠다. 중삭연과 상수연은 유영경과 그 지지세력이 주도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영경과 그 지지세력이 주도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때 홍가신은 이른바 ‘16字疏’라 불리는 笏子를 올렸다.

54) 『선조실록』 권202, 선조 39년 8월 25일(신유). 이는 『송도지』 권6 留守條를 보면, 홍가신의 뒤를 이어 신잡이 유수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홍가신, 『晩全集』 권5, 補遺, 「府使金玄度送公南歸詩 丙午秋, “丙午(1606년, 선조 39-필자주)秋以開城留守淨海南歸”에서도 가을에 돌아왔다고 한다.

55) 『선조실록』 권197, 선조 39년 3월 6일.

56) 이근호, 「선조의 광해군 양위 과정」, 『韓國佛敎史研究』 10, 2016 참고.

“臣이 칠십이 되기까지 겨우 삼년이 남았사오니 국가에 보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이제 조정 반열에 따라 參預하여 술잔을 올려 聖壽를 축하하지 못하오니 다시 어느 때에 이 구구한 충성하기를 원하는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감히 ‘덕을 닦아 스스로 강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기운을 기르며, 어진 이를 친히 여기고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보존하시옵소서’[修德自強 清心養氣 親賢遠佞 畏天保民]라는 16글자로 오늘의 壽筵에 바치나이다.”

홍가신은, 여름에는 상소하여 宋朝 名臣들이 나이가 많아 벼슬을 도로 바친 예에 의하여 특별히 致仕하는 것을 허락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가을에 홍가신이 中風에 걸려 위급하자, 임금이 특별히 궁중에서 쓰는 약을 내어 御醫를 보내서 치료하라고 명했다. 홍가신은 의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감격하여 울기를 마지않았다고 한다. 조금 차도가 있자 筍子를 올려 사례하였다.<sup>57)</sup>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선왕의 遺敎를 받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홍가신은 아산에 머물렀다. 아산에서 생활하던 홍가신이 다시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1608년(광해군 즉위) 5월 대구 부사 鄭經世가 제출한 상소가 문제가 되면서이다. 당시 정경세는 국왕에게 절약과 검소함을 요청하면서, 인사, 특히 이조판서를 제수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음을 지적, 이귀가 논한 ‘戚里의 이름이 이어진다’는 발언을 들어 이를 비판하였다.<sup>58)</sup> 정경세의 상소가 보고되자, 광해군은 先朝를 침범하였다며, 앞으로는 다시는 선조를 침범하는 말이 있는 소장을 들이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정경세가 비난한 것은 鄭昌衍을 이조판서에 제수한 일이었다.<sup>59)</sup> 정창연의 이조판서 제수는 광해군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다. 앞서 유영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조판서 成泳이 유영경 세력이라 탄핵을 받으며 파직되었다. 이

57)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行狀(洪慶臣 撰).

58) 『광해군일기(중초본)』 권4, 광해군 즉위년 5월 2일(정해).

59)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 광해군 즉위년 2월 20일(정축).

는 광해군과 대북 세력이 새롭게 정치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이조판서가 공백이 되자 영의정 李元翼이 李光庭·金晬·李廷龜를 후임에 추천하였으나, 광해군은 가망하라고 하였고 추가로 申欽을 의망하였으나 역시 다시 가망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원익이 金信元·韓孝純과 정창연을 가망하였고, 결국 정창연이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sup>60)</sup> 정창연은 광해군의 왕비 유씨의 외숙이었다.

정경세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광해군 즉위 이후 정치판이 대북 세력 중심으로 편제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였다. 정경세의 상소가 제출되자, 대북의 任堯이 주도적으로 이를 공격하고 나섰다. 임연은 정창연에 의해 銓郎에 발탁된 인물이다.<sup>61)</sup> 이같은 대북 세력의 공격에 대해 尹承勳, 沈喜壽, 李匡福 등은 “천지와 같은 도량으로” 그를 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sup>62)</sup> 이때 홍가신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살피며 취하고 놓는 것을 공정하게 하며 곧은 말을 받아들이고 말하는 자를 용납하라.”는 상소를 올려 정경세를 구원하였다. 심지어 임연에 대해 “아침하고 부회한 죄”라며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물론 여기에 대해 대북계 대간의 논박이 이어졌다. 헌납 임연은 홍가신 등에 대해 “허물을 남에게 씌우고야 말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다.<sup>63)</sup>

1609년(광해군 1)에는 충훈부의 요청으로 녹봉이 지급되었다.<sup>64)</sup> 1610년(광해군 2)에 홍가신은 상소를 제출해 致仕하였다.<sup>65)</sup> 이어 같은 해 겨울에는 승정대부에 加賚되었다.<sup>66)</sup> 승정대부에 가자된 것은, 광해군이 임란 초기 분朝 활동 과정에서 전주를 거쳐 홍주에 이르렀을 때 홍가신이 맞이한 공을 기린 것이었다. 더하여 이 시기 홍가신에게 가자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60) 위와 같음.

61) 『광해군일기(중초본)』 권4, 광해군 즉위년 5월 7일(임진).

62) 『광해군일기(중초본)』 권4, 광해군 즉위년 5월 11일(병신).

63) 『광해군일기(중초본)』 권6, 광해군 즉위년 7월 9일(계사).

64) 『광해군일기(중초본)』 권23, 광해군 1년 12월 27일(갑술).

65) 『광해군일기(중초본)』 권26, 광해군 2년 3월 5일(신사).

66)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行狀洪慶臣 撰.

추적해볼 수 있겠다. 광해군 초 국왕은 특정의 정치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기 보다는 서인과 남인, 대북의 연립 정국을 구상하였다. 이에 대북이나 서인, 남인 등은 자파에 유리한 정치 상황 구축에 주력하였다. 이 중 대북 세력은 己丑獄事 때 被禍者의 신원에 주력하여 1610년 鄭介淸과 李潑에 대해 몰수 재산을 환급하고 직첩을 환급하며 신원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광해군이 흥가신에 대한 가자한 것은 대북 세력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아닐까?

1611년(광해군 3) 3월 鄭仁弘이 이른바 ‘晦暵辭新疏’를 제출하였다.<sup>67)</sup> 정인홍의 회퇴변척은 직접적으로 ‘東方五賢’의 문묘종사에 대한 불만이며, 자신의 스승인 曹植의 학적 정통성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정인홍은 이언적이나 이황의 문묘종사는 부당하며 “유학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소인이 득세하여 군자를 해칠 때 구하지 못하고 같이 행동한 수치”라고 비난하며 한편에서는 조식을 찬양하는 상소를 올렸다.<sup>68)</sup>

정인홍의 회퇴변척소에 대해 정치권이나 전국의 유생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물론 정인홍을 지지하는 상소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때 흥가신은,

“퇴계는 남명의 隱居하고 나오지 않은 것을 병 잡지 않았는데 선비들의 글에 변명한 것을 보니 한결같이 이것을 발명했으니 그 뜻이 괴이하도다. 옛날로부터 숨어 살고 벼슬하지 않은 자가 다만 남명 뿐이 아닌즉 어찌 이것을 가지고 莊子和 老子的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옥이 생각하건대 그 말 구절 속에 조금 그런 氣味가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일 것이다. 子夏의 학문은 흘러 내려가서 물건에 거만하고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학문이 되었으니 대개 근원이 멀면 끝이 더욱 나누이는 것이니 남명의 학문은 진실로 이런 뜻이 없지만 그 未流의 폐단이야 어찌 반드시 없을 것을 보증하리오. 남명도 또한 後生들이 마땅히 景慕할 만한 어진 분이니 선비된 자로서 다만 마땅히 두 선생을 위해서 辨駁할 뿐이오, 남명에게 褻慢한 말을 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sup>69)</sup>

67) 『광해군일기(중초본)』 권39, 광해군 3년 3월 26일(병인).

68) 이기남, 「光海朝 政治勢力의 構造와 變動」, 『북악사론』 2, 1990, 186~187쪽.

69)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行狀洪慶臣 撰.

라고 하였다. 즉 남명의 학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말류의 폐단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퇴계는 남명을 욕하지 않았다면서 남명도 후생이 경모할 만한 인물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정인홍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정인홍을 중심으로 대북 세력이 학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정인홍은 削職되었으나 이후 광해군의 대북 세력에 대한 지지 속에서 홍가신을 비롯한 남인이나 서인의 견제는 무위로 돌아갔다.

#### IV. 사후 추송 사업과 인산서원 배향

홍가신은 치사 이후 1615년에 사망하였다. 이후 그에 대한 추송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망 직후인 1615년(광해군 7) 8월 광해군은 예조정랑 權士恭을 보내 치제문을 내렸다.<sup>70)</sup> 이밖에도 각종의 墓道文字가 작성되었다.

〈표 3〉 홍가신 사후 작성된 묘도문자

문서유형	찬자	제 목	비고
挽詞	李廷龜	挽洪寧原 可臣	
挽詞	李好閔	洪寧原可臣挽	
挽詞	郭堧	洪興道 可臣 寧原君挽詞	
行狀	洪慶臣	行狀	동생
神道碑銘	趙綱	有明朝贈海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 諡政存右議政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傳, 寧原府院君, 贈諡文莊公, 行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 崇政大夫, 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 五衛都總府都府總管, 寧原君, 致仕晚全洪先生神道碑銘	자손록은 채평윤이 추후에 작성한 것임
碑銘	趙綱	洪陽青巖碑銘	
諡狀	李玄逸	諡狀	1691년 4월 15일 작성

挽詞의 경우, 다수 인사가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서 李廷龜

70) 洪可臣, 『晚全集』 권6, 附錄, 致祭文(趙國賓 製進).

와 李好閔, 郭憲이 작성한 것만이 확인된다. 李廷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홍가신을 추념하였다.

큰 명성 아래 온전할 사람 드문 법인데	盛名之下罕能全
공은 유독 팔십 평생 온전히 살다 가셨네	公獨完歸八十年
큰 공적 세우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偉績尙來聊偶耳
높은 반열 스스로 올라도 집은 가난했어라	崇班自致只蕭然
광형의 직언은 온 조정 신하들이 보았고	匡衡直疏傾朝見
소부의 고품은 세상에 드물게 전하느니	疏傳高風曠代傳
일식형주는 원래 선대의 교분 덕택이었지	一識荊州元世分
무덤에 가 곡할 길 없으니 마음이 슬프다오	傷心無路哭新阡 <sup>71)</sup>

만사 작성자 중 한 명인 광열은 홍가신과는 동문으로 민순의 문인이었다.<sup>72)</sup>

만사 이외에도 동생인 洪慶臣이 행장을 찬술하였고, 趙綱이 신도비명을 작성하였다. 조경은 당초 홍가신의 3자인 洪燾에게서 신도비명을 부탁받은 바 있다. 조경이 아산에 있던 시기로, 대략 1645년(인조 23)~1646년(인조 24)경으로 추정된다.<sup>73)</sup> 홍절은 홍가신과 조경이 同榜이고, 조경이 이미 이몽학 난 진압과 관련된 洪陽講碑를 찬술한 바 있기에 홍가신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되어 조경에게 의뢰하였다. 조경은 홍절에게 부탁을 받고 찬술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신도비명이 바로 찬술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홍가신의 손자 洪宇遠이 다시 조경을 만나, 앞선 약속을 상기시키며 찬술을 요청하였고, 결국 조경이 이를 수용해서 행장을 참고하여 신도비명을 찬술하였다. 신도비명 내용 중 자손록은 추후 蔡彭胤이 추가로 작성한 것이었다.<sup>74)</sup>

71) 이정귀, 『월사집』 권18, 倦應錄下, 「挽洪寧原 可臣」.

72) 尹鳳九, 『병계집』 권55, 묘표, 「副護軍贈禮曹判書西浦郭公說墓表」.

73) “大司諫趙綱在牙山”(『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11월 27일(을해)), “吏曹參判趙綱 稱以母病危篤 歸牙山”(『인조실록』 권47, 인조 24년 5월 7일(임자)).

74) 洪可臣, 『晩全集』 권6, 附錄, 「有明朝旌國贈大巨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諡狀은 이현일이 1691년(숙종 17) 4월에 작성한 것이다. 홍가신의 증손자 홍뉘이 조정에 시호를 청하고자, 아들 홍유범을 시켜 이현일에게 의뢰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현일도 홍가신 가문과 世交가 있고 “공의 착한 덕과 행의를 공경하고 사모하였”기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시장을 작성하였다.<sup>75)</sup> 이렇게 작성된 시장은 예조에 제출되고, 논의를 거쳐 1693년 1월 홍가신에게 ‘文莊’이란 시호가 내려졌다.<sup>76)</sup>

묘도문자의 찬술과 함께 후손들에 의해서 추송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문집 편찬이었다.<sup>77)</sup> 홍가신의 시문은 사후 많이 유실되었는데, 후손 洪宇遠(1605~1687)이 그나마 남은 家藏 草稿를 蒐集, 編次하여 定稿本을 만들었다. 홍우원이 주도한 정고본은 上疏 8편, 筭 7편, 記 3편, 後敘 1편, 祭文 6편, 碑銘 2편, 書 1편, 說 1편, 記夢 1편, 詩 172수, 鄉校社稷厲祭儀式 등이었다. 정고본의 서문은 1666년(현종 7) 許穆이 찬술하였다. 그러나 정고본은 간행되지 않았다.

홍우원이 주도한 정고본은 洪游敬이 증보하여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조경이 찬술한 神道碑銘, 이현일이 찬술한 諡狀 등을 비롯해 채팽운이 작성한 자손록이 추가되었다. 증보된 시기는 대략 1730년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활자본에는 홍유경의 識文이 수록되었다. 이때 현재 『만전집』에 수록된 허목의 서문과 다른 서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성호 이익이 찬술한 「晚全堂洪先生文集序」<sup>78)</sup>로, 이익은 서문에서 “지금 遺稿 1권을 보고서 오히려 선생의 일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활자본에는 이익의 서

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寧原府院君贈諡文莊公行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崇政大夫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尉府都總管寧原君致仕晚全洪先生神道碑銘(趙綱 撰).

75) 洪可臣, 『晚全集』 권6, 附錄, 諡狀(李玄逸 撰).

76) 『숙종실록』 권25, 숙종 19년 1월 2일(병오).

77) 『만전집』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정필용, 「해계(만전집)」(<https://db.itkc.or.kr>)를 참고하였다.

78) 李瀼, 『성호전집』 권50, 서, 「晚全堂洪先生文集序」.

문이 수록되지는 않았다.<sup>79)</sup>

홍가신 사후 추송의 일환으로 서원에 배향되었다. 아산의 仁山書院은 그 중 하나이다. 인산서원은 당초 五賢書院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서원이다. 오현서원은 1610년(광해군 2)에 건립된 것으로,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이다.<sup>80)</sup> 기록에 따르면, 서원 건립에 앞서 여러 차례 아산 지역 사족들이 오현의 문묘 종사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sup>81)</sup> 이에 아산 지역 사족들이 私的으로 오현을 모시는 서원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sup>82)</sup> 오현의 문묘 종사가 결정된 뒤에도 그대로 서원이 유지되었다.

아산의 오현서원은, 오현의 문묘 종사가 결정된 이후 세워진 최초의 서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1584년(선조 17)에 세워진 나주의 景賢書院에서 오현을 제향하였다. 그런데 문묘 종사 직후에 처음 세워진 서원은 아산의 오현서원이다. 아산의 오현서원이 누구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산 지역에 세거하는 사족에 대한 구체적인 규

79)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晩全先生遺集』(乾)(위창古3648-93-1)과 『晩全先生文集』(古3648-93-55-1) 2종의 판본이 확인된다. 『만전선생유집』은 乾冊 1책으로, 필사본이다. 허목이 찬술한 서문을 수록하였으며, 후일 활자본 『만전집』 권4에 수록된 「應求言封事」가 마지막에 수록되었다. 이밖에도 坤冊 등이 추가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만전선생문집』은 활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권5~6은 활자본을 필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 「홍양청난비각중수상량문」(기묘 사월)과 「「홍양청난비각중건기」(기묘 사월)이 수록되었다. 후손이 필사하여 전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선후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80) 조현, 『포저집』 권29, 축문, 「牙山五賢書院祝文」.

81) 아산 지역 사족들의 5현의 문묘 종사 청원과 관련해서 1610년(광해군 2) 3월 성균관 생원 朴知警 등의 청원이 주목된다(『광해군일기』 권24, 광해 2년 1월 17일(갑오)). 박지경이 아산에 세거하던 朴知誠의 형이라는 사실로 놓고 볼 때 아산 지역 사족의 청원과 관련된 것이라고도 이해해볼 수 있다.

82) 『신정아주지』 학교, 인산서원, “我朝五賢 未從祀時 縣中多士屢陳從祀疏 竟未蒙允 多士私自議建書院 以祀之 逮光海時 五賢從祀文廟 後仍存不廢”.



명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일단은 나주의 경현서원 사례를 통해서 그 상황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경현서원은 1584년 나주 목사 김성일과 나주나씨 가문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이후 1587년 김성일의 후임으로 任允臣이 부임하고, 그의 지원아래 김굉필 등 5현을 제향하게 되었다. 건립 이후 5현을 제향하기까지 경현서원의 운영은 나주나씨가 중심이 된 동인계 세력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김성일, 임운신 등 동인계 지방관의 후원이 있었다.<sup>83)</sup> 경현서원의 사례는 아산 지역 오현서원의 설립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아산 지역에도 홍가신과 같이 남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기반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서원 건립 당시 아산 현감은 李如圭인데, 이여규는 李德馨의 아들로 역시 당색은 남인계이다. 즉 남인계 지방관이 재임하고 있었고, 홍가신과 같은 인물들이 세거하는 상황에서 오현서원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오현서원의 초기 건립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산 지역 세거 사족들의 성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5현의 문묘 중사에 대해 유생들의 공론이 확산되고, 왕명으로 결정되면서 이들 5현이 갖는 학문적, 정치적 위상은 적지 않았다. 오현서원의 설립은, 오현이 아산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지역 사족들은 이들의 권위에 의탁해 향촌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서원에 배향되는 인물은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붕당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연고가 없는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이 건립되었다. 김장생은,

“牙山과 羅州에는 五賢의 서원이 있고 春川에 또한 退溪의 서원이 있으며, 星州에는 伊川과 朱子の 서원이 있고 公州에 또한 주자의 서원을 세웠으나, 사람들의 이의가 없었네. 정자와 주자와 퇴계 또한 한 번이라도 이 여러 고을을 노닌 적이 있었던가?”<sup>84)</sup>

83) 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2007, 67~69쪽.

라고 한 바 있다. 김장생은 오현서원과 경현서원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서원 건립의 변화상을 반영한 발언이다. 즉 서원은 애초 儒賢 제향과 함께 사림의 藏修를 위해 건립하였으나, 17세기 중반 이후 성격이 변모하면서 건립 주체나 제향 인물의 변화가 나타났다.<sup>85)</sup> 아산의 오현서원은 그러한 변화의 초기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오현서원에는 이후 아산과 연고가 있는 인물들이 追享되었다. 홍가신과 함께 奇遵, 李之菴, 李德敏, 朴知誠 등 아산에 살았거나 유배를 왔었던 인물들을 추향하였다.<sup>86)</sup> 홍가신 등의 추향은 해당 인물의 후손들이 아산 지역의 사족 사회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남양홍씨 홍가신 가계의 경우, 홍가신이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 대곡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 후손들이 아산에 세거하였으며, 지역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7세기 후반 오현서원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693년(숙종 18) 현감 尹弼殷이 “간사한 사람”의 사주를 받아, 제향된 오현이 아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원을 훼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87)</sup> 물론 이 일은 현감의 의지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간사한 사람”이란 “서원에 출입하던 세력과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88)</sup> 윤필은 등의 훼손 시도를 저지한 인물

84) 김장생, 『사계전서』 권3, 書, 「答李士深」.

85)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참조.

86) 인산서원과 관련해서, 이해준, 「조선후기」, 『아산시지1』, 2016을 참고하였다. 단, 해당 연구에서는 『증보문헌비고』에 근거하여, 1619년에 홍가신, 1668년에 기준, 이지함, 이덕민, 박지계 등이 추향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재검토가 필요해보인다. 『서원등록』의 1669년(현종 10) 4월 11일 기사를 보면, 오현서원에 대해 사액을 요청한 문서에서 5현 이외에 추가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서원등록』 1682년(숙종 8) 3월 15일 기사에서는 홍가신, 박지계, 이덕민, 기준, 이지함을 거론하며 사액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홍가신 등의 추향은 1669년과 168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홍가신 등의 추향 시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보인다.

87) 『신정아주지』 학교, 인산서원, “康熙癸酉 知縣 尹弼殷 聽奸佞人陰族 以爲五賢非此地人 書院不當設於此地 欲毀之”.

이, 洪기로, 홍기가 윤필은에게 글을 보내, 韓철을 저지하였다. 홍기는 홍가신의 증손(홍가신→홍비→홍우기→홍기)으로, 韓철을 주도적으로 막고 있었다. 이는 홍기를 비롯한 남양홍씨가 아산 지역 사회에서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89)</sup>

## V. 맺음말

이상에서 홍가신의 임란 이후 활동을 추적하고, 더하여 사후 추송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임란 이후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남인 홍가신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홍주도역공신’ 녹훈 대상자 일부가 당시 정국 주도 세력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제외되었다. 홍가신은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임란 이후 홍가신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로 해주 목사나 개성 유수와 같은 관직에 있을 때이다. 중앙에서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당대 정국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홍가신은 대북 세력이나 유영경과 그 지지 세력에게 정치 원칙을 내세우며 견제하였으나, 당대에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비록 연로하고 勳臣이라는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대 정국 상황으로 인해 홍가신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한편 사후에는 국왕이 치제문을 내리거나 유명 인사들이 묘도문자 찬술을 통해서 그를 추송하였다. 또한 문집 편찬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런 추송 사업의 일환에서 아산 지역의 오현서원(후에 인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조선 사회에서 오현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본다면 홍가신과 그 후손들에게는 의미있는 추송 과정이라 하겠다.

88) 이해준, 앞의 글, 2016, 718쪽.

89) 오현서원은 1763년(영조 39)까지도 사액이 내려지지 않았다(『列邑院宇事蹟』 9책, 「忠淸道牙山縣書院事蹟中疏漏者考實成冊」).

【참고문헌】

-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광해군일기[중초본]』, 『숙종실록』  
『송도지』, 『신정아주지』, 『해주읍지』, 『列邑院宇事蹟』  
『晩全集』, 『白沙集』, 『碧嶽遺稿』, 『屏溪集』, 『沙溪全書』, 『惺所覆瓿藁』, 『星湖全集』,  
『松谷集』, 『藥泉集』, 『月沙集』
- 구덕희, 「선조대 후반(1594~1608)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1988
- 김기승, 「홍가신의 사상과 활동」, 『조선중기 홍가신·허목의 사상과 학문』, 수원화  
성박물관, 2012
- 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2007
- 이근호, 「조선 후기 功臣 錄勳의 정치적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99, 2012
- 이근호, 「선조의 광해군 양위 과정」, 『韓國佛敎史研究』 10, 2016
- 이근호, 「인조 말~숙종 초 洪宇遠의 정치 활동」, 『한국사학보』 67, 2017
- 이기남, 「光海朝 政治勢力의 構造와 變動」, 『북악사론』 2, 1990
- 이정일, 「임란시의 공신책훈고」, 『울산사학』 3, 1990
- 이해준, 「조선후기」, 『아산시지1』, 2016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정필용, 「해제(만전집)」(<https://db.itkc.or.kr>)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Abstract

## A Study on Hong Gasin' s activities and Insanseowon Shrined after Imjin War

Lee, Geun-ho\*

This paper puts an in-depth study on Hong Gasin's activities after the Imjin War and the projects implemented to honor him after his death. With the Bukin leading the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Imjin War, Hong Gasin was forced to have limited activities because he belonged to the Namin. He did not raise any particular objection when some of the meritorious subjects honored contributors selected by Seoin and Namin who were in solidarity were raised a problem and eventually excluded by the political leadership.

Hong Gasin's activities were remarkably revealed when he held a state position such as Hyeju Moksa and Gaeseong Yusoo.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pecific political maneuvering in the central office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However, Hong Gasin had activities related to making a diversion regarding Daebok and Yuyeonggyeong and their supporters

Although he was a statesman of merit later in his life, he was constrained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ime. On the other hand, he was honored by the king, who bestowed a sacrificial writing and a compiled gravestone inscription by leading figures. His anthology publishing was continued, and the Ohhyeonseowon(renamed as Insanseowon later) in the Asan region was shrined in terms of worship movement. Considering the political symbolism of

---

\* Assistant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ekh1117@cnu.ac.kr

Ohhyeon, it was a meaningful honoring process for Hong Ga-sin and his descendants.

Key word : Hong Gasin, Ohhyeonseowon, Insanseowon, the meritorious subjects, Asan

논문 투고일: 2022. 11. 26 심사 완료일: 2022. 12. 15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영주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건립과 퇴계 이황 제향의 의미

김 의 환\*

- I. 머리말
- II. 伊山書院의 건립 과정과 院規 제정
- III. 李滉의 제향·사액 및 이후 서원 건립의 양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영주(榮州) 사족들은 일찍부터 학문적 열의가 높아 매년 醫局(濟民樓)을 잠시 빌려 함께 공부하였다. 이때 지역 사족들과 李滉·李滢 형제도 함께 참여하여 서로 교유하였다. 제민루에서 강학은 여러 면에서 불편하여 안정적 공간 확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이들은 명종 13년(1558) 군수 安璫의 지원 아래 이산면 변천 고개(樊峴)에 32칸의 이산서원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朴承任·張壽禧 등 이황의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이때 이황은 서원의 건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지도하였다. 그는 '爲己之學'의 이념에 따라 강당은 敬止堂, 동재와 서재는 誠正齋와 進修齋, 누대는 觀物臺라고 이름을 짓고 편액까지 써 주었다.

이황은 건립 당시 제향 인물이 없더라도 서원의 규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書院'으로 할 것을 자문하였다. 서원 이름은 '山伊村'이라는 지명과 '志伊學顏'의 의미를 더하여 '伊山書院'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황에게 「伊山書院記」와 「伊山院規」를 받아 서원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원규는 영남 남인계의 서원은 물론 일부 서인에게 서원의 원규 제

\* 충북대학교 교양교육본부 교수 / euisan69@naver.com

정에 典範이 되었다.

영주 사족들은 선조 6년(1573) 서원에 이황을 제향하였다. 이 서원은 이제 새 형태의 서원에서 벗어나 道學者를 제향한 서원으로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이는 최초로 이황을 제향(사액)한 서원이라는 점과 함께, 처음으로 공자-주자-정몽주-이황으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道學的 正統을 확립한 의미가 있었다.

이산서원은 선조 6년(1573) 11월 '伊山'이라는 사액을 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광해군 7년(1615)에는 수구리(林丘)에 이건되었다. 그리고 이 서원에서는 이황의 「聖學十圖」와 「戊辰封事」가 간행되었고, 『嘯臯集』과 『榮州誌』 등이 편찬되었다.

이산서원의 건립·사액은 이후 새로운 서원을 건립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후 이 서원의 건립·제향 등을 주도한 인물을 제향하는 鄉賢祠(龜江書院)가 세워졌고, 다시 이황을 제향한 郁陽書院이 세워지는 등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 지역의 서원은 壯巖書院(1691)을 제외하고 모두 남인계 성향을 고수하였다.

주제어 : 영주(榮川), 이산서원, 이황, 위기지학(爲己之學), 이산원규, 이산서원기, 박승임, 경지당

## I. 머리말

경북 영주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浮石寺와 紹修書院(白雲洞書院)이다. 부석사는 신라 의상대사가 세운 불교 사찰이며,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되고 사액된 서원이다. 이 가운데 소수서원은 '선비의 고장'을 내세우는 영주시의 대표적 역사문화 유적지이다.

이러한 서원은 강학과 제향을 목적으로 건립된 공간이다. 서원은 종종 38년(1543) 풍기군수 周世鵬이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을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원은 처음 祠廟에서 출발하여 講學을 위한 강당이 건립되면서 사람들의 藏修處로서 기능을 담당하였다.<sup>1)</sup>



이러한 서원은 退溪 李滉이 그 전형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황과 그의 문인들은 안동과 영주 등 인근 지역은 물론 지방관에 부임하여 도학자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였다.<sup>2)</sup> 서원은 조선후기 붕당정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학파의 學統 확립과 붕당의 정치적 명분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 강조되었고, 그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sup>3)</sup>

영주지역(榮川·豊基·順興)<sup>4)</sup>에는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많은 서원들이 건립되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서원 연구는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여러 주제가 검토되었다. 이 서원은 최초로 건립·사액된 서원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소수서원 연구는 서원의 건립과 사액 과정은 물론 경제적 기반<sup>5)</sup>, 원장과 원생의 구성 및 원생의 入院 자격을 둘러싼 논란<sup>6)</sup>, 제향된 인물의 성격<sup>7)</sup>, 서원의 居齋와 講學 등 교

- 1) 정만조, 「朝鮮書院의 成立過程－중종년간 士林을 위한 敎學進興策과 관련하여」, 『한국사론』 8, 1980; 윤희면, 「白雲洞 書院의 설립과 豊基 士林」, 『진단학보』 49, 1980; 이병훈,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한국서원학보』 10, 2020.
- 2)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 그의 敎化論과 관련하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일조각, 1981; 조준호, 「퇴계 이황의 서원 건립 활동과 서원문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2, 2006;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 활동」, 『국학연구』 18, 2011;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8, 2019; 채광수, 「퇴계 문인의 서원 보급 활동」, 『민족문화논총』 73, 2019.
- 3)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정치·사회적 역할-사립활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한국사학』 10, 1989; 설석규, 「肅宗朝 院宇動向과 朋黨의 사회적 기반」, 『국사관논총』 34, 1992; 이광우,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2021.
- 4) 오늘날 영주시는 조선시대에는 榮川郡·順興府·豊基郡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 글에서는 이 3개 군현을 합쳐 영주지역으로 통칭하며, 이산서원이 위치한 한곳을 지칭할 때에는 영천군·풍기군 등으로 표기한다.
- 5) 이수환,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민족문화논총』 2·3합집, 1982;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김영나, 「17~18세기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과 가족」, 『영남학』 73, 2020.
- 6) 윤희면, 「소수서원 罷格논쟁」, 『이기백선생 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1994; 이수환, 「서원의 인적 구성과 운영－원임·원생을 중심으로」, 『朝鮮後期 書院研究』,

육과 향사례<sup>8)</sup>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소수서원 연구 외에 영주지역의 서원을 검토한 사례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에 義山書院의 사례를 검토한 글이 하나 있지만<sup>9)</sup>, 아직 이 분야 연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엇보다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다. 영주 紹修書院, 안동 陶山書院, 경주 玉山書院, 상주 道南書院 등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원들은 비교적 자료를 잘 보존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황을 제향한 伊山書院을 비롯한 영주지역의 서원들은 한국전쟁 등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이산서원은 영천군에서 최초로 건립·사액된 서원이며, 영주지역 전체에서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사액된 서원이지만, 지금까지 연구가 전혀 없었다. 최근에 『伊山書院誌』<sup>10)</sup>가 발간됨으로써 새로운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서원지는 이산서원에 소장되었던 「伊山入院錄」·「入格錄」·「有司案」·「敬止堂原任案」·「居齋錄」 등 고문서를 비롯하여, 서원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개인 문집 등 여러 자료들을 수집한 것이다.

특히 이 서원은 이황의 「伊山院規」 제정 이후 영남의 남인계 서원들 뿐만 아니라 일부 서인계 서원의 院規(學規) 제정에 典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11)</sup> 이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모두 서원의 원규와 운영을

일조각, 2001; 송정숙, 「『소수서원 入院錄』 분석-16·17세기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34, 2006; 송정숙,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16·17세기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38, 2007.

7) 정만조·지두환·김의환, 「소수서원」, 『한국의 서원유산』 1, 한국서원연합회, 2014.

8) 한재훈, 「퇴계의 서원향사례 정초에 대한 고찰-백운동서원 향사례 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김자운,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58, 2014; 김자운,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공적 기반 변화와 그 대응-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2015.

9) 김의환, 「영주의 서원 현황과 義山書院의 건립」, 『역사와 실학』 36, 2008.

10) 이산서원복설추진위원회, 『伊山書院誌』, 흥익문화사, 2010.

11) 정만조, 앞의 논문, 1981; 이수환, 「道東書院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

연구하면서 이같은 이 서원의 의미를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산서원은 이황이 생전에 서원의 건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적극 자문하였고, 나아가 서원 원규와 서원기를 지어 서원 교육의 이념과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구나 이 서원은 이황 사후 전국에서 최초로 그를 제향하고 사액된 서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공자·주자·정몽주·이황으로 이어지는 道統을 처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이 서원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글이 없다. 이 때문에 이 서원의 건립과 제향 및 사액 시기 등 기초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산서원 연구의 첫 단계로써 서원의 건립 과정을 실증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산서원의 건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건립 과정에서 이황의 역할과 원규 제정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황을 제향하고 사액 받는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 건 과정과 이 서원 건립 이후 영주지역에는 어떤 서원들이 건립되었는지 지역 사족사회의 영향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 서원의 건립에 참여한 인물들의 성격은 물론, 16~17세기 영주 사족사회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영주지역에서 퇴계 이황의 학풍이 어떻게 계승되었으며, 지역의 다른 서원들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본적 사항들이 파악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서원의 운영 주체인 원장(유사)과 원생의 구성 및 동향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

학연구』 60, 2000; 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2018;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2019;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 경향 - 16세기~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3, 2021; 이광우,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 서원의 변모양상」, 『한국서원학보』 14, 2022.

## II. 伊山書院의 건립 과정과 院規 제정

조선시대 榮州지역(榮川·順興·豐基)에는 일찍부터 많은 성씨들이 土姓이거나 또는 새로이 입향하여 정착하면서 사족 지배사회를 형성하였다.<sup>12)</sup> 창원 황씨·예안 김씨·안동 권씨·풍산 김씨·순흥 안씨·우계 이씨·영양 남씨·무안 박씨·반남 박씨 등 사족들은 이곳에 세거하면서 많은 생원과 진사 및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sup>13)</sup>

이들은 일찍부터 留鄉所(鄉序堂)<sup>14)</sup>를 설치하여 향촌사회를 지배하려고 하였고, 鄉約의 실시와 함께 鄉校에 출입하거나 書院을 건립하여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특히 이들은 향촌사회의 公論에 따라 서원을 건립하여 운영하였고, 조선 후기 종법의 정착에 따라 동쪽마을을 형성하면서 문중 서원도 함께 건립하였다.

이러한 영주지역에서 최초로 건립된 것은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이다. 풍기 군수 周世鵬은 중종 37년(1542) 먼저 安珣(1243~1306)을 제향할 晦庵祠를 건립하고, 다음해인 38년(1543) 사묘 앞에 강당을 세워 서원을 건립하였다.<sup>15)</sup> 당시 공신계 관료 行副司果 魚得江은 지방 유생의 교학을 진흥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은 大儒에 의한 講學의 성행은 지적하고 精舍와 書院을 소개하면서 각 도마다 큰 사찰을 지정하여 함께 공부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6)</sup>

12) 김의환, 앞의 논문, 2008, 50~52쪽.

13) 영주지역에서는 모두 508명(영천 286명, 순흥 132명, 풍기 90명)의 생원·진사가 배출되었다. 이는 당시 행정구역이 넓은 다른 군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김의환, 「영주지역 생원·진사 입격자와 사회적 지위」, 『국학연구』 35, 2018, 380~381쪽).

14) 『榮州誌』 奉香里 濟民樓·鄉序堂(취사본). 향서당은 좌수의 집무실이며, 읍내 世族의 姓名錄(향안)을 보관하여 고을의 기강을 세우고 백성의 풍속을 바르게 하는 곳이다(鄭經世, 『愚伏集』 권15, 尙州隴陽射堂題名錄序).

15)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건립 과정과 제향 인물은 다음을 참고하였다(정만조, 앞의 논문, 1980; 윤희면, 앞의 논문, 1980; 정만조·지두환·김의환, 앞의 논문, 2014).

이것은 과거 공부와 인재 선발을 위주로 한 관학파의 흥학책이며, 爲己之學을 내세운 사림파의 흥학책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sup>17)</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건립하면서 이 지역에 처음 서원이 건립되었다.

그런데, 백운동서원이 건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영주지역에는 사족들의 학문적 열망이 매우 높았다. 사족들은 매년 적당한 장소를 찾아 유교 경전과 소학 등을 공부하는 居接을 실시하였다. 이때 이들은 함께 공부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였다.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읍내에 위치한 醫局이었다. 이들은 이곳 의국에 모여 해마다 여름철에 함께 학문을 닦았다.

이 의국은 鄉序堂의 서쪽 아래 西大川에 접해 있었는데, 內醫院에 진상할 약재를 건조하고 저장하는 곳이다.<sup>18)</sup> 의국은 태종 18년(1818) 榮川郡守 李允商이 龜城 남쪽에 3칸의 건물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세종 15년(1433)에는 군수 潘渚가 부임하여 공민왕 20년(1371) 河崙이 건립한 鄉校를 중수하는 한편, 기존의 공간이 좁다고 생각하여 새로이 濟民樓를 건립함으로써 의국과 학교를 겸하도록 하였다.

세조 14년(1468) 군수 鄭從韶는 제민루의 서쪽에 4칸을 덧붙여 모두 7칸으로 증축한 후 鄉序堂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때 제민루는 의국보다 영주 사족들의 공부 장소 및 향음주례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sup>19)</sup> 선조 24년(1591)

16) 『中宗實錄』 권98, 中宗 37년 7월 乙亥.

17) 정만조, 앞의 논문, 1981.

18) 의국은 『신증국여지승람』에 濟民樓(醫學樓)로 기록되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25, 慶尙道, 榮川郡, 樓亭). 이것은 龜山(龜城) 남쪽에 있어 『龜院』이라고도 하였다.

19) 영주문화원, 『濟民樓志』, 濟民樓記·成化戊子烏川鄭從韶記; 『榮州誌』, 奉香里, 醫院(취사본). 필사본 『榮州誌』는 3가지 종류가 있다. 炊沙 李汝積(1556~1631)이 인조 3년(1625)에 편찬한 취사본, 鶴沙 金應祖(1587~1667)가 인조 24년(1646) 전후에 편찬한 학사본, 그리고 이산서원에서 괴헌고택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 괴헌고택본(취사이본)이 있다(정상홍, 『『榮州三邑誌』 해제』, 『국역 榮州三邑誌』, 소수박물관, 2012). 괴헌은 박승임의 맏형 朴承文(1503~1548)을 말한다.

군수 李大震은 제민루의 북쪽에 큰 건물을 다시 건축하여 醫局으로 삼고, 유향소의 座首가 都監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제민루는 16세기 당시 중앙에 진상할 약재를 마련하는 의국인 동시에 사족 자제들이 공부하는 학교였으며, 영주 사족들의 향서당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sup>20)</sup>

영주지역 사족의 자제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던 醫局(濟民樓)에는 인근 지역 근현의 인물들도 참여하였다. 退溪 李滉(1501~1570)은 이때 형인 溫溪 李瀾(1496~1550)와 全應房(1493~1556) 등과 함께 이곳에 참여하여 함께 공부하였다.<sup>21)</sup> 이를 계기로 이황 형제는 영주지역 사족들과 인연을 맺어 교류하면서 이후 이 지역에 학문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sup>22)</sup>

이황은 중종 18년(1523) 약관의 나이에 제민루를 방문하여 함께 小學을 강독하였다고 한다. 이때 上습를 맡은 朴承健(1506~?)<sup>23)</sup>은 이황의 언행과 행동거지를 보고 자신이 읽은 소학의 내용과 합치되는 점을 눈여겨보고 그를 칭

20) 김호, 「16~17세기 조선의 지방 醫局 운영-경북 영주의 濟民樓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7, 2018.

21) 『同苦錄』. 全應房(옥천)은 柳成龍의 고모부이며, 石門精舍에서 사족들과 교류하였다. 이황(진성)과 그의 형 李瀾는 모두 영주에 세거하는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 이해는 영주 이산면 원암리(머뎀)에 거주한 金復興(연안)의 사위가 되었고, 이황은 영주 조암동 사일(草谷·푸실)에 거주한 허찬의 딸이자 滄溪 文敬소(1457~1521)(남평)의 외손녀인 김해 허씨와 중종 16년(1521) 혼인하여 한때 이곳에 살았다(『榮州誌』 奉香里 文科(취사본)). 이해는 이산면 두암리(말암)에 우거하였고, 후에 三峯書院(1650 건립, 김이음·이해·김개국·김룡)에 제향되었다. 그의 아들 이교는 원암에 이거하였고, 후손은 이산면 지동리(이곡)에 거주하였다. 이황의 前夫人 김해 허씨는 21세에 이황과 혼인하여 28세에 죽어 이산면 사금리(된바위)에 묻혔다.

22) 이황의 손자 李安道가 선조 33년(1600) 편찬한 『퇴계집』에 보이는 이황과 '知舊' 사이인 영주지역 인물은 朴承任(영천)·安瑞(영천군수)·金慶言(풍기군수)·黃遂良(풍기)이다(배병권, 『『퇴계집』 편지를 통해 본 이황의 지인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8, 2021, 112~113 <표 2>).

23) 朴承健(반남)은 朴珩의 2남이고, 忍庵 朴承侃(1508~1588)과 嘯臺 朴承任(1517~1586)의 형이다. 그는 중종 38년(1543) 생원이 된 후 찰방을 지냈으며, 후에 순흥에 이거하였다고 한다.

찬하였다고 한다.<sup>24)</sup>

이러한 영주지역 사족들의 공부는 훗날 伊山書院을 건립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산서원의 건립 과정은 이황의 『伊山書院記』에 잘 나타나 있다. 이황은 훗날 이산서원 건립 때 이를 자문하면서 젊은 날에 자신이 의국(제민루)에서 경험한 것을 회고하여 『伊山書院記』와 『伊山院規』를 지었다. 그는 여기에서 당시 영주지역 사족들의 학문하는 열의와 함께 공부할 공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榮郡(榮川郡)은小白山 남쪽에 자리한다. 땅은 신령한 기운이 넘치고 풍광은 아름다워 많은 인재들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불린다. 이곳의 풍속은 文藝를 숭상하고, 또 함께 기거하면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니, 이를 '居接'이라 한다. 온 고을의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었으며, 또한 다른 지방에서 책 상자를 지고 배우러 오는 자들도 많았지만 싫어하지 않았다. 모두 관청이 조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거의 매년 빠뜨리지 않았으니, 이렇게 한 것이 오래 되었다. 이전에는 몇 섬의 곡식을 가지고 우수한 선비를 양성하였으나, 正德 연간(1506~1521)에 군수 李沆이 전담할 관리를 두고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았다. 아마도 정성을 다하여 인재를 양성하려는 뜻은 다른 군현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다만 館舍(學舍)를 짓지 않아 매년 모일 때마다 고을의 醫院을 임시로 빌려 사용하여 잠깐 모였다가 곧 헤어졌으니, 이것이 더할 수 없이 아쉬운 점이 되었다.<sup>25)</sup>

이러한 영주지역 사족들의 학문하는 자세와 열의는 嘯臯 朴承任(1517~

24) 李滉, 『退溪全書』 권42 伊山書院記, 柳成龍, 『鶴峯集續集』 권5, 退溪先生言行錄, 영주문화원, 『濟民樓志』, 1996. 박승임은 이산서원이 건립되기 3년 전인 명종 10년(1555)에 벼슬하던 임지에서 제민루에 물품과 시를 보내기도 하였다(『嘯臯先生續集』 嘯臯先生年譜).

25) 李滉, 『退溪全書』 권42, 伊山書院記, “榮郡據小白之南 地靈而風美 號稱人才之淵藪 其俗尙文藝 尤好爲羣居肆業 名之曰居接 一境之土咸萃焉 亦有自他方負笈而來者 雖多不厭 皆官措供給 殆無闕歲 其來尙矣 舊有穀若干石 以養秀士 乃正德年間 郡守李侯沆所置 差入典守 久而不替 蓋拳拳乎樂育之意 非他郡所及 而顧未有館舍之作 每一聚會 卽假谷於郡之醫院 旋會旋罷 斯爲未盡善也.”

1586)<sup>26)</sup>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박승임은 선조 10년(1577) 영천군수 李希得이 榮州癉校를 중수할 때 지은 중수기(1580)에서 다음과 같이 영주 사족들의 儒風을 언급하였다. 영주의 습속은 유순하고 어질며, 땅에는 사족의 가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으며, 머리를 늘어뜨린 어린 후생들은 모두 독서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고 하였다.<sup>27)</sup> 이러한 이 지역 사족들의 향학열은 이곳에 처음 백운동서원이 건립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영주지역 사족의 자제들은 당시 공부할 마땅한 곳이 없어 읍내에서 가까운 醫局(濟民樓)을 잠시 빌려 공부하였다. 여기에는 고을의 사족 뿐만 아니라 안동 등 인근 근현의 인물들도 함께 참여하였고, 居接하는 비용은 연산군 10년(1504) 榮川郡守에 부임한 李沆(1474~1533)이 중종 4년(1509)부터 미 10石과 콩 5石을 지원해 주었다. 중종 18년(1523)에는 40석의 모곡을 운영하였다.<sup>28)</sup> 이제 사족들은 공부할 공간의 마련과 함께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한층 안정적으로 학문할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주지역 사족들은 공부할 장소의 마련과 재정의 안정적 지원에도 여전히 공부에 적합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왜냐하면 醫局(濟民樓)은 장소가 협소한데다가 원래 내의원에 진상할 약재를 말리고 보관하는

26) 朴承任(반남)은 朴珩의 6남이고, 박승건·박승간의 동생이며, 이황의 문인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한 후 풍기군수·황해도 관찰사·도승지·대사간·창원부사 등을 지냈으며, 중종 39년(1544) 이황·유희춘·김인후·노수신 등 26명과 함께 호당에서 사가독서하였다. 그는 16세기 영주지역에서 '嘯臯學團'을 형성할 정도로 52명의 문인을 배출하였다(김학수, 「박승임의 학문적 지향과 16세기 영주지역의 '集團知性」 『영남학』 70, 2018). 그의 문인 가운데 金功·權斗文·金蓋國·裴應裴·李汝龍·金允安·黃曙·金天英 등 8명은 문과에 급제하였고, 金農·南夢鰲·李介立·宋福基·任屹·金允欽·朴灑 등 15명은 사마시에 합격하였다(김의환, 「경주이씨 菊堂公派의 영주 정착과 향촌사회 활동」, 『한국학논총』 37, 2012, 332~333쪽 <표 1>). 그는 풍기 紹修書院, 성주 迎鳳書院(川谷書院), 예안 陶山書院, 예천 鼎山書院, 여주 沂川書院, 함양 濼溪書院의 건립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고, 후에 영주 龜江書院(鄉賢祠, 1615, 김담·박승임·김륵·김영조)에 제향되었다.

27) 『榮州誌』 癉校, 萬曆八年庚辰秋嘯臯朴承任重修記(고천고택본).

28) 김호, 앞의 논문, 2018, 402쪽.



장소였기 때문에 공부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더구나 매번 유향소 죄수의 허락과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였고, 잠시 공간을 빌려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편함이 매우 컸다. 이 때문에 이들은 항구적으로 공부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學廬(書齋)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榮川郡의 학사 건립은 명종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명종 9년(1554) 겨울 安珣의 후손인 安璫(순흥)이 영천군수에 부임하면서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sup>29)</sup> 당시 인근 豊基郡에는 이미 白雲洞書院이 건립되어 명종 5년(1550)에 紹修書院으로 사액되었지만, 아직 영천군에는 사족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장소가 없었다. 이에 이 지역 사족의 일부는 퇴계 이황에게 나아가 학문을 수학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소수서원의 건립과 사액에 자극을 받아, 더욱 학사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서원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학사를 건축하려면, 무엇보다 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중요하였다.<sup>30)</sup> 영주지역 사족들은 향중의 명망 있는 인사를 찾아가 먼저 학사 건립의 필요성을 품의한 후 새로 부임한 군수 안상을 찾아가 협조와 지원을 부탁하였다.

사족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사 건립을 결정하고, 드디어 명종 13년(1558)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서원이 위치할 곳은 군에서 동쪽으로 5리, 동헌에서 6~7리 정도 떨어진 이산면 樊川의 고개(樊峴)<sup>31)</sup> 아래였다. 공사

29) 李滉, 『退溪全書』 권42, 伊山書院記: 『榮州誌』 山伊里, 古蹟, 伊山書院 안상의 군수 부임은 명종 10년(1555)이라는 기록도 있지만(『榮州誌』 奉香里, 守宰(취사 분): 영주향교, 『榮州輿地誌』, 2003, 40쪽), 그가 부임한 해는 바로 그전 해 겨울이었다.

30) 풍기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건립 당시 비용은 경상도관찰사 林百齡이 지급한 魚鹽을 판매하여 마련하였고, 후임 관찰사 安珣의 지원과 李彦迪의 鹽藿 지급 등은 재정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정만조, 앞의 논문, 1980;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다른 지역의 서원 건립과 운영에도 지방관의 협조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였다.

31) 변천 고개(樊峴)은 이산면 院里(광시)에 있었으며, 현재 이곳은 영주시 휴천1동 구서원(남간 고개)이다.

는 4개월 동안 진행되어, 마침내 그해 11월에 모두 32칸의 伊山書院을 완공할 수 있었다.<sup>32)</sup> 이때 영천군수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여러 사족들이 곡식과 물자를 기부하였으며, 공사 감독은 全應璧·賓守儉·安彭壽 등이 맡았다.

이황은 ‘爲己之學’의 이념을 담아 서원의 대청(강당)은 ‘敬止堂’이라 이름 지었고, 東齋와 西齋는 각각 ‘誠正齋’와 ‘進修齋’라고 하였으며, 대문은 ‘志道門’이라 하였다. 누대는 ‘觀物臺’라고 하였으며, 典祀廳·供需廳 등도 갖추었다.<sup>33)</sup> 이때 군수는 곡식 수백 석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양인과 노비 20명을 두어 서원의 잡역을 돕도록 하였다. 이제 영주지역 사족들은 오랫동안 임시로 의국을 공부하던 것에서 벗어나, 평소 이황의 가르침대로 修己 위주의 ‘爲己之學’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sup>34)</sup>

이때 이들은 이산서원의 건립에 필요한 재정과 시간을 줄이려고 기존 건물을 헐어 목재와 기와를 재사용하였다. 이 서원의 강당인 敬止堂은 東里의 청산 기슭에 있던 載陽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재양정은 ‘東亭子’라고도

32) 이산서원의 건립 시기는 자료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列邑院宇事蹟』은 명종 9년(1554)이라 하였고, 『榮州誌』(학사본)와 『輿地圖書』 및 권시용은 명종 13년(1558)이라고 하였다(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활동」, 『한국서원학보』 8, 2019). 이광우·임근실·이병훈은 명종 14년(1559)이라 하였고(이광우,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2021, 133·137쪽; 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2018, 163쪽; 이병훈 앞의 논문, 2020, 77쪽). 이산서원은 처음부터 배향 인물이 없었지만 ‘서원’으로 건립되었는데, 이병훈은 다른 글에서 선조 6년(1573)에 건립되어 이황을 제향하였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이병훈,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2018, 89·92쪽). 이 글에서는 당시 기록에 따라 서원의 건립 년도와 제향 및 사액 년도 모두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33) 이황은 서원 건물의 이름과 함께 진수재 등 건물의 편액도 직접 써 주었다. 이때 관물대는 典祀廳 동쪽 기슭에 있었다고 한다(『榮州誌』 權先田里, 伊山書院(고친고택본)).

34) 정만조, 앞의 논문, 1981.

하며, 원래 군현을 방문하는 사람을 맞이하거나 전별하는 곳으로 퇴계 이황이 직접 편액을 써서 걸었다. 이곳은 貢擧에 입격한 유생들을 불러 모아 강독을 하여 ‘業儒所’라고도 하였다.<sup>35)</sup>

그 후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하던 養正堂도 이산서원의 동재인 성정재의 동쪽에 옮겨 다시 세웠다. 양정당은 원래 군수 穉樞가 명종 1년(1546)에 부임한 후 건립하여 군현의 동몽을 교육하던 童蒙齋였는데<sup>36)</sup>, 서원 건립 이후 곧 이 건물을 헐어 이산서원 건물 옆에 옮겨 세웠다.<sup>37)</sup> 이제 기존의 재양정은 이산서원의 강당인 경지당이 되었고, 기존 동몽재는 서원의 양정당이 되었다.

영주지역 사족들은 이것의 건축 과정에서 몇 가지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들은 신축 학사의 건축으로 오랜 숙원을 풀었지만, 아직 ‘書齋’라고 이름할 것인지, 아니면 ‘書院’이라고 부를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것은 아직 이곳에 배향할 인물을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고민이었다.

이것은 이들이 처음 이 건물을 계획하여 추진할 때 이미 풍기에 건립·사액된 紹修書院의 성격과 달리, 기존 學舍를 대신할 공간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초창기의 서원 가운데 배향인물 없이 사림의 藏修處로서 강학을 위주로 건립·운영된 사정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sup>38)</sup>

35) 『榮州誌』奉香里, 輦場亭(취사본). 재양정(동정지)는 원래 이산면 벌래 고개에 있었다.

36) 양정당은 원래 군의 동쪽 3리(벌래 고개)에 있던 재양정 바로 옆에 있었던 건물이다(『榮州誌』奉香里, 童蒙齋(취사본); 『榮州誌』權先田里, 伊山書院(괴헌고택본). 그리고 『榮州誌』(학사본)에는 이산서원 건립 때 이곳의 재목과 기와를 옮겨 사용했다고 하였다. 명종 1년 이후 영주의 사족들은 제민루에서 강학하였고, 어린 동몽들은 이 동몽재에서 공부하였을 것이다.

37) 李滉, 『退溪全書』 권42, 伊山書院記.

38) 초창기 서원은 처음부터 배향인물 없이 書齋(精舍) 형태로 건립된 것이 많다.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들은 43개의 서원을 건립하였고, 이 가운데 9개 서원은 배향인물이 없었다. 영주 伊山書院·汚溪書院, 안동 靑城書院·周溪書院·鏡光書院, 대구 研經書院, 영천 白鶴書院, 청도 仙巖書院, 강동 靑溪書院이다(권시용, 앞의 논문, 2019, 38쪽). 안동 병산서원은 선조 5년(1572)에 尊德祠로 건

이 때문에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족들은 學舍 건립 후 명칭과 記文이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퇴계 이황의 자문과 지도를 받았다. 이들은 이황의 문인 인 동시에 妻姨從 사이인 張壽禧(1516~1586)[인동]<sup>39)</sup>를 보내 서원 건립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다. 이때 장수희는 이황에게 우리 고장은 학자로 받들어 제향할 만한 ‘先正’을 아직 정하지 못하였고, 서원의 제도 역시 아직 갖추지 못해 우선 ‘書齋’로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냐고 문의하였다.

이에 이황은 옛날의 서원에서 선현을 배향할 때 모두 그 고을의 인물만 고집하지 않았고, 先聖과 先師를 모시는 곳도 있으며, 祠廟를 건립하지 못한 분도 있으니, 형편에 따라 서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서원은 급하게 건립하여 아직 祭田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이는 후일에 결정해도 된다고 자문하였다.

이처럼 이황은 영천 伊山書院과 성주 川谷書院(迎鳳書院) 및 예안 易東書院의 건립을 비롯하여 직·간접적으로 여러 서원의 건립에 참여하였고, 그의 문인들 역시 자신들이 거주하는 군현은 물론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그곳에 많은 서원을 건립하였다.<sup>40)</sup> 이황을 비롯하여 柳成龍·金誠一·朴承任·鄭述 등 그

---

립된 후 광해군 5년(1613)에 류성룡을 제향하였다(이광우, 앞의 논문, 2021, 141쪽 <표 3>). 이것은 초창기의 서원이 존현보다 강학에 일차적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이수환, 앞의 책, 2001, 19쪽).

39) 張壽禧인동은 이시에 난 때 적개공신이 된 張未孫(1431~1486)의 증손자이고, 張應臣의 아들이며, 후에 寒泉書院(1786, 장수희·오운·박희무·박중무)에 제향되었다. 그의 부친 장응신은 문경동(1457~1521)의 사위가 되어 草谷에 이거하였고, 이황의 장인 허찬 역시 문경동의 사위이다. 따라서 문경동은 이황의 前夫人 김해 허씨의 외조부이다. 장수희는 외조부인 문경동의 묘갈명을 이황에게 부탁하여 받았다(영주시사편찬위원회, 『榮州市史』 4, 2010, 485~489쪽).

40) 정만조, 앞의 논문, 1981; 조준호, 「퇴계 이황의 서원 건립활동과 서원론의 출현」, 『역사문화논총』 2, 2006;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2011; 권시용, 앞의 논문, 2019; 채광수, 「퇴계 문인의 서원 보급 활동」, 『민족문화논총』 73, 2019; 이광우, 앞의 논문, 2021. 이황은 65세 때 영주의 소수서원과 이산서원을 포함하여 전국 9개 서원의 찬시를 짓기도 하였다(李滉, 『退溪全書』 권4, 書院十詠).

의 문인들은 이후 자신이 직접 건립했던 서원은 물론 자신들과 관련된 연고지의 서원에 다시 제향되었다.<sup>41)</sup>

영천군에 처음으로 서원이 건립되면서 인근의 사족 자제들이 모여들었다. 이 서원이 건립된 명종 13년(1558)부터 12명이 서원에 입원하여 공부하였다. 이들은 이황에게 서원기와 원규를 받은 張壽禧를 비롯하여, 宋福崇·宋福基·朴承倫·金允粲·金允誠·金玟·權鳳年·黃武·閔碩勳·閔植勳·韓佑 등이다.<sup>42)</sup>

이들은 인동 장씨·야성 송씨·선성(예안) 김씨·안동 권씨·반남 박씨·여흥 [영천] 민씨 등 유력한 사족들이며, 대부분 서원의 건립을 주도한 성관 소속의 인물들로 짐작된다. 이후에도 계속 원생들이 서원에 입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서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영주지역 사족들은 이황의 자문과 지도에 따라 서원의 이름을 짓고, 그에게 편액의 글씨도 받아 걸었다. 서원 이름은 이곳의 지명 '山(伊村)'을 따르면서 '志(伊學顏)의 의미를 덧붙여 '伊山書院'이라고 붙였다. 이황은 주자의 白鹿洞規를 언급하면서 중국 상나라 재상 伊尹이 뜻한 바를 기억하고 공자의 제자 顏淵이 배운 것을 따르되, 誠·明으로 함께 나아가고 敬·義를 함께 수립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sup>43)</sup>

이들은 명종 14년(1559) 겨울 이황에게 찾아가 「伊山書院記」를 부탁하여

41) 영주지역의 이황 문인들이 제향된 서원은 7개 정도이다. 이는 龜江書院(김담·박승임·김복·김영조), 三峯書院(김이음·이해·김개국·김룡), 汚溪書院(이덕홍), 寒泉書院(장수희·오운·박회무·박종무), 郁陽書院(이황·황준량), 遇谷書院(류운룡·황섬·이준·김광엽), 龜灣서원(금인·남몽오·박선장·권호신) 등이다. 그리고 류성룡의 문인이 제향된 영남의 서원은 모두 21개이며, 영주에는 구강서원과 愚谷書院(류운룡·황섬·이준·김광엽) 및 의산서원(이개립·김응조)이 있다(이광우, 앞의 논문, 2021, 141쪽 <표 3>과 154쪽 <표 4>).

42) 이산서원복설추진위원회, 『伊山書院誌』 「伊山入院錄」 嘉靖戊午年(1558).

43) 李滉, 『退溪全書』 권42, 伊山書院記. 김복은 후에 이황을 모신 사묘의 상량문에 선생이 송나라 程伊川(1033~1107)을 경모하여 명명하였다고 하였다(金玟, 『栢巖集』 伊山書院 祠廟上梁文). 이 '志伊學顏'은 『근사록』과 『소학』에 나오는 구절이다(『近思錄』爲學, “志伊尹之所志 學顏子之所學.”; 『小學』嘉言, “志伊尹之所志 學顏子之所學 過則聖及則賢 不及則亦不失於命名.”).

받았고<sup>44)</sup>, 서원 운영과 관련한 「伊山院規」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서원을 운영하였다. 이산서원의 원규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대강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산원규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하나, 諸生의 독서는 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小學과 家禮를 입문하는 것으로 삼으며, 국가의 인재양성 방침을 준수하고 성현의 절실한 가르침을 지킨다. 모든 善이 본래 나의 천성에 있음을 알고 옛 道를 오늘에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으며, 모두 힘써 스스로 노력하여 마음으로 體를 밝히고 用을 적합하게 하는 학문에 힘쓰도록 한다. 여러 史書와 子集, 文章과 科擧 공부는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해야 한다. 그러나 마땅히 內外·本末·輕重·緩急의 차례를 알아 항상 스스로 격려하여 타락하지 않아야 한다. 그 나머지 사악하고 요망하며 괴이하고 음란한 책은 모두 서원 안에 들여와 눈에 가까이 하면서 道를 어지럽히고 뜻을 현혹하지 않도록 한다.<sup>45)</sup>

하나, 서원의 有司는 근처에 살면서 청렴하고 재간 있는 品官 두 사람을 정하고, 또한 儒士 가운데 사리를 알고 품행이 바르며 여러 사람이 추앙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上有司로 삼되, 모두 2년마다 서로 교체한다.<sup>46)</sup>

하나, 세원을 건립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를 받들고 文을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어느 누가 진심을 다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원의 일에 대해 제도를 더하여 그 규약을 줄이지 않는다면, 어찌 斯文에 다행이지 않겠는가?<sup>47)</sup>

44) 李滉, 『退溪全書』 권42, 伊山書院記.

45) 李滉, 『退溪全書』 권41, 雜著, 伊山院規,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 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擧之業 亦不可不爲之 旁務專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說妖異淫僻之書 並不得入院 近眼以亂道惑志.”

46) 李滉, 『退溪全書』 권41, 雜著, 伊山院規, “一 院有司 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 衆所佩服者一人爲上有司 皆二年相遞.”

47) 李滉, 『退溪全書』 권41, 雜著, 伊山院規, “一 立院養士 所以奉國家 右文興學 作新人才之意 人誰不盡心 繼今莅縣者 必於院事 有增其制 無損其約 其於斯文 豈不幸甚.”

퇴계 이황이 제정한 이산서원의 원규는 별도의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1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었다. 1항은 院生(諸生)이 읽어야 할 서책을 제시하였다. 이항은 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小學과 家禮로 문호를 삼는다는 원칙을 제시한 다음 史·子·集과 문장을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는 ‘爲己之學’과 배치되는 과거 공부는 현실상 불가피하게 인정하면서도 내외·본말·경중·완급의 차등을 두어 공부할 것을 강조하였다.

2항~4항은 원생들의 학문하는 자세와 생활 규칙을 제시한 것이며, 5항은 성균관 명륜당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자의 四勿箴, 주자의 白鹿洞規十訓, 진무경의 夙興夜寐箴을 써서 벽에 붙여 항상 경계하도록 당부하였다. 6항은 서원의 서책은 함부로 밖에 반출하지 말고, 여색의 서원 출입을 금지하며, 술을 빚거나 서원 안에서 형벌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였다.

7항~11항은 서원을 운영할 院任과 有司 등 서원의 인적 구성을 언급한 것이다. 7항은 원임인 上有司와 有司의 선정 기준과 임기를 규정하였다.<sup>48)</sup> 8항은 諸生(원생)과 有司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9항은 院屬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언급한 것이다. 10항은 앞으로 부임할 지역 守令에게 규약을 훼손하지 말고 잘 수호할 것을 당부한 것이고, 11항은 童蒙들이 수업을 받거나 초대받지 않았으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12항은 임시 수강생인 寓生이 관례 여부 및 정원에 상관없이 학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원생으로 승격시키도록 하였다.

이 원규는 이황의 教學論과 書院觀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이 원규에서 과거 시험 공부보다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한 修己를 위한 ‘爲己之學’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sup>49)</sup>, 서원의 임원인 有司는 지역의 品官 가운데 청렴하고 재

48) 이산서원의 원규에 따라 上有司·有司 체제로 운영된 서원은 伊山書院·易東書院·陶山書院·吳山書院 등이며, 院長·有司 체제는 紹修書院·迎鳳書院(川谷書院)·玉山書院·西岳書院·道東書院·屏山書院·臨臯書院 등이다(이수환, 앞의 책, 2001, 104쪽; 임근실, 앞의 논문, 2018, 180쪽).

49) 정만조, 앞의 논문, 1981.

간이 있는 사람을 上有司로 삼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황은 큰 틀에서 학문하는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서원의 운영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그는 서원의 운영은 지역 사족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되, 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 이산서원의 원규는 풍기 소수서원의 원규와 함께 이후 예안 陶山書院·易東書院, 안동 蘆江書院(虎溪), 경주 玉山書院·西岳書院, 상주 道南書院, 현 풍 道東書院, 인동 吳山書院, 함양 濼溪書院, 진주 德川書院, 영덕 丹山書院 등 영남 남인계 서원은 물론, 일부 서인계 서원의 원규 제정에 典範이 되거나 영향을 끼쳤다.<sup>50)</sup> 이산원규는 지역과 학파를 초월하여 서원 운영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영천 사족들은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서원을 건립한 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선조 4년(1571)에는 영천군수 權文海가 서원 앞에 누각을 건립하여 유생들에게 강학을 권장하였다고 한다.<sup>51)</sup> 그리고 17세기 중반에는 觀物臺의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서원의 앞쪽 전청과 전사청의 동쪽 부근에 이를 이견하였다.<sup>52)</sup>

50) 정만조, 앞의 논문, 1981; 김학수, 「蘆江書院과 영남학동-17세기 초반의 廟享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이수환, 「道東書院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2000; 임근실, 앞의 논문, 2018;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2019;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 경향-16세기~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3, 2021; 이광우,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 서원의 변모양상」, 『한국서원학보』 14, 2022. 서인계의 여산 竹林書院(黃山書院) 역시 이산서원 원규의 영향을 받아 엄격하게 준수하였다고 한다(한재훈, 앞의 논문, 2021, 180쪽).

51) 영주향교, 『榮州鄕校誌』, 2003, 40쪽. 이 누각의 이름이 실제 무엇이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52) 『伊山書院誌』 伊山觀物堂上樑文(金應祖). 宋世寅(1648~1721)은 관물대가 서원의 동쪽 높은 대 위에 있었다고 하였다(宋世寅, 『十拙齋逸稿』 觀物臺). 이산서원 원장을 지낸 金應祖(1587~1667)의 형 金英祖(1577~1648)는 후에 옛 서원 터를 지나면서 관물대와 진수재를 회고하는 시를 지었다(金英祖, 『忘窩集』 권1, 過伊



### Ⅲ. 李滉의 제향·사액 및 이후 서원 건립의 양상

영주지역 사족들은 이산서원이 건립된 지 15년이 지난 선조 6년(1573) 겨울, 11월에 퇴계 이황(1501~1570)을 제향하였다.<sup>53)</sup> 이들은 스승 이황이 죽은 후 3년 상이 끝나는 선조 6년(1573)에 맞추어 서원의 왼쪽(동쪽) 터에 祠廟를 건립하여 그해 겨울에 완공하였다. 이 서원은 비록 처음 배향 인물이 없이 書齋 형태의 ‘書院’으로 출발했지만, 이때 와서 처음으로 도학자를 제향함으로써 전형적 서원으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그를 제향한 이유는 문인 박승임의 奉安文에 잘 나타나 있다.

집의 기둥이 갑자기 무너질 조짐을 보였고, 큰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은 복이 없게 되었으며, 士林은 슬픔에 젖었습니다. 선생이 남긴 은혜를 입은 것은 샘물이 흐르고 불꽃이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龜城(영주)은 선생의 별서(園田)가 있는 곳입니다. 선생은 어린 나이에 유학하여 재능을 빛냈고, 함께 기거하면서 엄숙하고 공경하였으며, 행동거지는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한 고을의 모범이 되어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잡았습니다. 직접 깊은 가르침을 받아 모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 伊山書院을 바라보니 푸른 용 같은 능선이 구불구불하였습니다. 긴 계곡에 서원이 있어서 講堂과 齋室

山舊址有感). 그 후 많은 사족들이 관물대에서 시를 읊었다(『伊山書院誌』, 2010, 59~90쪽).

- 53) 朴承任, 『嘯臯集』 권3, 伊山書院奉安退溪先生文; 『嘯臯先生續集』 嘯臯先生年譜 趙鑽韓, 『玄洲集』 권15, 伊山書院興廢記. 이황의 제향 시기 역시 자료와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다. 이산서원의 건립과 제향을 주도한 박승임의 연보에는 선조 6년(1573) 11월에 위패를 봉안하였다고 하였다. 『榮州誌』(학사본)는 선조 5년(1572), 『列邑院宇事蹟』은 선조 6년(1573), 『輿地圖書』는 선조 5년(1572)이라고 하였다. 이병훈은 선조 6년(1573) 건립 당시 박승임·장수희·김륙·이덕홍 등이 서원을 건립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서원의 건립과 사묘의 건립을 혼동한 것이다(이병훈, 앞의 논문, 2018, 92쪽). 김학수는 선조 5년(1572)에 건립되어 제향되었다고 하였고, 이광우는 선조 6년(1573)이라고 하였으며(김학수, 앞의 논문, 1998, 455쪽; 이광우, 앞의 논문, 2021), 권시용과 이병훈은 선조 7년(1574)이라고 하였다(권시용, 앞의 논문, 2019, 9쪽 <표 1>; 이병훈, 앞의 논문, 2020, 77쪽).

이 고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서원을 건립할 때 실제로 품의하여 처리했습니다. 記文과 院規를 지으셔서 진지함과 간곡함을 보이셨습니다.<sup>54)</sup>

이것은 이황이 일찍부터 영주지역 사족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공부하였고, 이후 이곳은 그와 형의 처향이 되었으며, 그가 서원 건립 당시부터 각종 자문과 함께 직접 서원기와 서원 원규를 제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이황의 문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다는 점도 그 이유라고 하겠다.<sup>55)</sup> 이들은 이황이 이 서원의 건립을 자문할 때나 그의 사후 스승을 제향할 때에도 일정하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사묘의 건립과 제향은 이황의 문인 영천군수 許忠吉(1516~?) [김해]<sup>56)</sup>의 협조와 함께 이황의 문인들이 주도하였을 것이다. 소고 朴承任(1517~1586) [반남]과 良齋 李德弘(1541~1596) [영천]<sup>57)</sup>이 이를 주도한 가운데 당시 서원 원장이었던 栢巖 金玠(1540~1616) [예안]<sup>58)</sup>과 勿巖 金隆(1549~1594) [함

54) 朴承任, 『嘯臯集』 권3, 伊山書院奉安退溪先生文. “楹奠遽兆 喬嶽崩騫 蒼生無祿 士林悲纏 遺澤所霑 泉達火燃 矧伊龜城 公有園田 弱齡遊學 玉潤珠聯 羣居肅敬 動遵韋弦 師範一鄉 汚染自前 親炙既深 咸切慕躋 瞻彼伊山 翠虬虬蜒 維谷有院 堂室靜便 厥初經營 實稟裁鑄 記之規之 曲示諄諄.”

55) 김중석,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學統 弟자의 범위」, 『한국의 철학』 26, 1998; 김시황, 「금계 황준량 선생과 풍기지역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 30, 2001; 안병길·김용현, 「영남학맥의 흐름과 인물」, 『퇴계학』 13, 2002; 박원재, 「임란기 영주봉화지역의 유학과 학맥」, 『국학연구』 31, 2016.

56) 許忠吉 [김해]은 문과에 급제한 후 선조 5년(1572) 榮川郡守 때 황해도관찰사 박승임의 지원으로 이황의 「戊辰封事」와 「聖學十圖」를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그는 재임 중 선조 7년(1574) 이곳에서 죽었다.

57) 李德弘 [영천]은 영주 구룡동(장수면 호문리) 외가(반남 박씨)에서 태어나 금란수·이황에게 수학하였고, 영춘현감 등을 지내고 임진왜란 때 세자를 호종하여 후에 호성공신 1등이 되었다. 그는 선조 3년(1570) 원천리에 汚溪精舍를 지어 학문을 탐구하였으며, 현종 4년(1663) 汚溪書院(이덕홍·이시)에 제향되었다.

58) 이병훈, 앞의 논문, 2018, 92쪽. 金玠 [예안]은 박승임과 황준량에게 배우다가 후에 이황의 문하에서도 수학하였고, 문과에 급제한 후 영남안집사·체찰부사·안동도호부사·대사성·대사헌·강릉부사 등을 지냈다. 그는 34세에 이산서원 원장에 추대되었고, 선조 21년(1588) 金宇顛과 안동 三溪書院을 건립하였으며, 38

창<sup>59)</sup> 등 이황과 박승임에게 모두 수학한 인물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박승임·장수희·황준량 등 이황의 문인들은 스승을 도와 이산서원의 건립을 주도하였고, 스승의 사후 그를 이곳에 제향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다. 당시 영주지역에 거주한 이황의 문인들과 적전 문인들의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sup>60)</sup>

<표 1> 영주지역 이황의 문인 및 적전 문인

	인물	본관	생몰년도	당시 나이(세)			비고
				서원 건립 (1558)	이황 제향 (1573)	서원 이건 (1615)	
1	張壽禧	인동	1516~1586	43	58		이황 문인
2	黃俊良	평해	1517~1563	42			
3	朴承任	반남	1517~1586	42	57		
4	文命凱	남평	1521~1591	38	53		
5	朴承倫	반남	1523~?	36	51		
6	郭 澣	현풍	1523~1596	36	51		
7	南夢鰲	영양	1528~1591	31	46		
8	閔應祺	여흥	1530~1578	29	44		

년(1605) 안동부사 때 廬江書院(虎溪書院)이 대홍수로 유실되자, 柳成龍·李亨男 등과 함께 이를 중건하였다(金玊, 『栢巖集』 권5, 上方伯文 安東府使時 乙巳 및 권7, 年譜, 萬曆二十三年乙巳). 그는 40년(1607) 鄭述와 臨川書院의 건립에 관여하고, 후에 龜江書院(龜賢祠, 1615, 김담·박승임·김복·김영조)에 제향되었다.

59) 金陞(함창)은 박승임과 이황의 문인이며, 임진왜란 때 격문을 지어 창의를 호소하였고, 선조 7년(1574) 李德弘·權好文·琴蘭秀·柳雲龍 등과 함께 예안 陶山書院을 건립하였다. 그는 三峯書院(1650, 김이음·이해·김개국·김릉)에 제향되었으며, 星湖 李瀼이 그의 전기를 짓기도 하였다.

60) 영주지역 이황의 문인은 『陶山及門諸賢錄』에 榮川(영주) 12명, 풍기 4명, 순흥 1명 등 모두 17명이다. 이 도표는 안병걸·김용현과 김중석의 논문을 참고하여 필자가 다시 작성한 것이다(안병걸·김용현, 앞의 논문, 2002, 111~125쪽; 김중석, 앞의 논문, 1998, 151~187쪽). 여기에서는 이들 모두를 언급하지 않고 중요한 인물만 언급하였다. 당시 지역의 문인들은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학문을 수학한 예가 많았으나, 여기에서는 한 인물이 여러 명의 문인인 경우 하나만 표기하였다.

9	金 玠	예안	1540~1616	19	34	77	
10	吳 灑	고창	1540~1617	19	34	77	
11	李德弘	영천	1541~1596	18	33		
12	宋福基	야성	1541~1605	18	33	75	
13	孫興慶	경주	1543~1611	16	31		
14	張 謹	인동	1544~1619	15	30		
15	金 隆	함창	1549~1594	10	25		
16	李介立	경주	1546~1625	13	28	70	김성일 문인
17	金應祖	풍산	1587~1667			29	류성룡 문인
18	成女義	창녕	1561~1629		13	55	
19	朴檜茂	반남	1575~1666			41	
20	吳汝機	고창	1579~1625			37	정구 문인
21	裴尙益	성주	1581~1631			35	
22	朴縱茂	반남	1582~1664			34	
23	裴應燾	성주	1544~1602		30		박승임 문인 <sup>61)</sup>
24	朴 欒	고령	1551~1592	8	23		
25	朴善長	무안	1555~1616		19	61	남몽오 문인

그리고 이 서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계 이황을 제향한 서원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후에 그를 제향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sup>62)</sup> 이산서원의 건립을 계기로 이후 영남의 각 지역에 서는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들이 차례로 세워졌다.

박승임은 이산서원에 이황을 제향한 다음해인 선조 7년(1574)에는 도산에

61) 金隆[함창]·南夢鰲[영영]·金玠[예안]·朴欒[고령]는 박승임의 문인이기도 하다(김의환, 앞의 논문, 2012, 332~333쪽 <표 1>). 박려는 이황과 박승임의 문인이면서 이황의 손서였다. 박승임의 가문과 이황의 가문은 계속 학문적, 혈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62) 이황을 제향한 서원의 현황은 다음을 참고할 것(이광우, 앞의 논문, 2021, 137쪽 <표 2>). 이후 영주지역에 거주한 이황의 문인들을 제향한 서원들도 건립되었는데, 영천에 龜江書院·三峯書院·汚溪書院·寒泉書院, 풍기에 郁陽書院·遇谷書院, 순흥에 龜灣書院 등이 세워졌다(김의환, 앞의 논문, 2008, 58쪽 <표 1>; 이광우, 앞의 논문, 2021, 142~143쪽 <표 3>).

가서 이 지역의 문인들과 함께 퇴계의 사당 건립을 논의하여<sup>63)</sup>, 陶山書院(이황·조목)을 건립한 후 그 이듬해에 사액을 받았다. 선조 8년(1575)에는 안동에 廬江書院(虎溪書院, 이황·류성룡·김성일)이 세워졌다. 이후 진보 鳳覽書院(이황)과 봉화 文巖書院(이황·조목)을 비롯하여 처음 제향 인물이 없던 대구 研經書院(이황·정구·정경세·전경창·이숙량)에 광해군 5년(1613)에 퇴계가 제향되었다. 퇴계 이황을 제향한 서원은 송시열 다음으로 많은 31개인데, 그의 사후부터 광해군 때까지 모두 20개의 서원이 건립되었고, 영남에는 10개가 건립되었다.<sup>64)</sup> 이러한 이황을 제향한 서원의 건립은 퇴계학파의 동질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sup>65)</sup>

이러한 이황의 제향은 이산서원의 격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당시 영주지역 사족들의 자긍심과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영남 남인의 道學的 正統 확립과 관련되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sup>66)</sup> 박승임은 이황의 학통이 孔子-孟子-周敦頤·程顥·程頤-朱子-鄭夢周-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으로 이어진다고 정리하였다.<sup>67)</sup> 그는 이를 계기로 이황의 학문적 가르침과 정신이 이 지역에서 잘 계승될 것을 희망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이황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도통을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때 朴承任은 봉안문과 함께 이황의 위패를 봉안하는 祭文까지 직접 지었고<sup>68)</sup>, 사묘의 상량문은 박승임·이황의 문인인 백암 金玘(1540~1616)이 지었다.<sup>69)</sup> 그리고 향사의 祝文은 이황의 문인 月川 趙穆(1524~1606)[황성이 지

63) 『嘯臯先生續集』 嘯臯先生年譜.

64) 이광우, 앞의 논문, 2021, 137~138쪽.

65) 김학수, 앞의 논문, 1998: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廬江(虎溪)書院 치폐 전말」,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2009, 322쪽.

66) 이광우, 앞의 논문, 2021.

67) 朴承任, 『嘯臯集』 권3, 伊山書院奉安退溪先生文. 이황의 학문적 계승은 예안·안동에서는 趙穆 계열과 金誠一 계열 및 柳成龍-鄭經世(상주) 계열로 이어졌으며, 성주에서는 鄭述-張顯光으로 이어졌다.

68) 朴承任, 『嘯臯集』 권3, 祭文.

69) 金玘, 『栢巖集』 권6, 伊山書院祠廟上梁文.

었다.

한편, 이산서원은 이황을 제향한 선조 6년(1573) 11월에는 조정으로부터 ‘伊山’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았다. 경상도 관찰사가 장계를 올려 사액을 요청하였고, 선조는 이를 허락하여 예조에 啓下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영천의 이산서원은 현풍 雙溪書院(道東書院, 김광필)과 경주 玉山書院(이언적)과 함께 사액되었다.<sup>70)</sup> 이것은 사족들이 사묘의 건립과 제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조정에 사액을 요청한 결과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이산서원의 賜額 시기는 자료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정부의 사액은 『宣祖實錄』의 기록에 따르면, 선조 6년(1573) 겨울에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액 시기는 실록을 근거로 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다만 실제 宣額 致祭는 다음해 봄에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71)</sup> 이산서원은 사액과 동시에 서책을 하사받았고, 10년(1577) 가을과 겨울에도 이를 하사받았으며, 12년(1579)과 13년(1580)에도 서책을 받아, 모두 17질의 책을 갖추었다.<sup>72)</sup>

이로써 이 서원은 榮川郡에서는 최초로, 영주지역 전체에서는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 건립과 사액됨으로써 그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다. 이제 이 서원은 소수서원과 함께 영주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사액서원으로 자리를 잡을

70) 『宣祖實錄』 권7, 宣祖 6년 11월 甲辰. 당시 영천군수는 허충길이었다. 그는 선조 5년(1572)에 부임하여 이산서원의 사묘를 건립하였고, 선조 7년(1574) 재임하다가 이곳에서 죽었다.

71) 이수환과 신동훈은 실록의 기록에 따라 선조 6년(1573)에 사액되었다고 하였다(이수환, 앞의 논문, 2000, 121쪽; 신동훈, 「16세기 서원(書院)의 사액(賜額)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 현실』 98, 2015, 280쪽). 영천군수를 지낸 조찬환은 선조 7년(1574)이라고 하였으며(趙繼韓, 『玄洲集』 권15, 伊山書院興廢記, 『榮州誌』(하사본)와 『列邑院宇事蹟』·『輿地圖書』 및 김학수·임근실·권시용·이광우는 모두 선조 7년이라고 하였다. 사액 연도 역시 당시 기록에 따라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72) 趙繼韓, 『玄洲集』 권15, 伊山書院興廢記, “萬曆甲戌 特賜扁額 額以伊山者 以其里 卽山伊故 因里名而別之也 丁丑秋賜書 冬又賜書 己卯庚辰 連賜書 書凡十七帙也.”

수 있었고, 이황의 서원 설립 취지와 그 가르침은 이 서원이 도산서원보다 갑절 더 높다고 평가되었다.<sup>73)</sup> 게다가 이 지역 사족들은 이 서원에 영남학파의 정통을 계승한 이황을 제향함으로써 예안 陶山書院과 안동 盧江書院(虎溪書院)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sup>74)</sup>

그런데, 이산서원은 건립된 지 48년만인 광해군 7년(1615) 봄에 새로운 곳에 이견되었다. 서원이 이견된 곳은 처음 위치했던 樊岬에서 동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이산면 수구리(林丘)이다.<sup>75)</sup> 이때 서원을 이견한 이유는 원래 서원의 터가 협소하였고, 오래전부터 서원의 못과 웅덩이 아래가 습하고 물이 스며 나와, 건물의 서까래가 자꾸 썩고 건물이 기울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주 건물을 수리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sup>76)</sup>

당시 朴善長·吳濬·成安義를 비롯한 영주 사족들은 광해군 4년(1612)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 사실을 경상도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10월에는 朴善長이 移建開基祭文을 지어 공사를 시작하였다.<sup>77)</sup> 이들

73) 趙繼韓, 『玄洲集』 권15, 伊山書院興廢記, “先生之院宜甲於我東 而世之尊先生之道德 仰先生之光輝者 舉皆以陶山爲宗 却不知伊山之趣 勝陶山一倍 所謂勝者 非謂湖山泉石之趣勝也 陶山之設 在先生既沒之後 其遺澤不遠 伊山之創 自先生始 而既躬自訓迪 倡率 提撕 磨礱 浸灌薰染 作成者十有五年.”

74) 金垓, 『溪巖日錄』 권6, 乙亥 3월 27일(1635). 이산서원 원장 金應祖는 당시 김령에게 편지를 보내 이와 같은 말로 서원의 위상을 평가하였다. 金應祖풍신는 金大賢의 6남이고, 권두문·류성룡·장현광의 문인이며, 金奉祖·金榮祖·金延祖·金應祖·金念祖 5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고, 부교리·좌승지·형조참의·한성 우윤 등을 지냈다. 그는 인조 7년(1629) 金安國·李彦迪을 병향한 의성 氷溪書院에 柳成龍·金誠一·張顯光을 추향하면서 벌어진 배향·중향론 대립 때 배향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병향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金應祖, 『鶴沙集』 권4, 與趙龍洲欄, 후에 義山書院(1664, 이개립·김응조)에 제향되었다(김의환, 앞의 논문, 2008).

75) 林丘(林阜)는 현재 영주시 이산면 내림리(바깥 수구리)이다. 여러 자료에서는 ‘林阜’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다.

76) 趙繼韓, 『玄洲集』 권15, 伊山書院興廢記; 朴善長, 『水西集』 伊山書院移建告廟文;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榮川 伊山書院 『輿地圖書』에는 “萬曆甲戌賜額 後以院基狹隘 移建于郡東十五里許.”라고 하였다.

은 본격적인 이건에 앞서 먼저 移建告由文을 지어 그 사정을 이황의 신위에 게 고하였고<sup>78)</sup>, 서원과 명륜당이 들어설 토지 신에게도 제를 올려 음복을 기원하였다.<sup>79)</sup> 明倫堂(敬止堂) 이건 공사는 광해군 6년(1614)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봄에 완공하였다.<sup>80)</sup>

이 서원의 건립과 사묘의 완공 및 이건 과정은 조찬한이 지은 「伊山書院興廢記」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이듬해 봄에 明倫堂을 또 완공하고 모든 공사를 마쳤다. 아마 서원의 흥 폐와 사묘의 성쇠는 서로 관련이 있다. 문물이 성대하게 일어나는 아름다움과 일어나지 않음은 오늘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옛 書院의 공사는 가장 무오년(1558) 가을에 시작되었는데, 선생이 창도하여 군수 安公(璫)이 창건하였다. 옛 祠廟는 만력 계유년(1573) 겨울에 건립했는데, 많은 선비들이 경모하여 군수 許公(忠吉)이 그것을 완공하였다. 만력 갑술년(1574)에 임금께서 특별히 扁額을 내리셨다. '伊山'이라고 편액한 것은 그 마을이 '山伊'이므로 마을 이름을 구별한 것이다. 정축년(1577) 가을에 서책을 내렸고, 그해 겨울에 또 서책을 하사하였다. 기묘년(1579)과 경진년(1580)에 연속으로 서책을 하사하여, 책이 모두 17질이 되었다. 만력 을묘년(1615) 봄에 또 새롭게 서원을 건립하였는데, 원장인 前 목사 成安義가 홀로 비용과 노역을 부담하여 마쳤다. 그 재실과 사묘를 수리하여 그해 9월에 비로소 봉안하였다.<sup>81)</sup>

77) 『伊山書院誌』 「日記」(朴善長, 四十年 先生五十八歲(1612).

78) 吳澐, 『竹淵集』伊山書院移建告由文 甲寅(1614).

79) 朴善長, 『水西集』伊山書院新基祭后土文·伊山書院明倫堂開基告由文.

80) 현재 이산서원의 안내판에는 서원의 연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선조 5년(1572)에 사당을 건립하여, 다음해 선조 6년(1573)에 이황을 제향하였으며, 광해군 6년(1614)에 내림리로 이건하였다고 하였다.

81) 趙繼韓, 『玄洲集』 권15, 伊山書院興廢記, “翌年春 明倫堂又成堂成而詔功 蓋院之興廢而斯文之隆替係焉 彬彬作興之美 其不作於今日歟 然則舊院之起在嘉靖戊午之秋 先生倡而太守安公創之也 舊祠之建在萬曆癸酉之冬 多士慕而太守許公成之也 萬曆甲戌特賜扁額 額以伊山者 以其里山伊 因里名別之也 丁丑秋賜書 冬又賜書 己卯庚辰連賜書 書凡十七秩也 萬曆乙卯春 又築新書院 院長前牧使成安義獨當構役畢 修其齋廟以其年九月日 始奉安.”



이때 서원의 이건은 원장 芙蓉堂 成安義(1561~1629)[창녕<sup>82)</sup>]가 공사비 전액과 노역을 부담하면서 진행되었다.<sup>83)</sup> 하지만 그는 중간에 무슨 사정이 생겨 원장을 그만두었다. 그를 뒤이어 前도사 朴善長(1555~1616)[무안<sup>84)</sup>]이 후임 원장을 맡으면서 명륜당(경지당)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그의 재임 기간에 미처 완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김륙의 2남이면서 前도사인 金止善(1573~1622)[예안<sup>85)</sup>]이 새로운 원장이 되었고, 그의 재임 때 명륜당이 완공되었다. 김륙과 김지선 부자는 대를 이어 이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하면서 김륙은 사묘를 건립하였고, 김지선은 명륜당을 건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때 임구로 서원을 이 건한 후 그 내력 사항을 적은 이 건기는 군수였던 趙繼韓(1572~1631)이 지었고<sup>86)</sup>, 사묘 이 건 상량문은 蒼石 李埈(1560~1635)[홍영이 지었으며<sup>87)</sup>, 移安文과 이 건 告廟文은 박선장이 지었다. 조찬한과 이준

82) 成安義[창녕]은 정구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고향 창녕에서 광재우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그 후 남원부사·광주목사를 지낸 후 영주에서 13년 동안 은둔하였고, 이괄의 난 때 인조를 호종한 후 제주목사를 지냈으며, 영주 이산면 지동리에 묻혔다.

83) 영주향교, 『榮州校誌』, 2003, 863쪽;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榮川, 伊山書院

84) 朴善長[무안]은 이황·박승임의 문인 南夢鰲(1528~1591)의 제자이면서 사위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직·경상도사·예안현감 등을 지냈다.

85) 金止善[예안]은 김륙의 2남이며, 이황의 손자 李純道의 사위이다. 의금부 도사를 지냈다.

86) 趙繼韓(1572~1631)[한영]은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영천군수·상주목사·좌승지 등을 지냈다. 그는 영천군수 이후 상주목사가 되어 정경세·이준·강응철 등과 講會와 文會를 즐겼다고 한다(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상주 도남서원의 詩會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2021, 22~35쪽).

87) 『榮州誌』 權先田里, 伊山書院, 移建林皇時廟宇. 上樑文(고현고택본);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榮川, 伊山書院 李埈홍영은 류성룡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지평·풍기군수·교리 등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정경세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상주에서 鄉風을 진작하려고 읍지 편찬, 향약 보급, 학교 활성화, 향현사 건립 등 다양하게 노력하였다(채광수, 앞의 논문, 2021, 29쪽). 그는 숙종 30년(1704)에 건립된 遇谷書院(류은룡·이준·황섬·김광엽)에 제향되었다.

은 평소 박승임의 손자 朴檉茂(1575~1666)<sup>88)</sup>와 교류하면서 깊은 우의를 다진 사이였다.<sup>89)</sup> 지금까지 살펴본 이산서원의 건립과 제향 및 이건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이산서원의 건립과 연혁

시기	내용	주도 인물	군수	비 고
세종15 (1433)	의국 (제민루) 건립		반저	龜城에 건립
명종13 (1558)	서원 건립 (樊峴)	송복기·박승륜· 김륵·장수희 등	안상	
명종14 (1559)	서원기·원규 제정		안상	서원기·원규(이황)
선조6 (1573)	사묘 건립 및 이황 제향	박승임·이덕홍· 김륵·김룡	허충길	봉안기(박승임)·제문(박승임)·사묘 상량 문(김륵)·축문(조목) / 소고선생년보
선조6 (1573)	‘伊山’ 사액		허충길	『선조실록』
광해군7 (1615)	서원 이건 (林岵)	성안의·박선장· 김지선	조찬한	제문(박선장)·이건고유문(오운) / 이건기 (조찬한)·이건상량문(이준)·이건고묘문 (박선장)
1936	경지당·지도 문 중건	영주 유림		
2021.11	서원 재이건			이산면 석포리

이처럼 이산서원은 소수서원과 함께 영주지역을 대표하는 사액서원으로서 위상을 지녔고, 영주 사족들은 이러한 서원에서 향촌 사회 및 인근 군현의 사

88) 朴檉茂(반남)는 朴灑의 아들이며, 鄭述와 鄭經世의 문인이다. 그는 황산 찰방·금부도사 등을 지냈고, 이괄의 난 때 창의하였으며, 정묘호란 때 인조를 호종하였으며, 寒泉書院(1786, 장수희·오운·박회무·박종무 제향)에 제향되었다. 박회무를 비롯한 나이준·진상홍·조관·홍익한·이승언·이상언·이희우 등 55명은 인조 14년(1636) 西川 근처의 부용대에서 芙蓉契를 조직하였다(부용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 『芙蓉契紀念碑略史』, 1996). 부용대는 풍기군수 이황이 서천의 물길이 절벽 아래를 휘감아 도는 풍광을 보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89) 그는 광해군 6년(1614) 榮川郡守 재직 때 박승임의 손자인 朴檉茂의 정자 六友堂에서 창석 李竣과 相韻을 나누기도 하였다(趙繼韓, 『玄洲集』 권6, 次蒼石星巖韻). 이때의 인연으로 이들은 이산서원의 이건기와 이건상량문을 지었을 것이다.

죽들과 통문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이 서원에는 이후 원생들이 계속 입원하여 공부하였고, 원장(유사)은 서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현재 일부 입원록과 유사안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sup>90)</sup>

한편, 이산서원은 당시 개인의 문집 등 각종 출판 장소로 기능하였다. 선조 5년(1572)에는 서원에서 이황의 『聖學十圖』와 『戊辰封事』를 한 권의 책으로 간행하였다. 이것은 황해도 관찰사인 박승임이 이황의 문인으로 영천군수에 부임한 許忠吉(1516~?)에게 출판 경비를 보내, 이곳에서 이를 발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sup>91)</sup>

선조 36년(1603) 5월에는 원장 朴善長이 오온 등과 함께 이산서원에서 박승임의 문집 『嘯臯集』을 수정하여 간행하였다.<sup>92)</sup> 인조 3년(1625) 12월에는 취사 李汝鰲이 원장에 재임하면서 『榮州誌』의 서문을 경지당에서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편찬이 이 서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sup>93)</sup>

서원은 서책의 출판과 함께 각종 자료들을 보관하는 도서관 기능도 수행하였다.<sup>94)</sup> 이산서원에는 사액 당시 또는 그 이후 여러 차례 하사받은 경전을

90) 이산서원의 원장(유사)과 원생의 구성 및 동향은 별도의 글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이 서원의 건립과 제향 및 운영에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일부는 풍기 소수 서원에도 입원하여 공부하였다. 朴承健(1543)·閔應祺(1549)·張壽禧(1549)·南夢鰲(1551)는 이산서원 건립 이전에 입원하였고, 金玠(1563)·宋福基(1565)·李介立(1567)·金隆(1568)·朴善長(1584)·李汝鰲(1585)은 이산서원 건립 이후 이곳에 입원하였다. 안동과 인근에서는 趙穆(1544)·金誠一(1560)·琴蘭秀(1561)·南致利(1564)·張顯光(1581)·金英祖(1600) 등이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공부하였다(『紹修書院 入院錄』).

91) 『嘯臯先生續集』嘯臯先生年譜, 『陶山及門諸賢錄』, 안동 廬江書院(虎溪書院)에서도 이황의 『退溪集』과 『鶴峯年譜』 등 많은 책이 간행되었다(김학수, 1998, 앞의 논문, 458쪽).

92) 『伊山書院誌』, 「日記」(朴善長), 三十一年 癸卯 先生四十九歲(1603).

93) 『榮州誌』, 序文(취사본). 李汝鰲[우계]은 박승임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그의 師友錄에 기록된 문인은 南夢鰲·琴軻·琴應勳·金富倫·金玠·吳澐·金蓋國·朴善長 등이며(영주시지편찬위원회, 『榮州市史』 4, 2010, 449쪽), 사후에 見一祠(1610, 이여빈·이수형 제향)에 제향되었다.

94) 배현숙, 「陶山書院 刻版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2021; 이병훈, 「한국

비롯하여 많은 서책을 소장하였을 것이다. 선조 23년(1590) 이산서원에는 柳雲龍이 현풍현감 때 편찬한 『吳山誌』가 소장되어 있었다. 오산서원은 이것을 아마 중간에 소실하여 후에 이산서원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한다.<sup>95)</sup> 이산서원에 소장되었던 자료들은 고종대 서원 훼철 이후 괴현고택(박승문)으로 옮겨져 보관되었다고 한다. 현재 괴현고택에 있는 『영주지』 역시 이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이산서원에는 원생들이 계속 입원하여 이황이 제정한 院規를 준수하면서 ‘爲己之學’ 위주의 講學과 居齋를 실시되었고<sup>96)</sup>, 이황이 지은 이산원규(12조) 외에 養正堂立約(4조)과 院中立約(6조)을 제정하여 강학에 힘썼다.<sup>97)</sup>

원생들은 『퇴계집』과 『대학연의』의 通讀會는 물론 각종 詩會와 함께 향사례·향음주례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마시에 입격한 원생들은 이곳에서 司馬會를 개최하였다.<sup>98)</sup> 그리고 이산서원은 건립된 이후 인근 소수서원은 물론 도산서원·병산서원·도남서원 등 인근 근현의 서원과 통문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였다.<sup>99)</sup>

---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2021. 徐有燾는 『鏤板考』(1796)에서 영주지역 서원의 출판사향을 열거하였다. 풍기의 옥양서원은 『鏞溪集』, 우곡서원은 『息菴集』, 榮川(영주)의 구강서원은 『嘯臯集』, 오계서원은 『良齋集』, 삼봉서원은 『勿巖集』·『晚翠集』, 의산서원은 『省吾堂集』·『鶴沙集』 등을 간행하였다고 하였다(배현숙, 앞의 논문, 2021, 210쪽 <표 4>).

95) 임근실, 앞의 논문, 2018, 93쪽.

96) 영주지역 사마시 입격자의 분포는 다른 지역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은 생원과 진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주지역은 전체 입격자 508명 가운데 생원이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338명(66.5%)이었다. 이는 이 지역에 제술 공부보다 경학에 더 힘쓴 지역적 학풍 때문이기도 하지만(김의환, 『영주지역 생원·진사 입격자와 사회적 지위』, 『국학연구』 35, 2018, 385~388쪽), 이황이 강조한 ‘爲己之學’의 가르침을 잘 계승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97) 李仁行, 『新野集』 권5, 伊山書院講學所居齋節目; 朴時源, 『逸圃集』 권3, 伊山書院講學所居齋錄序; 宋鼎鉉, 『東渠遺稿』.

98) 全球, 『半巖集』 권1, 伊山書院司馬會拈韻共賦; 『伊山書院誌』乙未十月伊山書院通讀時規約(1775).

99) 『伊山書院誌』伊山通文. 이 통문은 도산서원의 李家淳(1768~1844)에게 보낸 것

그러다가 이 서원은 고종 8년(1871) 대단위 서원 훼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 이때 定齋 柳致明의 문인 金碩奎(1826~1883)가 비통한 심정을 담아 埋板 告由文을 지었는데, 이로써 서원은 건립된 지 313년 만에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sup>100)</sup> 이산서원은 훼손된 이후에도 1919·1920년까지 계속 경지당의 이름으로 도산서원·도강서당 등 인근 군현의 서원들과 통문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01)</sup> 그 후 이산서원은 여러 차례의 부분적 복원을 거쳐, 최근에 옛 건물들을 모두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102)</sup>

한편, 소수서원과 이산서원의 건립·사액은 일찍부터 儒風이 강한 영주지역 사족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서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한 안향과 이를 집대성한 이황을 제향한 서원을 건립한 이후 그들의 학풍을 계승한 문인들과 鄉賢이 계속 배출되자, 다시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을 세웠다. 특히 이 지역에는 이황의 학풍을 계승한 문인들이 계속 한말까지 이어지면서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들을 계속 건립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 사족들이 정치·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학통을 확립하려는 의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 이황이 ‘爲己之學’을 실현할 사람의 藏修處로서 문인과 함께 서원을 건립한 이황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이었다.<sup>103)</sup> 따라서 영주지역 서원 현황을 검토하는 것은 이산서원의 건립

이다.

100) 이때 영남지역 유림 114명이 연명으로 반대 상소를 올렸는데, 영주지역에서도 모두 7명이 참여하였다(이수환, 앞의 책, 378쪽 <표 9-5>).

101) 『伊山書院誌』 伊山書院埋板告由文(金碩奎); 『伊山書院誌』 伊山書院士林通文·陶山書院答伊山書堂文·道岡書堂通伊山敬止堂文.

102) 영주 유림들은 1936년 옛 서원 자리에 경지당과 지도문을 복원하였고, 1995년에는 魏聖紹가 군수로 부임하여 경지당을 다시 중수하였다. 하지만 이 서원은 2008년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 위기를 맞이하였고, 2019년에 증건 공사를 시작하여 훼손된 지 150년 만인 2021년 10월 이산면 석포리 언덕에 건물들이 모두 복원되었다.

103) 鄭述 역시 현풍 道東書院의 원규를 제정하면서 이황이 강조한 ‘爲己之學’과 金宏弼이 강조한 敬 공부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하였다(이수환, 앞의 논문, 2000).

과 제향 및 이건을 주도한 인물들의 위상과 이후 영주지역 사족 사회를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소수서원과 이산서원이 건립된 이후 영주지역에 건립된 서원·사우는 모두 27개이다. 백운동서원(1543, 안향·안축·안보·주세붕)이 가장 먼저 건립·사액되었고, 그 뒤를 이어 명종대에 이산서원(1558, 이황)이 건립되어 사액되었다.

선조대까지 2곳 이상의 서원이 건립된 지역은 안동(4곳)·성주(3곳)·진주(3곳)를 비롯하여 영주(榮川)·예안·의성·경주·밀양·청도·함양은 모두 2곳이었고, 순흥·영천·대구·상주·인동·산청 등은 모두 1곳이었다. 이곳은 모두 퇴계 이황의 문인과 남명 조식의 문인이 거주한 지역과 일치하였다.<sup>104)</sup>

광해군대에는 見一祠(道溪書院, 1610, 이수형·이여빈)와 함께 이산서원의 건립·제향·사액을 주도한 인물을 제향한 鄉賢祠(龜江書院, 1615, 김담·박승임·김륵·김영조)<sup>105)</sup>가 서원 이건과 같은 해에 건립되었다. 효종대에는 三峯書院(1650, 김이흠·이해·김개국·김룡)이 세워졌다. 현종 3년(1662)에는 이산서원에 이어 이황과 그의 문인 황준량을 제향하는 郁陽書院이 건립되었으며, 沔溪書院<sup>106)</sup>(1663, 이덕홍·이시)과 義山書院(1664, 이개립·김응조)도 연이어 세워졌다.

숙종대에는 가장 많은 7개의 서원이 세워졌다. 숙종 2년(1676) 龜灣書院(금인·남몽오·박선장·권호신)를 시작으로 壯巖書院(1691, 홍익한·윤집·오달제)와 泗溪書院(1703, 황효공·나이준) 및 愚谷書院(1704, 류운룡·이준·황심·

104) 이병훈, 앞의 논문, 2018, 91쪽.

105) 鄉賢祠(구강서원)는 원래 향서당 동쪽 칠전에 있었으며, 광해군 7년(1615) 장여직 등이 김륵과 오운에게 품의하여 건립한 것이다. 광해군 13년(1621) 김담 [예안]·박승임 [반남]·김륵 [예안]을 제향하여 봄·가을에 향사하였으며, 제수는 향소가 마련하였다. 현종 10년(1669)에는 金英祖 풍산을 추향하였다(『榮州誌』 奉香里, 祠廟, 鄉賢祠(취사본)).

106)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오계서원을 ‘沔溪書院’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이덕홍이 선조 3년(1579) 녹전면 원천리 시냇가에 정사를 건립한 곳인데, 현종 4년(1663) 그가 제향되면서 道存祠로 불리다가 숙종 17년(1691) 오계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김광엽)이 건립되었고, 丹溪書院(1712, 김담)과 世德祠(1715, 이홍상·이개립) 및 錦城壇(成仁壇, 1719, 금성대군·이보흠)이 차례대로 세워졌다.<sup>107)</sup> 그리고 경종대에는 雲谷書院(1723, 장신·장여화)이 건립되었고, 영조대에는 九臯書院(1753, 서한정)과 魯溪書院(1788, 진중길·한산두)이 세워졌다.

서원이 이렇게 하나 둘씩 세워지자 그 폐단도 증가하였다. 이때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疊設과 濫設에 따른 良役의 폐단이었다. 피역의 폐단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긴요하지 않은 서원은 혁파하라고 하였으며<sup>108)</sup>, 효종 8년(1657) 徐必遠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숙종 21년(1695)에는 朴世采가 서원은 藏修處가 아니라 모두 祭享處로 변한데다가 피역의 폐단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여 신설과 첩설이 금지되었다.<sup>109)</sup> 이후 숙종 37년(1711)과 39년(1713)에도 조치가 있었으며, 급기야 영조 17년(1741)에는 전국에서 173개의 대단위 서원 휘철령이 내려졌다. 경상도 서원은 전체의 1/3이 조금 안 되는 52개의 서원이 휘철되었으며, 영주지역에서는 순흥의 九峯精舍(文山書院) 등이 이때 휘철되었다.<sup>110)</sup>

이러한 대단위 서원 휘철은 영조의 노·소론 조제보합론에 입각한 탕평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면서 단행된 조치였다. 영조는 기유처분과 신유대환 이후 김재로·송인명·조현명의 三相體制를 갖추면서 君師論에 입각하여 山林의 권위를 부정하였고, 이조전랑의 通淸權과 翰林回薦法을 폐지하는 등 왕권의 제약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였다.<sup>111)</sup>

107) 이 시기 서원의 건립과 사액은 봉당정치와 관련하여 당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정치·사회적 역할-사람활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한국사학』 10, 1989: 설석규, 「肅宗朝 院宇動向과 朋黨의 사회적 기반」, 『국사관논총』 34, 1992).

108) 『宣祖修正實錄』 권29, 宣祖 28년 7월 壬申.

109) 『孝宗實錄』 권19, 孝宗 8년 7월 己酉; 『書院叢錄』 권3, 甲戌(1694) 10월 6일; 『書院叢錄』 권3, 乙亥(1695) 6월 3일.

110) 정만조, 「英祖 17年の 祠院휘철」, 『한국학논총』 9, 1987, 111쪽 및 114~115쪽 <표 2>.

111) 정만조, 「영조대 정국추이와 탕평책」,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

그러나 이러한 조정의 거듭된 금령과 훼손에도 서원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정조대에도 이곳에는 5개의 서원이 세워졌는데, 山泉書院(1779, 송석충)과 黽湖書院(1780, 권정·권두문·김대현·김봉조·권창진)에 이어 寒泉書院(1786, 장수희·오운·박희무·박종무)과 梧川書院(1786, 성이성·김정·정옥)이 건립되었다. 순조대에는 方山書院(1808, 전희철·전익희·전명룡)과 龍淵書院(1824, 안부·안우기·안목·안원승·안원·안중약·안리) 및 梧山書院(1834, 김난상)이 세워졌다.

이 외에도 건립 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陶阜書院(미상, 황충한·민응기·송홍경·권준신)과 鳳溪書院(미상, 배응경·배상익)도 있었다. 이들 서원의 건립 시기를 세기별로 구분하면, 16세기에는 2개가 건립되었고, 17세기에는 8개가 세워졌으며, 18세기에는 가장 많은 12개가 건립되었고, 19세기에는 3개가 세워졌다. 고종대에는 1~4차에 걸친 대단위 서원 훼손로 순흥에서는 12개, 영천과 풍기에서는 각각 16개와 4개의 서원·사우가 훼손되었다가<sup>112)</sup>, 결국 소수서원만 남기고 모두 훼손되었다.

이러한 영주지역에 건립된 서원 현황은 뒤에 <첨부>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 지역 서원의 특징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서원들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書齋·書堂·精舍 형태에서 출발하여, 후에 도학자나 鄉賢을 제향함으로써 書院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다.

이 지역에는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이 가장 건립·사액되었지만, 사액서원은 2개에 불과하며, 이것은 모두 초창기에 건립된 서원이었다. 이것은 영주지역이 남인의 고장이므로 봉당정치의 전개에 따라 정권에서 소외된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후 영주지역에는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으나, 예안의 李滉·趙穆, 안동의 金誠一·柳成龍, 상주의 鄭經世, 성주의 鄭陟·張顯光과 같은 이름 높은 도학자<sup>113)</sup>가 없었다는 점도 그 이유라고 하겠다.

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김현정, 「17~18세기 銓郎階制 운영과 1741년 銓郎法 개정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101, 2022.

112) 이수환, 「大院君의 院祀毀撤과 嶺南儒疏」, 『교남사학』 6, 1994, <표 1>.



또한 이 지역에는 17세기 이후 동족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문중이 문중 사우를 건립하였다가<sup>114)</sup>, 후에 서원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서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서원의 건립과 운영 및 位次를 둘러싼 鄉戰이 크게 전개되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다.<sup>115)</sup>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西人系 서원이 건립되어 당파와 가문이 연결된 대립이 있었고<sup>116)</sup>, 일부의 서원은 적·서 신분 사이 入院과 운영을 둘러싸고 대립하기도 하였다.<sup>117)</sup>

하지만 이 영주지역에서는 봉당에 따른 심한 대립은 거의 없었고, 서원의 운영을 둘러싼 대립이 일부 있었다. 소수서원에서는 유사와 원생의 대립이 있었고, 순흥 안씨들이 몇몇 사건 때 남인계와 다른 태도를 보였으며, 풍기 郁陽書院의 黃俊良 출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sup>118)</sup> 특히 소수서원에서는 서원 원생의 입원 자격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하였다.

서원 건립 당시 주세붕이 사마시 입격자로 원생 자격을 제한하였는데, 광해군 5년(1613) 李堉이 풍기군수에 부임하여 처음 이의 개정을 제기하였고, 이후 이를 둘러싸고 거의 100년 동안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숙종 15년

113) 李萬敷 『息山集』 권18, 退溪淵源筆帖跋.

114)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 현실』 48, 2003;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115) 김의환, 앞의 논문, 2008, 57~62쪽.

116) 정만조, 「영조 14년의 안동 金尙憲書院 건립시비」, 『한국학연구』 1, 1982;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2007; 정진영, 「18세기 서원 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 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채광수·이수환, 「창녕성씨 廳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 8, 2019; 채광수, 「영남 소론계 가문의 존재와 계승양상-봉화 진주강씨 姜恪 가문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39, 2020.

117) 이수환, 「陶山書院 院任職 疏通을 둘러싼 嫡庶 간의 鄉戰」, 『민족문화논총』 12, 1991; 이수환, 「18~19세기 경주 玉山書院 院任職 疏通을 둘러싼 嫡庶 간의 鄉戰」, 『고문서연구』 16·17합집, 2000.

118) 정만조, 앞의 논문, 1989, 92~93쪽.

(1689)에는 罷格 조치가 있었고, 22년(1696)에는 復格되었으며, 45년(1719)에 다시 罷格하여 입원생의 자격을 확대하였다.<sup>119)</sup> 이처럼 이 지역에서는 당파 사이의 향전은 없었고, 단지 서원의 운영을 둘러싼 대립이 일부 있었다. 이것은 이 지역이 근처 安東과 함께 강하게 퇴계 이황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 南人의 고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위치를 둘러싼 서원의 대립은 일부 있었다. 山泉書院과 寒泉書院, 梧川書院과 梧山書院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조 3년(1779)에 건립된 산천서원은 처음 宋碩忠[야성]·장수희[인동]·오운[고창]·박회무·박종무[반남]를 제향했으나, 정조 10년(1786) 송석충<sup>120)</sup>을 제외한 4명의 후손들이 옛 산천서당 터에 위패를 옮겨 새로운 한천서원을 건립하였다. 정조 10년(1786)에 건립된 오천서원은 처음 김난상[청도]·성이성[창녕]·김정풍[산]·정옥[청주]을 제향했으나, 순조 34년(1834) 김난상의 후손이 그의 위패를 옮겨 오산서원을 건립하였다.

이 지역에서 유일한 서인계 서원은 숙종 17년(1691) 洪翼漢·尹集·吳達濟를 제향한 壯巖書院이었다. 영조대 정언 이수언은 서인계 현황을 언급하면서 홍익한(1586~1637)[남영]과 洪暹[黃暹(1544~1616), 창원의 후손이 순흥에 살고 있다고 언급하는 정도로 거의 없었으며<sup>121)</sup>, 이 외에 대부분의 서원은 남

119) 윤희면, 『紹修書院 罷格論爭』, 『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 1994.

120) 宋碩忠[야성]은 金宗直의 문인으로 생원이 되었으나, 무오사화 때 처항(전희철의 딸)인 이곳에 입학하여 평생 출사하지 않았으며, 후에 山泉書院(1779)에 제향되었다. 그의 묘갈명은 외손서 박승임이 지었고, 大山 李象靖이 봉안문과 상향축문을 지었다.

121) 『承政院日記』 875책, 英祖 14년 7월 壬申(22일). 洪翼漢[남영]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15세에 백부에게 입양되어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한양·영주를 오가며 살다가 인조 14년(1636) 부용계를 조직하였으며,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하다가 순절하였다. 羅以俊의 손자 羅學川[수성]은 영조 4년 무신란 때 진압에 앞장섰고(『英祖實錄』 권17, 英祖 4년 4월 丙戌), 나학천의 조카 羅萬齡은 영조 14년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 때 참여하였으며, 박승임의 6세손이자 박회무의 고손 朴泰來(1673~1738) 역시 여기에 참여하였다(한국국학진흥원, 『法城日記』 1738년 4월 2일).

인계 성향을 줄곧 견지하였다고 하겠다.

#### IV. 맺음말

榮州(榮川)의 사족들은 일찍부터 학문적 열망이 높아 매년 여름철에 醫局(濟民樓)을 잠시 빌려 함께 학문을 토론하였다. 이때 지역 사족들은 물론 약관의 퇴계 李滉·李滄 형제도 함께 참여하여 서로 교유하였다. 제민루에서 강학은 공간적·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였고, 사족들은 풍기의 白雲洞書院(紹修書院) 건립·사액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서원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 서원의 건립은 朴承任·張壽禧 등 이황의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이때 이황은 건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지도하였다. 이들은 명종 13년(1558) 7월부터 11월까지 군수 安瑄의 지원 아래 공사를 진행하여, 이산면 번천 고개(樊峴)에 32칸의 이산서원을 건립하였다. 이황은 ‘爲己之學’의 이념에 따라 강당은 敬止堂이라고 하였고, 동재와 서재는 誠正齋와 進修齋라고 하였으며, 누대는 觀物臺라고 이름하였다.

이황은 건립 당시 제향 인물이 없더라도 서원의 격식과 규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書院’으로 할 것을 자문하였다. 이에 서원 이름은 ‘山伊村’이라는 지명과 ‘志伊學顏’의 의미를 덧붙여 ‘伊山書院’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황에게 「伊山書院記」와 「伊山院規」를 받아 서원 운영의 규칙을 마련하였다. 이 원규는 영남 남인계의 서원은 물론 일부 서인계 서원의 원규 제정에 典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영주지역 사족들은 선조 6년(1573) 李滉의 3년상이 끝나는 시점에 祠廟를 건립하여 그를 제향하였다. 이 서원은 이제 처음 서재 형태의 서원에서 벗어나 도학자를 제향한 서원으로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이것은 예안의 陶山書院보다 1년 앞서 이황을 최초로 제향(사액)한 서원이라는 점과 함께, 공

자·주자·정몽주·동방 5현(이황)으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道學的 正統 확립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였다.

이산서원은 이황을 제향한 선조 6년(1573) 11월 곧바로 조정으로부터 '伊山'으로 편액을 하사받았다. 이 서원은 이제 국가의 공인을 받는 서원으로 격상됨과 동시에, 이후 이황을 제향한 陶山書院·廬江書院(虎溪書院)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처음 이산서원의 터는 좁고 습하며 물이 스며 나와 자주 건물들이 훼손되었다. 이에 사족들은 광해군 7년(1615) 군수 趙繼韓의 지원 아래 成女義·朴善長·金止善이 차례로 원장이 되어 이산면 수구리(林丘)에 건물을 이전하였다.

이산서원은 평소 원생들의 講學과 居接은 물론 출판기능도 수행하였다. 선조 5년(1572)에는 황해도 관찰사 박승임의 지원으로 이황의 「聖學十圖」와 「戊辰封事」를 한 권의 책으로 간행하였고, 이후 박승임의 『嘯臯集』과 李汝積의 『榮州誌』 등을 간행·편찬하였다.

이러한 이산서원의 건립·사액은 이후 이 지역 사족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서원을 건립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광해군 7년(1615)에는 이산서원의 건립·제향·사액을 주도한 인물을 제향하는 鄉賢祠(龜江書院)가 세워졌으며, 현종 3년(1662)에는 다시 이황을 제향한 郁陽書院이 세워지는 등 모두 28개의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들 서원은 서인계 壯巖書院(1691)을 제외하고 모두 남인계 성향을 계속 견지하였다.

〈첨부〉 영주지역의 서원 건립 현황

	서원	건립 (*사액)	제향 인물	소재지	비고
1	紹修書院 (사액)	증종38 (1543) * 명종5 [1550]	안향(1543) / 안축·안보(순흥)(1544) / 주세붕[상주]	순흥면 내죽리	백운동서원
2	伊山書院 (사액)	명종13 (1558) * 선조6 [1573]	이황[진성] (1573)	이산면 내림리	군수 안상 건립 이황(기문·원규)
3	道溪書院 (見一祠)	광해2 (1610)	이수형[우계]·이여빈[우계]	순흥면 도촌리	
4	龜江書院 (龜隱齋祠)	광해7 (1615)	김담[예안]·박승임[반남]·김륙[예 안](1621) / 김영조[풍산](1669)	휴천동 (지천대 이전)	광해7(1615) 향현사 건립 광해13(1621) 제향 영조25(1749) 서원 승격
5	三峯書院	효종1 (1650)	김이음[함창]·이해[진성]·김개국 [연안]·김룡[함창]	이산면 신암리	삼봉촌 건립 효종5(1654) 제향
6	有陽書院	현종3 (1662)	이황[진성]·황준량[평해]	풍기읍 옥금동	
7	汙溪書院	현종4 (1663)	이덕홍[영천] (1663) / 이시[영천](1724)	평은면 천본리	선조3(1570) 오계정사 현종4(1663) 도촌사 숙종17(1691) 서원 승격
8	義山書院	현종5 (1664)	이개립[경주](1664) / 김응조[풍산](1799)	장수면 의산리	광해2(1610) 서당 건립 현종5(1664) 절효사 숙종5(1679) 서원 승격
9	龜灣書院	숙종2 (1676)	금인[봉화]·남몽오[영양]·박선장 [무안]·권호신[안동]	순흥면	기영사 영조42(1766) 서원 승격
10	壯巖書院	숙종17 (1691)	홍익한[남양]·윤집[남원]·오달계 [해주](1691)	상망동	숙종17(1691) 충절사 영조24(1748) 서원 승격
11	泗溪書院	숙종29 (1703)	황효공[창원]·나이준[나주](1703)	망곶리 (안정면 대룡산)	효종5(1654) 사계정사 숙종29(1703) 서원 승격
12	愚谷書院	숙종30 (1704)	류운룡[풍산]·이준[홍양]· 황섭[창원]·김광엽[순천]	부석면 우곡리	
13	丹溪書院	숙종38 (1712)	김담[예안]	봉화군 문단	광해10(1618) 문계서당 숙종38(1712) 서원 승격
14	世德祠	숙종41 (1715)	이홍생[경주]·이개립[경주]	장수면 갈산리	
15	錦城壇 (成仁壇)	숙종45 (1719)	금성대군[전주]·이보흠[영천]	순흥면 내죽리	이기용[우계] 건립 주도
16	雲谷書院	경종3 (1723)	장신인[동] / 장여화[인동] (1822)	평은면 금강리	현종8(1667) 서당 건립 숙종46(1720) 서원 승격

17	九臯書院	영조29 (1753)	서한정[대귀]	단산면 사천리	
18	魯溪書院	영조30 (1754)	진중길[풍기]·한산두[청주]	봉현면 노좌리	노계사 정조10(1786) 서원 승격
19	山泉書院	정조3 (1779)	송석충[야성]	문정리 (초곡)	별묘 건립 정조10(1786) 장수희·오 운·박회무·박종무 추향 → 다시 옮김
20	鷗湖書院	정조4 (1780)	권정[안동](1780) / 권두문[안동] ·김대현[풍산]·김봉조[풍산]·권 창진[안동](1812)	구산리	경절사(구호리사) 순조12(1812) 4명 추향
21	寒泉書院	정조10 (1786)	장수희[인동]·오운[고창]·박회무 [반남]·박종무[반남]	문정리	산천서원(4명)의 위패 옛 서당에 옮김
22	梧川書院	정조10 (1786)	성이성[창녕]·김정[풍산]·정옥[청 주]	영주시	순조34(1834) 김난상을 오산서원에 옮김
23	方山書院	순조8 (1808)	전희철[옥천]·전익희[옥천] / 전명룡[옥천](1808)	하망리 (방산)	인조11(1633) 서당 순조8(1808) 서원 승격
24	龍淵書院	순조24 (1824)	안부·안우기·안목·안원승·안원· 안종약·안리[순흥]	안정면 용산리	용연사 건립
25	梧山書院	순조34 (1834)	김난생[청도]	가흥동	오산사 건립(신도비) 순조34(1834) 김난상을 오천서원에서 옮겨옴
26	陶臯書院	미상	황충한[창원]·민응기[여흥]·송홍 경[야성]·권준신[안동]	부석면 우곡리	
27	鳳溪書院	미상	배응경·배상익[성주]	몰야면 두문리	상망동에서 순흥(몰야면 두문리)에 이전

\* 서당·정사의 건립 년도는 처음 사묘가 건립되고 제한한 시기를 기준으로 함.

## 【참고문헌】

### 1. 자료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列邑院宇事蹟』·  
『增補文獻備考』·『典故大方』·『書院叢錄』·『紹修書院叢錄』·『紹修書院入院錄』·『陶  
山及門諸賢錄』·『嘯臯先生續集』.

李 滉 『退溪全書』.

朴承任 『嘯臯集』.

金 功 『栢巖集』.

李 垞 『蒼石集』.

趙繼韓 『玄洲集』.

金應祖 『鶴沙集』.

金英祖 『忘窩集』.

朴善長 『水西集』.

吳 滂 『竹暈集』.

朴時源 『逸圃集』.

李仁行 『新野集』.

全 球 『半巖集』.

金 垞 『溪巖日錄』.

姜 翼 『介庵集』.

鄭經世 『愚伏集』.

宋世寅 『十拙軒逸稿』.

宋鼎統 『東渠遺稿』.

동양대 전통문화연구소 역, 『국역 榮州三邑誌』, 2012, 소수박물관.

부용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 『芙蓉契紀念碑略史』, 1996.

영주문화원, 『濟民樓志』, 1996.

영주향교, 『榮州脩校誌』, 2003.

이산서원복설추진위원회, 『伊山書院誌』, 흥익문화사, 2010.

한국국학진흥원, 『法城日記』, 2008.

## 2. 저서

- 김자운,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영주시사편찬위원회, 『榮州市史』, 영주시, 2010.  
영주시·영풍군,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1983.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8.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정수환·김학수 외, 『소수서원 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 3. 논문

-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8, 2019.  
김시황, 「금계 황준량 선생과 풍기지역 퇴계학맥」,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김의환, 「영주의 서원 현황과 義山書院의 건립」, 『역사와 실학』 36, 2008.  
김의환, 「경주이씨 菊堂公派의 영주 정착과 향촌사회 활동」, 『한국학논총』 37, 2012.  
김의환, 「영주지역 생원·진사 입격자와 사회적 지위」, 『국학연구』 35, 2018.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강화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2019.  
김종석,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子的 범위」, 『한국의 철학』 26, 1998.  
김학수, 「廬江書院과 영남학동-17세기 초반의 廟享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김학수, 「박승임의 학문적 지향과 16세기 영주지역의 '集團知性」, 『영남학』 70, 2018.  
김 호, 「16~17세기 조선의 지방 醫局 운영- 경북 영주 濟民樓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7, 2018.  
안병걸·김용현, 「영남학맥의 흐름과 인물」, 『퇴계학』 13, 2002.  
윤희면, 「紹修書院 罷格論爭」,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1994.  
이광우,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2021.



- 이광우,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 『한국서원학보』 14, 2022.
- 이병훈,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2018.
-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2011.
- 이수환, 「영남지역 서원건립 상황과 특징」, 『민족문화논총』 78, 2021.
- 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2018.
- 임근실, 「柳雲龍의『吳山誌』 편찬 의도」, 『한국서원학보』 2, 2013.
- 정만조, 「朝鮮書院의 成立過程－중종년간 士林을 위한 敎學進興策과 관련하여」,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그의 敎化論과 관련하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일조각, 1981.
- 정만조, 「영조 14년 안동 金尙憲書院 건립시비－탕평하 노·소론 분쟁의 일단」, 『한국학연구』 1, 1982.
-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정치·사회적 역할－사람활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한국사학』 10, 1989.
- 정만조·김의환·지두환, 「소수서원」, 『한국의 서원유산』 1, 한국서원연합회, 2014.
- 정만조, 「영조대 정국추이와 탕평책」,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조준호, 「퇴계 이황의 서원 건립활동과 서원론의 출현」, 『역사문화논총』 2, 2006.
-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 8, 2019.
-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상주 道南書院 詩會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2021.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 경향－16세기~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3, 2021.

Abstract

## Establishment of Isan Seowon(伊山書院) in Yeongju and the Meaning of Ancestral Rites for Toegye(退溪) Lee Hwang(李滉)

Kim, Eui-hwan\*

The literatis of Yeongju(榮州) had high academic zeal from early on, so they borrowed a public hospital(濟民樓) for a while and studied together every year. At this time, local literatis and brothers Lee Hwang and Lee Hae also participated and socialized with each other. In Jeminru(濟民樓), education for Confucian students was uncomfortable in many ways, so it was necessary to secure a stable space. Accordingly, in the 13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1558), with the support of county governor Ahn-sang(安瑞), they built Isan Seowon(伊山書院) with 32 rooms at Beoncheon Pass in Isan-myeon.

This was led by Yi Hwang's literary figures such as Park Seung-im(朴承任) and Jang Su-hee(張壽禧). At this time, Lee Hwang actively consulted and gui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owon.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of 'a study for research, trianing and education of Confucian scholars and students (爲己之學)', he named the lecture hall Gyeongjidang(敬止堂), the east residential hall(東齋) and the west residential hall(西齋), Seongjeongjae(誠正齋), Jinsoojae(進修齋) and pavilion Gwanmuldae(觀物臺), and even wrote a tablet.

Lee Hwang consulted on making it a 'Seowon' because it had the size of a

---

\* Professor, Office of the Liberal Arts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euisan69@naver.com

Seowon even if there is no ancestral person to be performed ancestral rites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The name of the Seowon was 'Isan Seowon(伊山書院)' according to the name of the place name 'Sanichon(山伊村)' and the meaning of 'Jiyi Hakan(志伊學顏)'.

And they enacted the operation rules of the Seowon after receiving 「Isanseowongi(伊山書院記)」 and 「Isanwongyu(伊山院規)」 from Lee Hwang. This became a model for the enactment of the operation rules of the Seowon of not only Namin Seowons in Yeongnam, but also some Seoin Seowons.

In the 6th year of King Seonjo's reign(1573), The literatis of Yeongju held a memorial service for Lee Hwang at the Seowon. This Seowon has now moved away from a study-type academy and has elevated its status further as a academy dedicated to enshrine for Confucian scholars. This, along with the fact that it was the first academy to hold a memorial service for Lee Hwang, had the meaning of establishing the Confucian authenticity leading to Confucius Zhu Xi(朱子)-Jeong Mong-ju(鄭夢周)-Lee Hwang(李滉) for the first time.

In November, the 6th year of King Seonjo's reign(1573), Isan Seowon received the name of 'Isan' and established itself as a representative academy of the region and in th 7th year of Gwanghae-gun's reign(1615), it was relocated to Suguri. Also, this Seowon were published Lee Hwang's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聖學十圖)」 and 「Appeals submitted in the year Mujin(戊辰封事)」 and 『Sogojib(嘯臯集)』 and 『Yeongju(榮州誌)』 were compiled.

The establishment and official approval(賜額) of Isan Seowon served as an impetu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eowon. Since then, many Seowons have been established, such as Hyanghyeonsa(鄉賢祠, 龜江書院), which holds ancestral rites for the person who led the establishment and ancestral rites of this Seowon and Wook yang Seowon, which held ancestral rites for Lee Hwang. All Seowons in this area adhered to the Namin except for the Jangam Seowon(壯巖書院)(1691).

Key word : Yeongju(榮州), Isan Seowon(伊山書院), Lee Hwang(李滉), a study for controlling the mind(爲己之學), Isanwongyu(伊山院規), Isanseowongi(伊山書院記), Park Seung-im(朴承任), Gyeongjidang(敬止堂)

논문 투고일: 2022. 11. 27 심사 완료일: 2022. 12. 15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숙종대 시호(諡號) 수여 방식의 변화

김 현 자\*

- I. 머리말
- II. 不待狀 시호의 수여
- III. 숙종의 議諡 결정권 확대
- IV. 숙종대 不待狀 贈諡의 양상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贈諡 사례 가운데 시장을 기다리지 않은 사례[不待狀], 즉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시호를 수여한 특이사례를 분석하였다. 이황은 사망 후 그 집안에서 講諡하지 않았는데, 국왕과 관료들의 논의를 거쳐 절차를 생략하고 시호를 받았다. 이후 이러한 사례는 사람의 공론에 따라 이황을 전거로 도학자들에게 행해졌고, 國是에 따라 척화인에게도 허락되었다. 受諡者 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시호를 받은 인물은 선조~철종대 152명으로, 같은 시기 시호를 받은 전체 인원인 1,105명임을 고려한다면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증시 행정은 본래 『經國大典』의 관품 규정에 따라 시행되다가 조선중기를 지나며 議諡에 참여하는 관원의 동향에도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명종대 삼시를 중심으로 진출한 사림이 홍문관에 많이 제수되자 惡諡를 염려한 훈구대신이 청사하지 않은 것, 인조반정 이후 서인계 인사들이 학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도학자들의 증시를 주도한 것 등이다.

그러나 숙종대에 이르러 국왕의 의지가 의시에 더욱 많이 개입되기 시작하였다. 숙종 즉위를 전후하여 宋浚吉, 宋時烈, 李選으로 대표되는 서인들은 청시 상소, 諡狀 찬술 등을 통해 시호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더불어 송시열의 이론을

\* 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four 참여대학원생 / khj941010@gmail.com

근거로 태조의 시호 追上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후 숙종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 충신 현창에 시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같은 맥락에서 不待狀 증시 또한 자격이 완화되고 대상이 다양해졌다.

주제어 : 不待狀 贈諡, 贈諡, 諡號, 肅宗, 李滉(1501~1570)

## I. 머리말

1573년(선조 6) 11월 26일, 국왕 선조와 영의정 盧守愼 및 金誠一, 李珥 등 대소 관료들이 모인 경연 자리에서 李滉에게 諡號를 내릴 것을 논의하였다.<sup>1)</sup> 이황은 1571년(선조 3) 사망하였으나,<sup>2)</sup> 가문에서 시호를 요청하지 않아 贈諡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이·김성일·金宇顥 등은 요청이 없었어도 시호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왕 선조와 노수신은 법의 훼손과 뒷날의 폐단을 우려해 반대하였다. 때문에 이 논의는 곧바로 결정되지 못하였고 1576년(선조 9)에야 이황에게 ‘文純’이란 시호가 내려졌다.<sup>3)</sup>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행장을 제출해야 시작되는 증시 행정의 특성상, 집안의 요청도 행장 작성도 없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특별한 사례였다.

한편 조선시대 시호의 자격은 국초 ‘친공신 및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관료’로 규정되었다.<sup>4)</sup> 이는 개인적인 명예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고치거나 없애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모범을 창출하는 장치이기도 하였다. 특히 윤희 또는 내세 등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던 성리학 사회에서 역사 기록을 통한 포폄은 종교성까지 띠게 된다. 즉 자신이나 사회에 대한 평가를 그

1) 『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11월 26일 임인.

2) 『退溪先生年譜』 권2, 「年譜」2.

3) 『宣祖修正實錄』 권10, 선조 9년 12월 1일 기미.

4) 『經國大典』 吏典 「贈諡」.

시대 또는 후손이 담당한다는 인식 속에서 죽음 후에 두려워할 것은 지옥이 아닌 살아있을 때의 행위에 대한 사후의 평가가 되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행적의 기록과 포폄 자체인 시호가 지니는 부담이 모든 관료에게 적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황과 같은 受諡者 측의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증시는 이후에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숙종대를 전후하여 선조의 우려대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숙종대는 정치적 사건과 논의가 많았던 시기로, 이때에 국왕이 봉당 사이의 시비를 가리는 판정자로서 당론을 배격하며 영·정조대의 정치 질서 전형을 마련하였다고 이해된다.<sup>6)</sup> 숙종이 주도하였던 탕평정치, 그 기저에 작용했던 공론과 군신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sup>7)</sup> 특히 숙종대에는 단종의 복위와 관련 제신의 추송, 척화충신·전쟁 공신 등 다양한 대상에게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존주의리와 국왕의 역할 및 의지 강화로 설명한 연구도 주목된다.<sup>8)</sup> 이 과정에서 사우 건립과 증직·증시 등의 현창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글은 그 가운데 시호 수여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청 없이 진행된 시호 수여, 즉 不待狀 증시는 숙종의 적극적인 議諡 개입과 함께 자격의 변화를 맞게 되어 그 대상이 다양해지고 사례가 늘어났다.

숙종의 증시 활용은 후대 국왕들에게 수용·확대되어 자신이 바라는 인물상을 현창할 수 있게 되었다. 이황과 같은 뚜렷한 자취를 남긴 학자뿐 아니라

5) 오항녕, 「성리학적 역사관의 성립 : 초월에서 현실로」, 『조선시대사학보』 9, 조선시대사학회, 1999.

6) 정경희, 「肅宗後半期 蕩平政局의 變化」, 『한국학보』 79, 일지사, 1995.

7)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카넷, 2003. 1부 1장; 이상식, 『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등.

8) 윤정, 『18세기 국왕의 '文治' 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김성희, 『朝鮮 肅宗의 君臣義理 定立과 尊周大義』,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등.

후손이 없어 시장을 제출할 수 없는 인물, 죽은 지 오래되어 정치적으로 재평가된 인물, 講誼하지 말라 유언한 인물 등 다양한 대상에게 요청 없는 시호의 수여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증시의 남발이 심한 고종대 이후를 논외로 하면 선조~철종대 요청 없이 시호를 받은 인물은 152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당대 조정에서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인물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를 지나며 증시 제도는 국가와 왕실이 기대하는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으로 변화한다. 숙종대 요청 없는 시호 수여의 증대는 세도정치 시기 이후 증시 제도가 훼손되고 시호가 남발되는 양상을 야기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 II. 不待狀 시호의 수여

조선에서는 실직 정2품 이상의 신하가 사망하면 생전의 행적을 평가하여 시호를 내려주었다. 이러한 증시의 절차는 사망자의 집안에서 行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행장은 특정 인물의 인적 사항과 생전의 행적을 자세히 적은 글로 시호 三望을 논의하는 기초자료였다.<sup>9)</sup> 17세기 이후로는 가문의 행장을 쓰지 않고 시호 의정을 위해 별도로 諡狀을 짓는 절차가 추가되었는데,<sup>10)</sup> 이 글에서는 시장으로 통일하여 서술하겠다.

9) 명나라 徐師曾(1517~1580)에 따르면 행장은 사망자의 가계, 이름, 관작과 향리, 행적 등을 상세히 적는 것으로 그 기능은 태상에 시호를 청하기 위한 것, 사관에게 기록하게 하기 위한 것, 묘지·묘비·묘표를 짓는 것의 세 가지였다고 한다(徐師曾, 『文體明辨』 3, “蓋具死者世系、名字、爵里、行治、壽年之詳。或牒考功太常使請諡。或牒史館請編錄。或上作者乞墓誌碑表之類。皆用之。”) 중국에서 시호가 국가의 관리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시호전문기구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시호 신청서로 행장을 짓게 된 것이다. 楊向奎·張蒙, 「請諡制度演變對行狀文體的影響」, 『學術交流』, 2020.

10) 김현지, 「17세기 諡狀의 출현과 의미」,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2022.



조선시대 시호를 내릴 때에는 처음 예조에 시장을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봉상시·홍문관 등 여러 관청의 이관을 거쳐 복합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했다.<sup>11)</sup> 이 글에서 다룰 증시 사례들은 국왕이 다양한 요인으로 시호를 요청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시호 의정을 명하는 경우이다. 본래 규정된 절차로는 처음 본가에서 시장을 예조에 제출해야만 시호 의정이 시작된다. 자격을 충족하는 인물들이 죽었을 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청시를 유도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명종대 惡諡가 만연한 풍조로 인해 청시가 극도로 줄었고 이에 시호 의정이 폐지되다시피 하였다는 기록을 보아,<sup>12)</sup>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시장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李肯翊의 『燃藜室記述』 별집에 시호 의정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래의 항목이 주목된다.

본가에서 지은 시장을 먼저 예조에 바치면 예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조회를 마치고 題辭를 써서 봉상시로 보내 다시 홍문관으로 전송하여 날짜를 정하고 합좌한다. 봉상시 정이 여러 신료와 합석하여 글자를 찾아 모으며, 홍문관의 응교가 오면 또한 정한 바의 시호 후보를 내어놓고, 돌려보며 가부를 논한 다음에 諡望을 의정하여 예조에 이첩한다. 의정부와 兩司의 署經을 거쳐 이조에서 입계하여 낙점을 받아 回覽한 후에 시장을 도로 봉상시에 돌려주어 간직하도록 한다. 만약 특교로써 시호를 주게 되면,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봉상시에서 합좌할 날짜를 홍문관에서 바로 정하였다.<sup>13)</sup>

- 11) 증시 행정의 절차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증시(贈諡) 행정」, 『古文書研究』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김동진, 「諡號 조선시대 官僚形 인물의 死後 品格(1)」, 『영주어문』 39, 영주어문학회, 2018.
- 12) 『春官通考』 권61 「臣諡」, “我朝國初諡法爲重, 二品實職以上及功臣之外, 雖有淑行大功, 亦不許賜諡. …(중략)… 或以揚, 或以荒, 或以惑, 亦不能辭. 近世此風頓革, 甚恐得惡諡, 初不狀請, 終則並與名臣大功者而不請諡.”
- 13) 李肯翊 『燃藜室記述』 별집 권10, 官職典故 「議諡」, “本家先以所撰題狀呈禮曹, 禮曹所說題付奉常寺, 傳送弘文館定日合坐. 奉常寺正與諸僚開坐集字, 應教至亦出所定諡草, 輪送可否, 議定三望, 移牒禮曹. 署經于政府兩司, 自吏曹入啓受點, 回公後, 諡狀還付太常藏置. 若特授他諡, 則不待題狀, 直自弘文館定日合坐太常.”

위 기록은 일반적인 증시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 ‘특교로 시장을 기다리지 않는 증시’를 언급하였다. 이는 시호를 받을 만한 인물의 집안이 시장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즉 후손이 없거나 시장을 짓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을 경우 앞서 있었던 선조대의 이황 사례를 들어 왕명으로 시호를 내리게 된 사례를 가리킨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증시 방식을 ‘不待狀謚議’라 언급하였다.<sup>14)</sup> 기록상 ‘不待狀而賜謚’, ‘不待謚狀而賜謚’, ‘無謚狀賜謚’ 등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수시자 측의 시장 제출을 기다리지 않았다’의 의미 일 뿐 시장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sup>15)</sup>

국가는 시호를 내림으로써 신하의 명예를 높여주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선한 행동의 권장 효과를 기대한다. 따라서 조선 전 시기를 거쳐 美謚를 받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으며, 이에 따라 시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조에 대한 청시 운동도 조선후기까지 꾸준히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가에서 먼저 시호를 제정해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특전이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을 제출하는 절차 없이 바로 시호를 받은 최초의 인물은 李滉이었다.<sup>16)</sup> 이황은 종1품의 우찬성에 제수된 바 있어 증시 자격을 충족하는 인물인데, 儒宗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아 시장의 제출 없이 바로 시호를 받았다. 당시 이황의 행장이 없었는데, 盧禎과 金誠一이 행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황에게 시호 주기를 청하였고 盧守愼과 특진관·참찬관 이하는 행

14) 이는 아마 고종대 승정원의 업무를 정리한 『銀臺條例』에 ‘不待狀謚議’라 명명되어 있어 이를 가리킨 듯한데, 謚諭와 謚議는 혼동된 것 같다. 朴洪甲, 「조선시대의 謚號制度」,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金潤坤學徒受停年紀念論叢』, 2001; 이한창, 「謚號制의 來歷과 李石灘의 贈謚 事例」,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김현지, 앞의 논문, 2022 등.

『銀臺條例』(奎5046) 「朝臣謚號」 不待狀謚議, “不待狀謚議, 自弘文館直爲會議”

15) 단적으로 영조대에는 거의 無謚狀으로 진행되었으나, 정조대에는 정조가 문한직의 관리들에게 명해 국가에서 시장을 편찬하는 양상을 보인다.

16) 『宣祖修正實錄』 권10, 선조 9년 12월 1일 기미.

장을 취한 뒤에 증시하기를 바랐다.<sup>17)</sup>

선조가 행장이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이이는 朱熹의 행장은 20년이 걸렸음을 언급하며 이황 역시 이황의 행적을 감당할 제자가 없고, 그 뛰어난 행적이 사람들의 이목에 뚜렷하여 행장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황의 시호가 한두 해 지체되는 것은 해가 될 것이 없지만, 이로 인해 선조의 현인을 좋아하는 정성을 사방의 선비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은 큰 해가 될 것이라 하였다.<sup>18)</sup>

김우옹 또한 주희와 程頤의 예를 들어 명현의 행장을 짓기 어려움을 말하고, 다만 이황의 경우에는 朴淳이 지은 墓誌와 여러 문인의 저술이 있으니 이를 취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sup>19)</sup> 김성일은 이것조차 옳지 않다고 하며, 그 사람됨을 반드시 행장을 기다린 뒤에야 안다면 오히려 이는 그 사람을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라 하였다.<sup>20)</sup>

선조는 며칠 후 이황의 제자로 조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柳希春이 鄭惟一, 鄭琢, 金就羈를 열거하였는데, 이는 선조가 이황의 행장을 지을 만한 인물을 검토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황의 문인들은 스승의 행장 찬술을 모두 사양하는 중이었으며,<sup>21)</sup> 이이는 이에 대해서도 “정

17) 金宇頤, 『東岡集』 권11, 「經筵講義」, “禎·誠一進啓請李滉賜謚不待行狀. 守慎及特進·參贊以下皆欲直取行狀, 然後賜謚.”

18) 李珥, 『石潭日記』 上, 萬曆元年癸酉冬, “李珥曰, 昔者黃榦以朱子高弟, 其製行狀猶在於二十年之後. 況李滉門人安能容易製之乎. 如滉行跡, 昭在耳目, 行狀有無, 有何曾減. …(중략)…, 李滉之謚雖遲一二年, 猶無大害, 四方之士, 疑殿下無好賢之誠, 則其害豈淺乎.”

19) 金宇頤, 『東岡集』 권11, 「經筵講義」, “宇頤等啓曰, 名賢行狀不可容易, 先儒朱子行狀至待數十年之久, 伊川則門人高弟皆已先歿, 故終無敢下筆者其難也如此. 待大賢不可拘於常規, 豈可以無行狀而不賜伊川朱子之謚乎. 宇頤又曰, 滉有朴淳所製墓誌及其門人敘述等, 取來觀之, 以爲依據, 亦恐無妨.”

20) 金宇頤, 『東岡集』 권11, 「經筵講義」, “誠一不可曰, 待大賢不可拘常規, 若必待是而後爲之, 是猶以其人爲必待是, 而後可知也, 不亦小乎.”

21) 『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11월 30일 병오. “己巳告歸, 而庚午身沒也, 其門人亦皆謙退, 不敢呈行狀, 士林咸欲速見易名, 此公論也.”

유일, 정탁, 김취려는 이황의 문하였다고 하나 도학의 제자가 아니고, 이 셋을 제자라 한 유희춘 역시 시비 분간에 어둡다.”라고 하며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sup>22)</sup>

그러나 이황 정도의 도학자에게 시호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선조 역시 인정하는 바였다. 이후 신하들의 공론은 大賢을 대우함에 常規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이황의 행적이 이미 탁월하여 굳이 행장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이 모두 알기 때문에 절차 없이도 恩典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23)</sup> 선조는 훗날의 폐단을 우려하여 곧바로 윤허하지는 않았으나 이황의 시호 의정을 요청하는 차자가 계속되자 마침내 1576년(선조 9) ‘文純’이란 시호를 내렸다.<sup>24)</sup>

이황의 시호 수여는 당시의 문묘중사 운동과 관련이 깊다. 선조대 초반 사림은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 등 四賢의 문묘중사를 주장하다가 1573년(선조 6) 이황을 추가하였다.<sup>25)</sup> 이들이 이황을 추가하게 된 것은 중사운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관료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4·5명의 유현을 한꺼번에 중사하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시도였는데, 사림세력을 하나로 결집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sup>26)</sup> 문묘에 배향되기 전에 증시가 선행되어야 했고, 이에 따라 조광조·이언적·김평필·정여창은 모두 시호를 받았으며 관품이 증시 자격에 미치지 못한 이들에게는 증직이 동반되었다.<sup>27)</sup> 이러한 상황에서 이황은 행장이 없어 증시 행

22) 李珥, 『石潭日記』 上, 萬曆元年癸酉冬, “謹按 鄭惟一, 鄭琢, 金就礪雖曰游李滉之門, 而實非道學弟子也. 惟一粗雜無檢制, 琢昏弱無執守, 況就礪韶佞, 只趨走服勞而已, 以此三人, 名之曰弟子, 則其爲李滉之辱, 不亦甚乎. 柳希春只讀古書, 而實無識見, 昧於是非如此, 良可嘆也.”

23) 『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11월 26일 임인; 『孝宗實錄』 권4, 효종 1년 5월 1일 계축.

24) 『宣祖修正實錄』 권10, 선조 9년 12월 1일 기미.

25) 『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8월 28일 을해.

26)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の 文廟從祀 運動과 그 성격」, 『조선사연구』 3, 조선사연구회, 1994. 148~149쪽.

27) 『宣祖實錄』 권2, 선조 1년 4월 11일 경인; 선조 2년 7월 10일 신사; 『宣祖修正

정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황이 오현으로 더해진 1573년, 요청이 없었더라도 이황에게 증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발생한 것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황의 증시는 선조대 사림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儒賢과 도학자에 대한 특별한 증시로서 전례가 되어 종종 시장 없이 시호를 의논하는 전거가 되었다. 張顯光·宋浚吉·宋時烈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송준길은 청사하지 말 것을 유언하였기 때문에 1672년(현종 13) 사망한 후,<sup>28)</sup> 1681년(숙종 7) 李濡와 金壽恒의 不待狀 증시 건의가 있을 때까지 시호 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9)</sup> 숙종이 이 건의를 허락하여 송준길의 시호 삼망이 의논되었으며, 같은 해 ‘文正’으로 결정되었다.<sup>30)</sup> 이황의 선례가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후, 이때에 이미 부대장 증시가 도학자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선조대의 이황을 시작으로 고종 즉위 이전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시호를 받은 인물은 152명이다.<sup>31)</sup> 숙종대에 대상이 다양화되고, 영조대에는 일시적으로 정2품 이상에 한해 아예 시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하면서<sup>32)</sup> 그

實錄』 권9, 『宣祖實錄』 권3, 선조 8년 12월 1일 을축; 鄭汝昌, 『一蠹集』 권2 附錄 「褒贈祀典」.

28) 『顯宗改修實錄』 권26, 현종 13년 12월 5일 병오.

29) 『肅宗實錄』 권11, 숙종 7년 6월 23일 갑진.

30) 『肅宗實錄』 권11, 숙종 7년 9월 25일 갑술; 『肅宗實錄』 권12, 숙종 7년 12월 17일 병신.

31) 선조대 1명, 효종대 2명, 현종대 4명, 숙종대 11명, 경종대 1명, 영조대 64명, 정조대 33명, 순조대 20명, 헌종대 11명, 철종대 5명 등 총 152명이 시장의 기다림 없이 시호를 받았다.

32) 『承政院日記』 1293책(탈초본 72책), 영조 45년 6월 30일 경진. “備忘記 人君徽號不過八字, 其於諸臣卽二字也, 諡狀雖萬軸, 何能爲形容. 若此雖十字誠難, 蓋諡狀之請, 意雖在矣, 予則曰行狀, 不能狀太常故也. 近者諡狀太濫, 予之費精神, 卽此也. 年久之人, 作狀難也. 近者之臣, 雖平人, 比諸稷·契, 予常慨然者, 當今大臣, 君與相孰不知之, 豈特此也. 昨日諡狀聞之, 松峴錄戎皆出, 此豈臣子行蹟耶. 何待其濫, 未諡者大臣, 不待諡狀, 今日內卽爲議諡.”

수가 현저히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선조대부터 철종대까지 시호를 받은 전체 인원이 1,105명인 것을 감안한다면,<sup>33)</sup> 여전히 일반적인 증시보다 특별한 사례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품이 시호를 받는 데 충분함에도 시장을 제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인물들도 고관 예우의 명목으로 숙종대 이후부터 시장의 제출 없이 시호를 받게 되었다. 유언으로 인해 시장 없이 시호를 받은 것은 吳允謙·閔鎭遠·趙顯命·李翼元 등이 있다.<sup>34)</sup> 이러한 사례들은 본래의 시법에 어긋나는 사인이었으나, 국가에서 대신에게 합당한 예우를 베풀지 않으면 흠전이 될 것을 염려한 것이었다.<sup>35)</sup> 또한 東萊 鄭氏 가문은 사후 시호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 가법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1794년(정조 18) 鄭存謙이 사망하였을 때 정조가 내린 隱卒 下敎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 봉조하(鄭存謙)의 집에 장례 치르기 전에 시호를 하사하라고 명한 바 있는데, 듣건대 그 집안의 법도에 시호 청하는 글을 지어 올리지 않기 때문에 비록 시호의 은전이 있어오긴 했어도 대부분 特例에서 나왔다고 한다. 文翼公 鄭光弼과 翼憲公 鄭太和는 배향되었고, 東平都尉 鄭載嵩은 의빈이었으며, 貞簡公 鄭錫五와 靖敏公 鄭弘淳<sup>36)</sup>은 시장을 기다리지 않았고, 고 재상 鄭惟吉·鄭昌衍·鄭芝衍·鄭知和·鄭致和·鄭載高的 경우에는 시장이 없어 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 가문에 11명의 재상과 의빈이 삼가 가법을 지키지 않음이 없었는데, 또 어찌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홍문관으로 하여금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도록 하라.<sup>37)</sup>

33) 김현지, 「조선중기 贈諡 제도의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99, 조선시대사학회, 2021. 177~178쪽, <표 1> 참고.

34) 『顯宗實錄』 권11, 현종 7년 1월 3일 갑신; 『英祖實錄』 권42, 영조 12년 12월 10일 기사; 『英祖實錄』 권77, 영조 28년 6월 11일 경자; 『承政院日記』 1743책(탈초본 92책), 정조 19년 4월 21일 신축.

35) 『承政院日記』 449책(탈초본 24책), 숙종 35년 6월 20일 기미.

36) 정홍순의 시호는 처음 靖敏으로 낙점되었다가 『正祖實錄』 권17, 정조 8년 3월 11일 병신, 정조 18년 수망이었던 忠憲으로 낙점을 바꾸었다. 『承政院日記』 1739책(탈초본 92책), 정조 18년 12월 21일 갑술.

이에 따르면 동래 정씨 가문은 시호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 가법이었으며 재상을 지낸 인물들의 사후에 시장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에 거론된 인물들 가운데 鄭光弼과 鄭太和는 각각 중종과 현종의 종묘에 배향이 결정되며 증시가 이루어졌다.<sup>38)</sup> 배향신의 배향은 군주를 祔廟할 때 함께 이루어지는데,<sup>39)</sup> 배향되기 전에 반드시 시호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sup>40)</sup> 영·정조대 鄭載崙·鄭錫五·鄭弘淳은 시장의 제출 없이 시호를 받았으며,<sup>41)</sup> 부대장 증시가 정착하기 이전의 인물인 鄭惟吉·鄭昌衍·鄭芝衍 등은 시호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왕자와 대군 등 종친들의 시호 또한 경연 중의 하교를 통해 특별히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내려주었다고 한다.<sup>42)</sup> 그런데 인조대 永昌大君과 현종

- 37) 正祖, 『弘齋全書』 권34, 「奉朝賀鄭存謙隱卒教【附註賜謚教】」, “鄭奉朝賀家, 葬前賜謚有命, 而聞其家法, 不撰請謚之狀, 雖有易名之典, 多出於特例. 文翼·翼惠配享也, 東平都尉儀賓也, 貞簡·貞敏不待謚狀也, 如故相 鄭惟吉·鄭昌衍·鄭芝衍·鄭知和·鄭致和·鄭載崙無狀而不爲云. 一門十一相與儀賓, 無不恪守家法, 又何可強所不強. 令弘文館不待謚狀舉行.” 원문의 貞敏은 靖敏의 잘못인 듯하다.
- 38) 정태화 역시 가법으로 청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숙종이 집안에서 시장을 제출하라고 명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정광필 또한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承政院日記』 306책(탈초본 16책), 숙종 10년 11월 29일 경인. “上曰, 曾在庚申年, 故相臣鄭太和, 亦以遺命, 不爲請謚, 而自朝家, 分付其家, 使之撰成謚狀賜謚矣.”
- 39) 일반적으로 배향 공신의 선정은 국왕의 부모 이전에 완료되고, 부모하는 날 배향 공신도 함께 배향한다. 이현진, 「조선 숙종초 정국 동향과 배향 공신」, 『한국학보』 31, 일지사, 2005. 128쪽.
- 40) 효종이 인조의 묘정에 배향할 신하를 모두 결정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申景禎과 李璜을 추가하였다. 이때 신경진과 이서의 시호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배향하는 날에 맞추기 위하여 두 신하의 집안에서는 초안 상태의 시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후 不待狀 증시는 배향 공신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孝宗實錄』 권6, 효종 2년 6월 14일 기미; 『承政院日記』 120책(탈초본 6책), 효종 2년 6월 17일 임술.
- 41)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2월 18일 경술; 『正祖實錄』 권17, 정조 8년 8월 24일 정미.
- 42) 『承政院日記』 1103책(탈초본 61책), 영조 30년 2월 2일 임오. “大君·王子贈謚

대 綾昌大君의 시호를 논의하기 위해 시장을 받은 사례가 있고, 綾原大君에게는 청렴·절의로 특별히 시장 없이 시호를 의논하라는 명을 내린 것으로 보아<sup>43)</sup> 종친에 대한 부대장 증시 역시 17세기 즈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종친과 유현 및 청시하지 말라는 유언으로 인해 시장을 제출하지 않고 시호를 받은 인물들은 국왕과 신료들 간의 논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한편 본래 『經國大典』의 규정에 따라 생전에 실직 정2품 이상을 지낸 인물에게만 허용되었던 시호는 인조대를 거치며 사후 정2품 이상에 증직된 인물에게도 허용되었다.<sup>44)</sup> 그리고 영·정조대에는 특별한 행적이 있으면 증직 조치를 생략하고 허용될 정도로 확대되었다. 수시자 측의 요청 없이 진행된 증시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조선중기를 지나며 일반적인 증시 대상자가 확대되는 양상과 같이 부대장의 대상자 역시 변화하였는데, 주요 대상으로 발생한 집단은 전쟁과 반역 등 국난을 당하여 희생한 충신·순절인이었다.

가장 처음 순절의 명분으로 시장 제출 없이 시호를 받은 인물은 현종대 金應河이다. 그는 함경도 三水郡守로 재직하다 1618년(광해군 10)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하고 조선에 원병을 청하였을 때 도원수 姜弘立을 따라 후금 정벌에 나섰다가 전사하였다. 이 일로 명나라 신종은 그를 遼東伯에 봉하였고, 조선 조정에서도 영의정을 추증하고 시장 없이 ‘忠武’의 시호를 내려주었다.<sup>45)</sup> 감응하는 생전에 종4품 군수를 지낸 인물로, 선조대부터 현종대까지 본래의 증시 자격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절차를 생략한 채 시호를 준 유일한 사례이다. 이는 명나라 신종의 봉작이 있었기 때문에 큰 반발 없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응하의 사례를 제외하고 시장 제출을 생략하는 부대장 증시에 있어서는 현종대까지 그 논의를 엄격히 하여 생전의 관품 규정을 지키는 모습

時, 不待諡狀, 特令舉行事, 曾有筵教.”

43) 李景奭, 『白軒集』 권37, 「綾昌大君諡狀」; 『顯宗實錄』 권11, 현종 7년 1월 3일 갑신 등.

44) 김현지, 앞의 논문, 2021. III장 2절 참고.

45) 『顯宗實錄』 권16, 현종 10년 2월 13일 병자.



을 보인다. 그러나 숙종대부터는 충절과 절의에 대한 현창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대장 증시에서도 사후 증직을 인정하게 된다.

### Ⅲ. 숙종의 議諡 결정권 확대

한편 서인은 인조반정 이후 정치적 우위를 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金集·송시열·송준길로 대표되는 산림세력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학문적 연원인 趙光祖·李珥·成渾·金長生 등의 院宇 건립과 追享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는 인조대 이후 제기되어 숙종대 배향이 결정될 때까지 논의가 지속된 사안으로 관학을 비롯한 전국적인 유생상소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효종은 본래 적통이었던 소현세자가 급서함에 따라 즉위하게 되어 명분에 취약성이 있었다. 효종은 이를 극복하고 정계를 새로이 개편하려는 시도로 김집, 송시열, 송준길, 權諤, 李惟泰 등 산림을 초빙하였다. 효종을 이어 즉위한 현종 역시 사림세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의존하여 왕위를 보장 받으며 왕권을 확립하는 길을 모색하였다.<sup>46)</sup> 이러한 정치의 흐름은 제반 제도의 시행과도 맞물리기 마련이다. 증시 제도 역시 국왕과 사림의 정치 논의와 함께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증시 제도는 국초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고관과 친공신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중종대 사림의 정계 진출 이후, 명종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관직에 있던 사람이 惡諡를 의정함에 따라 자격을 충족하는 훈구대신들의 청시가 극도로 축소되는 양상을 띤다. 정상적인 증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선조대 사림의 주청에 의해 동방오현의 시호

46) 유새롬, 「17세기 西人의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한국사론』 5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6. 18~20쪽.

가 결정되는 등 사림의 도학적 명분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증시 제도가 시행되었다.<sup>47)</sup>

이후 반정을 통해 즉위한 인조는 명종~광해군대 거의 시행되지 않았던 증시 제도를 부활시켜 전대의 공신들 및 자신의 반정에 참여한 공신들을 예우하였고, 이를 확대하여 임진왜란 충절인에게도 적용하였다. 그러나 요청을 하지 않은 인물에게까지 규정을 뛰어넘어 시호를 내리지는 않았다. 일례로 인조대 영의정을 지냈던 오윤겸은 관품 자격이 되는데도 神道碑와 시호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이름을 알리는 일체의 일은 모두 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sup>48)</sup>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긴 인물들은 당대에 시호를 받지 않았다.

오윤겸의 증시는 현종대에 이르러 송준길의 건의에 따라 시장의 작성 없이 이루어졌다.<sup>49)</sup> 그러나 이는 숙종 후반부터 영·정조대를 거쳐 일반화되는 고관 예우를 위한 것과는 결이 다른 사례였다. 오윤겸에 대한 당대의 평판은 오윤겸의 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윤겸은 일찍이 成渾의 문하에서 지냈으므로 학업에 자못 연원이 있었으며, 사람됨이 온순하고 청아하며 단정하고 사욕이 없어 사람이 그를 중히 여겼다. …(중략)…, 계해년(1623, 인조 원년) 반정이 있자 가장 먼저 대사헌에 제수되었고, 얼마 후 이조판서로 옮겼다가 병인년(1626, 인조 4) 드디어 영의정에 제수되었다. 청백하고 근신함으로 스스로를 지켰으며,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들에게 자신을 낮추어 어진 정승이라 불렸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재능과 곧은 말을 하는 기풍은 없어 명성이 정승이 되기 전보다 덜하였다.<sup>50)</sup>

47) 김현지, 앞의 논문, 2021. II장 참고.

48) 金尙憲, 『淸陰集』 권32, 「議政府領議政林難吳公墓碣銘」, “法得樹石神道, 而顧言曰, 吾遭遇聖明, 不得挽回世道, 於國無功, 於身無德. 死葬勿立碑, 凡請諡求免借人掬揚之事竝已之.”

49) 『顯宗實錄』 권6, 현종 4년 1월 29일 무술.

50)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1월 19일 을축. “允謙早游成渾之門, 學業頗有淵源, 爲人溫雅端粹, 見重士林. …(중략)…; 癸亥反正, 首拜憲長, 俄移冢幸, 丙寅遂大拜.”

위 기사에 따르면 영의정으로서 오윤겸의 능력은 오히려 그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오윤겸의 시장이 없더라도 시호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한 송준길은 효종대부터 시호 요청 및 의정, 시장 찬술 등을 통하여 서인계 유현의 명예를 높이고 학통을 공고히 하고자 꾸준히 증시 행정에 개입하였다. 사림의 신망을 얻고 있던 오윤겸에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시호를 추증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은 1663년(효종 4) 오윤겸의 시호가 결정된 후 송시열의 문인인 李選이 송준길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楸灘 吳相國 오윤겸은 그 타고난 품성이 아름답고 지조와 행실이 두터우며, 진퇴가 절도 있고 經術의 배움이 있으므로 법으로 ‘文’ 자를 시호로 받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호를 의논할 때 忠貞과 忠簡이 首望과 副望이 되고 文貞이 未望에 있었습니다. 그 文 또한 ‘勤學好問’의 文이 아니라 ‘慈惠愛民’의 文이었는데, 끝내 忠貞으로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무릇 文이 반드시 忠보다 나은 것은 아니고 忠이 文보다 반드시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 마땅함을 따라야 합니다. 충정은 진실로 아름다운 칭호이지만, 이 어르신에게는 그 칭호가 맞지 않습니다.<sup>51)</sup>

유현과 도학자에 대한 시호를 의정할 때는 ‘道德博聞·勤學好問’의 諡註를 지닌 文이 선호되었다. 그런데 이선은 오윤겸에게 의망된 시호의 순서와 文의 시주가 그릇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오윤겸에게 학문을 명분으로 증시할 뜻이었으나 그 의도대로 의망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호의 주석과 의망되는 순서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은 앞서 효종대 김장생의 시호를 의정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김장생의 시호

清謹自守, 愛人下士, 號稱賢相. 然無經濟之才, 謬謂之風, 聲名損於未相時.”

51) 李選, 『芝湖集』 권4, 「上同春先生別紙【癸卯】」. “楸灘吳相國其天品之美, 操履之篤, 進退之節, 經術之學, 法應得諡文字. 而向年議諡時, 以忠貞忠簡爲首副, 文貞置末. 而其文字, 亦非勤學好問之文, 乃慈惠愛民之文也. 終以忠貞批下. 夫文未必勝於忠, 忠未必劣於文, 惟其當而已. 忠貞固是美稱, 而然於此老則非其稱也.”

三望은 文敬·文元·文懿로 결정되었는데,<sup>52)</sup> 송준길과 송시열은 남인 중에 김장생을 꺼리는 자가 있어 ‘문경’과 ‘문원’의 순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였다.<sup>53)</sup> 이에 송준길은 상소를 올려 副望문원을 낙점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sup>54)</sup> 이것이 받아들여져 김장생의 시호는 ‘문원’으로 결정되었다.<sup>55)</sup> 이렇듯 명종대 사림과 훈구·공신세력이 시호 의정을 두고 대립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문관 동벽에 임명되는 관원의 당색에 따라 상대 세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윤겸의 사례는 단적으로 앞서 살펴본 동래 정씨 가문의 정태화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정태화는 효종대 정1품의 영의정과 영중추부사를 역임하였으며, 사망한 후에는 가법에 따라 청시하지 않았다. 그 유언을 존중하여 현종대에 시장 없이 시호를 주도록 논의되었으나, 1680년(숙종 6) 신하들의 반대로 오윤겸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시장을 짓도록 하였다.<sup>56)</sup> 이는 정태화 등의 재상과 오윤겸의 증시가 그 결을 달리하는 문제였음을 시사한다. 정태화도 서인계 인사였지만, 송시열계와는 현종대 예송 문제에서부터 노선을 달리하고 있었다.<sup>57)</sup>

그리고 광해군대 폐모론에 반대한 명분으로 현종대 부대장 증시가 결정되었던 李愼儀도 법례에 위반되니 시장을 먼저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숙종 즉

52) 『贈諡錄』(국립중앙도서관, 古215-18) 15면.

53) 송준길은 김장생의 도덕과 기상을 형용할 수 있는 시자는 오직 ‘元’ 자라 여겼다. ‘文元(시주: 道德博聞, 主義行德)’은 李彥迪 이후로 金長生, 宋明欽, 閔遇洙, 吳熙常만이 받은 드문 시호이다.

宋浚吉, 『同春堂集』 권4, 「與宋伯興(奎禎 丁酉)」, “則惟純元字, 庶可形容道德氣象. …(중략)… 吾與英甫相咤, 此必越人有難之者.”

54) 宋浚吉, 『同春堂集』 권2, 「論少溪金先生諡號事疏【丁酉五月】」.

55) 宋浚吉, 『同春堂集』 권2, 「辭贊善疏【丁酉六月】」, “仍念, 臣於向者猥進封章, 妄論諡事, 實犯僭越之戒. 甘伏鈇鉞之誅, 不料聖度包容, 仁恩汪濊, 既降溫批, 旋賜采副.”

56) 『承政院日記』 306책(탈초본 16책) 숙종 10년 11월 29일 경인.

57) 우인수, 「朝鮮 顯宗代 政局의 動向과 山林의 役割」, 『조선사연구』 1, 조선사연구회, 1992. 105~109쪽.

위 이후 취소되었다.<sup>58)</sup> 이는 이신의의 생전 관품이 종2품인 형조참판으로 본래의 일반 증시 규정에도 충족되지 않았고, 그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 저술이 적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1683년(숙종 9) 金錫胄는 정2품 이상으로 증직된 후에 시호를 의논할 것을 요청하였다.<sup>59)</sup> 이에 따라 1684년(숙종 10)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추증되었으며,<sup>60)</sup> 그 이듬해 ‘文貞’의 시호를 받았다.<sup>61)</sup> 인조대 이후 정2품 이하로 죽은 신하에게 관례적으로 증직 후 시호를 내리는 순서를 따른 것이다. 이때 이신의의 시장은 송시열이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여 작성하였다.<sup>62)</sup>

이렇듯 숙종 재위 초반까지는 증시 제도가 여전히 서인계 산림 세력들의 요청과 주도에 의해 행해졌으며, 국왕의 하교에 따른 부대장 증시 또한 같은 궤에서 허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숙종은 점차 서인계 인사들이 요청하는 도학적 명분이 있는 인물 외에게도 부대장 증시 등의 특전을 행하고자 하였다. 숙종은 인조대 다시 활성화된 증시 제도를 더욱 본격적으로 활용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숙종 재위 전반기에 이루어진 태조의 시호 追上이 있었다.

즉위 후 숙종은 왕실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추진하였다. 우선 그는 태조의 시호를 추상하고자 하였다. 庚申換局 이후 다시 등용된 송시열은 태조의 공업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문제 삼아 시호 추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태조는 조선의 창업주임에도 세조, 선조보다 모자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시호 지수를 근거로 들어 주장한 것이다.<sup>63)</sup> 朴世采 등의 반대

58) 『承政院日記』 299책(탈초본 15책), 숙종 9년, 6월 13일 갑신: 『承政院日記』 306책(탈초본 16책) 숙종 10년 11월 29일 경인.

59) 『肅宗實錄』 권15, 숙종 10년 9월 5일 무신.

60) 이한창, 앞의 논문, 2004. 869쪽.

61) 『肅宗實錄』 권16, 숙종 11년 8월 11일 기해.

62) 宋時烈, 『宋子大全』 권202, 「石灘李公諡狀」.

63) 태조는 사후 8자의 시호를 받았는데(至仁啓運聖文神武) 세조는 20자(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 선조는 24자(至誠大義格天熙運景命神曆弘功

론자들은 지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조선의 창업을 위화도 회군이 있었던 1388년으로 소급한다면 반역의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은 재차 태조의 시호와 공업이 합치하지 않으며, 명나라에서도 嘉靖 연간에 태조에게 시호를 가상한 전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상소를 올렸다. 더불어 태조의 회군은 명 황제에게 尊王을 다한 것과 같고, 이는 척화·북벌을 추진하였던 인조와 효종의 행적으로도 연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곧 태조-인조-효종으로 이어지는 繼述을 밝힘으로써 다시 효종과 현종을 계승한 숙종이 창업 이념을 계승한다는 새로운 정통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숙종은 처음부터 태조에 대한 시호 추상을 적극 지지하였다. 숙종은 여러 차례 收議의 형식을 빌려 신료들에게 동의를 유도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결국 숙종의 주도 하에 정치적으로 시호 추상의 명분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태조의 회군은 나라를 여는 출발이자 尊周의 뜻, 천명의 교체로 인식되었으며 태조에게 “正義光德”의 네 글자 시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sup>64)</sup> 숙종은 이 일로 시호 추상을 통한 정치적 재평가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숙종은 이신외의 부대장을 물리고 시장을 짓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졌지만,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잃은 金浚에 대해서는 허락하였다.<sup>65)</sup> 李端夏는 이에 대해 시장도 없이 시호를 내리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만, 김준의 자손이 쇠락하여 본가의 요청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어 이단하의 아버지인 李植이 김준의 傳을 써둔 것이 매우 상세하고, 다른 저술도 많이 남아 있어 시장이 없더라도 무방하다 하였고 숙종이 허락하였다.<sup>66)</sup> 김준은

隆業顯文毅武聖睿達孝)를 받았다. 이하 숙종대 태조의 시호 추상에 대한 것은 윤정, 「숙종대 태조 諡號의 추상과 정계의 인식-조선 창업과 威化島回軍에 대한 재평가」, 『동방학지』 13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참고.

64)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6월 12일 계미.

65) 『肅宗實錄』 권, 숙종 7년 3월 16일 을사.

66) 『承政院日記』 284책(탈초본 15책), 숙종 7년 8월 8일 무자. “端夏曰, 臣向以故

정2품의 관품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이미 효종대 우찬성으로 증직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보이며,<sup>67)</sup> 이때에 부대장으로 시호를 내리는 경우에도 증직 후 2품을 인정한 것이다.

김준에게 시호를 내린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늘어났다. 다만 김준의 사례와 같이 전쟁 중 사망하였으며 후손이 쇠락하여 시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학자의 사례보다 그 관련 기록들을 까다롭게 검토한 후 시호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종대 명나라 신종의 봉작이 있었던 김응하를 제외하고 시장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시호를 받은 인물은 모두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런데 숙종은 사후 증직을 통해 품계를 충족하게 된 인물들에게도 확장하였다. 신하들이 자신의 선조나 스승, 또는 정치적 지향과 맞은 인물에게 시호를 요청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현상이었으나, 숙종은 여러 사례를 전거로 들어 이외의 인물에게도 시호 의정이 결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IV. 숙종대 不待狀 贈諡의 양상

숙종은 점차 不待狀 증시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시작하였다. 도학자 외에도 충절과 척화 등의 명분으로 시호를 받게 되었고, 재상을 지낸 고관을 예우하기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또한 三學士로 대표되는 청에 대한 척화 충신뿐 아니라 임진왜란 충신에게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부대장으로 증시된 인물은 선조~현종대까지 7명이었지만, 숙종대에 들

防禦使金浚贈諡事，有所仰達矣。無諡狀而贈諡，有非法例，而聞金浚，子孫衰替，流落遐方云。若待其本家之撰進諡狀，則歲月愈久，而事跡漸泯矣。臣父臣植，嘗爲金浚立傳，載其事甚詳，此外見於先輩所錄者，亦多，雖無本家諡狀，此亦足爲可考之實矣。上曰，雖無諡狀，特爲贈諡，可也。”

67) 『孝宗實錄』 권18, 효종 8년 2월 21일 갑오.

어서는 대상이 다양해지고 사례도 늘어나게 된다.<sup>68)</sup>

숙종대의 정치 동향에 대해서는 이 시기 왕실 인물의 신원과 추복 등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목된다.<sup>69)</sup> 숙종 연간에는 단종 복위와 사육신의 추복 등 정치적 핍박을 입은 국왕과 신료를 복권시킴으로써 왕실 역사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안들은 결정 여부에 따라 선대 국왕들에 대한 繼述의 명분을 저버리고 시비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충절에 대한 현창은 숙종 이전에도 있어 온 현상이지만, 특히 17세기 초반 잇따른 전란과 명·청 교체를 거치며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전란 순절인에 대한 현창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그러나 전쟁 직후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의 허실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작업은 수월하지 않았고 청의 감시와 의심 속에서 대명의리와 반청 절의에 대한 현창도 어려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숙종대는 양란의 순절·척화인 현창이 더욱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적합한 시기였다. 대체로 1681년(숙종 7), 경신환국 직후 서인의 집권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되는데, 병자호란 시 척화를 주도했던 서인계 인사들에게 이러한 현창은 곧 자신들의 집권 명분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sup>70)</sup>

태조의 시호 추상에서 그러했듯이 숙종은 송시열의 사상과 이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송시열은 서인의 학통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역대의 인물들을 재평가하고,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도통을 강조하였다.<sup>71)</sup> 이러한 송시열의

68) 선조~숙종대까지 요청 없이 이루어진 증시 사례는 [부록 1] 참고.

69) 윤정, 「숙종대 神德王后本宮 追卹 논의와 本宮 인식의 변화」,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2009; 정만조, 「肅宗朝의 死六臣 追崇과 書院祭享」,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윤정, 「18세기 '단종제신' 포장의 확대와 '생육신'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이현진, 「조선 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사학연구』 98, 한국사학회, 2010 등.

70) 김성희, 앞의 논문, 2020. 98~100쪽.

71) 정재훈, 「17세기 尤庵 宋時烈의 政治思想」, 『한국사상과 문화』 42, 한국사상문



사상은 효종대부터 鄭經世·李廷立·李明漢·李眞儀 등의 시장을 써주거나 증시를 논의하는 등 臣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행적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송시열의 문인인 이선은 조선의 시법으로서 『諡法聰記』(『諡法通編』)를 편찬하여 시호를 의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증시는 현창의 높은 단계로,<sup>72)</sup> 숙종대 확연하게 증가하여 총 177명, 한 해에 평균적으로 3.8명이 시호를 받았으며 이는 다른 왕대의 한 해 평균 증시 수를 상회한다.<sup>73)</sup> 그 가운데 요청 없이 수여한 시호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황처럼 도학 등의 행적이 시장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모두가 아는 인물이며, 둘째는 김준과 같이 후손이 쇠락하여 시장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대표적인 척화 인물인 삼학사(洪翼漢, 尹集, 吳達濟)에 대한 현창은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현종대까지는 주요 척화인사의 현창 사실이 청에 알려 질까 염려하여 사우 건설 등을 보류하였다.<sup>74)</sup> 또 삼학사의 충절에 대한 남인계와 서인계 관료들의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어 당시 붕당 간의 입장 차에 따라 절의의 기준이 엇갈리고 있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sup>75)</sup> 숙종은 1681년(숙종 7) 이선의 상소를 받아들여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척화충신들에 대한 현창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瀋陽에 끌려가 처형된 삼학사가 한꺼번에 시호를 받은 것이 주목된다.<sup>76)</sup> 李頤命은 시장이 없으면 시호 의정을 시행할 수 없으나 척화한 세 신하에 대해서는 특교로 허락하기를 요청하였고, 숙종은 이를 받아들

화학회, 2008. 186~190쪽.

72) 지두환은 가족의 보호→관직 추증→사당 건립과 정려→증시와 후손 서용→不祧之典으로 현창의 단계를 설명하였다. 지두환, 「조선 병자호란 충신 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한국학논총』 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4장 참고.

73) 김현지, 앞의 논문, 2021. 177~178쪽. <표 1> 참고.

74) 『顯宗實錄』 권16, 현종 10년 1월 21일.

75) 김성희, 앞의 논문, 2020. 101쪽.

76) 『承政院日記』 316책, 숙종 12년 7월 13일 을미.

였다.<sup>77)</sup> 삼학사의 행적은 당시 서인계 인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기록도 상세히 남아 있었다. 또한 삼학사는 효종대 각각 홍익한에게는 도승지, 윤집에게는 부제학, 오달제에게는 좌승지가 추증되어 있는 상태였는데,<sup>78)</sup> 이때 시호를 의정할 것이 결정되고 모두 이조판서에 다시 추증되었다.<sup>79)</sup>

숙종대 시장의 제출 없이 여러 인물에게 동시에 시호를 내린 것은 삼학사 이후에도 종종 보이는 현상이다. 동일한 성격의 충절 집단에게 시호를 내릴 경우 일부 후손이 살아있고 요청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을 받지 않고 같은 일자로 통일하여 현장을 진행하였다. 이는 삼학사를 비롯하여 영조대의 사육신 증시,<sup>80)</sup> 노론사대신 증시,<sup>81)</sup> 정조대의 생육신 사시<sup>82)</sup>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유재란 당시 安(鎭)鎭(鎭)으로 황석산성에서 싸우다 죽은 郭稷, 정묘호란 때 안주성이 함락되자 자결한 김준 등에게도 시장 제출 없이 시호가 내려졌다.<sup>83)</sup> 이들에 대한 증시는 앞선 특교로 인한 증시와도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이황을 전거로 들어 시행하였으나 이황의 생전 관품이 정2품 이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들의 관품은 본래의 규정보다 낮은 종6품이었던 것이다.

77) 『承政院日記』 316책(탈초본 16책), 숙종 12년 7월 13일 을미, “願命曰, 凡議諡之規, 若無諡狀, 則不得爲之, 今此斥和三臣之節義, 宜不待其家諡狀, 而旣無特教, 敢此仰達. 上曰, 三臣則不待諡狀而議諡, 可也.”

78) 宋時烈, 『宋子大全』 권213, 「三學士傳」, “上卽命施行, 於是贈洪翼漢都承旨, 尹集副提學, 吳達濟左承旨.”

79) 『肅宗實錄』 권17, 숙종 12년 12월 21일 신미.

80) 『英祖實錄』 권92, 영조 34년 10월 4일 정사. 사육신 가운데 朴堧年, 河緯地, 成三問의 후손은 생존해 있고, 나머지 李塏, 俞應孚, 柳誠原의 후손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모두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시호를 의논하였으며 이들의 위패를 모신 영월 창절사에 모두 불러모아 연시례를 거행하였다.

81) 『英祖實錄』 권4, 영조 1년 3월 2일 경자.

82) 『承政院日記』 1508책(탈초본 82책), 정조 6년 4월 19일 을유.

83) 『肅宗實錄』 권46, 숙종 34년 8월 20일 계해; 『승정원일기』 284책(탈초본 15책), 숙종 7년 8월 8일 무자.

또한 믿을 만한 인물이 찬술한 행적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도 중요했다. 광준의 증시는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유림의 명망을 받는 鄭經世가 그의 묘갈을 썼기 때문에 진행되었다.<sup>84)</sup> 이들의 사례는 실직이든 증직이든 ‘정2품 이상’의 규정에 매이지 않고 이를 넘어선 증시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나라의 법에 시호를 의논하는 것은 반드시 시장을 갖추어 청하게 되어있는 데, 다만 이황이 죽음에 이기가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특별히 시호를 내려주길 청하였다. 그 뒤 김상헌·송준길·송시열도 모두 이 예에 의거했으니, 이는 모두 유종과 대현이므로 常例로 대우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洪翼漢·尹集·吳達濟와 같이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시호를 내려 준 경우는 그 일이 번거롭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준은 이미 이황과 여러 유현과 비교될 바도 아니며 또 번거로울 염려도 없는데, 경솔하게 법을 훼손하여 이러한 특례를 끌어온 것은 濫觴이 되어 폐단을 연 것이 큰데도 한 사람도 이를 지적하지 않으니,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sup>85)</sup>

위 기사는 광준에 대한 증시가 결정되었을 때의 사론이다. 처음 시장 절차를 생략한 것 역시 본래 제도에 위반되는 사안이었는 데, 더 나아가 일반적인 증시에서 허용된 것과 같이 사후 증직 2품까지 부대장 시호의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증시의 남발과 폐단을 걱정하는 논의가 많았음에도 순절인에 대한 증시가 늘어난 것은 전란을 거치며 忠의 가치가 높아진 데 더불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시장을 작성할 후손이 없어 청시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후손을 남기지 못한 충신에게도 국가의 은전을 베풀

84) 『肅宗實錄』 권46, 숙종 34년 8월 20일 계해. “領議改崔錫鼎曰, 雖無諡狀, 若其事蹟之表著, 則年前有不待諡狀而議諡之例. 且聞其人神道碣銘, 故判書鄭經世撰之云, 經世之學術行誼, 望重儒林, 則斯人一字之文, 足當諡狀.”

85) 『肅宗實錄』 권46, 숙종 34년 8월 20일 계해. “國制議諡者, 必具狀以請, 惟李滉之卒, 李瑀請不待狀, 特賜. 其後金尙憲·宋浚吉·宋時烈, 并依此例, 蓋此皆儒宗大賢, 不欲以常例待之也. 至若洪翼漢·尹集·吳達濟之不待狀賜諡者, 以其事煩故, 而今此郭趨, 既非李滉諸賢之比, 又無事煩之慮, 而輕毀舊典, 用此特例者, 其爲濫觴, 啓弊大矣, 而無一人言之者, 可勝嘆哉.”

는 표창으로 이러한 증시 방식이 쓰이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증시는 유현의 이황, 척화충신의 김상헌과 같이 이후 전쟁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부대장의 전거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17세기 증시 제도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가문의 행장을 시호 의정에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여러 문집 및 읍지 등의 기록을 비교·검토하여 가문 외의 인물이 새로 지은 시장을 시호 의정에 참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sup>86)</sup> 이는 시장의 제출을 생략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두 변화 양상이 상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적용 대상은 구분되고 있다. 시장을 제출할 형편이 못 되는 절사자의 후손들에게 현창을 베풀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시의 경우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내용을 요구하여 국왕과 조정에서 자발적으로 주는 시호와 증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즉 도덕과 학문, 절의 등의 공훈이 국가가 지향하고 세간에 인정되는 신하에게는 관품의 고하·가문의 성쇠와 상관없이 시호를 내리고, 본래의 규정에 따라 청시하는 관료들에 대해서는 그 행적을 더욱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하여 시호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일반적인 증시 절차와 달리 국왕의 명을 통해 증시 요청 없이 진행된 새로운 시호 수여 방식의 발생과 이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처음 선조대 이황이 유종으로서 처음 시장의 제출 없이 시호를 받았다. 이는 이와 김성일, 김우옹 등의 사람이 주도하여 결정하였는데, 동방오현의 문묘종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문묘종사 또는 종묘 배향 이전에 시호의 수여가 선행

86) 김현지, 앞의 논문, 2022, 180~182쪽.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항의 사례는 도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대장 증시의 전거가 되었다. 이는 국왕의 하교가 있어야만 진행된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장 증시는 도학자 외에도 척화인과 절사자에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종대까지는 명나라 신종의 봉작을 받은 김응하 외에 본래의 시호 자격인 생전 2품의 관품 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숙종 즉위 이후 점차 사후 증직 2품까지 인정되어 사례와 대상이 다양해진다. 이는 전쟁 중 사망하여 가문이 쇠락하고 후손이 없어 시장을 제출할 수 없는 집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낮은 관품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본래의 증시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인데, 인조 이후 허용된 ‘증직 후 2품’의 기준이 숙종대 이후부터는 부대장 증시의 경우에도 허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숙종은 송시열·송준길·이선 등 서인계 인사들의 시호 요청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관품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더라도 이식, 송시열, 정경세 등 신망이 두터운 관료가 행적을 기록한 것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시호를 의정하였다. 전쟁 중에 사망한 인물에 대해서는 신하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진행된 도학자의 증시에 비해 까다롭게 진행되었는데, 실제 행적과 시호를 합치시키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양반의 충신열사들을 현창하는 국가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을 제출할 수 없는 집안의 순절인들까지 은전을 받게 되었다. 전체 증시 인원을 고려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숙종대 대상이 다양화되고 자격이 완화된 이후 증시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국왕의 개입으로 부대장 증시가 행해졌다.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은 당대 조정에서 지향하거나 징계하는 신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延諡禮와 파견되는 宣諡官 등의 차이를 통해 의례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1] 선조~숙종대 수시자 측의 요청 없이 증시된 사례

왕대	시호	성명	관직	전거	명분	요청자
선조	文純	李滉	증 영의정	『宣祖實錄』 권6, 선조 5년 9월 28일신해; 『宣祖修正實錄』 권10, 선조9년 12월 1일 기미	도학 청시 X	이이, 김성일, 김우옹 등
효종	文正	金尙憲	좌의정	『承政院日記』 125책(탈초본 7책), 효종 3년 10월 23일 신유; 『淸陰集』 청음연보 권2, 승정26년 계사 (1653, 효종4)	도학 충절 (적화)	경연에서 요청 金弘郁
	文敬	金集	판 증추부사	『孝宗實錄』 19권, 효종 8년 10월 6일 을해	도학 충절 (적화)	宋浚吉
현종	文康	張顯光	공조판서	『承政院日記』 1924책(탈초본 102책), 순조 7년 3월 29일(신미); 『顯宗改修實錄』 권27 현종 14년 6월 20일(무오)	도학	효종
	忠貞	吳允謙	영의정	『顯宗實錄』 권2, 현종 1년 2월 19일 갑진; 『顯宗實錄』 권11, 현종 7년 1월 3일 갑신	도학 청시 X	宋浚吉
	貞孝	李備	綾原大君	『顯宗實錄』 권11, 현종 7년 1월 3일 갑신	대군 청렴 충절 (적화)	趙煥陽
	忠武	金應可	증 영의정	『顯宗實錄』 권16, 현종 10년 2월 13일 병사	충절 (적화)	金萬均
숙종	文正	宋浚吉	증 영의정	『肅宗實錄』 권11, 숙종 7년 6월 23일 갑진; 『承政院日記』 283책(탈초본 14책), 숙종 7년 6월 23일 갑진	도학 청시 X	金壽桓
	壯武	金浚	증 찬성	『承政院日記』 284책(탈초본 15책), 숙종 7년 8월 8일 무자	충절 (적화)	전라도 유생상소
	忠正	洪翼漢	증 영의정	『承政院日記』 316책(탈초본 16책), 숙종 12년 7월 13일(을미)	충절 (적화)	李頤命
	忠貞	尹集	증 영의정	『承政院日記』 316책(탈초본 16책), 숙종 12년 7월 13일(을미)	충절 (적화)	이이명
	忠烈	吳達濟	증 영의정	『承政院日記』 316책(탈초본 16책), 숙종 12년 7월 13일(을미)	충절 (적화)	이이명
	文正	許穆	우의정	『眉叟記言』 부록 신도비명; 『眉叟許先生年譜』 권2, 임신년 (1692, 숙종 18)	도학	경연에서 요청
	文正	宋時烈	봉조하	『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 9월 29일 갑오; 『肅宗實錄』 권29, 숙종 21년 11월 20일 무인	도학	유생상소
	文純	朴世采	좌의정	『肅宗實錄』 권31, 숙종 23년 11월 3일 기묘	도학	崔錫鼎
	靖憲	李瀟	樂善君	『肅宗實錄』 권33, 숙종 25년 5월 8일 정축	왕자	숙종
	忠肅	權節	증 이조판서	『肅宗實錄』 권46, 숙종34년 윤3월 25일 임인	충절 (단종)	趙泰億
忠烈	郭礎	증 이조판서	『肅宗實錄』 권46, 숙종 34년 8월 20일 계해	충절 (왜란)	趙相愚 崔錫鼎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銀臺條例』  
『增補文獻備考』  
『贈謚錄』(국립중앙도서관, 古215-18)  
『東岡集』  
『同春堂集』  
『文體明辭』  
『白軒集』  
『石潭日記』  
『宋子大全』  
『燃藜室記述』  
『一蠹集』  
『芝湖集』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이카넷, 2003.

김성희, 『朝鮮 肅宗의 君臣義理 定立과 尊周大義』,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윤정, 『18세기 국왕의 ‘文治’ 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이상식, 『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동진, 「시호(謚號), 조선시대 관료형(官僚形) 인물의 사후(死後) 품격(品格)(1)」, 『영주어문』 39, 영주어문학회, 2018.

김정신, 「己丑獄事와 조선후기 西人 黨論의 구성, 전개, 분열 -老·小 분기 과정에서 成渾에 대한 논란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3, 한국사상사학회, 2016.

김현지, 「조선중기 贈謚 제도의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99, 조선시대사학회,

2021.

- 김현지, 「17세기 諡狀의 출현과 의미」,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2022.
-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증시(贈諡) 행정」,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 설석규, 「朝鮮淨室代 儒生의 文廟從祀 運動과 그 성격」, 『조선사연구』 3, 조선사연구회, 1994.
- 우인수, 「인조반정 전후의 산림과 산림정치」, 『남명학』 16, 남명학연구원, 2011.
- 우인수, 「朝鮮 顯宗代 政局의 動向과 山林의 役割」, 『조선사연구』 1, 조선사연구회, 1992.
- 우인수, 「조선 孝宗代 北伐政策과 산림」, 『역사교육논집』 15, 역사교육학회, 1990.
- 유새롬, 「17세기 西人의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한국사론』 5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6.
- 윤정, 「숙종대 神德王后本宮 追祔 논의와 本宮 인식의 변화」,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2009.
- 윤정, 「18세기 '단종제신' 포장의 확대와 '生六臣'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 윤정, 「숙종대 태조 諡號의 추상과 정계의 인식-조선 창업과 威化島回軍에 대한 재평가」, 『동방학지』 13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 이한창, 「諡號制의 來歷과 李石灘의 贈諡 事例」,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 이현진, 「조선 숙종초 정국 동향과 배향 공신」, 『한국학보』 31, 일지사, 2005.
-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장」, 『사학연구』 98, 한국사학회, 2010.
- 정경희, 「肅宗後半期 蕩平政局의 變化」, 『한국학보』 79, 일지사, 1995.
- 정만조, 「肅宗朝의 死六臣 追崇과 書院祭享」,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정재훈, 「17세기 尤庵 宋時烈의 政治思想」, 『한국사상과 문화』 4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지두환, 「조선 병자호란 충신 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한국학논총』 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楊向奎·張蒙, 「請諡制度演變對行狀文體的影響」, 『學術交流』, 2020.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Way a Posthumous Name Was Conferred in the Reign of King Sukjong

Kim, Hyeon-ji\*

This article analyzes special cases of conferring a posthumous name(贈諡) without request(不待狀) in the Joseon Dynasty. A case in point was Yi Hwang, given a posthumous name only after a discussion between the king and officials without his family's request. Afterwards, unrequested posthumous names were conferred on moral scholars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y. 152 people were granted an unrequested posthumous name during the reigns from King Seonjo to King Cheoljong, which was special given that 1,105 were given one in total during the same period.

A posthumous name was originally granted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regulations in the Joseon Dynasty, but in the mid-Joseon Dynasty, gradually according to the political line of officials participating in discussing posthumous names(議諡).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when many Sarims who advanced to the Samsa(三司) were assigned to Hongmungwan, ministers from the Hungu faction did not request a posthumous name out of concern for receiving bad posthumous names(惡諡), and after the Injobanjeongjeong(仁祖反正), figures from Seo-in(西人) gave a posthumous name to moral scholars in order to solidify their academic traditions.

However, King Sukjong began to intervene more in the discussion of

---

\* Ph.D. candidate participating in BK21four, Department of Hist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hj941010@gmail.com

posthumous names. Before and after King Sukjong's enthronement, the Seo-in represented by Song Jun-gil(宋浚吉), Song Si-yeol(宋時烈), and Lee Seon(李選) actively participated in discussing posthumous names, posting an appeal requesting a posthumous name or writing a document to suggest a posthumous name. Furthermore, King Sukjong decided on a posthumous name for King Taejo to reevaluate his achievements based on Song Si-yeol's theory. Since then, King Sukjong actively utilized the system of giving a posthumous name to reevaluate historical figures or honor loyal subjects, with the result that the qualifications for a posthumous name became less strict and its recipients became diverse.

Key word : Unrequested Posthumous Names(不待狀 贈諡), Conferring a Posthumous Name(贈諡), King Sukjong(肅宗), posthumous name(諡號), Yi Hwang(李滉, 1501~1570)

논문 투고일: 2022. 11. 28 심사 완료일: 2022. 12. 15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최석정(崔錫鼎)의 강학 활동과 청주(淸州)지역 소론(少論)계 서원(書院)

고수연\*·홍제연\*\*

- I. 머리말
- II. 청주지역 재지사족과 최석정의 강학활동
- III. 청주지역 소론계 서원의 건립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 후기 서인계 관료의 기반이었던 충청도 지역에서는 17세기 말 西人이 老論과 少論으로 분기하는 과정에서 재지사족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범서인계가 뜻을 모아 창건한 서원이 오히려 서원 구성원간 주도권 다툼의 현상이 되었고, 당색에 따라 새롭게 세워지는 서원을 거점으로 중앙정계의 당쟁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충청도 내에서도 淸州牧 일대는 이러한 상황이 가장 극렬한 편이었다. 그것은 청주가 충청도 중부지역에 위치하면서 행정·문화·경제가 발달한 도시였고, 청주지역 재지사족은 중앙의 관료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으며, 서인-노론계의 영수 尤庵 宋時烈과도 인연이 깊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충청도 서원 연구에 있어서 청주지역은 노론계가 매우 우세하였다고 보았지만, 청주에 세워진 서원 중 비노론계가 적지 않아, 소론과 南人계 사족의 활동도 분명히 확인된다. 그중 소론의 영수 明谷 崔錫鼎을 제향하는 松泉書院과 芝山書院은 소론계 서원을 대표하였다. 청주 출신의 최석정은 관직 생활 중에도 계

\*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 gosy@u1.ac.kr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iota@naver.com

속해서 진천과 청주에 우거하며 사실을 짓고 강학 활동을 이어가 이 지역에 소론 학풍을 뿌리내렸다.

최석정 사후에 소론계 사족은 두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하였으나, 청주가 영조 초기 戊申亂의 진원지가 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두 서원은 위기를 맞이하였고, 현재 서원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찾기 어려울 만큼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이 완전히 장악한 시기에 두 서원이 훼손되지 않은 것은 최석정이라는 인물의 상징성과 그의 학풍을 계승한 공고한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주제어 : 최석정, 청주, 진천, 소론, 송천서원, 지산서원

## I. 머리말

崔錫鼎(1646~1715)은 충청도 淸州 출신으로, 숙종대 尹拯·南九萬과 함께 少論의 영수로 꼽히는 인물이다. 최석정은 학문적으로는 조부 崔鳴吉(1586~1647)의 양명학적 학풍을 계승하였고, 남구만·李慶億·朴世采의 문인이었으며, 鄭齊斗·崔奎瑞·林泳 등과 교유하였다. 숙종대 당쟁기 핵심관료로 영의정까지 오른 그는 문학·음운학·수학 등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최근까지 국문학·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다만 소론의 영수로서 그의 정치적 활동상을 정리한 연구는 소략한 상태이다.<sup>2)</sup>

1) 권진옥, 「明谷 崔錫鼎의 논설류 산문 연구」,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2018; 이희재, 「17세기 조선후기 최석정의 훈민정음의 역학적 원리 연구」, 『대동철학』 66, 대동철학회, 2014; 조희영, 「明谷 崔錫鼎, 易數로 邵康節과 소통 후 남긴 메시지 탐색-『經世訓民正音』 坤冊 聲音篇과 『皇極經世書』 역수론 비교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8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박성래,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학자 최석정」, 『과학과 기술』 37-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4.

2) 강신엽, 「崔錫鼎의 政治 思想」, 『동국사학』 28, 동국사학회, 1994; 이재철, 「朝鮮後期 明谷 崔錫鼎의 現實認識과 政局運營 方案」, 『한국중세사논총-이수건교』

최석정의 妻家는 충청도 鎭川의 소론 명문가인 경주이씨로, 최석정은 청주 지역은 물론 처가의 터전인 진천의 초평 일대에도 자취를 남겼다. 1701년(숙종 27)에 진천에 유배되었을 때에 書室을 건립해 ‘太極이란 현판을 걸고 강학활동을 벌여 진천과 청주지역 소론계 사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후에 진천의 芝山書院에 독향되었고, 영조 때에는 청주 松泉書院에 추향되었다.<sup>3)</sup>

조선후기 인조반정 이후 정권을 주도한 서인 관료층의 핵심 인물은 주로 충청도 출신이었고, 서인의 老少分岐 후 충청도 서원은 중앙정치의 변화에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대응하게 되었다. 각 지역에서 창건과 청액부터 사액까지의 과정 또는 철액논란이 벌어지거나 실제 훼손되는 사건과 제향인의 위치 문제까지 여러 갈등이 벌어지면서 충청도 일대는 마치 중앙 정계의 축소판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충청도 서원 연구는 학파의 중심축을 이루는 제향인물 및 서원의 정치적인 사안에 주목한 연구 성과가 많은 편이다.<sup>4)</sup> 또한 정치 세력과 서원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서원을 둘러싼 재지사족의 활동을 통해 서원의 역사를 살피는 연구 경향도 확인된다.<sup>5)</sup>

그 중에서 충청도의 서원 전반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충청도 서원은 16~17세기에 공주목과 청주목이 호서사림의 거점이 되었고, 17세기 이후에 홍주목과 충주목 지역에 친영남, 비노론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특히 노론의 영수 宋時烈(1607~1689)의 죽음 이후 서인-노론계의 거점

수정년기념』, 2000.

- 3) 두 서원은 각각 진천과 청주에 속해있지만 모두 미호천의 중상류에 접해 있고, 서로 간의 거리가 20km 정도에 불과하여 같은 문화권으로 파악된다.
- 4) 고수연, 「18세기 초 湖西地域 書院의 黨派의 性格－朱子·宋時烈 祭享 書院을 中心으로－」, 『호서사학』 29, 호서사학회, 2000;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학맥·학풍과 화양서원」, 『충북학』 4, 충북학연구소, 2002; 홍제연, 「17~18세기 충청 지역 소론계 서원과 魯岡書院」, 『민족문화논총』 78, 민족문화연구소, 2022.
- 5) 이정우, 「17~18세기 忠州지방 書院과 土族의 黨派의 性格」,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이정우, 「19-20세기 초 扶餘지방 儒林의 動向과 性格變化－鄉校·書院과 古文書類를 중심으로－」, 『호서사학』 27, 호서사학회, 1999.

서원이 連山の 遯巖書院에서 淸州 華陽書院으로 옮겨지면서 청주지역의 노론적 성향도 강화된 것으로 추측하였다.<sup>6)</sup>

그러나 청주목 문화관에서 최석정을 제향한 송천서원과 지산서원의 위상을 보면 소론계 사족의 동향도 강하게 감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천서원과 지산서원은 그동안 단독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지역연구나 서원연구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최근 충청우도 소론계 서원인 용계서원과 혜학서원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연구사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최석정의 진천 입향과 소론 학풍의 전개, 그리고 지산서원과 송천서원의 건립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론의 영수인 최석정이 자신의 향리인 청주지역에 미친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최근까지 주목되지 못했던 청주지역 소론계 서원의 동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청주지역 재지사족과 최석정의 강학활동

### 1. 17세기 말 청주지역의 사족동향

충청도 청주는 금강의 상류인 漾湖川과 無心川 주변으로 발달한 비옥한

- 
- 6) 전용우, 「朝鮮朝 書院·祠宇에 對한 一考察: 建立推移 및 祭享人物을 中心으로」, 『호서사학』 13, 호서사학회, 1985; 전용우, 『호서사림의 형성에 대한 연구-16~7세기 호서사족과 서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전용우, 「湖西 書院 小考(Ⅲ)-18세기 湖西지방에 건립된 書院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3·4, 웅진사학회, 1999; 이혜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숙종대 노소론계 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7) 최근 충청우도 소론계 서원연구로는 홍제연, 「17~18세기 충청우도 少論家의 형성과 활동-청양 함평이씨 咸城君派를 중심으로-」(『역사와 실학』 71, 역사실학회, 2020a)와 홍제연, 「17~18세기 忠淸道 洪州지역 재지사족과 少論系 書院」(『역사와 담론』 93, 호서사학회, 2020b); 홍제연, 앞의 논문, 2022이 있다.

평지를 기반으로 하며, 도시를 감싼 산줄기가 자연적인 요새를 형성하여 오랜 역사를 이어왔다. 조선시대에도 역시 전통적인 행정·군사 거점 도시로 역할을 했는데, 조선초 충청도관찰사의 行營 소재지로 추정되고, 임진왜란 이후 충청도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되었다.

고려 때의 李崇仁은 “청주는 실로 사람과 물산이 집결하는 동남 고을로, 땅이 넓고 백성이 많으며, 일이 번잡하다”라고 하였고,<sup>8)</sup> 1610년에 청주목사를 지냈던 金球의 묘갈명에는 “청주는 풍속이 드세어서 豪族들이 관리들의 정사가 부드러운가 강한가를 엿보아서 거기에 따라 처신하여 대들거나 따르거나 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sup>9)</sup>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청주는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면서 그 풍요로움을 차지한 토착세력이 위세가 강하여 관리가 정사를 펼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李敏興의 행장에는 이경여가 1630년 청주목사에 부임하자, 사람들은 “청주는 본래 土豪가 많아 체납 조세를 때맞춰 갚지 않으므로, 정치를 잘했다고 불리는 전임자는 모두 위엄을 부려 가까스로 처리하였다”<sup>10)</sup>라는 말로 우려를 보였다고 하니, 이 또한 청주 재지사족의 토호적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다.

최석정의 유허가 남은 진천 지역은 청주목의 북서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청주 문화권에 속한다. 예로부터 인물이 많고 땅이 넓어 이른바 험준하고 중요한 땅이라는 뜻의 ‘巖邑’으로 일컬어졌다.<sup>11)</sup> 최석정 집안의 종산이 있는 청주 대울리 또한 바로 진천과 접해 있는 곳이다.

청주 일대는 정치적으로 서인-노론계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완전히 장

8) 李崇仁, 『陶隱集』 卷4, 〈送李慕之赴淸州牧詩序〉, “淸爲州實東南之走集也 其地廣其民衆 其事冗以繁”.

9) 金尙憲, 『淸陰集』 卷30, 〈贈左承旨行淸州牧使金公墓碣銘〉, “淸州俗饒 豪族視吏吐茹而爲之俯仰”.

10) 李敏鉉, 『西河集』 卷15, 〈先考鎮謙政府君家狀〉, “淸素多土豪 逋租不時償 前任號善治者 皆厲威嚴僅辦”.

11) 『仁祖實錄』 권18, 인조 6년(1628) 2월 13일(을사), “... 鎮川物衆地大 素稱巖邑...”.

약된 상태는 아니었다. 정조대 이전까지 청주에 세워진 13개의 서원 중에 영남계(북안·남안)가 5개소였고 노소분기 후 소론계 서원 1개소까지 비노론계가 6개소에 이르렀으므로<sup>12)</sup> 당초 정치성이 불분명하던 莘巷書院에 송시열이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인-노론계 서원으로 정립시키기 위해 애썼던 것은 청주 노론계 사족의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600년대 중후반, 신항서원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계 사족간 반목이 중앙에까지 비화되면서 청주목이 西原縣으로 강등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시작이 신항서원의 정치적 성격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청주 재지사족의 분쟁에 조정의 대신이 개입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청주 신항서원은 1570년(선조 3) 호자 慶延과 金淨·朴薰·宋麟壽·韓忠·宋象賢을 제향하고, ‘有定書院’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서원이었다. 1656년 청주 사족 池若海가 이색과 이이의 배향을 주도함으로써 서원의 정치적 성격이 서인계로 변모하게 되었고, 1659년 기해예송으로 서인이 집권한 후 바로 이듬해 ‘莘巷書院’으로 사액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청주의 남인들 입장에서는 서원의 정치적 성향이 서인계로 확고해진 것에 대해 반감을 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1674년 2차 갑인예송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자 청주지역의 남인과 일부 재지사족 이른바 ‘池若海 後嗣事件’을 문제삼는다. 즉, 지약해의 後嗣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1675년에 지씨 일가를 신항서원 儒籍에서 삭제한 것이다.<sup>13)</sup>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은 청주 유생 趙益寬·權大夏 및 신항서원의 재임이었던 진천의 경주이씨 李寅馨이었다.<sup>14)</sup> 이에 지약해의 동생 池汝海(1591~1636)의 사위 宋國憲과 그 형 宋國士가 나서서 청주의 남인계 인사를 성균관 유적

12) 이 글의 <표 1> 『열읍원우사적』에 기록된 충청도 소재 서원 참조.

13) 이재학, 「조선시대 청주 신항서원」, 『역사와 실학』, 역사실학회, 2001; 고수연,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4) 권대하는 남인의 대표인물 권대운의 조카이며, 이인형(1612~1690)은 본관은 慶州로 최석정의 처남 이인엽의 사촌이기도 하다. 청주의 유생으로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동생 李寅賓과 함께 경학 연구에 힘썼다고 한다.



에서 삭제함으로써 갈등은 고조되었다.<sup>15)</sup> 그리고 3년 후인 1678년에 다시 이인형의 아들 이순곤, 조익관의 아들 조홍석, 권대하의 아들 등이 지약해 후사 사건은 송시열이 지휘한 것이라며 擊錚하였지만 조정에서는 지역 사족간의 사이가 나빠 벌어진 일이라며 격쟁을 들어주지 않았고,<sup>16)</sup> 송시열의 반대세력 이었던 청주 유생 권대하는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민정중은 ‘청주의 嚮戰’이라고 규정하였는데,<sup>17)</sup> 실상은 송시열을 향한 비노론계 사족의 반발에 대해 중앙 조정에서까지 관여하여 과중한 형벌을 가한 정치적 행위였다.

이후 1679년에도 이인형의 동생 李寅賓(1626~?)이 이른바 ‘이유정 옥사 사건’을 빌미로 송시열의 유배를 청할 정도로 청주지역 내 송시열로 대표되는 서인-노론계 사족과 이에 반발하는 경주이씨 사족이 대립하고 있었다.

청주 사족간 분열과 갈등을 드러난 또 하나의 사건은 1681년에 있었던 청주 유생 朴楫漢의 祈雨祭文과 관련한 옥사였다.<sup>18)</sup> 청주의 반남박씨는 1400년대 말 청주로 입향하여 세거하였고, 선조때의 복인 관료 朴以儉이 폐모 상소를 올렸다는 혐의로 유정서원의 유적에서 삭제된 바 있다.<sup>19)</sup> 박이검의 손자가 바로 박상한이다. 박상한은 청주에서 권대하·羅萬紀 등과 교류하며 송시열 및 청주의 서인들과 대립하였던 인물이다. 1681년 그가 지은 기우제문이 공칭감사 尹敬教에게 보내졌는데, 그해 6월 8일 윤경교는 기우제문에서 ‘不道한 言辭’를 발견하고 작성자 ‘청주의 박상한’을 찾아 장계를 통해 조정에 알렸다.<sup>20)</sup>

15) 송국헌(1615~1689)과 송국사(1612~1690) 형제는 김장생의 문인이자 은진송씨 송남수의 손자로, 송시열 가문의 인물들이다.

16) 『肅宗實錄』 3권, 숙종 1년(1675) 4월 27일(을묘), “... 益寬子洪錫 與權 李子乘時 擊錚 構捏兩末 罔有紀極 ...”.

17)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1680) 5월 25일(계축), “... 鼎重曰 池應九事 亦由於淸州 嚮戰 ...”.

18) 이지영, 「1681년 박상한 기우제문 사건을 통해 본 청주 사족의 갈등」, 『한국문화』 87, 2018.

19) 송시열, 『宋子大全』 권94, 〈松村蔡公墓表〉, “鄉人朴以儉希賊臣旨 上讎母疏 公削其名儒籍”.

기우제문에 가문의 원인이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란 구절이 있다는 이유로 박상한은 의금부에 끌려와 영의정 김수항과 좌의정 민정중이 참여한 가운데 벌어진 청구에서 나흘만에 참형이 결정되고 家産을 적몰당하였다. 그리고 청구목은 서원현으로 강등되었다.<sup>21)</sup> 당시 관찰사 윤경교는 청구 일대의 상황을 “대개 도내의 청구·옥천·괴산·진천 등 각 읍의 유생들이 이름은 선비라 하면서 실로 난민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혐원이 있으면 문득 극악한 대죄로 유언비어를 만들어 서로 공격하고 이로써 피차 다투어 직접 구타하고 욕하며 칼을 들고 찌르기까지 하는 등 마침내 부도한 말이 위로 국가에까지 미치었습니다.”라며 전했다.<sup>22)</sup>

영의정 김수항도 윤경교의 말에 동의하여 “청주 일읍은 평소 풍속이 쾌악하다고 하는데, 근래에 명색이 선비인 자들이 흉악한 무리의 잔당을 데리고 狎論으로 선동하여 풍교를 어지럽히고 있다...”<sup>23)</sup> 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정황은 관찰사가 기우제문에 대해 편파적 판단을 내리고 조정의 대신이 직접 관여하여 청구에서 벌어진 사족 갈등을 격화시킨 사건이었다. 이것은 청구의 재지사족이 중앙정치와 깊이 결부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1690년대에 이르러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고 지금까지 서인계 거점 서원이었던 충청도 연산의 돈암서원이 가진 상징성이 노론의 영수 송시열을 제항하는 청구 화양서원으로 이동되면서 청구는 충청도 내에서 강성한 노론계가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위상이 마련된다. 그만큼 비노론계 세력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청구지역 소론계 세력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20) 이지영, 앞의 논문, 2018, 37~38쪽.

21) 『숙종실록』 11권, 숙종 7(1681) 6월 24일(을사).

22) 『戊申逆辭推案』 권9, 〈朴相巽推案〉.

23) 『承政院日記』 283책, 숙종 7년(1681) 6월 13일(갑오), “... 淸州一邑 素稱俗習悖惡 近來以儒爲名 率多凶孽餘種 鼓煽狎論 敗亂風教 ...”.

## 2. 최석정의 진천 우거

崔錫鼎(1646~1715)은 전주최씨로, 호는 明谷이다.<sup>24)</sup> 崔鳴吉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崔後亮, 어머니는 廣州安氏 安獻徵의 딸이고, 작은 아버지인 崔後尙과 함평이씨 부부의 후사로 들어갔다.<sup>25)</sup> 1662년(현종 3) 감시 초시에 장원하였고, 그 해에 스승이자 영의정인 李慶億의 딸과 혼인하였다. 1666년 진사와 생원시에 동시 입격하였고, 1671년에 문과 급제 후 승문원에 들어가며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최석정의 집안은 고려말 崔得桴(1260~1334)이 청주의 토성 청주곽씨 郭預의 사위가 되면서 청주의 북쪽 大栗里 일대에 대대로 세거해 왔다. 최석정에게는 <淸州先墓醜癩禮寺序>에 자신의 12대조와 11대조의 묘가 청주 북쪽 대울리에 있어 조부 최명길 대에 선조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각 종중으로부터 출연하여 ‘奉先契’를 조직하였다고 하였다.<sup>26)</sup> 또한 조선 개국공신 崔有慶이 만년에 진천 초평면 죽정리(현 화산리)로 입향한 이래 전주최씨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었다. 최명길은 1645년(인조 23)에 原任議政으로 있다가 물러나 진천의 草坪에서 머물렀는데<sup>27)</sup> 신도비명과 행장 등을 보면 1645년 중국 심양에 갔던 최명길이 돌아와 가을에 청주 椒泉에 목욕하러 갔다가 진천의 농장에 머물러 臥龍溪가에 밭집을 엮었다고 한다. 진천의 농장이 바로 초평 일대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청주 대울리와 진천 죽정리(현재 화산리)는 초평천을

24) 문과와 생원 및 진사시 항목에 초명인 崔錫萬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종의 小諱를 피하여 26세에 이름을 ‘석정’으로 고쳤다.

25) 최석정의 어머니 함평이씨는 李灑(1591~1670)의 딸로, 함평이씨는 충청도 청양에 세거하며 후주의 월경지(현 청양)에 윤증을 제향하는 龍臺書院의 건립을 주도한 소론계 명가이다(홍제연, 앞의 논문, 2020a, 129~132쪽).

26) 崔錫鼎, 『明谷集』 권7, <鎮議政完城祠院君崔公神道碑銘>, “吾輩盍修歲祭之禮於先墓乎 於是諸宗各捐穀乞物 定有司二員遞掌之 名曰奉先契”.

27) 최석정, 『명곡집』 권7, <淸州先墓醜癩禮寺序>, “... 歲崇禎甲申之明年 我祖考遲川公以原任議政 退休于鎮川之草坪 ...”.

28) 朴世堂, 『西溪集』 권11, <鎮議政完城祠院君崔公神道碑銘>, “寓居鎮川 結茅臥龍

사이에 두고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즉, 행정구역은 청주와 진천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같은 생활권이었던 이 지역에 바로 최명길-최석정 가문이 세거하였던 것이다.

최석정의 처가인 경주이씨도 청주와 진천에 세거하였는데, 경주이씨는李宗麟(1437~1509)이 청주에 입향 한 후 그의 아들 8형제가 주변 지역으로 이거해가면서 세거가 시작되었다. 그중 3남 李穰이 1504년 갑자사화 때에 참형을 받은 후 아들 이발이 숙부 이타에게 출계하여 그 후손들이 제천에 세거하였고, 이발의 손자 李大建(1550~1574)이 제천에서 진천 초평으로 이거한 후 자손이 번성하자 ‘초평이씨’라 불리며 초평 일대에 세거하였다. 이대건의 아들이 이시발이고 그 아들이 좌의정 이경역이다. 李慶億(1620~1673)의 사위가 바로 최석정이었다.

한편, 이시발의 동생 李時得(1574~1640)의 후손들은 훗날 청주 신향서원의 위치 문제로 노론계 충주지씨와 대립하며 청주의 소론과 남인계를 주도하였다. 원래 신향서원의 창건을 주도한 것은 경주이씨였다. 이공린의 막내 李鯤의 아들 李潛(1528~1575)이 關書齋라는 書塾을 열어 서재의 규약까지 만들어 강학하면서 많은 문인을 양성하였고, 또 이잠의 아들 李得胤(1553~1630)은 이른바 琅城八賢의 한사람으로 청주지역 사림의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되었다. 이득胤은 18세에 조강·변경복과 의논해 신향서원을 창건하였고, 9대 신향서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문하에서 이덕수·이시발·변시익·윤승임 등 많은 인물들이 출입하였다.<sup>29)</sup> 송시열의 학풍이 청주 지역에 자리 잡기 이전에 경주이씨 집안은 청주 사족 사회를 이끌어갔던 것이다.

최석정은 1662년 스승인 이경역의 딸과 혼인 후 관직 생활 중에 환국으로 인해 정계를 떠나야 할 때면 고향인 진천에 우거하였다. 1679년에도 진천에

溪上”; 이민서, 『서하집』 권16, 〈鎭海政完城府院君崔公諡狀〉, “秋就浴靑州椒泉因住鎭川田舍 欲爲終老計”.

29) 고수연, 「16~17세기 李潛·李得胤 父子의 講學活動과 門人의 동향」, 『역사와 담론』 73, 호서사학회, 2015, 208~211쪽.

집을 짓고 지내면서 여러 종친과 의논하여 초평에서 냇물 건너 청주 北二 산에 있던 12대조 최득평과 11대조 최재의 비석과 상석을 세우고 9대조 최유경의 정려비를 세우는 등 문중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sup>30)</sup> 이듬해 1680년 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병조정랑으로 다시 서용되어 그 해 8월까지 부응교·사복시정·응교·전한·병조참지·동부승지까지 올랐다.

1683년 무렵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고, 최석정은 1685년에 명재 윤증을 伸救하다 파직되었다. 또 1687년에 羅良佐가 윤증을 변론하다 노론의 공격을 받아, 나양좌를 변호하기 위해 나서고 1688년에도 판중추부사 李尙眞이 윤증을 伸救할때에 함께 陳疏하였다.<sup>31)</sup>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계를 장악하면서 최석정은 체임되어 인천에 머물다 다시 서용되었지만 곧 파직되어 1691년~1692년까지 진천 초평에 초당을 짓고 우거하였고, 그 동안 역시 정계에서 물러나 고향에 있던 처남 晦窩 李寅燦(1656~1710)과 교유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소론정권 성립되었다. 그러나 최석정은 부친상으로 인해 바로 복귀하지 못하고 1697년에 정계에 나아가 우의정이 되었다. 당시 진천 지역의 노론과 소론 사족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진천 출신인 기계유씨 俞命雄(1653~1721)<sup>32)</sup>과 최석정이 대립한 것이다. 유명웅은 노론계였고 아버지 俞樞의 묘비명을 송시열이 찬하기까지 하였다. 1697년 유명웅이 소론인 吳道一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바 있는데, 최석정은 오도일을 구원하고자 집의 趙大壽과 함께 유명웅을 극력 배척하였다.<sup>33)</sup> 그러자 1698년 사

30) 최석정, 『명곡집』 권12, 〈先代墓表帖跋〉.

31) 『숙종실록』 19권, 숙종 14(1688) 3월 9일(임오).

32) 기사환국으로 파직되었다가 1694년 갑술환국 때 재등용 되어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701년 희빈 장씨의 賜死에 반대하던 소론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다.

33) 우의정 최석정이 箚子를 올리기를, “吳道一은 재주와 지식이 뛰어나고, 청렴강직하여, 文衡으로 선임된 것은 물정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臺臣이 배척하고 있으니, 신의 잘못 천거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執義 趙大壽가 또 상소하여, 俞命雄을 극력 배척하고 오도일을 구원하여 말하였다 … 대체로 모두 오도일과

간원헌납 유명응은 우의정 최석정이 사신 접대를 잘못하여 국가를 욕되게 하였다며 양사의 관원들과 합辭하여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출송할 것을 청하였다.<sup>34)</sup> 결국 6월에 파직, 8월 문외출송되면서 西江의 伏波亭에 우거하였지만 곧 9월에 판중추로 복귀하였다.

최석정은 이듬해에 좌의정이 되었고, 1701년에 영의정이 되었으며 이때 김장생의 문묘 배향 논의에 반대하였다. 이해 8월 장희빈이 仁顯王后를 저주한 사건을 조사하는 옥사에서 卍子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자를 올렸다가 그 이유로 파직되어 진천에 유배되었다. 유배생활은 3개월 만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천 초평을 떠나지 않은 채 마침 賜暇讀書로 초평에 와 있던 처남 이인엽과 太極亭에서 함께 강학하였다. 1702년 진천의 芝山에 있을 때에는 향촌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어리석어 관직의 정례를 알지 못하니 이것을 오락 도구처럼 꾸몄다는 從政圖를 만들기도 하였다.<sup>35)</sup> 진천의 사족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글을 배우고 관직체계에 대해 깨우쳐야 하는 어린 자제들까지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석정은 1703년 봄까지 1년 가량 초평에서 생활하다 2월에 영의정으로 관직에 복귀하였지만, 張希載를 비호했다는 논박에 사직하고 또 물러났다가 다시 정계로 불러들여지며 소론의 영수로서 1710년까지 여덟 차례 영의정을

---

한편이기 때문에 온갖 말로 贊美하여 여기에 이르렀다(『숙종실록』 권31, 숙종 23년(1697) 3월 24일(갑진)).

34) 兩司에서 합辭하여 아뢰기를, “금번 客使의 명첩 가운데 있는 두 글자는 전고에 없던 수치인데도, 西路에 내려간 대신이 의리를 들어 물리치지 못하고, 유달리 사명을 받들어 일을 주선하는 도리를 잃었으니, 국가를 욕되게 함이 어떠합니까? 또 외국 사람과 서로 접할 때에는 반드시 역관을 두어야 하는데, 저들의 청에 따라 모두 물리쳐 버렸으니, 체모를 잃었습니다 ... 우의정 崔錫鼎을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지금 논의는 과중하다.” 하였다. 대사간 李墩, 장령 俞命雄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1698) 5월 28일(신축)).

35) 최석정, 『명곡집』 권8, 〈從政圖序〉, “... 余屏居鎮川之芝山 鄉村學子相從者 昧然不識官方政例之如何 遂於觀書之暇 取見行圖板略加參閱爲冊子 ...”.

지냈다. 그러나 1712년(숙종 38)에 부인상을 당한 후 청주에 장사지내고 그 대로 초평 琴谷里에 자리잡은 채 태극정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초평에는 春睡堂이란 서실도 존재하였다. 최석정이 지은 상량문이 전하는 데,<sup>36)</sup> 건립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나 1천여 권의 서적이 구비된 서실이었다. 최석정이 진천으로 중도부처되었을때 지은 시문에도 춘수당에 대한 언급이 있어, 1701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최석정의 우거와 활동은 진천과 청주의 소론계 사족의 교류와 강학의 기반이 되었고, 이는 훗날 서원 건립으로 이어졌다. 『書院瞻錄』에는 1722년(경종 2) 진천의 진사 李始振이 올린 지산서원 건립요청 상소가 실려 있는데, 이를 보면 “진천은 故 영의정 최석정이 귀양살이를 하던 곳으로 書室을 건립하고서 太極이라는 현판을 걸고 날마다 배우는 자들과 학문을 강론하고 토론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다.<sup>37)</sup> 즉, 최석정은 태극정에서 진천 사족을 가르쳐 이 지역에 그의 학풍을 진작시켰고, 이것이 유서가 되어 서원건립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 Ⅲ. 청주지역 소론계 서원의 건립

#### 1. 충청도 지역 소론계 서원 현황

조선시대 서원의 현황 및 당파적 성격에 대한 통계정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선 1759년~1763년 무렵 간행된 관찬서적 『列邑院宇事蹟』에 기록된 충청도 서원을 군현별로 정리하고,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그 당파적 성격을 구분해 보았다.

36) 최석정, 『명곡집』 권9, 〈草坪新構春睡堂上樑文〉.

37) 『書院瞻錄』 경종 2년(1722) 〈壬寅九月初五日〉.

〈표 1〉 『열읍원우사적』에 기록된 충청도 소재 서원(기록순)<sup>38)</sup>

지역	서원명	성격	지역	서원명	성격
公州	滄江書院	소론계	大興	牛泉祠	노론계
公州	道山總賢祠	기호계	舒川	建巖書院	기호계
公州	芙蓉江影堂	문중	永春	松坡書院	소론계
忠州	雲谷書院	영남계	洪州	魯恩書院	기호계
忠州	八峯書院	문중	洪州	惠學書院	소론계
忠州	樓巖書院	노론계	洪州	龍溪書院	소론계
忠州	忠烈祠	노론계	懷德	崇賢書院	노론계
槐山	花巖書院	영남계	懷德	靖節書院	노론계
淸安	(錦城大君)祠宇	미상	懷德	宗晦祠	노론계
淸安	(新羅鐵刹眞王)祠宇	미상	懷德	美湖書院	노론계
淸安	龜巖書院	영남계	懷德	龍湖總賢祠	기호계
延豊	源泉祠	노론계	文義	魯峯書院	노론계
報恩	象賢書院	노론계	文義	黔潭書院	노론계
報恩	鄉祠宇	노론계	文義	德川祠宇	문중
報恩	山仰祠	노론계	全義	雷巖書院	노론계
海美	南藥泉九萬之所	소론계	黃澗	松溪書院	영남계
淸州	萬東廟	노론계	黃澗	寒泉書院	노론계
淸州	莘巷書院	노론계	永司	花巖書院	노론계
淸州	花陽書院	노론계	永司	草江書院	노론계
淸州	松溪書院	노론계	沃川	滄洲書院	노론계
淸州	松泉書院	소론계	沃川	龍門影堂	노론계
淸州	雙泉書院	영남계	沃川	虎溪總賢祠	영남계
淸州	鳳溪書院	영남계	瑞山	聖岩書院	노론계
淸州	白鹿書院	영남계	瑞山	松谷總賢祠	문중
淸州	機岩書院	영남계, 소론계	德山	晦菴書院	소론계
淸州	(牧隱)影堂	노론계	保寧	花巖書院	기호계
淸州	表忠祠	노론계	石城	蓬湖書院	소론계
淸州	菊溪祠	노론계	林川	七山書院	노론계

38) 사액까지 받은 공주의 충현서원, 한산의 문헌서원, 진천의 백원서원과 지산서원이 기록에서 빠져 있었다. 한편 조선 중기까지 충청도 지역이었던 평택에 소재한 褒義祠와 鄉賢祠는 기록되어 있었으나 본 표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淸州	棣華堂	영남계	丹陽	丹巖書院	영남계
牙山	五賢書院	영남계	溫陽	靜巖書院	영남계
牙山	顯忠祠	노론계	溫陽	金谷書院	기호계
鎭岑	集成祠	노론계			

앞의 <표 1>을 보면 영조대 간행된 『열읍원우사적』에 기록된 충청도 지역의 서원은 모두 63개소였으며, 지역별로는 청주에 소재한 서원이 12개소(19.0%)로 가장 많았고, 회덕이 5개소(7.9%), 충주가 4개소(6.3%)로 뒤를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열읍원우사적』에 기록된 충청도 서원의 당파적 성격별로 본다면 노론계 서원이 30개소(47.6%)로 가장 많았고, 영남계 서원이 12개소(19.0%), 소론계 서원이 8개소(12.7%), 기호계 서원이 5개소(7.9%), 문중서원이 4개소(6.3%), 성격 미상의 서원이 2개소(3.1%), 소론계와 영남계가 협력하여 건립한 서원이 1개소(1.5%)였다.

『열읍원우사적』에 나타난 충청도 지역의 소론계 서원은 8개 소이나 최근 연구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서원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sup>39)</sup> 충청도 지역 소론계 서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11개소의 서원이 확인된다.

<표 2> 충청도 지역 소론계 서원<sup>40)</sup>

서원	창건	사액	지역	제향인물	건립 주도세력
滄江書院	1629	1682	公州 (公州姓)	·黃慎	노성 파평윤씨
道峯書院	1670	-	新昌 (洪州姓)	·趙翼 ·趙克善(추배)	조극선 사위 등
松坡書院	1673	-	永春 (忠州姓)	·尹宣舉	영춘 재지사족, 노성 파평윤씨
魯岡書院	1675	1682사액 1722제사액	魯城 (公州姓)	·尹焯 尹文舉 ·尹宣舉 尹拯(추배)	노성 파평윤씨

39) 홍제연, 앞의 논문, 2020a; 홍제연, 앞의 논문, 2020b; 홍제연, 앞의 논문, 2022.

40) 영당 및 향현사는 제외하였다.

蓬湖書院	1693	-	石城 (公州牧)	·尹文舉 ·尹搏(후배)	석성 소론가문(윤문거 문인), 노성 파평윤씨
松泉書院	1695	-	淸州 (淸州牧)	·金士廉 崔有慶 李貞幹 朴光佑 李之忠 李大建 趙綱 ·崔錫鼎 李濟臣 李寅赫 南九萬 朴文秀 李宗城 李孝碩(후배)	최석정, 청주 소론가문
龜山書院	1702	-	連山 (公州牧)	·尹焜 尹舜舉 尹元舉 尹文舉	노성 파평윤씨
惠學書院	1706	1722	洪州 (洪州牧)	·李世龜	홍주 소론가문
晦巖書院	1709		德山 (洪州牧)	·朱子 李湛 李洽 趙克善	
芝山書院	1722	1723	鎭川 (淸州牧)	·崔錫鼎	진천 소론가문, ·최석정 문인
龍溪書院	1724	1724	洪州 (洪州牧)	·尹拯	·홍주 소론가문 ·윤증 문인

앞의 <표 2>를 보면 충청도 지역 소론계 서원은 1629년~1724년까지 11개소가 건립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물러나고 노론과 소론, 특히 소론이 정권을 집중적으로 장악한 즈음과, 경종대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 소론계 11개소 서원 중 노성 노강서원, 홍주 혜학서원, 진천 지산서원, 홍주 용계서원, 공주 창강서원 등 5개 서원은 사액을 받았다. 사액은 창강서원을 제외하고는 경종 대인 1722년~1724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충청도 지역의 11개 소론계 서원을 지역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홍주목 권역에 4개소, 공주목 권역에 4개소, 청주목 권역에 2개소, 충주목 권역에 1개소가 건립되었다. 기존에 노론계가 강하다고 평가된 공주목에 소론계 서원이 4개소 건립되었고, 반노론계가 강하다고 여겨지던 충주목에 1개소만이 건립되어 현재까지 연구된 지역별 당색의 경향성에 대하여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충청도 지역 소론계 서원 건립 주도세력으로는 소론의 영수라고 일컬어지는 인물과 그 가문이 주도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충청우도에는 윤증의 파평

윤씨 가문의 주도와 지원이 두드러진다. 또한 충청좌도에는 최석정과 그 집안인 전주최씨의 주도가 눈에 띈다. 건립 주도 뿐만 아니라 윤증의 경우 충청우도인 노성과 홍주의 서원에 제향되어 있으며, 최석정은 충청좌도인 진천과 청주의 서원에 모두 제향되어 있다.

1680년대 노소 분열이 심화되자, 尹拯(1629~1714)은 소론을 대표하는 산림으로 자리잡는다. 소론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최석정(1646~1715)이다. 최석정은 부제학으로 있던 1685년(숙종 11)에 윤증을 변호하고 김수항을 탄핵하다가 파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론의 대표 인물인 이 두 사람은 약간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다. 윤증은 관직에 한번도 나아가지 않았으나, 최석정은 숙종대 핵심관리로서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윤증은 산림계열의 마지막 학자로 이후 소론계 학자들은 관직에 나아가고 정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산림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해진다. 최석정 역시 관료적 성향이 강한 소론계 인물이었다.

위의 <표 2>에 보이듯이 충청도 지역의 11개 소론계 서원 중 2개소는 청주목에 건립되었는데, 바로 송천서원과 지산서원이다. 이 두 개의 서원은 충청우도의 소론계 서원과는 건립세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충청우도의 서원 건립에 윤증과 그 가문 및 제자들이 적극 참여했다면, 충청좌도의 경우는 최석정과 그의 가문인 전주최씨, 처가인 경주이씨가 주요 건립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청주목은 노론계 서원이 주를 이루었다고 연구되었는데, 청주목에 어떻게 소론의 영수가 건립하고, 제향된 서원들이 건립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송천서원과 지산서원의 건립

### 1) 청주 송천서원의 건립과 추향

1675년(숙종 1) 1월에 2차 예송논쟁으로 宋時烈이 귀양을 가자, 청주지역

사족인 경주이씨 李寅馨(1612~1690)과 아들 李順坤(1652~1729)이 趙益寬·權大夏 등과 함께 ‘지악해 후사사건’에 가담하여 송시열·宋國士를 비롯한 청주지역 노론계 인물들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인형이 성균관의 유적에서 삭제되었고, 충청도관찰사에게 형추를 받게 된다. 이후 1679년에 이인형의 동생 李寅賓(1626~?)이 ‘이유정 옥사사건’과 관련해서 송시열의 유배를 청하자 경주이씨와 청주의 노론계 사족간 반목은 심화되었다. 1681년에도 서인-노론과 대립하던 청주유생 ‘박상한 기우제문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대립하여 1680년대 노소가 분열하면서 청주지역 소론계 사족 역시 서인계로부터 분기하게 된다.

이처럼 청주지역의 노론과 소론이 대립할 무렵인 1695년(숙종 21) 청주에 건립된 소론계 서원이 바로 松泉書院이다. 당시 청주에는 이미 莘巷書院·華陽書院·雙泉書院이 있었는데 신행서원과 화양서원은 송시열의 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주와 인접한 文義縣에 魯峯書院(1615년 건립)과 黔潭書院(1694년 건립)이 노론계 서원으로 1662년과 1695년에 각각 사액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남인들은 쌍천서원을 건립한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인계로부터 분기한 청주의 소론계 사족들이 서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창건 당시 송천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金士廉·崔有慶·李貞幹·朴光佑·李之忠·趙綱·李大建 등 7명이었다.<sup>41)</sup> 이 인물들은 모두 청주지역 서인-소론계 사족 가문의 현조나 입향조였다.<sup>42)</sup> 따라서 이 인물들의 후손들은 송천서원 건립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었다.

서원건립을 진두지휘한 것은 청주 인근인 진천에 우거하고 있던 최석정이

41) 『列邑院宇事蹟』, 「충청도 송천서원」; 『增補文獻備考』 권211, 학교조 10.

42) 김사렴은 청주지역 안동김씨의 입향조이며, 최유경은 청주 전주최씨의 현조, 이정간은 청주지역 전의이씨 입향조이고, 이대건의 진천지역 경주이씨의 현조, 박광우는 청주지역 상주박씨의 현조이며, 이지충은 청주지역 우봉이씨의 입향조, 조강은 청주지역 한양조씨의 현조이다.

었다. 최석정은 송천서원 건립 상량문을 지었으며,<sup>43)</sup> 문인이자 소론계 관료인 趙泰億에게 송천서원 강당의 상량문을 짓게 하였다.<sup>44)</sup> 그리고 충청도 유생 朴世靑·朴守誨이 발의하여 1695년 청주 송천리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즉, 송천서원 건립은 소론의 영수인 최석정이 주도하고, 최석정의 문인과 청주지역 소론계 사족들이 힘을 모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후 1706년(숙종 32)에는 최석정의 처조카이자 제향인물 이대건의 후손인 이하곤 등이 재력을 모아 송천서원의 사우를 증건하였다.<sup>45)</sup> 1711년(숙종 37)에는 충청도 유생 李澤夏 등이 청액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결국 사액은 받지 못했다.<sup>46)</sup>

1715년에 송천서원 건립에 실질적 역할을 했던 최석정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1723년(경종 3) 청주유생 朴守誠 등은 다시 상소 올려 송천서원 건립을 주도했던 최석정과 경주이씨 李寅赫을 추향하였고,<sup>47)</sup> 아울러 소론 가문의 현조인 전의이씨 李濟臣도 송천서원에 추향하였다.<sup>48)</sup> 추향 시에 이하곤이 청액과 추향을 요청하는 상소를 지었다. 이하곤에게 추향인물인 최석정은 고모

43) 『열읍원우사적』, 「충청도 송천서원」; 『증보문헌비고』 권211, 학교조 10.

44) 趙泰億, 『謙齋集』 권45, 〈淸州牧松泉書院講堂上棟文〉; 趙泰億(1675~1728)은 경종 대에 좌의정 등을 지낸 소론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왕세제 대리청정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영조대 초에 노론이 탄핵한 5인 중 한 사람이었다. 조태억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최석정의 아들 최창대가 행장을 짓기도 하였다(『昆論集』 권19, 「行狀」〈先考議政府領議政府君行狀〉).

45) 李夏坤, 『頭陀草』 17책, 〈代淸州儒生等請額松泉書院自配三賢疏〉.

46) 『열읍원우사적』, 「충청도 송천서원」.

47) 李寅赫(1634~1710)의 호는 梅山, 본관은 慶州이며 조부는 형조판서 李時發이고, 부친은 이조판서 李慶徽이다. 최석정의 처남인 이인엽과는 사촌지간이다. 1657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음직으로 공조좌랑에 제수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낙향하였다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 이후 다시 관직을 제수받아 사복시정에 이르렀다. 이인혁은 윤증의 사촌인 윤진의 만사를 짓기도 하였다. 朴亮漢이 지은 『梅翁聞錄』 하, 12화에 이인혁을 “너그럽고 넉넉한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48) 『輿地圖書』 「청주목 단묘조」;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辛酉八月二十六日〉; 이하곤, 『두타초』 17책, 〈대청주유생등청액송천서원추배삼현소〉.

부였으며, 이인혁은 당숙이 되었다.<sup>49)</sup> 이 상소에서 이하곤은 최석정의 추향 이유에 대하여

저희들도 일찍이 석정의 문하에 출입하여 德을 보고 교화되어 공경하고 사모하는 바가 남들보다 더욱 배가 됩니다. 이곳 청주는 곧 석정의 선영이 있는 고장입니다. 일찍이 이곳을 왕래하였고, 일곱 신하의 사우를 창건하는 일도 석정이 주도하였습니다. 그가 운명하자 또 이곳에 장지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온 고을의 사론이 모두 '칠현에 이어 배향할 사람은 마땅히 석정이 최우선이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 이하곤은 최석정 추향과 더불어 송천서원의 사액도 다시 한번 청하였으나,<sup>50)</sup> 두 번째 청액 역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후 1741년에는 송천서원이 휘철의 위기를 맞게 된다. 즉, 당시 전국 서원을 대상으로 서원 건립 금령 저촉에 해당한 서원을 파악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송천서원도 그 대상에 올라 휘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1)</sup>

49) 이하곤은 고모부인 최석정에게 집안 제사법을 논의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두타초』 18책, 〈上明谷別紙〉).

50) 이하곤, 『두타초』 17책, 〈대청주유생등청액송천서원추배삼현소〉, “... 巫命該曹 宣賜華額 以彰國家崇儒尙節之意 ...”.

51) 『書院詹錄』 영조 17년(1741) 8월 26일 〈辛酉八月二十六日〉. 公洪道에서 甲午年 이후에 설립한 서원을 조사하여 장계를 올린 건, “공홍도 가도사 定山縣監 臣 任守寬이 올린 啓本에, “갑오년 이후에 사사로이 건립한 祠院 등에 대해서 監司 신 趙榮國이 뽑아놓은 것을 그대로 다시 정리해 다음에 열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 청주 증영의정 李濟臣, 영의정 崔錫鼎, 사복정 李寅赫을 계묘년 3월에 안렴사 金士廉의 서원에 소급하여 배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이미 禁습이 반포되기 이전에 창건하였고 편액도 하사되지 않았으므로 거론하지 않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을해년에 서원을 창건할 때 유생 등이 상소를 올려 윤희를 받았으니, 이는 조정에서 명한 祠院입니다. 갑오년 이후에 소급하여 배향한 여러 신하들을 모두 조사하여 장계를 올렸는데, 그때 유생들이 또 세 신하를 소급하여 배향한다는 뜻으로 상소를 올리면서 편액을 하사하여 줄 것을 청하자, 該曹로 하여금 품치하도록 하겠다는 비답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예조에서 회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청하였으니,

그러나 송천서원은 서원금령 반포 이전에 창건하였고, 미사액 서원이었으므로 훼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1798년(정조 22)에는 소론으로 청주목사를 지낸 南九萬과 소론으로 예조판서에 오른 朴文秀·李宗城을 추가 제향하였다.<sup>52)</sup> 남구만을 송천서원에 제향할 당시 徐榮輔(1759~1816)가 축문을 지어 남구만을 기렸다.<sup>53)</sup> 남구만은 忠州 樓巖 출신이자 최석정의 스승으로, 최석정이 자주 편지를 쓰며 의견을 구하였던 인물이다. 송천서원에는 1819년 마지막으로 李孝碩이 추향되었다.

즉, 송천서원 건립을 주도한 최석정은 이후 서원에 추향되었고, 함께 추향된 이인혁과 남구만은 모두 최석정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 2) 진천 지산서원의 건립

진천은 일찍이 서인계 사족이 협력해 1597년에 세운 百源書院이 있었고, 백원서원 건립을 주도한 평산신씨는 송시열과 인연이 있었다. 거기에다가 權尙夏와 蔡之洪의 활동으로 노론 학맥의 영향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천에는 소론 가문 또한 많았는데, 초평면 용정리에 세거하였던 경주이씨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 집안 출신으로 좌의정까지 오른 이경억이 최석정을 사위로 맞아들이며 진천 소론 세력 확대의 한 계기가 되었다.

1701년에 최석정은 진천에 유배되었고, 1702년 1월에 방송되었으나 진천

---

사사로이 소급하여 배향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회계하기 전에 먼저 소급하여 배향하였으니, 조정의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배향을 철회할 지의 여부에 대하여 해조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여 지시하도록 하소서 ...”

52) 추향된 인물 중 남구만(1629~1711)은 최석정의 스승으로 1670년(현종 11) 7월 청주목사가 되어 飢民 구제 등에 힘썼다. 후에 이러한 치적을 기려 청주에 生祠堂이 세워졌다. 청주목사 시절 올린 상소로, 청주 지역의 饑民들의 진휼을 위해 身役 면제, 田稅와 대동미를 청주에 남겨두기를 청하는 등 백성 구제를 위한 조세·행정 내용을 10조항으로 상세히 정리하여 올린 〈淸州陳懇疏〉가 남아 전한다.

53) 徐榮輔, 『竹石館遺集』 3책, 〈松泉書院藥泉先生追享例用祝文〉, “道德經論 忠節文章 一羽雲霄 萬古桐鄉”.

초평에 그대로 머물며, 당시 초평에 내려와 있던 처남 李寅燁 등과 교유하였다.<sup>54)</sup> 이인엽은 원칙론에 입각하여 노론의 독주를 견제했던 인물로 이인엽과 최석정의 교유는 아들인 李夏坤과 崔昌大까지 이어진다.<sup>55)</sup>

최석정은 1703년 봄까지 더 초평에 머물다 다시 관직에 나아가 1710년까지 봉당정치 속에서 소론을 이끌었다. 이후 1711년(숙종 37) 진천 초평 靑谷里 용정에 완전히 낙향하여 太極書室에서 후학 양성하였다.<sup>56)</sup>

그리고 이인엽의 아들이자 최석정의 처조카가 되는 이하곤(1677~1724)이 1718년 진천 초평 陽村으로 낙향하여 宛委閣이라는 藏書閣 건립하였다. 최석정의 뒤를 이어 이하곤이 완위각을 통하여 진천지역 소론 가문들의 향촌사회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sup>57)</sup> 즉, 최석정이 수시로 진천 초평에 우거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최석정의 처조카인 이하곤도 진천으로 낙향하면서 진천지역에 소론 세력이 성장할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태극정과 완위각을 중심으로 성장해가던 진천 소론 가문들은 1721~2년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고, 소론이 집권하는 정계 변동이 있자

54) 최석정, 『명곡집』 권6, 〈後草坪錄〉, “辛巳十月一日 以領相上三筭被嚴旨 有中道付處之命 諡鎮川 十月初五日 始到配 僑寓草坪面崔○夏隣舍 其明年春正月初五日 日夜 下特教放送 仍留至癸未春”; 최석정, 『명곡집』 권6, 〈七月既望 泛舟玉川 李台季章及諸生同賦〉.

55) 최석정은 처남 이인엽의 제문과 묘문도 찬하였다(최석정, 『명곡집』 권10, 〈祭晦窩李判書季章文〉, 〈祭晦窩李公墓文〉 참조).

56) 『서원등록』 경종 2년(1722) 〈壬寅九月初五日〉; 현재 초평초등학교 뒤편으로 최석정 글씨인 “玉川屏”이라는 암각이 남아있는데 이 일대가 태극서실로 추정된다.

57) 李忠煥(1744~1816)은 『樹園遺稿』 1책에서 “삼대에 걸친 樓閣엔 만권의 서적이 있나니”라고 하였다. 또 李裕元(1814~1888)은 『林下筆記』 권26, 〈春明逸史 萬卷樓〉에서 “초평에 만권루가 있는데, 이는 이하곤이 지은 것이다. 고급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는데, 醫藥·卜筮·名筆·古畫에 이르기까지 수백 帙이나 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였다. 鄭寅杓가 지은 『春耕臺集』 〈坪莊〉에는 “서책 만권이 비단표지에 싸여 서가에 가득하네”라고 하였다. 정인표 외에도 19세기 초평에 거주하고 있던 洪承憲·李圭夏·李圭弼·鄭寅普 등이 완위각에 드나들며 독서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수연, 『鎮川地域 土族의 分岐양상과 戊申亂』, 『역사와 실학』 68, 역사실학회, 2019, 162~163쪽).



신속하게 최석정 제향서원 건립을 시도한다. 바로 1722년(경종 2) 처가인 경주이씨 가문의 李始振(1721, 사마시급제) 등이 상소를 올려 최석정이 은거하였던 초평 금곡리에 지산서원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이시진은 1721년 진천 봉황대에서 열린 시회와 속리산 기행에 이하곤과 함께 동행한 인물로, 당시 이하곤은 40대의 이름난 유학자이고, 이시진은 그를 따라 완위각에서 공부했던 인물이었다.<sup>58)</sup> 이후 이시진은 지산서원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서원을 건립한 1722년 그해 사액을 청하여 왕의 윤허까지 받아냈다.<sup>59)</sup> 『書院籌錄』 경종 2년(1722) 〈壬寅九月初五日〉 기사에 鎭川進士 李始振이 올린 지산서원 건립요청 상소가 실려 있는데, 이를 보면 “진천은 故 영의정 최석정이 ... 書室을 건립하고서 太極이라는 현판을 걸고 날마다 배우는 자들과 학문을 강론하고 토론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 서원 건립의 건을 담당한 승지 李明彦<sup>60)</sup>도 “湖西의 선비들은 직접 최석정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사우를 건립하는 일은 誠意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최석정 본인도 문집에 “余屏居鎭川之芝山 鄉村學子相從者”라고 직접 밝히고 있다.<sup>61)</sup>

이러한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최석정은 태극정에서 직접 진천 사족들을 강학하였고, 이것이 지산서원 건립의 유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석정의 처조카 이하곤과 그의 제자인 진천사족 이시진이 지산서원 건립 및 사액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 그 외에도 최석정의 문인 趙泰億(1675~1728)이 〈鎭川縣

58) 이하곤, 『두타초』 6책, 〈九日 与載昌登鳳凰臺 澤兄紀卿 金世績 李始振 岱坤 錫祐 錫裕 李靑記室 任守剛 巖兒從焉〉, 〈偕俗離遊半 會靈庵設軟包 次簡齋葆真池韻 時澤卿 五莊已歸 金世績 紀卿 李始振 朴泰和 朴俊揆 皆非遊伴 亦來參〉, 〈雪後月色皎甚 載昌及岱坤 錫裕 李始振 金必殷適會 南生鶴聲亦至 以長語記之〉.

59) 『서원등록』 경종 2년(1722) 〈壬寅九月初五日〉; 『常山誌』 「校院」 조.

60) 지산서원 건립 건을 담당하여 건립으로 이끈 승지 이명언은 뒤에 무신란에 가담하여 定配되었다(『戊申逆黨推案』 10책, 1월 12일 〈己酉正月十二日未時推鞠開坐〉 참조).

61) 최석정, 『명곡집』 권8, 〈從政圖序〉, “余屏居鎭川之芝山 鄉村學子相從者”.

芝山書院明谷崔先生奉安祭文)과 〈鎭川縣芝山書院明谷崔先生奉安春秋兩丁祝文〉을 찬하여 조력하였다.<sup>62)</sup>

요컨대, 최석정의 은거로 진천지역 소론계 가문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최석정과 혼맥으로 연결된 경주이씨의 결합으로 진천 초평 지역과 인접한 청주 북부지역까지 소론의 세력권이 형성되었고, 이것은 서원건립으로 구체화 되었다. 즉, 1722년(경종 2) 진천 초평에 최석정을 독향한 지산서원이 건립되었고, 그해 사액까지 받았다. 또한 1723년에는 진천 초평과 바로 인접한 청주 송천서원에 최석정과 경주이씨 이인혁이 추배되었다.<sup>63)</sup> 그리고 1724년에는 전주최씨와 혼맥으로 연결된 소론계 청주이씨 가문에서 顯祖인 고려 후기 문신 李公升을 제향한 서원을 진천에 건립하였던 것이다.<sup>64)</sup>

#### IV. 맺음말

조선후기 서인계 관료의 기반이었던 충청도는 17세기 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기하는 과정에서 재지사족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청주목은 당파간 첨예한 대립으로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다. 청주 신행서원 위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어서 이른바 ‘지약해 후사사건’(1675), ‘박상한 기우제문사건’(1681) 등이 벌어져 청주지역 남인과 경

62) 조태억, 『검재집』 권39, 〈鎭川縣芝山書院明谷崔先生奉安祭文〉; 조태억, 『검재집』 권40, 〈鎭川縣芝山書院明谷崔先生奉安春秋兩丁祝文〉.

63) 고수연, 앞의 논문, 2019, 161~165쪽.

64)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辛酉八月二十六日〉, 公洪道 假都事 定山縣監 臣 任守寬이 올린 啓本에, “... 鎭川 文貞公 李公升; 文簡公 李挺을 함께 제사 지내는 서원은 갑진년(1724) 2월에 창건하였는데, 그때 제임한 감사는 權益寬이고 현감은 崔尙復이며,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도한 유생은 李畝寅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건립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공홍도 감사가 권익관(1676~1730)은 이후 무신란에 가담하여 巨濟에 안치된 인물이다.

주이씨 등 일부 재지사족이 서인에 대항하여 극심하게 대립하였던 것이다.

또한 서인의 노소분기 이후 서인계 거점 서원이었던 충청도 연산의 돈암서원이 가진 위상이 노론을 중심으로 하는 청주 화양서원으로 이동되었다. 그러자 청주지역은 충청도 내에서 노론계가 강성한 상징적인 지역으로서 분위기가 마련된다. 그만큼 비노론계 세력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청주지역 소론계 세력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주지역을 가향으로 하는 소론의 영수 최석정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최석정은 중앙 정계에서 물러날 때면 처가가 있는 진천으로 낙향하여 생활하였다. 최석정은 진천뿐만 아니라 인근 청주지역을 포함하여 강학, 문중 활동, 향촌사회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즉, 최석정은 청주목에서 활발하게 소론 학풍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최석정의 핵심적인 활동이 바로 청주목에 소론계 서원을 건립한 것이었다. 송천서원은 본인이 건립을 주도하였고, 사후 추향되었다. 그리고 지산서원은 최석정을 독향하여 건립한 서원으로 사액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산서원과 송천서원은 이후 청주지역 소론계 사족의 거점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론은 노론과 대립하였다. 이같은 소론계의 활발한 서원 건립과 강학활동을 통해 본다면, 청주목은 노론일색이라는 기존 연구성과는 再考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청주목 지역에서 소론계 사족은 최석정을 구심점으로 서원을 창건하고 결집하였지만, 영조 즉위 후 청주 일대에서 시작된 무신란으로 소론 가문은 크게 위축되었고, 소론계 서원의 위상도 축소되었다. 이후 무신란을 진압하는데 일조한 노론이 중앙정계는 물론 청주지역의 정치적 패권까지 장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산서원과 송천서원은 훼손을 피하게 된다. 이것은 소론을 대표하는 최석정이라는 인물의 상징성과 그의 학풍을 계승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肅宗實錄』, 『仁祖實錄』, 『承政院日記』, 『書院叢錄』, 『戊申逆討推案』, 『常山誌』, 『輿地圖書』, 『列臣院宇事蹟』, 『增補文獻備考』, 『明谷集』(崔錫鼎), 『謙齋集』(趙泰億), 『頭陀草』(李夏坤), 『宋子大全』(宋時烈), 『西溪集』(朴世堂), 『西河集』(李敏綏), 『陶隱集』(李崇仁), 『清陰集』(金尙憲), 『昆侖集』(崔昌大), 『椒園遺稿』(李忠翊), 『林下筆記』(李裕元), 『春耕臺集』(鄭寅杓), 『竹石館遺集』(徐榮輔), 『梅翁閒錄』(朴亮漢)

- 고수연,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8.
- 전용우, 『호서사림의 형성에 대한 연구- 16~7세기 호서사족과 서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 강신엽, 「崔錫鼎의 政治 思想」, 『동국사학』 28, 동국사학회, 1994.
- 고수연, 「18世紀 初 湖西地域 書院의 黨派의 性格-朱子·宋時烈 祭享 書院을 中心으로-」, 『호서사학』 29, 호서사학회, 2000.
- 고수연, 「16~17세기 李滸·李得胤 父子의 講學活動과 門人의 動向」, 『역사와 담론』 73, 호서사학회, 2015.
- 고수연, 「鎭川地域 士族의 分岐양상과 戊申亂」, 『역사와 실학』 68, 역사실학회, 2019.
- 권진욱, 「明谷 崔錫鼎의 논설류 산문 연구」,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2018.
-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학맥·학풍과 화양서원」, 『충북학』 4, 충북학연구소, 2002.
- 박성래,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학자 최석정」, 『과학과 기술』 37-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4.
- 이재철, 「朝鮮後期 明谷 崔錫鼎의 現實認識과 政局運營 方案」, 『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정년기념』, 2000.
- 이재학, 「조선시대 청주 신항서원」, 『역사와실학』 21, 역사실학회, 2001.
- 이정우, 「19-20세기 초 扶餘지방 儒林의 動向과 性格變化- 郷校·書院과 古文書類를 중심으로-」, 『호서사학』 27, 호서사학회, 1999.
- 이정우, 「17~18세기 忠州지방 書院과 士族의 黨派의 性格」, 『한국사연구』 109, 한

- 국사연구회, 2000.
- 이지영, 「1681년 박상한 기우제문 사건을 통해 본 청주 사족의 갈등」, 『한국문화』 8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숙종대 노소론계 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이희재, 「17세기 조선 후기 최석정의 훈민정음의 역학적 원리 연구」, 『대동철학』 66, 대동철학회, 2014.
- 전용우, 「朝鮮王朝 書院·祠宇에 對한 一考察: 建立推移 및 祭享人物을 中心으로」, 『호서사학』 13, 호서사학회, 1985.
- 전용우, 「湖西 書院 小考(III)- 18세기 湖西지방에 건립된 書院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3·4, 웅진사학회, 1999.
- 조희영, 「明谷 崔錫鼎, 易數로 邵康節과 소통 후 남긴 메시지 탐색-『經世訓民正音』 坤冊 聲音篇과 『皇極經世書』 역수론 비교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8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 홍제연, 「17~18세기 충청우도 少論家의 형성과 활동-청양 함평이씨 咸城君派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71, 역사실학회, 2020.
- 홍제연, 「17~18세기 忠淸道 洪州지역 재지사족과 少論系 書院」, 『역사와 담론』 93, 호서사학회, 2020.
- 홍제연, 「17~18세기 충청지역 소론계 서원과 魯岡書院」, 『민족문화논총』 78, 민족문화연구소, 2022.

Abstract

## Choi Seok-Jeong's Activities to Pursue Study and the Seowons in the Soron Line in Cheongju

Ko, Soo-Yeon\*·Hong, Je-Yeon\*\*

In the second half of Joseon, the Chungcheong Province was a base for government officials in the Seoin line. As a party strife development, Seoins were divided into Noron and Soron with the distinguished families of Chungcheong Province confronting one another divided. The Seowons around the province built by the united determination of Seoins were especially turned into a venue for a tug of war between Noron and Soron. Cheongju was no exception. Rather it suffered especially severely as it was a big city of the province and its distinguished families were very close to officials of the central government. Moreover, Cheongju had something to do with Song Si-yeol, the head of the Seoin-Noron line. This is why today's scholars tend to see Cheongju as a city of Noron.

There are, however, six Seowons out of 13 in the city that are not in the Noron line. Of the six Seowons, the Songcheon and Jisan Seowons that hold a religious service for Choi Seok-jeong represent Noron Seowons. Choi, who was the head of the Soron line, was born in Cheongju and provided education to distinguished local families in Cheongju and Jecheon. After his death, the

---

\* Professor in the Faculty of Liberal Arts Convergence at U1 University  
/ gosity@u1.ac.kr

\*\* Senior Resercher, Chungcheongnam-do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 iota@naver.com

distinguished families in the Soron line in Cheongju and Jecheon set up a Seowon, held a religious service for him, and gathered together.

After military officials' revolt in Cheongju, however, the two Seowons lost their power. They were not demolished, though, because of Choi's symbolism and his descendants.

Key word : Choi Seok-jeong, Cheongju, Jincheon, Soron, Songcheon Seowon, Jisan Seowon

논문 투고일: 2022. 11. 25 심사 완료일: 2022. 12. 14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조선후기 사충서원(四忠書院)의 건립과 운영\*

이 경 동\*\*

- I. 머리말
- II. 사충서원의 건립
- III. 사충서원의 훼손과 복설
- IV. 복설 이후 사충서원의 현창과 운영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충서원의 건립과 운영과정을 통해 당대의 정치적 맥락과 서원의 위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25년(영조 1) 辛壬獄事 과정에서 賜死된 金昌集, 李頤命, 李健命, 趙泰采가 伸冤됨과 동시에 사충서원 건립이 논의되었다. 사충서원의 건립은 영조를 비롯한 조정 내부의 논의를 거쳐 1726년(영조 2) 8월에 완공되었다. 사액은 같은 해 11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辛壬義理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어 있었다. 1727년(영조 3) 정미환국 이후 영조의 신임옥사와 노론 사대신에 대한 평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충서원이 훼손되었다. 이후 사충서원은 1756년(영조 32) 왕명에 의해 복설되었다. 사충서원의 복설은 乙亥獄事 이후 『關義昭鑑』의 간행과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辛壬義理의 확정을 의미했다. 복설 이후 사충서원은 경기 지역 노론계의 주요 사액으로서 위상을 갖추어 나갔다.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차제와 함께 노론계 인사들의 서원 방문은 사충서원이 노론계 忠節書院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원임과 원생을 중심으로 향사, 강학 등의 활동이 지속되면서 서원으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5787).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geistlkd@hanmail.net

행하였다. 그 결과 사충서원은 임인의리의 상징이자 노론계의 중심 서원으로 자리 잡아 갔다.

주제어 : 四忠書院, 英祖, 金昌集, 李頤命, 李健命, 趙泰采

## I. 머리말

四忠書院은 壬寅獄事로 賜死된 노론 사대신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1726년 (영조 2) 露梁 江上에 설립되었으며, 1927년 鐵道用地로 편입되면서 고양군 한지면 보광동에 옮겨졌다가, 한국전쟁 이후 파괴되어 현재의 위치인 하남시로 이견되었다. 사충서원의 건립과 사액, 그리고 이후 운영에 대한 이해는 18세기 탕평론의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진 임인옥사에서 사사된 사대신에 대한 현창과 평가, 그리고 영조의 의리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임인옥사와 관련한 연구는 사건에 대한 전개과정과 후대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주제는 임인옥사 자체에 대한 연구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黨議通略』 등 당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쟁 과정에서 발생한 옥사 사건으로 규정하였다.<sup>1)</sup> 이후 임인옥사는 ‘壬寅義理’로 일컬어지는 노론 사대신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해당 연구

1) 李銀順, 『朝撫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88; 정희선, 「경종조 신임사화(辛壬士禍)의 발생원인에 대한 재검토」, 『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 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7; 정희선, 「경종조 신축환국(辛丑換局)의 전개와 김일경(金一鏡)」, 『전북사학』 11·12, 1989; 李熙煥, 「景宗代의 辛丑換局과 壬寅獄事」, 『朝撫後期黨爭研究』, 國學資料院, 1995; 吳甲均, 『朝撫後期黨爭研究』, 三英社, 1999; 홍순민, 『영조, 임금이 되기까지』, 놀와, 2017.

2) 鄭萬祚,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활동－蕩平基盤의 成立에 이르기까지」, 『震檀學報』 56, 1983; 鄭萬祚,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少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歷史學報』 111, 1986; 朴光用, 「蕩平論과

는 노론, 소론 그리고 탕평론과 관련한 緩論과 峻論 사이의 임인옥사에 대한 평가들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봉당간의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忠逆義理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사대신에 대한 조정 내외부의 인식 변화로서 관련 사건을 이해하는 경향들도 확인된다.<sup>3)</sup> 이들 연구들은 신임옥사와 이후 전개되는 탕평정치 과정에서 의리론과 노론 사대신에 대한 평가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인옥사와 관련된 간행 사업도 다루어졌다. 대표적으로 『闡義昭鑑』과 관련한 연구가 주목된다. 『천의소감』의 간행과 판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sup>4)</sup> 『천의소감』 편찬에 대한 정치적 의미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sup>5)</sup> 이들 연구는 『천의소감』이 을해옥사 이후 영조의 신임의리가 천명되어가는 과정에서 편찬된 의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景宗實錄』과 『景宗修正實錄』을 분석하여 두 실록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sup>6)</sup> 해당 연구를 통해 두 실록은 소론과 노론 義理 정립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신임옥사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노론 사대신에 대한 평가들이 18세기 탕

政局의變化, 『韓國史論』 10, 1983; 朴光用, 「조선후기 당쟁과 정국운영론의 변천-18세기~19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朴光用, 「朝鮮後期『蕩平』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근호,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민속원, 2016.

- 3)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최성환, 「경종대 신임옥사와 충·역 의리의 귀결」, 『民族文化』 58, 2021.
- 4) 鄭承喆, 「『闡義昭鑑』의 異本 比較」, 『奎章閣』 13, 1990; 옥영정, 「『闡義昭鑑』의 간행과 서지적 특성」, 『정신문화연구』 21, 2010; 이지영, 「『闡義昭鑑』의 異本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21, 2010.
- 5) 조운선,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韓國史學報』 37, 2009; 김백철, 「英祖의 義理明辨書『闡義昭鑑』 편찬과 정국변화-堯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전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 21, 2010.
- 6) 허태용, 「『景宗實錄』을 통해서 본 少論의 정치 義理 검토」, 『민족문화연구』 60, 2013; 허태용, 「『景宗實錄』과 『景宗修正實錄』의 비교를 통해서 본 老論의 정치 의리」, 『사학연구』 112, 2013; 오항녕, 「『경종실록』의 편찬과 수정」, 『후대가 판단케 하라-조선실록의 수정과 개수』, 역사비평사, 2018.

평론의리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四忠書院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사충서원은 정치적 국면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 지거나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사충서원은 을사환국으로 건립되었다가 정미환국 이후 훼손되었으며, 을해옥사 이후에 복설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치제 활동이 확인되는데, 이는 영조의 신임의리를 기억하고 현창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할 때, 사충서원은 임인옥사와 관련한 해석 및 평가와 관련된다.

본고에서는 사충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四忠書院誌』<sup>7)</sup>와 연대기 사료인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당대인들의 문집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사충서원이 가진 정치적 의미와 이후 전개되는 사회적 현상들을 동시에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사충서원의 건립

숙종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西人의 老少分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정국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갈등인 懷尼是非와 외척인 김익훈의 처리문제와 관련한 대립 등으로 촉발된 서인 내부의 갈등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봉당 분화를 초래하였으며, 정치적 견해 차이를 보였다. 노론과 소론 사이의 갈등은 1716년(숙종 42) 丙申處分을 통해 일단락되기도 하였으나, 경종의 즉위와 이후 발생한 辛壬獄事는 '忠逆'의 이분법으로 노론과

7) 『四忠書院誌』는 刊記에 의하면 1935년(昭和 10)에 간행되었다. 露梁에서 보광 등으로 이전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근대 이후 작성된 서원지이기는 하지만, 미훼손 서원으로서 20세기 초까지 서원 운영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거의 전통이 유지된 상태로 서원지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론이 상대를 규정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신임옥사의 과정에서 노론 사대신인 김창집, 이이명, 이견명, 조태채가 賜死되면서 이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노론계는 역옥의 당사자로 지목되며 소론계 중심 정국 운영이 이루어졌다.<sup>8)</sup>

경종의 사망과 世弟 영조의 즉위는 소론계 주도 정국 운영의 재편을 의미했다. 표면적으로 소론계인 인물들이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노론계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영조의 즉위는 소론계의 정치적 위축을 의미했다. 특히, 임인옥사에 대해 소론은 역옥으로 노론은 무옥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임인옥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국왕인 영조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노론계를 중심으로 임인옥사를 誣獄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즉위 직후 이루어졌다. 1724년(영조 즉위년) 11월 幼學 李義淵이 上疏를 올려 喬木世家를 주륙한 군소배들의 죄를 바로잡아 토역의 의리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sup>9)</sup> 이후 東學 訓導 李鳳鳴, 京畿 幼學 崔補 등 노론계 재야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임옥사의 주모자로 김일경 등을 지목하며 치죄를 요청하기도 하였다.<sup>10)</sup> 이 과정에서 임인옥사는 逆獄에서 誣獄으로 변화되었다. 임인옥사를 주도했던 金一鏡과 睦虎龍은 참수하였고, 관련자들이 처벌되었다.<sup>11)</sup> 즉위 직후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은 영조의 즉위와

8) 신임옥사의 전개과정은 다음을 참조. 정희선, 「경종조 신임사화(辛壬士禍)의 발생원인에 대한 재검토」, 『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 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7; 정희선, 「경종조 신축환국(辛丑換局)의 전개와 김일경(金一鏡)」, 『전북사학』 11·12, 1989; 李熙煥, 「景宗代之 辛丑換局과 壬寅獄事」, 『全北史學』 15, 1992; 홍순민, 『영조, 임금이 되기까지』, 놀와, 2017.

9) 『英祖實錄』 卷2, 즉위년 11월 6일 丙午

10) 『英祖實錄』 卷2, 즉위년 11월 9일 己酉.

11) 『英祖實錄』 卷2, 즉위년 11월 19일 己未; 『英祖實錄』 卷2, 즉위년 11월 26일 丙寅; 『英祖實錄』 卷2, 즉위년 12월 4일 癸酉; 『英祖實錄』 卷2, 즉위년 11월 5일 甲戌; 『英祖實錄』 卷2, 즉위년 11월 8일 丁丑; 『英祖實錄』 卷2, 즉위년 11월 10일 己卯.

관련하여 이전에 있었던 임인옥사가 무욕이었으며, 동시에 영조의 즉위를 정당화하는 조치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1725년(영조 1) 乙巳換局은 노론 중심의 정국운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월 승지 尹鳳朝가 올린 소론의 대한 처벌상소를 계기로 소론이 축출되었으며, 노론계인 鄭維, 閔鎮遠, 李觀命을 삼정승으로 삼았다.<sup>12)</sup> 3월에는 민진원의 요청으로 신임옥사를 소론에 의한 무고로 판정하고 관련자를 일체 신원하였다. 이를 통해 노론계를 중심으로 정국이 재편되었다.<sup>13)</sup>

을사환국의 과정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신임옥사로 인해 사사된 노론 사대신에 대한 처우였다. 사대신의 官爵을 회복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였다.<sup>14)</sup> 이와 함께 李健命은 忠愍, 趙泰采는 忠翼, 李頤命은 忠文, 金昌集은 忠獻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sup>15)</sup> 復官과 贈諡를 통해 임인옥사는 士禍·誣獄으로, 사대신은 被禍된 인물로 규정되었다.

사대신에 대한 신원과 함께 사우 건립에 대한 요청이 진행되었다. 이는 京畿·忠淸道 유생들의 청원으로 시작되었다.

京畿·忠淸 두 道の 儒生 尹來成 등이 상소하여 忠獻公 金昌集·忠文公 李頤命·忠愍公 李健命·忠翼公 趙泰采의 祠宇를 果川의 盤奚에 세울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에 四大臣이 誠心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데 대하여 느닷없이 슬픔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신축년·임인년의 일은 옛날에도 보기 드문 바이다. 지금 伸雪하는 날에 이르러 褒賞하는 恩典이 있어야 바야흐로 그 영혼을 위로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兩朝의 德意를 본받는 일이다. 祠宇를 세우는 일은 事體가 지극히 중대하니, 大臣에게 의논하여 稟處하라.”하였다.<sup>16)</sup>

12) 『英祖實錄』 卷3, 원년 1월 11일 庚戌; 『英祖實錄』 卷3, 원년 1월 12일 辛亥.

13) 을사환국의 과정은 鄭萬祚, 앞의 논문, 1983, 33~47쪽; 李熙煥, 앞의 책, 1995, 251~254쪽 참조.

14) 『英祖實錄』 卷4, 원년 3월 2일 庚子.

15) 『英祖實錄』 卷5, 원년 4월 4일 辛未.

16) 『英祖實錄』 卷7, 원년 8월 8일 癸酉.

노론계 유생들이 중심이 된 사우 청원은 신임옥사를 무욕으로 규정한 을사환국 조치 이후에 진행되었다. 사우 건립 청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영조는 신임옥사와 관련된 위훈 삭거를 종묘에 고하고 반포하였다.<sup>17)</sup> 이와 함께 사대신을 배향하는 서원 건립도 허용하였다.

忠獻公 金昌集·忠文公 李頤命·忠愍公 李健命·忠翼公 趙泰采의 書院을 명하여 세우게 하였다. …(중략)… 左議政 민진원이 아뢰기를, “四大臣을 숭후하는 것은 비록 崇報의 도리에는 합당하나 사당을 세우는 것은 폐단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故 相臣 金昌集은 巨濟島에서 逮捕되었다가 星州에서 賜死를 받았으며 거제도나 성주에는 모두 先正臣 宋時烈的 서원과 影堂이 있으니 김창집은 여기에 配享시키고, 이이명은 南海에 忠武公 李舜臣의 사당이 있으니 事蹟은 비록 다르지마는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은 같으니 여기에 配享시키고, 趙泰采는 珍島에 일찍이 귀양갔었던 여러 賢人의 서원이 있으니 또한 여기에 配享시키며, 李健命은 興陽에서 죽었고 洪양엔 戰亡한 武將 두 사람의 사당이 있어 ‘雙忠祠’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또한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은 같으니 여기에다 配享시키고, 다시 鶴號를 내리게 되면 이미 俎豆의 祭享이 있게 되므로 또한 紛雜하고 떠들썩한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하니,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사대신은 모두 한때의 대신으로 나라를 위하여 같이 죽었으니, …(중략)… 다른 사당에 配享하지 말고 별도로 사당을 세워서 함께 享祀하도록 하라”하였다. 閔鎭遠이 말하기를, “만약 별도로 사대신을 위하여 사당을 세운다면 儒疏에 의하여 果川땅에 설립하여야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果川에 사당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니, 申思喆이 말하기를, “사대신이 모두 그전에 과천 땅에서 왕래하였기 때문에 선비들의 의논이 모두 이곳에 사당을 세우려 한다고 합니다”하였다.<sup>18)</sup>

사우 건립에 대한 청원 이후 대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좌의정 민진원 등은 사우의 설립이 남설의 폐단이 있으므로, 사대신의 귀양지였던 거제도, 성주, 진도, 해남, 홍양에 위치한 기존의 사우에 합향하는 방향으로

17) 『英祖實錄』 卷7, 원년 8월 11일 丙子.

18) 『英祖實錄』 卷7, 원년 8월 16일 辛巳.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오히려 합향은 사체에 맞지 않고, 본래 존재했던 사우들의 건립 목적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별도의 사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별도의 서원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해당 사안이 정리되었다.

조선시대 서원·사우는 배향자의 연고지에 건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에 비해 사대신을 위해 세워지는 사우의 위치가 과천인 것은 그들이 “왕래”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이 지역이 평소 사대신이 살던 지역 인근이었으며, 유배를 가던 경로라는 점도 주목될 수 있다.<sup>19)</sup>

과천 노량에 서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역적 특성과 아울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우를 설치하는 인근 지역에 사육신의 묘소와 이를 배향하는 愍節書院이 위치해 있었다. 민절서원과 함께 과천에는 박태보의 鷺江書院도 있었다. 박태보는 기사환국 당시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여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도중 노량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점은 과천 그 중에서도 민절서원과 노강서원이 위치한 노량 인근 지역이 바로 충절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관련된다.<sup>20)</sup> (<그림 1>, <그림 2> 참조) 사육신의 신원과 관련하여 노론계의 영향이 적지 않은 사실도 주목해 볼 수 있다.<sup>21)</sup> 노론 사대신의 서원 역시 과천의 노량 인근에 건립하면서 사대신의 처신이 곧 사육신과 동일시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19) 『貞菴集』卷9, 上樑文, 「露梁四忠祠上樑文」, “特許祠屋之勅建 當時諱謫 偶出鷺梁之津 平日郊居 亦在牛鳴之地”

20) 사충서원 건립 배경에 대해 사육신의 사당과 인근에 있어 절의를 취하였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다(『承政院日記』2588冊, 철종 8년 2월 20일 壬寅, “竊惟四忠祠之特建露湖者 因六臣之祠 而取其節義 則崇獎之典 非不重且盛矣”)

21) 정만조, 「肅宗朝의 사육신 追崇과 書院祭享」, 『한국학논총』 33, 2010; 김문준, 「성삼문의 복권과 추승」, 『한국사상과 문화』 80, 2015.





〈그림 1〉 『靑邱要覽』(19세기) 果川縣



〈그림 2〉 『1872년 지방지도』 果川縣

서원 건립은 1726년(영조 2) 3월에 착수하여, 8월에 완공되었다. 주목할 점은 서원 건립 과정에서 조정의 물력이 적극 지원되었는데, 일례로 서원의 건립을 위한 材木은 宗廟의 餘材를 사용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다.<sup>22)</sup> 국가 차원에서 서원의 건립을 위한 물력 제공은 예외적인 사례이기도 했다. 서원의 구조는 궁궐이 위치한 북동쪽을 향하여 건립되었는데, 이는 사대신이 국가를 扶衛하고자 했던 충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해된다.<sup>23)</sup> 서원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노론계 인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24)</sup>

서원이 완공된 후 사대신을 四忠祠에 並享하면서 본격적인 서원의 기능이 갖추어 졌다.<sup>25)</sup> 祠宇에는 神位 뿐만 아니라, 사대신의 眞像을 함께 奉安하였다.<sup>26)</sup> 당시 봉안 당시 祭文은 尹鳳朝가 작성하였다.<sup>27)</sup> 11월에는 영조가 四忠

22)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荆建」.

23) 『醇庵集』 卷7, 碑, 「四忠書院廟版題辭」.

24) 대표적으로 上樑文은 閔遇洙가 부친인 閔鎭厚를 대신하여 작성하였다(『貞菴集』 卷9, 上樑文, 「露梁四忠祠上樑文」). 민우수는 당시 삼공의 하나였던 민진원의 조카임을 고려해 볼 때, 서원의 건립은 삼공을 비롯한 노론계의 인사들이 대거 관여한 큰 사업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5)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荆建」.

書院으로 賜額함과 동시에 致祭를 하였다.<sup>28)</sup> 사액과 치제를 통해 영조는 임인옥사가 誣獄임을 증명하고, 사대신에 대한 의리를 관철하고자 했다.

사충서원의 건립과 사액을 전후로 노론계 인사들은 서원을 방문하여 사대신의 업적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의리론을 관철시키고자 했다.<sup>29)</sup> 이러한 점은 노론계가 을사환국의 조치를 통해 신임옥사를 무옥으로 규정했던 자파의 입장을 공유함과 동시에 옥사의 중심에서 賜死된 노론 사대신을 현창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Ⅲ. 사충서원의 훼손과 복설

을사환국을 거쳐 노론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론계는 소론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였다. 대표적으로 鄭繼, 閔鎭遠 등은 『壬寅獄案』을 翻案함과 동시에 임인옥사가 무옥임을 자복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요구하였다. 특히 임인옥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던 峻少系 인물들에 대한 노론의 토역 요구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탕평 정국을 운영하고자 했던 영조의 입장은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조는 정미환국을 단행하여 소론 완론계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을 추진하였다. 정미환국 이후 趙文命, 趙顯命, 宋寅明 등의 소론계 인물들을 중심

26) 『醇庵集』卷7, 碑, 「四忠書院廟殿碑」, “丙午秋 祠始成 并享四公 賜額曰四忠 皆有真像奉祠中”

27) 『圃巖集』卷17, 祭文, 「四忠祠奉安時祭文」.

28) 『英祖實錄』卷10, 2년 11월 20일 戊申; 『四忠書院誌』卷4, 書院事實, 「創建」. 치제문은 徐宗及이 작성하였다(『退軒遺稿』卷5, 應製錄○致祭文, 「京畿果川四忠祠致祭祭文(丙午)」).

29) 대표적으로 魚有鳳은 서원을 방문하여 알묘와 함께 시를 작성하기도 했다(『杞園先生年譜』卷2, 「杞園先生年譜(二)」, “丙午(先生五十五歲)……秋 拜四忠祠 前歲乙巳 上命仲雪金忠獻昌集 李忠愨健命 李忠文頤命 趙忠翼泰采四臣冤誣 又命建祠于露梁江上 是年秋 祠始成 先生卽往謁 有詩志感 凡三首”).

으로 탕평 정국이 운영되었다.<sup>30)</sup>

그 결과 사대신은 관작을 추탈하고 시호가 환수되었으며, 사충서원은 훼손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sup>31)</sup> 이를 주도한 것은 李光佐였다. 이광좌는 사대신 중에서 김창집과 이견명이 역심을 품은 것은 분명하고, 나머지 두 대신 또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 결과 모든 이들의 관작과 시호가 추탈되었는데, 조태채의 경우 聯筭를 하였다는 이유 이외에는 역옥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관직은 그대로 두었다. 이는 영조의 의도라기 보다는 소론계의 입장이 정미환국을 통해 관철된 결과였다. 소론계 입장에서는 신임옥사가 무옥으로 규정되면 이에 관여한 자들이 모두 무옥의 주동자로 지목되기 때문에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영조 또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론계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론계는 임인옥사를 다시 뒤짚은 조치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원찬되거나 관직이 삭탈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정미환국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가 거부되거나 심한 경우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임인옥사에서 발생했던 노론계의 행위들은 모두 ‘忠’이 아닌 ‘逆’으로 귀결되며 이는 정당한 평가라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충서원의 훼손의 부당성을 언급하는 상소도 이어졌다. 進士 李仁甫 등이 상소를 올려 사충서원의 훼손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이인보는 그 동안 사충서원에서 여러차례 제향을 지냈다는 사실과 함께, 사대신이 세제였던 영조에 대한 충은 영조가 즉위한 현 시점에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sup>3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충서원에 대한 영조의 입장이 변화되지는 않았다.

정미환국 이후 영조는 임인옥사에 대한 양시양비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즉

30) 정미환국과 관련해서는 鄭萬祚, 앞의 논문, 1983, 47~53쪽; 李熙煥, 앞의 책, 1995, 254~258쪽 참조.

31) 『英祖實錄』 卷13, 3년 10월 6일 戊子;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毀散」.

32) 『承政院日記』 647冊, 英祖 3년 10월 11일 癸巳.

임인옥사에 대한 충역시비에 관해 특정한 봉당을 인정하기보다는 두 봉당 모두의 의리와 잘못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은 완론을 중심으로 한 탕평정국을 이끌고자 했던 영조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계의 사대신 신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노론 완론계의 좌의정 홍치중은 사대신에 대한 신원을 요청하였는데, 영조는 黨論이 생긴 이래로 智愚·賢不肖의 분간이 없어졌음을 언급하며 사대신에 대해 逆律을 시행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李眞儒를 죽이고 柳鳳輝에게 역률을 시행하고 사충서원을 중건해야만 제신이 조정에 설수 있냐고 반문하였다.<sup>33)</sup> 이진유와 유봉휘가 소론계로서 신임옥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영조가 이들의 처벌을 보류하겠다는 견해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입장과 함께 사충서원의 중건이 함께 언급되는 점이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사충서원의 훼손은 신임옥사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탕평책을 추진하려는 영조의 입장에서 신임옥사의 충역시비와 사대신에 대한 신원 문제는 정국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조는 노론과 소론 모두 양시양비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충역에 대한 평가를 사안별로 구분하고자 했다. 이는 1729년(영조 5) 己酉處分에서 확인된다. 기유처분을 통해 영조는 신축옥사와 임인옥사를 구분하여 건저 대리와 연차와 관련한 것은 역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이후 발생한 옥사는 역옥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사대신에 대한 처우의 변화가 가져왔으나, 김창집과 이이명의 경우 자손들이 임인옥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罪案에 남겨두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사대신 중에서 임인옥사와 무관한 조태채와 이견명은 관작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34)</sup>

33) 『英祖實錄』 卷19, 4년 9월 24일 辛未; 『承政院日記』 671冊, 英祖 4년 9월 24일 辛未.

34) 『英祖實錄』 卷21, 5년 3월 6일 庚戌; 『英祖實錄』 卷23, 5년 8월 18일 庚申.

노론계에서는 기유처분 이후에도 사대신에 대한 완벽한 신원을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충서원에 대한 복설을 요구하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1729년(영조 5) 12월에는 掌令 李行敏이 상소를 하여 사대신에 대한 신원을 요구하면서 사충서원이 훼손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언급하였다.<sup>35)</sup> 이에 대해 영조는 방자하고 무엄하다는 태도로 일축하였으며,<sup>36)</sup> 집의 이민유는 사충서원 터를 언급한 이행민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sup>37)</sup>

이러한 사례들은 사대신에 대한 처결과 사충서원의 복설이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영조가 사대신에 가진 태도는 여전히 보류였으며, 사대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없고 이해했다. 실상 임인옥사를 신축년과 임인년으로 구분하고자 했던 태도도 현실적인 교육책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충서원의 복설은 사대신을 상징으로 신임옥사에서 죄를 받은 인물들을 모두 충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옥사를 주도했던 소론계의 입장도 반영해야 했던 현실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이후 영조 스스로 사충서원의 사액과 훼손은 過猶不及의 실수라고 규정했던 사실은 사충서원이 노론계에서 주장한 사대신에 대한 신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up>38)</sup>

이러한 영조의 입장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736년(영조 12) 조태채와 이건명의 시호를 회복하였다.<sup>39)</sup> 반면 김창집과 이이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건저와 연차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충을 강조하고 이후 발생한 것은 역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했던 영조의 입장이 반영

35) 『英祖實錄』 卷24, 5년 12월 7일 丁未; 『承政院日記』 698冊, 英祖 5년 12월 7일 丁未.

36) 『承政院日記』 698冊, 英祖 5년 12월 7일 丁未.

37) 『承政院日記』 698冊, 英祖 5년 12월 14일 甲寅.

38) 『英祖實錄』 卷33, 9년 2월 6일 戊午; 『承政院日記』 756冊, 英祖 9년 2월 6일 戊午, “至有四忠祠 則亦不免爲過猶不及之失 予有歉然矣”

39) 『英祖實錄』 卷41, 12년 3월 19일 癸丑.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대신 모두를 배향하는 사충서원이 중건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다. 영조 스스로 시호를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사충서원을 다시 세울 생각이 없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sup>40)</sup> 영조가 이러한 입장을 세운 이유는 신임옥사와 관련한 논란에서 사충서원의 건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시각은 1740년(영조 16) 임인옥사 전체를 소론 측의 무고로 인해 규정한 庚申處分을 통해 변화하였다. 임인옥사 전체를 소론측의 무고로 규정하면서 그 동안 신원을 미루었던 이이명과 김창집이 복관되었다.<sup>41)</sup> 1741년(영조 17)에는 『壬寅獄案』을 불태우고 『辛酉大訓』을 반포하였다. 「신유대훈」은 신임옥사가 무옥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조치였다. 이를 통해 노론계의 신임의리가 확정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노론 중심의 탕평 정국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sup>42)</sup>

「신유대훈」과 함께 김창집과 이이명의 시호가 회복되었고 이외에 신임옥사와 관련된 인물들의 작위가 追復되었다.<sup>43)</sup> 하지만 신유대훈의 결과 사대신에 대한 차등적인 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신임옥사로 인해 처벌받은 모든 이들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용택을 비롯한 5명은 『逆案』에 그대로 포함함으로써, 여전히 신임옥사에 대한 완벽한 노론의 입장이 관철되지는 못하였다.<sup>44)</sup> 사충서원에 대한 중건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실도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755년(영조 31) 소론계에 의해 발생했던 乙亥獄事는 신임옥사의 평가에

40) 『承政院日記』 824冊, 영조 12년 4월 18일 壬午, “子有所守 異於前日之撓讓 今雖復寤 豈復建四忠祠耶 半夜下教之意 亦豈變改耶 不可以此看作大事 互相爭辨 迄可休矣”

41) 『英祖實錄』 卷51, 16년 1월 10일 壬子;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毀散」.

42) 鄭萬祚, 1986,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少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歷史學報』 111, 102-109쪽.

43) 『英祖實錄』 卷54, 17년 9월 27일 己丑.

44)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毀散」.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을해옥사를 통해 소론의 전면적인 실각이 이루어졌으며 노론 중심의 국정운영이 전개되었다.<sup>45)</sup> 다른 한편 을해옥사는 영조의 의리론이 관철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을해옥사가 정리된 후 영조는 『闡義昭鑑』 찬술을 명하고 9월에 완성하였다. 『천의소감』은 신임옥사부터 을해옥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서술하여 영조의 왕위 계승이 정통성에 입각한 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노론계를 중심으로 한 충역의리론을 재평가한 것으로 이해된다.<sup>46)</sup> 영조는 『천의소감』 찬술을 통해 신임의리를 공고히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점은 『천의소감』의 편찬과 맞물려서 사충서원이 복설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충서원의 복설은 다음의 논의에서 확인된다.

좌의정 金尙魯가 아뢰기를, “四大臣은 先朝의 顧命大臣으로서 동시에 국가를 위하여 죽었으니, 지금 의리를 밝히는 날을 맞이하여 褒獎하는 恩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 마을에 旌門을 세우고 그 祠宇인 四忠祠를 復設해야만, 殉國한 忠節로 하여금 천하 후세에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建讞代理의 일로써 나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어찌 愴然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旌閭하고 사우를 세움은 분수에 지나친 듯하다.” 하였다. 知事 李成中이 말하기를, “의리를 밝힌 뒤에는 일의 체통이 自別하니, 포장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병조 판서 홍봉한은 말하기를, “四忠에 대한 表章은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聖意에 반드시 정려하고 사우를 다시 세우는 두 가지 일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사우를 세우는 일이 정려하는 것보다 나으니, 먼저 사우를 복설하고 천천히 정문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사우를 복설하라고 명하였다.<sup>47)</sup>

45) 裴惠淑, 「乙亥獄事の 參與階層에 關한 研究: 羅州 掛書事件을 中心으로」, 『백산학보』 40, 1992; 조운선,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の 추이와 정치적 의미」, 『韓國史學報』 37, 2009.

46) 김백철, 「英祖의 義理明辯書 『闡義昭鑑』 편찬과 정국변화-堯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전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 21, 2010.

47) 『英祖實錄』 卷86, 31년 12월 14일 癸丑.

사충서원의 복설은 노론계인 김상로와 홍봉한의 건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영조는 사충서원의 복설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미환국 이후 영조는 사충서원의 복설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복설을 주장한 이들을 처벌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충서원 복설 승인은 이 전과는 달라진 영조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丁未換局 이후로 신임옥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단계적인 평가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충서원의 복설은 1756년(영조 32) 2월에 시작되어 8월에 완공되었다.<sup>48)</sup> 완공과 함께 현판은 舊額을 그대로 따랐으며,<sup>49)</sup> 상량도 함께 진행되었다.<sup>50)</sup> 주목할 점은 사충서원의 복설과 관련하여 이전에 비해 한층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호조 錢 300냥, 병조 木 5同, 선혜청 米 100石을 劃給하여 복설이 진행되었다.<sup>51)</sup> 이러한 지급 과정에서 비변사 및 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체로 사액서원의 경우에도 일부 건물의 改修 이외에는 서원에 직접적으로 물력을 제공하는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 비하여 사충서원의 복설은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인 물력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설이 완료된 후 치제가 결정되었다.<sup>52)</sup> 치제는 예조 낭청이 香祝을 가져가고 제물과 집사는 경기에서 差定進排하였다. 성대하게 진행된 치제는 최종적으로 사대신에 대한 평가가 ‘忠’의 관점에서 정론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복설 이후 사대신에 대한 문집 편찬도 함께 진행되었다. 홍봉한의 발의로 진행된 사충문집 편찬 사업은 사대신의 유문과 행적을 통일된 형태로 완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53)</sup> 시호, 서원, 그리고 문집의 간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

48)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重建」; 『英祖實錄』 卷88, 32년 8월 19일 乙卯.

49)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重建」.

50) 『退軒遺稿』 卷9, 上梁文, 「四忠祠重建上梁文(丙子)」. 상량문을 작성한 徐宗(卞)은 영조 2년 치제문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51) 『承政院日記』 1130冊, 英祖 32년 4월 3일 庚子; 『備邊司謄錄』 英祖 32년 4월 4일.

52) 『英祖實錄』 卷88, 32년 8월 19일 乙卯.



정은 사대신이 정치 및 학문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4)</sup> 이러한 조치들이 영조대 후반에 이르러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면서 ‘四忠’은 국가적인 正論을 획득하였다.

사충서원의 복설로 인해 노량 인근은 노론계의 충절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사충서원의 사대신과 민절서원의 사육신, 그리고 노강서원의 박태보는 서로 충절과 연계되면서 노량은 충절로 상징화되었다. 특히 사대신과 사육신은 서로 연계되면서 사대신의 賜死가 곧 사육신의 단종에 대한 충절과 동일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노론계 인물들은 민절서원과 사충서원을 동시에 방문하면서 사대신에 대한 충절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sup>55)</sup>

이상과 같이 사충서원의 훼손과 복설 과정은 영조대 전반 의리론의 정립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천의소감』의 간행과 사충서원의 복설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사대신의 문집도 완성되었다. 사충서원의 복설은 최종적으로 사대신에 대한 충역 시비가 충으로 귀결되는 정론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53)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重建」.

54) 도통의 관점에서 서원 건립과 문집 간행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 특정 인물을 추념하고 제향과 강학이 결합된 서원은 도통을 구축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와 더불어 문집의 간행은 인물의 행적으로 기억하고 전승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이다. 문집 간행은 서원이 건립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서원은 문집 간행의 발의처 혹은 문집판각을 보관하는 저장소로서 기능한다(서정문, 『朝鮮中期의 文集編刊과 門派形成』,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정석태,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퇴계학논집』 2, 2008;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헌서원 운영과 위상」, 『한국사상사학』 61, 2019; 이경동, 「조선 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유학연구』 52, 2020). 이와 함께 문묘종사·종묘배향 등도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학파 혹은 정파적 정당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55) 『夢梧金公年譜』 卷1, 年譜, 「夢梧金公年譜」, “三十五年己卯(公年三十二歲) … 四月 陪伯氏 謁六臣祠及四忠祠”

#### IV. 복설 이후 사충서원의 현창과 운영

영조대 전반 확정된 신임의리는 영조대 후반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신유대환 조치 이후 신임의리는 정론이 되었으며 변경되지 않았다.<sup>56)</sup> 신임옥사가 영조가 세제로 책봉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옥사와 관련된 인물들도 결국은 자신의 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영조의 재위기간 발생한 대부분의 반란들이 영조의 왕권을 도전하거나 정통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영조로서는 자신과 관계된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를 확정하고 하나의 正論으로 귀착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신임의리를 기준으로 충역을 평가하는 작업은 영조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다. 다만, 그 과정이 30여년이 넘는 지난한 시간을 거쳤던 것은 탕평정국을 추진하고자 했던 영조 자신의 의지와 더불어 임인옥사와 연루된 인물과 그 후손들이 영조대에도 여전히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 사후에도 신임의리로 귀착된 시각들은 여전히 유효했다. 정조는 조부 영조에 종묘 배향 공신의 하나로 김창집을 선정하였다.<sup>57)</sup> 김창집은 사대신 중에서 시비논란을 거쳐 가장 마지막에 復官과 贈諡가 이루어진 인물이기도 했다. 사대신 중에서도 김창집만을 배향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사실상 김창집을 통해 신임의리를 재천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배향 직후 노량을 행차하다가 승지를 보내어 사충서원에 치제를 단행하였다.<sup>58)</sup> 1779년(정조 3)에는 여주에 있는 김창집의 묘소에 치제를 하였다.<sup>59)</sup>

정조는 1781년(정조 5) 元陵에 行幸을 하면서 四忠書院에 치제를 하였다.<sup>60)</sup> 친행의 계기는 영조가 세제가 되었던 1721년(경종 1)의 干支였기 때문

56) 최성환, 「경종대 신임옥사와 충·역 의리의 귀결」, 『民族文化』 58, 2021.

57)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重建」.

58)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重建」.

59) 『四忠書院誌』 卷4, 書院事實, 「重建」.

이었다. 이에 영조의 세제시절에 공로가 있었던 사대신과 김성행, 서덕수에 대한 褒獎를 통해 영조를 추념하고 신임의리에 대한 계승을 천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sup>61)</sup>

이후에도 사충서원에 대한 치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충서원이 노량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도 연계된다. 현릉원·화성으로 행차하는 주요 경로인 노량행궁과 시흥행궁 사이에 사충서원이 위치해 있었다.<sup>62)</sup> 능행 과정에서 정조는 인근 지역 서원·향교에 대한 치제를 시행하였는데 사충서원은 재위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치제 사례가 확인된다.

사충서원의 치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사충서원 치제 사례

시기	사유	제관 직책	근거
영조 2 11월	서원 건립		英祖實錄, 四忠書院誌
영조 32 8월	서원 복설	禮曹郎廳	英祖實錄, 四忠書院誌
정조 5 1월	영조 세제 책봉 1回甲, 元陵 행행	左副承旨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四忠書院誌

60) 『正祖實錄』 卷11, 5년 1월 27일 庚子; 『日省錄』 正祖 5년 1월 27일 庚子; 『承政院日記』 1479冊, 正祖 5년 1월 28일 辛丑.

61) 정조의 신임의리 재천명은 다른 한편으로 임오의리를 확정하려는 정조의 의도와도 연관지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왕인 신임의리를 계승한다는 명분은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부친인 사도세자와 관련된 임오의리 역시 동일한 시각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임오의리를 재설정하고 신임의리의 재천명하는 방식은 정국 운영의 근본을 수정하려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최성환, 「영·정조대 충역 시비와 황극의 역할」, 『韓國思想史學』 66, 2020, 181~191쪽 참조.

62) 정조이후 조선시대 국왕들의 능행과 관련해서는 김지영, 「19세기 전반기 국가 의례 및 국왕 행차의 추이」, 『한국문화』 54, 2011;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민속원, 2016 참조.

정조 5 8월	-	左副承旨	四忠書院誌
정조 15 1월	顯隆園 行幸	承旨	正祖實錄
정조 21 8월	顯隆園 行幸	承旨	正祖實錄, 日省錄
순조 4 9월	健陵·顯隆園 行幸	承旨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四忠書院誌
순조 27 4월	金昌集, 趙泰采의 손자 과거 급제	左承旨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헌종 7 윤3월	영조 세제 책봉 2回甲	承旨	憲宗實錄
헌종 8 春	-		四忠書院誌
헌종 9 4월	-	都承旨	承政院日記
철종 3 2월	-	都承旨	承政院日記, 四忠書院誌
고종 5	-	右承旨	高宗實錄, 四忠書院誌
고종 38	영조 세제 책봉 3回甲	祕書院丞	承政院日記
순종 2 1월	行幸	始興郡守	皇城新聞, 四忠書院誌
순종 3 1월	南巡狩	掌禮院卿 등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

사충서원의 치제는 영조대부터 순종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빈도에 있어서도 여타 서원에 비해 높다.<sup>63)</sup> 치제 사유는 대체로 영조와 연계 되어 진행되었다. 영조가 세제에 책봉된 간지년을 기준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치제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는 능행·순행의 과정에서 치제가 이루어졌다. 이외에 사대신의 후손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치제가 이루어졌다. 치제에 따른 제관은 거의 대부분 승지가 담당했다. 1804년(순조 4) 正卿, 禮官, 承旨, 內侍의 등급에 따라 치제가 이루어졌는데, 사충서원은 국가의 입장에서 세 번째 등급의 치제 범위였음이 확인된다.<sup>64)</sup> 사충서원에 대한 치제는

63) 서원 치제는 소수서원의 宣額에서 시작되었으며 再賜額·重建이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10, 2020, 209~216쪽). 치제의 빈도가 높다고 알려진 도산서원의 경우 영조대부터 헌종대까지 6차례의 치제가 확인된다(李煥勳,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大東漢文學』 67, 2021). 사충서원의 치제 빈도는 여타 서원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사대신에 대한 추념 행위와 더불어 영조 이후의 역대 국왕들이 자신과 영조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사충서원에 대한 치제는 ‘篤不忘’ 즉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자 선대왕을 ‘繼述’하는 행위로 정당화되었다.<sup>65)</sup> 정치적 정당성과 함께 사대신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세도가문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충서원의 치제가 활용될 수 있었다.

치제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사충서원은 명실상부한 사액서원으로서 위상을 갖추어 나갔다. 국가의 간행 서적을 배포함에 있어서도 사충서원은 중요한 배포처로 확인된다. 정조대 『御定奎章全韻』과 『鄉禮合編』의 인출 당시 사충서원은 과천의 사액서원인 민절서원과 노강서원과 함께 주 배포처였다.<sup>66)</sup>

사충서원의 건립을 토대로 四大臣을 배향하는 서원·사우가 점차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이명의 유배지였던 남해에서는 鳳川祠를 건립하여 이이명의 위패와 畫像을 봉안하였다.<sup>67)</sup> 김창집의 유배지인 성주에서는 忠獻閣을 건립되었다. 이견명의 유배지였던 興陽에서도 서원 건립이 추진되어 四忠書院에 물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68)</sup> 사대신의 유배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서원·사우에 사대신이 추배되거나 새로이 사대신을 위한 서원·사우가 건립되었으며, 이후

64) 『純祖實錄』 卷6, 4년 9월 1일 丁亥; 『承政院日記』 1884冊, 순조 4년 9월 1일 丁亥.

치제관	대 상	
正卿	祠宇	闕里祠
禮官	墓所	孝寧大君·讓寧大君·永昌大君墓, 文正公趙光祖祠, 青海伯李之蘭, 故學士李阜, 左議政柳灌, 領議政鄭太和, 左議政鄭惟吉, 文貞公姜碩基, 六臣墓,
承旨	祠宇	梅谷·鳴臯·鷺江·四忠·忠賢書院
內侍	墓所	昌嬪墓·禛嬪墓·宜嬪墓·延齡君墓·海昌尉墓

65) 『憲宗實錄』 卷8, 7년 윤3월 4일 戊午; 『承政院日記』 2389冊, 헌종 7년 윤3월 4일 戊午.

66) 『日省錄』 正祖 20년 8월 11일 癸未; 『日省錄』 正祖 21년 6월 2일 辛未.

67) 『楓臯集』 卷11, 碑銘, 「鳳川祠碑」.

68) 『春坡遺稿』 雜著, 「四忠書院稟目」.

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서원 및 사우의 건립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 새롭게 건립된 서원·사우들은 사충서원의 운영방식이 기준이 되었고, 건립여부에 대한 논의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사충서원과 연계되어 있었다.

사액서원으로서 위상 확립과 더불어 이에 맞는 조치들이 추가되었다. 대표적인 조치가 면세전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서원전의 면세는 경종대 논의가 시작되어 영조대 확정되었는데 『續大典』에 의하면 사액서원은 3결의 면세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sup>69)</sup> 사충서원 또한 사액서원으로 면세전의 규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1830년(순조 30) 孝明世子の 대리청정 시기에 이르러서 基址의 면세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sup>70)</sup> 이러한 점은 사충서원이 사액서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갔음을 의미한다.

사충서원에서는 講規를 별도로 마련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원생을 중심으로 한 강학 활동이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71)</sup> 사충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의 강론 기록도 확인된다. 1778년(정조 2) 金鍾厚 등은 『大學』을 강론하였

69) 『書院叢錄』 5冊, 경종 원년 5월 25일·영조 원년 2월 16일; 『英祖實錄』 卷21, 5년 1월 9일 甲寅; 續大典 戶田, 「諸田」, 「學田」 “書院田 本院自備 雖未滿三結 勿以民結充給 … 賜額書院 三結(未賜額 則無免稅立)”

70) 『純祖實錄』 卷31, 30년 4월 20일 戊寅; 『承政院日記』 2252冊, 순조 30년 4월 20일 戊寅, “院宇基址 聞自該邑至今收稅云 賜額書院之自備立土 三結免稅 係是法典所在 況此院既異私設 而基址已屬本院 則尙此收稅 實由龔謬 令該曹知委該道 卽爲免稅 而日後位土自備免稅之時 以此並許準充三結之意 一體分付何如 令日 依爲之”

71) 현존하는 사충서원의 院規·講規는 남아있지 않으나 笏記 등에서 講規의 존재가 있음이 나타난다. 『四忠書院誌』에는 서원 강학과 관련된 규정들은 白鹿洞規·隱屏精舍學規·寒泉精舍講規 등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四忠書院誌』 「四忠書院凡例」, “院規佚不傳 焚香笏記末 有壁上講規之語 似是白鹿洞規與石潭寒泉所定 諸校院節目等事 而今不可攷矣”). 慈雲書院 深谷書院 道基書院 石室書院 등의 강학 사례에서 경기지역의 강학은 유사성을 가지며 운영되었는데, 사충서원 또한 이들 서원과 유사한 형태의 강학활동이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후기 경기지역 강학과 강규에 대해서는 이경동, 「조선시대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 『민족문화논총』 79, 2021 참조.

으며,<sup>72)</sup> 1802년(순조 2) 洪直弼은 서원을 방문한 인사들과 함께 『近思錄』을 강론했다.<sup>73)</sup> 강학보다는 제향 기능을 위주로 운영했던 당시의 서원 운영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충서원에서는 강규의 제정이나 서원을 방문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講會 등을 통해 일정한 강학활동을 하고 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사충서원은 복설 이후 노론계 인사들의 방문처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이는 사충서원의 입지가 한양으로 진입하는 大路 인근에 위치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사육신과 사대신을 추념하는 공간으로 상징화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사충서원의 주된 방문 목적은 祠宇 四忠祠에 대한 알모였다.<sup>74)</sup> 사충서원에 방문한 이들은 이에 대한 감회를 시로 남기기도 하였는데, 주요 인물들의 시 문은 다음과 같다.

- |  |   |
|--|---|
| (a) 忍見寅年又一周<br>當時孩子雪盈頭<br>可憐百折祠前水<br>長抱神京日夜流 | 임인년이 다시 돌아옴 어찌 차마 보리오<br>그 당시 아이였던 몸은 백발이 되었도다<br>어여빠라 구비구비 사당 앞의 물이여<br>도성을 길이 안고 밤낮으로 흐르누나 <sup>75)</sup>         |
| (b) 秩秩堂中四像陳<br>堂堂正氣薄穹旻<br>安危宗國今誰在<br>欲向丹青起盡臣 | 사당에 네 화상 차례로 진열되어 있으니<br>당당한 바른 기운 높은 하늘에 다다르네<br>중국의 안위를 지킬 자 지금 누가 있는가<br>단청 속의 충신들을 다시 나오게 하고 싶구나 <sup>76)</sup> |
| (c) 四公肅遺像<br>謁廟仰光輝<br>一死扶宗社<br>千秋定是非         | 네 분 공들의 초상이 엄숙하니<br>사당을 알현하며 빛나는 모습을 우러르네<br>한 번 죽어 종묘사직을 붙드니<br>천추에 시비가 정해졌네                                       |

72) 『本庵集』 卷1, 詩, 「季秋會四忠書院講大學呼韻共賦(戊戌)」.

73) 『梅山集』 卷53, 附錄, 「年譜」, “甲子先生二十九歲 四月舟遊鷺湖 與李子田龍秀李  
子岡李子埜驥秀李元裕宋末日章文綱同遊 仍拜六臣定齋四忠三書院 從弟翼弼從往  
○又與李舜卿民祐 講近思錄于四忠祠”

74) 『沙厓集附錄』 卷1, 「年譜」, “辛丑(先生三十四歲) 三月 過鷺梁 拜六臣墓愍節書院  
及四忠書院”

江聲走沙磧	강물소리 모래 자갈밭으로 달려가고
山翠滴人衣	푸른 산기운은 사람 옷에 맺히네
掌杜芳堪薦	캐낸 두약 향기로워 제물로 올릴 만한데
汀舟繫不歸	물가에 배 매어 있어 돌아가지 못하네 <sup>77)</sup>

시문에는 (a)와 같이 사우를 중심으로 한 서원의 풍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b)와 (c)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四忠祠를 拜謁하고 사대신의 충절을 회상하고 있다. 대체로 외부에서 서원을 방문할 경우 알묘를 통해 사대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표창하였다. 시문에 등장하는 사대신은 신인옥 사에 宗國을 지켰거나 종묘사직을 지켰던 인물로 묘사되면서 신임옥사가 ‘逆獄’이 아닌 ‘土禍’로 이해하고 있었다. 현존하는 시문은 사충서원이 건립된 1726년(영조 2)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사들의 방문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준다.<sup>78)</sup> 또한 서원을 방문한 인물들이 대부분 노론계 인사였던 점에서도 이들이 가진 봉당적 속성을 살펴볼 수 있다.

서원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됨에 따라 院任을 비롯한 서원 내부의 운영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서원 내부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 상이 말하기를 “四忠祠의 院長과 齋任은 누구인가?” (東水庫 別提 李英教가 말하기를 “원장은 없고 齋任 1인은 尹義厚인데 나머지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상이 말하기를 “死六臣과 朴泰輔의 서원은 모두 四忠祠 隣近處에 있는가?” 이영교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상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에 치제하라는 명을 했었다.” 이영교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상이 李秉模에게 이르기를 “四忠祠는 4가문의 자손이 담당하고 있는가?” 이병모가 말하기를 “서원

75) 『三山齋集』 卷1, 詩, 「謁四忠祠」.

76) 『梅山集』 卷1, 詩, 「四忠書院」.

77) 『眉山集』 卷1, 詩, 「拜四忠書院」.

78) 현존하는 사충서원 관련 시문은 『四忠書院誌』 卷4, 「諸家題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 모든 일은 재임이 專管하여 거행하고, 자손은 담당하지 않습니다.”<sup>79)</sup>

- (b) 맑고 바람 서늘하며 낮에는 구름 낀. 밥을 먹은 후에 승례문을 나가서 鷺渚江을 건너 六臣墓碑에 들렀다. 육신묘는 마을 뒤에 있고 비석은 마을 문 앞에 있었다. 둘러본 뒤에 四忠祠에 이르니 고지기(庫直)가 요깃거리를 내왔다. 먹은 후에 사방을 두루 둘러보았다. 사충사 廟碑가 사당 문 밖에 있었는데, 碑文은 대제학 醇庵 文靖公 吳載純이 짓고, 영의정 孝安公 洪樂性이 쓰고, 영의정 文貞公 金燧이 머리의 전서를 썼다. 사당과 담장이 퇴락해 무너져서 사방 가릴 것이 없었다. 2경에 秋享을 거행하였다. 初獻官은 제일 有司인 黃崑淵이 맡았고, 亞獻官은 내가, 三獻官은 尹命普가 맡았다. 향로 담당은 尹春求, 향 담당은 徐載昌, 大祝官은 李漢教였고, 그밖에는 다 적을 수가 없다. 제례를 마치고 영정을 보았다. 첫째 자리는 夢窩 忠獻公, 둘째 자리는 二憂堂 忠翊公, 셋째 자리는 跡齋 忠文公, 넷째 자리는 寒圃齋 忠愍公이었다. 神位가 차례로 봉안되어 있었고, 신주에는 某政丞某諱號某先生神位라고 쓰여 있었다. 사당 문을 나와 음복한 뒤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져서 음식점에 이르러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sup>80)</sup>
- (c) 四忠書院의 西齋掌議인 趙亨燮이 돼지 다리 한 짝을 보내왔는데, 제사에 쓴 고기를 나누어 음복하는 법도 때문이다.<sup>81)</sup>
- (d) 露梁親四忠書院內地段은 元來四忠子孫의 所有地로 貳百餘年을 傳來하던 바 인디 昨冬에 臨朔邦產調查局에서 該地段을 日人中島司馬之助의게 限十年許 借흔지라 該局에 累度請願하야 認許를 作消하랴 하되 尙今延擱托하흔故로 該院長金鶴鎮氏와 其餘紳士 諸氏가 聯名하야 統監府에 長書를 提出하고 該地段을 依前還付하랴 하얏다더라<sup>82)</sup>

사충서원의 원임은 원장-장의-유사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점은 노론계 서원의 일반적인 원임 구성을 따른 것이다.<sup>83)</sup> 서원이 건립된 초기에는

79) 『承政院日記』 1584冊, 正祖 9년 6월 11일 戊子, “上曰 四忠祠院長齋任誰也 英教曰 院長無之 齋任一人 卽尹義厚 而餘未詳知矣 上曰 六臣及朴泰輔書院 皆在四忠祠隣近處乎 英教曰 然矣 上曰 子於向來 有致祭之命矣 英教曰 然矣 上謂秉模曰 四忠祠 四家子孫次知乎 秉模曰 書院凡事 齋任專管舉行 而子孫不爲次知矣”

80) 『靑又日錄』 辛巳 8월 27일 丙戌.

81) 『靑又日錄』 辛巳 8월 28일 丁亥.

82) 『大韓每日申報』 1909년 10월 22일.

원장이 선임되지 않고 齋任만이 존재한 것으로 이해되며(a), 18세기 후반 늦어도 19세기에는 원장이 선임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西齋掌議라는 직임으로 미루어보아(c) 서재와 동재에 掌議가 각기 선임되었으며, 이들은 향사를 비롯한 서원 운영일반을 담당했다. 이외에 庫直이 서원의 말단 업무를 수행했음이 확인된다(a).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사대신 가문의 참여보다는 지역 혹은 노론과 관련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서원이 운영되었으나(a), 점차적으로 사대신의 후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d). 서원이 ‘四忠子孫의 所有地’라는 개념으로 미루어 보면 점차적으로 서원에 대한 소유 혹은 운영 권한이 사대신의 후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기 향사와 관련해서는 春秋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朔望 焚香이 있었다. 향사일은 下丁日에 운영되었다. 향사에는 初獻官, 亞獻官, 三獻官의 세 헌관을 구성하고, 이외에 諸執事가 확인된다. 향사 종료 후에는 飲福禮를 행하였다. 향사가 종료된 후에는 掌議가 향사에 참여한 이에게 제물을 나누어주는 分胙를 시행하였다(d). 전체적인 향사 절차를 보면 일반적인 서원의 제례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sup>84)</sup> 사충서원의 향사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기능은 20세기 초까지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83) 서인계 서원은 院長-掌議-有司-直月을 기본 구조로 운영되었다. 원장은 京中の 고위 관료가 역임하였으므로, 실제 서원의 대소사는 장의를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원장-유사 체제로 운영된 남인계 서원의 원임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118~127쪽). 서인계 서원의 원임 구조는 이이의 隱屏精舍 체제를 수용한 것이며, 서원에 따라 직제별 인원의 가감이 존재한다. 한편 근대화 이후 새롭게 제정된 원규에 의하면 원임의 직제는 院長(1)-都有司(1)-有司(3)-掌議(10)-色掌(4)로 구성되어 있다(『四忠書院誌』 卷4, 『四忠書院原則』). 여타 서원에 비해 원임의 규모가 크고 서인계 서원과 달리 유사가 장의보다 직책이 높다.

84) 『四忠書院誌』에는 春秋享祀 및 朔望焚香에 대한 笏記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략 조선시대의 의례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四忠書院誌』 卷4, 笏記, 「春秋釋采笏記」·「朔望焚香笏記」).

이상과 같이 사충서원은 영조대 이후 경기의 주요한 사액서원으로의 위상과 함께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1868년(고종 5) 서원훼철령에도 불구하고 과천에서 유일하게 존속한 서원이기도 하다.<sup>85)</sup>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치제와 노론계 인사들의 서원 방문을 통해 그 위상을 획득하였으며, 서원 내부에서도 향사, 강학 등의 활동은 서원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끌었던 원인이 되었다. 이를 통해 임인의리의 상징이자 경기지역 노론계의 중심 서원의 하나로서 사충서원은 자리잡을 수 있었다.

## V. 맺음말

사충서원의 건립과 이후 전개과정은 18세기 탕평론의 전개과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 특히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노론 사대신을 중심으로 한 신임옥사의 충역시비의 평가 과정에서 사충서원은 건립과 훼철, 그리고 복설의 과정을 거쳤다. 乙巳換局과 丁未換局의 과정에서 노론 사대신의 충역이 반복되면서 사충서원도 건립과 훼철을 겪었으며, 辛酉大訓과 을해옥사 이후 『闡義考』의 간행 등을 통해 정립된 영조의 신임의리는 사충서원의 복설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충서원은 신임옥사와 관련된 의리론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서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은 ‘尊賢’과 ‘養士’의 주요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집 등 서적의 간행에 비

85) 『高宗實錄』 卷8, 8년 3월 20일 庚戌. 서원훼철령 당시 사충서원은 石室書院·華陽書院 등 노론계 주요서원과 달리 존속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여타 노론계 서원에 비해 사충서원이 가진 영향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사충서원이 영조의 辛壬義理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노론’이라는 측면보다는 ‘충절’이라는 측면에 근거하여 훼철에서 제외된 사유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서원훼철과 이후에 진행된 치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서 先賢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서원 건립과 운영은 집단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더하여 국가 차원의 치제와 면세전의 혜택, 그리고 봉당 내부의 지원 등은 서원의 운영을 지속적이면서도 공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끝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사충서원의 원임과 원생의 구성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추가적인 자료가 발굴된다면, 사충서원을 중심으로 한 강학과 제향 등에 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sup>86)</sup> 사충서원 연구의 심화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경기 지역 서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86) 『先生案』과 『尋院錄』은 망실된 후 丁卯年(1927) 이후부터 新修하였다고 한다(『四忠書院誌』 卷4, 「備品」).

## 【참고문헌】

### 1. 자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內閣日曆』  
『續大典』, 『書院謄錄』  
『四忠書院誌』  
『靑又日錄』  
『大韓每日申報』  
『鼓山集』, 『果菴集』, 『金陵集』, 『杞園集』, 『老洲集』, 『嚮淵集』, 『梅山集』, 『夢梧集』,  
『眉山集』, 『本庵集』, 『鳳麓集』, 『沙厓集』, 『三山齋集』, 『醇庵集』, 『穎翁再續藁』, 『貞菴集』, 『重菴集』, 『春坡遺稿』, 『圃巖集』, 『退軒集』, 『楓臯集』

### 2. 단행본

吳甲均, 『朝鮮後期黨爭研究』, 三英社, 1999.  
오항녕, 『후대가 판단케 하라- 조선실록의 수정과 개수』, 역사비평사, 2018.  
이근호,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민속원, 2016.  
李棣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민속원, 2016.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88.  
李熙煥, 『朝鮮後期黨爭研究』, 國學資料院, 1995.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홍순민, 『영조, 임금이 되기까지』, 놀와, 2017.

### 3. 논문

김백철, 「英祖의 義理明辯書『關義召鑑』 편찬과 정국변화-堯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전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 21, 2010.  
김우진, 「숙종대의 문묘(文廟) 정비와 그 의의」, 『역사와 현실』 119, 2021.  
김지영, 「19세기 전반기 국가 의례 및 국왕 행차의 추이」, 『한국문화』 54, 2011.

- 朴光用,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 『韓國史論』 10, 1983.
- 朴光用, 「조선후기 당쟁과 정국운영론의 변천- 18세기~19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朴光用, 「朝鮮後期「蕩平」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정만조, 「肅宗朝의 사육신 追崇과 書院祭享」, 『한국학논총』 33, 2010.
- 김문준, 「성삼문의 복권과 추송」, 『한국사상과 문화』 80, 2015.
- 서정문, 『朝鮮中期의 文集編刊과 門派形成』,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옥영정, 「『關義昭鑑』의 간행과 서지적 특성」, 『정신문화연구』 21, 2010.
- 이경동, 「조선시대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 『민족문화논총』 79, 2021.
- 李煥勳,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大東漢文學』 67, 2021.
- 이지영, 「『關義昭鑑彙解』의 異本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21, 2010.
- 李熙煥, 「景宗代의 辛丑換局과 壬寅獄事」, 『全北史學』 15, 1992.
- 鄭萬祚,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활동- 蕩平基盤의 成立에 이르기까지」, 『震檀學報』 56, 1983.
- 鄭萬祚,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少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歷史學報』 111, 1986.
- 정석태,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퇴계학논집』 2, 2008.
- 鄭承喆, 「『關義昭鑑彙解』의 異本 比較」, 『奎章閣』 13, 1990.
- 정희선, 「경종조 신임사화(辛壬士禍)의 발생원인에 대한 재검토」, 『宋俊浩敎授受停年紀念論叢』, 宋俊浩敎授受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7.
- 정희선, 「경종조 신축환국(辛丑換局)의 전개와 김일경(金一鏡)」, 『전북사학』 11·12, 1989.
- 조운선,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韓國史學報』 37, 2009.
-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追享禮·致祭禮·賜餼禮를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10, 2020.
- 최성환, 「영·정조대 충역 시비와 황극의 역할」, 『韓國思想史學』 66, 2020.
- 최성환, 「경종대 신임옥사와 충·역 의리의 귀결」, 『民族文化』 58, 2021.
- 허태용, 「『景宗實錄』을 통해서 본 少論의 정치 義理 검토」, 『민족문화연구』 60, 2013.
- 허태용, 「『景宗實錄』과 『景宗修正實錄』의 비교를 통해서 본 老論의 정치의리」, 『사학연구』 112, 2013.

Abstract

##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Sachung-seowon in Late Joseon

Lee kyung-d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context and the status of seowon of the time through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Sachung-seowon(四忠書院). Sachung-seowon was promoted to be built along with venting the spite of Kim Chang-jip(金昌集), Lee Yi-myeong(李頤命), Lee Geon-myeong(李健命), and Cho Tae-chaem(趙泰采), the four ministers of the Noron(老論) line who got to be killed in 1722 while the state affairs were managed mainly around Noron in 1725. The petition for the foundation of the seowon led by the Noron partisan came to be completed around August in 1726 through the discussions inside the court. Sachung-seowon was officially approved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and with this process, King Yeongjo(英祖) formalized that the four ministers died in prison innocently. In 1727, Sachung-seowon was abolished by the government. This was the result of reversing the evaluation of the four ministers. After that, Sachung-seowon was restored by the royal command in 1756. Since then, Sachung-seowon has been operat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seowon in Gyeonggi. Up to the early 20th century, it maintained its status as the government continued to hold rituals and Neo-confucian intellectuals kept visiting it. Mostly, the administrators, teachers and students of the seowon continued to do such activities as

---

\* Research Professor, Kongju University / geistlkd@hanmail.net

eneration and learning.

Key word : Sachung-seowon(四忠書院), King Yeongjo(英祖), Kim Chang-jip(金昌集), Lee Yi-myeong(李頤命), Lee Geon-myeong(李健命), Cho Tae-chaе(趙泰采)

논문 투고일: 2022. 11. 24 심사 완료일: 2022. 12. 13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임근살\*\*

- I. 서론
- II. 선산 金烏書院의 건립 추이
- III. 인동 吳山書院의 건립 추이
- IV. 금산 星谷書院의 건립 추이
- V. 결론

## 【국문초록】

吉再는 고려 말기 영남지역에서 은거하여 조선이 건국된 후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후학 양성에 매진한 인물이었다. 길재는 그의 문인이었던 조선 초기 도학자들과 동방 理學의 祖인 정몽주를 잇는 가교로 위치하였다. 조선에서 서원의 설립이 진행되면서 길재를 제향하는 서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1570년대 선산에선 金烏書院이 건립되었고, 1580년대 인동에선 吳山書院이 건립되었으며, 17세기에 들어서면 금산에서 星谷書院이 건립되었다.

금오서원과 오산서원은 16세기 분기하는 ‘道統論’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금오서원은 松堂學派의 주도로 길재, 김종직, 정봉, 박영을 제향하였고, 이 계보를 『一善誌』에 수록하였다. 오산서원은 퇴계학파의 주도로 길재를 제향하고, 김종직 이후 조광조와 이언적, 이황으로 이어지는 계보 의식을 『吳山志』에 수록하였다. 금산에 건립된 성곡서원은 지역의 鄉賢을 함께 모시기 위해 건립하는 의미가 강한 곳이었다. 성곡서원은 금산에서 최초의 서원으로 길재를 포함하여 모두 6인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29일 구미성리학역사관이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야은 길재의 재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coll1123@koreastudy.or.kr

을 제향하였다. 하지만 성곡서원은 금산지역의 유일한 사액서원으로, 사액을 추진할 때 길재의 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서원들은 조선시대 지식인에게 길재의 도학자적 성격을 추모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보완하여 길재의 총질자적 성격을 기리는 상징으로는 採薇亭, 砥柱中流碑, 不二祠가 기능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금오서원과 채미정, 오산서원과 지주중류비, 성곡서원과 불이사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주제어 : 길재, 금오서원, 오산서원, 성곡서원, 채미정, 지주중류비, 불이사

## I.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이 설립되고 제향인물의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서서히 도학자를 祭享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 제향인물의 선정에 조선 道學의 계보의식이 반영되었다. 도학은 道統意識이 내포된 사상으로 시기마다 변화하였다. 조선초기의 道統論은 許衡-李穡, 李齊賢-李穡-權近, 李穡-鄭道傳-權近, 權近-吉再-金叔滋-金宗直-金宏弼의 도통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sup>1)</sup> 하지만 16세기 사림파가 성장하면서 정통성 있는 조선 도통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지식인들 사이에서 吉再(1353년~1419)의 존재가 주목되었다.

길재는 고려말기 영남지역에서 은거하여 조선이 건국된 후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후학 양성에 매진한 인물이었다. 특히 길재는 鄭夢周(1337~1392)와 그의 문인이었던 조선 초기 학자들을 잇는 가교로

1) 심예인, 「여말선초 道學의 성격과 道統論」, 『朝鮮時代史學報』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7~41쪽.

위치하였다. 따라서 길재는 ‘정몽주-길재-金叔滋-金宗直-金宏弼-趙光祖’로 이어지는 조선의 도통에서 결락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와 함께 조선 전역에서 서원의 설립이 진행되면서 길재를 제향하는 서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길재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기 위한 논의는 李滉(1501~1570)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549년(명종 4) 12월 이황은 白雲洞書院의 사액을 추진하면서, 서원에서 제향할 수 있는 인물로 崔沖(984~1068)·禹倬(1263~1342)·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을 꼽았다.<sup>2)</sup> 이들은 고려시대와 조선전기까지의 유학자 또는 도학자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이었다. 이때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은 도학을 전수한 사승관계로 이어지는 인물들이었고, 조광조는 아직 伸冤되지 않은 상황이라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길재를 제향하는 서원의 필요성은 盧慶麟(1516~1568)과 李楨(1512~1571)에 의해 이어졌다. 1559년(명종 14) 노경린은 이정과 迎鳳書院의 건립을 논의하며 영남 지역에 길재와 김유신을 모시는 곳이 없음을 말하였다. 노경린은 길재는 정몽주의 문하이며 고려에 절개를 다한 鄉先生으로 평가하면서 제향하는 사우뿐만이 아니라 서원을 세우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이며, 큰 공적에 대한 보답[大功之報]이라 하였다.<sup>3)</sup> 이정도 노경린의 의견에 공감하여 길재의 祠宇가 필요하며 국가적으로 永慕해야 하는 인물이라 평가하였다. 이처럼 지식인들 사이에서 길재를 제향하는 서원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길재를 제향하는 서원은 1570년대 善山에서 金鳥書院이 건립되었고, 1580년대 仁同에서 吳山書院이 건립되었으며, 17세기에 鎭山에서 星谷書院이 건립되었다. 이들 서원은 모두 길재의 연고지에 건립되어 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지역에 위치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16세기 건립된 금오서원과 오산서원에 관련한 주제가 주로 분석되었다. 금오서원의 역사상을 규명하거나 朴莢(1471~1540)의 문인들

2) 『退溪集』 卷9, 「上沈方伯【通源○己酉】」.

3) 『迎鳳志』, 「廟院定議錄·與李承宣書」.

을 결집시키기 위한 기관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sup>4)</sup> 오산서원이 퇴계학파의 도통론 및 서원운영론을 반영한 곳이었다는 점을 밝힌 연구<sup>5)</sup>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길재를 제향한 서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선 길재를 제향하는 사액서원을 중심으로 16세기 선산과 인동, 17세기 금산에서 서원이 건립되는 추이와 그 성격을 究明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길재를 제향하는 서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 II. 선산 金烏書院의 건립 추이

길재는 조선의 道統이 정립되어 가면서 도학의 계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를 제향하는 서원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의 고향인 善山에서는 서원이 설립되었다.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한 16세기 중엽의 조선 道學은 道統論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道統에 그들의 지식 계보인 學統을 연결시켰고, 이는 서원의 제향인물을 통해서 표출되었다. 松堂學派로 결집되는 선산의 지식인들은 朴莢(1471~1540)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龔鵬-박영’으로 이어지는 지식 계보를 金烏書院의 건립을 통해 표방한 것이다.<sup>6)</sup>

4)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성우, 「15세기 중후반-16세기 道學運動의 전개와 松堂學派의 활동」, 『歷史學報』 202, 역사학회, 2009; 이병훈, 「조선후기 선산 금오서원의 건립과 운영」,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류영수, 「金烏書院 創建과 龜尾 精神」, 『민족문화논총』 78, 민족문화연구소, 2021.

5)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韓國書院學報』 2, 한국서원학회, 2013;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退溪學報』 137, 퇴계학연구원, 2015.

6) 『一善誌』 附錄 「琴生異聞錄」.

‘조선 인재의 절반은 영남에 있으며, 영남 인재의 절반은 선산에 있다고 말한다.’<sup>7)</sup>는 표현처럼 조선전기 선산지역은 조선 道學의 중심지 중 한 곳이였다.<sup>8)</sup> 선산은 도학과 절의로 명성이 높은 인물들이 많았고, 그중 조선시대 학자들의 학문연원은 길재에게 있었다. 길재는 선산으로 은거한 후 金叔滋(1389~1456)를 가르쳤고, 그 학문은 아들인 金宗直(1431~1492)을 통해 이어졌다. 그리고 김종직의 동지였던 金之慶(1419~1485)<sup>9)</sup>·鄭錫璜(1444~1500)<sup>10)</sup>도 선산이 연고지였다. 김종직이 선산부사로 재임하던 시기인 1477년(성종 8)에 선산향교에서 金宏弼(1454~1504)이 수학하면서 그 역시 선산을 고향으로 삼았다.

鄭鵬(1467~1512)은 선산을 고향으로 하여 성장하면서 부친과 숙부에게서 家學을 계승하였다. 이후 숙부 정석견의 주선으로 김굉필의 문인으로 수학하였고,<sup>11)</sup> 김굉필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甲子士禍에 피화되어 영덕으로 유배되었다.<sup>12)</sup> 그의 학문은 이황에 의해 정미한 지경까지 나아갔다고 평가받았다.<sup>13)</sup> 1500년(연산군 6) 정봉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선산으로 귀향하였고, 자신의

7) 『敬菴集』 卷2, 「崇善誌序」. “世所謂朝鮮人才半在嶺南 嶺南人才半在善山者.”

8)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중심 이동』, 태학사, 2012, 93~138쪽; 199~248쪽.

9) 김지경은 김종직의 인척이었으며, 집현전의 관료 출신이다. 그는 癸酉靖難에 반대하여 노부모의 봉양을 구실로 외직을 청했던 절의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10) 정석견은 그의 형 鄭鐵璜이 처가인 선산의 신당포를 기반으로 활동할 때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1494년(성종 25) 정철견은 경상도관찰사인 李克均(1437~1504)의 추천을 통해 김굉필과 함께 隱逸之士로 선발된 이력이 있다. 정철견과 김굉필은 출신지역 및 사상적 성향, 사승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다. 이후 정철견의 아들인 정봉은 김굉필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 정석견도 김굉필과 일정한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김성우, 앞의 논문, 2009, 20~25쪽).

11) 『景賢錄』 卷下, 「社友文人錄」.

12) 『燕山君日記』 卷55, 10年 9月 丙午.

13) 『一善誌』 卷2 人物, 「鄭鵬」. “退溪先生曰, 先生學問所造之精, 後學當觀於案上圖.”

학문을 박영에게 전수하였다.

박영은 선산에 世居하였던 武人 가문의 인물이었으나, 성리학을 지향하였다. 1494년(성종 25)에 국왕 成宗이 사망한 이후에 선산으로 낙향하여, '松堂'이라는 명칭의 집을 짓고 본인의 號로 삼았다. 박영은 독자적으로 성리학을 연구하다가, 낙향한 정봉을 만나 학문을 전수받고, 1522년(중종 17)에서 1538년(중종 33)까지 강학활동을 하며 다수의 제자를 양성하였다. 己卯土禍 이후 사림이 위태로웠던 시기에 영남지역 도학의 맥은 박영과 그의 문인들이 계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乙巳土禍 직전 박영의 문인들이 훈구에 대항하며, 많은 수의 절의적 학자 및 관료를 배출한 일화로 유명하였다.<sup>14)</sup>

송당학파의 인물들은 박영의 「門人錄」과 그의 제자 朴雲(1493~1562)의 「師友門人錄」을 통해 알 수 있다.<sup>15)</sup> 박운을 포함하여 金就成(1492~1551), 金就文(1509~1570), 吉勉之, 盧守誠(1516~1573), 朴紹(1493~1534), 崔深, 崔應龍(1514~1580), 崔海, 任榘 등이 송당학파의 주요 인물들이었다. 이들 중 김취성·김취문·길면지·노수함·박운·최심·최응룡·최해의 고향은 선산이었고, 그중 노수함·최심·최응룡·최해는 스승인 박영과 같이 號에 '松'을 사용하여 계승의식을 보였다.<sup>16)</sup> 이들 중 김취문·김취성 형제, 최응룡, 박운은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며 교류하였다.<sup>17)</sup>

1567년(명종 22)에 최응룡과 김취문 등은 선산부사 宋期忠에게 서원을 건립하기를 요청하였으나,<sup>18)</sup> 1572년(선조 2)에 길재를 제향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다.<sup>19)</sup> 그들은 길재를 충신이자 정몽주에 사사한 道學의 계승자로 평하며 서원 건립의 정당성을 말하였고, 이 요청으로 금오산 아래에 金烏書院이 건립되었다.<sup>20)</sup> 길재를 獨享하는 祠宇가 먼저 세워졌고, 이후 여러 의견

14) 김성우, 앞의 논문, 2009, 40~41쪽.

15) 『松堂集』卷3, 「門人錄」; 『龍巖集』卷4, 「師友門人錄」.

16)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106~109쪽.

17) 『龜尾市誌』卷2, 「人物」.

18) 『一善誌』卷5 「學校書院」.

19) 이병훈, 앞의 논문, 2021, 45쪽.

이 대립하다 김종직·정봉·박영을 승후하였다.<sup>21)</sup> 금오서원의 건립은 실제적으로 최응룡의 주도로 이루어졌고,<sup>22)</sup> 그는 서원이 낙성된 후 奉安文을 지어 길재를 백이·숙제에 비견하며 추송했다. 길재의 6대손인 吉誨도 享祀文에서 백이의 절개와 증자의 효행에 길재를 비견하였다.<sup>23)</sup> 3년 후 1575년(선조 8)에는 賜額을 받아서 금오서원은 마침내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sup>24)</sup> 이처럼 금오서원은 송당학파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건립되었고, 그 이유는 조선의 도통에 그들의 학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서원 건립 후 길재의 文集과 선산의 地理志를 편찬하며 자신들의 學統을 정비하고 도통론을 공유하였다.

1573년(선조 6)에 최응룡과 길회는 선산부사 尹之享의 지원을 받아서 길재의 문집인 『治隱先生行錄』을 간행하였다.<sup>25)</sup> 1570년에 윤지형은 길회에게 문집을 간행하도록 하였고, 길회는 1책 33장의 『治隱集』을 간행하였다.<sup>26)</sup> 길회는 길면지의 아들이자 최응룡의 사위로 문집 간행에 있어 가문의 의사를 대표하였고, 최응룡은 문집 初刊本의 跋文을 작성하였다.<sup>27)</sup> 이처럼 최응룡을

20) 『治隱集』 卷中, 「善山請建書院文」.

21) 『寒岡集』 卷6, 「答金烏院生」; 『一善誌』 卷6, 「秋祀·金烏書院奉安文」.

22) 금오서원은 김취성·김취문 형제와 최응룡의 주도로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一善誌』 卷5, 「學校·書院」), 실제 서원이 건립되었을 때 김취성과 김취문은 이미 사망한 이후였다.

23) 『治隱集』 卷中, 「金烏書院享祀文」.

24) 『治隱集』 卷中, 「請建書院牒」.

25) 『治隱集』은 길재의 문인 朴瑞生이 『治隱言行錄』을 출간했다는 구전이 있으나 확인할 수 없으며, 1573년(선조 3)에 간행한 『治隱先生行錄』을 『治隱集』으로 불렀다. 이후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자, 1615년(광해 7)에 길재의 6대손 길홍선과 길종선이 다시 간행하였고, 발문은 장현광이 지었는데 이 서적이 바로 『治隱先生言行錄』이다. 1858년(철종 9)에 宋來熙가 이전에 실리지 않은 문헌 등을 다시 모아 속집을 간행하였다.

26) 김석배, 「『治隱先生行錄』 研究」, 『영남학』 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211~212쪽.

27) 『治隱集』 卷下, 「行錄初刊跋」.

중심으로 송당학파의 인물들이 『治隱集』을 편찬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길재의 학맥을 계승하였다는 의식을 가졌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서원 건립과 문집 편찬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의 학파로 결집되었던 것이다. 금오서원은 길재를 제향하기 위한 서원임이 분명하지만, 건립의 주체나 추향된 인물들을 보면 송당학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 서원으로 파악된다.<sup>28)</sup>

崔暉(1563~1640)은 선산의 지리지인 『一善誌』에 송당학파의 학맥이 반영된 도통론을 표출하였다.<sup>29)</sup> 『일선지』의 「琴生異聞錄」에서 최현은 ‘琴生’의 입장에서 정몽주부터 四先生(길재·김종직·정봉·박영)과 四老(김주·히위자·이맹전·김숙자) 및 處士(박운·김취성)를 만났다. 이 글의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몽주를 제외하고 선산이 고향이며, 정몽주와 사선생은 사승관계였고 사노는 절의의 대표자로 표현되었다. 이들의 자리 배치에서도 송당학파의 道統論이 나타나는데, 정몽주는 상석, 사선생은 동쪽, 사노는 사선생의 맞은편인 서쪽, 그들의 제자인 處士들은 양쪽 기둥의 아래쪽에 앉았다.<sup>30)</sup> 여기에서 사선생이 바로 금오서원에 제향된 인물들로 송당학파는 조선 道統의 시작점인 정몽주와 그들의 학맥을 연결한 것이다. 「琴生異聞錄」의 자리 배치는 송당학파가 주장한 道統論이 투영된 산물이었다. 송당학파는 금오서원의 건립, 『야은집』의 편찬과 간행, 『一善誌』의 편찬을 통하여 학파로 결집하여 도통론을 정비하고 그들의 學統을 조선의 道統에 연결하였다.

조선후기의 금오서원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1602년(선조 35)에 부사 金涌(1557~1620)이 주도하여 남산으로 위치를 옮겨 중건하였다. 이후 1605년에 장현광의 주도로 다시금 낙동강변으로 이건하였다. 이때의 서원은 지명을 따라서 남산서원으로도 불렸지만, 1606년에 금오서원으로 다시 사액을

28)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116~117쪽.

29) 최현은 최응룡과 같은 가문이자 송당학파였던 최심의 아들이다. 최현은 「琴生異聞錄」의 초고를 1591년(선조 24)에 완성하였지만 임진왜란 때 분실하였다가 3년 후 1594년에 되찾았다. 이후 1618년(광해 16)에 『一善誌』를 편찬하면서 「금생이문록」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30) 임근실, 앞의 논문, 2015, 참조.



받으면서 이후에는 남산과 금오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액은 1609년(광해군 1)에야 내려졌고, 서원의 규모도 1619년에 갖추었다. 17세기 금오서원은 남인계의 주도로 서원이 운영되었으나, 선산지역은 점차 영남의 서인 또는 노론계의 중심처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18세기 중반 이후 금오서원은 노론계가 서원 운영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노론계 지방관의 협조와 원장 참여가 확인된다. 그렇지만 서원철폐령 이후엔 선산지역에서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서원으로 지역의 결속을 도모하고, 강학의 기능을 유지한 학문의 중심지로 위치하였다.<sup>31)</sup>

이와 함께 선산지역에서는 治隱祠와 採薇亭이 길재의 충절을 추모하는 대표적인 상징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야은사의 역사는 선산의 울곡동에 위치한 길재가의 家廟에서 시작하는데 경상감사 南在(1351~1419)가 건축한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은 조선 초기의 주자가례 및 가묘의 보급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야은사는 길재의 사후에 그를 모시는 곳으로 김종직에 의해 ‘吉再祠’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후 1583년(선조 16) 선산부사 柳德粹에 의해 중수되고,<sup>32)</sup> 임진왜란 후 1602년 부사 김용이 묘우를 다시 세웠다.<sup>33)</sup> 1602년 10월 19일에 문중의 종손인 길중선이 錦山으로부터 와서 제향하였다. 그리고 김용은 후손 6세손 길홍선의 열자 및 문중의 열자를 면역시켜 대대로 수호하게 하였다. 이후 18세기 중엽에도 사당은 한차례 이迁하였고, 19세기 전반기엔 중건한 기록이 있다.<sup>34)</sup> 이곳은 ‘治隱廟’, ‘栗谷遺祠’, ‘栗里遺祠’, ‘治隱影宇’, ‘影廟’, ‘影堂’ 등으로도 기술되어 있는데, 영정을 모셨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은집』 卷下의 수록된 다양한 詩를 보면 이곳이 여러 학자들의 순례처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31) 이병훈, 앞의 논문, 2021, 45~46쪽.

32) 『治隱集』 卷中, 「祠堂重修還安文」.

33) 『治隱集』 卷中, 「祠堂重修奉安文」.

34) 김무진, 『구미 야은 길재 종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132~137쪽.

채미정은 1768년(영조 44) 경상감사 李澗(1722~1781)과 선산부사 閔百宗의 주도로 창건되었고, 문중에선 길재의 15세손 吉致迪이 건립을 도왔다.

“선생의 묘소는 인동 오폼에 있는데 ‘지주중류(砥柱中流)’라 새겨 있고, 선생이 사시던 집은 금산에 있는데 또 ‘백세청풍(百世淸風)’이라 새겨 있다. 백세청풍은 우리나라 청성묘(淸聖廟)에 새겨진 것이요, 지주중류는 중국 이제묘(夷齊廟)에 새겨진 것인데 이제 곧 선생이 사시던 곳과 묘소에 새겼다. (중략) 그런데 유독 금오산 옛터에만 아직까지 사실을 기록한 자취가 없으니, 연대가 점점 멀어지면 누가 선생의 사당이 있었던 곳인 줄 알겠는가. (중략) 지주비가 만력 무자년[1588]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세 번째 무자년[1768]에 채미정이 완성되니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다.”<sup>35)</sup>

채미정은 御賜田이 있는 곳으로 길재가 살았던 옛 터에 위치하였다. 그 곳은 길재가 대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琴蘭秀(1530~1604)와 張顯光(1554~1637)의 기록을 통해 보면 조선중기에도 대나무가 남아있었다.<sup>36)</sup> 이은은 채미정을 건립하면서 인동의 砥柱中流碑와 금산의 百世淸風碑의 존재를 거론하며 길재의 옛터에 기념할 장소가 없는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또한 지주중류비가 건립된 戊子年[1588년] 이후 세 번째 무자년[1768]에 채미정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였다. 이 채미정의 기문은 경상감사 이은이 지었는데,<sup>37)</sup> 그의 선조 李安訥(1571~1637)은 錦山郡守를 역임하면서 星谷書院을 건립한 이력이 있다. 또한 채미정의 상량문은 徐命膺(1716~1787)이 지었는데, 서명응도 이은이 선조의 미덕을 계승했음을 밝혔다.<sup>38)</sup>

35) 『治隱集』續集 卷中, 「採薇亭記」.

36) 『治隱集』續集 卷下, 「賜田事蹟」: 「金烏遺墟竹賦」.

37) 이은 가문과 길재의 가문은 인연이 깊다. 부사 민백중은 감사 이은의 외척형이었고, 이은의 선조는 조선초기 길재에게 토지를 주었던 이양으로 이은은 그의 12대 후손이었다. 이은의 8대조 李荇은 백이의 「채미가」를 기억하며, 길재의 절의를 떠올리는 「금오산을 지나며(過金烏山)」를 지었고, 5대조 이안눌도 길재에 대한 祭文과 詩를 지었다(김무진, 앞의 책, 2022, 151쪽.)

38) 『治隱集』續集 卷中, 「採薇亭上樑文」.

이후 채미정의 오른쪽엔 求仁齋가 건립되었다. 민백종의 후임으로 선산부사로 부임한 趙載萬이 구인재를 세웠고, 문중에선 14세손 길기가 도왔다.<sup>39)</sup> 조재만의 재임 기간이 1769년에서 1771년까지라 구인재의 건립시기는 1770년 전후로 짐작된다. 구인재는 건립한지 42년 되던 해 봄 화재를 입어 선산부사 李載沆(1920~1985)이 재건하였고, 문중에서는 15세손 吉致孝가 도왔다. 이후 부사 洪世周(1791~?)가 재임때 쓴 현판이 걸려 있다.<sup>40)</sup> 채미정도 이후 여러 인물의 순례처로 기능하였다.<sup>41)</sup>

### Ⅲ. 인동 吳山書院의 건립 추이

1588년(선조 21) 퇴계학파의 류운룡에 의하여 인동지역 길재의 묘소 인근에 吳山書院이 건립되었다. 이황과 그의 제자들은 1560년대 이후부터 조선의 도학 계보를 정리하였다. 그들은 여러 性理書를 편찬·저술·간행하는데, 그 중 『伊洛淵源錄』<sup>42)</sup>과 『宋季元明理學通錄』이 도통을 정립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서적이었다. 이황은 『伊洛淵源錄』의 영향을 받아 성리학자의 계보를 정리하였고,<sup>43)</sup> 1560년(명종 15)에 『宋季元明理學通錄』의 초고를 완성하였다.<sup>44)</sup> 이황은 宋에서 明까지의 도학의 계보(道統)를 정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조선 도학의 계보에 관한 입장도 정립하였다. 이황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의 계보를 수용하고,<sup>45)</sup> 조광조의 신원운동

39) 『治隱集』續集 卷中, 「求仁齋記」.

40) 김무진, 앞의 책, 2022, 152쪽.

41) 『治隱集』續集 卷下, 「採薇亭」; 「採薇亭歌」; 「採薇亭詞」.

42) 『伊洛淵源錄』은 주희가 周敦頤·程顥·程頤와 그 문인들의 언행을 정리한 서적으로, 宋代 성리학자의 계보가 나타난다.

43) 『退溪集』續集 卷8, 「伊洛淵源錄跋」.

44) 『退溪集』卷10, 「答盧伊齋」.

45) 김영두, 「宣祖初 文廟從祀 論議와 道統論의 變化」, 『韓國思想史學』 31, 한국사

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황은 사림의 정치적 정당성과 학문적 우월성을 확보를 위해 李彥迪(1491~1553)을 文廟에 從祀하고자 노력하였다.<sup>46)</sup> 또한 이황은 두 인물의 행장을 찬술하였고,<sup>47)</sup> 四賢의 文廟從祀를 추진하였다.<sup>48)</sup> 이러한 과정에서 조광조로 이후 이언적으로 도학의 계보가 진전되었다. 그리고 이황의 사망한 후 문묘종사운동은 그를 포함한 五賢으로 확장되었다.<sup>49)</sup> 영남 지역 지식인들은 五賢의 문묘종사를 요청하여, 조선의 지식 계보 및 정통성을 이황에게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 류운룡이 인동현감으로 부임하였다.

류운룡은 오산서원과 砥柱中流碑를 건립하고 『吳山志』를 편찬하는 등 길재를 현창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sup>50)</sup> 1588년(선조 21) 류운룡은 오산서원을 건립하고 묘역의 정비, 서원의 설립 과정 및 위치, 주요 건물의 명칭, 사업을 주도한 인물, 享祀와 院規 등의 사항을 수록하여 『吳山志』를 편찬하였다. 『오산지』는 4권 1책으로 간행되었고, 行錄, 享祀, 學規, 考證으로 구성되었다. 『오산지』는 그 이전 간행된 조선의 서원지에 비교하여 享祀와 學規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권1 「行錄」에선 서원의 제향인물인 길재의 행적과 그를 추모하는 기록들을 수록하였다. 권2 「享祀」는 오산서원의 향사의례와 관련된 사항들을 수록하였는데, 『國朝五禮義』와 『朱子家禮』를 전거로 行禮의 儀節을 정리하고 祭物과 祭器의 제작방법도 상세히 기록하였다. 권3 「學規」

상사학회, 2008, 347~354쪽.

46) 진상원, 「朝鮮中期 道學의 正統系譜 成立과 文廟從祀」, 『韓國史研究』 128, 한국사연구회, 2005, 165~168쪽.

47) 『退溪集』 卷48, 「靜庵趙先生行狀」; 『退溪集』 卷49, 「晦齋李先生行狀」.

48) 이황의 제자인 이정도 이황과 같은 의견으로 김광필을 위하여 『景賢錄』을 편찬하여 문집으로 기능하도록 하였고, 김종직이 부친 김숙자의 문집으로 편찬한 『彝尊錄』의 跋文도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이황과 이정은 여러 성리서의 편찬과 간행, 보급을 추진하였다(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의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참조).

49) 『宣祖實錄』 卷7, 6年 8月 乙亥.

50) 『謙庵集』 卷7, 「年譜」.

는 서원의 규정을 수록한 부분으로 주로 강학활동 및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오산지』의 「학규」는 최초의 서원지인 『竹溪志』를 비롯하여 陶山·伊山·易東·川谷書院 등 퇴계학파가 건립이나 운영을 주도한 서원의 원규를 집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권4 「考證」은 서원의 연혁과 事跡을 수록하였는데, 『大明一統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전거로 활용하였다.<sup>51)</sup> 이 중 권1 「행록」과 권4 「고증」은 류운룡이 퇴계학파의 도학 계보를 가시화한 부분이었다.

류운룡은 금오서원의 존재를 의식하여 『吳山志』에 퇴계학파의 도학 계보를 담았다. 류운룡이 오산서원을 건립하기 이전에 이미 금오서원은 건립되어 사액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류운룡은 서원지를 통해 길재를 제향하는 새로운 서원을 건립한 사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류운룡은 『大明一統志』를 인용하면서 서원을 건립하는 장소는 선현 묘소의 옆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sup>52)</sup> 바로 길재의 묘소 옆에 건립한 오산서원이 정당성을 가졌다는 의미였다.

류운룡의 스승인 이황은 길재의 ‘지조가 고결하며, 학문이 순정하다(志操高潔, 學問醇正).’<sup>53)</sup> ‘사람됨이 우뚝하다(卓).’<sup>54)</sup> 등의 평가와 함께 그를 ‘吉先生’이라 지칭하였다.<sup>55)</sup> 이황은 길재 이외에 程子·朱熹·李賢輔·趙光祖·李彦迪만을 先生이라고 지칭하였기에, ‘길선생’이라는 호칭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에 진일보하여 류운룡과 柳成龍(1542~1607)은 길재를 ‘吉子’로 극존칭으로 부르며 추송하였다.<sup>56)</sup>

류운룡은 『吳山志』에서 이정의 「彝尊錄跋」을 인용하는데, 이 글에서는 조

51) 『오산지』의 편찬과정 및 특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임근실의 논문을 참고할 것(임근실, 앞의 논문, 2013.).

52) 『吳山志』卷4, 「考證」.

53) 『吳山志』卷1, 「行錄·退溪對語使問」.

54) 『吳山志』卷1, 「行錄·附問答一條」.

55) 『退溪集』卷1, 「過吉先生間」.

56) 『吳山志』卷1, 「行錄·砥柱軒記」.

선의 道統이 언급되었다. 이정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學統이 계승되었음을 밝혔다.<sup>57)</sup> 그리고 기대승의 『請復職趙光祖疏』에선 김종직 이후 김굉필과 조광조로 이어진 계보가 있었다. 1569년(선조 2)에 기대승은 조광조의 신원을 요청하였던 상소를 올렸고, 류운룡은 『吳山志』에 이를 수록하였다.

“광조는 김굉필에게 배웠고 굉필은 김종직에게 배웠고 종직의 학문은 그 아버지 숙자에게서 전승되었고 숙자의 학문은 길재에게서 전승되었고, 재의 학문은 정몽주에게서 얻었으니 몽주는 실로 우리 동방 理學의 원조가 된다.”<sup>58)</sup>

이처럼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연결된 계보가 등장한 시기에 이황은 四賢의 문묘 종사운동을 추진하여 퇴계학파의 도통론은 이언적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퇴계학파의 도통론은 송당학파가 ‘김종직-정봉-박영’으로 연결한 계보와는 구별되었다. 또한 류운룡은 柳希春(1513~1577)의 『續蒙求』도 『오산지』에 수록하였는데, 이 서적의 跋文은 이황이 작성하였고 간행은 이정이 담당한 내력이 있다.<sup>59)</sup> 더욱이 유희춘은 퇴계학파와 교류하면 四賢의 문묘종사를 주장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sup>60)</sup> 따라서 이들은 정몽주에서 이언적으로 이어지는 도학 계보를 공유했던 것이다. 더욱이 퇴계학파는 이황의 사후에 이언적 이후 그들의 스승에게로 이어지는 계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류운룡은 퇴계학파의 도학 계보를 『오산지』에 수록하여 정몽주에서 이황으로 이어지는 도통의식을 정립하고, 오산서원을 건립한 사실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류운룡은 오산서원의 건

57) 『吳山志』 卷1, 「行錄·李楨彝尊錄跋」.

58) 『吳山志』 卷1, 「行錄·請復職趙光祖疏」. “光祖學於金宏弼, 宏弼學於金宗直, 宗直之學傳於其父叔滋, 叔滋之學傳於吉再, 再之學, 得於鄭夢周, 而夢周實爲吾東方理學之祖.”

59) 우정임, 앞의 논문, 2008, 215쪽.

60) 『宣祖實錄』 卷4, 3年 5月 辛未.

립과 『吳山志』의 편찬을 통해 퇴계학파의 도통의식을 표출하였다.<sup>61)</sup>

조선후기 오산서원은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었다가 17세기에 중건되었다. 서원의 문루인 淸風樓까지 완벽하게 재건된 시기는 1615년(광해 7)이었다. 이때 서원의 중건은 張顯光(1554~1637)을 비롯한 낙동강 연안의 여러 학자들의 노력과 부사 金涌의 협조로 가능하였다.<sup>62)</sup> 1639년(인조 17) 오산서원에 장현광이 배향되었고, 이때 祭文은 金應祖(1587~1667)가 지었다. 김응조는 장현광의 문인으로 스승의 오산서원 배향을 주도하였고, 이후 인동부사로 재임하며 일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오산서원의 사액은 1669년(현종 9) 3월에야 결정되었고 그해 11월에 致祭하였다. 사액 이후 오산서원은 서인계 인사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고, 宋時烈(1607~1689)과 宋浚吉(1606~1672)을 배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697년(숙종 23) 유학 張璠 등이 송시열과 송준길을 오산서원에 배향해달라고 상소했으나,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sup>63)</sup> 즉, 서인계 인사들이 오산서원에 兩宋을 제향하여 영남지역의 교두보로 삼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오산서원은 퇴계학파 도통론의 천명을 위해 건립되었으나, 이후 인동지역 장현광과 그 문인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17세기 말엔 서인계 서원으로 당색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서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인동지역에서 길재의 충절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지주중류비가 있었다. 류은룡은 인동의 길재 묘소를 정비하고, 지주중류비를 세워 길재의 충절

61) 서원을 건립하여 이황을 도학의 계보에 연결하려는 양상은 김성일이 건립한 나주의 大谷書院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주목사 김성일은 五賢을 제향하는 大谷書院의 건립을 주도하여(『鶴峯集』附錄 卷1, 「年譜」), 1584년(선조17)에 완성되었다(김문택, 「16-17世紀 羅州地方의 土族動向과 書院興廢」, 『淸溪史學』 11, 청계사학회, 1999, 참조). 대곡서원과 오산서원의 건립 시기는 동시대이며, 五賢을 제향하는 서원과 길재를 주향하는 서원을 건립한 것은 같은 지향점을 가졌다. 바로 퇴계학파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이언적'으로 이어지는 도학의 계보에 이황을 연결하기 위해 서원을 건립하였다는 점이다.

62) 『治隱集』 卷中, 「吳山書院重建奉安文」; 「祠堂重修奉安文」.

63) 『書院叢錄』 「丁丑」.

을 현창하였다. 1585년(선조 18) 봄에 류운룡은 길재의 묘소를 수축하고 묘표를 다시 건립하였다. 1569년(선조 2)에 인동현감 趙天啓가 길재의 묘소를 정비하면서 묘표(高麗忠臣吉再之墓)를 건립하였다.<sup>64)</sup> 이후 1574년(선조 7)에 경상관찰사 尹根壽(1537~1616)는 묘역을 보호하라고는 명령<sup>65)</sup>과 함께 제문을 올리고 다시 묘소를 정비하였다.<sup>66)</sup>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길재의 묘소는 다시금 황폐해졌고, 이를 류운룡이 정비했던 것이다. 류운룡은 묘소 앞의 墓標도 다시 건립하였다. 류운룡은 조천계가 만든 묘표에는 길재의 성명이 기재된 문제를 꼬집었다. 류운룡은 선현의 성명을 그대로 묘표에 새긴 것은 숭상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고쳐야 하고, 이는 예의가 바로잡히고 후세의 본보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sup>67)</sup> 이러한 이유로 1587년 7월에 류운룡은 길재의 묘표를 ‘고려 문하주서 야은길선생의 묘(高麗門下注書治隱吉先生之墓)’로 수정하여 다시금 건립하였다.<sup>68)</sup>

1587년(선조 20)에 류운룡은 지주중류비를 건립하는데, 4월에 경상감사 李山甫(1539~1594)에게 碑의 건립을 요청하였다. 선산부사 柳德粹도 이 사업에 도움을 주었고, 오산서원의 有司 申誠가 사업을 전담했다. 문중에선 6대손 吉云得(吉興先)<sup>69)</sup>이 가문의 뜻을 대표하며 해평의 석재를 이용하여 글씨를 새기는 일을 담당하였다.<sup>70)</sup> 비석의 앞면에는 중국의 명필인 楊靑川이 쓴 ‘砥柱中流’의 글자를 새겼는데, 이는 본래 중국의 夷齊廟 앞에 있는 비석의 글씨였다. 함안군수였던 鄭述(1543~1620)가 이 비석의 탁본을 가지고 있

64) 『吳山志』 卷4, 「考證·吳山書院記」.

65) 『治隱集』 卷中, 「尹根壽祭墓文」.

66) 『吳山志』 卷1, 「行錄·尹根壽祭文」.

67) 『吳山志』 卷4, 「考證·吳山書院記」.

68) 『吳山志』 卷1, 「行錄·治隱吉先生墓標改修祭文」.

69) 吉云得은 吉謙의 장자 吉興善의 원래 이름이다. 길겸의 장자는 1592년(선조 25) 8월 이전까지 길운득으로 불리다, 1602년(선조 35) 10월 이후 길흥선으로 불렸다(남재철, 「治隱 吉再와 그 後孫들의 錦山, 善山 地域과의 關係에 對한 檢討」, 『대동한문학』 56, 대동한문학회, 2018, 37쪽.).

70) 『吳山志』 卷4, 「考證·吳山書院記」.



어서, 류운룡이 이를 받아서 글자를 새길 수 있었다. 지주중류비의 뒷면에는 류성룡이 저술한 「砥柱碑誌記」를 朴道生의 글씨로 새겼다. ‘지주’라는 이름은 황하가 흐르는 곳에 우뚝 솟아 거친 탁류에 맞선 돌이 높은 기상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백이숙제의 절의를 상징하는 기념비로 기능했던 것이다. 류성룡은 길재의 절의가 마치 백이숙제의 절의를 대표하는 지주와도 같고, 그 교화와 명성이 후세의 모범의 된다고 평가하였다.<sup>71)</sup> 張顯光(1554~1637)도 만세의 강상을 보존한 것이 中夏는 백이이고, 우리 동방에서는 길재라고 평가하며,<sup>72)</sup> 류운룡과 류성룡의 관념을 이어나갔다.

지주중류비는 1800년(정조 4)에 인동도호부사 任希雨가 다시 건립하였다. 1779년에 인동으로 부임한 임희우는 지주중류비가 건립된 지 오래되어 글자가 마멸 상태로 판별이 어려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찰사가 경비를 내었고 도내의 수령들과 의논하여 7읍의 승려를 동원하였는데, 慶山에 있던 돌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관찰사가 趙時峻으로 변경되었다. 임희우는 陰記의 글씨를 직접 써서 1년 만에 고쳐 건립하였고, 지주중류비의 改建記도 작성하였다. 문중에선 길재의 10세손 吉瓘과 吉致觀이 참여하고, 仁同張氏 張祖祖와 張東潤, 金夢彩, 申宅明 등이 일을 감독했다. 이들 중 신택명은 류운룡이 서원을 건립할 때 지주중류비를 세우는 일을 담당했던 申誠의 후손이었다. 또한 류운룡과 류성룡의 후손인 柳聖憲과 柳大春 등 5~6인이 안동에서부터 와서 선조가 주관했던 비석을 새로이 건립하는 일에 참여하였다.<sup>73)</sup>

류운룡은 오산서원의 건립과 『오산지』의 편찬, 길재의 묘소 정비, 지주중류비의 건립 등은 길재의 충절을 현창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주중류비는 조선후기 길재의 충절을 대표하는 시각적인 상징물로 기능하였다. 즉, 지주중류비와 오산서원의 건립이라는 직접적인 대상을 통해 길재를 기념하는 형상이 완성되었고, 길재의 충절 관념도 시

71) 『吳山志』 卷1, 「行錄·砥柱碑誌記」.

72) 『旅軒集』 卷10, 「治隱先生文集跋」.

73) 『治隱集』 續集 卷中, 「改建砥柱中流碑記」.

각적으로 확립되었던 것이다.<sup>74)</sup> 이처럼 인동지역의 지주중류비는 길재의 충절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기능하였으며, 선산지역의 채미정과 금산지역의 백세청풍비 및 청풍사가 건립될 때도 더불어 거론되면서 길재의 상징물 건립의 연원으로 꼽혔다.

#### IV. 금산 星谷書院의 건립 추이

성곡서원은 금산군 성곡리(진악산 아래)에 위치하는데,<sup>75)</sup> 이곳은 길재의 부친인 吉元進의 부임지였다.<sup>76)</sup> 吉元進은 知錦州事를 지냈는데, 길재가 1383년(우왕 9) 금주의 부친을 뵈러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이때 길재는 鵝洲申氏 中郎將 申勉의 따님과 결혼하여 금주의 樂谷에서 생활하였다.<sup>77)</sup> 그 이듬해 길재는 부친상을 당해 3년간의 시묘 생활을 금주에서 하였고, 이후 1414년(태종 14)에도 부친 묘소의 훼손을 걱정하여 금산에서 여막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금산은 조선시대 길재의 종손들이 여러 대에 걸쳐 살았고, 많은 후손이 세거한 지역이었다.

이후 임진왜란기의 금산에서는 두 차례의 전투가 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義兵이 擧兵하여 순절하였다. 특히 2차 금산전투에서는 趙憲(1544~1592)이 7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순절하였는데, 그중에서 海平吉氏의 吉安壽

74) 길재의 묘소-오산서원-지주중류비를 통해 길재의 충절 관념을 시각적으로 확립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이경동의 글에서 자세하다. 이경동은 조선 후기 길재의 현장과 인식 변화를 다루며 선산·금오산 지역의 명승화를 주요한 변화로 주목하였다(이경동, 『조선시대 야은 길재에 대한 인식과 위상』, 『야은 길재의 재인식(학술대회자료집)』, 구미성리학회사관, 2022.11.29, 140~145쪽).

75) 『東國輿地志』 「錦山郡」.

76) 금산은 1305년(충렬왕 31) 고려시대 金旆의 공으로 '錦州'로 승격하였고, 1413년(태종 13) 조선시대 '錦山'으로 변경하였다.

77) 『東岳集』 「錦溪錄」.

와 吉瑞春 부자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아직 서원이 설립되지 못했던 금산에서 여러 서원과 사우의 건립이 시작되었던 것이다.<sup>78)</sup>

성곡서원은 금산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창건된 서원이었고,<sup>79)</sup> 지역의 유일한 사액서원이었다.<sup>80)</sup> 『列邑院宇事蹟』에 의하면 성곡서원은 광해군 즉위 초기인 1613년(광해군 5) 다수의 요청에 따라 錦山郡守 李安訥(1571~1637, 1611.10.~1613.11. 재임)이 주도하여 창건하였다. 성곡서원의 제향인물들이 이어 부임한 군수 金元祿(1546~1627)에 의해 봉안되었는데,<sup>81)</sup> 모두 6명의 인물을 모셨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유학자나 금산에 공적을 쌓은 인물들이었다. 고려말기 충렬왕 대 금산지역이 군으로 승격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樂天齋 金旒, 성리학을 수용하고 공민왕의 스승이었던 栗亭 尹澤(1289~1370), 야은 길재, 己卯土禍 때 8賢 중 1인인 金淨, 임진왜란 의병장 조헌과 高敬命(1533~1592) 등의 인물을 제향하였다.<sup>82)</sup> 이후 성곡서원이 국가에서 사액을 받을 때는 길재의 위상이 중요하였다.

“길재의 호는 야은(台隱)인데 전조의 주서(注書)로 다시 아조(我朝)에 벼슬하지 않아 세칭 동방의 백이(伯夷)라 합니다. 선왕께서 그 절의를 포창하시어 그 집을 부역에서 면제하여 주고, 또 그 자손을 등용하였습니다. 그의 학문은 문충공 정몽주 등 여러 어진에게서 나와 성대한 한 시대의 큰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취한 바가 이와 같으니 해와 달과 함께 빛을 다들만 하며, 그 풍도를 들으면 나아한 사람도 뜻을 세우니 백세의 스승이라 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본음은 그가 왕래하며 노닐던 곳이며 그 어머니와 부인의 무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sup>83)</sup>

78) 고순영, 「朝鮮後期 錦山地域 士族活動의 社會史的 性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2~23쪽.

79) 『금산지리지』, 금산문화원, 1996.

80) 『東國院宇錄』 「錦山」. “星谷書院 在錦山 光海己巳建 顯宗癸卯賜額”

81) 홍제연, 「조선 후기 금산지역 유학의 흐름과 사족활동」,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연사문화연구원, 2011, 170쪽.

82) 『列邑院宇事蹟』 「全羅道」.

83) 『台隱集』續集 卷下, 「星谷書院請額疏」. “吉再號台隱 以勝國注書 不復仕于我朝 世稱東方伯夷 我先王褒獎其節 復其家 又錄用其子孫 其學出於文忠公鄭夢周諸賢

1663년(현종 4)에 금산의 유생 韓秀臣은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한 수신의 상소를 보면 성곡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길재의 절의와 학문 연원 및 그의 연고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해 7월 15일 국왕 顯宗은 예조좌랑 鄭東燁을 보내어 致祭하고, ‘星谷’의 이름으로 사액하였으며 복호미 4결을 내려주어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sup>84)</sup> 편액의 글씨는 송준길이 썼고, 學規는 李惟泰(1607~1684)와 眞寶縣監 李震炳이 지었고, 院規도 이유태가 작성하였다.<sup>85)</sup> 이러한 상황은 사액을 받을 시기 성곡서원에서 노론계의 영향력이 컸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성곡서원의 고문서 몇 건(儒生案, 尋院錄 및 祭享儀節 등)이 錦山鄕校에 소장되어 운영 및 인적 구성의 단면을 살필 수 있다. 먼저, 「星谷書院菁莪錄」은 성곡서원의 유생 명단으로, 각 면마다 6행으로 구획하여 성명, 자, 생년이 기록되었는데, 작성시기는 1760~1770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원생들의 본관이 기록되지 않아 원생들의 성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 그리고 개명한 사람들의 경우는 개명을 별도로 남겼으며, 도할의 경우는 직접 도할한 것이 2명이고, 割籍 또는 還籍했음을 기록하고, 그 이유와 시기를 함께 적어 넣었다. 기록된 인원은 총 385명인데, 모두 6차례에 걸쳐 명단을 기록하였다. 梁熙鼎부터 朴思禹까지 195명(吉壇), 金錫琦부터 梁長遜까지 41명(吉致祥), 李輔臣부터 梁甲得까지 60명(吉致禧, 吉履健), 李性淵부터 李光迪까지 51명, 全錫九부터 朴聖源까지 26명, 韓繼信부터 朴尙垆까지 12명 등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모두 堂中 掌儀의 수결이 있고 연대가 표기된 것은 마지막의 병진년과 정사년이다. 총 385명 중 길씨는 吉壇, 吉致祥, 吉致禧, 吉履健 등 적은 수가 보일 뿐이었다.<sup>86)</sup>

蔚然爲一代弘儒 其所立有如是者 可與日月爭光 聞其風 儒夫亦立 則豈謂之百世師可也 本邑爲其往來遊居之地 其母夫人及夫人墓尙在。”

84) 『治隱集』續集 卷中, 「賜祭文【顯廟癸卯七月十五日, 禮官鄭東燁奉命致祭於星谷書院】」.

85) 고순영, 앞의 논문, 2005, 24쪽.

86)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341~358쪽.

다음 2종의 尋院錄은 성곡서원에 방문했던 인물들이 직접 남긴 일종의 방문록이다. 이들 방문자들은 戚緣이나 學緣이 있는 인물이거나 부임시 인사차 방문한 새로 임명된 수령인 경우가 많았다. 성곡 서원 심원록은 1책 61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묘년 11월 초하루에 방문한 李宇夏부터 정유년 7월 10일에 방문한 朱順義까지 총 423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방문자가 직접 본관 및 이름 방문일자 를 써서 필체가 모두 다르다.<sup>87)</sup> 두번째 심원록은 정축년 3월 22일로 기록되어 있다. 제일 처음의 방문일자와도 같은데 朴宗三에서 金赫容이 辛未 8월 27일에 다녀갈 때까지 308명이 기록하였다. 역시 본관, 이름, 방문일자 순으로 기록하고, 방문한 이유를 적은 경우도 간혹 보인다.<sup>88)</sup> 이를 보면 조선후기 길재의 후손이 성곡서원의 운영에 전시기에 걸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전체상을 그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sup>89)</sup> 현재 성곡서원의 유허지로 전해지는 곳은 밭으로 변했고 星谷書院遺墟碑가 세워져 있다.<sup>90)</sup>

한편, 금산지역에서 길재의 충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不二祠(不二影堂, 淸風祠, 淸風書院)를 꼽을 수 있다. 1671년(현종 12)에 길재의 후손 吉協龜

87)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359~373쪽.

88)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374~381쪽.

89) 다만 성곡서원과 관련한 고문서가 2종 더 현존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길재 위상과 문중에서 서원 운영에 일정적으로 참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六賢配享繩典序」는 1933년 작성된 문서로 성곡서원의 제향의례가 정리되어 있다. 원장 李龍攝의 序文과 각 有司의 명단, 그리고 告由文, 奉安文이 수록되어 있다. 서문에는 이 서원에 제향된 六賢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특기할 점은 길재의 시호가 '忠節'이 아닌 '文節'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381~384쪽.). 고종대 길재의 시호가 개정된 사실을 반영한 문서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성곡서원의 공사로 소장을 올린 「星谷書院事疏」가 남아 있다. 소장을 제출한 全球, 吉錫龜, 全德經 등의 유생 명단이 기록되어있고, 말미에는 '堂中 全, 朴, 金'과 '公事員 全, 吉, 金' 등의 수결이 남아있어 길재의 후손이 공사로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384쪽.).

90)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71~73쪽.

(1655~?)와 吉尙復(1682~?)이 지역의 유학들과 함께 길재가 시모살이를 하였던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에 不二祠를 창건하고, 1678(숙종 3)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아은 길선생의 사당이 금산 불이촌에 있으니 무릇 두어 칸이었다. 영조 37년[1761년]에 고을의 선비들이 그 유허에 처음으로 비(碑)를 세워 ‘백세청풍(百世淸風)’이라 새겼고, 정조 원년[1777년]에 모후가 이에 정침(正寢)을 짓고 선생의 화상을 모시고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드렸다. (중략) 아! 마을의 이름이 본래는 부리(富利)였는데, 고을 사람들이 불이(不二)라고 고친 것은 선생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그 뜻을 따른 것이다.”<sup>91)</sup>

불이사는 ‘富利’라는 지명이 ‘不二’라고 변경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길재가 不事二君한 충절을 기리는 의미가 큰 지역이었다. 후손의 주도로 길재의 영정을 보관하였기에 초기 불이사는 문중의 사우로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이의 고을은 선생께서 충효를 이룬 곳이다. 손수 심은 두 그루의 소나무가 예부터 전해오는데, 후인들의 존경하고 아끼는 것이 금오산의 대밭보다 못함은 무슨 까닭인가? (중략) 선생의 후손 상복(尙復)·협귀(協龜)가 고을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사당을 세우고, 영정을 봉안하였다가 조정의 금령으로 헐렸고, 또 청성묘에 있는 주자의 글씨 ‘백세청풍’ 너자의 대자를 모사하여 돌에 새겨 유허를 빛내려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지금 군수 민백흥이 오랜 뒤에 매몰될까 염려하여 선생의 종손 참봉 연(淵)과 후손 상형(尙衡)·내의(來議) 등으로 더불어 돌을 깎아 각자(刻字)하는 일을 시작하고 대사헌 병계 윤공(윤봉규)에게 비문을 받자 경향 각지의 관원과 선비들이 기꺼이 일을 도왔다. 또 별도로 작은 유허비(遺墟碑)를 세우니 이로부터 불이의 비석이 금오산의 지주비(砥柱碑)와 함께 높고 빛나 청성의 여러 비와 방불하게 되었다.”<sup>92)</sup>

91) 『治隱集』卷中, 「淸風祠記」. “治隱吉先生祠 在錦山郡不二之村 凡幾楹 英宗三十有七年 郡之士 始碑其遺墟曰百世淸風 今上元年 某侯乃建正寢 繪先生像 具牲酒以饗 (中略) 嗚呼 村之名本富利 郡人易之 蓋取先生不事二君之義(下略).”

92) 『治隱集』續集 卷中, 「不二遺墟碑記」. “卽此不二之鄉 寔先生忠孝之基 舊傳有

불이사는 1741년(영조 17)에 서원 남설 금령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sup>93)</sup> 하지만 1761년(영조 37)에 금산군수 閔百興(1715~?)과 지역 유림 및 후손 吉淵·吉商衡의 주도로 '百世淸風'을 새긴 비를 그 유허에 건립하였다.<sup>94)</sup>

百世淸風碑의 글자는 해주 淸聖廟의 朱子 글씨였다. 청성묘는 해주의 수양산에 있는 夷齊廟를 1701년(숙종 27)에 국왕 肅宗이 '淸聖'으로 이름하고, 어필로 써서 文會書院의 예에 따라 사액하였다.<sup>95)</sup> 그리고 1727년(영조 3)에 해주의 진사 姜鳳休 등이 상소하여 주자가 쓴 '백세청풍'의 4글자를 새겼고, 1761년에는 사우 건립의 回甲을 맞아 국왕 英祖가 제문을 지어내려 치제하였다. 따라서 금산의 백세청풍비는 숙종과 영조가 백이·숙제의 충절을 기렸던 일화를 기념하기 위해 해주에서 국가적 의례를 거행하던 시기에, 금산에서는 길재의 절의를 추송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sup>96)</sup>

금산지역 백세청풍비의 비음기는 尹鳳九(1681~1767)가 작성하였고,<sup>97)</sup> 그 인근에 별도로 유허비를 만들며 그 비음기는 宋明欽(1705~1768)이 작성하였다. 윤봉구와 송명흠은 대표적인 노론계 인물로 그들이 비음기를 지었다는 것에서 볼 때, 이 시기 금산지역에서 노론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俞最基(1689~1768)의 「불이영당기」를 보면 후손들과 합의하여 서당

手植雙松 而後人之尊敬愛惜 不能如烏山之竹田(中略) 始先生後孫尙復 協龜 與邑之多士 立祠于鄉 以奉眞像 旋以朝禁毀 又嘗摹取淸聖廟朱子書百世淸風四大字 將勒石以真遺墟 未就而死 今郡守閔侯百興 懼其久而溼沒也 與先生胄孫參奉 堦諸孫尙衡來議等謀伐石以成刻事 徵文于都憲 屏溪尹公 於是京外晉紳章甫 樂與相役 又別立遺墟小碑 從此不二之石 將與烏山砥柱 并峙同光 彷彿乎淸聖祠碑 其有功於風教大矣(下略).”

93) 『(국역)서원등록』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5, 129~135쪽.

94) 『治隱集』 卷中, 「淸風祠記」.

95) 『肅宗實錄』 卷35, 27年 4月 己未.

96) 청성묘에 길재를 배향하기 위한 요청이 李相璟(『治隱集』 續集 卷下, 「請躋齋淸聖廟疏廳通文」)과 洪奭畝(『治隱集』 續集 卷下, 「請躋齋淸聖廟疏」)에 의해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길재의 충절을 청성묘의 백이·숙제에 비견하여 현창하는 사업은 숙종에서 영조, 이후 순조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97) 『治隱集』 續集 卷中, 「百世淸風碑會記」; 「不二遺墟碑會記」.

을 운영하고, 영당을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98)</sup> 비록 이때는 서당만 운영되었고, 1800년대 초까지 사당은 다시 건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생이 돌아간 후 몇 백 년 사이에 조정의 표창하는 은전과 사림의 숭배하는 의식이 오랬수룩 융성하여 금오서원의 향사와 채미정의 건립이 있게 되었고, 또 낙동강 가에 비를 세우고 중국 이제묘비(夷齊廟碑)의 ‘지주중류(砥柱中流)’ 네 글자를 모사하여 새기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중략) 그러나 제사를 받는 곳이 없어 선비들이 한스럽게 여기더니, 경신년 가을에 관찰사가 순찰도중 이곳에 이르러 유허가 황량함을 보고 깊이 탄식하며 여러 사람의 의사에 따라 마침내 사당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봄 공사를 시작하였다.”<sup>99)</sup>

1800년(순조 元) 가을에 전라감사 金達淳(1760~1806)이 사당을 세우기로 결정하였고 이듬해부터 짓기 시작하였다. 이때 길재를 추송하는 지식인들은 금오서원과 채미정, 지주중류비 등을 건립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금산 불이사의 유허에 사당을 세우고자 하였다. 결국 금산군수 洪義正이 역사를 도와 1804년에 淸風祠를 낙성하였다. 문중에서는 吉奎와 吉繼修가 주도하여 宋煥箕(1728~1807) 기문을 청했고, 송환기는 「淸風祠重建記」를 작성하였다. 송환기는 송시열의 5대손이며, 한원진과 함께 길재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등 노론계 인사들이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868년(고종 5)에 작성된 고문서를 보면, ‘淸風祠書院’이라 명칭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868년(고종 5) 2월 의정부에서 감영에 문서를 보내어 각 서원과 사우의 事蹟을 成冊하여 보고하라는 명으로 이를 등록하여 1질을

98) 『治隱集』續集 卷中, 「不二影堂記」.

99) 『治隱集』續集 卷中, 「淸風祠重建記」. “先生沒後幾百載之間 朝家褒崇之典 士林欽奉之儀 久而愈隆 乃有烏院之享 薇亭之築 至若立碑洛江之岸 而得中州夷齊廟碑 砥柱中流字以刻者 亦豈偶爾.”



上送하고 1질은 본원에 보관하였다고 밝혔다. 당시의 장의는 吉時萬, 金基漢, 朴俊陽으로 청풍서원에서 길재의 후손이 그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된다.<sup>100)</sup> 하지만 성곡서원과 청풍서원은 19세기 후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모두 훼철되었다.<sup>101)</sup> 청풍사의 경우엔 훼철 후 吉應奎(1836~1906)와 吉燦周 등이 지역의 유림과 함께 옛터에 청풍당을 세워 춘추로 제사를 지냈다(「淸風堂重修文」).<sup>102)</sup>

## V. 결론

길재는 조선이 건국된 후 점차 정세가 안정되면서 충절의 대명사로 일컬어졌고,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도학의 계보를 계승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더구나 16세기 후반 지식인들은 중 조선의 道統과 서원의 學統을 연결하는 분위기 속에서 길재를 제향하는 서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이 가진 하나의 성격은 도통의식이 내포된 서원의 발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이황과 그 문인을 중심으로 1560년대까지 宋·明代의 道統과 조선의 道統을 정비하였다. 특히 이황은 조선의 道統을 사람의 영수인 조광조와 이언적으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1570년에 이황이 사망하자 그의 문인들은 학파로 결집하여 스승을 조선의 도통에 연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산부에 건립된 금오서원과 오산서원의 건립 세력은 서로 다른 학통을 가지고 있었다.

박영의 문인들은 금오서원의 건립을 주도하며 스승을 조선의 도통과 연결

100)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58쪽; 250~251쪽.

101)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28년 청풍비각을 세웠고,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청풍서원이라는 현판을 써서 걸었다.

102) 김무진, 앞의 책, 2022, 157~164쪽.

시키고자 하였다. 박영의 문인은 금오서원에서 길재를 主享으로 하여 김종직·정봉·박영을 배향하였고, 이것은 김종직 이후에 김굉필과 조광조로 이어지는 계보 의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길재의 문집을 편찬하고 금오서원을 건립하면서 송당학파로 결집하였고, 그들의 학통을 길재를 통해 조선의 도통과 연결시켰던 것이다.

류운룡은 오산서원을 건립하여 길재를 제향하고, 퇴계학파의 도통론을 천명하였다. 인접 지역에 賜額을 받은 금오서원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지만 류운룡은 금오서원의 도학 계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류운룡은 길재의 묘소 인근에 새로운 서원을 건립하고, 퇴계학파의 도통론이 수록된 『오산지』를 편찬하였다. 류운룡은 길재를 제향하는 오산서원과 『오산지』를 통해 퇴계학파의 도통론이 가지는 정당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588년 류운룡의 『오산지』가 간행된 후 1591년에 최현의 「금생이문록」이 저술되었던 것을 보면, 퇴계학파의 도학 계보를 송당학파에서도 의식하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영남지역 사림은 조선의 道統과 서원의 學統을 연결하였고, 이 현상은 길재를 제향한 금오서원과 오산서원의 사례에서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금산의 성곡서원은 지역의 여러 향현을 함께 제향하는 성격이 강한 곳이었다. 성곡서원이 위치한 금산은 길재의 종손들이 여러 대에 걸쳐 살았고, 조선시대 많은 후손들이 세거한 지역이었다. 더구나 성곡서원은 금산지역의 서원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창건되었고, 금산지역의 유일한 사액서원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성곡서원은 길재를 포함하여 모두 6인의 현인을 제향하고 있으나, 사액을 요청할 때는 길재의 위상을 부각하여 사액을 성사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성곡서원이 지속적으로 문중서원으로 기능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원생 중에 길재의 후손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문중에서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사우를 건립했던 부분에서 성곡서원의 색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금산지역의 불이사는 문중을 주도로 건립되어 불이영당, 불이당, 청풍사, 청

풍서원 등 여러 차례의 건립과 중건, 중수 등을 거친 공간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금산지역의 길재 제향 서원은 성곡서원과 불이사가 함께 운영되며 상호 보완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길재의 도학자적 성격은 서원으로, 충절자적 성격은 인근의 기념물로 대표되면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졌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선산지역은 금오서원과 채미정, 인동지역은 오산서원과 지주중류비, 금산지역은 성곡서원과 불이사가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 【참고문헌】

### 1. 원전자료

『朝鮮王朝實錄』, 『東國輿地志』, 『東國院宇錄』, 『列邑院宇事蹟』, 『書院叢錄』.

吉再(1353~1419), 『治隱集』  
金誠一(1538~1593), 『鶴峯集』  
盧景任(1569~1620), 『敬菴集』  
柳雲龍(1539~1601), 『謙庵集』; 『吳山志』  
朴英(1471~1540), 『松堂集』  
朴雲(1493~1562), 『龍巖集』  
李滉(1501~1570), 『退溪集』  
張顯光(1554~1637), 『旅軒集』  
鄭述(1543~1620), 『寒岡集』  
崔峴(1563~1640), 『一善誌』

『금산지리지』, 금산문화원, 1996.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善山邑誌』, 구미문화원, 2007.

### 2. 연구논저

고순영, 「朝鮮後期 鎭山地域 士族活動의 社會史的 性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무진, 『구미 야은 길재 증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김문택, 「16-17世紀 羅州地方의 士族動向과 書院滲戰」, 『淸溪史學』 11, 창계사학회, 1999.  
김석배, 『『治隱先生行錄』 研究』, 『영남학』 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김성우, 「15세기 중후반-16세기 道學運動의 전개와 松堂學派의 활동」, 『歷史學報』 202, 역사학회, 2009.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중심 이동』, 태학사, 2012.  
김영두, 「宣祖初 文廟從祀 論議와 道統論의 變化」, 『韓國思想史學』 31, 한국사상사학회, 2008.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남재철, 「『台隱 吉再와 그 後孫들의 錦山, 善山 地域과의 關係에 對한 檢討』, 『대동한문학』 56, 대동한문학회, 2018.
- 류영수, 「金烏書院 創建과 龜尾 精神」, 『민족문화논총』 78,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심예인, 「어말선초 道學의 성격과 道統論」, 『朝鮮時代史學報』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 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의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 이병훈, 「조선후기 선산 금오서원의 건립과 운영」,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韓國書院學報』 2, 한국서원학회, 2013.
- 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 『退溪學報』 137, 퇴계학연구원, 2015.
- 진상원, 「朝鮮中期 道學의 正統系譜 成立과 文廟從祀」, 『韓國史研究』 128, 한국사학회, 2005.
- 홍제연, 「조선 후기 금산지역 유학의 흐름과 사족활동」,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연사문화연구원, 2011.

Abstract

## Establishment trend and character of Giljae sacrifice rite seowon

Lim, geun-sil\*

Giljae[吉再] was a person who retired from the Yeongnam region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serve the two kings after Joseon was founded, and devoted himself to fostering younger students. Giljae was located as a bridge connecting his literary schola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Jeong Mong-ju, the originator of Eastern Neo-Confucianism. As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 academy in Joseon progressed, the necessity of a seowon dedicated to Giljae was also raised. In the 1570s, Geumoseowon [金烏書院] was built in Seonsan, in the 1580s, Osanseowon[吳山書院] was built in Indong, and in the 17th century, Seonggokseowon[星谷書院] was built in Geumsan.

Geumoseowon and Osanseowon were clear examples of the 'the theory of Dao-tong[道統] branching in the 16th century. Geumoseowon enshrined Giljae, Kim Jongjik, Jeongboong, and Parkyoung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ongdang School, and included this genealogy in the *Yilseonji*[一善誌]. Osanseowon enshrined Giljae under the leadership of Toegye School, and included genealogical rituals leading to Jogwangjo, Leeonjeok, and Yihwang after Kim Jongjik, and included this genealogy in the *Osanji*[吳山誌]. Seonggokseowon built in Geumsan, was a place with strong meaning to serve local worthies[鄉

---

\* Full-time Researcher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coll1123@koreastudy.or.kr

賢] together. Seonggokseowon was the first seowon in Geumsan, and a total of six people, including Giljae, were enshrined. However, Seonggokseowon is the only “Bestowal of Title Boards[賜額]” to seowon in the Geumsan area, and Giljae's statu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Bestowal of Title Boards to seowon. These Seowons were recognized by intellectu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a representative space to commemorate Giljae's Neo-Confucianism. In supplement to this, a Chaemijung[探薇亭], a Jijoojungryubi[砥柱中流碑], and a Bulyisa[不二祠] functioned as symbols in honor of Giljae's loyal character. By region, Geumoseowon and Chaemijung, Osanseowon and Jijoojungryubi, and Seonggokseowon and Bulyisa were recognized as symbols with complementary characteristics.

Key word : Giljae, GeumoSeowon, OsanSeowon, SeonggokSeowon, Chaemijungi, Bulyisa, Jijoojungryub

논문 투고일: 2022. 12. 09 심사 완료일: 2022. 12. 16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조선시대 서원의 누각 도입과 정침 구현\*

조재모\*\*

- I. 서론
- II.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정형성
- III. 서원 누각의 등장과 발전
- IV. 정침 이론의 모색과 지역 모델
- 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고는 조선시대의 서원 건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학궁이라는 원론적인 건축 모델의 존재와 그에 대한 존중과는 별개로, 건축의 속성상 지역의 기술, 관습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종묘, 궁궐 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건축의 유형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서원의 경우에도 온돌과 마루의 사용 등 조선의 건축관습을 따르는 것은 물론이거나 누각의 도입과 발달, 정침의 재해석 등 몇 가지 지점을 주목할 수 있었다.

누각은 조선 서원 건축의 특별한 건축유형이자 조선 서원의 이상을 잘 드러내는 장치였다. 서원의 누각은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의 경험으로부터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 무변루에서 양쪽에 온돌방을 들이고, 중앙부에 3칸의 대청을 둔 것은 향교의 명륜당 평면과 매우 닮았다. 멀리는 고대 정침의 평면형이나 궁궐, 객사의 사

\* 이 논문은 2022년 5월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민족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제9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서원 문화의 지역성과 운영 실태”에서 발표한 ‘누각과 정침 구현으로 살펴본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zozemo@knu.ac.kr

례들과 연결되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별도의 강당을 보편화하기 시작한 서원에서는 누각의 방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이후의 서원들은 옥동서원 청월루와 같은 특별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전체를 마루로 마감하는 개방적인 누각으로 전형화되었다.

또한 돈암서원 응도당으로 대표되는 고대 정침의 건축적 실천도 주목되어야 한다. 강당, 사당, 누각, 동서재 등이 완비된 서원의 건축적 전형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정침을 구현하여 학궁에서의 예를 제대로 갖추고자 하는 학문적인 욕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응도당이다. 이론적으로 해석된 정침의 구성을 구체적인 건물로 실현하는 데에는 결국 지역의 건축술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고 응도당은 완전한 목구조에 마루로 마감한 조선적인 건축 수법으로 완성되었다.

주제어 : 서원건축, 누각, 정침, 지역성

## I. 서론

지난 2019년 7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당시의 요약문에서는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의 한 유형으로, 16세기 중반부터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에 기반한 한국 사회 문화전통의 특출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등재기준으로는 (iii)을 적용하여 서원이 조선을 강력한 성리학적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받았다.<sup>1)</sup>

1) 구체적인 정보와 기술문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https://whc.unesco.org/en/list/1498>). 영문 공식명칭은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며, 16세기 중반부터 약 100년간 건립된 초창기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정된 등재기준(iii) 외에도 신청 단계에서는 등재기준(iv)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이 기준은 한국의 서원이 특정한 건축적 정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연속유산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9개의 서원이 점진적으로 만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 서원의 건립 단계에서 형성된 정형성은 이후의 서원에 강력한 건축적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서원의 배치 정형성을 강화해갔다는 점을 그 가치로 서술하였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ICOMOS의 평가 단계에서 제외되었고 권고안 그대로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서원이 뚜렷한 건축적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강학과 제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종적으로 배열하고 그 전면으로 회합 및 유식의 영역을 덧붙이는 배치의 형식을 비롯하여, 사당, 강당, 누각 각각의 건축 형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서원 건축은 표준적이라 할 정도의 유형적 공유를 이루었다. 이는 아마도 같은 이상을 공유하였던 사림 집단 내에서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한 일종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기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므로<sup>2)</sup> 본고에서는 주요한 건축구성의 한 부분인 누각<sup>3)</sup>에 집중하여 서원의 건축적 정형성을 형성하는데 어떤 참조점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돈암서원 응도당으로 귀결되는 정침이론의 조선적 모색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

서원들 중에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2) 조재모, 「한국서원건축의 유형정립과정」,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10.28. 및 조재모, 「조선중기 서원의 태동과 건축유형 정립」, 2017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7.11.18. 그리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함께 참조할 수 있다.
- 3) 누각은 누마루, 누 등으로도 칭해진다. 여기서는 누각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 II.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정형성

주지하다시피, 조선 중기에 한반도에 등장한 서원은 일정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뚜렷한 정형성을 이룩하였다. 서원 경역의 전면에는 누각을 두어 외부로의 조망을 획득하면서 서원의 정면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누각의 안쪽으로는 강학영역을 두었는데,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로 동서재를 대칭적으로 배치함으로써 3개의 건물이 위요하는 마당을 구성하였다. 그 안쪽으로는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제향영역을 배치하였다. 제향영역은 사당을 중심에 놓고 제사에 필요한 전사청 등이 부속되었다. 이들 누각, 강당 및 동서재, 사당 및 부속시설은 대체로 일직선의 진입축을 따라 정연하게 배열되었으며, 각각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구성되 상호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서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영역의 연결과 분리는 지형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형성이 단번에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최초로 건립된 소수서원은 이러한 배치법을 따르지 않았다. 서원의 정문을 들어서면 강학당이 직각으로 엇갈린 동향으로 놓였고, 그 서편에는 담장으로 위요된 문성공묘<sup>4)</sup>가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강학당과 문성공묘의 북편으로 몇 동의 재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후 서원들의 배치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이 서원이 숙수사라는 통일신라시기의 사찰이 있던 자리에 들어섰고, 당시에는 아직 서원의 건축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후 남계서원이 건립되면서 조선적인 서원의 배치법은 그 열개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남계서원은 서쪽으로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동쪽의 언덕에 기대어 자리를 잡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사당을 두고 언덕 아래의 평지에 가까운 땅에 강당인 명성당과 양정재, 보인재의 두 재를 두어 마당을 만들었다.<sup>5)</sup> 사당과 강당, 정문이 있던 자리에 나중에 들어서는 풍영루에 이르는 축

4) 문성공묘는 안향을 제향하는 사당으로서, 중종 39년에 安軸, 安輔를 추가 배향하였고, 그 후 인조 11년 주세붕을 배향하였다. 2004년 4월 6일 보물 제1402호로 지정되었다

과 지형의 높낮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영역을 정연한 일체로 완성한 이러한 배치법은 이후 거의 모든 서원에서 수용된 조선적인 서원 배치법이었다.



〈그림 1〉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배치 정형화 과정

소수서원에서 이미 기능적으로 구비되었던 강학과 제향의 영역은 남계서원에 이르러 정형의 배치법으로 완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참조가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향교의 배치법이라 할 수 있다. 향교는 이미 국초부터 전국적으로 건립되었던 바 있으며, 명륜당과 대성전, 즉 강학과 제향이라는 기능과 구성이 영건하고자 하는 서원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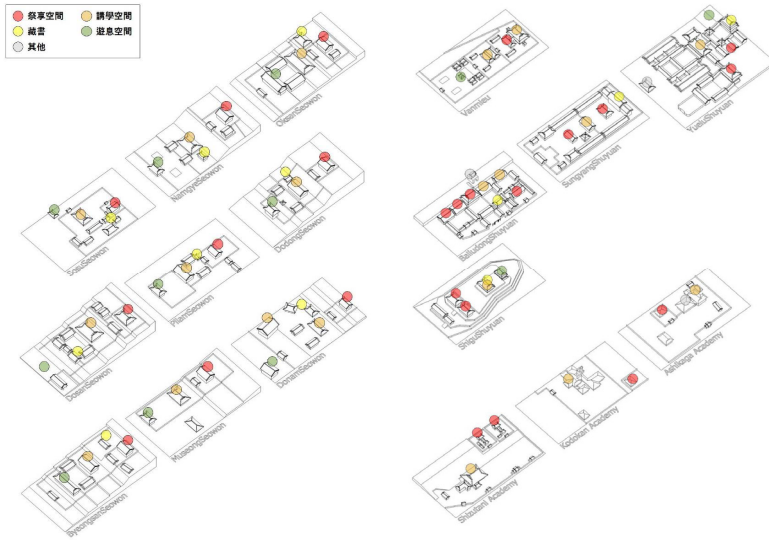
5) 현재의 풍영루는 서원의 건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후에 부가되었다.

향교의 건축을 하나의 모델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후 서원에 누각을 설치하는 유행이 등장함으로써 향교와는 다른 서원의 특징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갔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정립된 조선 서원의 건축술은 서원이라는 기구의 모델인 중국의 서원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학궁’이라는 본질적으로 같은 건축적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현재 남아있는 서원들을 통해 살펴보자면 상호간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악록서원이나 송양서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축선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중국의 서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가장 안쪽에 놓이는 건물의 성격이다. 악록, 송양서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장 안쪽에 황제가 하사한 책을 보관하는 어서루 등 장서공간이 배치되었다. 어서루는 서원 내의 건물들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 배치상의 위계도 높다. 반면 조선시대의 서원들은 그 위치에 사당을 둔다는 점에서 서원 내의 공간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의 서원에서는 장서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였을까? 출판과 장서는 서원의 고유한 주요 기능이었다. 스승이나 선조를 배향하는 입장에서 인물 그 자체만큼이나 배향인물의 학문이 중요한 존숭의 대상이었으므로 책의 보관은 매우 중시되는 기능이었다. 다만, 중국의 어서루는 황제가 하사한 책을 보관하는데 비해, 조선의 서원은 제향인의 저술을 중심으로 장서각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건축적으로 볼 때에는 조선시대 서원들은 축선의 곁으로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경계부에 장서각 등의 건물을 놓는 예가 많으며, 이는 장서공간이 건축 배치의 초점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서원에서 사당은 때로는 축선의 중간에, 때로는 별도의 축선을 갖거나 축선을 비껴서 자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 서원에서 사당은 그 기능적 중요성과 별개로, 건축 배치의 초점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단순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서원에 국한된 관점이 아닐 수도 있고, 지형적 조건이나 시기적인 특성 등 많



〈그림 2〉 동아시아의 유교 교육시설 배치의 비교

(좌: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서원 / 우: 베트남 하노이 문묘, 중국 백록동, 승양, 악록, 석고서원, 일본 시즈타니, 고도칸, 아시카가 학교)

은 논점이 결부되어 있는 지점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동일한 모델인 ‘학궁’을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과 현실 속에서 구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조선시대 서원의 건축이 갖고 있는 정형성은 다른 지역의 서원(혹은 유사한 교육시설)의 정형성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형성을 갖고 있다는 점 자체가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의 서원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 건축과 배치로 구성되었다. 백록동서원은 계곡을 따라 좌우로 넓게 여러 마당이 결합되는 형태이고, 湘江을 바라보는 절벽에 어서루를 세우고 그 아래로 건물을 배치하는 석고서원은 또 다른 형식이다. 그 밖의 서원들도 서로 유사한 점도 있겠으나 각각의 독자적인 건축술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서원의 보편적 모습이라 파악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sup>6)</sup>

민간에 의해 각각 개별적으로 건립된 서원이 개별적인 건축술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역으로, 조선시대의 서원들이 서로 배치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이 특별한데, 이는 그리 넓지 않은 국토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서원의 건립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학궁으로서의 서원은 어떠한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구하거나 상호 방문을 통해 일종의 표준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배치에서만 그러한 정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당, 강당, 누각 등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건축물의 평면과 구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형성을 공유하였다는 점은 조선시대의 서원의 건축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주목점이라 하겠다.

### Ⅲ. 서원 누각의 등장과 발전

조선시대 서원이 중국 등 다른 지역의 서원과 다른 특징적 구성 요소를 품으려면 단연 누각을 들 수 있다. 누각은 서원에만 존재하는 건축 유형이 아니다. 산지 사찰의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향교에서도 종종 사용하였던 시설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서원, 향학, 혹은 사찰에 한국 서원에서 볼 수 있는 누각이 채택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누각은 한국의 지역적 건축으로서 여러 시설에 사용되었던 건축유형이다. 문제는 서원을 건립하는 사람들이 왜 누각을 채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무언가 개연성 있는 설명이 드물다는 점이다. 누각을 활용하는 양태, 즉 회합이나 유식의 행위에 대해서 종종 거론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 유형이 서원에 등장하는 단계에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원에서 누각이 처음 등장한 것은 옥산서원에서였다. 옥산서원이 건립된 시기는 이미 소수서원, 남계서원 등의 경험을 통해 서원에서 필요한 기능 공

---

6) 문헌과 사진자료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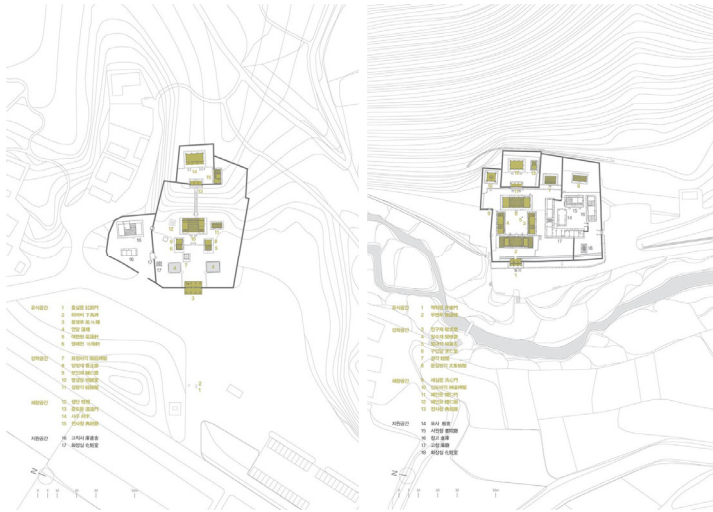


간의 종류와 그 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이 존재하고 있었던 때이다. 새로이 누각을 서원에 도입한 것은 아직 서원의 건축이 완전한 궤도에 올라있지는 않은 단계, 즉 여전히 요구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여기에는 또 다른 동기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회합과 유식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교육의 시설은 결국 교육의 철학과 방식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성리학적 교육의 이상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학문을 익혀 궁극적으로 천인합일의 전인적인 이상적 인간을 완성하는데 있다면, 제향을 통한 이상적 모델의 인식, 강학 행위를 통한 학문적 전승에 더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수양에 필요한 유식 행위가 필요하였다. 또한 좁게는 향촌사회로부터 넓게는 국가와 천하에 이르는 성리학적 이상의 확산을 위해 서로 회합하고 공론을 만들어가는 행위 또한 서원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아 갔으며, 출판서적의 장서도 필요한 기능이였다. 이러한 교육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각의 공간을 필요로 하였는데, 제향을 위한 사당과 강학의 강당은 이미 전단계에서 수립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유식과 회합을 위한 공간은 별도의 고안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서원의 누각이었다.

옥산서원의 무변루는 강당 구인당과 마주보면서 동서재와 함께 4개의 건물이 중앙의 마당을 둘러싸면서 일종의 합원을 구성하고 있다. 다른 서원들에 비해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구성이라, 누각이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기보다는 강학영역의 일부로 느껴진다. ‘무변루’ 편액도 특이하게 입구 쪽이 아닌 반대편 누각의 대청 중앙 안쪽에 걸려있다. 강당의 ‘옥산서원’과 ‘구인당’ 편액이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변루 대청은 바깥으로 판문을 달아 막혀있는 반면, 강당 쪽으로 트이게 개방하여 내부 공간이 강조되었다.<sup>7)</sup>

7) ‘무변루’와 ‘구인당’ 편액은 석봉 한호의 글씨이고, ‘옥산서원’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이다.



〈그림 3〉 남계서원과 옥산서원 배치도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무변루는 중앙부의 3칸 마루 좌우로 각각 온돌방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바깥으로는 좁은 마루가 다시 붙어서 모두 7칸의 규모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7칸 규모의 누각은 이후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유례를 볼 수 있지만, 만대루는 모두 마루로만 구성된 통칸의 누각이라는 점에서 무변루와는 차이가 있다. 그 밖의 대부분의 서원 누각들도 별도로 방을 들인 예는 드물다. 특별한 예로 상주 옥동서원의 청월루가 이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단순히 말하자면, 서원의 누각은 드문 예외가 있으나 통칸의 마루로만 구성되는 유형이며 대개 정면 3칸의 규모를 갖는다.

그런데, 처음 등장한 서원 누각인 무변루가 온돌방을 갖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지점이다. 이것이 서원에 누각이 등장하게 되는 동인을 암시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산서원 이전, 풍영루가 없었던 초기의 남계서원에서도 정식의 누각은 아니었지만 조금 다른 형식의 유식공간이 존재하였다. 바로 애련헌과 영매헌이 그것이다. 애련헌과 영매헌은 동서재인 보인재, 양정재의 일부인데, 각각 방 1칸과 마루 1칸으로 구성된 동서재에서

전면의 방당을 향해 있는 마루 각 1칸에 이들 이름이 붙어 있다. 이름으로 보건대 애련, 영매는 모두 자연과의 조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걸맞게 방당을 내려볼 수 있도록 누마루의 형태로 하부 기단을 조성하였다.<sup>8)</sup> 이들 두 현은 회합을 위해 사용하기는 매우 협소한 면적이었으나 유식의 관점은 반영되어 있었다. 즉, 무변루 이전에도 서원에 유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존재하였던 것이다. 작은 규모의 동서재인 만큼 평탄 지형을 만들어 건물을 놓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돌방과 마루의 경계 부 아래에서 지형을 조정하여 누마루의 형태를 취하도록 한 것을 보면, 영매 현, 애련현은 매우 의도적으로 계획된 건축이며, 향후 누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식공간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무변루가 독립적인 누각의 형태를 취한 것은 이와는 다른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무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향교이다. 다만 초기 향교의 누각은 유식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 시기에 존재하였던 향교에서 누각을 갖는 경우는 대개 명륜당, 즉 강당의 기능으로 건립된 것이었다. 향교의 건축이 자리잡아 가면서 점차 기단 위에 놓이는 보편적인 명륜당이 유행하게 되어 누각형 명륜당은 새롭게 건립되는 예가 적어졌지만, 이 형태가 서원 누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시기적으로도 관련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명륜당의 기능을 갖고 있는 누각은 대체로 대청과 양쪽의 방이 병존하는 구성을 하고 있다. 이는 누각 형태가 아닌 보통의 명륜당 구성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당으로 인식되는 대청에서 강학례를 설행하고 양쪽의 방을 일종의 협실로 이해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서원에 강당이라는 전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누각에 대한 경험은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이었던 까닭에 서원의 유식공간으로 정식의 누

8) 방당을 구성하였던 예는 초기 덕천서원이 있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기록을 통해 덕천서원의 양재 앞으로 방당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4〉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의 사례  
(담양향교, 강릉향교, 회인향교, 옥곡향교 명륜당)

각을 조성할 때 이러한 유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누각형 명륜당인 강릉향교 명륜당이나 회인향교 명륜당을 보면 서원의 강당과 누각 양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누각형 명륜당이 건물의 뒤쪽, 즉 동서재 방향을 향하여 정면성을 갖고 있는 점도 무변루와 유사한 점이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초기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으로부터 무변루와 같이 운동방을 포함한 서원 누각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서원 누각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 정면 3칸, 때로는 5칸의 규모를 통칸으로 마루를 놓아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서원 누각의 전형이었다.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무변루와 같이 정면 7칸의 대규모 누각인데 방을 두거나 판문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방형 누각의 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옥산서원 무변루와 옥동서원 청월루

다만, 상주 옥동서원의 청월루에는 예외적으로 온돌방을 두었다. 옥동서원은 1714년에 백옥동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승원되어 서원의 위상을 갖추었고 32년 뒤인 1746년에 황효헌과 황뉴 두 분을 추배하여 모두 4위를 제향하였다. 1789년에는 사액을 받아 옥동서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청월루는 1792년에 준공되었다.<sup>9)</sup> 백옥동서원으로의 승원을 기준으로 보면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초기 서원 설립운동의 분위기는 지역서원, 문중서원으로 전환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때에 설립된 서원이지만, 그 이전 방촌의 영정을 봉안한 백화횡당의 운영과 백옥동영당에까지 올려본다면 기점은 16세기 중반으로 올라간다. 건축적으로 보면 승원 이후 묘우의 이진, 강당의 준공을 이루었다. 다만 동서재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당시 서원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청월루는 상하층을 가진 중층 누각의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총 10칸 규모로서, 하층에는 중앙부 3칸에 회보문을 설치하였고, 그 좌우로 상층의 온돌방을 위한 아궁이가 시설되어 있다.<sup>10)</sup> 상층에는 전체적으로 마루를 조금 더 확장하여 계자각으로 난간을 돌렸다. 중앙부의 회보문 위는 마루를 놓았고, 양쪽 각 1칸은 온돌방을 들였다. 방의 전면으로는 뒷마루를 놓았는데

9) [옥동서원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조재모, 「상주 옥동서원의 건축과 청월루」, 『방촌 황희의 리더십과 향사서원』, 보림에스앤피, 2021을 참조할 수 있다.

10) 고설식 온돌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데 구조적으로 완전한 뒷마루는 아니고 측면 2칸의 양통 주열 중 앞쪽 칸의 중앙부에서 셋기둥을 놓아 분할한 것이다.

청월루로의 진입은 좀 특별한 방식이다. 회보문을 들어서서 계단을 올라 강당이 있는 마당으로 간 뒤, 청월루의 측면으로 돌아가서 작은 계단을 통해 전면 뒷마루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진입은 다른 서원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진입 위치가 전면 뒷마루라는 점은 이 누각의 정면성이 분명히 서원의 바깥쪽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월루라는 편액 또한 무변루와 달리 서원 전면부를 향해 걸려 있다.

즉, 청월루는 무변루와 언뜻 유사한 건축유형으로 보이나 많은 면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서원 누각이다. 무변루가 정면, 즉 서원의 외부쪽으로는 대단히 폐쇄적인 입면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청월루는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있다. 지붕의 형식도 다르다. 무변루는 맞배지붕으로 중앙부 5칸을 덮었고, 양 끝단의 각 1칸에는 부섭 형태로 지붕을 올려 마치 ‘하옥’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정침, 즉 강당의 모델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청월루의 경우에는 팔작지붕으로 하였다. 안쪽의 강당과의 관계도 동서재가 없기 때문에 개활적인 모습이다.

청월루 양쪽의 온돌방에는 진밀료, 윤택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들 방의 이름은 ‘료’로서 거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존의 해석으로는 서원 설립 이후 뒤늦게 청월루를 세우면서 동서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방을 들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옥산서원, 옥동서원 누각의 방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몇몇 문집에서 옥산서원을 방문하였을 때 무변루에서 유숙하였던 기록을 찾을 수 있어 참고가 된다.<sup>11)</sup>

11) [東林先生文集] 卷之一 宿玉山無邊樓 “洞門邃窈白雲深。薄暮行穿萬木陰。宵卧聽泉秋壑。晨興看岵碧千尋。思賢益切迷方恨。著靜須知有道心。最愛一樓臨水處。憑欄終日洗煩襟。” / [尼溪集] 卷之三 宿無邊樓。曉起漫吟。主人報我雨來聲。五漏方殘旅夢驚。誰解林梢風力緊。聊言簾隙月光明。天方氣朗羊何舞。時已朝平魄未生。分付心君須着念。錯料凡事摠非誠。” / [寓庵先生文集] 卷之二 季朴兩生。留無邊樓。終日無讀書聲。題贈警睡。齋散儒宮靜。山空宿雨晴。無端樓上客。和睡聽溪聲。” 등.

요컨대, 옥산의 무변루, 옥동의 청월루는 서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각각 서원 누각의 역사적 발전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변루는 처음 서원에 누각을 받아들이면서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의 구성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강당과 동서재를 갖추고 있었던 서원의 건축에서 향교 누각형 명륜당의 양쪽 온돌방, 즉 협실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를 생략하여 개방적인 누각으로 발전하였다. 서원의 누각이 주로 3칸의 정면규모를 갖게 된 것은 무변루의 대청 3칸이나 정침의 당 규모인 3칸을 차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청월루는 동서재가 없는 상황에서 누각을 건립하면서 다시 양 협실을 들인 형식을 소환하여 적용한 것이었다. 논증하기는 어려우나 상주 일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고설식 온돌의 기술을 함께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서원의 누각은 조선의 서원이 중국의 서원건축보다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향교로부터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누각은 조선시대의 단층 중심의 건축문화에서 특별히 중층의 구성을 갖는 유형이다.<sup>12)</sup> 신분과 기능에 따른 위계질서가 물질문화의 하나인 건물의 규모를 규제하기도 하였거니와, 온돌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건물은 단층으로 조성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중층의 살림집이 조성되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나, 점차 단층이 주류가 된 것은 아무래도 온돌의 영향이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축사적 경향에서 서원의 정면에 누각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12) 여기에서 중층이라는 어휘는 공간 사용의 측면에서 적층된 층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쓴다. 한편, 건축구조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공간의 사용 양태와 관계없이 처마와 지붕의 적층만으로 중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옥산서원의 무변루는 하층을 진입통로로, 상층을 머무르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층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하나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다. 반면 창덕궁의 인정전 등은 실내공간은 상하층의 구분 없이 통층으로 사용하지만 지붕은 두 겹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으로는 중층의 성격을 갖는다. 일본의 경우, 전자를 층(層), 후자를 중(重)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쓴다.

기능적인 쓰임새 이상의 의미가 있다. 누각을 세움으로써 서원의 정면을 당당한 모습으로 구현하였고, 경계부 높은 위치에서 서원의 안과 밖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유식의 장소를 만들었으며, 서원의 경내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하고 안온한 학습의 공간으로 정돈하는 등, 조선 서원의 누각은 서원 건축의 한국적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건축 유형이다.

#### IV. 정침 이론의 모색과 지역 모델

이렇게 발전해온 조선시대 서원의 건축은 전체적인 배치와 누각의 활용뿐만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지역성을 띠고 있었다. 강당과 동서재는 온돌과 마루를 결합하여 주택과 유사한 평면 마감으로 구성되었고 신발을 벗고 올라 좌식으로 공간을 사용하였다. 의식공간의 성격상 신발을 신고 의관을 갖추어 예를 행하는 장소이지만, 신발을 생략하고 완전히 좌식으로 공간을 쓰는 것은 한국의 오랜 주택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보편성 속에서 학공의 본질에 천착하고자 하는 경향도 존재하였다. 근본적으로 유학의 공간은 행례의 장소여야 했다. 의식은 참례자들의 행위에 대해 그 위치와 방향, 상호간의 공간적 관계 등을 세세히 규정한다. 예를 들어 국조오례의 등의 관찬 의식서를 살펴보면 시간대별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또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참례자들의 기다리는 자리, 움직이는 동선, 의식에서의 자리는 어디이며 그 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가구 뿐만 아니라 음악과 향 등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공감각적 장치는 어떤지, 의장대나 호위군사의 지물은 각각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예의 실천이라는 것이 신분이나 관계, 장소와 의식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행위규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각득기소’를



구현하고자 함이다.<sup>13)</sup>

그런데 이러한 세밀한 규정이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완숙하게 체득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국초에는 필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논의를 거듭하면서<sup>14)</sup> 왕조의 국가전례를 다듬어갔고, 이러한 성과는 특히 세종대에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세종실록의 오례의는 당시까지의 의주 정비를 일별한 것이었고, 이후 세종대의 국조오례의의 근간이 되었다. 국조오례의의 성립 이후에도 여기에 누락된 의절들이나, 왕세자의 섭행 등 변동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다시 의주를 정리하여 행례하였다. 누적된 변화들은 조선후기의 국조속오례의, 국조오례통편 등을 통해 개정과 정리를 거쳤다. 국가전례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사가나 서원 등에서도 점차로 유교적 의례가 확산, 정착되어 갔으며, 가묘의 설치 등은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에 맞는 공간적 세팅이 필요하였다. 궁궐의 경우에도 태조년간에 조성된 창건 경복궁이 정전, 보평청, 연침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세종대의 경복궁 개영 작업을 거쳐 비로소 정식의 원활한 행례가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sup>15)</sup> 상삼례를 위한 사정전의 개영, 내전 의례의 정비와 강녕전 개수, 문소전, 계조당의 건립과 정비 등은 모두 이러한 과정이었다. 국조오례의에는 궁궐 외에도 민간의 건축공간과 연관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이나 왕자공주군의 결혼은 왕실과 민간이

13) 조선시대 궁궐의 의식과 공간 관계에 대해서는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 운영과 건축규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14) 강제훈, 「조선초기의 조희의식」,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 「조선초기 정치희례 의식의 정비와 운용」,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2009 및 「조선초기 국가의례 정비의 지향과 원칙」, 『민족문화연구』 6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5) 세종대의 의례정비와 궁궐건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찌기 김동욱, 조재모 등의 연구가 있었고, 의례 정비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있다. 김동욱, 「조선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건축역사연구』 11권 4호, 한국건축역사, 2002 : 조재모, 앞의 논문, 2003 및 강제훈, 「조선 세종조의 국가례 정비와 오례의 성립」, 『한국사학보』 82, 고려사학회, 2021 등.

함께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의 개영을 거쳐 궁궐 내의 건축공간은 대체로 정비되어 있었지만 민간의 모든 건축공간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왕실 혼례에서 왕비제택은 여러 겹의 문과 정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sup>16)</sup> 필요에 따라 장막이나 발을 설치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일이 많았고, 이는 궁궐이라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일례로 흥례 과정에서 염습을 하는 공간이나 빈전 등에서 인용된 의식의 규정과 같은 형태의 건축공간이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형식에 맞는 건물을 세우는 대신에 가설물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획하였다. 때로는 건축공간을 개변하기보다는 의주를 변통하여 지역화하는 일도 있었다. 동퇴연의 경우 세종9년에 처음 도입한 의주에는 동방, 동서상, 실 등 여러 단위공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건축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세종실록 오례의의 동퇴연에는 이 의절을 변경하여 실, 동서상 등의 명칭이 제외된 대신 동방으로만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서원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사당의 경우, 소수서원에서부터 이미 3칸의 유형으로 정립되어 큰 변동없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사당의 의례가 이미 충분히 이해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건축적으로 큰 변위가 없는 작고 단순한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반면 강당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서원 내에서 의례 공간의 건축적 실현 문제에 대해서는 강당에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원의 강당 또한 사당이나 누각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전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면 5칸에 중앙부 3칸을 대청으로 꾸미고 양쪽 각 1칸에 온돌방을 들이는 것이 그것이다. 위치상으로는 문이나 누각으로 조성되는 서원의 입구로

16) 퇴계는 조선에서 정침이라 할만한 곳이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민간 사가의식의 중심공간으로서 가옥의 안채 등을 정침으로 지칭하여 활용하고는 있지만, 건축의 유형으로 볼 때 완전한 정침의 구성을 갖고 있는 예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17) 의주 변경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장막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일은 병행되었다.

부터 사당에 이르는 축선 중심에 강당을 놓고, 그 앞쪽 혹은 간혹 뒤쪽<sup>18)</sup>으로 동서재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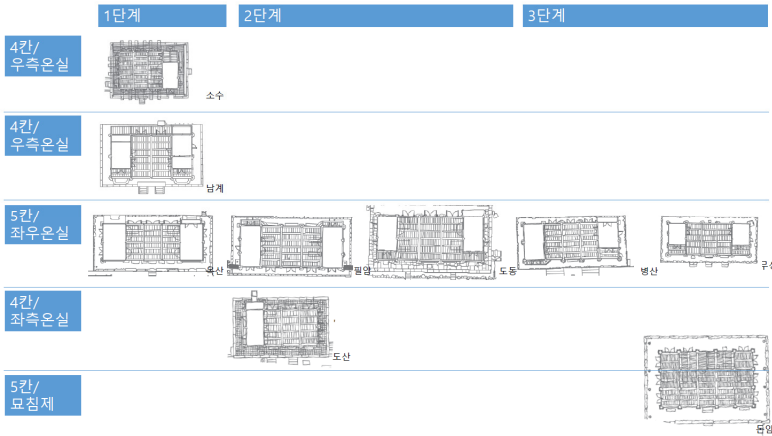


〈그림 6〉 소수서원, 남계서원, 도산서원의 4칸 강당

다시 소수서원으로 돌아가보면, 강학당은 4칸일뿐만 아니라 좌우의 대청성을 갖고 있지 않고 방을 오른쪽에만 한칸 두고 나머지 3칸을 대청으로 꾸렸다. 소수서원은 그 배치가 서원의 전형적 배치수법과는 다르고 강학당의 정면 또한 진입축 방향과 직각으로 틀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강학당의 평면의 유래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 강당의 전형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며, 진입축 방향으로 좀 더 개방적인 구성을 의도하였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남계서원의 명성당 또한 4칸의 정면을 가지고 있다. 중앙부 2칸에는 대청을, 양쪽 각 1칸에는 온돌방을 들인 형식이다. 도산서원의 전교당도 정면 4칸인데, 소수서원 강학당처럼 한쪽에 방을 놓고 나머지 3칸을 대청으로 하였지만 그 방향은 서로 반대여서 온돌방이 왼쪽에 놓였다. 19세기의 서원철폐령 이후 남은 서원뿐만 아니라 재건된 서원을 포함하여 현존 서원을 일별한 연구에 따르면 의외로 5칸 강당 외에 4칸 강당도 높은 비율로 확인되고 있

18) 장성 필암서원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는 지형적으로 평탄한 곳에 서원을 건립할 때 앞 건물에 의해 뒷 건물의 시선축을 가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당과 강당의 축선을 달리 하곤 하였다. 성균관에서는 대성전을 명륜당보다 앞쪽으로 위치시켰고, 이는 호남 일대의 여러 향교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그림 7〉 서원 강당 평면형의 정착과정

다.<sup>19)</sup> 다만 4칸 강당이라도 대부분은 중앙의 대청을 2칸으로 하고 양쪽에 온돌방을 놓는 방식이다.

초기 서원에서 확인되는 4칸 강당 중 소수 강학당과 도산 전교당은 대청이 3칸이라는 점에서 이후 전형으로 자리잡는 5칸 강당의 대청부와 공통된다. 반면 남계 명성당은 좌우에 방을 놓았다는 점에서 또한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각각의 유형적 특징은 서원 강당의 전형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서원의 강당은 초기의 한쪽에만 온돌이 있거나 대청을 2칸으로 하는 등 4칸 강당의 시도가 있었으나 곧 5칸 강당이 전형으로 자리 잡아 갔다고 하겠다.

그런데 5칸 강당의 건축유형은 서원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꼭 5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앙부에 3칸의 대청을 놓고 좌우에 대칭적으로 온돌방 혹은 부속실을 들이는 것은 궁궐의 침전이나 객사, 향교의 명륜당 등 격식을 요구하는 건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전각 유형이다. 시기를 올려보면 고려시대의 개성 본궐의 발굴 조사에서도 중앙부 몸체에 좌우 익실을 두는

19) 김은중, 「朝鮮時代 私學建築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형태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빈번하게 확인된다. 또한 고대 중국의 정침에서 당은 가운데에 2개의 기둥, 즉 영(楹)을 놓은 3칸의 평면이고 그 양쪽에 협실을 두었는데, 5칸 강당은 이러한 정침의 당 구성과도 유사하다. 을 말하자면 이러한 구성은 오랜 연원을 갖는 고식의 평면형이라 할 수 있다.

서원에서 결국 이러한 유형을 선택한 것도 이 평면유형에 대한 경험과 건축적 상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기의 여러 시도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강당은 본질적으로 강학의 예를 구현하는 장소이다. 고대 정침의 평면은 여러 방식의 행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주인이 빈객과 만날 때 정침 앞에서 동서로 마주하여 각각 조계와 빈계를 나누어 당에 올라 상응하는 과정이다. 둘째는 주인이 당의 호유지간, 즉 북벽의 중앙에 자리하고 앉는 방식이다. 다시 궁궐의 예를 들면, 임금이 참례하는 대부분의 의식은 후자의 방법에 가깝다. 어좌를 북벽 중앙에 놓는 것은 대부분의 의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이고, 실제 공간도 이와 부합한다. 원래의 창덕궁 편전인 선정전이 아닌 성정각 등에서 행례할 때나, 왕세자의 행례일 때, 혹은 근대기 의주에서 외국의 사신을 만다는 의절 등에서는 동서로 벌려 앉는 전자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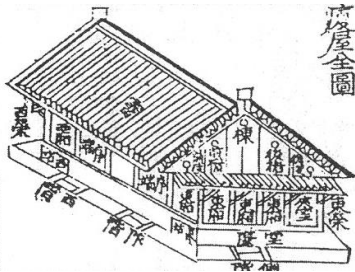
서원의 강학례는 전자에 가깝다. 그래서 여러 서원의 강당에는 앞쪽에 동서로 2개의 계단을 두어 당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벽에 선생이, 서벽쪽으로 학생들이 앉아 강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공간 사용의 방법이다. 이를 다시 4칸의 강당에 적용하여보면, 우선 소수 강학당과 도산 전교당은 대청이 3칸이므로 5칸 강당의 행례와 다를 바 없다. 남계 명성당은 중앙부 2칸에 각각 계단과 심돌이 있어 승당하는 행위는 잘 구현된다. 또한 굳이 호유지간의 북벽 중앙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동서로 자리를 마주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칸 강당보다 5칸 강당이 최종적으로 선호되는 것은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건축적 상식에 기인한다. 당장 남계 서원의 명성당은 중앙부에 현판을 걸지 못하여 ‘남계’, ‘서원’을 각각 나누어 걸었고, 당호 또한 북벽의 동편으로 치우쳐 있어 시각적으로 편안하지 못한

**殿屋厦屋說**

殿屋五間前皆為堂後為房室中間之前為兩楹間後為  
 室東間之前為東楹之東又少東為階上少北為東序  
 後為東房西間之前為西楹之西又少西為階上少北  
 為西序後為西房序即牆也者位莊東西序其南為序端  
 東序之東西序之西為夾亦謂之廡又說文云廡廡也廊  
 外序其前為東西堂其後為東西夾室夾外之廣為側階  
 房後為北階此其地其棟則中三間為一棟橫指東西至  
 兩序之上而盡遂自此處分為四棟邪指四隅上接橫棟  
 下與簷齊此其上棟之制其宇則橫棟前後即為南北兩  
 下橫棟盡外即為東西兩下四棟之勢即各連所向而下  
 四面椽椽覆堂廉出階外者謂之廡下周屋也其屋盡  
 水下處謂之霤此其下宇

厦屋則前五間後四間無西房堂中三間之後其餘並如殿屋之制但五間皆為橫棟之前後皆為兩下之字橫棟盡外有版下垂謂之搏風搏風之下亦為兩廡接連南北以覆側階但其廡亦不出搏風之外耳儀禮疏云殿天四周之布

殿屋四阿連下為廡四面之簷其水皆多故其簷皆得  
 以霤為名夏屋南北兩下之廡與殿屋同故其簷亦謂  
 之霤東西兩廡則但為腰簷不連棟下又不出搏風之  
 外雖或有水亦不能多故但謂之榮謂之翼而不得以  
 霤名也榮翼乃腰簷之名疏乃直指搏風誤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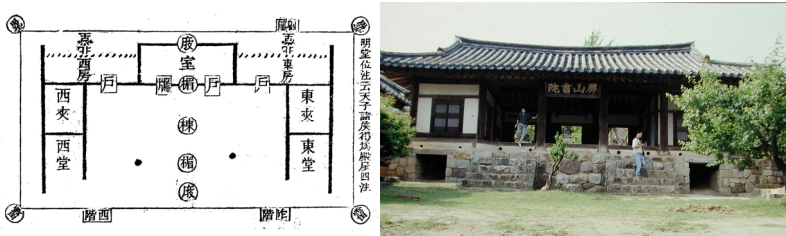
〈그림 9〉 주희, 『전옥하옥설』, 돈암서원 응도당, 『가례집람』 하옥전도의 비교

이 있다. 홀수 칸으로 전각을 만드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구성법이다. 오히려 남계 명성당 등에서 2칸 대칭으로 중심성을 약화시키면서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행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간 구성을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sup>20)</sup>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고대 정침의 구성과는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정침은 당과 양협실만이 아니라 북편으로 실과 방이 함께 구성된 평면이다. 신분에 따라서 황제와 제후의 정침은 좌우방제, 즉 전옥으로, 경대부

20) 소수 강학당, 도산 전교당 등 소위 편실형의 4칸 강당은 대칭이 3칸으로 홀수칸이라 현판을 거는 등 중심성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다.

및 사의 정침은 동방서실제(혹은 일방제), 즉 하옥으로 그 평면을 달리하였지만, 실과 방을 놓아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었다.<sup>21)</sup> 실상 서원의 강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정침 자체의 건축이론을 탐색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한 구성의 정침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여 행례의 공간으로 삼고 싶은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8〉 정침평면도와 병산서원 입교당

가장 대표적인 ‘구현된 정침’은 돈암서원의 응도당이다. 응도당의 평면은 정면 5칸인 것은 다른 서원의 강당들과 같지만, 측면이 3칸으로 꽤 큰 편이다. 또한 당의 뒷편으로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분된 일렬의 공간이 부착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의 공간만 후면으로 개방되어 있는 독특한 구성이다. 전면 부르는 좌우측 양단에 별도로 구획된 공간이면서도 앞쪽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특이하다. 이러한 평면 구성은 한국 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sup>22)</sup> 고대 정침의 구성을 완전히 구현한 것이다.<sup>23)</sup> 정면에

21) 하옥은 경대부 및 사 계층의 정침이고 전옥은 천자와 제후의 정침 평면 유형이다. 주희, 전옥하옥설 및 이어규, 의례석궁 등 참조.  
 22) 만동묘의 경우 원래의 건물은 소실되었으나 초석의 배열 등으로 볼 때 유사한 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변형되어 원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유사한 구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예가 일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23) 다만, 이는 문헌적으로 이해된 정침이다. 발굴조사에 의해 고대 정침은 후한대 이래로 학자들이 문헌적으로 논증해왔던 평면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러

서 보아 중앙부 3칸의 대청은 당으로, 좌우 측단의 각 1칸은 동서상(혹은 협실)으로, 당 뒷편의 분할된 공간은 동방서실의 정침 구성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평면 뿐만 아니라, 지붕의 구성에 있어서도 하옥의 지붕인 양하, 즉 맞배지붕을 올리고 양단에 부섭을 달아내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였다.<sup>24)</sup>

다만 고대 정침의 경우 흙벽돌을 이용한 구조였기 때문에 정면에서 5칸, 후면에서 4칸인 하옥을 구성하였던 것인데, 이를 조선에서 주로 사용되던 완전한 목구조의 건축술로 구현하기 위해 여러 고민이 있었다. 정면과 후면의 칸수를 동일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은 목조건축에서는 난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기둥은 원래의 방식으로 정치시키되, 벽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위치만 하옥의 평면을 따르는 변칙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실내공간의 바다 또한 마루로 마감되어 조선식의 건축 특징을 보여준다.

고대 정침을 조선의 건축기술과 관습에 맞추어 변통한 돈암서원 응도당의 건축실험은 조선의 서원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종방향의 건물 규모가 훨씬 커야 했던 이 평면형은 지붕의 구조적 부담을 키웠지만, 그만큼 쓸모 있는 구성은 아니었다. 조선의 건축은 물론 중국에서도 이러한 구성법은 흔치 않은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문헌상으로 추론된 것일 뿐,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정침의 실체와도 다른 모습이었던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도당의 실험은 조선의 서원건축이 지향했던 두가지의 방향성, 즉 원론적인 학궁의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를 조선적인 건축으로 정착시키고자 했던 바를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나,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에게 실제 존재했던 정침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들 또한 문헌 탐구를 통해 정침을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4) 이에 관해서는 정기철, 앞의 논문 참조.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돈암서원 응도당의 정침이론 수용에 대해 상세히 논증되었다.



## V. 결론

이상과 같이, 조선의 서원건축은 학궁을 구현하여 강학과 제향의 예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념 속에서 발전하였다. 소수서원이 건립된 이래 여러 서원의 영건 과정에서 하나의 전형적인 배치법을 찾아내었고, 직선 축에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앞뒤로 배열하면서 지형 등을 이용하여 구분, 연계하는 수법은 급속도로 공유되었다. 그 와중에 옥산서원 무변루가 등장함으로써 서원에 누각을 건립하는 유행이 시작되었고 이는 다시 전국적인 유행으로 연결되었다.

서원의 누각은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의 경험으로부터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 무변루에서 양쪽에 온돌방을 들이고, 중앙부에 3칸의 대청을 둔 것은 향교의 명륜당 평면과 매우 닮아있다. 멀리는 고대 정침의 평면형이나 궁궐, 객사의 사례들과 연결되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별도의 강당을 보편화하기 시작한 서원에서는 누각의 방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이후의 서원들은 옥동서원 청월루와 같은 특별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전체를 마루로 마감하는 개방적인 누각으로 전형화되었다. 서원의 건립을 고민하였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주자의 백록동서원이었을 것이나, 그 건축의 수법은 조선적인 특색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돈암서원 응도당으로 대표되는 고대 정침의 건축적 실천도 주목되어야 한다. 강당, 사당, 누각, 동서재 등이 완비된 서원의 건축적 전형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정침을 구현하여 학궁에서의 예를 제대로 갖추고자 하는 학문적인 욕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응도당이다. 이론적으로 해석된 정침의 구성을 구체적인 건물로 실현하는데에는 결국 지역의 건축술이 개입될 수 밖에 없었고 응도당은 완전한 목구조에 마루로 마감한 조선적인 건축 수법으로 완성되었다.

【참고문헌】

- 『東林先生文集』  
『尼溪集』  
『寓庵先生文集』  
朱熹, 「殿屋廈屋說」  
李如珪, 「儀禮釋宮」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옥동서원지』  
『옥산서원지』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강제훈, 「조선초기 정지회례 의식의 정비와 운용」,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2009.  
강제훈, 「조선초기의 조회의식」,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해석」, 『국사관논총』 59,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동욱, 「조선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건축역사연구』 11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김봉렬, 『서원건축』, 대원사, 2006.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0.  
김은중, 「朝鮮時代 私學建築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운당, 1994.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1997.  
箱崎和久, 『近世の學校建築』, 至文堂, 2011.  
楊慎初, 『中國書院文化与建築』, 湖北教育出版社, 2002.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2.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 연구』, 일조각, 2002.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도구」, 『역사민속학』, 2007.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006.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론-특히 사림의 건립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 1975.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 정명섭, 「경북지역의 서원건축」, 『향토사연구총서』 제4책, 1993.
- 정명섭, 「서원건축 강당의 개구부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 정명섭, 「조선시대 향교 및 서원 건축의 청방간 개구부 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2.
- 정순목, 『한국 서원교육제도 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 조규화, 정정남, 「조선후기 고설식 온돌구조의 효용성에 관한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2017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11.
- 조상순, 「조선 중기 이전 향교건축의 형성과 전개-관련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조재모, 「덕천서원의 건축\_두 개의 시간대에 걸친 역사의 흔적」, 『덕천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조재모, 「상주 옥동서원의 건축과 청월루」, 방촌 황희의 리더십과 향사서원, 보림에스앤피, 2021.
-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규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조재모, 「조선중기 서원의 태동과 건축유형 정립」, 2017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7.11.18.
- 조재모, 「좌식공간관습의 건축사적 함의」, 건축역사연구 21권 1호, 2012.
- 조재모, 「한국서원건축의 유형정립과정」,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10.28.

Abstract

## The Regionality of Seowon architecture during Joseon Dynasty focused on lifted pavilion and reinterpretation of Zhengqin

Cho, Jaemo\*

This paper is on the Korean locality of seowon architecture of Joseon dynasty. Although Seowon of Joseon dynasty has its origin at Chinese shuyuan 書院 of Tang-Song 唐宋 period based on xuegung 學宮 of the conceptual model of school architecture, those of each region has its own locality influenced by architectural technology and custom. It is the common feature of almost all building types such as palace, shrine and so on. In case of Seowon, we can focus on installation of lifted pavilion 樓閣 and reinterpretation of zhengqin 正寢 with normally using wooden floor and ondol, the Korean traditional floor heating methodology.

The lifted pavilion used in seowon is outstanding feature showing the idea of Joseon seowon for harmony with surrounding nature and landscape. That is developed from the origin of lifted type myeongryundang 明倫堂, the lecture hall of Hyanggyo 鄉校 of national school of the dynasty located at local cities. Mubyeonlu 無邊樓 of Oksan seowon 玉山書院 that has each ondol room on both side of 3-bay central main hall of pavilion is similar to myeongryundang model. It is a kind of general building type used at palatial chambers and national guest house of gaeksa 客舍 sharing the origin of ancient Chinese

---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zozemo@knu.ac.kr

zhengqin. But most of pavilion of seowon during Joseon dynasty didn't use this type of pavilion of two rooms because lecture hall of seowon from same origin has rooms and floor heating on lifted level was difficult to make technically. So the open type pavilion without rooms, wall and any windows was adopted as the prototype of seowon pavilion.

Also reinterpretation of zhengqin to Joseon society might be focused on. Although the seowon layout model had been settled to locality of seowon architecture, they needed the ultimate principle of xuegung for perfectly decent ritual ceremony. Don'am seowon Eungdodang 遯岩書院 凝道堂 is the outstanding example showing this concept. For installation of conceptual model of zhengqin to real architecture, they had to use the local technology and Eungdodang was built as Joseon's local type zhengqin architecture.

Key word : architecture of Seowon, lifted pavilion, Zhengqin, locality

논문 투고일: 2022. 10. 18 심사 완료일: 2022. 12. 21 게재 확정일: 2022. 12. 22



# 한국(韓國) 서원(書院)과 중국(中國) 서원(書院)의 입지·공간구성(立地·空間構成)과 유식공간(遊息空間)에 대한 비교연구(比較研究)\*

김 덕 현\*\*

-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 II. 한국 서원의 입지·건축 공간구성과 유식 경관
- III.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정원과 유식 경관
- IV. 한국과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유식 경관의 종합적 비교

## 【국문초록】

本 研究는 朝鮮時代 韓國의 書院과 中國의 書院을 立地와 空間構成, 그리고 遊息空間의 측면에서 比較 考察하였다. 書院制度는 中國에서 始源하였으나, 儒敎 國家 朝鮮에서 私學으로 繁盛하여 全國적으로 分布하고 最近 UNESCO世界遺産에 登載되었다. 이에 중국 서원과 辨別되는 한국 서원의 固有性과 眞正性을 把握하는 比較 研究가 要請된다.

宗教的 性格을 가진 敎育施設인 書院은 儒敎의 世界觀을 再現하는 立地·空間 構成·景觀을 創出한다. 立地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書院은 共通의 學問과 祭享에 適合한 幽閒한 景勝地와 風水思想의 影響으로 山水環抱하는 地形을 立地

\* 이 논문은 2022년 5월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민족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겸 제9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전면 재작성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 dukhyunk@naver.com

의 기본으로 共有한다. 中國의 著名 書院은 道教와 佛敎의 影響으로 名山 名勝에 立地했다. 한국의 書院은 祭享人物의 緣故地를 가장 重視하고 其次적으로 生氣 活潑한 風水 形局을 찾아다. 既存 景勝地에 立地한 中國의 書院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書院은 祭享 人物이나 書院 自體의 名聲으로 後代에 景勝地로 인정받기도 했다. 한국의 書院은 展望景觀을 중시하는데, 展望景觀의 類型에 따라 溪景·江景·野景으로 立地를 구분할 수 있다.

서원의 空間構成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書院은 3가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첫째, 空間 規模와 制度에서 중국 서원은 그 位相에 따라 差異가 크다. 한국 書院에서 位相의 差異는 祭享 人物에 주로 관련되고, 書院의 외형 規模와 관련이 적다. 둘째, 서원 내부 空間構成에서 한국 書院은 대체로 前低後高 地形 위에서 單一한 軸線에 건물을 位階의 으로 配置하고 그 最高位는 祠堂이다. 중국 書院은 複數의 축선에 藏書樓-講堂의 축선과 祠堂群의 축선이 구분되고, 장서루[御書樓]가 최고위에 해당한다. 셋째, 書院의 威儀와 卓越性 誇示 方式이 다르다. 중국 서원은 石造의 牌坊, 柵欄(照牆), 泮池와 石橋, 壯麗한 御書樓 등으로 位相을 誇示하고 園林과 碑亭으로 品格을 더한다. 한국 書院은 前低後高의 軸線에 簡明하고 位階의인 左右對稱의 建築物 配置, 節制된 植栽와 虛靜의 中庭으로 整齊嚴肅의 禮空間을 具顯한다. 한국의 書院은 威儀와 卓越性에도 人爲的 建築과 造景보다 산과 하천 같은 自然에 依存한다.

한국과 중국 書院의 가장 의미 있는 차이는 遊息 공간에서 발견된다. 중국의 서원은 대체로 外部 自然景觀 展望이 없고, 境內 庭園이 유식 공간이 된다. ‘背山臨流’ 입지의 한국 서원에서 展望景觀은 儒學者들의 궁극적 이상인 天人合一을 體得하는 현장이다. 서원에서 天人合一의 느낌을 얻도록 한국 서원은 生氣活潑한 自然에 展望을 開放하는 방식으로 유식 공간을 구성하는데, 門樓가 대표적 장소이다. 문루의 堂號는 서원의 展望 景觀 이미지와 부합하는 經傳과 先賢의 말씀에서 가져왔다. 門樓의 堂號는 展望 景觀의 特性和 그 儒學的 含意, 祭享 人物의 精神 世界를 三位一體로 담은 記號로 볼 수 있다. 문루 당호로 기호화된 전망경관은 自然과 融合하는 한국의 傳統建築 思想과 한국 서원의 理念인 性理學의 天人合一觀이 결합된 독특한 事例이다.

주제어 : 입지, 공간구성, 유식공간, 전망경관, 문루당호



##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한국의 朝鮮時代 書院 9개가 2019년 UNESCO 世界遺産 連續遺産으로 登載되었다. 중국의 서원도 세계유산에 포함된 것이 여럿이지만, 모두 서원이 입지한 주변의 名山과 관련된 유산의 일부로 포함된 것이다. 서원의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서원의 이름으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이 유교 특히 性理學의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祭享과 講學 뿐 아니라 立地, 建築 空間構成, 그리고 景觀에서 그 固有性和 眞正性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한국 서원의 固有性에 대한 탐구와 확인은 서원 제도가 발생한 中國의 書院과의 比較研究를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서원 정원과 전망경관을 고찰함으로써, 조선 서원의 고유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 서원의 입지 건축 공간구성 및 유식 경관의 특성을 살피고, 비교적 관점에서 중국 서원의 사례를 고찰하여, 조선과 중국 서원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綜合하고자 한다. 고찰 대상으로 한국의 서원에서 世界遺産에 등재된 9개 서원과 중국의 서원에서는 필자가 답사한 저명 서원과 지방의 서원들을 事例로 하였다.

## II. 한국 서원의 입지·건축 공간구성과 유식 경관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을 선도해 온 문화집단은 神의 世界를 자신이 사는

---

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 수록 등재 결정문, 2021,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이다.”

땅에 구현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구축해왔다. 그들은 선택된 집단으로서 현재 땅 위에 실현된 신적 세계를 누리고 있다는 문화적 긍지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장소를 창출한다. 서양문명에서 고대의 神殿 중세의 敎會가 그 사례이다. 한국의 서원은 유교의 사립 교육기관이지만, 先賢 祭享을 가장 중시하는 종교적 성격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儒敎의 寺院'으로 볼 수도 있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神의 의미는 하늘[天理]이 대체하고, 天理가 流行하는 모습은 산수자연[景觀]에서 지각된다. 서원은 天道와 人道에 대한 성현의 말씀을 배우고 心性을 함양하여, 산수 자연경관에 드러난 天理를 自得하는 聖學의 장소로 구축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유교 성현의 말씀을 배워서 성인을 지향하는 장소인 서원은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世界像과 精神世界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서원 안팎의 경관을 禮의 공간으로 구성하거나 유학적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理想 世界를 현실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再現(representation)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sup>

한국 서원과 중국 서원과의 비교 연구의 기초를 검토하는 의미에서, 서원의 입지·건축 공간구성·유식 공간(경관) 3가지 부문에 대한 조선 서원의 특성을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입지에서, 조선의 서원은 대체로 제향 인물의 연고지를 선택하고, 연고지에서 산지를 배경

2) 김덕현(「道東書院 景觀에 再現된 性理學의 精神世界」, 『문화역사지리』, 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29-4호 1~21쪽)은 道東書院을 사례로 性理學의 談論-祭享人物의 精神世界-景觀의 三位一體的 結合이 한국 서원의 특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조재모의 연구(「한국서원건축의 유형 정립 과정, 한·중 서원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서원학회 주관, 『한·중 서원학회교류 10주년 기념 제7회 동아시아 서원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7, 71~90쪽).

김덕현의 연구(「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관한 독해」, 『한국서원학회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한국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 1, 2, 『문화역사지리』 25-2, 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a, b); 「道東書院 景觀에 再現된 性理學의 精神世界」, 『문화역사지리』 29-4호, 2017; 「儒學의 自然美와 조선 서원의 展望景觀」, 『문화역사지리』 31-1호, 2019.)

으로 하천과 산을 可視的 거리에서 전망하는(背山臨流) 경사 지형(前低後高)에 입지한다. 산기슭 경사지에서 서원이 하천과 접하는 방식에 따라 한국 서원의 입지 유형을 시내를 바라보는 溪景과 큰 강을 바라보는 江景, 그리고 전면에 들판을 두고 멀리 강이나 시내를 바라보는 野景으로 나눌 수 있다.<sup>4)</sup>

건축 공간구성에서, 한국 서원의 대체로 前底後高의 自然地形을 활용하여 단일한 軸線에 祭享·講學·遊息 공간이 位階的으로 배치되는 定形性을 보인다.<sup>5)</sup> 서원 내부 정원 구성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전면을 개방적으로 구성하여 서원 외부의 자연경관을 서원 내로 끌어들이면서 전망되는 自然景觀을 遊息 空間으로 삼는다. 자연경관을 전망하는 서원의 門樓나 臺의 이름은 전망경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교적 개념어를 채택했다. 전면의 자연경관을 유식 대상으로 삼는 한국의 서원에서 조선 유학자들은 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天人合一’을 서원 내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鳶飛魚躍’의 체험, ‘物我同體’의 느낌으로 ‘천인합일’을自得하는 장소로 서원의 입지를 선택하여 건축 공간을 구성하고, 문루와 정자 그리고 臺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天地와 그 德을 함께하는 聖人을 배우고,<sup>6)</sup> “仁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인데, 사람이 얻어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sup>7)</sup>라는 유교적 世界觀 自然觀을 공간에 再現한 장소라는 점에서, 한국의 서원은 유교의

4) 필자(앞의 논문, 2011)는 서원이 마주 보는 案對 景觀의 특성에 따라 野景 山景 江景 溪景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山景은 하천과 접하는 방식에서 보면 큰 강과 작은 시내(溪)로 나뉜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江景 溪景 野景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5) 조재모, 앞의 논문, 2017, 87쪽, “중국과 일본의 여러 유학 교육시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서원이 갖는 가장 뚜렷한 건축 특징은 서원 사이에 공유되는 건축 정형을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제향, 강학, 회합과 유식 공간을 하나의 유기적인 구성으로 구현하여 이들 기능을 따로따로 인식하기보다는 모두가 하나의 공부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의 측면으로 인식하였으며, 외부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드려 자연과 건축이 통합되는 완벽한 정형을 만들어내었다.”

6) 周敦頤, 『太極圖說』,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7) 『朱子語類』 권 105, 〈仁說〉, “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大學이 추구하는 藏修와 遊息의 완벽한 현장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조선의 서원을 유교의 세계관을 재현한 상징적 공간이라고 보면, 서원의 공간구성과 경관은 그 함축적 의미를 텍스트처럼 독해될 필요가 있다.<sup>9)</sup> 즉 서원의 공간구성과 경관은 그 가시성과 물질성을 통해서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와 가치관을 自然的인 것으로 正當化하고 그들의 사회적 행위禮의 실천을 지도 규제하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수행하는 記號라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입지, 건축 공간구성, 그리고 유식 공간으로서 서원의 자연경관을 고찰하여 서원 제도가 기원한 중국의 서원과 비교되는 한국 서원의 固有性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입지

立地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에 효율적인 공간적 위치 선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지는 기능의 수요(방문자)와 공급(관리자)에 대한 공간적 ‘接近性’ 차원에서 평가된다. 그러나 유교의 교육·제사 기관인 서원은 입지론 일반의 ‘접근성’ 보다는 유교의 藏修遊息과 先賢祭享이라는 본원적 기능수행에 적합한 입지를 중시한다. 특히 서원의 학생은 대부분 士大夫 계급으로 훌륭한 배움을 위해서는 먼 곳을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資産 有識 계층이었다. 따라서 유명 서원이나 현인으로 알려진 유학자를 찾아가서 그 문하에서 함께 노닐며 배우는 것을 遊學이라 불렀다.<sup>10)</sup> 조선 서원의 경우, 서원 설립의 일차적 계기가 先賢 祭享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보다 제향하는 선현의 緣故地가 우선이다.

8) 『禮記』 제18장 〈學記〉, “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

9) Duncan, J.,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11-13.

10) 『孟子』 〈盡心〉 上. 24~1, “孟子曰 孔子 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 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 難爲言.”

二次的 서원 입지 요소는 장수와 유식에 적합한 자연환경이다. 조선 서원 입지의 기본적 조건은 제향 인물의 연고지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장수유식에 적합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sup>11)</sup> 초기 서원 창설운동을 주도한 退溪 李滉은 周世鵬이 창건한 白雲洞書院의 賜額을 조정에 上奏하도록 경상감사에게 요청하는 편지에서, 官學인 鄉校와 달리 서원은 시가지에서 떨어져 한적한 곳이 있어야 하고, 先正의 자취가 남아 있는 연고지에 건립할 것을 주장했다.<sup>12)</sup> 이는 조선시대 한국 서원 입지의 공간적 범위와 환경적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퇴계는 白鹿洞書院의 입지에 대한 朱子의 정의, 곧 서원은 아름다운 신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로부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아야, 隱遁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著述하기에 좋다는 주장을 따랐다.<sup>13)</sup>

1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 2021, 61쪽; 이왕기, 「한국 유교건축의 ‘敬의 空間’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5호(통권7), 1986, 43쪽.

12) 『퇴계선생문집』 권9(書), 〈上沈方伯通源〉, “... 무릇 왕궁과 수도로부터 지방의 고을에 이르기까지 서원이 없는 곳이 없었으니 서원에서 취할 이점이 무엇이기 에 중국에서 저토록 숭상한단 말입니까?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학을 강명하고 학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서책을 싸 짊어지고 넓고 한적한 들판이나 고요한 물가로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조용히 천하의 의리를 두루 살펴서 덕을 쌓고 仁을 익히 이것으로 樂을 삼을 생각으로 기꺼이 서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곽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 學습에 구애되고 한편으로 科擧 등의 일에 유혹되어 생각이 바뀌고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공효를 어찌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하자면 선비의 학문이 서원에서 역량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인재를 얻는 데도 틀림없이 서원이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은 것입니다. 옛날 밝은 군주는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 사방에서 기뻐하고 사모하여 다투어 본받아 진실로 先正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예를 들어 崔沖·禹倬·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되 혹은 조정의 명에 의하고 혹 사사로이 건립하여서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곳이 되어 聖朝의 학문을 존중하는 교화와 태평한 세상의 교육의 융성을 빛내고 드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장차 우리 동방 文教가 크게 밝아져 鄒魯나 閩越과 더불어 훌륭한 나란히 일컫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주자와 조선의 퇴계는 공통적으로 서원은 官學인 향교와 달리 도시에서 떨어진 조용한 장소가 되어야 하며, 산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科擧와 같은 立身出世의 유혹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특히 퇴계는 서원 입지 조건에 선현의 연고지를 추가하였다. 특정 유학자를 祭享하고 제향 인물의 학문적 연원과 정신세계를 따르는 한국 서원의 전통은 선현의 연고지에 서원 건립을 주장한 퇴계의 주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주자와 퇴계의 書院觀에 따라, 서원을 창설한 후대의 조선 유학자들은 도회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적하면서도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서 자유롭게 학문을 닦고, 사당을 지어 경모하는 先賢을 祭享하는 것을 조선 서원교육의 전통으로 삼게 되었다.

중국의 유명 서원은 禪宗 佛敎의 영향을 받아 名山과 같이 이미 알려진 勝地에 입지했다 한다.<sup>14)</sup> 그러나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이미 알려진 경승지를 구하지 않고, 제향 인물의 연고지 공간 범위 내에서 장수유식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고 경관 구성과 서원의 명성을 통해서 후대에 경승지로 알려지도록 노력했다. 경승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한반도의 고유한 지리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험하지 않은 산지와 크지 않은 시내가 얽힌 山間溪谷이 많은 조선의 지형에서, 반드시 이름난 勝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藏修遊息에 적합한 장소를 구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서원이 많이 창설된 嶺南 지역은 산간계곡이 많은 지형이다.

셋째, 서원의 구체적 장소적 위치 선택에 風水形局論이 활용되었다. 대체로 산기슭에서 시내를 앞에 두는 背山臨流 입지는 ‘藏風得水’ 형국으로 표현된다. 得水에 치우치면 수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을 쉽게 구

13) 『朱子大典』 권99, 〈白鹿洞牒〉, “그 사면 산수를 보면 깨끗하고 깊은 것이 빙 둘러 합쳐지고, 저잣거리의 시끄러운 소리가 없으며, 시원한 샘과 돌이 아름다운 곳이니, 진실로 모여 살면서 학문을 논하고 자취를 숨겨서 글을 쓰는 곳이다.” (觀 其四面山水 清邃環合, 無 市井之喧, 有泉石之勝 群居講學 遜亦著書之所)

14) 朱漢民, 〈中國 書院의 歷程〉,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하면서도 산이 둘러서서 겨울바람을 막아주어 따뜻하고 氣를 온축하는 최적 입지는 다양한 形局으로 설명된다. 形局論을 주로 하는 조선의 풍수는 坐向에서 南向을 고집하지 않고, 山水環抱하면서 전망되는 산수 경관에서 느껴지는 生氣를 중시한다. 여기서 입지 형국의 지형적 약점을 보완하고, 지나친 점은 막아주는 조선 풍수의 裨補厝勝 기법도 활용되었다.

## 2. 서원의 건축 공간구성

서원의 입지가 정해지고 주위 산수와의 조화로운 관계로 坐向이 결정되면, 서원 건축물의 배치 질서를 결정하는 것이 서원의 건축 공간구성이다. 한국 서원의 건축 공간구성은 16세기 중반 紹修書院 창건(1543년)에서부터 濼溪書院(1566년) 玉山書院(1572년) 道東書院(1604) 屏山書院(1614) 등에서 그 典型성이 형성되었고, 17세기 전반에 이르면 ‘定形’이라 부를 수 있는 서원 건축 공간구성이 나타난다. 조선 서원의 定形性은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位階의 공간구성이다.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특성인 祭享 중시를 반영하여 서원 공간에서 祠堂을 가장 높은 위계에 위치시키고, 그 아래에 강학공간과 유식공간을 위계적으로 배치한다. 유교의 교육기관으로서 서원 공간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世界觀과 價値觀이 가시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유교의 가치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의 하나는 ‘克己復禮’이다. 조선시대 서원 공간은 ‘극기복례’의 仁이 가시적 공간구조에서 재현된 禮空間으로 독해할 수 있다. 克己는 내면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道心을 추구하는 것이며, 復禮는 외면의 행동을 天理의 法道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克己에 관련된 기호 경관은 서원 건물 堂號에서 나타난다. 조선 서원의 禮的 秩序는 경사진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제향-강학-유식 공간을 위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서원 공간에 再現되었다.

둘째, 한국 서원은 단일한 중심 축선에 건물을 左右對稱으로 배치하여 簡明과 質朴 그리고 虛靜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整齊嚴肅의 禮 공간을 구현하

었다. 성리학의 수양 방법은 主敬 涵養이다. 敬을 지키는 방식은 내면으로 마음을 한 곳으로 수렴하는 主一無適과 외면으로 용모와 행동을 단속하는 整齊 嚴肅이다.<sup>15)</sup> 대체로 前底後高 지형에 입지하는 한국의 서원은 중심 축선을 두고 좌우대칭하는 간명한 건축 배치로 整齊嚴肅을 재현한 경관으로 읽을 수 있다. 또 서원 내부 공간구성에서는 최소의 造景으로 質朴하게 하고 중앙에 위치한 마당(中庭)은 최대한 비움으로써 虛靜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하나의 축선에 좌우대칭의 簡明한 配置, 質朴한 造景과 虛靜한 中庭으로 구성된 조선 서원의 내부 공간은 整齊嚴肅의 분위기로 이끌어 마음을 하나로 수렴하여 밝게 통하게 하여 마침내는 公辨되고도 넓은 성인의 경지를 지향하는 明澄의 장소로 읽을 수 있다.<sup>16)</sup>

셋째, 조선 서원에서 위계적이고 엄숙정제한 禮 공간은 획일적이고 인위적 건축 공간구성이 아닌 서원이 처한 다양한 여건에 따라 變容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서원의 공간 규모에서는 壯大한 威嚴이 아닌 ‘인간적 척도(human scale)’로 조선의 전통 민가에 온 듯 친숙하다. 『禮記』에, “樂은 천지의 화합

15) 『二程集』上 「遺書」卷15, 〈伊川先生語一〉, 中華書局, 1981, 150쪽, “사특함을 막으면 참으로 마음이 전일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를 주로 하면 사특함을 막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를 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 공부에 힘 쓰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나를 주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정제하고 엄숙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저절로 옳지 못하고 편벽된 간사한 생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함양하기를 오래토록 하면 천리가 자연히 밝아질 것이다.”(閑邪則固一也 然主一 則不消閑邪 有以一爲難見 不可下工夫 何也, 一者無他 只是整齊嚴肅 則心便一 一則自是無非僻之奸 此意但涵養久之 則天理自然明)

16) 『通書』〈聖學〉20, “聖可學乎? 曰 ‘可’ 曰 有要乎? 曰 有. ‘請聞焉’. 日一爲要. 一者無欲也 無欲則靜虛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庶矣乎.” 中庭에 식재나 장식을 최소화하여 비움의 공간으로 하는 생태학적 근거는 계절에 따라 寒暑의 차이가 큰 한국에서 微氣候를 조절하는 전통적 지혜로 설명되기도 한다. 비워진 마당은 여름에는 빨리 가열된 앞의 마당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서원 후면의 숲에서부터 바람을 유도하여 강당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마당의 복사열이 강당과 동-서재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하는 미기후 조정 기능이 있다.



이며 禮는 천지의 질서이다.”(樂者 天地之和也 禮者, 天地之序也 -19편 「樂記」) 하였는데, 주자는 “예라는 것은 천리의 節文이다. 절이란 등급과 차별이고, 문은 꾸며진 격식이다.”(禮者 天理之節文 節謂等差 文謂文彩 -『論語集註』, 顏淵)라고 설명한다.<sup>17)</sup> “禮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禮者履也 -『說文解字』)인데, 꾸밈[文彩]의 디테일이 없다면 엄숙하기만 해서 자연스러운 실천이 어렵다.<sup>18)</sup> 禮는 등급에 따른 위계적 질서이지만 그 실행에서는 서원이 처한 구체적인 자연적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여,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조성된 특성이 개별 서원의 공간구성에서 보인다.<sup>19)</sup> 평지에 입지하여 사당과 강당의 고도가 비슷한 筆巖書院은 강당과 사당 사이에 中庭을 두고 중정의 좌우에 齋舍를 배치하는 前堂後齋의 방식을 택하여, 사당을 항상 바라보도록 해서 사당에 대한 존중을 서원 공간구성에 반영했다. 屏山書院은 사당을 강당의 후면 동쪽에 비껴 배치함으로써, 등 뒤에 사당을 모시는 송구함을 덜었다. 前底後高 지형의 경사도가 적고 사당과 강당이 인접한 玉山書院은 정문에서 문루-강당-사당까지 시선이 하나로 관통되도록 건물 간 거리를 잘 계획하여, 整齊嚴肅한 내부 공간을 구현하였다. 서원 경내공간이 협소한 武城書院은 강당 대청의 후면 3칸을 모두 개방함으로써, 문루와 중정에서 사당이 막힘없이 크게 보이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급경사의 지형에 맞배지붕의 건축물을 완벽한 좌우대칭과 위계적으로 배치한 道東書院은 정제엄숙한 서원 공간에서 느껴지는 지나친 긴장을 풀도록, 정문(喚主門)-강당-사당에 이르는 좁고 경사진

17) 성백효, 『論語集註』,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3, 490쪽, 節文의 節은 절도(제한과 등급), 文은 격식(의장과 조리)으로 설명된다.

18) 『論語集註』 권1 〈學而〉 12. “예의 본체가 비록 엄하기는 하나 자연 이치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작용은 반드시 중용하고 각박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 和者 從容不迫之意 蓋禮之爲體嚴而皆出於自然之理 故其爲用 必從容而不迫 乃爲可貴)

19) 김영모, 〈조선시대 서원의 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2005, 136쪽, 藏修遊息이 서원에서 병행되어야 하는데, 장수 공간은 장수의 긴장을 유식을 통해 풀고 유식은 장수로 절제한다는 의미에서 서원에서 장수와 유식 공간의 관계를 ‘긴장과 이완’의 균형으로 보기도 한다.

진입로 곳곳에 소박한 장식 조각 등의 디테일을 조성하여 餘裕와 謙讓을 배려했다. 조선 서원에서 자연스러운 禮 실천을 돕는 이러한 꾸밈(文彩)은 화려한 정원 조성이나 壯麗한 건축물이 아닌 자연환경에 조화된 소박한 디테일로 구현되었다. 한국 서원의 공간 규모는, 위엄을 과시하는 壯麗함을 추구하지 않고, 한국 전통 건축의 특성인 人體의 배수 크기로 환원될 수 있는 공간 규모로 사람의 소통과 생활에 친숙한 ‘인간적 척도(human scale)’로 설명된다.<sup>20)</sup>

### 3. 자연·정원·경관에 대한 해석

자연은 서원 문화의 중심인 중국과 한국에서 天地萬物의 活潑한 생명이 발현되는 현장이며, 無慾의 審美 대상이다. 나아가 天人合一의 仁을 自得하는 교육장이다. 따라서 서원과 자연경관의 관계는 藏修遊息하는 배경 이상으로 중요하다. 서양에서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어의 'physis'는 자연을 의미했는데, 이는 전체 또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중세에는 자연은 변덕스러운 현세에 불과한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근현대에 들어서는 시골과 野生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야생지로서 자연은 더이상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잃고 시골 풍경과 유사한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근대 서구에서 위력을 상실한 자연을 대신해서 시각적 형태를 통해서 매력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가진 풍경 혹은 경관이 우주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sup>21)</sup>

景觀은 공간을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관이란 말은 전망 혹은 ‘그림 같은 장면’이라는 점에서 ‘자연’이나 ‘풍경’이란 말과 의미를 공유한다. 네델란드어 ‘경관(landschap)’의 원래 의미는 농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경지, 때로는 소규모의 영역, 행정단위를 뜻했다. 경관이란 용어는 16세

20) 임석재, 『우리 건축 서양 건축 함께 읽기』, 컬처그래퍼, 2011, pp.196-215.

21) Yi-Fu Tuan,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 Y., 1974, 132쪽.

기 말 영국에 건너간 다음 땅에 뿌리박은 실제적 의미를 떠나 예술 영역에서 귀중한 의미를 얻게 된다. 경관은 특정한 문화적 입장에서 보는 전망을 뜻하게 된 것이다. 객관적 위치를 의미하는 입지와 달리, 경관은 어떤 '자세' 혹은 '시각'에서 본 '場面'을 말한다. 경관은 주체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입각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한 세계의 모습과 충분히 통합된(fully integrated with the world of make-believe)" 전망이다.<sup>22)</sup> 따라서 경관이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특정 문화집단이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인식한 모습으로 재현된(represented) 자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은 전망의 예술적 재현으로 인식되고 공식적 초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창출한 자연(경관)을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정원에 대한 관점은 동-서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크게 다르다. 정원은 특정 문화집단이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인식한 모습으로 재현된(represented) 자연경관이라는 의미에서 '경관식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에는 특정 문화집단의 우주론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기독교 수도원의 정원은 명상의 장소로 'Eden의 지리'를 상징한다. 경관식 정원은 근대 서구에서 '특권적 전망'을 강조하면서 직선 경로와 가로수, 선형의 연못을 활용해서 먼 수평선까지 눈에 들어오도록 축선의 시야를 확장하였다. 19세기 영국에서 '풍경식 정원'으로 알려진 정원 조성은 고상한 삶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의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창조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문 앞까지 들여놓는 일이었다.<sup>23)</sup>

정원은 중국과 한국에서 매우 다른 의미와 위상을 가진다. 서원에서도 중국의 서원이 서원 내부에 정원을 유식 공간으로 조성하지만,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내부 공간은 비우고, 전망되는 외부 자연경관을 유식의 대상으로 삼아 내부 정원 조성을 최소화하였다. 중국의 정원은 가부장적 질서를 반영

22) Yi-Fu Tuan, 1974, 앞의 책, 133쪽.

23) 헤르만 폰 뤼클러부스카우 지음 권영경 옮김, 『풍경식 정원』, 나남, 2009, 33쪽.

하는 도시의 직선에 상반되는 자연스럽게 굽어진 사잇길이 이어지는 경관을 창출한다.<sup>24)</sup> 중국인에게 정원은 현실의 가혹한 외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상대적 자유로 들어가는 逃避의 장이거나, 驚愕 異境感 혹은 衝撃을 받아서 陋習을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정신적 경지로 나가는 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sup>25)</sup> 한국에서 전통 정원은 자연경관이 초가 되고 인공 경관은 從의 위치에 있다고 표현되거나,<sup>26)</sup> 자연경관을 빌려오거나 인공적인 정원이 아니라 '자연을 경영한다'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는 방식으로 자연과 인공의 연속과 융합의 장으로 이해된다. 한국식 정원을 전통 건축과 결합된 자연경관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프랑스 건축가 협회장 Laurent Solomon이 한국을 방문하고 언급한 아래의 내용을 인용할 만하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이고 풍경이다. 인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연 위에 그냥 얹혀 있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은 미학적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sup>27)</sup>

한국의 서원에서 자연경관의 중요성은 앞에서 인용한 전통 건축의 특성과 함께 조선 서원 건립을 주도한 성리학의 자연관과 세계관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서구나 중국에서 특정 문화집단의 바람직한 세계관을 자연의 형태로 건축 공간 경내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을 정원이라고 보면, 조선시대 한국 서원에서는 자연과 융합된 조선식 전통 건축의 특성 위에 성리학이 추구하는 天人合一의 이미지를 전망 경관에서 발견하는 것이며, 生生하는 無作爲의 자연풍광을 서원 경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전망

24) Yi-Fu Tuan, 1974, 앞의 책, 138쪽.

25) Jacques Benoist Mechin 著, 河野鶴代·橫山 譯, 『庭園의 世界史』, 講談社學術文庫, 1998, 45.쪽

26) 허균, 『한국의 정원』, 다른 세상, 2002, 25쪽.

27) 휴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서울편』, (주)창비, 2017, 217~218쪽에서 재인용.

경관은 인간이 자연에 합일한다는 의미에서 자연풍광 그 자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가치관을 재현하거나 자유로운 정신 경지를 맛보기 위해 인위적으로 창출한 ‘경관식 정원’을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산수 자연과合一하는 입지와 경관이 조선 서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은 조선 서원창립 운동을 주도한 退溪의 사상에서도 확인된다. 조선 서원 교육제도 연구를 개척한 丁滄堯은 조선 서원의 고유성을 퇴계가 제기한 ‘환경의 교육성’과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2개 측면의 결합에서 찾았다. 주자가 각종 규제에 얽매임(學舍之拘碍), 과거에 얽매임(科擧之累), 저잣거리의 소란함(世之囂)에서 해방되는 ‘교육의 자율성’에 주목한 것과 달리, 퇴계는 ‘교육의 자율성’과 함께 ‘환경의 교육성’을 강조했다. ‘환경의 교육성’이란 유학자의 ‘樂山樂水’를 말한다.<sup>28)</sup> 퇴계는 산수 자연을 대상적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理와 氣가 합하는 자리, 자연과 인간이 합일하는 자리로 본 것이다. 정순목은 퇴계의 산수 자연에 대한 物我一體의 格物은 敬에 의하여 종교론적 상태로까지 이른다고 주장했다.<sup>29)</sup>

서원을 주도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易傳』과 『中庸』에 근거하여 天地萬物이 生生하는 장으로서 자연에 天의 의미를 부여해왔다. 자연경관의 중요성은 퇴계가 강조한 ‘환경의 교육성’에서도 확인된다. 서원 주위의 生生하는 자연경관이 ‘天人合一의 仁’을 지각하는 자리라는 유학적 근거는 『周易繫辭傳』에서 비롯하여 程頤의 ‘物我一體論’, 朱子の 仁說에 자세하다. 『易傳』의 “천도의 운행은 건전하고 굳자는 그것을 본받아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한다.”(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 『周易乾卦象傳』)는 자연으로서 天을 의인화하여 인

28) 『退溪全書』 권 17 〈自省錄〉, ‘答權好文論樂山樂水’에서 퇴계는, “산수를 즐긴다는 것(樂山樂水)은 본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仁과 智의 씨앗을 닦고 기름으로써, 그 기상과 의사가 비슷한 산과 물을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산요수는 산과 물이라는 물질적 대상이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仁’과 ‘智’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뜻이 아니라, ‘仁’과 ‘智’로 마음을 채운 사람이 산수를 만나 의기 투합하여 즐거움으로 표출되는 인격 경지임을 밝혔다.

29) 丁滄堯, 1979,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65~66쪽.

간사에 적용하는 길을 열었다. “날로 새로운 것을 성대한 덕이라 하고, 낳고 또 낳는 것을 역이라 한다.”(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繫辭傳』上5)<sup>30)</sup> 는 생이 곧 천지자연의 운행 원리인 易이 된다는 것이다. 또 “천지가 베푸는 크 나큰 공덕이 일러 생이라 한다.”(天地之大德曰生-『繫辭傳』下1) 하여, 천지 자연에 도덕적 품격과 약동하는 생명체의 본성을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친근한 감정과 심미적 관심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天道 곧 誠을 만 물을 낳고 기르는 자연 현상에서 발견하도록 고무하여 정감적 천인합일의 길을 열었다.<sup>31)</sup>

明道 程顥(1032~1085)는 “낳고 낳는 것을 易이라 하는데, 이것이 천이 도가 되는 까닭이다. 천은 단지 삶(生)을 도로 삼을 뿐이다. 이 삶이라는 이치를 이어가는 것이 곧 선이다.”(生生之謂易 是天之所以爲道也 天只是以生爲道 繼此生理者只是善也 -『程氏遺書』 권2上) 하였다. 천지의 ‘끊임이 없이 낳고 낳는(生生不息) 生道를 易의 내용[天道]으로 밝히고, 이러한 이치를 이어가는 일을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善人道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천지가 자리를 베풀면 역이 그 가운데서 행해진다.”(天地設位 而易行乎其中 -『程氏遺書』 「明道先生語」2) 하여, 天道가 발현되는 현상이 천지자연임을 천명한다. 陶山書院의 전망대 天淵臺와 天光雲影臺는 서원 앞 낙동강을 바라보며 은미한 天理(天道)가 활발히 유행하는 현상을 體認하는 자리이다.

정호는 “천지의 변함 없음은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퍼져 퍼져 있기 때문

30) 『易傳』 「繫辭」 上5.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仁者見之謂之仁 知者見之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鮮矣 羸者仁 藏者用 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 盛德大業至矣哉 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成象之謂乾 效法之謂坤 極數知來之謂占 通變之謂事 陰陽不測之謂神.”

31) 楊軍 王成玉 譯 『程頤講易傳 - 白話尹川易傳』, 長春出版社, 2010, 135쪽, “망령됨이 없는 것(无妄)이 지극한 誠이다. 지극한 성은 하늘의 도이다. 하늘이 만물을 변화시키고 기르는데 끊임없이 낳고 낳아 각각 그 올바른 본성과 운명을 가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无妄이다. 사람이 이 无妄의 도와 합일할 수 있다면 이른바 ‘천지와 그 덕을 합일하는 것이다.’ (无妄者 至誠也 至誠者天之道也 天地化育萬物 生生不窮 各正其性命 乃无妄也 人能合无妄之道 則所謂 ‘與天地合其德也。)

에 치우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無心)이다. 성인의 변함 없음을 그의 감정이 모든 사물에 순응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곳에만 정을 쏟지 않는 것(無情)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배움은 모든 것에 대해서 확 트여 크게 공정하며 사물에 이르는 대로 그에 순응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 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 『二程全書』 『答橫渠張子厚先生書』) 하였다. 천지자연과 성인의 마음을 사사로움이 없는 無心 無情로 표현하고, 이를 따르는 군자의 학문을 ‘확 트여서 막힘없이 정연하여 공명한(廓然而大公) 情景’으로 그렸다. 筆巖書院의 門樓 廓然樓에 오르면 전면의 넓은 들판이 ‘廓然’하여 공정한 군자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고, 아울러 세상일을 만나면 사사로운 꾀를 쓰지 않고 오직 의리에 따라 편안하게 대처한(物來而順應) 필암서원의 제향 인물 金麟厚의 精神世界를 추앙하게 된다.

정호는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인을 인식해야 하는데, 인이란 혼연히 천지 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學者須先識仁 仁者 渾然與物同體 - 『二程全書』 권1, 「識仁」) 하고, 朱子는 “천지는 만물을 낳은 것을 심으로 삼는다.”(以爲天地以生物爲心者也 - 『朱子大典』 권32 「答張敬夫」)하여,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은 마음인데, 사람이 이를 얻어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 『朱子語類』 권105, 「仁說」)로 전개하였다. 따라서 만물을 낳고 낳은 천지의 마음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봄철의 자연경관은 주자에게 天人合一의 仁을 지각하는 생생한 현상이 되었다.<sup>32)</sup> 濼溪書院의 諷詠樓는 멀리 보이는 花林洞에서 諷詠하면서, 玉山書院 無邊樓는 서원 앞 紫溪의 무성한 초목과 生意를 함께 하면서 天人合一하는 仁의 즐거움을 함축한다.

32) 『朱子大典』 권6, 〈題林澤地之欣木亭〉, “높이 솟은 정자에서 굽어보는 시내, 이른 새벽에 올라 저녁에 이르도록 보는구나.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에, 시내 건너편 나무들을 바라보다. 잇달아 숲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뽐내니, 각각 생의를 드러낸다. 위대한 조화는 본래 말이 없거늘 뒤라서 이 마음 함께 깨달을까.”(危亭俯青川 登覽自晨暮 佳哉陽春節 看此隔溪樹 連林爭秀發 生意各呈露 大化本無言 此心誰與晤)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敬은 수양 방법일 뿐 아니라 動靜·始終·知行을 관통하는 心法의 요체였다. 서원의 齋舍 당호에 居敬과 敬義를 내걸고 서원 전체를 敬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서원의 전망 경관에서 敬의 의미를 절실하게 체득하고자 했다. 道東書院 문루 水月樓가 대표적이다. ‘水月’은 주자의 詩 “삼가 천 년토록 전해온 성인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을 달이 찬물을 비추는 것처럼 분명하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에서 왔다. 聖인이 전해온 마음은 이른바 ‘18자 心法’ 곧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인데, 堯舜禹湯文武周公이 전해온 심법은 敬 하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풀이된다.<sup>33)</sup> 가파른 산 언덕에 위치한 도동서원에서 가을 달빛 가득한 낙동강을 전망하는 경관은 ‘秋月照寒水’를 떠올린다. 이는 성인이 전해온 군자의 마음인 敬의 이미지며, 도동서원이 제향하는 인물 寒菴堂 金宏弼의 정신세계이기도 하다.<sup>34)</sup>

퇴계에서 시작된 조선 서원의 창립자들은 天理가 流行하는 자연경관이 천지의 마음(生意)으로서 仁을 지각하고 敬으로 心性을 함양하여 天人合一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학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인식하였다. 한국 서원은 隱微한 天理를 感而遂通할 수 있도록 서원 내부는 간명하게 조성하고

33) 『朱子全書』卷66.〈齋居感興二十首〉제10 수, “放勳始欽明 南面亦恭己 大哉精一傳 萬世立人紀 猗歟歎日躋 穆穆歌敬止 戒蔡光武烈 待旦起周禮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 魯叟何常師 刪述存聖軌.” 주석에 “熊(綱大)氏曰, 此篇 言堯舜禹湯文武周公傳心之法在乎敬” 하였다.

34) 『宣祖實錄』 권4, 선조 3년 5월 丙子, 〈문묘중사를 청하는 상소〉, “우리 동방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문장 있는 선비들이 찬란하게 배출되었지만 義理의 학문은 실로 金宏弼로부터 열렸던 것입니다. 김굉필이 우리 조선조의 초기의 학문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 처음으로 성현의 학문을 흠모하여 구습을 모두 버리고 소학에 마음을 다하여 명성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시다. 학문에 힘쓰지 10여 년 만에 動靜이 모두 禮法을 따랐고 持敬 공부를 오로지한지 30여 년에 정력이 쌓이고 도와 덕이 이루어져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세를 만나게 되자 화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세상에 시행한 것은 없었으나 그가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있음을 여기에서 더욱 증험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인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우리 동방의 선비들로 하여금 성현의 학문이 있음을 알게 한 것은 실로 이 사람의 공입니다.”



서원 안에서 외부 자연경관을 잘 전망할 수 있도록 건축 공간을 개방적으로 구성하였다. 산기슭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전면에 遊息空間 門樓를 세우며, 문루의 堂號를 전망경관 특성이 반영된 經傳과 聖賢의 말씀으로 짓고, 이 당호에서 제향 인물의 정신세계를 떠올리도록 한 것은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탁월하고도 고유한 전통이다.

### Ⅲ.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정원과 유식 경관

유장한 역사와 광대한 대륙 중국의 서원에 대한 고찰은 그 범위를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정원과 경관으로 제한하더라도 견문이 좁은 연구자에게는 감당하기에 벅차고, 따라서 흡족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書院’이란 명칭은 唐代 조정에 도서를 收藏 校勘하기 위해 담으로 둘러싼 가옥에서 기원했다. 나중에 민간에서 공부하는 사대부들이 精舍를 경영하거나 사사로이 ‘書院’이라는 명칭을 빌어 서적을 저장하여 독서하며 학문을 닦았다.<sup>35)</sup> 중국 서원은 宋代 이후 理學과 결합하여 신흥 교육제도로 크게 발전하여, 講學을 중심으로 서적의 보존·공자를 비롯한 성현에 제사 등 3가지 기능을 수행했다.<sup>36)</sup>

千年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重創을 거듭한 중국 서원에 대한 연구는 儒敎 뿐 아니라 道敎와 佛敎의 影響을 고려해야 한다. 오 백년이 채 못 되는 한국 서원을 조선의 전통적 陽宅 立地와 建築觀에 性理學的 世界觀이 결합된 產物로 고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하겠다. 우선 서원은 학문과 함께 휴식의 장소가 되어 풍경이 아름다운 명승지에 건립하고자

35) 朱漢民, 「中國 書院의 歷程」,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28~31쪽, “書院之名 起唐玄宗時 麗正書院 集賢書院 皆建于朝省 爲修書之地 非士子肄業之所也 -『隨園隨筆』 卷14, 鄧洪波, 『中國書院史』, 武漢大學出版社, 2013, 1쪽에서 재인용. ‘院’은 담으로 둘러싼 가옥이라는 통칭이다 ... 唐代皇室에 설립된 ‘서원’은 담으로 둘러싸인 藏書 교서하는 곳을 가리켰다.”

36) 丁淳堯, 앞의 책, 1979, 48쪽.

했다. 유학의 학당인 중국의 서원은 입지, 강학과 수양방식, 교학 내용 등에서 중국에서 창시된 禪宗 佛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魏晉 이래로 중국에서는 불교 승려가 名山大川을 점거하고 寺刹을 세워 불경을 전수하고 불법을 논하였다. 특히 선종 불교에서 深山幽谷의 아름다운 곳을 점거하여 ‘명산은 승려가 거의 다 차지하였다.’(天下名山僧占多)라는 말이 생겼다. 불교 사원의 산간 경승지 입지는 서원 입지에 큰 영향을 미쳐서,<sup>37)</sup> 중국의 서원은 名山과 같은 景勝地에 입지하고자 했다.<sup>38)</sup> 따라서 著名 書院이 설립된 명산의 다수는 원래 불교와 도교의 근거지였다.

### 1. 中國 書院의 立地

北宋 시대부터 개인적으로 설립한 저명 서원이 많이 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악록서원(岳麓書院)·송양서원(嵩陽書院)·휴양서원(睢陽書院·應天府書院) 혹은 석고서원(石鼓書院)을 ‘天下 四大書院’으로 부른다.<sup>39)</sup> 천하 사대 서원의 으뜸이라는 악록서원은 湖南省 長沙市 嶽麓山 기슭에서 湘江을 앞에 둔 산골짜기에 입지하여, “샘물과 시내가 소반처럼 얽혀 있고 여러 봉우리는 첩첩해서 빼어난(泉澗盤繞 諸峰疊秀)” 경승지이다. 이곳은 “땅이 남악 형산과 상강에 접하여(地接衡湘)” “큰 못과 깊은 산의 용과 호랑이의 기세(大澤深山龍虎氣)”을 蘊蓄하고 涵養하는 입지이며, “산을 배고 물이 감아 흐르며 병풍 같은 산을 마주하는(枕山環水面屏)” 중국 고대 풍수의 이상적 입지라고 하였다.<sup>40)</sup> 한국 서원의 입지 유형에 적용해보면 江景 입지에 해당하지만, 중국 서원의 규모가 한국의 서원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기

37) 朱漢民, 앞의 논문, 2007, 40~42쪽.

38) 鄧共波 彭愛學 主編, 『中國書院 攬勝』, 2000, 2쪽, 書院選地必擇妍勝之區, 書院建築講究“善美同意”, 他以“天人合一”爲最高理想 刻意追求“情景交融”的意境

39) 朱漢民, 앞의 논문, 2007, 33쪽.

40) 周文 編著, 『千年學府 嶽麓書院』, 湖南美術出版社, 2009, 16쪽.

때문에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 唐代에 이미 道林精舍가 창건되어 杜甫 등 문인들의 글이 있다고 한다. 서원 입구에 걸린 ‘千年學府’라는 扁額이 가리키는 것처럼, 976년(北宋 開寶 9)에 潭州 태수 朱洞이 강당과 재사를 지어 창건하고, 999년에는 書樓를 열고 先師十哲의 像과 72 賢人の 초상화를 그려 서원으로 확대 건립하였다. 眞宗(宋 3代 황제)이 1001년부터 7차례에 걸쳐 책과 땅 등 재물을 하사하고 여러 편액도 내렸으며 1015년에 ‘嶽麓書院’으로 사액하였다. 1167년 朱熹(1130~1200)가 이곳에서 張栻(1133~1180)과 만나 ‘朱張講會’가 이뤄진다. 1507년에 왕수인(王守仁, 1472~1528)이 이곳에서 설파한 陽明學이 크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1903년 근대교육제도 도입에 따라 호남 고등학당으로 개편되어, 毛澤東이 수업한 호남고등사범학교와 호남공립공업 전문학교로 바뀌었다가 1926년 省立 호남대학으로, 다시 1937년 國立 湖南大學이 되었다.

白鹿洞書院은 江西省 廬山 五老峰 동남쪽 기슭에서 酃陽湖(鄱陽湖)를 바라보는 자리이다. 소란한 市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수려한 봉우리들에 둘러싸인 삼림지대로 3면에 산림이 둘러서 초목이 풍요하고 1면이 溪流와 통하는 작은 분지이다. 학문을 강론하고 은둔하며 저술하기에 탁월한 입지이다. 白鹿洞은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廬山 안에서도 삼림이 가장 울창한 계곡으로 서원 바로 앞으로 작은 시내 ‘貫道溪’가 흐른다. 입지 측면에서 보면, 백록동서원은 紹修書院이나 玉山書院을 연상시키는 溪景 입지로 볼 수 있다. ‘白鹿洞’이라는 이름은 唐代 중기 이전부터 있었는데, 李渤형제가 은거하며 白鹿을 키우며 독서했던 곳으로 유명해졌다. 南唐시대에 이곳에 學館을 세워 ‘廬山國學’이라 불렀다. 북송 때 ‘白鹿洞書院’으로 개칭되어 宋代 4대 서원으로 일컬었으나 전란을 겪으면서 宋이 남쪽으로 내려온 후에 폐허로 변했다. 南康軍 知軍으로 부임한 朱熹가 1179년(淳熙6)에 백록동서원 옛터를 발견하고, 서원을 중건하여 후대에 서원교육의 준칙이 된 「白鹿洞書院學規」를 제정하였다. 「白鹿洞規」는 科擧의 노예가 된 당시의 官學 교육제도를 반대하고, 학문은 人倫을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德行을 우선하는

교육사상으로 정의했다. 「백록동규」는 대부분 조선 서원에서조차 강당에 게시되어 중시되었다.

嵩陽書院은 河南省 鄭州 登封市에 있다. 嵩山の 太室山 남쪽 기슭에 있어서 처음 이름은 太室書院이다. 입지한 땅이 송산의 남쪽(嵩山之陽)이므로 '嵩陽書院'으로 부른다. 송산은 중국의 五嶽의 하나인 中嶽으로 中嶽廟·嵩陽觀·少林寺·嵩岳寺塔 등 儒·道·佛敎 문화유산이 함께 풍부한 역사적 명승지이다. 송양서원의 입지는 “산봉우리들이 둘러서고 시내가 길게 흐르며 송백이 하늘로 치솟고, 환경이 고풍스럽고 그윽하여 이취가 있고 정숙한 경색이 마음에 든다.”(山巒環拱 溪水長流 松柏參天 環境古幽雅靜 景色宜人)<sup>41)</sup> 하였다. 송양서원은 程子 형제가 강학한 洛學의 중심지로 新儒學 발상지의 하나이다. 北宋의 학자 楊時와 游酢가 정자 형제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程門立雪'의 故事가 있었던 곳이다. 應天府書院은 하남성 商丘에 있는데, 1035년 應天府府學으로 개칭하여 지방 관학으로 개조되었다. 石鼓書院은 호남성 衡陽 石鼓山 回雁峰 기슭에 있다. 과거 도교의 尋眞觀 터이다.<sup>42)</sup>

武夷書院(武夷精舍, 紫陽書院)은 福建省 武夷市 「武夷山風景名勝區」 지역 가운데 隱屏峰 아래에 입지한다. 무이 九曲溪의 '푸른 물이 붉은 퇴적암 산지를 휘감아 흐르는(碧水丹山)' 무이산은 주자가 들어와 무이정사와 武夷九曲을 경영하기 전에는 道敎의 중심지로 '昇眞元化洞天'으로 알려졌다. 도교는 天下名山을 36 洞天으로 나누는데, 무이산은 그 '제16 동천'이다.<sup>43)</sup> 무이구곡 제1곡에 8세기 당 현종 때 창건된 도교의 武夷宮이 있다. 무이산은 UNESCO 세계 자연과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考亭書院은 복건성 建陽市 玉枕峰 아래 높은 자리에서 麻陽溪를 멀리 내려다본다. 서원의 전망 경관은 “여러 산이 둘러 있고 맑은 시내가 질펀하게 퍼져 흐르는데, 농토가 펼쳐진 들판에 기와집이 이어지는(群山環抱 清流蕩漾

41) 鄧共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197쪽.

42) 朱漢民, 앞의 논문, 2007, 34쪽.

43) 余澤嵐, 『暢遊武夷』, 중국화보출판사, 2003,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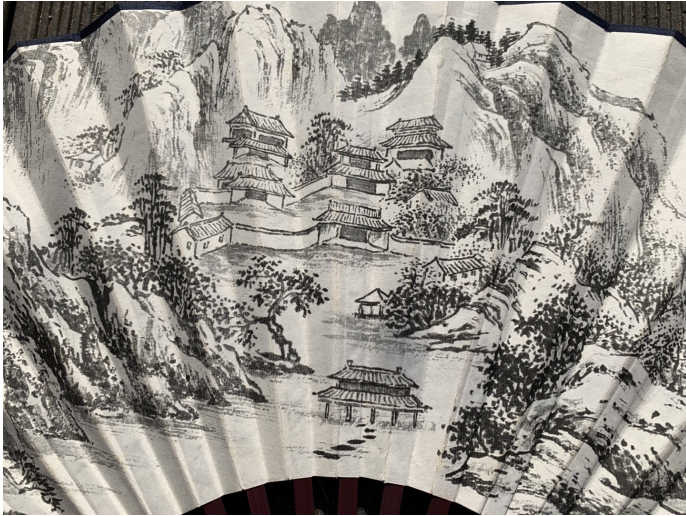
庄田布列 瓦舍相連” 건양 제일 산수라는 칭송이 있다.<sup>44)</sup> 考亭의 옛 별칭은 滄洲이다. 고정은 주자가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보낸 곳이다. 晉溪書院은 山西省의 省都 太原市 懸瓮山 아래 泝水의 源頭에 입지한다. 진계서원은 晉祠의 옆에 있다. 국가 A4급 風景區(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인 진사는 가장 일찍 세워진 중국 皇家園林으로 춘추시대 晉國의 宗廟이다. 진계서원의 처음 이름은 晉溪園으로 1526년(明代 嘉靖 5)에 태원의 가장 중요한 경승지 진사 옆에 세워졌는데, 현재는 진사박물관으로 새로운 시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45)</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著名 書院은 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도교와 불교의 명산이나 명승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그림 1) 그러나 수적으로 다수인 현(懸)이나 향(鄉) 급의 지방적 서원은 교육 수요에 부응해서 접근성이 높은 도시(城市)와 마을의 내부에 입지하는 경향이다.(그림 2) 특히 청대 18세기 雍正·乾隆 연간에 국가의 서원 지원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들 지방적 서원은 부(府) 주(州) 현(縣)의 치소가 있는 도시 지역에서 官學化하거나, 시내 혹은 마을 중심부에 입지하여 관학을 보조하는 교육기관 역할을 했다.

지방급 서원으로 興賢書院은 주희가 소년기를 보냈던 복건성 송안현(무이 산시) 五夫鎮 五夫里의 교육중심 興賢村 안에 있다. 흥현서원이 있는 거리를 지금 ‘朱子巷’으로 부른다. 마을 단위의 서원인 桂馨書院은 산서성 임분시(臨汾市) 왕가대원(王家大院 視履堡 王家府)의 고급 서당이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계형서원의 내부는 前中後 3개 정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마을 王氏들은 3단계에 걸친 공부를 성취해서 과거에 합격하기를 기대했다고 한다. 흥현서원이나 계형서원과 같은 지방급 서원은 대개 시가지나 마을 내부에 위치한 교육기관이다.

44) 鄧共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82쪽.

45) 鄧共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8쪽.



〈그림 1〉 嶽麓書院 입지  
(악록산 혁희봉 기슭에서 湘江을 바라보며,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風景勝地)



〈그림 2〉 尤溪書院 입지  
(주자가 태어난 尤溪懸城內에 서원 외부의 官衙·城隍廟·각종 廟宇·寺刹과 並存한다. 文廟와 明倫堂은 별도 입지이다. -박물관에서 필자 촬영)

## 2. 中國 書院의 空間 構成

중국의 서원은 한국의 서원과 건축 공간구성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sup>46)</sup> 중국 서원과 한국 서원의 공간구성 차이는 중국 서원과 한국 서원의 역사에서 기인한 규모의 격차, 서원의 기능 역할, 그리고 서원의 권위와 위상을 과시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5백 년이 채 못 되는 역사를 가진 한국의 서원이 그 지명도에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공간 규모인 것과 달리, 천여 년 역사의 중국의 저명 서원은 국가의 지원으로 중창과 확충을 거듭하여 지방 서원과 규모 차이가 크다. 약록서원은 976년 처음 건립 때 강당이 5칸, 齋舍가 52칸이나 되었으며, 응천부서원은 1009년 學舍가 150칸으로 지어져, 수천 권의 책을 수장했다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서원의 學舍인 齋舍는 대부분 동-서재 합하여 4칸 내외 규모에 불과했다. 『岳麓書院記』에 보이는 천 명 규모의 학생은 예외이지만,<sup>47)</sup> 중국의 유명 서원은 조선 서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창설 초기의 모습을 유지한 순수한 私學으로 공간 규모가 작고, 내부 공간구성도 단순하고 단일한 축선에 배열되는 정형성이 뚜렷하다. 중국의 서원은 복수의 축선에 상이한 건물군을 이루어 건축공간 구성이 복잡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중국 서원이 중시하는 서원의 기능 역할과 탁월한 교육기관으로 서원을 과시하는 방식이 한국 서원과 다르다. 교육을 위한 장서 기능이 중국

46)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139쪽, “일반적으로 중국 서원은 강학공간, 제향공간, 장서루공간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다. 한국의 서원과 비교해보면 장서루 공간이 크게 발달한 것이 다르다. 그 위치도 서원의 중심축 선상에서 위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다. 배치의 모습으로 보면 중국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은 장서루이다.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은 위계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대등한 위치를 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가 비교적 자유롭다. 일부 서원은 공자를 제향하는 문묘 영역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 서원의 앞쪽 경계는 반수(泮水)로 이루어져 있어, 보다 더 인공적인 조정에 의존한다.”

47) 丁滄堯, 앞의 책, 1979, 49쪽에서 재인용, “故諺曰, 道林三百衆 書院一千徒”

서원의 기원이었듯이, 유명 서원은 장서루(藏書樓)가 서원에서 가장 크고 탁월한 중심적 위치에 있고 강학공간은 장서루에 附隨해서 배치되는 모습이다. 중국 서원에서 祠堂은 별도의 축선에서 여러 종류의 사당이 群을 이루고 그 위치는 장서루 아래쪽에 해당한다. 선현의 사당을 중심 축선의 가장 높은 곳에 유일하게 배치하는 조선의 서원과 판이하다. 중국 서원의 祭祀 기능은 宋代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공통적으로 孔子와 그의 제자를 모시는 文廟 大成殿을 두고, 또 그 서원이 존송하는 인물들을 모시는 사당들이 별도의 축선에서 사당군(祠堂群)을 이룬다. 중국 서원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성은 대형의 석조 패방(牌坊)을 비롯해서 반지(半池)와 비석 등 서원의 권위와 역사를 과시하는 건축물들이 정원과 어울려 구성되어 있다. 패방은 조선의 서원에도 가끔 보이는 홍살문과 비슷하지만, 壯麗하고도 精巧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들 패방은, 御書樓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장서루와 황제가 내린 어필 懸板과 함께, 이 서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주요 시설이라는 서원의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중국 서원의 2개 주요 건물 군인 장서루-강학공간과 사당군은 별도의 문(門樓)를 통해 출입한다. 단일한 출입문을 통해 차례로 강학-제향 공간으로 진입하는 조선 서원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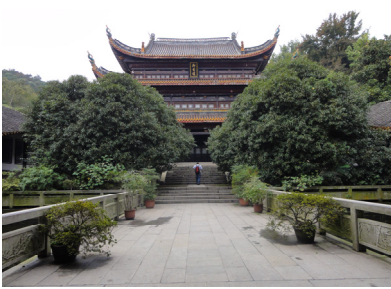
악록서원은 현존하는 중국의 서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千年學府’ 역사를 자랑했으며, 근 현대 교육기관으로 계승 발전하여 1926년 湖南大學이 된 서원이다. 악록산 기슭 赫曦臺 아래 입지한 악록서원은 장서루가 가장 높고 중심적 위치에 자리한다.(그림 3, 4) 장서루 앞 정면 축선 상에 강당과 그 앞 좌우의 齋舍(半學齋·教學齋)로 이루어진 강학공간, 그리고 여러 개의 대문들이 전개된다. 御書樓장서루와 강학공간 사이에는 碑廊이 구성되어 있다. 서원 건물은 중앙 축선에 맨 앞 頭門(前門)으로부터 大門(中門) - 二門(儀門) - 講堂-御書樓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장서루 앞 아래 쪽에서 왼편으로 비껴선 축선에는 여러 개의 祠廟가 군집을 이루고, 사모 앞에는 다시 큰 건물인 공자의 大成殿과 文昌閣이 있다.





〈그림 3〉 嶽麓書院全景圖  
(2013년 한국서원연합회 『중국서원 답사자료집』에서 인용)

악록서원에는 ‘書院八景’이 있는데, 모두 서원 경내의 정자와 園林이다.<sup>48)</sup> 비석과 정자·원림이 어울린 정원이 있는 악록서원 내부는 외부와 구별되는 別世界처럼 보인다.(그림 5)



〈그림 4〉 嶽麓書院 御書樓



〈그림 5〉 嶽麓書院 御書樓 아래 汲泉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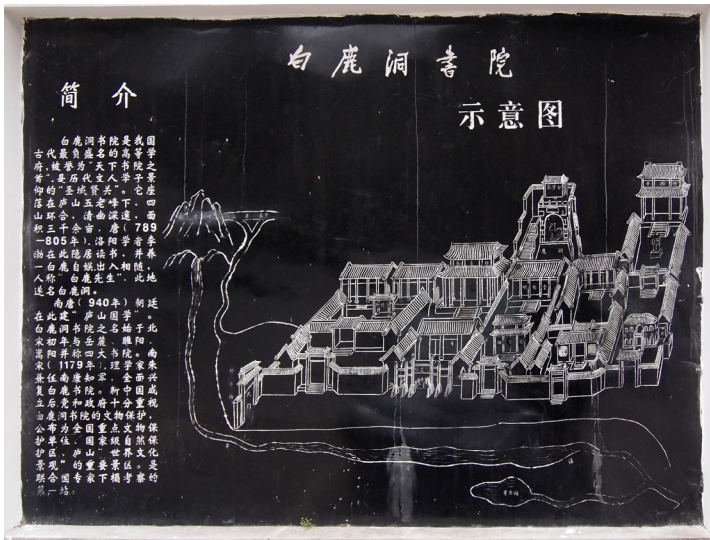
주자가 중흥한 백록동서원은 입지와 경관이 다른 중국의 주요 서원과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서원 건축 공간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백록동서원 역시

48) 周文 編著, 『千年學府 嶽麓書院』, 호남미술출판사, 2009.

多軸線으로 구성된 중국 서원의 공간구성 특성이 뚜렷하다. 아래〈그림 6〉白鹿洞書院 示意圖에 보이는 것처럼, 백록동서원의 건축물들은 지세를 따르는 남북방향의 5개 축선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된다.<sup>49)</sup> 서원 대문을 들어서서 처음 만나는 건물군의 제1차는 先賢書院, 2차는 禮經殿(大成殿). 3차는 白鹿洞書院, 4차는 紫陽書院과 文會堂, 5차는 延賓館 春風樓가 중심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차 축에는 先賢書院과 朱熹記念館이 새겨진 頭門樓-二門-丹桂亭-報功祠와 朱子祠가 전개된다. 2차 축에는 櫺星門(石牌坊)-泮池-壯元橋-禮聖門과 禮聖殿이다. 예성전은 공자와 그 제자를 모시는 사당으로 백록동서원 최대 최고의 건물이다. 3차 축에는 문루(白鹿洞書院)-御書閣-明倫堂-白鹿洞과 思賢臺(文昌閣)가 전개된다. 4차축은 門樓(紫陽書院)-崇德祠-文會堂이 구성되어 있다. 5차축은 門樓-林業學堂(근대건축)-延賓館-朱子銅像-春風樓가 전개된다. 여산 오로봉 기슭에 기대어 관도계 위에서 5개 건물군으로 구성된 백록동서원의 건축은 예성전과 어서각-명륜당이 중심을 이루고 좌우로 정원과 사당 그리고 숙소와 누각이 배치된 多軸線의 공간구성이다. 백록동서원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5개 축선의 건물군은 모두 석패방을 포함하여 각각 문루를 두고 출입문을 달리해서 구역을 구분하였다.

鵝湖書院은 서원건축의 軸線과 관련된 定型性的 측면에서, 단일 축선의 한국 서원과 비교하기에 좋은 사례이다. 아호서원은 강서성 鉛山縣 鵝湖鎮 鵝湖山 북쪽 기슭 鵝湖寺 터에 세워졌다. 아호사는 당나라 대력(唐大歷 代宗 770년 경) 연간에 大義禪寺가 山頂에 암자를 지었다가 宋代에 山麓 官道 變으로 옮기고, ‘慈濟禪院’으로 사액되었다가 다시 ‘仁壽’로 사액되었다. 후대에 주자학이 중시되면서 朱熹·呂祖謙·陸九淵·陸九齡 四賢이 아호사에서 만나 논변을 벌인 ‘鵝湖之會’ 혹은 ‘鵝湖之辨’를 기념하는 四賢祠를 아호사 서쪽에 세워 서원의 기틀을 만들었다. 1250년 祠를 서원으로 바꾸자, 南宋 理宗 황

49) “書院古建築群由五大院落組成 是五組別特色的古代建築”-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115쪽.



〈그림 6〉 백록동서원 시의도(모식도)

제가 주희의 시호를 따라 ‘文宗書院’이란 이름을 내렸다. 明代 1454년(景泰 5)에 서원을 확장 중건하여 四賢의 塑像을 모시고 ‘鵝湖書院’이라 하였다. 당시 “장강 서쪽은 옛날부터 문헌의 고장이라 했고 서원 건설이 무수하게 많았지만 鵝湖의 이름만이 白鹿과 함께 천하에 알려졌다.”(大江以西古稱文獻之邦 書院之建不知有幾 惟鵝湖之名與白鹿並稱天下)<sup>50)</sup> 하였다. 현재의 아호서원 건축 모습은 清代 康熙帝 때 3차에 걸친 중수확장으로 1717년(康熙 56)에 이루어진 것이다. 서원 면적이 2만1천 평방m로 넓고, 1992년 현재 건축면적이 5,536평방m에 달한다.<sup>51)</sup>

아호서원은 아호산 북쪽 기슭에서 북향(坐南朝北)한다. 북에서 남으로 진입하는 단일 축선 상에 예문(禮門-담장[照牆])-두문(頭門)-돌 패방(石坊)-반월형 연못(伴池)-의문(義門)-강당-사현사(四賢祠)-어서루(御書樓)등 주요 건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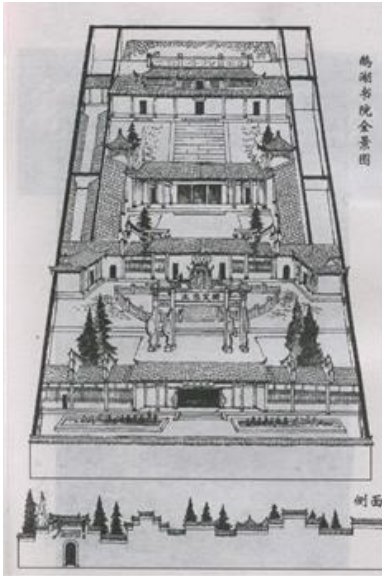
50) 王立斌,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序, 2004.

51) 王立斌, 앞의 책, 2004, 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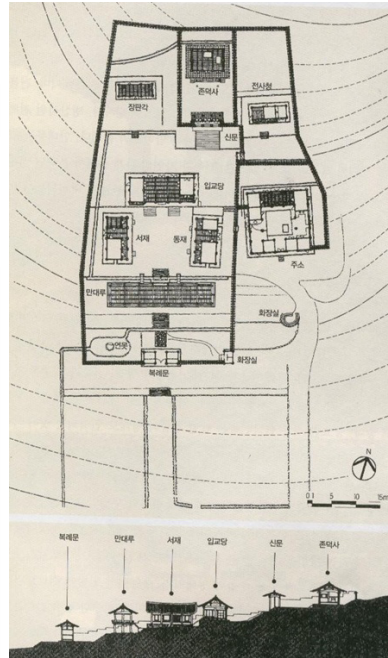
〈그림 7〉 鵝湖山 기슭 北向 立地한 鵝湖書院 -王立斌, 2004,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8쪽.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7) 지형이 북에서 남으로 올라가므로 장서루인 어서루는 남쪽이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서원에 들어가기 전 담장의 문이 속칭 西大門이라는 禮門인데 전면의 ‘鵝湖書院’ 편액은 강희제의 御書이다. 예문의 뒷면 편액은 ‘聖域賢關’이며, 동쪽 문 편액은 ‘仁山流水’이다. 서원의 정문에 해당하는 두문의 현판은 ‘敦化育才’이다. 두문 뒤에는 돌 패방(석방)인데 높이가 7m 남짓하고 4기둥 3칸 5층(樓) 양식으로 크고 위엄이 있다. 靑石으로 건축된 패방 앞면의 ‘斯文宗主’, 뒷면의 ‘繼往開來’ 각자는 각각 2尺 크기이다. 패방 다음에 반월형 못 泮池가 있고 그 좌우에 碑亭과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반지 가운데로 길이 10m 石拱橋(壯元橋)를 건너면 儀門으로 연결된다. 석 패방과 반지의 석공교가 연결된 부분의 경관은 석조 예술의 높은 경지가 느껴진다. ‘道學之宗’ 扁額이 걸린 의문을 지나면 강당이 나타나는데 의문과 사이에는 회랑을 조성하여 많은 비석이 자리한다. 강당 뒤에 朱熹·陸九淵·陸九齡·呂祖謙을 제향하는 四賢祠가 있다. 御書樓는 아호서원의 가장 남



〈그림 8〉 중국 鵝湖書院

외곽에 長方形 담장을 두르고, 서원 진입 축선에는 4개의 대문을 차례로 배치하고 다시 회랑식 건물과 담장으로 내부를 구획한 폐쇄적 공간구성 -王立斌,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鵝湖書院全景圖〉, 2004.



〈그림 9〉 조선의 屏山書院

前底後高 지형에 낮은 담장으로 외부 자연에 개방된 공간구성(문화재청 자료)

쪽이지만 지형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3층 누각이다. 정문 위에 걸린 鍍金한 강의황제 御書 편액 ‘窮理居敬’이 있고 편액 아래 양쪽 기둥에 걸린 對聯도 강의황제의 下賜品으로 아호서원의 권위를 드러낸다.<sup>52)</sup> 대련의 시구는 주희의 시문에 나오는 연산현의 지명 ‘章岩’과 ‘石井’을 취해서, “장암에 달 밝으니 하늘 가운데 거울이요(章岩月朗中天鏡)”와 “석정에 물결 나뉘니 태극의 샘이로다.(石井波分太極泉)”이다. 四賢이 만나 토론한 ‘鵝湖之會’의 유학사적 의미를 賞讚하는 내용이다. 서원 내부 공간구성은 북에서 남으로 기운 경

52) 王立斌, 앞의 책, 2004, 93쪽.



사면의 축선을 따라 대문-패방-반지-강당-사당-장서루가 위계적으로 배치되는 전형을 보이고, 좌우 측면에 비석과 정자를 포함하는 소형 원림을 조성했다.

서원 공간구성의 측면에서, 여러 차례 국가의 대대적 지원으로 증축한 아호서원은 건축 공간구성에서 단일한 축선에 위계적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최고위에 御書樓를 둔 것은 한국 서원이 단일 축선의 최고위에 祠堂을 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서원 외곽과 내부에 공간을 구획하는 높은 담장을 세우고 축선 상에 대문을 4차례나 설치하여 서원 진입에 威嚴을 더했다. 국가의 관심과 전폭적 지원으로 重建 擴充을 거듭한 아호서원은 순수한 사학으로서 조선의 서원 공간구성의 전형성을 보이는 병산서원과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서원 건축 공간구성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알 수 있다.(그림 8, 9)

### 3. 中國 書院의 유식 경관(庭園과 展望 景觀)

중국의 서원은 대체로 높은 담을 둘러 서원 안과 밖을 구획한다.<sup>53)</sup> 따라서 서원 경내에서 서원 밖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조적으로 조선 시대 한국의 서원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담장을 사람의 키보다 낮게 하고 건물 전면을 개방적으로 건축함으로써 서원 안에서 서원 밖 자연경관을 전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원에서 외부 자연경관을 전망하기 어려운 중국 서원은, 藏修와 遊息이 함께 하는 서원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서원 내부에 정자와 비석, 연못과 원림 등이 병존하는 정원을 조성하여 유식 공간으로 삼았다. 특히 嶽麓書院의 정원은 ‘書院八景’으로 부르는데, 버들 연못에 안개 낀 새벽(柳塘觀曉), 도화 꽃 언덕의 붉은 노을(桃塢烘霞), 바람이 실어 오는 저녁의 연꽃향기(風荷晚香), 오동나무 그늘로 이어진 샛길(桐蔭別徑), 대나무 숲의 겨울 푸른빛(竹林冬翠), 굽은 시내의 샘물 소리(曲澗鳴泉), 푸른 못에서 물고기 바라보기(碧沼觀魚), 꽃 핀 축대에 앉아 보는 달(花墩坐月)이다.<sup>54)</sup>

53) 王立斌, 앞의 책, 2004, 40쪽, “書院圍牆分內圍牆和外圍牆”

담장으로 서원 경내 외를 나누고 경내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 서원의 특성이다. 그러나 심산유곡에 입지한 白鹿洞書院은 遊息 空間은 경내의 작은 정원뿐 아니라 서원 외부 溪谷 즉 貫道溪 일대를 포함한다. 白鹿洞書院을 중흥한 朱子는 서원 앞을 흐르는 시내 이름을 『論語』「里仁」의 “吾道一以貫之”에서 취하여 ‘貫道溪’로 정하고, 廬山 五老峰과 마주 대하는 자리에 손님을 맞는 亭子를 지었다. 나중에 朱子를 기념하여 江西提學副使 邵寶가 정자를 재건하여 ‘獨對亭’이라고 명명하였다.(그림 9) ‘독대정’이란 주자의 학문만이 홀로 오로봉과 상대할 만큼 노성(老成; 壽)하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sup>54)</sup> 정자를 짓고 그 전망 경관을 성현에 비유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濂溪를 경모한다는 한국의 소수서원 ‘景濂亭’과도 통한다.



〈그림 9〉 白鹿洞書院 獨對亭



〈그림 10〉 貫道溪 바위 각자 ‘枕流’

독대정 아래 관도계에는 枕流橋가 있고, 주자의 친필 ‘枕流’가 새겨진 바위가 보인다. 흐르는 시냇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枕流’는 돌로 양치질한다는 ‘漱石’과 함께 ‘枕流漱石’이란 문자로 사용되면서, 隱遁하여 학문에 沈潛하고 천인합일의 추구하는 道學者의 초연한 삶을 뜻하게 되었다. 관도계를 따라

54) 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245~246쪽.

55) 鄧洪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114쪽, 邵寶가 지은 〈獨對亭記〉에 “五老之勝 有目共睹 非公(朱熹)莫之能當”이라 하고 또, “或謂峯以老稱 不獨以秀 以奇 而以其壽是 五老者 天始與始 地終如終 壽孰對之 謂公獨焉.”하였다.

암석에 다양한 서체로 새겨진 白鹿洞·砥柱·源頭活水·清如許·觀瀾·逝者如斯·自潔 등 붉은색 각자가 57개나 된다.<sup>56)</sup>(그림 10)

다른 한편, 관도계 건너편 언덕에는 백록동서원 출신의 進士 급제자 명단을 수록한 석판이 열을 지어 전시되어 있다. 중국의 서원이 고급 관료를 양성하는 국가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왔음을 알려주는 급제자 명단은 한국 서원이 과거 공부를 의식적으로 멀리해 온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림 11〉 백록동서원 관도계 건너편 진사급제자 명단 석판

武夷山 九曲溪의 武夷書院은 주자가 50대 이후 은거하여 강학한 武夷精舍에서 기원한다. 武夷書院의 입지 건축과 공간구성, 그리고 특히 유식 공간은 개방적이어서 다른 중국 서원과 매우 다르다. 무이서원의 입지와 경관은 〈武夷九曲圖〉로 조선에 전해져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이서원은 무이산의 협곡에 입지하여 九曲溪에 가깝고 건너편 晚對峰을 마주보는 것이 조선의 江景書院, 특히 屏山書院의 입지 및 전망 경관과 비슷하다. 주자의 「晚對亭」시에서 묘사된 展望 景觀과 屏山書院 晚對樓의 展望 景觀은 유사한 이미지이다.<sup>57)</sup>(그림 12, 13, 14, 15)

56) 鄧拱波 彭愛學 主編 앞의 책, 2000, 114~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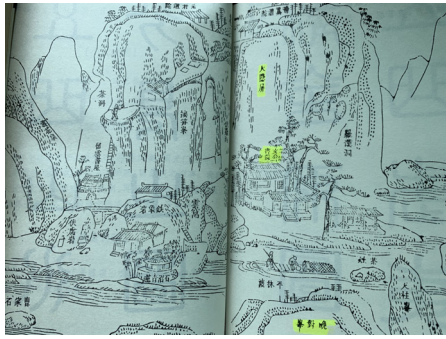
57) 주자의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 晚對亭

倚筇南山巔      지팡이에 의지해 남산 머리에 올라  
却立有晚對      멈추어 서니 만대봉을 마주하네.





〈그림 12〉 隱屏峰 아래에서 晚對峰을 마주하는 武夷精舍



〈그림 13〉 武夷書院(武夷精舍)와 晚對峰 -董天工, 『武夷山志』中.



〈그림 14〉 무이서원의 정면과 뒷산 은병봉



〈그림 15〉 무이서원 전방 경관 만대봉

주자는 武夷精舍를 짓고 은거하면서 그 입지와 경관을 기록한 「武夷精舍雜詠並序」에서 무이정사의 藏修 遊息 장소를 기술하고, 확장된 遊息 空間으로 '武夷九曲'을 「武夷棹歌」10首로 읊었다. 武夷精舍와 武夷九曲으로 실현된 朱子의 藏修와 遊息의 融合은 朝鮮에서 退溪의 「陶山雜詠併記」로 계승되고, 다시 大山 李象靖(1711~1781)의 「高山雜詠併記」로 이어졌다. 주자의 무이정사와 무이구곡은 조선 후기에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九曲文化'로 발전하여 한국의 서원과 藏修 遊息 文化에 큰 영향을 미쳤다.

蒼峭矗寒空  
落日明暎翠

푸르고 가파른 모습 찬 하늘에 우뚝하고  
지는 햇살 푸른 절벽 그늘을 밝히는구나.

#### IV. 한국과 중국 서원의 입지·공간구성·유식 경관의 종합적 비교

본 연구는 朝鮮時代 韓國 書院의 固有性和 真正性を 밝히기 위해서, 그 立地·建築 空間構成·遊息 空間을 中國의 書院과 比較 考察한 것이다. 비교의 前提로 한국과 중국의 서원은 歷史와 機能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千年의 역사를 가진 중국 서원은 藏書 機能에서 기원해서 점차 讀書와 講學의 장소로 발전하고 祭享 機能은 나중에 追加되었다. 특히 중국 서원은 道敎와 禪宗 佛敎의 영향을 받아 名山 名勝을 찾아 입지했다. 宋代 이후 서원은 私學으로 발전했지만, 著名 서원은 國家나 官의 지원을 받아 장기간 重創과 擴充을 거듭하여 複合的 建築 空間構成을 이루었다. 중국 서원은 官學化 내지 官學의 補助 機能을 가진 學校로서 科擧를 통한 人材輩出을 중시하고 그 일부는 현대 大學으로 발전하였다. 역사가 五百年에 못 미치는 조선 서원은 性理學者들인 先賢을 祭享하기 위한 祠堂建立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으며, 서원 건축에 대한 國家나 官의 支援은 間接的이고 例外的이었다. 따라서 서원의 명성에 상관없이 대체로 創建 당시의 형식과 규모로 簡明 單純한 건축 공간이 유지되었다.

立地에서, 중국은 저명한 서원의 경우 名山 혹은 名勝으로 이름난 道敎와 佛敎의 터전에 입지한 경우가 많고, 地方 서원은 접근성이 좋은 마을이나 城市 내에 입지했다. 서원 설립의 동기를 先賢祭享으로 하는 다수의 한국 서원은 제향 인물의 緣故地에서 風水 形局을 고려하여 背山臨流의 地形에 입지했다. 불교 사찰의 터에 입지한 서원도 있으나, 다수 서원이 기존의 명승 명산과 무관한 제향 인물의 연고지에서 山川이 秀麗한 곳을 택하여 선현의 學德을 推仰하는 서원교육으로 名勝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사례에서 “山은 賢人 德分에 稱頌받고, 땅은 사람과의 因緣으로 名勝이 된다.”(山以賢稱 境緣人勝)는 말이 實感된다.

建築 空間構成에서, 조선의 서원은 그 知名度에 관계없이 공간 규모와 구

성에서 定形性이 보인다. 單一 軸線의 最高位에 祠堂을 배치하고, 左右 對稱의 講學空間과 門樓 중심의 유식 공간이 그 아래에 배열되는 조선 서원의 典型的 空間構成이 17세기 초에 一般化되었다. 중국 서원은 著名한 서원의 경우 공간 규모가 조선 서원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고, 複數 軸線에 藏書-講學 공간과 祠堂 공간이 구분되어 建物 群을 이룬다. 중국 서원의 중심 축선에는 講堂-藏書樓가 배치되고 측면 축선에 祠堂群이 배치되며, 별도의 문루를 통해 진입한다. 강학공간에서는 장서루가 가장 높은 위계를 차지해서, 축선 상에 여러 개의 대문(門樓)과 石牌坊·泮池-講堂-藏書樓 순으로 배치된다. 건물들은 回廊으로 연결되고, 사이에 庭園이 조성되고 비석과 정자가 들어선다. 사당은 강학 공간과 별도 축선에서 사당군을 형성하여 孔子를 모시는 文廟와 각종 祠廟들이 群集을 이룬다. 서원 내부 공간은 높은 담장으로 외부 경관과 차단되고 건물들이 回廊이나 담장으로 구획되어 閉鎖的 空間을 구성한다. 중국 서원에서 장서루가 중심이 되고 복수 축선에 배열된 건축물 군은 서원이 藏書에서 기원했으며 祭祀 기능은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점과 오랜 역사를 통해 국가의 지원으로 增築이 진행된 결과로 이해된다. 조선 서원은 創建期에 형성된 定形이 대부분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부 서원에서 서원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 門樓가 후대에 부가된 정도이다.

藏書樓가 卓越한 중심이 되는 중국 서원의 공간 구성은 藏書 기능에서 서원이 시작했다는 점뿐 아니라, ‘御書樓’라는 이름이 함축하듯이 皇帝를 높이고 官學과 밀접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중국 서원의 발전 과정을 암시하는 象徵性이 있다. 한국의 서원에서는 國王의 자취는 賜額이 거의 유일하다. 반면 중국 서원에서는 건물 당호뿐 아니라 ‘學達性天’ 등 많은 御製 扁額을 자랑스럽게 게시한다. 境內의 石牌坊·泮池와 石橋·庭園의 亭子와 碑石群 등에서 서원의 威勢와 品格을 나타내는 裝飾的 要素는 官學을 補助하는 서원에 대한 國家의 支援을 誇示하는 것들이다. 대조적으로 한국 서원은 前低後高의 自然 地形을 활용하여 단일한 軸線 위에 位階的 左右對稱 配置로 整齊嚴肅한 禮空間을 具顯하고, 인간적 척도(human scale)에 따라 건축물의 크기와 간격

을 정하여 空間構成이 簡明하다. 人爲的 造景을 최소화하며 中庭은 최대한 비워두어서 내부 공간을 虛靜 淡泊하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서원은 그 威儀는 自然山川에 依託하고 卓越은 簡明 虛靜이 代身했다고 하겠다. 白鹿洞書院 등 여러 서원에서 進士及第者 명단을 게시한 것은 국가의 高級官僚를 양성 배출하는 중국 서원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배출한 科擧及第者를 게시한 서원은 한국 서원에서 보이지 않는다. 紹修書院의 경우 修學한 著名 人士 명단이 있지만, 과거급제자와는 무관하다.

한국 서원과 중국 서원의 가장 의미 있는 차이는 遊息 空間(경관)이다. 중국 서원은 대체로 높은 담장을 둘러 外部 自然景觀 展望이 없고, 遊息 空間은 境內의 庭園이 된다. 서원 건물 사이에 연못·비각·정자가 함께 어울린 정원을 조성하여 서원 내부에 別世界를 연상시키는 人工的 自然景觀을 창출한다. 한국 서원이 외부의 자연경관을 유식 경관으로 삼고 서원 내부에는 정원과 같은 인위적 조경을 최소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서원에서도 예외적으로 朱子의 유적지인 武夷·考亭 書院은 외부 전망경관이 탁월하다. 특히 주자의 武夷山 은거의 산물인 「武夷精舍雜咏併序」는 「武夷九曲櫂歌」와 함께 조선 유학자들이 서원을 天人合一의 공간으로 경영하고 精舍와 書院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九曲文化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朱子가 藏修遊息했던 白鹿洞·武夷·考亭 書院은 朝鮮의 書院과 類似한 立地이며, 강물을 展望하는 ‘背山臨流’의 自然景觀을 공유한다는 점은 朝鮮의 性理學者들이 朱子의 學問觀과 修養觀을 景慕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주목된다.

‘背山臨流’ 입지의 한국 서원에서 展望景觀은 유학자들의 궁극적 이상인 天人合一을 體得하는 현장이 된다. 서원에서 천인합일의 느낌을 얻도록 한국 서원은 生氣活潑한 自然景觀에 展望을 開放하는 방식으로 건축공간을 구성했다. 서원은 前低後高 地形에 입지하여 전면 자연경관을 전망하기에 유리하고, 建物은 開放的이고 담장(牆垣)도 사람의 키보다 낮게 조성한다. 天理의 流行을 體得하는 場所로 가장 앞쪽에 門樓를 둔다. 門樓의 堂號는 서원의 展望 景觀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經傳과 聖賢의 말씀에서 가져왔다. 門樓의 堂

號는 展望景觀의 特性和 그 儒學的 含意, 그리고 祭享 人物의 精神世界를 三位一體로 담은 記號가 되었다. 御書 扁額을 포함한 중국 서원의 당호에서 조선 書院의 門樓 당호와 같은 사례는 찾기 힘들고, 누각 기둥에 걸린 對聯 詩句 등에서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白鹿洞書院과 武夷書院에서는 서원 밖의 溪流 바위에 경관의 특성과 유학자의 정신세계를 새긴 刻字가 주목된다. 조선 서원에서는 玉山書院 앞 紫溪의 각자를 들 수 있다.

조선의 서원은 중국에서 서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立地·建築 空間構成·遊息 空間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固有性을 創出하였다. 입지에서는 명산 명승이 아닌 제향 인물의 緣故地를 선택하고, 건축 공간구성에서는 단일한 축선에 祠堂을 最高位로 하는 簡明한 禮空間과 人工 造景을 최소화하는 虛靜의 中庭 공간으로 克己復禮의 仁을 象徵的으로 再現하였다. 유식 공간에서, 중국 서원이 높은 담장을 두르고 내부에 인위적 정원으로 別世界를 창출한 것과 달리, 조선 서원은 開放的 建築으로 서원 안에서 전망되는 외부 自然景觀을 선택했다. 한국 서원이 人工的 정원이 아닌 無作爲의 자연경관을 유식 공간으로 삼은 것은 自然과 融合하여 하나가 되는 한국 傳統建築의 특성과 天人合一을 최고 가치로 하는 性理學의 自然觀 世界觀이 창조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이해된다. 인위적 정원이 아닌 자연경관을 선택한 한국 서원의 유식 공간은 朱子가 仁을 定義한 것처럼 ‘만물을 낳은 천지의 마음(天地生物之心)’을 ‘얻어 나의 마음으로 삼는(人之所得以爲心)’ 현상이 되었다. 문루 당호로 記號化된 展望景觀은 한국의 傳統建築 思想과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理念인 性理學의 天人合一觀이 결합되어, ‘自然과 人間의 合一’을 體驗하게 하는 독특한 事例이다.

【참고문헌】

『論語集註』, 『周易』, 『太極圖說』, 『朱子全書』, 『朱子語類』, 『禮記』, 『孟子』, 『退溪全書』, 『二程全書』, 『通書』, 『宣祖實錄』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 2021.  
Duncan, J.,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Jacques Benoit Mechin 著, 河野鶴代·橫山 譯, 『庭園의 世界史』, 講談社學術文庫, 1998.

Yi-Fu Tuan,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 Y., 1974,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관한 독해」, 『한국서원학회보』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1, 2, 『문화역사지리』 25-2,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a, b).

김덕현, 「道東書院 景觀에 再現된 性理學의 精神世界」, 『문화역사지리』문화역사지리학회, 29-4호, 2017.

김덕현, 「儒學의 自然美와 조선 서원의 展望景觀」. 『문화역사지리』31-1호, 2019.

김영모, 「조선시대 서원의 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호, 2005.

董天工, 『武夷山志』中, 方志出版社, 2007.

鄧共波 彭愛學 主編, 『中國書院 攬勝』, 湖南大學出版社, 2000.

鄧共波, 『中國書院史』, 武漢大學出版社, 2013.

성백효, 『論語集註』,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3.

鵝湖書院 -王立斌,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8쪽. 2004.

楊軍 王成玉 譯, 『程頤講易傳-白話伊川易傳』, 長春出版社, 2010.

余澤嵐, 『暢遊武夷』, 中國畫報出版社, 2003.

王立斌, 『鵝湖書院』, 中國戲劇出版社, 2004.

이왕기, 「한국 유교건축의 '敬의 空間'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5호(통권7), 1986.

임석재, 『우리 건축 서양 건축 함께 읽기』, 컬처그라퍼, 2011.

- 丁淳堯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9.
- 조재모, 「한국서원건축의 유형 정립 과정, 한·중 서원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서원학회 주관, 『한·중 서원학회교류 10주년 기념 제7회 동아시아 서원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7.
- 周文 編著, 『千年學府 嶽麓書院』, 호남미술출판사, 2009.
- 朱漢民, 「中國 書院의 歷程」,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 陳來,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1997.
- 허균, 『한국의 정원』, 다른 세상, 2002.
- 헤르만 폰 뷔클러무스카우 지음 권영경 옮김, 『풍경식 정원』, 나남, 2009.
- 휴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서울편』, (주)창비, 2017.

【漢文抄錄】

## 韓國書院與中國書院立地空間構成遊息空間比較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tion, Space Composition and Rest Space of Korean and Chinese Seowon)

金 德 鉉(Kim Duk Hyun)\*

本研究是對比較朝鮮書院和中國書院的立地,空間構成和遊息空間。雖然書院起源於中國,但朝鮮時代韓國書院被登載UNESCO世界遺產。因此需要研究以了解與中國書院不同的朝鮮書院的獨特性和真實性。在立地,受道教和佛教影響中國著名的書院建立在名山風景區。朝鮮的書院最看重人的緣故地,其次追求風水的活潑地。朝鮮書院一般都非常重視展望景觀,根據景觀類型可分為溪景·江景·野景。就書院的空間構成而言,首先中國的書院在空間尺度的和製度的根據位相有很大的差異。在朝鮮書院位相的差異主要與祭享人有關,書院的外貌關係不大。其次,在書院的空間構成中,朝鮮書院通常是與‘前低後高’的地形,它將建築物位階排列在一個軸上,以祠堂為最高位。中國書院以複數軸將藏書樓-講堂和祠堂群分開,以藏書樓為最高位。三是,中國書院威儀與卓越性誇示的方法不同。中國書院的聲望在是牌坊柵欄(照牆)泮池和橋,華麗的御書樓等。朝鮮書院以簡明的建築和虛靜的中庭為整齊嚴肅的禮空間。朝鮮書院依賴自然而不是建築和造景。朝鮮和中國的書院最有意義的區別出現在遊息空間。一般來說,中國書院沒有外部景觀,遊息空間是境內庭園。在朝鮮書院的展望景觀中感知‘天人合一’的儒家理想,朝鮮書院創造了一個遊息空間如門樓為展望景觀。門樓的堂號取自儒教經傳和先賢的話。它可看以堂號為三位一體的記號。是包含了景觀的特點,儒學的意義,祭享人的精神世界。朝鮮書院門樓是自然融合的朝鮮傳統建築思想與朝鮮理學的相結合的獨特例子。

---

\* Professor of Emeritu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dukhyunk@naver.com



Key word : 立地(location), 空間構成(spatial structure, 遊息空間(space of rest and strolling),  
展望景觀(landscape view), 門樓堂號(house name of gate tower)

논문 투고일: 2022. 10. 27 심사 완료일: 2022. 12. 15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作为儒教典范的宋代书院

朱汉民\*

- 一、宋代书院传统的溯源
- 二、书院精神的典范意义
- 三、书院制度的典范意义

## 【論文提要】

中国书院成型于两宋时期, 体现出儒教文明的双重典范意义. 其一, 书院精神的典范意义, 宋代士大夫热衷于创办和讲学书院, 是希望复兴早期儒家的师道精神, 而现代学界称道的所谓书院精神, 其实就是宋儒在书院复兴的师道精神. 其二, 书院制度的典范意义, 宋代书院制度继承弘扬了中国悠久的历史传统, 故而兼容了先秦私学的诸子争鸣·两汉精舍太学的研读经典·魏晋竹林的玄学清谈·隋唐寺院的佛学禅修, 宋以前以儒教为主·兼容佛道的教育与学术的历史经验, 都对宋代书院制度的形成产生了重要影响. 作为儒教文明典范的宋代书院, 是中国传统教育长期积累和历史发展的成果.

关键词: 宋代书院, 书院精神, 书院制度, 师道

\* 基金项目: 国家社科基金重大项目: 《宋学源流》(19ZDA028).

\*\* 湖南大学岳麓书院教授, 中国书院学会会长 / zhuhanm@163.com

悠久的中华文明为人类世界贡献了许多杰出的成果，中国传统教育是其中最重要的成果之一；而在诸多的中国传统教育成果中，书院是其中最杰出的优秀典范。中国书院不仅仅鲜明体现了人类文明追求·传承知识与道德的普遍性价值，尤其集中了中华民族数千年的人文理想·历史经验·教育实践，代表了世界教育体系中的一种独特模式。

书院成型于两宋时代，它不仅仅中国传统教育思想精华的集中体现，也是中国传统教育制度精华的集中体现。陈寅恪先生说：“华夏民族之文化，历数千载之演进，造极于赵宋之世。”<sup>1)</sup>两宋文化之所以能够实现华夏文化的登峰造极，是她成果地吸收和发展上千年历史文化的结果；而作为宋代文明成果的书院之所以是中华文明的典范，也恰恰是其继承弘扬数千载华夏文化的结果。

## 一·宋代书院传统的溯源

中国书院成型于两宋时代，但它并不是偶然产生的。无论是书院精神，还是书院制度，均是悠久中华文明长期发展的结果，我们完全能够在两宋之前找到更为久远的文化之源。譬如，关于书院制度的来源问题，学界一直存在多种看法：有人将书院渊源追溯到魏晋隋唐的佛教禅林，而另有人追溯到汉代的精舍或太学，还有人追溯到春秋战国时期的诸子讲学或稷下学宫。其实上述这些说法不无一些道理，但任何一种说法均有一些片面。仅仅对中国书院作某种单一特质·简单比附的溯源，不能够充分说明书院的文明典范意义的。对中国书院文化溯源，应该有一个“华夏文明之演进”的整体思考，这样，就既可以找到书院精神的中华文化传统之源，也可以找到书院制度的中华文化传统之源。

首先溯源书院精神的中华文化之源。中国书院虽然成型于两宋时代，但

1) 陈寅恪：《邓广铭〈宋史职官志考证〉序》，《金明馆丛稿二编》，上海古籍出版社1980年，第245页

是却集中了上千年儒家士大夫的文化理想，集中了中华民族在千年历史中的政教理想、教育实践。自两宋士大夫按照自己的理想塑造出书院之后，书院竟然能够一直保留着旺盛的生命力，在中国文化史、教育史、学术史的发挥重要作用达一千多年，并成为中华文明的杰出典范。这些原来并不起眼唐宋民间书院，为什么可以承载这么悠久而厚重的精神理念、文明意义？

中华文明具有早熟的人文精神传统，中华先贤早在殷周之际就已经摆脱对神灵的崇拜开始具有清醒的人文理性。当其他民族和文明仍然在精神上完全依赖神灵时，中华民族发现了人文理念的强大力量。西周先贤在历史剧变、朝代更替的大变革中，思考人和天的关系，形成了中华文化的人文精神传统。周人发现不能够完全依赖神，而是要有人文自觉，以德配天，其实这就是中华文化史上最早的“人”的觉醒，表达出中华民族执着的人文精神追求。此后，中华先哲开始依靠人文理性来思考和解决个体精神成长、家国秩序建立、天地宇宙和谐的重大问题。中华先哲认定理想世界的建立，离不开“人文化成”的教育。孔子、子思、孟子等人就是在西周人文精神的基础上，创造出了追求师道精神、建构中华政教形态的儒家学派。

历史上很多中外学者，往往把中华文明、东亚文明称之为“儒教文明”，类似于基督教文明、伊斯兰教文明、佛教文明等以宗教为精神支柱的文明形态。从中华文明的精神支柱是儒学而言，这一说法是有道理的，但是，必须指出，“儒教文明”的“教”不是宗教，而是“教育”。无论是从儒教文明的历史衍化来考察，还是从儒教文明的实存形态来分析，均会发现所谓“周孔之教”的“儒教”，其实主要是一种人文教育。儒家文化是从中华文明中生长出来，同时又成为中华文明的精神支柱，恰恰在于其独特的以教育为中心的思想体系、文化形态。儒家学派确立的价值体系、文化形态为什么会以教育为核心内容？“儒”直接起源于从事教育职官的“司徒”、“师儒”。《周礼》记载了履行教育职能的“司徒”、“师儒”之职，如《周礼·天官·大宰》中有“师儒”的官职规定，包括“以贤得民”、“以道得民”教化。郑玄也注释“师儒”为“有德行以教民者”、“有六艺以教民者。”<sup>2)</sup>所以，班固《汉书·艺文志》解释儒家的来源时说：“儒家者流，

盖出于司徒之官，助人君顺阴阳明教化者也。游文于《六经》之中，留意于仁义之际，祖述尧舜，宪章文武，宗师仲尼，以重其言，于道为最高。<sup>3)</sup>孔子作为创立儒家学派之师，他所信奉最高的“道”，其实就是儒家原本作为“师儒”身份而信奉的“师道”。

所以，儒家创建者孔子不是能够预言未来的“先知”，他不会成为宗教领袖，而是实践“师道”的普通人师。《论语》记载了孔子的夫子自述，他只是一个“十五有志于学”的好学之士，是一个一辈子“学而不厌，诲人不倦”的师者。而且，早期儒家的思想追求就是所谓“师道”，孔子说：“天下有道，丘不与易也。孔子主要是以“师”的身份传承道·实现道，并将教育目标看作是“道”的实现过程，即《中庸》所说的“修道之为教”。在人文理性居主导地位的儒家经典体系中，《周易》的“神道设教”，最终必须落实于“人文化成”的师道。要而言之，中华文明主体的儒家之教的使命，就是希望通过教育而建立一个合乎“道”的理想世界。这一“师道”精神的最终目标就是要建立一个和谐美好的社会秩序，最终实现和谐家国与大同天下。可见，儒教的“教”，其实就是指儒者以“师”的身份而达到化成天下目标的教育活动。

“儒教”也有自己的经典，即《六经》与《四书》。但是，儒家这些经典都不是上帝的训谕，而不过是实施人文教育的书本。《六经》原本是三代先王之政典，由朝廷保留下来作为王室贵族子弟学习先王治理经验之用，而司徒之官要助人君顺阴阳明教化，也离不开以这些政典为范本的教育活动。所以，春秋时期官学废弛以后政教分离，孔子创立儒家学派的目的是在民间复兴西周礼乐之教，故而整理《诗》·《书》·《礼》·《乐》·《易》·《春秋》，作为儒家士人教育的人文教本。这些教本承载了儒家人文之“道”的理想，故而被他们尊之为“经”。另外，儒家的《四书》即《论语》·《大学》·《中庸》·《孟子》，更加鲜明体现出儒家人文教育的特点。在春秋战国时期，儒家诸子均是作为传授学业的老师而尊称为“子”，其弟子将老师的讲学记录下来加以整理，就成为

2) 《周礼注疏》卷2,《大宰》,《十三经注疏》第4册,北京大学出版社1999年,第40页。

3) 《汉书》第六册,卷三十,《艺文志第十》,中华书局1962年版,第1728页。

《论语》·《曾子》·《子思子》·《孟子》等儒家子学著作。宋儒将这些典籍合集而重新注释，将其命名为《四书》，《四书》成为宋儒教育人·培养人的核心经典。宋儒认为《四书》是承载儒家“道统”的经典，其实它们本来不过是宋儒实践成人之教的教本。

还应该指出的是，儒家并没有把教育仅仅看成是维护现存政治秩序的手段，而是进一步从人的内在潜能挖掘·自我人格的完善来探讨教育的本质和作用。孔子强调教育首先应该是自我教育，他将教育看作是受教育者的“为己之学”；孟子认为教育首先需要启发自我潜能，他将学习理解为一种“自得之学”。所以，在儒家的教育理念中，均包涵着发展个体人格·弘扬主体精神·实现自我价值的人文精神。孔子的教育理想是“成人之教”，他的所谓“成人”就是全面发展的人，即包涵着个人在智·仁·勇以及文化素养·综合素质均得到全面发展。在孔子的思想体系中，所谓“成人”其实也就是理想人格的“君子”·“圣贤”。总之，儒家教育理念的核心思想包涵教育对个体全面发展的促进。

儒家是春秋战国时期诸子百家的一派，至西汉实行“罢黜百家·表彰六经”的政策之后，儒家成为中华文明的主体思想，儒家在国家政制·文明体系中的地位大大提升。但是，后代许多儒家士大夫发现，他们的师道理想并没有真正实现，因为两汉经学关注的是“王制”，加之在朝廷的主导下经学已经被改造成一种霸王杂之的政治儒学，而宋儒追求更加纯粹·更加重要的“王道”。对儒家士人而言，经学与经典教育衍化为一种章句之学·利禄之途，完全背离了早期儒家的“初心”。到了唐宋变革之际，当儒家的主体精神得到张扬时，宋代儒家士大夫意识到“王道”的实现必须首先以早期儒家“师道”的实现为前提条件，他们开始呼唤孔孟的师道精神，希望恢复早期儒家的政教理想。后来人们赞誉的书院精神，其实就是他们希望复兴的孔孟儒学的师道精神。

如果说追溯书院精神源头，应该追溯早期儒家“志于道”的师道精神的话，而要追溯宋代书院的制度源头，则应该探讨一千多年中国古代教育制度的演进和发展。作为文化教育机构的宋代书院，并不是偶然形成的，而是继承和发扬了中国悠久的教育传统，包括先秦私学争鸣·汉儒精舍太学·魏晋竹林

清淡·隋唐寺院禅修,等等.作为一个教育组织机构,特别是作为一种士人·士大夫自由讲学·研究经典·学术辩论·修身养性的独特文化教育组织,宋代书院其实是千余年来教育形式不断发展·积累的结果.历史上曾经有过的成功讲学形式,在宋代书院这里似乎都可以找到.先秦以来,中国学术史·教育史曾经经历过几次重大历史变革.人们经常讲到的先秦诸子·两汉经学·魏晋玄学·隋唐佛学的学术史变革,往往是既包括学术思想·教学内容的演变和发展,也包括教育制度·教学形式的演变和发展,而后者恰恰是书院制度的渊源.

先秦诸子的思想内容是儒·墨·道·法·名·阴阳等不同学派的思想,而先秦诸子之所以能够开展学术创新·人才培养的活动,其实主要是民间私学的讲学形式.先秦诸子不仅在私学展开相互讨论·相互辩论,后来还形成了百家争鸣的稷下学宫.宋代书院之所以成为不同学派的基地,显然是继承了先秦诸子的自由讲学的私学组织形式.两汉经学代表一种新的学术形态和教育形态.两汉确立了儒家经学独尊的地位,两汉经学的研究和传播机构不仅是指太学·州学,还包括士大夫自创的“精舍”,汉代的经学大家主要在太学·精舍里研究经学·培养弟子.实际上,宋代书院继承了两汉经学的学术传统与教育传统.宋儒同样推崇·研究·传播儒家经典,宋代书院成为宋儒研究·传播儒家经典的重要基地,继承了汉代太学·精舍的传统.特别值得注意的是,宋代很多学术大家如朱熹·陆九渊等,他们将自己最早创办的书院,也直接叫作“精舍”,如朱熹的武夷精舍·陆九渊的象山精舍等,这些精舍后来才改名为“书院”.魏晋时期玄学大盛.魏晋名士们喜欢聚在山林清淡本末·有无·名教自然等形而上的玄理,魏晋盛行的“玄谈”其实是士大夫的学术辩论会或研讨会.魏晋名士对形而上之理的关注,深刻影响了宋代士大夫,与此同时,魏晋名士汇聚山林谈玄析理的生活态度与论辩形式,也影响了创办书院的理学家.理学家们在书院也辩论理气·道器·有无,追求一种超越精神的圣贤气象,应该是对魏晋清的继承和发展.隋唐佛学大盛,佛学的精致理论·精神境界对宋儒构成挑战,也激发了宋儒的学术创造激情,隋唐佛学也因此成



为新儒学的重要思想来源。与此相关，隋唐佛教喜欢在名山大川修建寺院的研经·禅修活动，也影响了宋代的书院。最早的书院大多均是建立在名山之中，儒家士大夫在讲习儒家经典之外，还特别注重心性修养。有些书院还形成了所谓“半天读书·半天打坐”的传统，实际上是吸收了佛教寺庙的禅修方法。

由此可见，宋代书院的教育组织形式能够形成，并不是偶然的。没有前面长期的教育实践的一千多年的积累，就不可能有宋代书院的形成。宋代书院其实是将以前教育实践的传统，都吸收·集中到这一种新的教育组织形式中来，从而形成了代表儒家士大夫理想的书院。可见，书院之所以能够成为重要的·延续千年的教育·学术机构，是集历史之大成的结果。但是，宋代书院形成后，能够得到那么大的发展，还有一个重要的历史机遇，即唐宋之际的重大变革中文化复兴的要求。也就是说，宋代书院之所以能够蓬勃发展，还和其承担的了那一个时代的重要文化使命有关。

## 二·书院精神的典范意义

唐宋变革之际，儒家士大夫崛起并进一步强化自己作为文化主体的自觉意识，他们不仅主导和推动唐宋之际的思想文化变革，同时还希望在山水之间搭建一个以“书”为中心的院落，以承载自己的师道精神和人文理想。他们将自己建立起来·并苦心经营的新型文化教育机构叫做“书院”。

在创办书院的热潮中，宋代士大夫群体总是特别强调，他们之所以要在官办的太学州学县学之外另办书院，是因为书院在教育理念·办学宗旨上的特殊性。后来学术界·教育界人士纷纷肯定存在一种“书院精神”。究竟什么是“书院精神”？学者们往往有着不同视角的表述。其实，所谓“书院精神”，恰恰是代表宋代士大夫人文理想的师道精神。从中唐到宋初，在士大夫群体中有一个十分强烈的呼唤，就是在批判汉唐士大夫沉溺章句辞章之学的陋习时，强烈呼唤复兴早期儒家士人的师道精神。我们知道，“儒”本来就源于以

教育使命的“师儒”，孔子号召儒士应该“志于道”，其实就是强调士师与道结合的“师道”精神。孟子特别强调儒家士人的师长身份和师道尊严，他说：“君子之事君也，务引其君以当道，志于仁而已。”<sup>4)</sup>孟子肯定儒者承担的是“尧舜之道”，故而赋予了“师”具有“道”的崇高使命与精神权威。唐宋之际儒家士大夫积极倡导复兴早期儒家“师道”，并希望以师道精神重登历史舞台。

所以，对宋代士大夫而言，复兴儒学·重建儒学是从师道复兴开始的。欧阳修在《胡先生墓表》一文中说：“师道废久矣，自景祐·明道以来，学者有师，惟先生(胡瑗)暨泰山孙明复，石守道三人。”<sup>5)</sup>欧阳修肯定了胡瑗·孙明复·石守道对推动师道复兴的重要贡献，他们三人开始中止“师道废久”的历史而重新开始使“学者有师”，同时肯定他们对宋学学统的创建之功。可以发现，宋儒往往勉励自己应该能够“以师道自居”，他们对于“师道”的责任意识内涵丰富：一方面，宋儒主张“以师道自居”而拓展出对帝王的教育，发展了宋代极有特色的经筵讲学；另一方面，宋儒“以师道自居”而拓展对民间社会的教化，故而大量创办书院。在宋代士大夫的积极入世活动中贯穿一个重要思想，就是一种师道精神的为政与为学，而特别体现在他们的书院教育。关于宋儒的师道复兴与书院教育的密切联系，明清之际王船山曾经有评论，他说：“咸平四年，诏赐《九经》于聚徒讲诵之所，与州县学校等，此书院之始也。嗣是而孙明复·胡安定起，师道立，学者兴，以成乎周·程·张·朱之盛。”<sup>6)</sup>他认为，宋学由初起走向大盛，与师道主导下的书院教育密不可分。北宋初年，书院兴起，特别是孙明复·胡安定等宋初诸儒的推动，使得师道立而学者兴，推动了宋学之兴，最终形成了宋学的“周·程·张·朱之盛”。

宋代书院的师道精神体现在许多方面，而最为集中体现宋儒对书院宗旨的确立。有一个重要的文化现象，从宋代以来，创办和主持书院的儒家士大夫，总是将“道”的承担作为创办书院的基本宗旨和教育目标。《宋元学案》曾

4) 《孟子·告子下》。

5) 欧阳修：《胡先生墓表》，《欧阳文忠公集》卷25，《四部丛刊》影元刊本。

6) 王夫之：《真宗一》，《宋论》卷3，中华书局1964年版，第53页。

经记载一段重要的对话:

文靖(杨时)曰:学而不闻道,犹不学也。(程)若庸亦曰:创书院而不讲明此道,与无书院等尔。<sup>7)</sup>

这一段话之所以重要,是程若庸非常鲜明地将书院的创办与师道的使命紧密联系在一起。从宋初开始,儒家士大夫开始倡导复兴以“师道”为思想旨趣的孔孟之道,后来还发展出标榜“道学”·“道统”为主流的新儒学思潮。尽管他们倡导师道精神包括了州府之学与民间书院两个系统,但是他们很快发现,他们主导的书院才是表达自己师道精神的最佳场所。南宋理学家黄震说:“古之所谓治者,导迪天理民彝,使各归于理而已。自后世以簿书期会为治,典教之责,独归学校之官。至三舍法行,学校又一变为程文利禄之地,虽职教者,亦言不暇及理。所谓天理民彝,如一发引千钧之寄,独赖诸儒之书院耳。<sup>8)</sup>官学往往与朝廷政治联系太紧密,当官学壅断了典教之责而成为“程文利禄之地”后,承担师道之责的教育只能够寄希望于“诸儒之书院”。

所以,一切具有复兴儒学·重建儒学的士大夫创办书院,总是会讲创办书院的宗旨确立为“道”,弘扬宋代士大夫特别张扬的师道精神。从北宋的“宋初三先生”,到南宋乾淳“四君子”,他们都是通过创办书院而复兴师道,解决官办学校所不能够解决的师道精神问题。这正如理学家袁燮所说:“古者学校既设,夏有泽宫。今长沙之岳麓·衡之石鼓·武夷之精舍·星渚之白鹿,群居丽泽,服膺古训,皆足以佐学校之不及。<sup>9)</sup>

所以,两宋时期那些有师道精神追求的士大夫,也是最有学术创新成就的宋学学者。如石介有非常明确“道学”目标的追求,他有着鲜明的传承和复

7) 黄宗羲·全祖望:《双峰学案》,《宋元学案》卷83。北京:中华书局,1986。第2820页。

8) 黄震:《送陈山长赴紫阳书院序》,《黄氏日钞》卷90,文渊阁四库全书,台北:商务印书馆,1986。

9) 袁燮:《东湖书院记》,《絮斋集》卷十。文渊阁《四库全书》,台北:商务印书馆,1986。

兴儒家之道的道统意识,并且将此道统意识与书院建设结合起来。他在应邀作《泰山书院记》中,就将道统传承与书院使命统一起来,他说:“夫尧·舜·禹·汤·文王·武王·周·孔之道,万世常行不可易之道也。……吾学圣人之道,有攻我圣人之道者,吾不可不反攻彼也。”<sup>10)</sup>石介以书院教育承担儒家之道的传承,就是宋儒的师道精神。另外他还长期主持徂徕书院讲学,被学者称为“徂徕先生”。特别是南宋著名的朱熹闽学·张栻湖湘学·陆氏象山学等主要理学学派,均在创办书院过程中明确以复兴先秦儒家之道为宗旨,其实就是将书院建设与师道精神结合起来。如南宋乾道淳熙年间,朱熹在福建武夷山创办了寒泉精舍·武夷精舍·竹林精舍,因学徒增多而扩建并改名为沧州精舍。朱熹之所以积极创办书院,与其传道精神紧密联系在一起。淳熙年间韩元吉撰《武夷精舍记》说:“然秦汉以来,道之不明久矣,吾夫子所谓志于道亦何事哉!夫子,圣人也。……元晦既有以识之,试以告夫来学者,相与酬酢于精舍之下,俾咸自得。”<sup>11)</sup>他表达了朱熹创办武夷精舍的宗旨,即希望解决秦汉以来师道不传的严重问题,以“自得”孔子之道。又如张栻在《潭州重修岳麓书院记》中,明确了修复岳麓书院的办学宗旨:“岂将使子群居族谈,但为决科利禄计乎?抑岂使子习为言语文词之工而已乎?盖欲成就人才,以传斯道而济斯民也。”<sup>12)</sup>他强调岳麓书院的宗旨与目的是传道济民,这也是不同于科举利禄·训诂辞章的师道之学的复兴。陆九渊率弟子在江西创建了象山等诸多书院,其弟子袁甫在《象山书院记》中也明确指出:“书院之建,为明道也。”<sup>13)</sup>袁燮在其撰写的《东湖书院记》中,进一步明确其师道的学派特点,他说:“虽然君子之学,岂徒屑屑于记诵之末者,固将求斯道焉。何谓道?曰:吾心是也。”<sup>14)</sup>袁燮是陆九渊的著名弟子,他不仅仅强调书院的教育宗旨是求

10) 石介:《怪说下》,《徂徕石先生文集》卷5,北京:中华书局,1984年,第63页。

11) 韩元吉:《武夷精舍记》,曾枣庄·刘琳主编《全宋文》,上海辞书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2006年版,第216册,第227页。

12) 张栻:《潭州重修岳麓书院记》,《张栻集》第3册,中华书局,2015年,第900页。

13) 袁甫:《象山书院记》,《蒙斋集》卷13,丛书集成本。

14) 袁燮:《东湖书院记》,《絮斋集》卷10。

道,同时进一步指出此道就是孔孟之道的“为己之学”·“自得之学”,他认为此学只能够源于“吾心”。

宋代士大夫之所以会普遍将书院宗旨确立为“明道”,其实也是为了明确书院教育的核心·灵魂其实就是“师道”精神。所以,所谓“书院精神”其实就是宋儒希望在书院落实的“师道”精神,它具体体现为不可分割的两个方面。

首先,书院的师道体现为儒家之道既儒家人文理想的实现。宋儒继承了早期儒家的核心价值理念,肯这样宋儒的师道就不仅仅涉及学校师生的授受关系,而是紧密联系家国天下·万世太平的“天下之道”,启动王道理想实现的关键在“师”而不在“王”。由此带来书院师道精神的一系列特点:士大夫创办书院的根本目标既在于“道”,他们坚信最终会落实于“治”;书院传授的最重要内容不是知识技能,而是人文化成的“成人”。所以,朱熹制定的《白鹿洞书院揭示》,就以儒家之道的价值体系为基本内容。《揭示》首先以“父子有亲,君臣有义,夫妇有别,长幼有序,朋友有信”作为书院育人的“五教之目”,又以“博学之,审问之,慎思之,明辨之,笃行之”作为书院教学的“为学之序”;还以“言忠信,行笃敬”“惩忿窒欲,迁善改过”作为学生人格教育的“修身之要”,以“己所不欲,勿施于人;行有不得,反求诸己”作为书院生徒的“接物之要”。<sup>15)</sup>可见,宋儒之所以会藐视官学的辞章训诂之学,因为他们坚信自己追求的师道精神,才真正代表了儒家的人文理想,恢复了《周礼》关于“师儒”应该是“以贤得民”·“以道得民”的教育责任。宋儒期待的师道精神,就是努力通过书院教育,最终实现和谐家国与大同天下,建立合乎“道”的天下秩序。所以,书院精神包括两个方面:其一,在书院推崇以道修身的为己之学,完善自我人格,即所谓“格物·致知·正心·诚意·修身”;其二,以“道”治世,通过讲道·行道以完善社会秩序,最终实现“齐家·治国·平天下”的目标。

其次,书院精神还体现为一种知识理性的学术精神。儒家文化是一种人文理性的文化,儒家强调“道”的价值信仰·经世实践必须建立在“学”的知识理

15) 朱熹:《白鹿书院揭示》,《朱熹集》卷七十四,成都:四川教育出版社1996年版,第3894页。

性基础之上。所以，在书院的教育宗旨·教学实践过程中，求道与求学应该是统一和相通的。所以，书院求道的价值关怀体现出对人格理想和社会理想的追求，绝不能够排斥知识教育。宋代书院一直重视《四书》教育，而《论语》开篇即强调“学而时习之”，《大学》开篇即强调“格物致知”，《中庸》也特别强调“博学之”·“道问学”，这都是书院教育具有强烈学术精神的经典依据与思想源头。宋儒包恢在《盱山书院记》中说得极为透明：“夫以书院名是，所主在读书也……然予谓圣贤之书所以明道，书即道，道即书，非道外有书，书外有道，而为二物也。患在人以虚文读书，而不以实理体道，遂致书自书，道自道，人自人，而三者判然支离矣……况读书非为应举也，若其所读者徒以为取科第之媒，钓利禄之饵，则岂为贞志者哉。”<sup>16)</sup>宋代书院的知识追求十分迫切·学术精神十分强烈，但是书院教育也不是为知识而知识，学术创新总是以探求儒家之道的价值关怀为目的的。所以书院成为宋代以后新儒家学者探讨知识学问的地方。以阐释人的意义·社会的和谐·天下的治理为核心的经史之学成为古代书院的主要学习内容。宋代新儒学和书院的结合不仅使宋代学术获得发展的依托，而且也使书院获得了新的发展空间。宋代以后，中国古代学术的发展经历了诸多的转型和发展，不同学术思潮·不同学派形成都与书院息息相关。书院的学术创新精神借助于师道精神而不断开拓和发展，师道精神凝聚成为书院学术创新的推动力，推动书院学术思想的不断更新。

### 三·书院制度的典范意义

中国古代书院的典范意义不仅仅体现在书院精神，还体现为教育制度。如果说书院精神是春秋战国时期早期儒家师道精神复兴的话，宋代书院制度却是两千多年政教历史·教育实践积累的结果。在宋代士大夫在努力下，书

16) 包恢：《盱山书院记》，《敝帚稿略》卷3，文渊阁四库全书。

院最终形成了一套具有中国文化传统特色的教育体制·管理制度和教学方法。而且,由于书院精神和书院制度的紧密结合,使得中国书院成为最具特色·最有地位的学术—教育机构,对中国教育史·中国学术史·中国文化史的发展做出了极其重要的贡献。

中国古代教育体系有两大类型:官学教育体系与民间教育体系。这两大教育体系各有不同特点。汉代以来的太学·州府县学是官学系统代表,具有教学设施齐全·管理制度完备·教学经费充足等特点,而春秋战国的士人讲学·汉代精舍的研经讲经·魏晋名士的学术清谈等则主要是民间教育形式,这些民间教育具有学术自由·思想活跃·师生融洽的一系列特点。宋代书院的组织形式,既保留和吸收了春秋战国以来的各种民间教育形式,包括先秦私学·汉代精舍·魏晋山林清谈·隋唐寺庙禅修等等;同时也吸收了西周·两汉以来的各种官学系统教育形式,将官学形态的这些教育组织形式均被吸收到书院制度中来,包括建立和完善了一整套与文化教育功能密切联系的基本规制·制定了完善的教学管理制度·提供稳定的教育经费来源等等。总之,宋代书院产生以后,兼容了上述官学教育体系与民间教育体系两者之长,成为一种十分成熟·完善的教育组织制度。可以将宋代书院看作是中国古代民间教育高度发展的结果,故而也具有中国传统教育制度的典范意义。

首先,我们来分析,宋代书院在继承·发扬中国古代民间教育的制度优良,彰显其教育制度方面的典范意义。

书院创办之初,就不属于官方教育体系。由于它没有纳入到官学体系之中,主要依靠一种崇儒重教的师道精神和民间力量。马端临在论述宋初书院创办时说:“是时未有州县之学,先有乡党之学。盖州县之学,有司奉诏旨所建也,故或作或辍,不免具文。乡党之学,贤士大夫留意斯文者所建也,故前规后随,皆务兴起。后来所至,书院尤多,而其田土之赐,教养之规,往往过于州县学,盖皆欲仿四书院云。”<sup>17)</sup>可见,正是“贤士大夫留意斯文”的师道精神和民间力量,使书院得以创办和不断发展,在“教养之规”的制度建设方面已

17) 马端临:《文献通考》卷四十六,《学校考七》,中华书局 2011年,第1340页。

经超过官学系统。所以，随着书院的历史演变，其教育体制优势还获得不断发展，南宋时期最终成为学术界·教育界最重要的文化教育组织。

作为“贤士大夫留意斯文”而兴办的文化教育机构，作为书院主体的山长与生徒身份，均体现出中国传统私学的制度特色。山长是书院主持教育·行政的核心人物，决定该书院的学术地位与教学水平。书院作为一种官学系统之外的教育组织，它不依靠朝廷的正式诏令而建立，其主事人并没有纳入朝廷的官学教职之中，故而在聘任山长方面有着独立自主权，更加强调独立的道德标准与学术标准。宋代书院中不少是由民间声望很高的大儒名师自己建院，能够吸引大批生徒来学，故而成为事实上掌教的山长。也有许多士大夫·地方乡贤创办书院后，即选聘“经明行修，堪为多士模范者”充任山长。无论是哪一种情况，能够强化书院有名师主导·自主办学的制度特点。另一方面，书院生徒没有官学系统的诸多限制，生徒能够为求道而自由流动，他们往往能够择师而从·来去自由，故而更体现出一种求道精神和求学理念。清人黄以周谈到宋代书院时说：“沿及南宋，讲学之风丰盛，奉一人为师，聚徒数百，其师既歿，诸弟子群居不散，讨论绪余，习闻白鹿·石鼓诸名，遂遵其学馆为书院。”<sup>18)</sup>他讲述了宋代书院山长与生徒以“求道”为目标而汇聚讲学的历史盛况，鲜明体现出宋代书院继承春秋战国·汉代精舍等民间力量推动教育学术的历史事实。

正是由于宋代书院是士大夫“留心斯文”的独立办学机构，故而在教学内容·教学方法的选择·教学方法的运用等方面都表现出独立性，也能够有效继承和发展先秦诸子的民间教育·魏晋名士的山林讲学。宋代书院的教学内容总是与山长的教育思想·学术研究密切相关，山长们总是将自己注解的儒家经典作为书院的主要教材，而不必理会科举考试规定的科目和规定教科书。譬如，王安石变法后规定太学·州学均以《三经新义》为必学和必考科目，但是在理学家创办的书院中，书院师生所研习的内容却是理学家注释的《四书》等经典，不仅教学内容完全不相同，书院的教学方法也与官学教育明显不同。为追求

18) 黄以周：《傲季杂著七种》，《史学略四·论书院》，清光绪年间刊本。



“明道”的书院理念，山长和主事者可以邀请不同学派前来讲学，形成了书院所独有的“会讲”或“讲会”制度。南宋岳麓书院的“朱张会讲”，白鹿洞书院的“朱陆会讲”，既有战国诸子百家争鸣之习，又有魏晋名士山林清淡玄理之风，体现出宋代书院所特有的促进宋学学术交流·学派论战的历史特点。淳熙二年(1175年)，朱熹在寒泉精舍接待了婺学的代表吕祖谦。朱·吕二人在寒泉精舍切磋问难之后，还编撰了一部重要理学著作《近思录》，其实是将书院学术交流保留下来，成为理学的标志性成果。

宋代书院的学术精神，也深刻影响到其教学活动和人才培养。书院强调一种师道精神，但并不是将“师”与“道”等同起来。在求道的过程中，没有一个人能够垄断地位，师长与生徒是“道”的共同追求者。所以，能够在书院登坛教学者，不是一种官府“具文”的职务规定，而只在乎其是否“得道”的精神人格与学术地位。宋代书院常常有一些山长，主动让贤给那些有道德文章而并不一定有科举出身的人士。如南宋淳祐十年(1250年)欧阳守道被聘为岳麓书院山长，当他发现一位白衣秀才欧阳新很有学问，即请他登岳麓书院讲坛讲经。史载：“新(即欧阳新)讲《礼记》‘天降时雨，山川出云’一章，守道遽起曰：‘长沙有仲齐(即欧阳新)，吾为何至此？’”<sup>19)</sup>由于坚守一种师道精神，进士出身的欧阳守道竟然要主动让贤，可见书院山长是以道德文章为任职条件的。书院还形成了一种师生之间·生徒之间问难论辩教学制度。在这些教学活动中，生徒可以平等参与学术讨论，不仅对学者的学术研究有极大的推动作用，而且生徒也能在参与中得到启发与影响，甚至有可能因此而走上学术研究与传播之路。宋代出现的大量《语录》体学术著作，代表着当时的学术前沿，其中大量语录记载均是书院的师生讲学内容。

总之，以道为志的宋代书院之所以能够表现出一种独立学术·自由讲学的追求，恰恰是中国传统私学制度发展的结果。从孔子创立的私学到诸子百家的争鸣·从汉儒的精舍到魏晋名士的山林讲学，均在宋代书院制度中有鲜明的体现。

19) 王汝惺等：《浏阳县志》卷18，《人物·欧阳新》，清同治12年刻本。第13页。

其次, 这里再探讨宋代书院在继承·发扬中国古代官学教育的制度性优长, 进一步彰显其教育制度的典范意义. 从西周至汉唐以来, 中国古代社会一直都有十分发达的官学教育系统, 并且积累了丰富的兴办教育的经验和成果, 这些经验和成果为宋代书院所吸收.

宋代书院在制度方面的最大成果与特色, 就是建立和完善了一整套与文化教育功能密切联系的基本规制, 这一套规制一般要包括讲学·藏书·祭祀三个主要组成部分. 书院规制继承了古代官学教育制度化的长处, 同时又有教育制度创新的特点. “书院”本来是因民间读书人收藏图书而发展起来的以“书”为核心的文化教育组织, 宋儒将这种原本是民间藏书之所, 进一步发展为集读书·教书·写书·印书为一体的学术·教育·文化中心. 所以, 书院围绕“书”发展出一系列新的制度成果. 为了稳定·丰富书院的藏书, 书院不仅建立了完善的图书管理制度, 还发展出征集图书·购买图书·刻印图书的完善制度, 这些丰富的藏书有完全服务于教书育人·学术研究活动. 又如宋代书院的祭祀制度, 也在继承官学制度基础上又有新的发展. 北宋书院仿官学而建立了祭祀孔子的礼殿·孔庙等设施, 而南宋书院在继承祭祀孔子的基础之上, 又发展出了一套创建专门祠堂以祭祀本学院宗师的祭祀制度. 这种新的祭祀制度形成的原因, 就是为了进一步强化自己的学统意识. 宋以后学术界能够建立起学术宗旨各异的地域性学派, 使得南宋书院增设祭祀本学院推崇的宗师, 以标榜·弘扬本学院的学统, 并将这一标榜学统的追求与弘扬儒家道统联系起来. 南宋的闽学·湖湘学·象山学·婺学等几大学派均在他们创建的书院祭祀本派宗师.

同时, 宋代书院还克服了传统私学存的无稳定经济来源的问题. 官学系统的最大长处是教育经费的稳定供给, 所以无论是教学房屋设施的建设·日常经费的维护, 均有充分的保障. 而传统私学不能够稳定连续办学, 原因之一是没有充分的教育经费支持, 甚至是没有专门的教育场地及其设施而教无定所. 宋代书院吸取官学系统有稳定经费的优点, 士大夫在创建书院的同时就充分考虑筹集学田而获得经济支撑. 宋代书院建设过程中, 一开始就将

办学经费问题放在十分重要的地位。此外，还必须具有维护持续教学·购置图书·祭祀活动的专门经费来源，即所谓“学田”。所以，创办书院的首要工作就是要筹集·购置学田。其中一些特别需要热心教育的士大夫·乡绅来捐赠学田。而且，宋代书院中办学成功者，往往还能够得到朝廷赐学田的特别支持。所谓“天下四大书院”，均是因办学成功，得到朝廷赐田的特别待遇。有了朝廷的赐田，更进一步改善了书院的办学条件，提高了该书院的办学声誉。可见，书院学田的设置，是书院办学的经济基础，也是书院制度的重要组成部分。

另外，宋代书院还积极吸收汉唐太学·州府学的在教育管理方面的经验，建立相对完善的书院教育管理制度。宋代书院和以前的民间教育有很大的区别，表现出一种制度创新的追求。书院在教学管理方面形成了一套十分完备的制度，设置了与书院的教学·管理相关的各种职事，包括山长·堂长·讲书·执事·管干·司录等等。除了教学之外，还有藏书·祭祀·学田等不同事务的管理执事。这些不同职务的设定，既吸取了各级官学的长处，又是根据书院多功能特点的发展。同时，为了保证教学·治学等正常学习生活的需要，在教学管理方面更加完备，大多数书院均制订了作为生活与学习准则的学规·教条，这些学规·教条既能体现出明道的书院精神，又特别有益于书院的教学管理。朱熹为白鹿洞书院制定的《白鹿书院揭示》就提出：“熹窃观古昔圣贤所以教人为学之意，莫非使之讲明义理以修其身，然后推以及人……圣贤所以教人之法具存于经，有志之士，固当熟读深思而问辨之，苟知其理之当然，而责其身以必然，则夫规矩禁防之具，岂待他人设之而后有所持循哉！”<sup>20</sup>这一学规强调了讲明义理是教学的首要任务，而义理是蕴涵在儒家经典之中的，需要书院学者通过潜心学术研究才能体悟到。可见，这一学规充分体现了宋儒求道的书院精神，此后成为多数书院遵循的办学准则，只是不同书院根据实际情况补充一些大同小异的条目而已。

20) 朱熹：《白鹿书院揭示》，《朱熹集》卷七十四，成都：四川教育出版社1996年版，第3894页。

【主要参考文献】

- 陈寅恪：《金明馆丛稿二编》，上海古籍出版社 1980年。  
《周礼注疏》，《十三经注疏》第4册，北京大学出版社 1999年。  
《汉书》，中华书局 1962年版。  
欧阳修：《欧阳文忠公集》，《四部丛刊》影元刊本。  
王夫之：《宋论》卷3. 中华书局1964年版。  
黄宗羲·全祖望：《宋元学案》. 北京：中华书局，1986。  
黄震：《黄氏日钞》，文渊阁《四库全书》. 台北：商务印书馆，1986。  
袁燮：《絮斋集》. 文渊阁《四库全书》. 台北：商务印书馆，1986。  
石介：《徂徕石先生文集》，北京：中华书局，1984年。  
曾枣庄·刘琳主编《全宋文》，上海辞书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6年版，第216册。  
张轼：《张轼集》，中华书局2015年。  
袁甫：《蒙斋集》，丛书集成本。  
袁燮：《絮斋集》. 文渊阁《四库全书》. 台北：商务印书馆，1986。  
朱熹：《朱熹集》，成都：四川教育出版社 1996年版。  
包恢：《敝帚稿略》. 文渊阁四库全书. 台北：商务印书馆，1986。  
马端临：《文献通考》. 中华书局2011年。  
黄以周：《儆季杂著七种》，清光绪年间刊本。  
王汝愷等：《浏阳县志》，清同治12年刻本。

Abstract

## The Archetypal Significance of Song Academies

Zhu Hanmin\*

The Song period gave rise to the development of academies in China, and as archetypal embodiments of Chinese civilization they had a twin significance. The first such archetypal significance was that imbued by the Song period scholar-officials whose enthusiasm for establishing and teaching in academies was motivated by a desire to revive the 'spirit of the masterly Way' as a civilizational archetype. Indeed, that which is lauded by contemporary scholars as the 'spirit of the academy' is in fact precisely this 'spirit of the masterly Way' which the Song Ruists established academies in order to revive. The second such archetypal significance lies in the academies' institutional structure as a means of carrying forward China's ancient educational tradition. This allowed for the accommodation of features of, variously: the pre-Qin tradition of 'various schools contending' in private colleges; the Han tradition of classics study in elite seminaries and the Imperial College; the Wei-Jin period's tradition of so-called 'pure conversation' in bamboo groves; the Sui-Tang period's Zen practice in Buddhist temples; and pre-Song experience generally in the areas of talent cultivation and academic research. All of the abovementioned were important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academies during the Song period. Evidently, then, Song academies are archetypal of Chinese civilization, and are the product of a lengthy accumula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 on the part of the Chinese people.

---

\* Professor, Yuelu Academy, Hunan University / zhuhanm@163.com

Key word : Song academies, spirit of the academy, institution of the academy, mastery  
Way

논문 투고일: 2022. 11. 21 심사 완료일: 2022. 12. 11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武冈二邓先生与晚清书院教育\*

肖永明\*\*

- I. 序
- II. 二邓昌文：晚清历史舞台上的二邓先生
- III. 晚清书院的危机与书院改制
- IV. 二邓先生的书院教育生涯

## 【국문초록】

청대 말기 저명한 시인 등보륜(鄧輔綸), 등역(鄧繹) 형제는 당시 시단(詩壇)의 대가로서 오랫동안 서원 교육에 종사하였으며, 서원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 서원 교육에 있어서의 이등 선생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 근대 사회의 변천에 따른 전통 사인(士人)의 생활 양상 및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은 전통 서원 교육이 시대의 격변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몸소 경험하고 지켜보았기에,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주제어 : 등보륜, 등봉, 시인, 만청, 서원교육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湖南大学 岳麓书院 院长, 教授 / wyythsl@126.com

## I. 序

二邓先生是指清末著名诗人邓辅纶·邓绎兄弟。邓辅纶(1829-1893)字弥之,邓绎(1831-1900)又名辅绎,字葆之,又字辛眉,湖南武冈州南乡大甸人。早在少年时代,兄弟二人与王闿运·李篁仙·龙汝霖创立“兰林词社”,有“湘中五子”之称。此后,他们倡创与同光体齐名的“湖湘诗派”,在晚清诗坛产生重大影响。邓辅纶著有《白香亭诗集》等,邓绎著有《云山读书记》·《藻川堂诗文集》等。在当时,二邓先生与王闿运一道,被谭嗣同视为“庶可抗颜”国朝诗坛的湖南诗人。<sup>1)</sup>王闿运甚至在《邓郎中墓志铭》中称“曾胡讲武,二邓昌文。群贤响应,济济翩翩”,<sup>2)</sup>将二邓先生与声名显赫·地位崇隆的湘军统领曾国藩·胡林翼并举。这可能有感情因素在,甚至不排除王·邓两家联姻的这一特殊因素,但王闿运的说法也并非完全无据。

二邓先生都与书院结下不解之缘。少年时代兄弟均就读城南书院;中年以后,邓辅纶先后主讲武冈观澜书院·峡江书院·新宁书院·衡阳东洲船山书院·靖州鹤山书院,任山长于武冈希贤精舍·南京文正书院,最后病逝于文正书院讲舍。邓绎先后主讲长沙校经堂·河南致用书院·武冈希贤精舍·武昌两湖书院。二邓先生以当时的诗坛名家长期从事书院教育,讲学的书院遍及湖南·湖北·河南·江苏等省,既有僻处湘西南一隅由地方乡贤创办的乡村书院,又有由地方大员创办的州府·省级书院,在晚清书院教育史上占据一席之地。研究二邓先生的书院教育生涯,有助于我们了解在中国近代社会变迁的大背景下传统士人的生活样态·精神世界。同时,二邓先生经历道光·咸丰·同治·光绪四朝,其主要活动正处于书院制度发展演变的末期。就在邓绎病逝的第二年,朝廷诏令书院改制,延续千年的中国书院制度被废止。可以说,

1) 周清澍:《再释陈寅恪〈先君致邓子竹丈手札二通书后〉》,《中华文史论丛》2020年第4期。

2) 王闿运:《邓郎中墓志铭》,见朱则杰《晚清作家集外诗文辑考》,《阅江学刊》2011年第4期。



二邓先生的书院教育生涯是在书院制度的夕阳余晖中度过，他们亲身经历并见证了传统的书院教育因应时代巨变而不断调适、变化而走向改制的过程，他们的书院教育生涯为我们具体了解这一过程提供了很好的观察点。

## II. 二邓昌文：晚清历史舞台上的二邓先生

二邓先生父亲邓仁堃(1804-1866)为道光五年(1825)拔贡，在四川綦江等地任知县，咸丰初年任江西南昌知府，署督粮道，后兼署摄布政使·按察使，所到之处皆政声卓异。任职江西时，配合江中源·曾国藩·罗泽南等抵御太平军。邓仁堃在江西为官的经历，对后来二邓先生的交游产生了影响。

邓辅纶生于其父邓仁堃綦江知县官舍。“幼有神慧”，<sup>3)</sup> 五岁能诗，十三岁入泮，十五岁补州学廪生，后求学于长沙城南书院。在这里，邓辅纶的才华得以显现，“同郡邓显鹤·湘阴左宗棠叹为异材”<sup>4)</sup>。他与胞弟邓绎一道结交了王闿运·李篁仙·龙汝霖等一批才俊之士。他们志趣相投·恃才放旷，在共同的求学生活中结下了深厚的情谊。邓辅纶曾与王闿运“于岁暮同走衡阳风雪中，宿废寺或逆旅，酌酒谈诗以为乐”。他们意气风发，吟诗作赋，相互唱和，结“兰林词社”，号为“湘中五子”，以弱冠之龄在在当时文坛崭露头角，并以五人核心形成湖湘诗派，在晚清诗坛名动一时。作为湖湘诗派领袖之一，邓辅纶有《白香亭诗集》三卷传世，刻本甚多，流传甚广。其诗作在当时和后来都颇受推崇。<sup>5)</sup> 王闿运在《论作诗之法》中就将邓辅纶与魏源之诗并提，称“不失古格而出新意，其魏源·邓辅纶乎？”<sup>6)</sup> 学者费行简(1871-1954)在《近代名人小传》中称邓辅纶“蔚然为一代大宗”<sup>7)</sup>。近代江西派词人·画家，清末任江苏

3) 王闿运《湘绮楼诗文集》卷九，长沙：岳麓书社，1996年，第2160页。

4) 王闿运《湘绮楼诗文集》卷九，长沙：岳麓书社，1996年，第425页。

5) 萧晓阳《湖湘诗派研究》，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8年，第166-184页。

6) 王闿运《湘绮楼诗文集》，长沙：岳麓书社，1996年9月，第367页。

7) 费行简《近代名人小传》，《近代中国史料丛刊》，第385页。

提学使兼上海夏旦·中国公学等校监督的夏敬观(1875-1953)称“贤同间湘人能诗者，推武冈邓先生弥之·湘潭王先生壬秋。……两先生颇异趣，然皆造诣卓绝，神理綽邈。”<sup>8)</sup>

作为诗人，邓辅纶影响很大，不少诗作传诵一时。但他的仕途却并不顺畅。邓辅纶为咸丰元年(1851)副贡生，后以助饷叙用为内阁中书至京城。太平军进攻江西时，他回家乡组织“宝庆同志军”帮助父亲守卫南昌城。咸丰六年(1856)，又奉命率领“江军”在抚州·湖口等地与太平军作战，虽多次取胜得立战功，但最终全军覆没。邓辅纶遭到弹劾被革职并调五级留用。

咸丰八年，邓辅纶进入曾国藩幕府。第二年，又进入权臣肃顺幕府，与王闿运等一道成为“肃门湖南六子”之一。此时，因曾国藩奏请，任浙江候补道。咸丰十年赴任后，受浙江巡抚王有龄委派巡城。咸丰十一年，杭州城破，王有龄战死，邓辅纶在无法抵挡的情况下跳入护城河得以生还，徒步返回故里。因为此事，他再次受到弹劾。虽然经过左宗棠上奏说明，但仍在同治三年(1864)遭革职，只是不再另加惩处。

短短数年间，连续两次遭到弹劾被免官，给志在经纶天下的邓辅纶以巨大打击。仕途的挫折，使邓辅纶在壮年就心灰意冷，绝意仕途。或退隐乡间，闭门著述，或四处游历·诗酒唱和·讲学授徒。也正是在这一时期，邓辅纶开始了他的书院教育生涯。

邓绎为邓仁堃次子，邓辅纶胞弟，又名辅绎，字保之，又字辛眉。“君髫龄颖秀，五岁能诗”，弱冠之年与其兄一起就读于城南书院，同结“兰林词社”，为“湘中五子”之一。其才情学识在当时引人瞩目，“声誉之美，远近推襟。”<sup>9)</sup>太平军兴，曾在武冈组织抵抗太平军。同治初年，入左宗棠幕府，以军功得员外郎衔，为浙江知府并赏花翎。后因花翎一事多有曲折，邓绎辞不受命。<sup>10)</sup>同治五年，服父丧回到武冈乡间，闭门读书，“博览篇籍，口吟手披，凡所经

8) 陈锐《抱碧斋集》，长沙：岳麓书社，2012年，第1页。

9) 王闿运：《邓郎中墓志铭》，见朱则杰《晚清作家集外诗文辑考》，《闽江学刊》2011年第4期。

10) 《湖湘诗派研究》。

览数十万卷”，撰著《井言》《云山读书记》数百万言。《云山读书记》分内学·外治·谭艺三部分：“曰内学，言德行；曰外治，言政事也；其曰谭艺，皆言语文学之支流”。<sup>11)</sup> 光绪四年，邓绎东游浙江·江苏·江西三省，“以周览时会，观时吏治得失，以扩其忧世之志，而内证其所学”<sup>12)</sup>。光绪八年后，应陈宝箴·张之洞等人之邀，主讲长沙校经堂·河南致用书院·武冈希贤精舍·武昌两湖书院等书院。光绪十九年(1893)，还居故里，直至终老。

邓绎有很深的儒学造诣，自少壮起就“有志圣学”，“学必以邹鲁为归”。<sup>13)</sup> 他继承儒家经世致用传统，“思为宏简之学以周世用”，<sup>14)</sup> 孜孜矻矻，勤于著述，“意在修明学术，裨补当世”。<sup>15)</sup> 一生作诗万余首，留下《藻川堂诗集》《云山读书记》《藻川堂谭艺》《藻川堂文集》等著作。

### III. 晚清书院的危机与书院改制

书院制度是中国独特的一种文化教育组织，在中国文化史上有重要地位。书院起源于唐，定型于宋，兴盛于元明清，到清代后期逐渐衰落，最终在光绪二十七年(1901)诏令书院改制为学堂，在中国历史上存续千余年之久的书院在制度层面上退出了历史舞台。

清代是书院鼎盛时期。从地域分布看，除了新疆·西藏的个别地区之外，书院已经在全国各省普及。从数量上看，除了重建·修复的前代书院之外，清代新建的书院就达到了3700多所。<sup>16)</sup>

11) 邓绎：《云山读书记·引》，《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38页。

12) 邓绎：《东游诗序》，《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页。

13) 邓绎：《夏两粤制军张香涛之洞》，《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97页。

14) 邓绎：《东游诗序》，《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页。

15) 邓绎：《东游诗序》，《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页。

16) 白新良：《中国古代书院发展史》，天津：天津大学出版社，1995年版，第122页。

同治·光绪时期是书院发展的最后阶段。当时，正值太平天国运动平息之后，由于最高统治者的提倡，书院出现了短暂的复兴。据白新良先生的统计，同治年间新建书院366所，修复·重建前代书院14所；光绪年间新建书院671所，修复重建前代书院安1所，两朝新修·修复前代书院合计1062所，超过清代兴建书院总数的四分之一。<sup>17)</sup>从数量上看，同光时期书院数量快速增长，呈现繁荣·兴盛的景象。

但是，这一时期书院的兴盛之中也潜伏着种种危机。从整体上看，从雍正·乾隆时期开始，清代书院定位就发生变化，日益蜕变为科举的附庸，书院教学以考课应试为目标。宋明以来以强调品德养成·人格修炼·明理求道，主张自由讲学，追求学术创新，倡导有教无类，师生之间感情笃厚·相互切磋·共进于道为主要特征的书院精神逐渐丧失，出现了种种弊病。这种情况，到晚清时期愈发严重，书院发展出现了种种乱象。

一方面，不少士子志趣卑陋·格局低下，汲汲于科举功名，一味贪图膏奖，而对于明德新民·修己治人之事则弃置不顾，悖离了学者为学的宗旨。对书院的士习与学风，当时学者曾进行了尖锐的批评：“今之应书院课者，惟八比五言之是务，弃浅固陋，逐末忘本，甚者较膏奖之多寡，争名第之先后，叫嚣拍张，以长傲而损德，则书院反为诸生病矣，何教化之足云？”<sup>18)</sup>“士子以儂薄相高。其所日夕呶呶者，无过时文帖括，然率贪微末之膏火，甚至有头垂垂白不肯去者。”<sup>19)</sup>“颓废无志，率乱学规，剿袭冒名，大雅扫地矣。”<sup>20)</sup>生徒是教学的主体，书院生徒志趣·学风如此，书院自然只能成为猎取功名利禄之所而难以培养明道济民的人才。

同时，也有一些书院的山长聘任不得其人，或者品行·学识不配其位，或

17) 白新良：《中国古代书院发展史》，天津：天津大学出版社，1995年版，第236页。

18) 葛其仁：《书院议》，载陈谷嘉·邓洪波：《中国书院史资料》，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8年版，第1951页。

19) 刘锦藻：《清朝续文献通考》二，卷100，《学校七》，上海：商务印书馆，1936年版，第8598页。

20) 张之洞：《劝学篇》上，《张之洞全集》第十二册。石家庄：河北人民出版社，1998年版，第9718页。

者“以疲癯充数”<sup>21)</sup>。道咸之际的桐城学者戴钧衡(1814-1855)在《桐乡院四议》中就批评当时书院山长遴选多有曲徇私情的情形：“元时山长与学正教谕并列为官选于礼部……近世则不然，省会书院大府主之，散府书院，太司主之，以科举相高，以声气相结，其所聘为山长者，不必尽贤者有德之士类，与主之者有通家故旧或转因通家故旧之请托，而州县书院则牧令不能自主，其山长悉有大吏推荐，往往经岁弗得见，以束修奉之上官而已。”<sup>22)</sup>本应担负人才培养重责的山长职位成为人情交易的工具，甚至一些书院延聘的山长有“乡大夫之耄而无学，并经史之名不能悉数”者。<sup>23)</sup>还有一些书院山长往往并不到院履职，只是遥领薪俸，书院教育师生朝夕相处，山长对生徒的言传身教，耳提面命的特色已经无法体现，循循善诱，因材施教更是无从谈起。乾隆元年(1736年)，清高宗曾发布上谕，明确书院山长的任职资格，在山长品行·学识及声望作出规定：“凡书院之长，必选经明行修，足为多士模范者，以礼聘请。”<sup>24)</sup>晚清书院山长选聘中的弊病，虽然并非普遍现象，但是这种情形的出现，说明当时书院制度已经弛废，朝廷的相关规定也成为一纸具文。

不仅书院生徒·山长，晚清书院教育内容也存在严重问题。科举考试内容越来越空疏僵化，与科举考试的紧密联系，登科入仕的功利导向，使不少书院教育内容拘囿于科举应试的狭小范围之内，仅将能够用于科举考试的作为孜孜以求的学问，其他一切有关修身养性·为人处世·治国经邦的知识·技能都不列入教学的内容。当时有很多学者曾经痛陈这一病弊。郭嵩焘指出当时的情形是“一举科举程式被之书院，视若帖括取科名外无有学问者”，<sup>25)</sup>曾

21) 刘锦藻：《清朝续文献通考》二，卷100，《学校七》，上海：商务印书馆，1936年版，第8598页。

22) 戴钧衡：《桐乡院四议》，载盛康辑《皇朝经世文续编》，卷65，礼政5，《学校下》，台北：文海出版社印行，第393页。

23) 黄以周：《史说略》卷四，《论书院》，载陈谷嘉·邓洪波：《中国书院史资料》，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8年版，第1956页。

24)《钦定学政全书·书院事例》，载《近代中国史料丛刊》正编第30辑，台北：台湾文海出版社，1974年版，第1523页。

25) 郭嵩焘：《养知书屋诗文集》卷十四，《送朱肯甫学使还朝序》，台北：台湾文海

在光绪十四年至十六年间任湖南学政的张亨嘉认为书院生徒“舍圣人之经典·先儒之注疏与前代之史不读，而读其所谓时文”，所养非所用，导致了人才之衰·中国之弱。<sup>26)</sup> 光绪二十一年(1895)，大臣胡燏棻(1840-1906)上《条陈变法自强疏》，认为书院义塾除“八股试帖词赋经义而外，一无讲求”<sup>27)</sup>，造成了士子精力的巨大浪费，不能培养真正的人才。

尽管当时学者对书院制度弛废·士风卑陋·学风空疏的各种批判不乏愤激之辞，也有以偏概全的倾向，但是晚清书院弊端丛生，书院精神衰颓却是不争的事实。书院精神是书院发展的灵魂，违背书院精神的种种陋习相沿，致使书院内在活力逐渐丧失，出现了危机。更为重要的是，世风多随乎士习，士习亦可折射世风，从书院的士习与学风可以看到，当时社会已经整体呈现出衰世景象，整个中华文明的巨大危机已经隐隐浮现。很多有识之士敏锐地感受到这种危机，逐渐意识到中华文明已经处于“数千年未有之大变局”之中。这种危机意识促使他们对书院教育进行反思，致力于变革书院·整治学风·端正士习。从19世纪60年代到90年代中期甲午战争爆发，一场书院改革运动拉开序幕。根据学者的研究，当时不少书院因势而变，顺势而为，依据不同的思路进行书院改革。有的书院课程以经史·性理之学为主，以文词为辅，力图破除旧书院之积习·抵制八股而发扬光大经世致用的传统学风；有的书院以传播西学·西艺为主，引入讲习格致各学科；有的书院强调“中西兼课”，以中学为主·西学为辅，在课程设置·分科设教和教法等方面体现出旧式书院向新式学堂的过渡；有的书院如广东万木草堂，以讲授中西学问为特点，兼具传统的书院形式与新式学堂的教学内容，介乎旧书院与新学堂之间。这些不同类型的书院，尽管侧重点各有不同，但都是摒弃考课举业，务求学以致用。从改革的总体趋势看，都是由“中西兼课”，转为逐渐增加西学·实学课程。<sup>28)</sup>

出版社，1983年版，第714-715页。

26) 张亨嘉，守沅集·夏朱其懿书，北平：香山慈幼院1936年刊本，第56页。

27) 胡燏棻：《条陈变法自强疏》，载朱有瓛：《中国近代学制史料》第一辑下册，上海：华东师范大学出版社，1986年版，第473页。

甲午战争以后,书院改革更是进入了新的阶段。朝野上下,指陈书院流弊的声音越来越大,李鸿章·李端棻等朝廷重臣,张之洞·胡聘之等地方督抚,康有为等维新派人士都指出书院士习卑陋·学风空疏·积习日深,难以成就真正的人才。不仅如此,当时的书院改革还由课程层面深入到制度层面,社会上改书院为学堂的呼声日益高涨。在书院与学堂名称的争论和角力中,书院最终被废止。<sup>29)</sup>而在此过程中发挥关键作用的竟然是曾经于1888年创办广雅书院·于1890年创办两湖书院的张之洞。光绪二十七年(1901年),湖广总督张之洞·两江总督刘坤一联名上奏:“今日书院积习过深,假借姓名,希图膏奖,不守规矩,动滋事端,必须正其名曰学,乃可鼓舞人心,涤除习气。”<sup>30)</sup>1901年9月,朝廷采纳这一主张,发布上谕:“除京师已设大学堂,应切实整顿外,著各省所有书院,于省城均改设大学堂,各府及直隶州均改设中学堂,各州县均改设小学堂。”<sup>31)</sup>延续千余年的中国书院制度至此落下帷幕。

#### IV. 二邓先生的书院教育生涯

二邓先生从事书院教育的时间集中在同治十三年(1874)至光绪二十一年(1895),他们的书院教育生涯是在晚清书院改制的背景下展开的。因为留存的史料有限,我们难以详细了解他们在书院活动的具体情况,只能简略地勾勒他们在武冈希贤精舍·靖州鹤山书院·衡阳东洲船山书院·金陵文正书院·河南致用书院·武昌两湖书院的教育生涯。

28) 夏俊霞:《论晚清书院改革》,《近代史研究》,1993年第4期。

29) 王建军:《清末以书院改学堂的名称之争》,《华南师范大学学报》,2011年第6期。

30) 张之洞:《变通政治人才为先遵旨筹议摺》,《张之洞全集》第二册,石家庄:河北人民出版社,1998年版,第1401页。

31) 杨家骆:《清光绪朝文献汇编·光绪朝东华录》,台北:台湾鼎文书局,1978年版,第4719页。

## 1. 二邓先生与武冈希贤精舍

同治十三年(1874), 武冈知州张宪和鉴于螯山书院书册未备, 斋舍狭窄, 与州中士人“厘田谷之入数为经课之用, 礼聘硕儒以为师长, 而购书于鄂·湘资讲习”, 在螯山书院祭祀周程张朱的五子堂东南面另建希贤精舍, “邓观察辅纶实经始其事”,<sup>32)</sup> 并担任山长, 主讲其中。

张宪和, 字文心, 浙江平湖人, 咸丰己未举人。他宗奉程朱理学, “其学以孔孟为归, 由清献而上溯濂洛关闽”<sup>33)</sup>。“清献”是被誉为“本朝理学儒臣第一”的平湖先贤陆陇其(1630年-1692年)的谥号。从张宪和应邓辅纶之邀所撰的《希贤精舍记》看, 希贤精舍尊奉的是周程张朱之学, 这也正是精舍以“希贤”命名的由来。在《记》文中, 张宪和为精舍诸生所谈到的为学工夫·路径, 都以朱熹·张栻之言为标准, 理学色彩非常浓厚: “窃尝闻之《大学》以致知为先务, 致知以读书为先务, 而读书之法在于循序而致精, 致精之本在于居敏而持志, 则子朱子言之矣; 夫敬者, 主一无适之谓也, 居无越思, 事靡他及, 则南轩宣公言之矣。下学上达之事, 朱子之记石鼓, 宣公之记岳麓者甚详, 学者诚由博文而约礼, 由致知而力行, 志伊学颜, 过则圣, 及则贤, 不及则亦不失于令名焉。”<sup>34)</sup> 在《记》中, 张宪和还特意提及专宗朱熹理学的同乡先贤陆陇其。从中不难看出希贤精舍的办学宗旨·特色与育人理念。

在廷桂所作的《希贤精舍记》中, 还谈到精舍的建设“大指仿文忠公箴言书院成法而行之, 盖欲绍绝学于废坠之余, 培人材于中兴之会”<sup>35)</sup>。邓绎在《希贤堂记》中也花费不少笔墨称颂胡林翼创建箴言书院一事,<sup>36)</sup> 比照·对标的

32) 张宪和:《希贤精舍记》,《光绪《武冈州志》卷37,清光绪元年(1875)刻本,第2285页。

33) 张德昌:《署武冈知州张侯宪和遗爱亭碑记》,《光绪《武冈州志》卷37,清光绪元年(1875)刻本,第2282页。

34) 张宪和:《希贤精舍记》,《光绪《武冈州志》卷37,清光绪元年(1875)刻本,第2285页。

35) 廷桂:《希贤精舍记》,《光绪《武冈州志》卷37,清光绪元年(1875)刻本,第2295页。



意味相当明显。箴言书院位于湖南益阳瑶华山麓，由中兴名臣·湘军统领胡林翼于咸丰三年(1853)创立。箴言书院的教育在注重经史研习的同时，强调立身之本与治事能力的培养。首任山长所订立的《箴言书院学程》分经史·立身·治事·为文四门，其中“治事”门，包含军事·地舆·政治·农桑四类书目，多属与国计民生直接相关的知识和技能。这与当时许多以科举为鹄的·以帖括时文为教学内容的书院是有明显区别的。希贤精舍以箴言书院为效法对象，在精神取向·教学内容方面应当有近似之处。

这一点，在知州张宪和《希贤精舍记》中也是有迹可循的。作为精舍的创立者，张宪和解释为何要在原有的鳌山书院之外另创希贤精舍，二者异同之处何在。其中一段文字颇耐人寻味：“虽书院尊功令·专课制艺，精舍以穷经为专务，微若有异，然精舍之人材即书院之人材，未有入于精舍而不升于书院者，精舍之于书院二而一者也。”<sup>37)</sup> 这里暗含一个意思，精舍有异于书院之处，就是“以穷经为专务”，而不是“尊功令·专课制艺”。虽然张宪和并不希望突出精舍与书院这种差异，甚至还力图弥缝其间，落脚于二者的一致性。但这种差异又是他不能不点出的，否则就不能说明别创希贤精舍的必要性。从这段文字中，我们可以对希贤精舍的教学内容有大致了解。精舍的教学刻意与科举制艺保持了距离，这应该也是当时许多书院的共同选择。

除了“穷经”之外，精舍生徒还把邓绎的《云山读书记》作为研读的内容。《云山读书记》是邓绎遍览群书，贯通经史诸子，潜心探究而撰写的读书札记，涉及立德修身·经邦济世与言语文学各方面。张宪和对此书爱不释手，推崇不已，“尽日夜之力以讽吟之，而见其渊然浩然者，几若与元气同流，而混融乎天人经籍之奥”。希贤精舍建立后，“因节录其书之系于劝学者数十条，第为二卷，刊示诸生，用广其明道授业之意”。<sup>38)</sup> 《云山读书记》被王闿运称颂为

36) 邓绎：《希贤堂记》，(光绪)《武冈州志》卷三十七，清光绪元年(1875)刻本，第2290页

37) 张宪和：《希贤精舍记》，(光绪)《武冈州志》卷37，清光绪元年(1875)刻本，第2284页。

38) 张宪和：《节录〈云山读书记〉序》，(光绪)《武冈州志》卷37，清光绪元年(1875)刻

“诸出濂洛，暗符洛闽”<sup>39)</sup>，具有理学的底色，既关注内学之“体”，又重视外治之“用”，与希贤精舍的办学旨趣非常契合，被选为教学内容也是很自然的事。

同治末年光绪初年，亦即在希贤精舍创立之初，邓绎一度受聘在精舍主讲《大学》，启迪士子。后来因邓绎远游四方，讲学中断。<sup>40)</sup>光绪十三年(1887)到十五年，邓绎回到武冈，再次应邀主讲于希贤精舍。

当时，任两广总督的张之洞对二邓兄弟的“高才博学”“经术湛深，践履笃实”早有了解，尤其是读到邓绎在河南致用书院所撰《警士铎言》，深感钦佩。为此，他修书礼聘邓绎前往广东潮州金山书院主讲。这是张之洞在两广整饬书院行动的一部分。金山书院为同治年间新建，“本意讲求经古，旋以因循习俗，亦遂改课时文。院中学徒百人，不过从事帖括，希心捷获。因此他希望邓绎能够出任山长，“教以为己之学，崇实黜华，建端树义，以通经致用为勖，以躬行实践为归。”<sup>41)</sup>张之洞对邓绎非常看重·信任，也寄予很大的希望。以张之洞的地位·阅历与识见，他对邓绎的品行·学识·能力·思想倾向的了解把握应当具有较大的准确性。这也表明，邓绎在河南致用书院的教育活动及其《警士铎言》所体现的教育理念，已经产生较大影响，获得较大的认同。

收到张之洞的聘书，邓绎感奋不已。但是希贤精舍礼聘在先，邓绎觉得义难辞谢，因此奉还金山书院聘书，仍旧每月讲学于希贤精舍。

主讲希贤精舍期间，邓绎留下了大量诗作<sup>42)</sup>，以精舍及其建筑为题的有《希贤草堂讲学》《希贤精舍培风亭玩月地在去思亭上》《秋日培风亭高望》《朝霁登培风亭》《希贤楼晓望》。从这些诗作中，我们可以了解作者讲学精

本，第2288页。

39) 邓辅纶：《云山读书记序》，《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38页。

40) 邓绎：《夏两粤制军张香涛之洞》，《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97页。

41) 邓绎：《夏两粤制军张香涛之洞·附》，《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98页。

42) 邓辅纶：《白香亭诗集》卷2，《辛巳暮冬招潘筱农刺史清·张荫庐学博广榕过怡园赏梅》，长沙：岳麓书社，2011年版，第72页。

舍的日常生活与情感世界的某些片段。

## 2. 邓辅纶与靖州鹤山书院·衡阳东洲船山书院·金陵文正书院

光绪九年(1883),邓辅纶受靖州知州潘清(号筱农·小农)之聘,主讲靖州鹤山书院。潘清为浙江山阴人,同治十年(1871)年曾任武冈知州,与邓辅纶素有交往,光绪七年(1881)暮冬,受邓辅纶之邀一起在武冈怡园赏梅。<sup>43)</sup>鹤山书院建于宋宝庆元年(1225),为宋代著名理学家魏了翁谪居靖州期间所创,魏了翁还撰有《靖州鹤山书院记》记其事。后来曾经多次重建。邓辅纶在主讲鹤山书院期间,举行了祭祀活动:“暮春既望,谨率生徒释菜先儒魏文靖祠”。<sup>44)</sup>这也是书院教学活动的重要内容。

从光绪十三年(1887)到光绪十五年(1889)夏,邓辅纶主讲于衡阳船山书院。《白香亭诗集》中有《己丑夏彭雪琴尚书玉麟由浙称疾还衡养疴。时余主讲东洲,有感而作》等诗作。东洲书院位于衡阳城南东洲岛,创建于乾隆二十六年。光绪十一年(1885),兵部尚书彭玉麟将建于回雁峰下的船山书院迁建于东洲,将东洲书院扩建为船山书院。邓辅纶主讲船山书院期间,有后来成为著名学者、湖南高等学堂监督的曾熙(1861-1930)从游门下。

光绪十五年(1889),邓辅纶担任金陵文正书院首任主讲,直到光绪十九年(1893)去世于文正书院馆舍。当时,邓辅纶早年在江西共同抗击太平军的挚友·时任江宁布政使的许振祜为纪念其恩师曾国藩,在金陵创办文正书院,邀请邓辅纶任主讲。邓辅纶离开船山书院,欣然前往。他在文正书院时期的活动与交友,在当时友人诗作中有所反映。如周清澍先生提到<sup>45)</sup>,陈三立·俞

43) 邓辅纶:《白香亭诗集》卷2,《癸未岁,余以筱农刺史聘,主讲靖州。暮春既望,谨率生徒释菜先儒魏文靖祠,散步先生鹤山书院诗原韵》长沙:岳麓书社,2011年版,第73页。

44) 邓辅纶:《白香亭诗集》卷2,《己丑夏彭雪琴尚书玉麟由浙称疾还衡养疴。时余主讲东洲,有感而作》,长沙:岳麓书社,2011年版,第76页。

45) 周清澍:《再释陈寅恪〈先君致邓子竹丈手札二通书后〉》,《中华文史论丛》2020年第4期。

明震等人从北京回湘经过南京,与邓辅纶等相聚,“日事游眺,一时盛会也”。<sup>46)</sup>陈三立同邓辅纶等同游莫愁湖。<sup>47)</sup>光绪十九年七月二十日,邓辅纶病逝。《申报》报道称:“金陵文正书院山长邓弥之观察老境颓唐,兼染时气,卧病十余日,渐成不起之症,延至七月二十日酉时歿于中正街讲舍。”<sup>48)</sup>《申报》的这一段文字,尤其是“老境颓唐”一词,充满凄凉萧索的意味,似乎不仅指向邓辅纶本人,也在暗示晚清书院的命运。

### 3. 邓绎与致用书院·两湖书院

光绪八年(1882),邓绎应陈宝箴之邀,赴河南武陟出任致用书院山长。当时,陈宝箴分守河北道,创建致用精舍:“不避僭妄,延访隼异有志之士,与为讨论,筑精舍以居之。储典籍,立规制,延师儒以为之导,使之优游于学问思辨之中,见诸行事,而希古者有用之学。”<sup>49)</sup>精舍建成后,邓绎主讲其中,曾作诗《光绪岁壬午,致用精舍初成,河北道陈君右铭延予主讲,是秋李见荃秋赋领解,题诗勗之》。<sup>50)</sup>他的《河北警士铎言》也作于这一时期,后来与陈宝箴所撰的《精舍记》《学规》《说学》诸篇汇刊作为精舍课士的材料。《河北警士铎言》曾得到张之洞的高度评价:“读河北致用书院尊撰《警士铎言》,笃雅纯粹,敬佩良深。”<sup>51)</sup>由此开启了邓绎与张之洞围绕书院教育的交往。

致用精舍标举“致用”,在办学宗旨与教学内容上都明确体现了这一特色:

46) 释敬安:《寄怀俞恪士观察江南并柬陈伯严吏部十二首并序》,《八指头陀诗文集》,长沙:岳麓书社,2007年,第291页。

47) 陈三立:《莫愁湖四客图为梁节庵题》,潘益民·李开军《散原精舍诗文集补编》,南昌:江西人民出版社,2007年,第118页。

48) 《申报》光绪十九年(1893)七月廿日《老成日谢》条。

49) 陈宝箴:《河北致用精舍记》,载刘经富编著《陈宝箴诗文笺注·年谱简编》,北京:商务印书馆,2019年,第105页。

50) 邓绎:《光绪岁壬午,致用精舍初成,河北道陈君右铭延予主讲,是秋李见荃秋赋领解,题诗勗之》,《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35页。

51) 邓绎:《夏两粤制军张香涛之洞·附》,《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98页。

“参酌晁景迂·曾文正课程, 订立学规以明体达用为宗, 诵习经史外, 诗文·地輿·水利·农田·兵法, 凡关经世各书无不讲究”。<sup>52)</sup> 在七·八年之中, 邓绎·王少白两先生作为主事者, 为当地人才培养做出巨大贡献。当时, 武陟一地有河朔书院以考时艺, 有致用精舍以励实学, 各有偏重, 士习人才盛极一时。可惜的是, 后来致用书院也“改课时文试帖, 与他书院等矣”。<sup>53)</sup> 可见流俗力量之强, 科举帖括之学诱惑之大。

光绪十六年(1890年)至光绪二十一年, 邓绎主讲于湖北两湖书院。两湖书院为张之洞任湖广总督时创建, 开设的课程有经学·史学·理学·算学·经济学五门, 分由五位资深教习执教, 邓辅纶任理学教习。在此期间, 他留下《春日放舟诣新建两湖书院作》《登两湖书院读书楼作》《苍山吟和陈王两生同游洪山寺作》《仲冬晴霁两湖书院开学, 督抚学使为主人礼宾入馆, 多士翔集, 司道郡县咸来会焉》等一批反映书院师生活动的诗作, 后编成《两湖集》。<sup>54)</sup>

---

52) 史延寿：《续武陟县志》卷九，民国二十年刊本，第318页。

53) 史延寿：《续武陟县志》卷九，民国二十年刊本，第318页。

54) 邓绎：《两湖集》，《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版，第200-233页。

【참고문헌】

- 周清澍：《再释陈寅恪〈先君致邓子竹丈手札二通书后〉》，《中华文史论丛》2020年。
- 王闿运：《邓郎中墓志铭》，见朱则杰《晚清作家集外诗文辑考》，《阅江学刊》2011年。
- 王闿运《湘绮楼诗文集》卷九，长沙：岳麓书社，1996年。
- 萧晓阳《湖湘诗派研究》，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8年。
- 费行简《近代名人小传》，《近代中国史料丛刊》，第385页。
- 陈锐《抱碧斋集》，长沙：岳麓书社，2012年。
- 邓绎：《云山读书记·引》，《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
- 白新良：《中国古代书院发展史》，天津：天津大学出版社，1995年。
- 葛其仁：《书院议》，载陈谷嘉·邓洪波：《中国书院史资料》，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8年版。
- 王建军：《清末以书院改学堂的名称之争》，《华南师范大学学报》，2011年。
- 张之洞：《变通政治人才为先遵旨筹议摺》，《张之洞全集》第二册，石家庄：河北人民出版社，1998年版。
- 邓辅纶：《云山读书记序》，《邓绎集》，北京：光明日报出版社，2016年。
- 史延寿：《续武陟县志》卷九，民国二十年刊本，第318页。

Abstract

## Wugang Deng Fulun, Deng Yi and Academy Education in the Late Qing Dynasty

Xiao Yongming\*

Brothers Deng Fulun and Deng Yi, famous poets in the late Qing Dynasty, engaged in academy education for a long time as famous poets at that time, and formed an indissoluble bond with the academy. Studying Mr. Er Deng's academy education career will help us understand the life style and spiritual world of traditional scholars under the background of social changes in modern China. They have personally experienced and witnessed the process of traditional academy education adapting, changing and reforming in response to the great changes of the times. Their careers in academy education provide a good starting point for us to understand this process in detail.

Key word : Deng Fulun(邓辅纶) Deng Yi(邓绎) Poet(诗人) Late Qing Dynasty(晚清)  
Academy Education(书院教育)

논문 투고일: 2022. 11. 21 심사 완료일: 2022. 12. 14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 Professor of Yuelu Academy / wythsl@126.com





# 岳麓书院祭祀四记\*

邓洪波\*\*

- I. 序
- II. 祭祀的历史演变
- III. 祭祀的类型及作用
- IV. 祭祀活动
- V. 祭祀的文化意义

## 【국문초록】

제사, 강학, 장사, 그리고 학전은 서원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악록서원 창건 당시, 공자를 제사 지냄으로써 유가(儒家)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는 악록서원 고유의 특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남송(南宋) 이래로, 서원의 공자당(孔子堂)은 예전(禮殿)→전전(前殿)→선사전(先師殿)→선성전(宣聖殿)→문묘(文廟)라는 명칭의 변화를 겪었고, 나아가 '위질칭체(位秩稱體)'를 이루면서 좌묘우학(左廟右學)이라는 악록서원만의 독특한 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제선생사(諸先生祠)→제선현(諸先賢)→숭도사(崇道祠)→주장사(朱張祠)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장(朱張) 학통의 계승이라는 학술적 가치를 마련, 악록서원만의 학술적 특색을 형성하였다. 청대 말기에 이르러, 악록서원의 원내 사우(寺宇)는 대략 28곳이 있었으며, 100여 명 이상의 인물을 제사 지내게 된다. 이는 미증유의 규모로, 중국 서원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사례에 속한다. 악록서원의 제사는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 숭도(崇道), 숭교(崇教), 교화(教化), 여지(勵志), 숭신(崇神) 등 몇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주요 목적은 모범적 전형(典型)을 수렴하여 생도들을 권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湖南大学岳麓书院教授 / denghongbo2000@126.com

(勸戒), 선현을 본받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이는 분명 주요한 교육 방식이자, 학술적 테제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며, 또한 상징적 문화가 추구하는 기능을 구현, 그 배후에 유학을 존송하고 도(道)를 중시하는 사고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학풍을 선도하고 생도들을 교화, 궁극적으로는 문명(文明) 의식을 배양하는 데 일조하였다.

주제어 : 악록서원(岳麓書院), 제사(祭祀), 제향인(祭享人), 공지당(孔子堂), 주장사(朱張祠)

## I. 序

祭祀是我国古代书院规制中一个极为重要的组成部分, 它的主要作用在于树立典型模范, 对生徒进行教育, 以达劝戒规励, 见贤思齐之目的, 是一种重要的教育形式. 这种教育方式既有其可取之处, 亦有其落后的地方. 如何批判继承, 为教育体制改革, 为建设具有中国特色的教育事业提供经验教训, 是一个很值得研究的问题. 谨以“天下四大书院”之首的岳麓书院为例, 对书院祭祀问题作一个案性的探讨.

## II. 祭祀的历史演变

岳麓书院从创办时起就设俎豆, 祀孔子. 王禹偁《潭州岳麓山书院记》载: 咸平二年(999)李允则重建书院时, “塑先师十哲之像, 画七十二贤, 华衮珠旒, 缝掖章甫, 毕按旧制, 俨然如生”. 可见朱洞时期就塑身画像, 释奠孔子及其门人中之贤哲, 始开岳麓书院的祭祀活动. 整个北宋时期受祀于书院的只有孔子及其贤弟子, 这和当时州县儒学没有区别, 他们是山长们给住院长生徒树立的榜样. 供祀的地方在张舜民的《郴行录》中记作“孔子堂”, 这也反映

出孔圣一门独享岳麓香火的情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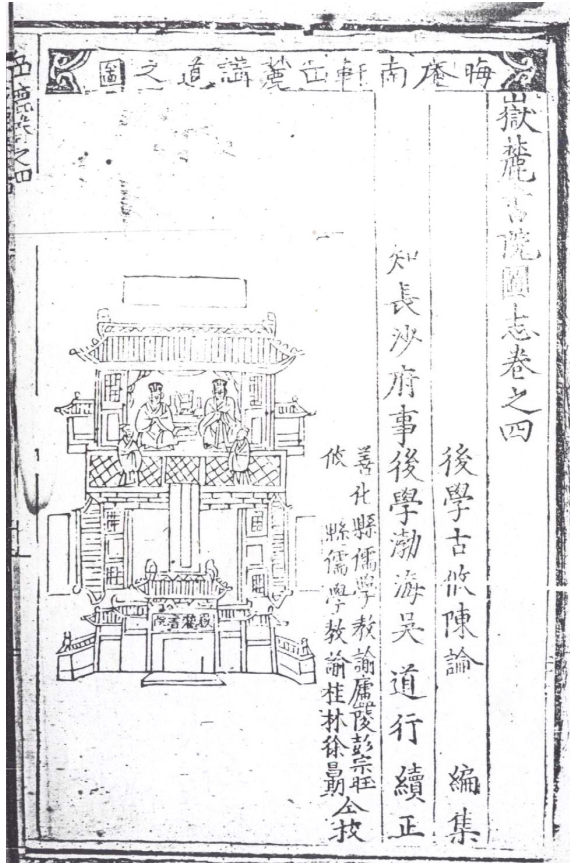
到南宋，孔子独坐岳麓祭坛的局面就打破了。陈傅良在《潭州重修岳麓书院记》中讲到他淳熙十五年(1818)参观岳麓书院时，曾谒诸先生祠下。“诸先生祠”始建于何时，已难于考证，但淳熙中已经有了，这是可以肯定的。所谓“诸先生”指哪些人，也无记载。嘉定年间真德秀安抚长沙，曾诣岳麓书院，祭祀朱洞·周式·刘珙，著有《祭太守朱公·山长周君·安抚刘公文》，或许此之“三君子”即彼之“诸先生”。

元代延祐元年(1314)，“郡别驾”刘安仁新建“礼殿”奉祀孔子，又以张栻·朱熹两位理学大师“合祀朱郡守·周山长·刘安抚，额曰诸贤祠”。<sup>1)</sup>所谓“诸贤”就是学术宗师和书院功臣。祭祀这样的人，无非是想向生徒们提出更贴近更实际的追求榜样。孔子是圣人，历代统治者的捧抬，使他具有神的“灵性”和光环，凡世的一般士子已是可望而不可及了。要求过高反倒不能达到目的，而在这里讲过学·论过道的朱·张两位理学大师，他们这时还没有被套上神的光环，还不是那样至善至美，但确实又具有“高尚”的情操和博深的学问，士子们只要努力，则可达到他们的境界。因此，他们就自然成了理想的“典型模范”而被推到住院诸生的面前了。将书院功臣放到礼拜之列，宣讲他们的事迹，也会使士子感到建院办学的艰难，进而想到认真学习，切磋商求真，以不负先辈育人养士之“盛心”。应该讲，这种用心是好的，这种典型模范的教育方式也是可取的。

明代岳麓书院的祭祀，依循宋元以来的指导思想，得到了进一步的发展。成化五年(1469)，知府钱澍重建时，肖孔子像于前殿，肖朱熹·张栻像于后堂。弘治年间，通判陈钢修“崇道祠”，又名“朱张祠”，专祀朱熹·张栻两人，绘像设祭，这是岳麓特祀朱张两位学术大师的开始，反映出当时岳麓的学术风尚。嘉靖年间，又悬挂“正脉”匾额于朱张祠，彰明朱张之学在理学中的正宗地位。到万历年间，巡按甘仕介“鼎新祠宇”，又令人作记修文，将“正脉”匾改成“斯文正脉”，还建立了“继往开来”的牌坊，“朱张祠”的建设盛极一时，而张

1) 清·赵宇《新修岳麓书院志》卷三，《旧志·朱张祠图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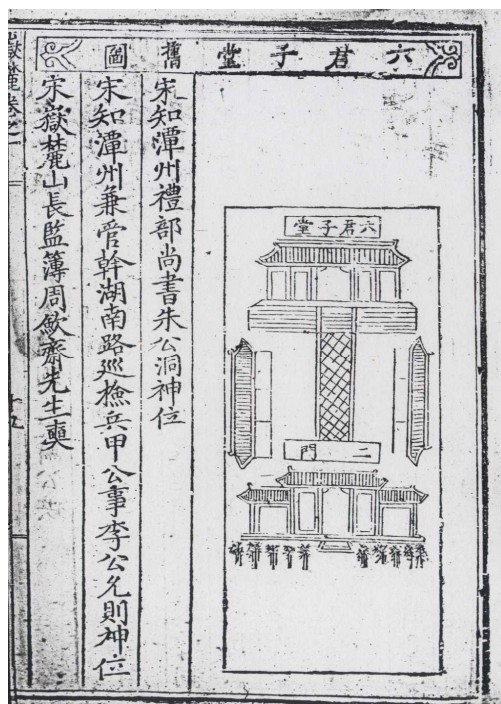
棧·朱熹在岳麓书院的地位就更加突出了。



万历《岳麓志》所载朱张会讲图

朱张两人从“诸贤”中独立出去之后，其他“贤人”则另辟“慕道祠”供祀，香火不断。到嘉靖五年(1526)，学道许宗鲁·知府杨表改旧院讲堂为祠宇，供奉宋潭州知州朱洞·李允则·安抚刘珙·山长周式·明通判陈纲·同知杨茂元等六人，故名之曰“六君子堂”。这是岳麓专祀书院建设功臣的开始。“夫六君子之祀，谓其有功于斯文也”。其后凡有功于书院者都得供祀于此，如万历十八年(1590)长沙知府滨洲吴道行，重修文庙·书院，“有大功于斯地，道脉赖焉。

乃易其旧像之颓者，更置一位，祀于六君子堂，堂遂以七君子名矣”。<sup>2)</sup> 一时之间，六君子堂遂改名七君子堂了。其实有功于岳麓者并不止六七君子，如宋亡院毁之后，重创书院的刘必大·刘安仁；明代成化年间，重建书院的钱澍，先后兴教置田，对书院建设作出了重大贡献的王秉良·孙存·潘谧·季本·杨溥等，论其功都不在六君子之下，因此崇祯年间修《岳麓书院志》时，就将祀奉书院功臣的地方仍旧恢复“六君子堂”之名，并把包括吴道行在内其他有功人员的名字著于《六君子堂》篇首，“以志表扬”。到清代，则更是将他们的名字制榜悬挂在堂内，供人瞻仰。



万历《岳麓志》所载六君子堂旧图

2) 明·李胜芳《重修岳麓书院碑记》，见清·赵宁《新修岳麓书院志》卷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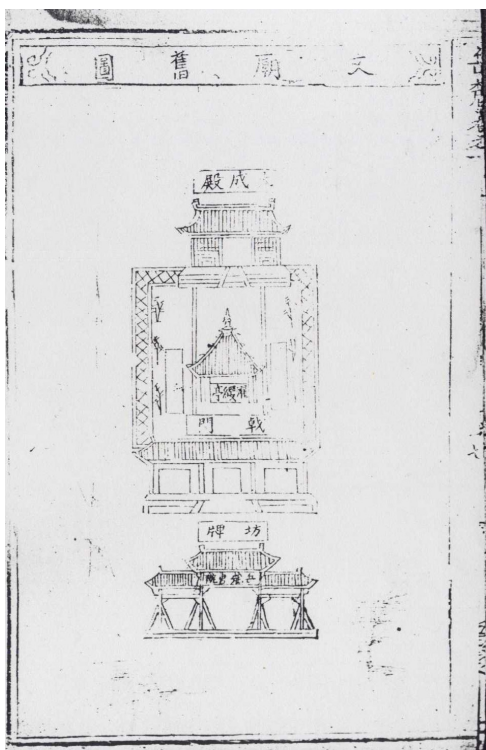
除了崇祀学术大师和书院建设功臣之外，明代在祭祀上还有一项新的内容，那就是为历史上与岳麓有关的诤臣谪宦建祠致敬。万历四十四年(1616)，道乡先生邹浩的十八世孙邹志隆任湖南学道，他与知县潘之楫等一起，“构宇三楹，中设一木主，神有依也；左横列道乡台碑，旧可仍也；右横列道乡台记碑，事足征也”，<sup>3)</sup>又置田四百亩，令僧人本空收租住持，以奉祭祀。<sup>4)</sup>邹浩字志完，自号道乡居士，北宋哲宗时任“右正言”，因为直谏，“以言事落职”。徽宗即位后，又起用为“中书舍人”，因与蔡京不合，引起蔡的忌恨。后蔡京当政，于崇宁二年(1103)将其排挤出朝廷，谪令为衡州通判。途经长沙时，潭州知州温益，趋炎附势，不仅不以礼相待，反下逐客令，邹只好冒雨渡江到岳麓山投宿。岳麓寺僧人列炬相迎，士人拟请邹浩讲学。温益得知此讯，害怕蔡京怪罪下来，丢了乌纱帽，竟令人带兵连夜出城，强逼邹浩登船“凌风绝江而去”。这样的忠诤敢言之臣，这样的权奸，这样的附势小人，都是教育生徒的活生生的材料，它可以告诉他们“应该这样”，而“不应该那样”。书院的当事者们之所以要学生春秋瞻仰，朔望谒拜，就是想发挥其教育作用，以达到塑成高尚人格·造就人材的目的。

在岳麓祀事上，明代还有一件大事，即正德年间参议吴世忠将供祀孔子的礼殿从书院中迁出，鼎成于院舍左面，“殿后建明伦堂，前增伴池·仪门·棂灵门。翁翁直指建泮桥·濯缨·洗心亭于殿前，而圣庙始巍然有专地矣”，<sup>5)</sup>所谓“位秩称体”，正式形成左庙右学之制。此前岳麓只有“礼殿”·“宣圣殿”以供奉孔子，这时以郡县学宫庙制鼎新而与书院并列，形成现存之格局，意味着孔子在岳麓受祀群中至高无上的地位就此形成，显示出它高出于一般书院的地位，但也从一个侧面反映出岳麓书院官学化的趋势。

3) 明·邹志隆《重修邹道乡先生台记》，载清·赵宁《新修岳麓书院志》卷七。

4) 对邹浩的纪念及以其为榜样来教育生徒的活动，始于南宋乾道年间，当时张栻筑台，朱熹题额为“道乡台”，以示“仰止之思”。但真正以祭祀的形式出现还是在明代。

5) 清·赵宁《新修岳麓书院志》卷三，《旧志·圣庙图说》。



万历《岳麓志》载文庙旧图

到清代，岳麓书院的祭祀就更加发达了，除了恢复重建文庙·朱张祠·四箴亭·六君子堂·道乡祠外，康熙初年车万育·潘如安·陶汝鼐·陶之典等湘中“耆旧同建文昌阁”，<sup>6)</sup> 阁内供奉文昌帝君神像，凡“在院诸生获隽者，悉得题名其间”<sup>7)</sup>，以示表彰。乾隆五十七年(1792)，湖广总督毕沅到书院，“指书院前坪田中土阜曰：斯地若建魁星楼，可以发甲”<sup>8)</sup>，于是建魁星楼以求科举夺魁。到嘉庆十年(1805)，岳麓书院生彭浚还真被点中状元，成为佳话。嘉庆元年(1796)，兴建三闾大夫祠，祀屈原，加上贾太傅祠，祀贾谊，附宋玉·唐勒·景

6) 清·袁名曜《重修岳麓书院文昌阁记》，见清·丁善庆《岳麓书院续志》卷一。

7) 光绪《善化县志》卷十一。

8) 清·丁善庆《岳麓书院续志》卷一。

差·司马迁, 将湖湘文脉上溯到先秦两汉. 嘉庆十七年(1812), 山长袁名曜等捐建濂溪祠, 祀理学创始人周敦颐, 加四箴亭奉祀程颐程颢兄弟, 与崇道祠的朱熹·张栻, 构成完整的理学体系. 嘉庆二十三年(1818), 又新建崇圣祠, 供奉孔子及四配“先代”. 其他兴建时间不明的还有李中丞祠, 祀巡抚李发甲, 以清代对书院建设作出较大贡献的丁思孔·李湖·陆耀·陈宏谋·刘权之等附祀; 院长罗典专祠, 祀罗典, 附祀宋欧阳守道·顾杞·明熊宇·张元忭·陈论·叶性·清车万育等; 以及船山祠·岳神庙·奎光阁等等. 据《岳麓续志》卷一《公襄祀典呈词》记载, 嘉庆前岳麓“设祭凡十五处”, “自嘉庆年间, 陆续动项兴修及捐建祠宇, 又增十有二处”. 同治五年(1866)又建有欧阳厚均专祠, 前后相加, 计有二十八处之多, 受祀者达百人以上. 岳麓祠宇之众, 实为前所未有, 亦属海内其他书院所罕见.



乾隆《长沙府志》所载岳麓图



### III. 祭祀的类型及作用

岳麓书院众多的祠宇庙堂，按其内容·性质，可以分为崇道·崇教·教化·励志·崇神等几种类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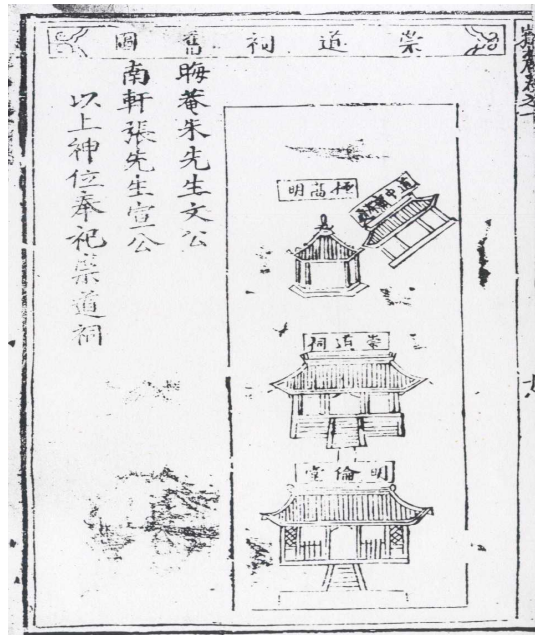
崇道型：它反映出岳麓的学术风尚和追求，文庙(大成殿)·崇圣祠·濂溪祠·四箴亭·朱张祠(崇道祠)等都可归于此类。儒家思想是古代中国的统治思想，具有原则指导性，是大家都要遵循的，因此祭祀孔子及其门下贤哲是不可少的。而儒家思想又有不同的流派，自宋以后的后期中国封建社会占统治地位的思想是程朱理学。乾道间张栻·朱熹会讲于岳麓，绍照中朱熹又安抚潭州，“自此以后，岳麓之为书院非前之岳麓矣，地以人而重也”，<sup>9)</sup>人则以学术情操为重。“潭人之言，文公集诸儒之成，以明圣贤之道，讲学于兹；吾师焉，按抚于兹，吾师焉。南轩鸣世大儒，并时同业，夫所谓过化者存焉，吾祀之”。<sup>10)</sup>朱·张学术思想在岳麓的影响自此经久不衰，就是明代王学学者在这里讲自己的学说，也不得不对其有所归附。张栻·朱熹之所以能够在岳麓书院享祀几百年的真正原因就在此。所谓“朱张之别祀，……崇道学，……从书院也”，<sup>11)</sup>“祀朱张，崇道也”，<sup>12)</sup>正是这个意思。清乾隆皇帝赐额“道南正脉”，其意也在于表彰岳麓在传播理学上的特殊贡献，是对岳麓学术传统的一个“正式”承认。朱·张之学，是继承周·程之学的，不忘学术祖师，周·程也就在岳麓祭祀中占有一席之地了。总之，像讲经精舍之祀许慎·郑玄一样，岳麓书院为张栻·朱熹等立祠，反映了它之信奉朱·张之学术传统和风尚。这类祭祀的作用，在于提醒书院诸生要分辨义利，坚持“朱张型”的儒家思想路线，而不要偏离其轨道。

9) 元·吴澄《建岳麓书院记》，载清·赵宁《新修岳麓书院志》卷七。

10) 明·黄衷《岳麓书院词祀记》，载清·赵宁《新修岳麓书院志》卷七。

11) 清·赵宁《新修岳麓书院志》卷三，《庙祀》。

12) 明·黄衷《岳麓书院规已记》，载清·赵宁《新修岳麓书院志》卷七。



万历《岳麓志》所载崇道祠旧图

**崇教型**：书院的六君子堂·李中丞祠·罗典专祠·欧阳厚均专祠等所供祀(包括附祀)的人都对书院的建设发展作出了重大贡献。朱洞·李允则·周式是岳麓书院开创时期的人物，他们的努力，使书院名扬天下，使湖南地区抛掉了文化落后的帽子，“谁谓潇湘，兹为洙泗；谁谓荆蛮，兹为邹鲁！”教育之功是难以磨灭的。刘珙·陈钢·杨茂元等使荒废的书院重振，罗典主院二十七年，修书院八景及诸多亭祠堂舍，欧阳厚均则有弟子三千……他们都是岳麓的功臣，是湖南教育的功臣。历代统治者以为“帝王之为天下，治与教而已”，<sup>13)</sup>有功于书院，既是有功于“教”，因此，奉祀这些有功于书院的人也就是“崇教”之举了。所谓“更堂焉，以祀朱洞·李允则·安抚珙·山长式·郡倅钢，序位以世，崇敬也”。<sup>14)</sup> 崇教的目的则在于提醒官于斯·宦于斯·教于斯的后来之人，

13) 元·虞集《道园学古录》卷八，《董泽书院记》。《四部丛刊》本。

14) 明·黄衷《岳麓书院祠祀记》，载清·赵宁《新修岳麓书院志》卷七。

不忘前人办学之功，兴教之劳，感奋相继，坚持努力，使书院不辍不衰，弦歌相续。也在于使生徒记住兴办书院之不易，教育他们珍惜学习机会，掌握“传道济民”的本领，不负青春韶华，不负书院功臣们望其成才的“盛心”。

**教化型**：即以受祀者的事迹，感化生徒，从而达到教育的目的。道乡祠·三闾大夫祠·贾太傅祠等都可收入这一类型。这些人都是历史上的忠介耿直之臣，又均遭贬谪，然则其精神风范后世诸生，是进行典型模范教育的活生生的材料。如乾隆间赵申乔重修道乡台并作《重修道乡台建祠堂记》，在记中他曾不无感慨地说：“嗟乎，先生（指邹浩）之没已数百年，而眺其台如见先生焉，拜其祠又如见先生焉，彼章惇·蔡京·温益辈虽得志乱朝，而至今齿其姓名牧豎犹为唾骂，则先生可无憾，而后之为惇为京为益辈嫉正若仇误国流殃者，不亦当瞿然悔悟，以免为山僧之所窃笑哉！”<sup>15)</sup>既有正面教育，又从反面规矩，教育效果则不言自知了。

**励志型**：岳麓书院的船山祠，供祀着明崇祯时期的学生王夫之。船山的民族气节和学术成就，是高尚和卓越的，将他树为榜样，使诸生见贤思齐，更能达到教育的目的。圣人·先贤·历史上的诤臣毕竟离生徒远些，而同是生徒的王船山就会使生徒们感到亲近些，“可望而可及”，他们自然在祭祀之中就会以之为准绳来要求自己·磨砺自己了。张挂在文昌阁中的历年来中乡试·会试·殿试者的姓名榜，其教育作用与船山祠同。我们把这种以同类来教育同类的祭祀，称之为励志型，即将诸生中的杰出者推作榜样，使其余人自我磨砺，以求进取。

**崇神型**：还有一些，不是对人的祭祀，而是拜倒在神明的脚下，则基本属于迷信的范围了，如魁星楼·岳神庙·奎光阁等。文昌阁也属于这一类型，它供奉着人造的“职掌科名，则又扶翼圣教”的神—文昌帝君。把生徒的努力成名，附会成神灵的保佑，人为地使人跪倒在神的脚下，这是不可取的，也是祭祀这种教育形式所固有的落后性发展的必然结果。

15) 清·丁善庆《岳麓书院续志》卷四。

#### IV. 祭祀活动

书院祭祀自有一定的程式，每年春秋要举行两次大的活动，地方长官都要来参加。春祭定于二月初三日，秋祀则在八月初九日。每月朔望也要拜谒各神人贤哲，一般由山长领着进行。岳麓书院的祭祀活动虽从北宋建院时就开始了，但宋·元·明历代都没有留下具体的记载，清代留下了记述乾隆六十年(1795)祭祀活动文字，其称：

今秋八月初九日值丁祭，以场期故，移祀月之初吉。先时合鑄銀三十五兩，(圣殿)具太牢禮，兼牛·羊·豕三物；文昌別具少牢祀，兼羊·豕。凡酒食饗果之屬，并期丰洁。又置灯杆凡四，高各数丈，贯方斗如斗之魁，以其二标魁星楼正向，又二则分列书院院门左右焉。制铁丝瓔珞各状，取文光福曜，荟萃名山，以发云路齐登之兆。鼓乐彻三日夜，鞭爆应山谷，约数万响不啻。燃灯，起朔日，讫于望日，历半月乃止。远近瞻瞩，毅然欢欣，神灵盼饗，庶其鉴兹矣！<sup>16)</sup>

从这里我们可以看到，当年隆重热烈的祭祀场景。到嘉庆二十一年(1816)，院长袁名曜“倡议遵依定制，以每岁仲春初三日设特祀”于文昌阁，<sup>17)</sup>次年又公议出二月初三日祭祀条规。兹将其抄录如下：

祭品(除牛牲系佃户承办外，余物照价发给现银现钱，交门堂夫买办，不得赊账滋弊)。文昌阁：牛一·猪一·羊一(共三俎)，鸡·鸭·猪肚·猪肝·鲜鱼·海参·蛙干·猪腰(共八碗)，果品实笼豆(香·酒·烛·帛·爆竹随买听用)。奎光阁：雄鸡一只，生肉一方，鲜鱼二尾。

颁作：赞礼四人，读祝一人，纠仪一人，执帛爵二人，共八人，各颁羊肉一斤，余羊肉尽数颁主祭者(羊头·羊血·羊杂作赞礼等八人先夜点心)。与祭者，各颁猪肉一斤；山长家人及鼓乐四名，堂夫二名，看司一名，更夫二名，佃户一名，各颁肉一斤；四斋斋夫每斋须颁肉二斤。文昌阁祭，授一席颁主祭者。奎光阁三牲祭品，颁赞礼等八人。<sup>18)</sup>

16) 清·丁善庆《岳麓书院续志》卷四，罗典《新增丁祭公费记》。

17) 清·袁名曜《岳麓书院文昌阁祭田碑记》，见清·丁善庆《岳麓书院续志》卷四。

这些使我们可以了解到当时丰盛的祭品和祭祀活动的组织情况，由此我们可以想象到当年湖南巡抚·长沙知府·长沙善化二县县令等地方长官会同岳麓书院院长·监院带领诸生跪拜的情况。这种香火缭绕，神座高踞，人灵拜倒的祭祀形式，使生者在死者面前，人在神面前显得那样的渺小·无能·无力，彰显一种神圣与宗教的庄严。神对于人，死者对于生者具有一种无形而又巨大的压抑，这种压抑必然会导致人的“自信围堤”的崩溃，出现向神向死者乞灵的可悲局面。这是书院祭祀教育的反动，也是我们今天所必须摒弃的。

秦际唐“高祖天祐，太学生”，“祖学诚，邑增生”，其父秦士科早卒，时秦际唐方四岁。家道中落，母亲何氏守节抚孤，以纺织佐生计，以经书授子嗣，“每届岁暮必令际唐背诵一岁所读书，破窗风雪一灯焚。际唐手一卷，太宜人刺绣其侧，或诵昌谷·香山诸集以和之。际唐倦甚，则令暂卧顷刻之，寔促使读寒钟卷。在母亲殷切期盼下的秦际唐力学不倦，声名日起，但平静恬淡的少年生活终在其十四岁时被战乱摧毁殆尽。咸丰三年(1853)二月，太平军攻克南京，时秦际唐随母依外家居陶氏园，户外杀声沸腾，万众奔走，舅父何师孟“从容集家人，置酒笑且言”，誓以死效法屈原。二月十三日黄昏时分，薄暮苍烟，何氏率先殉难，秦际唐随母投池，得邻人相救不得死，“生既不能为藜藿之养，死复不能为桐棺之敛”是秦际唐一生的遗憾。这一年的南京城乱，死者难记，存者惊心，“自大府以至丞倅皆殉焉，其时衢巷火光□昼夜不绝，垣墉栋□之属倾折如万霆，官私陂池积尸几满”，秦际唐的母亲何氏，老师陈自超·马庆淳皆在这场灾难中殉节，读书人忠君爱国的观念以最惨痛的经历刻进了秦际唐的精神世界。

太平军占领南京后，秦际唐流离乡外，萍踪靡常，大约活动在东南一带。咸丰十年(1860)与陈氏匆匆婚嫁，“何期三日，近郊烽火，羹汤未调，急装已裹”，后由苏州到松江(今上海)，三百里程，稍获安居却倏惊转徙，是年太平军二破江南大营，进攻上海。十二年羁旅播迁，思乡之情未肯忘却，圣人之学亦不敢懈怠一日，秦际唐一直潜力笃学，整身躬行，终于在咸丰十一年

18) 清·袁名曜《文昌阁祭田契券碑》。碑今嵌岳麓书院文庙大成殿内。

(1861)取得拔贡第一名。拔贡自乾隆七年(1742)定制为“十二年一举”，名额为府学二名，州·县学各一名，“历届岁·科考取经古及一等最多者”在资望审核合格后才能应考拔贡，考选难度之高可见一斑，第一名的好成绩亦足观秦际唐学识之卓越。同治三年(1864)，在外飘蓬的秦际唐忽闻湘军攻破南京，心下茫然，不敢相信，待万口喧传确认无疑，才喜极而泣，写下诗歌《甲子六月十六日官军克复江宁喜而有作》，一句“料理归装载行李，秋风一棹还家乡”蕴含着多少对故土的眷恋之情，而归乡的秦际唐也开启了人生中最悠闲自得的书院时光。

## V. 祭祀的文化意义

祭祀除了上述教育意义之外，更有彰显学术主张，标帜文化追求的功能，岳麓书院濂溪祠·屈子祠的创建即是最好的例证。

理学的开山祖师周敦颐是道州人，南宋以来，凡言湖湘学统者概莫能外濂溪先生，宋代真德秀《潭州劝学文》如此，明代陈凤梧《湖南道学渊源泉》如此，万历《岳麓志》有“道统图”与“圣学统宗”二目推演其说，濂溪周先生自然都被尊为道学湖南一派的始祖，至清代，康熙年间重建岳麓书院的一代官绅，更是不忘援引濂溪而彰湖湘学术之势，主持重建的巡抚丁思孔就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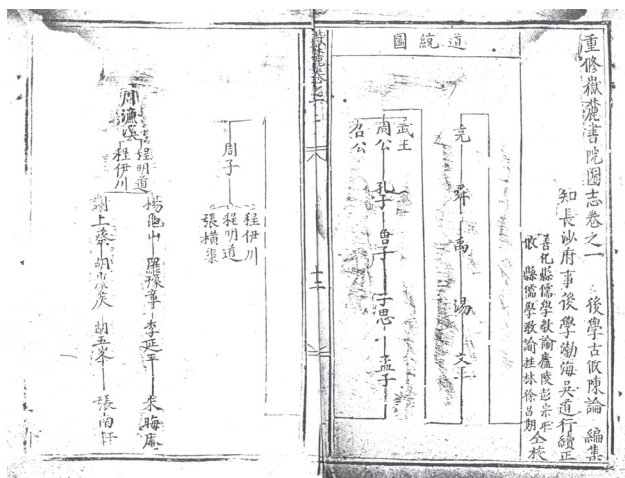
岳麓之重系于书院，皆诸儒明道继统之地，非直登临游览之资也。试俯仰以观古今之际，自屈子·贾生忠愤无聊，发为骚赋，后之流连凭吊，世不乏人，然犹托之咏歌藻丽，以寄孤臣迁客之思。至宋而朱公创建书院，振起儒风，则有濂溪先生出于道州，首明圣贤性命之学，继往开来，自是道统相传，龟山·文定·南轩·晦庵诸先生，皆于此地讲学设教，造就生徒，学者之盛至比濂溪于洙泗，岂一郡邑·一山水所可拟议而衡量者哉？<sup>19)</sup>

19) 清·丁思孔《岳麓书院志序》，载康熙《岳麓志》卷首，见湖湘文库本《岳麓书院志》第163-164页。

按察使郑端为康熙《岳麓志》作序时称：

赖衡岳钟灵，笃生周子于道州，以上接孔孟。又百余年，广汉张子家于潭，新安朱子官于潭，相与讲习于岳麓，而书院之名遂历久而弥著。至于为学之要，则周子主静，张子求仁，朱子居敬，入门虽别，而归宿则一。……今从学之士，有能敬以求仁而静虚动直者乎？若犹未也，则请从事于严威俨恪，动容貌，整思虑，正衣冠，尊瞻视之数语，而下学上达焉。三贤在望，庶旷乎其若接。<sup>20)</sup>

康熙《岳麓志》更有“湖南道统”一目，强调岳麓朱张正学源自周子濂溪，其下先儒列传载宋周敦颐、杨时、胡安国、胡宏、张栻、朱熹、真德秀、魏了翁、李燾、明张元忭、王乔龄等十一人传记，实即以此落实湖南道统之流演图谱，意在“开道化”，续正学，以彰湖湘学派之盛大。而康熙、乾隆二帝赐“学达性天”、“道南正脉”二匾，濂溪更被钦定为岳麓书院的固有学术资本之一，成为绕不过的话题。



万历《岳麓志》所载《道统图》

20) 清·郑端《岳麓书院志序》，载康熙《岳麓志》卷首，见湖相文库本《岳麓书院志》第167页。

但令人奇怪的是,以“濂溪”称名的书院·祠堂凡数十见于湖南各地,岳麓书院却长久以来没有创建濂溪祠的动议.嘉庆年间,有好事者附濂溪木主于贾太傅祠,此为岳麓祭祀周敦颐之始,但引发不小的学术争议.

屈原为楚国大臣,因改革被流放沅湘.楚灭于强秦,以报国无门,乃自沉汨罗江殉国.及至汉文帝时,洛阳人贾谊被贬为长沙王太傅,作赋以吊,感叹“逢时不祥”,司马迁以其际遇相类,作《屈贾列传》于《史记》.自此,湖南就有屈贾之乡的说法,屈贾之祠遍布沅湘.但具体到省城长沙,则清代嘉庆以前还没有屈原专祠,<sup>21)</sup>屈子木主仅附于城内贾太傅祠中,这与湖南屈贾之乡的称谓显然不相称.

嘉庆元年(1796),甘肃武威人张翊权知长沙府,认为“庙祀阙如”,屈子忠魂难归,大有不妥,遂与湖南学政直隶大兴(今属北京)人范鳌·岳麓书院山长罗典相商,创建屈子祠于岳麓书院,并作《建修屈子祠记》,详叙其创建缘由,其称:

屈子以忠而放逐,憔悴忧郁,沉于汨罗以死,夫人而悲其志矣.往余守彝陵,属车过秭归,访屈子宅墟矣.而女婁庙,捣衣石,土人犹能言之.故屈子血食,彝陵有焉.顾汨罗在长沙·湘阴之间,而庙祀阙如,岂魂兮归来,独不问诸水滨乎?而访诸都人士,则附其主于贾太傅祠.夫贾生之才与遇,虽仿佛屈子,而前后相去殊绝.瓣香而尸祝之,当先楚后汉,跻雒阳而桃相累,乌乎可?爰谋之范学使叔度及郡绅罗鸿翔·慎斋两先生,倡议建祠,卜于衡岳之麓.近讲院,辟隙壤,分廩帑官俸之入,得约三千金.慎斋先生躬督其事,鸠工庀材,经始于丙辰之季冬,越明年又六月告成.殿宇巍然,神灵以妥.从此,衡山湘水,虽妇孺渔樵,亦攀香草,思美人矣.岂独执经髦士,有所观感而兴起哉?<sup>22)</sup>

21) 清·欧阳厚均《岳麓诗钞》卷十九,收有清兴国州人马之图《吊屈贾祠》,内有“岳麓岚开祠树古,昭潭浪卷棹歌春.悲笳万古湘君泣,野老依然荐采苹”之句,其时约在康熙前期,但在《岳麓志》·《湖南通志》等,不得其创建沿革始末,且屈贾祠者,并祀二人可知.

22) 清·张翊《建修屈子祠记》,载同治《岳麓续志》卷四,见湖湘文库本《岳麓书院志》第640页.



湖南作为“屈子《离骚》故地”，省城书院创建专祠堂奉祀，得到了巡抚·学政以及藩臬监司诸大僚的赞许与支持，如巡抚姜晟就“深嘉此举有合古人乡于教化，兴于行谊之意，而又为之经其久远”，倡导下属官僚捐资，共得一千金，购买田地，作为屈子祠祭田，以为“将来修补计及香火之资”。<sup>23)</sup> 据《岳麓书院续志》卷一《庙祀》·《田额》记载，屈子祠祭田有十石，在瓦店铺，契约存长沙府署，粮载善化县七都麓字二区，议定佃规银一百两，“岁收租壹百石，国租杂税有差，招僧主持香火，并为每岁修补之计”，这是典型的专款专用。僧人主持祠中香火，岁修经费皆有着落，正常情况下，这些就足以保证祠宇的正常运作。

岳麓书院创建屈子祠，有着双重的文化意涵。第一重是直接的，其核心是倡导忠诤爱国的优良传统，并将其上溯于楚国与西汉，使其根深而祈叶茂。第二重是间接的，由修屈子祠时附建贾太傅祠中之从祀周敦颐引发争议而来，其核心是学术传统，隐含汉宋矛盾，其趋向是排斥汉学崇尚宋学，由朱张而上溯于濂溪，最终确立湖南学术道统。

岳麓书院倡导爱国主义传统，由来已久，其明显标志是南宋乾道年间，张栻筑道乡台纪念北宋诤臣邹浩，朱熹题额，以示“仰止之思”。邹浩字志完，自号道乡居士，宋晋陵人。尝从程颐问学，以道学行谊称于世。北宋哲宗时任“右正言”，直谏而“以言事落职”。徽宗即位后，又起用为“中书舍人”，因与蔡京不合，引起蔡的忌恨。后蔡京当政，于崇宁二年(1103)将其贬为衡州通判。途经长沙，潭州知州温益，趋炎附势，不仅不以礼相待，反下逐客令，邹只得冒雨渡江投宿于岳麓山。山僧列炬相迎，士人则拟请讲学，其冷暖大别。温益得知此讯，害怕蔡京怪罪，丢了乌纱帽，竟令人带兵连夜出城，强逼邹浩登船“凌风绝江而去”。<sup>24)</sup> 这样的忠诤之士，这样的权奸之臣，这样的附势小人，皆是教育生徒的绝妙教材。非常明显，张栻朱熹之筑台，非徒“示仰止之

23) 清·范鏊《屈子祠祭田记》，载同治《岳麓续志》卷四，见湖湘文库本《岳麓书院志》第641页。

24) 《迁谪三公传》，载康熙《岳麓志》卷三，见湖湘文库本《岳麓书院志》第244页。

思”以为纪念，其深意则在“发人感愤”，塑造诸生高尚人格。

秦际唐在课程中出类拔萃，同时意味着他能获得一份稳定的膏火奖励。清代书院膏火制度“是一种以地域为中心的公共性教育资助，是对寒士的一种补偿福利。南京书院的膏奖历来丰厚，以光绪年间的尊经书院为例，官课“超等三十名，每名二两二钱；特等七十名，每名一两一钱。初二日膏火，每月共一百四十三两。顾云亦言：“书院故事，月二日课于官，给膏火银颇厚；山长课以月十六日，十人外无所给，筹之郡绅，始给如官之半，士多资焉。与“一年的收入只有5两至10两银子，再加雇主供应的饭食”的底层劳工相比，成绩优异的秦际唐取得的膏火奖资足以应付一家人的日常家用，甚至略有盈余，事实证明也是如此：直至光绪十二年出任奎光书院山长前，秦际唐并未另谋如幕僚·训导·从军等稳定收益门路，“举人”身份也许会让秦际唐参加如光绪八年治理赤山湖等带有一定薪资的绅士事务，但自同治四年起的二十二年间秦际唐的生活始终围绕考试读书展开，他来回奔波于书院和考场·南京和北京，书院的膏火津贴应是其最主要的经济来源。自小家境贫寒的秦际唐却在此期间饮酒作宴不断，光绪六年还另聘妾室金姬，光绪十年(1884)南京雪灾他曾拿出一大笔钱财赈济，光绪十二年又修葺落成了南冈草堂，种种迹象表明，秦际唐在书院的头角峥嵘为其保证了相对充裕的物质条件，这也是支撑及激励其潜心笃学·专志折桂的重要因素。

除了获得稳定的生活环境，秦际唐在书院这个自由轻松的场域中，还凭借真才实学得到了高度的自我价值认同，且通过切磋交流初步搭建起了人际网络。时书院山长李联琇·周学浚“皆能宏奖后进，振拔单寒”，对才华横溢的秦际唐尤为青睐。同治十年主讲尊经书院的韩弼元“生平少所许可，独于际唐奖借不容口，暇辄勗以古人立身之义与诗文源流。际唐所业稍进，而齟齬之者蜂然并起，先生弗顾也。“夙有怜才癖”的薛时雨曾赞秦作“情生文耶，文生情耶，得此种文都为一册，令人不夏思杨用修·马章民矣”，将秦际唐比之杨慎·马世俊，字里行间尽是对高徒的惺惺相惜。秦际唐扞衣隅坐，与师长们析疑今古，论学纪事，得一字褒，珍于千金。需要注意的是，当时秦际唐

便常随师长饮酒高会，通过师长结识了张裕钊·薛福成·孙文川·曾国荃等名流达贵，诸前辈们古道热肠，奖掖后进，于秦际唐有知遇之恩。

明代因沿朱张之意，于万历四十四年(1616)由道乡先生十八世孙湖南学道邹志隆等“构宇三楹，中设一木主，神有依也；左横列道乡台碑，旧可仍也；右横列道乡台记碑，事足征也”，又置田四百亩，令僧人本空收租住持，以奉祀事。<sup>25)</sup>这是正式以祭祀形式倡导正气，教育诸生的开始。此后，由台而祠，道乡香火历数百年而不灭，既寄托后人敬仰之思，更标示着岳麓倡导忠诤爱国的不朽传统。惜乎祠台今已荡然不存，遗址虽可寻访，但“道乡”改作“稻香”，此“稻”已非彼“道”也，尤可哀哉！建议当政恢复旧名，用以教育在校诸生。

与邹道乡其事相若，其志趣相类，而又都曾涉足岳麓者，尚有明代王守仁·邹元标二位，他们都曾被树为教育诸生，磨励品行的榜样，如清康熙年间赵宁《新修岳麓书院志》卷三《列传》中，就有《迁谪三公传》，并载三人事迹，于其学问道德再三致意，而尤重其“忠直震于天下”之举。

由此可见，当年的书院建设者们对于固有的教育资源作了充分的利用。但也非常明显，是否涉足岳麓是能否进入书院祠宇的一个重要参数，也就是说先贤存神过化之“地”是指岳麓书院这一特定之“地”，范围很小，再怎么样，溯源而上只能到北宋为止，这不能不严重影响教育资源的开发。屈子祠的创建，打破了这种限制，它缘出于“湖南为屈子《离骚》故地”的认同，由岳麓而及湖南，其视野和胸襟已然开阔，历史的根基也更加久远和深入，其意义不仅仅在于增加了新的教育资源，也不仅仅在于书院自我提升，自觉担当起全省文化建设的责任，而在于它最终确立起了以屈贾为代表的忠诤爱国思想在湖湘文化中的源头地位。从此，在岳麓书院这一湖南最高学术与教育中心的神殿，就成为一种区域性文化的象征，而具有更为广泛的代表性，此则正是张翊“从此，衡山湘水虽妇孺渔樵，亦攀香草，思美人矣，岂独执经髦士有所观感而兴起”之说的意义所在。

25) 明·邹志隆《重修邹道乡先生台记》，载同治《岳麓续志》卷四，见湖湘文库本《岳麓书院志》第621-622页。

在岳麓书院建屈子专祠，一个最直接的动因是屈原神位原附于城内贾太傅祠中，这种先汉后楚的颠倒，张翊认为大为不妥。“贾傅恩殊楚放臣，吟骚投赋总酸辛”，<sup>26)</sup> 毕竟“贾生之才与遇”“仿佛屈子”，因此，在岳麓书院创建屈子祠的同时，就另建了贾太傅祠，形成屈贾分开并列的局面。不知出于何种考虑，贾祠中附有理学开山祖周敦颐的神位，争议由此而起。

嘉庆六年(1801)，无锡人秦瀛任湖南按察使，参予书院管理。他先是以屈公祠名不典雅，而改题为三闾大夫庙，在贾太傅祠中增设屈原弟子宋玉·景差·唐勒等人木主，继又以周敦颐未曾到过岳麓，而司马迁则“曾至楚，有《吊屈赋》可考”为由，将周在贾祠中的木主剝削，改题为“汉大夫司马迁”。周敦颐是湖南道州(今道县)人，被理学家尊为祖师，南宋时期开始人们就自觉地将其引为湖湘学统之源始，“地位崇隆，由濂溪而朱张，视为正统。今秦瀛为成全屈原之系列而将周之木主剝削改题，初衷未必不好，但他不察周之影响，无视周的地位，其实则得罪湖湘，甚至引起怨恨。最明显的例证是，主持岳麓书院长达二十七年之久的欧阳厚均在编纂《岳麓诗文钞》时，多次以案语形式，讥讽秦瀛这位秉臬楚南的高官为“通人”。<sup>27)</sup> 嘉庆末年，他作《移建濂溪祠碑记》，也对此提出了尖锐的批评，其称：

岳麓旧无濂溪周子专祠。嘉庆初年，吾师罗慎斋夫子掌教时，倡建屈公祠于山之阳。落成后，以其左为贾太傅祠，附周子主于其内。每朔望释菜，春秋丁祭，大成殿礼成，率诸生躬诣祠内行礼，岁以为常。厥后，有通人秉臬吾楚，以屈公称谓不典，易其额为三闾大夫，于贾傅祠内增设左徒弟子宋玉·景差·唐勒等主，复以周子未闻一至岳麓，乃即其主剝削之，改题为汉大夫司马迁，加丹漆焉。谓迁曾至楚，有《吊屈赋》可考也。近日遂有以汉侍中王逸尝注《离骚》，复增其主于祠内者。夫注《离骚》者前后数十家，往哲名流指不胜屈，安得人人而祠之？此其不待辨者也。至以濂溪未至岳麓而削其主，易其名如腐迁者，奚堪与大儒相颉颃耶？且如宋玉·唐勒·景差人品更不足论，亦尝涉足至吾楚之地耶？濂溪楚人，以乡人祀其乡先生，何地不宜？乃黜濂溪而祀诸子，通人固如是耶！嘉庆壬申，袁岷冈侍讲

26) 同治《岳麓续志》卷三，见湖湘文库本《岳麓书院志》第597页。

27) 详见《岳麓文钞》卷十七·十八，《岳麓诗钞》卷三十四。

为院长，始建专祠于书院内，特祀濂溪周子。<sup>28)</sup>

连续几个质疑，可以看出他对于“黜濂溪而祀诸子”的不满，进而是怀疑左徒弟子的人品，甚至对于惨遭宫刑的太史公缺少最起码的同情而称之为“腐迂”，我们明显感到其不满已燃烧成怒火，几乎到了丧失理智的程度。既然如此，那么，为秦按察使从屈贾系列祠宇中排挤出来的周敦颐创建专祠就成了唯一的理所当然的选择。

新的濂溪祠，位于供奉朱熹·张栻的崇道祠之南，按照传统礼仪，乃居下手之位。因此，到嘉庆二十五年(1820)巡抚李尧栋到书院视察时，就有“周视祠宇，以濂溪之有专祠，礼固宜之，惟祠在朱张两夫子之右，位置尚为不协”的批评。<sup>29)</sup>于是，山长欧阳厚均率诸生“请移于上”，位置则在奉供其学生程颢·程颐的四箴亭上手，旧祠则改题为纪念历代有功于书院建设者的六君子堂。经此迁移，院中祠宇的位置变得井然有序，由周敦颐而二程，由二程而朱张，正是湖湘学派发展的一个清晰脉络。这样，湖湘文化的学术道统就以祠宇的形式生动而形象地呈现在世人面前了。

28) 清·欧阳厚均《移建濂溪祠碑记》，载同治《岳麓续志》卷四，见湖湘文库本《岳麓书院志》第650页。

29) 清·欧阳厚均《移建濂溪祠碑记》，载同治《岳麓续志》卷四，见湖湘文库本《岳麓书院志》第650页。

**【참고문헌】**

- 元·虞集《道园学古录》卷八,《董泽书院记》.  
清·赵宁《新修岳麓书院志》  
清·丁善庆《岳麓书院续志》  
清·袁名曜《文昌阁祭田契券碑》  
湖湘文库本《岳麓书院志》  
光绪《善化县志》  
《岳麓诗钞》

Abstract

## Four Records of Sacrifice in Yuelu Academy

Deng Hongbo\*

Sacrificial offerings, together with lectures, collections of books, and school fields, constitute the basic regulations of the academies. At the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Yuelu Academy enshrined Confucius to show its Confucian identity, but it did not have its own characteristics. Since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hall of Confucius→the hall of rites→the front hall→the hall of the first teachers→the hall of Xuansheng→the Confucian temple, and then "rank and rank" has evolved into the system of left temple and right learn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Yuelu Academy; All the sages → Chongdao Temple → Zhuzhang Temple, raising the banner of academics, highlighting Zhu Zhang's academic tradition, and forming Yuelu's own academic characteristics. In the late Qing Dynasty, there were as many as 28 ancestral halls in the courtyard, and more than 100 people were enshrined, which was unprecedented and rare in other academies in China. According to its content and nature, Yuelu sacrificial offerings can be divided into several basic types, such as advocating Taoism, advocating religion, enlightening, encouraging, and worshipping gods. Its main purpose is to set up a typical model, to educate the stud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admonition and encouragement, and to learn from others. It is an important form of education. To reveal the role of academics, advocating Confucianism, leading the style of study, educating all

---

\* Professor of Yuelu Academy, Hunan University  
/ denghongbo2000@126.com

life, and cultivating civilization.

Key word : Yuelu Confucian Academy, ancestral rites, ancestral rites, Confucius Hall,  
Jujangsa Temple

논문 투고일: 2022. 11. 21 심사 완료일: 2022. 12. 11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17~18世纪中国书院的学术转型与官学化\*

陳時龍\*\*

- I. 序
- II. 晚明书院的丛议
- III. 以章道学：康熙年间书院的复兴
- IV. 雍正省会书院的示范效应
- V. 乾隆间书院建设的普及与管理加强
- VI. 十八世纪书院官学化及其学风转变

### 【국문초록】

17-18세기 중국 서원은 명대 말기 비판, 폄훼를 받았던 국면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학술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겪는다. 이 변화 과정 배후에는 최고 통치자의 지지 및 이로부터 발생한 서원의 관학화 현상이 그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순치(順治) 연간, 처음으로 서원 배척 정책이 이루어졌다가 이후 그 압박이 느슨해졌고, 강희(康熙) 연간에 이르러서는 정통(正統) 이념의 구축으로 말미암아 서원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옹정(雍正) 연간에는 성회(省會) 서원의 건립이 이루어졌고, 이에 서원은 점점 더 관방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또한 점점 커져 사회에서 긍정적 인식을 얻게 되었다. 옹정, 건륭 연간에는 성회 서원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부(府), 주(州), 현(縣) 및 산간벽지에서도 서원이 건립되어, 서원 수량이 청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선생과 학생을 직접 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도들의 진로 또한 보장해주는 등의 정책이 지속 시행되었기 때문에, 18세기의 서원은 안정적으로 각급 학술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이 200여 년 사이, 서원의 학술 풍조 또한 명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中国社会科学院古代史研究 研究员 / chenshilong@outlook.com

말기의 공담무실(空談無實)한 강학 방식에서 쇄신을 이루어 정주이학(程朱理學)으로 변화하였고, 재차 고거학(考據學)으로 전환을 이룬다.

주제어 : 서원, 성회 서원(省會書院), 관학화(官學化)

## I. 序

从十六世纪的明代书院, 到十八世纪的清代书院, 有巨大反差. 明代讲学书院虽然发展虽迅速, 创办兴复书院数量达1962所, 但官方态度却遮遮掩掩, 且时有禁毁之举, 因而也间接影响到舆论对书院的评价. 相反, 清代官方对书院的支撑特别明显. 清代书院的创建兴复改造, 76%以上为敕奏建设或由官员倡建. 在官民两种力量的共同努力下, 进入前所未有的繁荣期, 创建兴复的数量达5836所, 范围遍及城乡, 而且各级的官办书院稳定地成为全国各地大小不等的学术教育中心.<sup>1)</sup>从书院官学化的历史看, 相对元代书院的官学化, 清代书院的官学化是更有质量、更高层次的官学化, 使书院从此占据学术教育中心的地位. 没有清代的书院官学化, 就无法近代教育的学堂何以是从书院的基础上发展而来, 而不是从府州县的儒学上发展而来.

## II. 晚明书院的丛议

《万历野获编》为晚明沈德符在万历三十四年至三十五年(1606-1607)撰成的作品. 其卷二十四“书院”条云：

1) 邓洪波：《中国书院史》，武汉大学出版社，2012年版，第459、449页。

书院之设，昉于宋之金山、徂徕及白鹿洞。本朝日无额设明例。自武宗朝王新建以良知之学行江浙两广间，而罗念庵、唐荆川诸公继之，于是东南景附，书院顿盛。虽世宗力禁，而终不能止。嘉靖末年，徐华亭以首揆为主盟，一时趋骛者人人自托吾道，凡抚台莅镇，必立书院，以鸠集生徒，冀当路见知。其后间有他故，驻节其中，于是三吴间竟呼书院为中丞行台矣。今上初政，江陵公痛恨讲学，立意翦抑，适常州知府施观民以造书院科敛见纠，遂遍行天下拆毁，其威令之行，峻于世庙。江陵败而建白者力攻，亦以此为权相大罪之一，请尽行修复。当事者以祖制所无折之，其议不果行。近年理学再盛，争以皋比相高，书院聿兴，不减往日。李见罗在邕阳，遂拆参将衙门改造，几为武夫所杀，于是人稍有戒心矣。至于林下诸君子，相与切磋讲习，各立塾舍名书院者，又不入此例也。当正德间，书院遍宇内，宸濠建阳春书院于南昌，以刘养正为讲学盟主，招致四方游士，求李梦阳为之记，张璪尚为乡贡士，亦立罗山院于其乡，聚徒讲学，其不自揆类此<sup>2)</sup>

这段对于明代书院的综述，百分之九十反映的是对书院的敌意。在沈德符笔下，书院在十六世纪至少有以下一些足以让人排斥的特点：一、不合朝廷制度，即无额设明例，“祖制所无”；二、攀附权贵而活跃于社会，以徐阶讲学而天下一时趋附为代表；三、造书院带来的纷扰，或有借机敛财者，或拆毁其他公舍而引起矛盾；四、不肖之徒如朱宸濠、刘养正之流，以及资质不够的人物，像张璪做举人时，往往建书院以揽名。依此来看，十五世纪的书院在沈德符眼中几乎毫无是处，唯一的例外即是“林下诸君子相与切磋讲习”者，而似乎恰恰大量的书院背离了书院“暗修”的宗旨。这或者不仅仅是沈德符一个人的态度，而代表着当时人们对书院的相对普遍的看法。

十六世纪嘉靖、万历年间连续的毁书院运动，对于书院的打击是沉重的，它摧毁了人们对于书院完全正面的印象。尤其是万历初年张居正主导下的毁书院，给士人如何看待书院的心理带来了长久的阴影，在张居正万历十年逝世、邹元标等人在万历十二年上疏请重建书院获准之后，也没有完全恢复过来。万历后期众多的书院并未能恢复书院之名，而以堂、祠为名的不在少数。例如，四川著名的大益书院，初于正德十三年(1518)即万安旧宅始建，至

2) (明)沈德符：《万历野获编》卷二十四，第608页。

嘉靖十五年(1536)建成。得到历任巡抚、巡按、布政使、提学官、成都知府的支持,仅学田就曾以六百两白银在双流购入,岁租达四百六十石,<sup>3)</sup>乃得以“萃三川髦士除舍授廩,立程而教之”,可以说几乎有了后世省会书院的规模与影响。然而,大益书院在万历五年(1577)被毁后,万历十五年(1587)在提学副使郭子章的主持下,不过重兴了“大儒祠”,未以书院为名。<sup>4)</sup>这样的刻意的回避不在少数。明代山西太原府的河汾书院初名晋阳书院于万历初年废,万历二十一年(1593)巡抚魏允贞重修,改名三立祠,<sup>5)</sup>不称书院。可见,“非制”是明代书院的根本性缺陷。清人武一韩在乾隆二十一年(1756)的《新建凤山书院记》中追思明代山西太谷县书院的发展史时说:“稽之明初,谷邑建有凤山书院,鼓舞振作,人才蔚起……明之后叶,渐多忌讳,书院废而人文不逮于前。”<sup>6)</sup>

在没有制度保障的背景下,依托地方官员或者名流几乎是明代书院生存的唯一方式,而其弊端也因此滋生,即政治攀附或因此而起。攀附权贵与学术门户,成为时人对明代书院所贴的重要的负面标签。清人王昶在《天下书院志》中说:“往徐文贞(即徐阶)政地讲学,朝绅借以为市”<sup>7)</sup>。人们联想到十七世纪的首善书院之禁毁时,也往往批评讲学者的官僚官份与书院之不相称:“夫京师缙绅杂沓之地,一开讲学,贤寻共进,不能不为政蠹。徐华亭灵济之会已丛议于前矣。”<sup>8)</sup>另外,明代书院兴起及其与王朱之间的学术对峙,往往也容易让人们由书院想起学术上的门户。何乔远在《首善书院上梁文》中说:“惟是鹿洞、鹅湖,人易分为门户;蜀支、洛派,动或至于参商。”<sup>9)</sup>由东林、首善书院讲学,在天启间又再度引发毁书院之举,“毁天下书院,禁师徒之讲学者”<sup>10)</sup>。明末政治、社会的动荡,也不再能为书院提供一个良好的发展环境。

3) (明)陆深:《大益书院记》,《四川通志》卷八十,清嘉庆十二年刊本。

4) (明)耿定力:《大益书院大儒祠记》,《四川通志》卷八十。

5) 《山西通志》卷七十六晋阳书院条。

6) (清)武一韩:《新建凤山书院记》,乾隆《太谷县志》卷二。

7) (清)王昶:《天下书院总志》

8) 《说略·首善书院事》,转引自邓洪波《中国书院史资料》(上册),第816页。

9) (明)何乔远:《首善书院上梁文》,王昶《天下书院志》。

10) (明)刘宗周:《证人书院记》,《浙江通志》卷二十七。

### III. 以彰道学：康熙年间书院的复兴

邓洪波先生指出，清代书院政策走向有一个由防患到疏引，由抑制到开放的总趋势。入清以后，书院同样没有被列入到朝廷制度之中，而是在学校之外，顺治九年朝廷明诏各省提学官“不许别创书院”。清廷甚至因社会上对明末书院的负面的情绪而规定不得新创书院。<sup>11)</sup>因此，书院并没有在清初迅速地得到复兴，只是在一些理学士人和地方官的呼吁和倡导下缓慢地发展。顺治八年(1651)，归德知府王某重修范文正公书院，文人侯方域在《重修书院碑记》中说：“书院之设，与学校相表里，王化之本，而菁莪棫朴之盛所自出，是诚不可一日废。”<sup>12)</sup>但这种呼吁是不多见的。最早在朝廷层面提到书院的，是湖南巡抚袁廓宇。袁廓宇在顺治十四年(1357)上疏言：“衡阳石鼓书院，崇祀汉臣诸葛亮及唐臣韩愈，宋臣朱熹等诸贤聚生徒讲学于其中，延及元明不废。值明末兵火倾圮，祀典湮坠，今请倡率捐修以表章前学，兴起后学，岁时照常致祭。”<sup>13)</sup>这个建议得到批准。从某种程度上来说，顺治十四年湖南地区刚刚从战火中舒缓过来，在这个时候请修复书院，并没有被视为不急之务，给所有对书院较关注的官员们不少的信心。

较之一味地取消与否定，承认并且保留部分的书院并发挥其作用是有益的。正如清人姚立德在清乾隆二十二年(1757)的《创建定武书院记》一文中所说，书院创制既久，虽然“相沿既久，结习渐生，风气所趋，流而日下”，但“犹愈于已”，<sup>14)</sup>有这样的一种教育机构总比没有好。或许正是在这样一种考虑下，一些地方官员率先跨出了复建书院的步伐。得益于巡抚的提倡，康熙三十年(1691)，河南可能在全省范围内号召创修书院。乾隆《新蔡县志》载：“康熙三十年，奉宪檄令，州县创建书院，振兴文教。”<sup>15)</sup>所谓“宪檄”，应是当时的河南

11) 邓洪波：《中国书院史》，第477页。

12) (清)侯方域：《重修书院碑记》，《河南通志》卷十三。

13) 《清朝文献通考》卷六十九。

14) (清)姚立德：《创建定武书院碑记》，咸丰《定州续志》卷四。

15) 乾隆《新蔡县志》卷二。

巡抚阎兴邦(1635-1698)之命,他显然是一个积极的书院倡导者,在康熙三十年还曾经为南阳知府上虞青岩朱公所创建的南阳书院题额。<sup>16)</sup>

明以来书院所具备的祭祀先贤的作用,与康熙年间重视意识形态建构的举措之间合拍,两者进一步结合起来.康熙帝重视程朱理学的发展.李一鹭康熙二十二年(1867)《创建龙冈书院碑》中说:“圣天子崇儒重道,日进翰苑诸臣讲习讨论之,四书五经皆著为讲义,遍行直省,上接尧舜十六字心传,斯理学昌明之会也。”<sup>17)</sup>上行则下效,与此相适应,以祭祀理学诸儒为目的的书院相应地在康熙年间增加.康熙五十五年(1716),三水知县郑玫于学宫西偏隙地建立书院,“前堂祀周张程朱诸夫子,后堂师生讲肄,藏修有室,庖馔有所,颜曰正学书院”.郑玫在记中不忘对康熙帝的理学情怀大力地颂扬了一番,说:“我皇上天纵睿智,孜孜好学,表章四书六经濂洛关闽之书,盖以正学风,励天下也。”<sup>18)</sup>于是,在理学发达的康熙年间,在众多理学名臣的呼吁与推动下,书院重新吸引了最高统治者的注意,尤其是一些尊祀程朱理学先贤的书院得到朝廷的重点扶持,以此成为意识形态构建的重要一环.康熙帝本人通过赐额的方式,有意地扶持了一些与程朱理学相关的书院.例如,康熙二十五年(1686),康熙帝赐额“学达性天”给白鹿洞书院、岳麓书院;康熙四十二年(1703),皇帝曾御书“学宗洙泗”四字匾额,令悬在山东济南的书院。<sup>19)</sup>康熙六十一年,康熙帝颁“学道还淳”额于苏州紫阳书院。<sup>20)</sup>在明确表彰程朱理学之外,康熙帝的赐额有时还有更宽泛的鼓舞地方学术发展的含义.康熙五十四年,皇帝为杭州万松书院赐额“浙水敷文”,<sup>21)</sup>后遂改为敷文书院.江西的豫章

16) (清)李元振:《南阳书院记》,康熙《南阳府志》卷六.

17) (清)李一鹭:《创建龙冈书院碑》,同治《栾城县志》卷十四.

18) 嘉庆《三水县志》卷十四.

19) 《清朝文献通考》卷六十九.按,此省城书院初名白雪书院,在西郭的突泉之东,以明诗人李于麟白雪楼得名,康熙东巡时,赏题其额曰“学宗洙泗”.雍正间,迁城内都司府故署,更名为涑源书院,赐千金以资膏火.参见托浑布《重修涑源书院并增诸生课额记》,民国《续历城县志》卷十五.

20) 《清朝文献通考》卷六十九;卷七十三.

21) 《敷文书院志略》记述.

书院始创于南宋,明万历年间改为豫章二十四先生祠,康熙二十八年由巡抚宋荦改立为理学名贤祠,到康熙五十六年(1717),由巡抚白潢重建为书院,并在次年得到康熙帝的赐额—“章水文渊”,悬于讲堂之上。<sup>22)</sup>整个清代康熙年间,得到过皇帝御赐匾额的书院达芬奇24处。<sup>23)</sup>

康熙年间的理学名臣是书院发展的热心推动者。张伯行(1651-1725)是其中最活跃的一位。康熙四十七年(1708),福建巡抚张伯行在鳌峰坊九仙山麓创建鳌峰书院,“前为正谊堂,中祀周、程、张、朱五子,后为藏书楼,置经史子集若干橱,右祀宋明闽中先儒,为六子祠”。数年之后的康熙五十五年(1716),康熙帝向鳌峰书院赐额“三山养秀”。<sup>24)</sup>不久之后康熙五十二年(1713),在苏州,巡抚张伯行在苏州府学尊经阁之后创紫阳书院,次年落成,“择所属高材诸生肄业其中,中奉朱子木主”,还拨吴江县水北庵僧入官田以廩诸生。其事上闻朝廷之后,康熙帝“御书‘道学还淳’四字额以赐”。<sup>25)</sup>张伯行创紫阳书院,用以教育诸生的目的不言而喻,然而书院以紫阳为名,推动朱子学正统意识形态在社会上的影响的目的同样很明显。张伯行《紫阳书院记》说:“及至后也,尊德性、道问学分门立户,几成聚讼,朱子之道迭明迭晦于五百年之间,迄未有定论。惟我皇上学术渊源躬行心得默契虞廷十六字真传,独深信朱子所云居敬以立其本,穷理以致其知,返躬以践其实,其道大中至正而无所于偏,纯粹以精而无所于杂,钦定《紫阳全书》以教天下万世,其论遂归于一。”<sup>26)</sup>换言之,张伯行有意说,苏州紫阳书院之建,不过是在朝廷着力营建程朱理学正统意识形态的大背景下的具体举措,而创建紫阳书院既是尊朱子,也是尊朝廷。

意识形态建设之外,康熙年间书院建设也收到了教育效果。地方官员的书院建设,弥补了府州县学日常教学之不足。康熙二十七年(1688),井陘知

22) 光绪《江西通志》卷八十一“豫章书院”条。

23) 邓洪波:《中国书院史》,第478-479页。

24) 乾隆《福州府志》卷十一“鳌峰书院”条。

25) 光绪《苏州府志》卷二十五“紫阳书院”条。

26) 光绪《苏州府志》卷二十五

县周文煊在邑治之东三里文昌阁旧址建东壁书院，立贍田，要求诸生肄业其中，“朝夕奋发，每月至二十九日，归省父母，次日晨起即还书院”<sup>27)</sup>，书院肄业生员不得无故离开书院。李元振康熙三十年(1691)所撰《南阳书院记》中对书院的“辅翼”作用有清晰的描述。他说：“夫书院之设，与学校相为表里，而又以补助其不及。……学校之士必出乎学使者之所甄别，盖皆其已隶于庠序者，而又有府、州、县之别，士不得逾越而入焉。若书院，则凡九州四海之士与夫嗜古积学不求荣达者，无不与也。学校之治学者，任择一经，而共治四书。……若书院，则凡谈道讲义，著书立说，研究乎天人性命之理者，业无分仕隐，咸得优游于其中焉。”<sup>28)</sup>相较府州县学，书院在人员上、读书的范围和目的上，都更为开放，故而能取得实际的教学效果。

#### IV. 雍正省会书院的示范效应

雍正帝统治时期，书院的地位在清代获得根本性改变。这种根本性改变可以说是康熙朝以来书院建设的结果。其一，康熙年间以通过书院来构建正统意识形态的努力，仍然是雍正初年书院建设的动力。蓝鼎元《棉阳书院碑记》说：“顾惟书院之建，必崇祀先贤以正学统。正统不明，阳儒阴释之徒皆得窃其似以乱吾真。宋有白鹿书院，亦有鹅湖书院，明有河津余干之讲学，亦有新会姚江之讲学，同学孔孟，同谈仁义，而操戈入室，甚至诋紫阳为洪水猛兽，毫厘之差，千里之谬……周程张朱五先生上接洙泗之正传，下开万古之聋聩，宜妥侑斯堂，春秋祀典勿替，俾学者识有所依归，而异端邪说不能淆乱。”<sup>29)</sup>雍正年间，像棉阳书院之建及其尊祀宋代理学先贤，就是要将陆九渊、王阳明等人所“扰乱”的书院风气重新一归于正，无疑是康熙以来以

27) (清)周文煊：《东壁书院记》，民国《井陘县志》第十四编。

28) (清)李元振：《南阳书院记》，康熙《南阳府志》卷六。

29) 蓝鼎元：《棉阳书院碑记》，《鹿洲初集》卷十。



书院崇程朱理学的趋势的延续。其二，康熙间书院建设所带来的教育实效，为雍正年间书院官学化奠定了基础。广西巡抚李绂(1673-1750)雍正年间所作的《夏修宣城书院记》说：“封疆大吏有加意于化民成俗者，就昔贤讲学之所，立之书院，拔诸学之秀者，聚处其中，延经明行修之儒，为之山长，日省而月试之。其事若狭隘，而书院之士以聚处讲贯，而学业易成，学成而散之各州县，皆足为后学之师，则其教也广，而民可化，俗可成矣。故书院非古，而教法之合于古，莫书院若也。今圣天子崇儒重道，奖励学官之教，请教职，广学额，天下之士蒸蒸向风，又特命修夏所在书院，延立山长以课诸生，有封疆之职者，可无加之意以仰塞诏旨乎？”<sup>30)</sup>因此，在雍正初期，书院已然非常普遍。雍正八年(1730)，张兆凤《修敷文书院记碑》中说：“我朝重道崇儒，超轶前代，州县各有义学，郡省均设书院。”<sup>31)</sup>真正要进一步推动书院的发展，是朝廷及最高统治者的态度。

即位初始，雍正帝似乎对书院的态度很多面。一方面，他在雍正元年(1723)二月曾给查弼所创建的钟山书院赐以“敦崇实学”的匾额。然而，另一方面，同样是雍正元年的一道诏令，却似对书院持否定的态度。雍正元年(1723)，“命各省改生祠，书院为义学，延师教授以广文教”<sup>32)</sup>。一直到雍正四年(1726)，他对于书院对文教的作用仍持怀疑态度。他说自己虽然重视文教，认为这是为政之本，但是对于建书院、择师以教士子却全无兴趣。面对臣下的诉求，他批评说：“至于设立书院，择一人为师，如肄业者少，则教泽所及不广，如肄业者多，其中贤否混淆、智愚杂处，而流弊将至于藏垢纳污。若以一人教授，即能化身多人俱为端人正士，则此一人之才德即可以膺辅弼之任，受封疆之寄而有余。此等之人，岂可易得。”<sup>33)</sup>他一并拒绝了裴□度赐典籍、匾额的要求。程廷祚在《钟山书院碑记》中对雍正这样的态度表达了他的同情之理解，说：“文虽工而行不笃，教虽先而率不谨，群萃而州处，相睹而未善，

30) (清)李绂《穆堂初稿》卷三十。

31) (清)张兆凤：《修敷文书院记碑》，光绪《茂名县志》卷三。

32) 《清朝文献通考》卷七十。

33) 《清世宗实录》卷四十三。

则胶庠之制，皆成虚设，于书院又何取焉？曩者江右抚臣白鹿院长之请，圣主拒而不予，其指神矣。”<sup>34)</sup>

不过，仅仅七年后，雍正帝的态度就有根本性的转变。雍正十一年(1734)下诏设立省城书院，各赐帑金千两为营建之费。他的谕旨中说：“各省学政之外，地方大吏每有设立书院聚集生徒讲诵肄业者。朕临御以来，时时以教育人材为念，但稔闻书院之设实有裨益者少，慕虚名者多，是以未尝敕令各省通行，盖欲徐徐有待而后颁降谕旨也。近见各省大吏渐知崇尚实政，不事沽名邀誉之为，而读书应举者亦颇能屏去浮嚣奔竞之习，则建立书院，择一省文行兼优之士读书其中，使之朝夕讲诵，整躬励行，有所成就，俾远近士子观感奋发，亦兴贤育才之一道也。”<sup>35)</sup>省城书院的概念也自此奠立。这样的态度转变，其基础则在于学风的变化，以及相当长一段时间地方官员对书院的扶持，已使得书院的教育效果不再是可有可无，而成为精英教育与地方教育的重要环节。在这种情形之下，朝廷顺水推舟，转而扶持书院。程廷祚雍正十一年《钟山书院碑记》中说：“方今大化翔洽，岳牧以下俱实心导率，宇内蒸蒸，然向仁慕义，书院之兴，以助政治，奚可缓也？”<sup>36)</sup>这有实例可据。例如，雍正九年(1731)，云南总督鄂尔泰在昆明创建五华书院，一扁曰“西林学舍”，购置经史子集万余卷度诸楼，曰“藏书”，其前为讲堂，楼之后为院长所居室，室旁东西各两院，外两翼，藏书楼及讲堂左厢皆为书舍，选士课读其中。<sup>37)</sup>雍正十年(1732)，广东总督郝玉麟(?-1745)再次修葺康熙四十七年总督赵宏灿所建天章书院，即后来广东省会书院端溪书院，曾上奏皇帝，所谓“闻之天子而以教育粤东人士之秀者也”<sup>38)</sup>。督抚们对修建书院如此用心，不能不让雍正帝的态度为之转变。

雍正帝扶持省会书院的诏令一出，立刻得到地方大员响应。除一些省会

34) (清)程廷祚：《钟山书院碑记》

35) 《清朝文献通考》卷七十。

36) 《青溪文集》卷八。

37) 光绪《昆明县志》卷四。

38) (清)郝玉麟：《天章书院记》，道光《肇庆府志》卷六。

已有书院得到支持外,新的省会书院也得以建成。直隶总督李卫在雍正十二年(1734)动支公费若干以及自己养廉银共计若干万两,于保定府治南建成莲池书院,将朝廷赐予的千两帑金用以购置常稔地,岁课租以资膏火。<sup>39)</sup>更关键的是,省会书院是一个标志性事物,是地方官员可以模仿的对象。在盐商聚焦的扬州,康熙元年(1662)始建的安定书院得到重建。高斌《重建安定书院碑》中说:“岁壬子(1732),世宗特谕省会设立书院,以广教育,大臣既次第遵行。扬州故属郡治,两淮商士萃处于斯,资富能训,英才蔚起,咸踊跃欢欣,愿光盛典。”<sup>40)</sup>于是,盐商们将之前已有康熙帝康熙四十四年(1705)御赐“经术造士”匾额的安定书院进行扩建。雍正十二年(1734),时任扬州府同知刘重选在扬州梅花岭课士,而郡人马曰瑄即其地建梅花书院<sup>41)</sup>在省会书院名额有限的情况下,落选的士子们的教育也会成为地方官员们关注和思考的对象。雍正十三年(1735),东莞知县沈曾同在《新建宝安书院记》中说:“雍正十有一年正月日,皇帝诏天下督抚大臣于省会建书院,简士之文行兼优者读书其中。……于时粤东有粤秀书院,在肇庆者为端溪书院,移檄所属,令各举其邑俊良而肄业焉。曾同既拔其尤以应盛典,而东官文学甲五岭南,咸自奋矜,思底于成”<sup>42)</sup>于是乃重建宝安书院,以应在县诸生肄业之需要。扩而广之,一县一个书院都不足以教士,像广东的香山县在乾隆二十二年时,次第建起了九所书院。彭科在《九书院记》中说:“今夫书院之设,与学校相表里者也。学校建于一邑之中,而书院不妨广为之创立,庶四乡之有志于学者得以就近肄业而无负笈之劳。”<sup>43)</sup>于是,地方官员的响应使书院进入一个创建兴复的快速增长期。从清代书院建设的速度来看,雍正一朝书院的创建与兴复最繁盛,年均27所以上,比乾隆朝的年均23所和康熙朝的年均15所都要多。<sup>44)</sup>

39) 光绪《畿辅通志》卷一百四十四《莲池书院》。

40) (清)高斌:《重建安定书院碑》,道光《增修甘泉县志》卷六。

41) 道光《增修甘泉县志》卷六。

42) 民国《东莞县志》卷十七。

43) (清)彭科:《九书院记》,道光《香山县志》卷二。

44) 邓洪波:《中国书院史》,第456页。

当然,更为关键的是,在雍正年间,逐渐形成了府县书院建设的报备制度,所谓“其余各府州县书院,或绅士捐资倡立,或地方官拨公款经理,俱申报该管官查核”<sup>45)</sup>.与之相应的是,雍正年间还规定书院“比诸古者侯国之学”,“三岁得举其尤异者一、二人贡太学,以示鼓励”,使书院的官学化趋势进一步增强.<sup>46)</sup>书院教育的效果十分明显.乾隆二年(1737)的一篇书院记文表明,南京的钟山书院的诸生“或以乡会举,或以实学优行举,以及学使岁科、节使采风,大都得之书院者为多”<sup>47)</sup>.可见,书院生员参加科举,向国子监进贡生员,即便名额仍不多,都说明省会书院提倡之后书院已被纳入到官学的系统之中,至少是官学的强有力的补充.

省会书院的名目以及帑金的资助,也是有示范意义的,它激起地方官赞助书院的行为.湖北的江汉书院在雍正十一年获赐帑金一千两,“之后再借支藩库公项银三千两,又积余息银一千两,共银五千两,交江汉两县典商,以一分五厘生息,每月应得息银七十五两,每年共收息银九百两,按款支给”,以资助定额六十名在院内外肄业的生员.<sup>48)</sup>又如广东肇庆的端溪书院,“雍正十一年,奉旨赏拨地丁帑银一千两,发商生息,以充端溪书院膏火.每年筹备银二百四十两,遇闰加增二十两,由府按季具文赴盐运司衙门请领支给;前任总督郝奏拨盐赆本银二千两发商生息,每年筹备银四百八十两,遇闰加增四十两,由府赴运司领给书院膏火.历年奉拨高要、四会、阳春、阳江、恩平、广宁、德庆、罗定等处田地租额共银一千一百六十两七钱七分八厘,……均批解府,以充书院膏火”<sup>49)</sup>.看得出来,一千两帑金的赐予,对于书院的巨额资助而言只是一部分小的金额,地方政府的巨额投入才是接下来书院发展的重要支撑.

45) 《钦定大清会典事例》(光绪) 礼部卷三十三.

46) (清)杨绳武:《钟山书院碑记》,道光《上元县志》卷二十三.

47) (清)杨绳武:《钟山书院碑记》,道光《上元县志》卷二十三.

48) 嘉庆《湖北通志》卷二十九“江汉书院”条.

49) 道光《肇庆府志》卷六“端溪书院”条.

## V. 乾隆间书院建设的普及与管理加强

省会书院的建设的外溢效应一直延续到乾隆年间。受省会书院的影响，各府州县也积极地创建或修复书院。张淑渠于乾隆十八年(1754)《重修寿阳书院碑记》中说：“我国家养士百年，文教覃敷，特命省会及各郡县设立书院<sup>50)</sup>，“特命”的根据，却没有细说，但其实应该是没有的。与省会书院不同的是，府州县的书院不是制度所必须的，地方官员可以自主决定是否创办。牛运震在乾隆二十年《重建条山书院碑》中说：“今之州县之吏，学校则奉令甲制例为之，书院则自为之矣。”<sup>51)</sup>薛缙在乾隆二十年(1755)的《昌山书院记》中说：“今天子治理熙洽，敦崇文教，令各直省立书院，资给膏火，其有州邑偏远者，听大吏师有司为之。”<sup>52)</sup>递而往下，偏陬僻壤，亦有书院之建。在这种背景下，之前雍正四年要求改书院为义学的做法，到了乾隆年间完全扭转，更多的情况是义学改书院。例如康熙四十一年府尹钱晋锡在京城东南金鱼池附近所建义学，有康熙帝“乐育英才”匾，至乾隆十五年(1751)改为金台书院。遵化州于康熙五十四年始有知州刘之琨所建义学，乃在乾隆三十九年由知府李荫椿改作燕山书院。<sup>53)</sup>

乾隆年间，官方明显进一步加强了对书院的支持与管理。乾隆元年的朝廷明诏规定：“书院之制，所以导进人材，广学校之不及……凡书院之长，必选经明行修足为多士模范者，以礼聘请；负笈生徒，必择乡里秀异、沉潜学问者肄业其中。……酌仿朱子《白鹿洞规条》，立之仪节，以检束其身心；仿《分年读书法》，予之程课，使贯通乎经史。……诸生中材器尤异者，准令荐举一二，以示鼓励。”<sup>54)</sup>具体来说，乾隆年间书院扶持政策包括以下内容：其一是继续加大对书院的投入与支持。乾隆年间，省会书院的经费投入与保障还

50) (清)张淑渠：《重修寿阳书院碑记》，光绪《寿阳县志》卷四。

51) (清)牛运震：《条山书院碑记》，《空山堂文集》卷九。

52) (清)薛缙：《昌山书院记》，民国《乐昌县志》卷二十二。

53) 光绪《畿辅通志》卷一百一十七。

54) 《清高宗实录》卷二十。

在继续加大。例如，乾隆四年(1739)杭州万松岭上的敷文书院获得“加赐帑银一千两”<sup>55)</sup>。其二是对学习内容作了一定的规定。乾隆元年(1737)，朝廷命各省会书院仿朱子白鹿洞规条及分年读书法。<sup>56)</sup>舒其绅乾隆三十四年(1770)所撰《明道书院记》中说：“我皇上敕直省书院悉遵朱子白鹿洞规条，斥浮名而崇实学。”<sup>57)</sup>虽然没有细化到教材等物，但大的方向却是规定的，沿着康熙以来尊崇程朱理学的方向继续前进，因为《分年读书日程》的作者程端礼是元代著名的朱子学者。其三，对师生的选择也作出规定。乾隆元年(1737)，乾隆帝谕令书院“慎选师儒，为之模范”<sup>58)</sup>，“特恩整饬，谕令各省督抚学政，严择名师，慎简秀士，谆谆劝戒”<sup>59)</sup>。对于书院的师长的名称，在乾隆三十年(1766)也进一步作出规定，改书院山长之称为院长。之外，山西的晋阳书院就规定，书院生徒由驻省道员专司稽察，各州县秉公选择，布政司会同该道考验，果系才堪造就者，方准留省会书院肄业。<sup>60)</sup>由于有官方的膏火的支持，入书院肄习也是士子们的积极的选择。乾隆三十八年(1774)，王曾翼为通州紫琅书院作《紫琅书院记》，描述当时书院生徒之盛说：“学校而外，夏有书院，自通都大邑逮及遐陬僻壤，士之隽才好学者，聚而肄业，多者或二三百人，少亦不下百人，资以膏火，程以课试，彬彬乎称极盛焉。”<sup>61)</sup>其四，有些书院也建立起了相对完整由官方来主导的规制，更充分体现了雍正、乾隆时期书院的官学化方向。乾隆十三年(1749)，陕西周至县知县邹儒捐资倡建对峰书院，乾隆十五年(1751)建成，并制定了相应的书院规制：“书院规制：山长一人，主训课事，每岁由县公署聘请。斋长二人，院中庶务属之，由士子公举而经县署许可者。周至久无书院，儒于戊辰春邀集阖邑绅士捐俸倡募，新建对峰书院一所，又捐资雇工开垦荒地，召佃承种，岁取租课以为束修膏火之资，

55) 《敷文书院记略》记述。

56) 《重刊江宁府志》卷十六 钟山书院条。

57) (清)舒其绅：《明道书院记》，民国《户县志》卷四。

58) (清)何梦瑶：《重修端溪书院新建后楼碑记》，道光《肇庆府志》卷六。

59) (清)周玘：《东娄书院记》，乾隆《杞县志》卷二十一。

60) 《山西通志》卷七十六晋阳书院条。

61) (清)王曾翼：《紫琅书院记》，光绪《通州直隶州志》卷五。

详明各上台立案,以垂永久。……官课:知县每月初二日在书院出题课士,分给课题于沮庵县,由丞收送县署汇卷评阅,榜示甲乙,依次奖给膏火,各二十四名。院课:书院山长每月十二日、二十二日出题课士,评阅榜示,与官课同,惟每课奖给膏火生员、童生各十二名。<sup>62)</sup>书院的规定既有山长、斋长的聘任,又有资金支持、考课等方面的规定,而地方官员在其中的主导作用极为突显。

因此,乾隆年间书院的建设达于极盛。乾隆五十一年(1786),廷毓在《重建荆南书院碑记》中说:“我皇上崇儒佑文,持人心风俗之源,以上追三代圣人之教,由省而府而县各有书院以为藏修游息之地,官师督课,校定甲乙,以鼓舞而陶冶之。”<sup>63)</sup>书院官学化之后,书院的教育功能大为提升。乾隆五十三年(1789),杞县知县周玘在《东娄书院记》中说:“书院之设,延名师,严考课,其义专以培士子,为国家养育人材,所以广学校之所不及。”<sup>64)</sup>书院的教育,不仅辅学校之不足,更是以其为名儒讲学之地而更胜学校一筹。乾隆二十三年(1758),张世安在《迁建南平书院记》中说:“今夫书院之设,与学校相表里者也。学校萃一邑之子衿而董以师儒,程能课艺,一岁之内不过数次。书院则聘致名宿以主讲席,而朝夕涵濡,乐群敬业,此即百工居肆以成其事之意也。……省会有粤秀,肇庆有端溪,其外书院、义学之建于各郡县者指不胜数。”<sup>65)</sup>由此以往,人们对书院的认识已经完全改观。彭时捷在乾隆十七年(1752)的《锦云书院碑记》:“书院之设,即古党庠术序之遗,其地不如学之尊严,其事较学尤为详尽,或兴或废,人材风俗因之,不綦重欤?”<sup>66)</sup>

62) 民国《周至县志》卷二、卷四。

63) (清)廷毓:《重建荆南书院碑记》,乾隆《江陵县志》卷四十六。

64) (清)周玘:《东娄书院记》,乾隆《杞县志》卷二十一。

65) (清)张世安:《迁建南平书院记》,道光《恩平县志》卷十八。

66) 道光《重庆府志》卷五。

## VI. 十八世纪书院官学化及其学风转变

书院官学化带来了书院学风的根本性转变。首先是十六世纪以讲学为主的风气逐渐消失了。由于书院为生员们提供了经费的保障、上升的途径，官学化以后的书院，主流的方向是适应科举的教育。乾隆三十六年(1771)，李南晖《青峰书院记》中说：“今天下书院之在省会及郡州县邑者不下千百数，大都讲帖括文字，以博科举取世俗功名。”<sup>67)</sup>乾隆四十年(1775)，王綦绪《南宾书院记》说：“我朝文教极盛，凡省会暨府州县当事者皆设书院于城廓，延师教境内俊秀，当不下千百所，而师弟子之授受，不过帖括声律，其身心要务出处实学不及焉，已非先师为己之义矣。……学校之遗，竟成名利之藪。”<sup>68)</sup>这当然都是站在批评的角度来看待书院诸生的应举风气的。但是，不得不说，即便是以科举为目的，较之明末虚谈心性，也更近“实学”，因为科举考试毕竟需要考《四书》、五经，等而下之的考生不论，稍稍优秀的学生都可以经由科举之经义获得经学的真知识。周之桢在道光十年的《重修宏道书院记》中说：“制义者，朝廷所以一天下之士，潜心圣贤之书，俾舍是未由他进，而百家杂说举不得干其虑者也。昔之为是业者，必通经学古，验诸心术之数，而切究乎事物之理，然后其辞达焉。……其术日卑……非功令之本意也。”<sup>69)</sup>即便乾隆末年科岁试中“先《四书》，次经艺，乡会试首场《四书》文，次场经艺文，三场策问”<sup>70)</sup>，已将经义置于次场，但经学知识仍是科举的重要内容，也就是书院的重要教学内容。

沿着这个读书应举的方向，配合着清代考据学风气的增长，书院进一步向经学考据方向转变。实际上，在乾隆年间，主教书院的学者中就有不少考据学大家。南京的钟山书院，“卢抱经、钱竹汀、姚姬传诸先生相继主讲席，磨之砉之，郁为国宝，上宝天子顾问，下亦通一经之业”<sup>71)</sup>。众多著名学者进

67) 嘉庆《四川通志》卷八十。

68) 嘉庆《四川通志》卷八十。

69) (清)周之桢：《重修宏道书院记》，光绪《三原县新志》卷四。

70) (清)贾芳林：《重建嘉陵书院碑记》，光绪《略阳县志》卷四。



入书院教学,是书院考据学风气转盛的一个原因。例如,即便偏在旌德县洋川镇的毓文书院,洪亮吉曾“馆于是者二年”<sup>72)</sup>。又例如,乾隆年间创建的南池书院,虽然僻在四川南充县,亦以经术为教。南充县南池书院的创建者王灏,字少梁,号文川,康熙五十九年(1720)举人,雍正二年(1724)进士,乾隆十八年(1753)八月捐资修建南池书院,次年落成。其门人杜伯宣《南池书院记》云:“先生湛深经术,起家进士,升授奉直大夫广东直隶连州知州,微时以僧寺为累世布施所,习玩其间,醉饱山水,慨然有振兴之志……通文星门,属文昌楼,为释菜所,建上下讲堂,诸生肄业房舍共四十七间,两廊四章,为厨廐四间,阶砌黝垚,床窗几席焕然大备,生童云集。递请予家伯父、庚子(1720)孝廉原任云南河阳令厚庵先生、博士润九先生讲明经学,严为训课。二先生即世,先生专席讲授,以长君训初学。”<sup>73)</sup>

在科举化经学及清代的经学家们的共同推动下,书院学风进一步向考据学转变。乾隆三十三年(1769),寿阳知县龚导江在《重修受川书院记》中大谈经术肄习的重要性。他说:“今诸生盛服先王,沐浴道德,夏弦春诵,专心一力,未尝有负耒除田脱衣击棊之事分其日力也,而经术源流异同分合之故,先圣先师立言垂训之精义,果孰能贯串会同,如汉经师释五字之文至二、三万言之多者乎?其端由于进取之心艳于外,而制举业之陈陈相因者牢固靡烂于胸中,而不可骤拔。经术之不明,人材之日远于古,胥以此也。……今诸生诚能不囿于俗学,而务以经术为先,……则异日文章之盛,岂惟以冠三晋,虽甲于天下可也。”<sup>74)</sup>乾隆末年,书院学风已完全转变。张锦芳在《创建金瓯堡白云洞三湖书院碑记》中说:“君亦知今之书院与古异乎?古之为书院也以讲学,所谈者心性,所重者实践,其流也或脱略书册,直趋本流,皆谓之理学。今之为书院也以谈艺,穿穴经传,辨正文体,期于以文载道,是谓辞章之学。为理学者约而求之,静而悟之,可以不出户而窥道妙;为辞章者闻见必

71) (清)冯煦:《重建钟山书院记》,《蒿龠类稿》卷二十三。

72) 洪亮吉:《洋川毓文书院碑记》,《洪北江诗文集》更生斋文甲集卷四。

73) (清)杜伯宣:《南池书院记》,嘉庆《四川通志》卷八十。

74) (清)龚导川:《重修受川书院记》,光绪《寿阳县志》卷四。

广，考据必繁，非游大邑通都，博综乎当世贤豪之所撰述，无以考其源流而正其得失。此其所以同而异也。”实现这种“考据必繁”的辞章之学，要点有二，“得师其要也，……藏书又其要也”<sup>75)</sup>。重读经、重视读书，这种风气与晚明书院的空谈心性，有根本性的不同。

---

75) 同治《南海县志》卷十二。

【참고문헌】

- 邓洪波：《中国书院史》，武汉大学出版社，2012年。  
《山西通志》卷七十六晋阳书院条。  
《清朝文献通考》卷六十九；卷七十三。  
《敷文书院志略》记述。  
《清高宗实录》卷二十。  
《说略·首善书院事》，转引自邓洪波《中国书院史资料》(上册)，第816页。  
(清)王昶：《天下书院总志》  
(明)刘宗周：《证人书院记》，《浙江通志》卷二十七。  
(清)侯方域：《重修书院碑记》，《河南通志》卷十三。  
(清)姚立德：《创建定武书院碑记》，咸丰《定州续志》卷四。  
(清)李元振：《南阳书院记》，康熙《南阳府志》卷六。  
(清)李一鹭：《创建龙冈书院碑》，同治《栾城县志》卷十四。  
乾隆《福州府志》卷十一“鳌峰书院”条。  
光绪《苏州府志》卷二十五“紫阳书院”条。  
蓝鼎元：《桐阳书院碑记》，《鹿洲初集》卷十。  
(清)张兆凤：《修敷文书院记碑》，光绪《茂名县志》卷三。  
(清)高斌：《重建安定书院碑》，道光《增修甘泉县志》卷六。  
嘉庆《湖北通志》卷二十九“江汉书院”条。  
(清)舒其绅：《明道书院记》，民国《户县志》卷四。

Abstract

## The Academic Transformation and Officialization of Chinese Academies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Chen Shilong\*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Chinese academies went through a process of developing from being criticized in the late Ming Dynasty to a brand-new academic education center. In this process, the support of the supreme ruler and the consequent officialization of academies were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From the initial exclusion policy of the Shunzhi Dynasty to loosening, to the Kangxi Dynasty's support for academies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n orthodox ideology, and then to the construction of provincial capital academies in the Yongzheng Dynasty, the academies received more and more official support and social influence. The larger the value is, the more positive the social evaluation is. During the Yongzheng and Qianlong dynasties,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academies in provincial capitals, academies were set up all over the prefectures, prefectures, counties, and remote villages, the number of which was the highest in the Qing Dynasty. As the government continued to introduce policies in terms of selecting teachers, selecting students, and ensuring the future of college students, the academy grew steadily into an academic education center at all levels in the eighteenth century. During the two hundred years during this period, the academic atmosphere of the

---

\*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cient History Research,  
/ chenshilong@outlook.com

academy also changed from the empty talk of the late Ming Dynasty to the study of Cheng and Zhu, and then to the study of textual research.

Key word : Academies(書院), provincial academies(省會書院), government-scholarized(官學化)

논문 투고일: 2022. 11. 21 심사 완료일: 2022. 12. 14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江戸儒學と社會

## －武士の書院と『孔子家語』という觀點から－\*

南澤良彦\*\*・簡亦精\*\*\*

- I. 序言
- II. 江戸儒學前史－足利學校と武家社會
- III. 江戸儒學と官立學校－昌平坂學問所、藩學
- IV. 江戸儒學と社會－『孔子家語』を通しての考察
- V. 結語

### 【국문초록】

일본 에도 시대는 관리 임명에 있어서 과거 제도와 같은 조건을 두지 않았고, 기본적으로는 세습으로 이루어졌다. 지배계층의 정점에 서 있던 사무라이는 왜 유학 교육을 받아들였는가? 에도 시대에 유학을 가르친 학교는 비록 서원(書院)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진 않았지만, 성질상 강학, 장서, 제사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었기에 사실 서원과 차이점이 없었다. 동아시아 서원 및 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에도 유학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지닌다. 에도 유학의 발전과 당시 사회 분위기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유학을 가르친 학교 및 유학자들의 학술적 경향, 그들이 운용한 교재와 학규(學規) 등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에도 시대에 유학을 가르친 학교는 다만 사무라이의 서원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끄는 주요 역량이기도 했다. 사실, 에도 유학자들이 모두 주자학만을 연구한 것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주저자 : 南澤良彦, 九州大學 大學院 人文科學研究院 中國哲學史講座 教授  
/ nanze@lit.kyushu-u.ac.jp

\*\*\* 공동저자 : 簡亦精, 九州大學 人文科學研究院 專門研究員

아니었는데, 『공자가어(孔子家語)』 또한 당시 유학자와 사무라이의 주목을 받았다. 『공자가어』는 도쿠가와 이에아스가 즐겨 읽었던 책이었기에 사무라이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다. 본문에서는 “『공자가어』의 가치는 무엇인가?”, “당시 유학자는 왜 『공자가어』를 읽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에도 유학의 변천 및 사무라이 사회를 지탱하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의 토론이 동아시아 서원 연구에 하나의 새로운 관점 및 일련의 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에도 유학, 사회, 사무라이(武士), 번학(藩學), 사무라이 서원, 아사카가 학교(足利學校), 츠키다 타이호(冢田大峯), 공자가어(孔子家語)

## I. 序言

### 江戸時代の社會

近世東アジア世界に普遍的な現象として科擧の實施と書院の發達がある。ところが、日本だけは科擧制度を採用し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書院の性質と極めて類似したさまざまな學校が發達していた<sup>1)</sup>。

江戸時代、日本の社會は土農工商という四つの身分から構成された身分制社會であった。土が支配階級で、その下に農、工、商の三つの被支配階級が置かれ、土農工商の各身分は世襲された。注目すべきは、土農工商の四民は中國古代の制度であるが<sup>2)</sup>、中國の土が「學んでその位にいる者」<sup>3)</sup>と規定されるだ

1) 難波征男, 「日本書院的研究現状與課題」(『湖南大學報(社會科學版)』21-3, 2007年)を参照。

2) 例えば、『春秋穀梁傳』成公元年に、「古者有四民。有土民。有商民。有農民。有工民。」とある。

3) 『漢書』食貨志には、「土農工商, 四民有業。學以居位曰士, 闢土殖穀曰農, 作巧成



けで、出身の身分を問わないのに対し、日本の「士」は厳格な身分制度と世襲制で固定化された支配階級だったことである。しかも、中國の「士」が基本的に文人であったのに対し、日本の「士」は武士だったのである。

江戸時代が身分制封建社會であり、支配階級が武士であったことは、この時代の社會の大きな特徴であり、それが學問・教育に対しても深甚な影響を與えた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

江戸時代の日本は、江戸に置かれた徳川將軍を戴く幕府の下に、260前後の大名と呼ばれる地方君主が治める大小の領地から成り立っていた。それら大名が治める領地は藩と呼ばれた。

### 昌平坂學問所と藩學

江戸時代には中央政府である幕府は、學問、特に儒學を奨励し、江戸に學問・教育のための學校、昌平坂學問所(昌平黌)を開設した。大名たちもそれぞれの藩において同様に學校を建て、主に儒學を教育した。それら大名たちの學校は藩の學校という意味で、藩學もしくは藩校と呼ばれた。藩學の数は全國で295箇所あったとされる<sup>4)</sup>。江戸時代の藩の数は260前後だったから、一藩に一校以上あったことになる。現在の日本の國公立大學の数が184校(國立大學86校、公立大學98校<sup>5)</sup>)だから、江戸時代の學問・教育施設は相当充實していたことになる。

これら江戸時代の幕府、諸大名の學校には漢籍を中心にした書籍が所藏され、また孔子廟が設置されたところも多い。書院が備えるべき要素として、講學、藏書、祭祀の三つが挙げられるが、昌平坂學問所や相當数の藩學はこの條件を満たすことになる。ただし、昌平坂學問所、藩學は幕府、藩が設立した

---

器曰工、通財鬻貨曰商」とある。

4) 難波征男 前掲論文 19頁を参照。

5) 文部科学省HP【學校基本統計(R3速報値)】を参照。

官立學校であり、民間の學校として發展した書院とは性質を異にする。しかしながら、藩學の場合、設立は官學系だが、實質的に民間系だとも言われており、多くの點で書院と共通する性質の學校であることは事實である<sup>6)</sup>。藩學はいわば武士の書院なのである。

### 本論考のねらい

江戸時代の日本では、幕府や藩の官僚機構は基本的に世襲制であらかじめ決まっており、昌平坂學問所や藩學の學業成績が關與する餘地は多くはない。したがって、立身出世という點においては、それら官立學校の教育から受ける恩恵は極めて小さい。

それでは江戸時代の官立學校はどういう目的で、どのような教育を施したのだろうか。また、それら學校では特に儒學が重んじられたが、儒學はどのような役割を擔ったのであろうか。

本論考は、江戸時代の官立學校の設立経緯、教育理念、教育内容を分析し、江戸時代の武家社會における學問、特に儒學の意義の一端を解明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分析のための手掛かりの一つとして着目するのが『孔子家語』である。『孔子家語』は、江戸幕府を開いたばかりではなく、江戸儒學の開基をも行った徳川家康の愛讀書であり、江戸時代を通じてよく讀まれた。『孔子家語』の讀まれ方とその變化は、江戸儒學と武家社會の思潮とその變化を反映しているのであり、それを檢證することは、本論考に大いに役立つであろう。

---

6) 吾妻重二、「東アジアの書院について－研究の視角と展望－」(『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別冊2,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點, 2008年) 13頁を 参照。

## II. 江戸儒學前史—足利學校と武家社會

### 1. 室町時代の足利學校

#### 1) 足利學校の成立

足利學校(あしかががっこう)(栃木縣足利市)は、江戸時代以前の日本で最も著名な學校である。

足利學校は漢學専門の學校であり、その敷地内に教學施設(方丈)、學生の寄宿舎(衆寮)、孔子廟(聖廟)を擁して、貴重な漢籍を所藏して學生を教育し、定期的に孔子の像を祀る釋奠の禮を行った。これは、書院が藏書、講學、祭祀の三要素を備えたことと極めて類似する。

足利學校は校則を備え、後に出版事業も行なったから、ますます書院と類似していると言えよう。

足利學校の創建については諸説あり、未詳とせざるを得ないが、確實に言えるのは、15世紀頃に關東管領(かんれい)、上杉憲實(うえすぎ・のりぎね)によって再興されたことである。憲實は領地を附與し、漢籍を寄贈し、鎌倉の禪宗(臨濟宗)寺院、圓覺寺から儒學、特に易學に秀でた快元(かいげん)を招いて、庠主(しょうしゅ、校長)とした。

足利學校はその後、室町時代、安土桃山時代を通じて榮え、16世紀中頃の七代庠主、九華(きゅうか)の時に全盛期を迎え、生徒は三千を數えたと言う<sup>7)</sup>。

安土桃山時代に來日し、織田信長に親しく接したイエズス會士、ルイス・フロイスはその著書『日本史』の中で足利學校に言及して、阪東(關東地方)にある「日本で最も有名な僧侶の大學」と述べる<sup>8)</sup>。

7) 川瀬一馬、『増補新訂 足利學校の研究』新装版(東京：吉川弘文館、2015年) 90頁。

8) ルイス・フロイス、『日本史』2(東京：平凡社、東洋文庫35、1965年) 42頁を参照。

## 2) 足利學校の校規

足利學校が漢學専門であるのは、實質上の創建者である憲實が定めた校規三箇條に規定された。第一箇條を次に引用しよう。

一『三註』『四書』『六經』『列子』『莊子』『老子』『史記』『文選』以外は、學校において講義してはならない。舊規に記載されている者には、いまさら禁じるまでもない。今から以後は、脇道の談義でも禁止する。しかし禪宗寺院の有名な高僧で莊内にいる者は除外する。禪の語録、詩註、文集以下の學問は、幸いに各地に今日現存する禪宗寺院がある。また禪宗以外の佛教徒にはその教派の寺がある。莊内においては、儒學以外はひたすら禁止するものである。加えて、先ほど記載した書籍以外は、たとい三、四人の仲間が誘いあって、講席を開いたとしても、在籍者は、學校から固く禁止される規則があるだろう。それでもなお承知できないなら、お上に訴えられるがよかろう。(引用者譯)<sup>9)</sup>

すなわち、憲實は足利學校で講義する書籍を、『三註』『四書』『六經』『列子』『莊子』『老子』『史記』『文選』に限定したのである。三註とは、『蒙求』『千字文』『胡曾<sup>10)</sup> (詠史詩少)』のことである。これら三書はいずれも初學の識字書である。これらを習って漢字と漢文に習熟し、ついで儒學の四書五經、道家の『列子』『莊子』『老子』三書、史部の『史記』、集部の『文選』を學ぶのである。

憲實がこれら以外の書籍を読むことを禁じたのは、足利學校が、佛教徒の學校であり、學生は僧侶であったことと關係するだろう<sup>11)</sup>。僧侶は當然ながら、

9) 原文は、『古事類苑』文學部 洋卷 第2卷1107頁。川瀬一馬前掲書35頁を 参照。

10) 胡曾是中國晚唐の詩人。『新唐書』卷六十藝文志四に、「胡曾安定集十卷」と著録『全唐詩』卷二十四に、「胡曾、邵陽人。咸通中、舉進士不第。嘗爲漢南從事安定集十卷、詠史詩三卷。今合編詩一卷。」とある。

11) 僧侶が書院と關わりが深いことは、中國唐代に遡ることができる。Minamizawa Yoshihiko and Chien Iching,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onfucian Academies and the Mingtang in the Tang Period, V. Glomb, E.J. Lee & M. Gehlmann ed.,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Leiden: Brill Academic

ともすれば、佛典や詩文を學ぼうとするからだ。ところが、それらは京都や地方にある禪宗及び禪宗以外の宗派の佛教寺院で學ぶべきであり、足利學校においては、固く禁じられた。講義どころか、朋輩と私的に談義することさえ禁制の對象とされたのである。學校(あしかが)

### 3) 足利學校の藏書

一方で、漢學に關しては、足利學校には、當時最高峰の漢籍が所藏されていた。今日現存する以下の書籍はその代表例である。

周易注疏(全十三本)(宋版 國寶)  
 尚書正義(全八本)(宋版 國寶)  
 禮記正義(全三十五本)(宋版 國寶)  
 毛詩注疏(全十三本)(宋版 重要文化財)  
 春秋左傳注疏(全二十五本)(宋版 重要文化財)  
 文選李善五臣註(宋版 國寶)

これらはいずれも中國南宋時代に出版された貴重な書籍であり、現在は國寶ないし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五經のうち、『周易注疏』は憲實の子の憲忠(のりただ)の寄進であり、他の四種は憲實の寄進である。また、『文選』は北條氏政(ほうじょう・うじまさ)が九華に附與した金澤文庫(かなざわぶんこ/かねさわぶんこ)<sup>12)</sup> 舊藏本である。

Publisher, 2020)を参照。

12) 金澤文庫は鎌倉時代中期に北條實時(さねとき)が、現在の横濱市金澤區にあった屋敷に創建した武家の文庫である。所藏の書籍には宋版も少なくなく、足利學校に移ったものもある。

## 2. 足利學校と徳川家康

### 1) 伏見版と武士の社會

足利學校の庠主は代々、禪宗の高僧が務め、時の權力者たちと親交を深めた。七代庠主の九華(きゅうか)は關東に覇を唱えた小田原の北條氏康(ほうじょう・うじやす)、氏政父子の要請で『周易』と『三略』を講義した。

また、九代庠主、三要素元(さんよう・げんきつ)は、豊臣政權の第二代、關白豊臣秀次(とよとみ・ひでつぐ)の要請で、多くの漢籍と共に京都に移り住んだ。その後、實權を握った徳川家康(とくがわ・いえやす)の信任を得、京都伏見(現在の京都市伏見區)にあった圓光寺(えんこうじ。その後現在の京都市左京區に移轉)を足利學校の分校とし、家康が與えた活字を用いて漢籍を刊行した。これが所謂、伏見版(ふしみばん)である。刊行された書籍を列挙すれば次の通りである。

1599年(慶長4)刊

(六卷 附素王事記一卷)(四册)

三略(三卷)(一册)

六韜(六卷)(二册)

1600年(慶長5)刊

貞觀政要(十卷)(八册)

三略(三卷)(一册)

六韜(六卷)(二册)

1604年(慶長9)刊

三略(三卷)(一册)

六韜(六卷)(二册)(二版あり)

1605年(慶長10)刊

周易(六卷)(三册)

1606年(慶長11)刊

七書(二十五卷)(七册)(二版あり)<sup>13)</sup>

伏見版の傾向は、儒學書、政書の他、兵法書が多いのが特色である。これは家康の好みを表しているとも言われるが<sup>14)</sup>、足利學校の創立の趣旨とも合致する。

すなわち、足利學校は儒學と兵學に特化した漢學専門の學校だったのである。しかも、儒學の方面でも、特に易學に特色があった。

足利學校は數多くの經書を講義し、漢學一般の教育を行ったが、實はそれらの漢學教育は準備段階に過ぎず、目的は易學の教育であり、さらには究極の目的は易學の應用である占筮術の修得であった<sup>15)</sup>。足利學校が室町時代を通じて多くの學徒を集めた理由は、當時の武家社會が占筮に強く依存し、占筮術者の需要が極めて高かったことに求められる<sup>16)</sup>。

中世・近世初期には、武士は日常的に死命を決する判斷を迫られる場面が多くあった。そのため、武士は占いに依存し、それは日常生活の一部だったのである。

中國、朝鮮の書院は、士大夫層によって營まれ、主に科擧受験を目指す士大夫の子弟のための高等教育機關であった。これに對し、書院に相當する日本の高等教育機關(足利學校)の擔い手、享受者が武士であったことは注目に値しよう。

日本の中世・近世を代表する高等教育機關である足利學校は、武士階級が設立、運營し、武士階級の子弟教育、顧問を擔當する教員、助言者の養成を目的とした。足利學校の京都分校である圓光寺で刊行された伏見版に、兵法書の占める割合が甚だ大きいのも、それと深く關連するであろう。

---

13) 川瀨一馬, 前掲書 108頁を参照。

14) 同上。

15) 川瀨一馬, 前掲書 174~175頁を参照。

16) 川瀨一馬, 前掲書 175頁を参照。

### Ⅲ. 江戸儒學と官立學校—昌平坂學問所、藩學

#### 1. 昌平坂學問所

##### 1) 林家の家塾と孔子廟

1603年(慶長8)、家康は征夷大將軍に叙せられ、江戸に幕府を開くと、儒學者、林羅山(はやし・らざん)を侍講(じこう、君主に學問を講義する學者)とした。これが江戸儒學の開基であり、日本の儒學にとって畫期となる。

林羅山、姓は林、名は忠(ちゅう)、一名は信旒(のぶかつ)。先祖は加賀(現在の石川縣)の武家で藤原氏の末裔であると自稱した。後に紀州(現在の和歌山縣)に移り、父の信時(のぶとき)の代に京都に出てきたが、浪士の身分だった。

羅山は少年時、臨濟宗建仁寺(けんになんじ)に入って、儒學を學んだ。建仁寺は京都最古の禪寺で、十世住持(じゅうじ、住職)の円爾(えんに)が中國宋から四書五經の新注本の他、多數の儒學書を持ち歸っていたのである<sup>17)</sup>。羅山は宋學に傾倒し、二十歳になる頃には朱子學の講義を行うまでになっていた。

羅山は家康、秀忠(ひでただ)、家光(いえみつ)、家綱(いえつな)の四代の徳川將軍に侍講として仕えた。1630年(寛永7)に江戸上野忍岡(しのぶがおか、現在の臺東區上野)に土地5,353坪と資金200兩を下賜されて、家塾、書庫を、さらに1632年(寛永9)には尾張藩主徳川義直(よしなお)の援助により孔子廟(先聖殿)を建てた。

書庫には數千卷の書籍を所藏し、また有名繪師(狩野山雪(かのう・さんせつ))に、伏羲、神農、黃帝、堯、舜、禹、湯、文王、武王、周公、孔子の十一聖、並びに顔回、曾子、子思、孟子、周敦頤、程顥、程頤、張載、邵雍、

17) 円爾が持ち歸った書籍については、拙稿「《説文解字》在日本」(『訃慎文化研究(二)：第二屆訃慎文化國際研討會論文集、第2卷』、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5)104頁を参照。



朱熹の二十一幅の肖像畫を描かせた<sup>18)</sup>。これは所謂道統を意識した、朱子學的  
正統觀の表明に他ならない。とはいえ、忍岡の家塾の學生は在學數、20~30名  
を數えるに過ぎず、幕府の教育機關ではなく、林家の私塾の性質を脱していな  
かった。したがって、朱子學が幕府の官學となったわけでもなかったのである。

## 2) 湯島聖堂と昌平坂學問所

事態が大きく變化したのは、五代將軍綱吉(つなよし)の時代になってからで  
ある。綱吉は忍岡の林家家塾の増築、孔子廟修理の費用を負擔し、公的性格を  
附與した。元祿三年(1690)には幕府は忍岡の孔子廟の移轉を命じ、湯島(現在の  
文京區湯島)の6000坪の敷地に壯麗な廟宇を建て、綱吉筆の「大成殿」の扁額を  
與えた<sup>19)</sup>。これが湯島聖堂である。

1797年(寛政9)、十一代將軍家齊(いえなり)は儒學振興を目的に、湯島聖堂  
に附屬する形で幕府直轄の學問所を創建した。これが昌平坂學問所である。入學  
者は武士に限った。また、寄宿舎を設けて、幕府の家臣の子弟を收容し、書生  
寮を設けて諸藩の家臣の子弟を收容した。

さて、昌平坂學問所の成立は、寛政異學の禁と關係が深い。寛政異學の禁  
とは1790年(寛政2)、幕府老中松平定信(まつだいら・さだのぶ)が寛政の改革の  
一環として打ち出した政策で、幕府公認の學問を朱子學に限定し、それ以外  
の學問を教えることを禁止したのである。これを天下に明確に示すため、林家  
の私塾を幕府直轄の官學に改め、大々的に正學(正統學問)である朱子學を幕臣  
のみならず諸藩の家臣の子弟に教育し、日本全國津々浦々に至るまで浸透さ  
せることを目論んだのである。

18) 堀勇雄『林羅山』(東京：吉川弘文館、『人物叢書』オンライン版185) 191頁を参照

19) 堀勇雄、前掲書 192頁を参照

### 3) 昌平坂學問所における「白鹿洞書院揭示」

そのことの表れの一つが昌平坂學問所における「白鹿洞書院揭示」の重視である。

「白鹿洞書院揭示」とは周知の通り、朱熹が白鹿洞書院を再興した時、書き記した學規で、日本でも好まれた。江戸時代に著された注釋、講義、研究書は枚舉にいとまがない<sup>20)</sup>。

昌平坂學問所ではじめて「白鹿洞書院揭示」が講義されたのは、1792(寛政4)9月15日とされる。この日、林家當主、大學頭(たいがくのかみ、昌平坂學問所の長官)林信敬(のぶたか)に代わり、一族の林信久(のぶみち)が代理で「白鹿洞規(「白鹿洞書院揭示(白鹿洞書院學規)」)を講義した。この後、昌平坂學問所の毎年の開講は「白鹿洞書院揭示」で締め括られるのが恒例となった。講義が行なわれる間、聴講者には印刷された「白鹿洞書院揭示」が各人一冊下賜された<sup>21)</sup>。

「白鹿洞書院揭示」の講義は、毎月六回(1800年(寛政12)七月の制度改革以降は毎月三回)行われ、大名、幕臣、藩士、浪士、要するに武士階級の者は皆聴講を許された。ただし、聴講者の姓名は記録され、毎月出缺が報告されたから、聴講は奨励というよりは強制に近かったと言える。

1800年4月の制度改革以降は藩士、浪士は聴講が許されなくなった。これは昌平坂學問所での「白鹿洞書院揭示」が講義され始めてから足掛け九年、ようやく「白鹿洞書院揭示」が普及し、朱子學がある程度浸透した手應えを感じて、藩士、浪士にまで聴講させる必要性がなくなったからであろう。

一方で「白鹿洞書院揭示」の教育は、昌平坂學問所の授業に組み込まれ、教

20) 江戸時代における「白鹿洞書院揭示」の受容と傳番については、關山邦宏「『白鹿洞書院揭示』の諸藩校への定着とその實態」(『教育研究』21, 青山學院大學教育學會, 1977)を参照。

21) 昌平坂學問所舊藏の『白鹿洞書院揭示』が現在、國立公文書館に所蔵される。表紙には「白鹿洞學規」と題され、6頁、裏表紙裏には「安政六己未(1859年)正月 直祺獻」とある。

官二名に日替わりで讀みを授けさせ、六のつく日にそれまでの讀みを通讀し、毎年九月に小試験を行った<sup>22)</sup>。

こちらの方は諸藩出身の學生にも課せられたから、昌平坂學問所を卒業して地方に戻った彼らによって、「白鹿洞書院揭示」は幕府の思惑通り、地方へと傳播して行った<sup>23)</sup>。

#### 4) 明倫堂の成立

幕府に土地と資金を提供されて、江戸に林羅山が私塾と孔子廟を營んだ17世紀前半、諸藩でも儒學者を抱える例は少なくなかった。昌平坂學問所に先立って、藩學を立てた藩も存在した。

幕府は昌平坂學問所を強力な據點とし、授業生を媒介として全国の諸藩の學問・思想を朱子學一色に染めようと圖った。これに對し、諸藩の受容の様相はさまざまであった。

御三家の中でも尾張藩は藩祖、徳川義直(よしなお)が儒學愛好甚だしく、1630年(寛永7)に林羅山の上野忍岡の學塾に孔子廟を寄進したが、實はこれに先立つ1626年(寛永3)すでに、名古屋城内に孔子廟を營んでいた。

尾張藩における本格的な藩學は1783年(天明3)に開校した明倫堂である<sup>24)</sup>。この時、初代督學(校長)となった細井平洲(ほそい・へいしゅう)は、尾張の農家の次男で、長崎で中國語を學んだ後、1745年(延享2)に江戸で私塾、嚶鳴館(おうめいかん)を開いて身分を問わず教えた。その學問は朱子學、古學<sup>25)</sup>のいづれにも偏らない、いわゆる折衷學派に屬するとされる。

22) 「昌平志」卷二(同文館編輯局編、『日本教育文庫』學校篇, 同文館, 1911年) 84頁。

23) 關山邦宏, 前掲論文を参照。

24) 1749年(寛延2)に儒學者、蟹養齋(かに・ようさい)に學問所を開設させ、「明倫堂」の名を與えている。ただしこの時は、經營困難で閉校に追い込まれている。

25) 古學は宋明理學の解釋を排して直接『論語』『孟子』を研究してその意義を理解すべきであると考えた學派。

昌平坂學問所より十四年前に創設された明倫堂でも、寛政異學の禁の影響は免れなかった。1792年(寛政4)以降、岡田新川(おかだ・しんせん)を督學に迎え、朱子學を講じた。しかしながら、1811年(文化8)、冢田大峯(つかだ・たいほう)が督學に就任するや、事態は一變する。

冢田大峯は信濃(現在の長野縣)の儒醫の家に生まれた。名は虎、通稱は多門。はじめ朱子學を學ぶも、江戸で細井平洲の助講となり、古學に轉向。1785年(天明5)に江戸に雄風館という家塾を開いた。その學問は細井平洲と同じく折衷學派に屬する。

大峯は寛政異學の禁に強硬に反對する寛政の五鬼と稱された五名の學者の筆頭であった。大峯は尾張藩主宛に一通、松平定信宛に二通、合計三通の意見書を提出して反對意見を述べた。その主張の重點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る。

學問には元來流派はなく、堯舜三代の道を本とし、聖人孔子の教法によって、人々に孝悌忠信仁義を導き、天下國家を治めること以外の教えはない。人に好みの違いがあるように、學問も朱子學に限定する必要はなく、人々の好みに任せて、修業させればよろしい。忠孝仁義の道に導き、人材を教育する學問であれば、學派に關係なく、自由に學べるようにすればよろしい<sup>26)</sup>。

大峯は、學問の目的は孔子の教育方法によって、孝悌忠信仁義という人倫道徳を身につけ、天下國家を治めることにありとし、この目的に到達できるなら、手段である學派は問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する。ことさら朱子學を否定するのではなく、學問の自由を要求したのである。結局、大峯の意見は却下され、異學の禁が撤回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が、この意見書には大峯の學問觀がよく窺える。

26) 冢田大峯, 「大峯意見書第二」(關義一郎編, 『日本儒林叢書』第三冊史傳書簡部「寛政異學禁關係文書」, 東洋國書刊行會, 1928年)を参照。

## 5) 冢田大峯の明倫堂改革

大峯は明倫堂督學に就任すると、1812年(文化9)正月に、「戒約」「讀書次第」等を示して、その教育方針を明らかにした。

「戒約」では、學問の目的が、孝悌忠信の儒教倫理を根本とする官吏の育成にあることを述べる。そのために、『孝經』『論語』等をはじめとする儒學書を研究する「本業」(基本學問)、史書・諸子から現實社會を知る「助業」(補助學問)に努めるのだとする<sup>27)</sup>。

次いで、「讀書次第」では具体的にテキストを明示して、その學習目的を述べる。最初に、必ず日課として熟讀して研究し盡すべき十三書を指定する。すなわち、1『孝經』2『六記』<sup>28)</sup>3『論語』4『孔子家語』5『孔叢子』6『毛詩』7『尚書』8『周易』9『禮記』10『春秋經傳』11『國語』12『孟子』13『荀子』(數字は筆者が便宜的につけた。)の十三書である。

次に参考すべき經書として『周禮』『儀禮』『公羊傳』『穀梁傳』の四書を挙げる。以上十七書の學習、研究が「本業」である。

つぎに助業として諸子、史書を列挙する。『管子』『晏子』『老子』『列子』『莊子』は、参考にすべき「古訓」が豊富で、絶對讀むべきとする。『戰國策』『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晉書』以下の歴史書は、順次通覽すれば人物批評を行い、歴史の流れを理解できる。

戰國以降諸子百家の書は、通讀すれば知識を豊富にし、道義・得失を辨えることができる。日本の『六國史』以下の歴史書もまた、通覽すれば日本の歴史を概観できる。ここに挙げた以外の國內のあらゆる書はどれも讀むべきである。

以上が助業(補助學問)である<sup>29)</sup>。

27) 冢田多門(大峯)「戒約」(『日本教育文庫』學校篇、明倫堂規則)189頁を参照

28) 『六記』は『禮記』中の「學記」「表記」「坊記」「緇衣」「中庸」「大學」の六篇を抜粋したもの。

29) 冢田多門(大峯)「讀書次第」(『日本教育文庫』學校篇、明倫堂規則)192-193頁を参照

冢田大峯には元來、多くの著作があった。その中から儒學書に對する注釋書と關連書を列擧しよう。(數字は明倫堂讀書次第の日課必修指定の十三書につけた數字と對應する。)

- 1 冢註孝經一卷(1778年(安永7))
- 2 冢註六記六卷(1787年(天明7))  
冢註中庸一卷(1777年(安永6))
- 3 冢註論語十卷(1784年(天明4))  
論語羣疑考(1814年(文化11))
- 4 冢註家語十卷(1792年(寛政4))
- 5 冢註孔叢子十卷(1795年(寛政7))
- 6 冢註毛詩二十卷(1801年(享和1))
- 7 尚書補註(1798年(寛政10))  
古文尚書補註十三卷(1801年(寛政13))
- 8 冢註周易八卷(1803年(享和3))
- 10 増註春秋左氏傳(1807年(文化4))
- 11 國語增註(1801年(享和1))
- 12 荀子斷(1795年(寛政7))
- 13 孟子斷(1795年(寛政7))

(關連書)

- 荀子正文二十卷(1806年(文化3))
- 古文孝經和字訓(1824年(天明8))
- 戰國策略註(1803年(享和3))
- 冢註老子上下卷(1803年(享和3))

大峯は明倫堂督學に就任する1811年(文化8)までに、明倫堂規則讀書次第の必讀書とされた書籍13種類のうち、實に12種類のもの注釋書を上梓していた。恐らくは、それらはすでに江戸の私塾、雄風館で實際に使用していたであろう。すなわち、大峯は江戸の自分の私塾でのシステムをそのまま尾張明倫堂

に持ち込んだのである。

#### IV. 江戸儒學と社會—『孔子家語』を通しての考察

##### 1. 『孔子家語』略説

大峯が明倫堂に導入した課程で注目すべきは、『孔子家語』を必修の日課にリストアップしていたことである。

周知の通り、『孔子家語』は魏の王肅の偽作説があり、清朝半ば以降、慎重に扱われていた書籍である。しかしながら、前近代における東アジア世界で、『孔子家語』は實によく讀まれた書籍だった。日本も例外ではなく、奈良・平安時代、鎌倉・室町時代、伏見桃山・江戸時代を通じて大變人気があった。

##### 1) 『孔子家語』と王肅偽作説

ただし、周知の通り、『孔子家語』にはいくつか問題がある。最大の問題は偽作説である。現在通行の『孔子家語』は、三國魏の王肅の注がついた王肅本である。この通行本が王肅の偽作であると言うのである。

また、テキストの流傳の問題も複雑である。『孔子家語』の成立とその流傳については、一説に次のように言われる。

孔子の死後、當時の支配層や高弟達が記録した孔子の言行録があり、その中から最重要なものを取り出したのが『論語』で、残ったものをまとめたのが『孔子家語』である。その後、秦の始皇帝の焚書を免れ、漢王朝に傳わったが、テキストの混亂が激しかったため、孔安國が整理して四十四篇とした。さらに劉向の校定を受け、『禮記』と重複する篇が除かれた<sup>30)</sup>。

これが『漢書』藝文志・六藝略・論語類に著録された『孔子家語』二十七卷である。

三國時代に魏の王肅が孔子の子孫の孔猛から家傳の『孔子家語』を提供され、自注を加えて公開した。これが四十四篇の王肅本といわれるものである。

王肅本は、宋代に刊本が作られたが、その後、姿を消した。かわって通行したのは王廣謀本である。これは元代に王肅本の本文をダイジェストし、標題(小見出し)・音注・校勘を付したものである。元の時代の風潮にあったのか、王廣謀本は広く普及し、逆に王肅本は姿を消してしまった。

明代前半の何孟春はこれを嘆き、宋版の『孔子家語』の復元を試みたが、結局現物を見ないまま想像に頼って八卷四十四篇の何孟春本を制作した。その後、明代後半の著名な出版業者の毛晉が奇跡的に宋版『孔子家語』を発見し、覆刻した。これが汲古閣本である。

王肅偽作説は、王肅が反鄭玄の旗幟を鮮明にし、『孔子家語』をその有力な武器としたため、信憑性を増した。確かに漢代に『孔子家語』の名は聞かなかったのに、魏になってから突如として出現し、しかも王肅の反鄭玄の學説を根拠づける記述に満ちている<sup>31)</sup>。あまりにも王肅に都合が良すぎるのである。魏晉時代に端を發した王肅偽作説は、南北朝・隋唐時代に勢力を増し、宋代に理論化された。そして清朝に至り、考證學(考據學)の親鄭玄・反王肅の風潮のせいで、王肅偽作説はもはや定説となり、その影響力は20世紀にまで及んだのである<sup>32)</sup>。

このように『孔子家語』は、原本は失われ、次善の版本である王肅本は偽作疑惑がつきまとい、しかも一度はまったく姿を消しているのである。まことに厄介な書籍と言わざるを得ない。王肅の潔白は到底信じられないし、毛晉の版本も胡散臭さが皆無とは言えない。そうだからと言って、それが本當に、『論

30) 『孔子家語』後序による。

31) 王肅が、『孔子家語』を用いて、鄭玄説を批判し、自説を展開した例は、拙著、『中國明堂思想研究 王朝をささえるコスモロジー』(東京：岩波書店、2018年)、78-83頁を参照。

32) 『孔子家語』王肅偽作説については、拙稿、『『孔子家語』の流傳と評價との再検討』(『九州中國學會報』51, 九州中國學會、2013年)を参照。



語』と同根の孔子の言行録を含んでいるとすれば、捨て去るのは甚だ惜しいのである。

## 2) 日本における『孔子家語』

日本においては少々事情が異なる。『孔子家語』は奈良時代・平安時代には日本に傳わり、讀ま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sup>33)</sup>。降って室町時代の1515年(永正12)には、上杉憲房(のりふさ)(憲實の孫)が足利學校に『孔子家語』の寫本を寄進している<sup>34)</sup>。安土桃山時代末期に、足利學校から庠主、元佶を招き、京都伏見で徳川家康が活字によって出版させた伏見版の開版第一號は『孔子家語』だった。

さて、江戸時代に入ってから、元和版(げんなぼん)等の『孔子家語』が各種、刊行されたが、ここで底本に大きな變化が起きたのである。すなわち、上杉憲房寄進足利學校藏寫本、伏見版の底本がいずれも王廣謀本だったのに対し、元和版をはじめとする江戸時代の版本の底本は王肅本だったのである。

前述の通り、『孔子家語』は中國では元代から明代前半までは王廣謀本が主流で、毛晉汲古閣本が登場してからは王肅本が普及した。

では日本の底本の變化は中國のそれを反映しているのかと言えば、實はそうではない。日本の王廣謀本の底本は室町時代に傳來した元版覆刻朝鮮古刊本であり、王肅本の底本はそれよりも古く傳來し、代々受け継がれた宋刻本だったと推定されるのである<sup>35)</sup>。

足利學校第九代庠主、元佶は、戦國の世と足利學校の救世主として現れた

33) 日本における、『孔子家語』受容については、拙稿、「日本に於ける『孔子家語』の受容：徳川時代を中心として」(『日本中國學會報』65, 日本中國學會, 2013年)を参照。

34) この『孔子家語』は、『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六卷全二冊)だった。川瀬一馬前掲書44頁、及び足利學校遺蹟圖書館『足利學校珍書目録』(栃木縣足利町, 足利學校遺蹟圖書館, 1911年)35頁を参照。

35) 山城喜憲, 「知見孔子家語諸本提要(一)」(『斯道文庫論集』21,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1984年) 191頁を参照。

家康の恩に報いるため、下賜された活字で最初に『孔子家語』を刊行した。それはこの書が「聖人奥義、治世要文」、つまり孔子の奥義であるところの國家支配の要點を述べた書籍であり、世に大きな裨益となるからである<sup>36)</sup>。

すなわち、伏見版の刊行の目的は、太平の世を開くために必要な聖賢の要訣が満載された書籍を家康に提供することにあった。そして『孔子家語』がその第一號に選ばれたのは、「聖人奥義」「治世要文」を伝える書籍と看做されたからなのである。

## 2. 江戸中期の社會と『孔子家語』

### 1) 岡白駒の『補註孔子家語』

1638年(寛永15)、元和版を底本に整版によって覆刻した寛永本が出版された。この本は日本獨特の訓點が施され、『孔子家語』をより身近なものにした。

1741年(寛保1)、岡白駒(おか・はっく)が『補註孔子家語』を出版した。これは元和版、寛永版をもとに校勘作業を行なって定本を作成し、王肅本四十四篇の本文と王肅注の全て、及び白駒の補註を収めたものである。

『孔子家語』の價值について白駒は、「六經以外では、幸いに『孔子家語』が現存している。熱心な學習者にとっては實に、古學の籛羊である。」<sup>37)</sup>と述べる。「古學籛羊」とは孔子の時代の學問を今に伝える貴重な書籍との意味であろう。

岡白駒の『補註孔子家語』は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が、實際のところ、學問的に獨創性があるわけではない<sup>38)</sup>。學問的、政治的に注目すべきは、翌1742年

36) 三要素元信、「『標題句解孔子家語』跋」(元)王廣謀『標題句解孔子家語』、京都、慈眼活字印、1599年)を参照。

37) 岡白駒、「『補註孔子家語』序」(岡白駒『補註孔子家語』、京都：風月堂、1741年)。

38) 岡白駒の學問とその『補註孔子家語』との評價については、拙稿「日本に於ける『孔子家語』の受容：徳川時代を中心として」を参照。

(寛保2)に出版された太宰春臺(だざい・しゅんだい)の『増註孔子家語』である。

## 2) 太宰春臺の『増註孔子家語』

太宰春臺は父の言辰(のぶとき)が『孔子家語』を愛讀していた影響を受け、幼時より『孔子家語』に親しんだ。古學の有力學派、古文辭學派の荻生徂徠(おぎゅう・そらい)の門下に學び、學問面での後繼者に目された。師の徂徠は『孔子家語』に對しては、あまり關心を示さなかったが、春臺は孔子の直弟子が傳えた書籍であると認識していた。そこで『増註孔子家語』を著し、自己の私塾、紫芝園(ししえん)での會讀(少人數で原書を読み討論する形式の授業)のテキストに用いた<sup>39)</sup>。

さて、春臺によれば、『家語』(原『孔子家語』)と名付けられた、孔子の弟子がまとめた、孔子の言語・行事及び弟子たちとの對話、議論の記録があったが、その中の純粹正實な部分を抽出して文章を整えたものが『論語』である。『孔子家語』は孔子の肉聲を傳え、『論語』を補完し、禮樂復興に貢獻する重要な書籍なのである<sup>40)</sup>。孔子は五經の成立に深く関わったが、それは天が孔子に下した天命に對する回答だったのであり、弟子との問答の内容は、「『六經』之奧義、聖人之祕旨」に他ならない。それを弟子が記録して傳承した書籍が、『孝經』、『論語』、『孔子家語』なのである<sup>41)</sup>。

江戸時代中期から後期にかけての儒學者、千葉芸閣(ちば・うんかく)は1789年(寛政1)に、春臺の『増註孔子家語』に自己の注釋を加えた『箋注孔子家語』を出版し、その自序の中で、「王侯・貴人・大夫・庶土」が『孔子家語』を朝夕誦

39) 山城喜憲、「知見孔子家語諸本提要(二)」(『斯道文庫論集』22、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1987年) 32頁 所引「寛保三年十一月五日大宰伴十郎宛書簡」を参照。

40) 太宰純、「『増註孔子家語』序」を参照。

41) 太宰純、「『論語古訓』序」(太宰純、『論語古訓』、江戸：崇山房、1792年再版(初版1739年))を参照。

習して「綱紀」、つまり國家支配の根本原理を獲得すれば、人倫道德ばかりではなく、社會生活全般に通じ、天下萬民は心服する、と述べた<sup>42)</sup>。

ここには二つの認識がある。すなわち、まず『孔子家語』を読む目的はそこに書かれている國家支配の根本原理を習得することである。つぎに、『孔子家語』の讀者として想定されているのが「王侯・貴人・大夫・庶士」、日本風に言えば、上は徳川將軍・諸大名・上級武士・下級武士に至るまでの武士階級に限定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大前提として江戸時代においては、國家支配に携わる権利があるのは武士だけなので、それゆえに武士は皆すべからく『孔子家語』を熱心に読み、國家支配に活用すべし、と言うのである。

同様の認識は、芸閣の弟子で幕府家臣である鹽野光迪(しおの・みつてる)も抱いていた。光迪は、1789年(寛政1)秋に書いた「標箋孔子家語跋」の中で、「王侯・卿・大夫」は『孔子家語』を披閲して孔子の言葉を信奉し、徳治・文治の要諦を學んで國力を充實させ、國家を安泰に導かねばならない、と言う<sup>43)</sup>。

前項で見たように、慶長年間、元佶は『孔子家語』が「聖人奥義」「治世要文」であると言明した。江戸中期に太宰春臺は、『孔子家語』は『六經』之奥義、聖人之祕旨」すなわち孔子の道を伝える書籍の一つに他ならないと信じた。江戸中期から後期にさしかかる頃、千葉芸閣、鹽野光迪は、武士階級は國家支配に関わる資格と責任とを有し、それゆえに『孔子家語』に込められた「綱紀」、天下國家に有益な「治道」を修得して實踐せねばならないと述べた。

ここには、『孔子家語』は國家支配の奥義書であり、為政者たる武士の必讀書であるとの共通認識がある。元佶が室町時代以來の傳統を誇る武士の學校、足利學校庠主であることを考慮に入れば、日本において武士が權力を握り、熾烈な生存競争を繰り広げた戦國時代を経て、百年を過ぎる頃までは、日本社會における『孔子家語』に對するこの認識は一貫していたと言えるであろう。

42) 千葉芸閣、「標箋孔子家語」序(千葉芸閣『標箋孔子家語』、江戸：崇山房、1789年)を参照

43) 鹽野光迪、「標箋孔子家語」跋(『標箋孔子家語』卷末)を参照

しかしながら、江戸後期に至り、天下泰平の世が百年を超えて續くようになり、戦國時代以來の緊張感が途切れた時、この認識に微妙な變化が訪れる。

### 3. 江戸後期の社會と『孔子家語』

#### 1) 冢田大峯の『冢註孔子家語』

大峯の『冢註孔子家語』は1792年(寛政4)に出版された。その序の中で大峯は自己が『孔子家語』の熱心な讀者であったこと、『孔子家語』が『論語』と對偶をなすことを述べる。しかしながら、前時代の春臺や芸閣、光迪のように、『孔子家語』が國家支配の奥義であり、為政者たる武士が讀むべきであるなどとは、聲高には説かない。

確かに大峯は、學問の目的は孔子の教育方法によって、孝悌忠信仁義という人倫道德を導き、天下國家を治めることにある(「大峯意見書第二」とする。しかし同時に、明倫堂督學就任時に示した「戒約」では、學問の目的が、孝悌忠信の儒教倫理を根本とする官吏の育成にあることを述べた。

この二つの學問觀は一見、矛盾するようだが、天下國家の支配は究極の目的であり、模範的官吏となることはその途上にある中間の目的と考えれば矛盾はない。『孔子家語』は國家支配の奥義であるが、官吏の奥義でもあるのだ。實際、大峯は官吏の心得として『孔子家語』の中から入官篇を取り出して、五十四丁にわたって入念に解説している。

『入官第一義』と題されたこの書籍は、『孔子家語』(入官篇)や『大戴禮記』(子張問入官篇)に記載された、仕官する人のために孔子が述べた官職在職中の人民支配理念であり、「士」が第一に修得すべき道理である。大峯は、聖人の政治の道に關心のある「大夫士」に官職に就く心得を求められて、これを日本語で解説したのである<sup>44)</sup>。

この書は刊行年がないが、卷末に付された「雄風館著書目録」等から推定す

ると、1803年から1807年までの間に出版された可能性が高い。この間はまだ明倫堂督學就任前で、江戸の私塾、雄風館で子弟の教育を行っていた。とはいえ1781年(天明1)に尾張藩藩主宗睦(むねちか)の侍講となり、それ以来尾張藩と密接な関係を築いていたから、大峯が『入官第一義』を書いて與えた「大夫士」は、雄風館に出入りしていた武士でなければ、藩主近習の尾張藩士だったと考えられる。

『孔子家語』入官篇、『大戴禮記』子張問入官篇は<sup>45)</sup>、孔子が弟子の子張が入官(仕官)について質問してきたのに對し、官吏がどう人民に對應すべきかを懇切丁寧な語った教えである。

大峯が督學に就任して後、明倫堂の學風は一新した。前述の通り、明倫堂の教育課程は大峯が定めた「戒約」「讀書次第」に明示された。1822年(文政5)頃には、典籍(學生への講釋、書籍管理系の儒者)が會讀のために管理する書籍の貸し出し規則が定められた。そこからは次のような明倫堂での學問の詳細が窺える。

講堂には「讀書次第」が掲示された。

本業の十三書は素讀を行う。それが終われば他の雜書の借り出しが出来る。

本業の經傳すべて、助業の中の『史記』『漢書』までを通覽する。それが終われば通俗物の雜書の借り出しが出来る<sup>46)</sup>。

明倫堂の教育課程では日課必讀とした十三書には自註を用いて教えたのが特徴である<sup>47)</sup>。この改革の効果は大きく、前任二名の朱子學者督學時代は30~40

44) 冢田大峯, 『「入官第一義」序』(冢田大峯述, 『「入官第一義」, 江戸: 雄風館藏), 刊行年不明を參照

45) 高瀨代次郎, 『冢田大峯』(東京: 光風館, 大正8年)「五十 明倫堂の改革」「五十七 明倫堂の中興」を參照

46) 文部省編, 『日本教育史資料』(文部省大臣官房報告課, 1892年)六卷十八 諸藩ノ部, 古記録, 舊名古屋藩, 226頁を參照

47) 高瀨代次郎, 前掲書「五〇 明倫堂の改革」を參照

名に減じていた學生數は、最盛期200名を數えるまでになった<sup>48)</sup>。

## V. 結語

### 藩學と儒學

近世東アジア世界の普遍的現象である書院の發達は、日本においては江戸時代の藩學、私塾の普及という形で現れた。

藩學は、藩の家臣の子弟教育のために建てられた。彼らはいうまでもなく武士であった。武士は本来、戦場で果たす役割に最大の価値を見出したが、江戸時代の武士には平時の為政者(支配階級)の役割を期待されたのである。

武士が何故に支配階級であるのか、江戸時代に武士であること存在理由は何か、それが江戸時代の武士の直面した問題だったであろう。だとすれば、武士が他の階級を支配する理由を教えること、あるいは為政者としての理想像を提示することこそが、まさに學校が提供すべき教育内容だったはずである。藩學では主に漢學、特に儒學を教育した。それは儒學にこそ為政者としての理想像があったからである。

しかしながら、武士にとって儒學が最初から、為政者としての自覚を促すための學問だったわけではない。それは足利學校の教育理念と教育内容から理解されよう。

### 足利學校と社會

鎌倉幕府成立以降、日本は武家社會に突入した。武士はいついかなる時に

---

48) 高瀬代一郎、前掲書「五七 明倫堂の中興」を参照。

死命を決する場面に遭遇するかわからず、運を天に任せる、つまり決断を超自然の力に委ねる傾向にあった。

元來、日本では平安中期以來、人々は陰陽道(おんみょうどう)の影響下にあり、各種占術に依存する傾向が強かった<sup>49)</sup>。冠婚葬祭は言うに及ばず、一切の日常生活はすべて占筮を参考にしたとされ、武士も例外ではなかった<sup>50)</sup>。

武家社會において占筮の需要は著しく高かったのである。一方、『周易』は足利學校以外では容易に學ぶことができなかつた<sup>51)</sup>。このため、足利學校は不動の地位を確立していたのである。

足利學校が『孔子家語』を所藏し、出版したことは注目に値する。それが江戸時代を開き、その時代を通じて多大な影響を与えた人物である徳川家康が愛讀した書籍だったからである。家康やその意を受けて『孔子家語』を出版した元佶らは、この書籍は孔子の奥義であるところの國家支配の要點を述べた書籍である、と認識していた。

### 江戸儒學と武士

このような、孔子が國家統治の奥義を知っており、儒學はそれを學ぶものという觀念は江戸時代になってからも引き繼がれ、太宰春臺、千葉芸閣、塩野光迪の『孔子家語』の序・跋から窺えるように、江戸時代中期ごろまでは明確に意識されていた。

ところが、太平が永續的になるにつれ、次第にこの觀念は平時の思想に轉化した。

49) 陰陽道とは中國の陰陽五行思想を基盤にして、日本獨自に發達した思想・信仰であり、易の思想と結びついて、天文・曆數・龜卜・占筮等の方術に展開した。

50) 川瀨一馬、前掲書191頁を参照。

51) 川本慎自、『中世禪宗の儒學學習と科學知識』(京都:思文閣出版、2021年)109頁を参照。



寛政異學の禁が発令されると、昌平坂學問所を發信地にして、各地の藩學、私塾にいたるまで「白鹿洞書院揭示」を尊重したことが象徴するように、朱子學的な人倫思想が広く普及した。もっとも、「白鹿洞書院揭示」が日本で重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寛政異學の禁よりもずっと前からのことである。日本人の機微に合い、また太平の世に相應しい教えだったからであろう。

この新たな思潮が如何に強力だったかは、冢田大峯の儒學思想から窺える。大峯は、儒學の目的は孝悌忠信の儒教倫理を根本とする官吏の育成にあることと述べた。大峯は寛政異學の禁に強硬に反対し、朱子學獨尊を拒否したが、朱子學に通じる思想を抱いていたのである。

江戸儒學は武士が擔い手であり、享受者であった。武士にとって儒學は國家統治の原理であり、人倫道德の陶冶と社會的實踐の教學であった。武家社會の成立からしばらくの間は、前者に重點が置かれていたが、社會が平和を謳歌するようになると、學校の教育を通じて、次第に重點は後者に移るようになった。意圖的か否かは別として、それは東アジア世界で朱子學が受け入れられていった状況と軌を一にする。

書院を通じて朱子學的價值觀が社會に浸透するという、東アジア世界に普遍的な現象を江戸時代の日本も共有していたのであり、それは武士の書院において準備されたのである。

【參考文獻】

- 犬塚遜, 「昌平志」卷二, 同文館編輯局『日本教育文庫』學校篇, 東京:同文館, 1911年
- 岡白駒, 「『補註孔子家語』序」, 岡白駒『補註孔子家語』, 京都:風月堂, 1741年
- 三要元佑, 「『標箋句解孔子家語』跋」, (元)王廣謀『標箋句解孔子家語』, 京都:慈眼活字印, 1599年
- 鹽野光迪, 「『標箋孔子家語』跋」, 千葉芸閣『標箋孔子家語』, 江戸:崇山房, 1789年
- 神宮司庁古事類苑出版事務所, 『古事類苑』文學部, 洋卷第2卷, 東京:神宮司庁, 1896-1914年
- 太宰純, 「『増註孔子家語』序」, 太宰純『増註孔子家語』, 江戸:崇山房, 1742年
- 太宰純, 「『論語古訓』序」, 太宰純『論語古訓』, 江戸:崇山房, 1739年
- 千葉芸閣, 「『標箋孔子家語』序」, 千葉芸閣『標箋孔子家語』, 江戸:崇山房, 1789年
- 冢田大峯, 「戒約」, 同文館編輯局, 『日本教育文庫』學校篇, 東京:同文館, 1911年
- 冢田大峯, 「大峯意見書第二」, 關義一郎編, 『日本儒林叢書』第三册史傳書簡部「寛政異學禁關係文書」, 東京:東洋圖書刊行會, 1928年
- 冢田大峯, 「『入官第一義』序」, 冢田大峯『入官第一義』, 江戸:雄風館, 刊行年不明
- フロイス, 『日本史』2, 東京:平凡社, 1965年
- [北宋]歐陽脩等, 『新唐書』, 北京:中華書局, 1975年
- [東周]穀梁赤, 『春秋穀梁傳』,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 北京:中華書局, 1980年
- [前漢]班固, 『漢書』, 北京:中華書局, 1962年
- [清]彭定求等, 『全唐詩』, 北京:中華書局, 1960年
- 足利學校遺蹟圖書館, 『足利學校珍書目録』, 栃木縣足利町:足利學校遺蹟圖書館, 1911年
- 吾妻重二, 「東アジアの書院について—研究の視角と展望—」,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別冊2, 2008年
- 川瀬一馬, 『増補新訂 足利學校の研究』新装版, 東京:吉川弘文館, 2015年
- 川本眞白, 『中世禪宗の儒學學習と科學知識』, 京都:思文閣出版, 2021年
- 關山邦宏, 「『白鹿洞書院揭示』の諸藩校への定着とその實態」, 『教育研究』21, 1977年
- 高瀬次郎, 『冢田大峯』, 東京:光風館, 1919年

難波征男, 「“日本書院”的研究現状與課題」, 『湖南大學報(社會科學版)』 21-3, 2007年  
堀勇雄, 『林羅山』, 東京: 吉川弘文館, 1990年.

南澤良彦, 「《說文解字》在日本」, 『許慎文化研究(二): 第二屆許慎文化國際研討會論文集, 第2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年.

南澤良彦, 『中國明堂思想研究 王朝をささえるコスモロジー』, 東京: 岩波書店, 2018年.

南澤良彦, 「『孔子家語』の流傳と評賈との再検討」, 『九州中國學會報』 51, 2013年

南澤良彦, 「日本に於ける『孔子家語』の受容—徳川時代を中心として—」, 『日本中國學會報』 65, 2013年.

Minamizawa Yoshihiko and Chien Iching,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onfucian Academies and the Mingtang in the Tang Period, V.Glomb, E.J. Lee& M. Gehlmann ed.,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 2020

山城喜憲, 「知見孔子家語諸本提要(一)」, 『斯道文庫論集』 21, 1984年.

山城喜憲, 「知見孔子家語諸本提要(二)」, 『斯道文庫論集』 22, 1987年.

Abstract

**Confucian Studies in the Edo Period and Society**  
: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 Academies for Warriors  
and the Kongzi Jiayu

Minamizawa Yoshihiko\*·Chien Iching\*\*

During the Edo period Japan was a status-based feudal society, and civil service examinations were not used for appointing officials, as official posts were basically hereditary. Warriors, who made up the ruling class standing at the pinnacle of the pyramid structure of Japan's status-based society, had no need to sit any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yet they still received a Confucian education. Why would this have been so? Schools that provided instruction in Confucian studies during the Edo period were not called shoin (Ch. shuyuan) 書院, or Confucian academies, but nonetheless they provided various functions such as lectures, libraries, and religious ceremonies and were, practically speaking, no different from shuyuan. Edo-period Confucian studies occupy a quite important position when considering shuyuan in East Asia and Confucian studies in East Asia. The growth of Confucian studies in the Edo period and contemporary social trends were closely interconnected. This article examines schools that provided instruction in Confucian studies, the academic tendencies of Confucian scholars, teaching materials, school

---

\* Lead author : Minamizawa Yoshihiko, Professor, Chinese Philosophy at Kyushu University / nanze@lit.kyushu-u.ac.jp

\*\* Co-author : Chien Iching, A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Philosophy Faculty of Humanities, Kyushu University

regulations, and so on. The schools that provided instruction in Confucian studies during the Edo period did not just serve as Confucian academies for warriors, and they also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on society. In reality, Confucian scholars of the Edo period were by no means solely preoccupied with the Neo-Confucianism of Zhuzi's 朱子 school, and the Kongzi jiyu 孔子家語, too, was attracting the attention of Confucian scholars and warriors at the time. Because this work had been a favourite book of Tokugawa Ieyasu 徳川家康, it also found favour among warriors. What was the value of the Kongzi jiyu? And how did scholars evaluate it? By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article examines changes in Edo-period Confucian studies and the core that underpinned warrior society. In addition, it is also hoped that it will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study of shuyuan in East Asia and make a small contribution to it.

Key word : Edo-period Confucian studies, society, warriors, domonial schools, Confucian academies for warriors, Ashikaga School, Tsukada Taihō, Kongzi jiyu

논문 투고일: 2022. 11. 21 심사 완료일: 2022. 12. 15 게재 확정일: 2022. 12. 20



- 후보





## 1. 주요 연혁

2022. 09. 17 : 9월 월례발표회(오프라인, 온라인 이원화)

2022. 11. 18 : 2022년 한국서원학회 특별기획 학술대회

## 2. 활동

### ■ 9월 월례발표회(2022. 09. 17)

발표 ① 조선후기 四忠書院의 건립과 운영(이경동, 공주대)

토론자 : 이병유(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② 조선후기 不待狀論議의 양상(김현지, 경북대)

토론자 : 김의환(충북대)

### ■ 2022년 한국서원학회 특별기획 학술대회(2022. 11. 18)

[호계서원과 퇴계학파]

#### · 발표

발표 ① 호계서원의 강학 활동과 학풍(정재훈, 경북대)

발표 ②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우인수, 경북대)

발표 ③ 호계서원의 지식문화 인프라: 지식의 생산과 보급(김소희, 한중연)

#### · 종합토론

좌장 : 한형조(한중연)

토론 : 권오영(한중연), 이수환(영남대), 김언중(고려대)

### 3.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1) 6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일시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13~15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 안건
  - (1) 하반기 연구발표회 및 주요 행사 일정 확인
  - (2) 국제 학술대회 관련 현지 상황 점검 및 논의
  - (3) 한국서원학보 14호 투고현황 및 심사결과 보고

#### 2) 7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일시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13~15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 안건
  - (1) 9월 월례학술발표회 기획 논의
  - (2) 한국서원학보 14호 발행 부수 보고 및 현황 보고

#### 3) 8월 임원회의 및 답사

- 일시 : 2022년 8월 5일 금요일 9~18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 안건
  - (1) 11월 기획 학술대회 발표 내용 관련 논의
  - (2) 11월 기획 학술대회 관련 안동 일대 답사

#### 4) 8월 임원회의

- 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13~15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 안건
  - (1) 국제 학술대회 연구발표 및 원고 요청서 구성 관련 논의
  - (2) 9월 월례발표회 연구자 및 토론자 확정 및 발표회 기획 논의
  
- 5) 9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일시 :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13~15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 안건
    - (1) 국제 학술대회 국외 및 국내 연구자 회신 상황 점검
    - (2) 국제 학술대회 연구자 관련 변동 사항 논의 및 확정
    - (3) 9월 월례발표회 연구자 논문 한국서원학보 15호 투고 권유
  
- 6) 12월 편집회의
  - 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13~15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 안건
    - (1) 늦게 투고된 논문 심사 관련 논의
    - (2) 투고논문 심사 현황 보고 및 기획논문 관련 논의

## 회 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이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



- 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 제3장 재정

-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 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

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sup>1</sup>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가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 관계인[미성년자·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만 투고를 인정한다. <개정 2021.3.15.>

###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 <개정 2018.12.15.>

####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개정 2018.12.15.>

####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준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4) 온라인 투고시 시스템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동의>에 서명하면,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5>

5) 공동논문의 경우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논문접수신청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3.15>

#### 제11조(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 배제 요청)

논문 투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개정 2021.3.15>

- ① 논문 투고자는 특정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 요청시 그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시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단, 사유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요청인의 성명, 소속 및 배제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고,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인물의 배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3자를 논문 심사자로 선정한다.

#### 부 칙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과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

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瑱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sup>1)</sup>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sup>2)</sup>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41~42쪽.

정만조, 앞의 책, 2012, 22쪽.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17쪽.

정순우, 앞의 논문, 2013a, 213쪽.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7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150~153쪽.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 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③ 주저자는 논문 투고시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논문에서의 역할, 기여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신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경우 19세를 초과한 성인이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21.3.15.>

####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광고)

표절 및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7기 임원명단(2022.3~2024.2)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수환  
회 장 : 김학수(한중연)  
부 회 장 : 이근호(충남대)  
총무이사 : 정수환(한중연)  
편집이사 : 김정운(경북대)  
재무이사 : 윤혜민(건국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한국국학진흥원),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욱(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부산기독교대), 김대식(경인교육대),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최석기(경상대), 배창현(울산대),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이창일(한국학중앙연구원), 신채용(국민대), 이치역(공주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식(송실대), 백광렬(서울대), 신정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김연수(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이사 : 이병훈(영남대), 김자운(공주대),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채광수(영남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왕무(경기대), 김수경(상지대) / 전라·제주 김봉근(원광대), 박정민(전북대) / 경상 정재훈(경북대), 이남옥(한국국학진흥원) / 충청 김의환(충북대),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보이사 : 김순한(영남대)  
총무간사 : 이선영(한중연)

##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근호(역사, 충남대)  
편집위원 : 등홍파(역사, 중국 호남대), 정수환(역사, 한중연), 정우락(문학, 경북대), 한형조(철학, 한중연), 조준호(역사, 경기도박물관), 정재훈(역사, 경북대), 이강석(문학, 충북대), 이치역(철학, 공주대), 김자운(교육사, 공주대), 김봉근(역사, 원광대)  
편집간사 : 김윤희(한중연)

중신회원(2006~2022)

강대걸, 권오영, 김덕현, 김문택, 김순환, 김정자, 김의환, 김자운, 김학수, 박종배,  
안상천, 이병갑, 이병훈, 이상해, 이수환, 이우진, 이해준, 정만조, 정수환, 정순우,  
조준호

韓國書院學報 제15호

값 30,000원

인쇄일 2022년 12월 27일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학수  
발행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전화 031-730-8840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김학수(한국서원학회)  
KB국민은행 673601-04-074420  
제작 도서출판 온샘(02-6338-1608)

ISSN 2234-8603